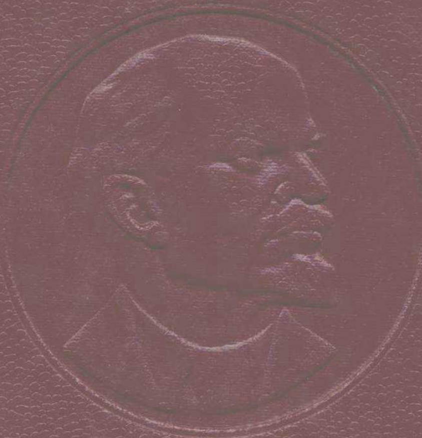


레닌선집

레닌선집

4

(2)

민족출판사

무산계급문화에 대하여

《소식》지[107] 10월 8일호를 보면 루나차르스끼동지는 무산계급문화협회대회에서 어제 우리들이 약속한것과는 **정반대되는것**을 말하였다[108].

결정서초안(무산계급문화협회대회의)을 급히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다음 무산계급문화협회의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중으로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교육인민위원부의 협의회에서도 무산계급문화협회대회에서도 채택시켜야 한다. 그것은 대회가 오늘 끝나기때문이다.

결정서초안

1. 쏘베트로농공화국에서의 모든 교육사업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정치교양부문에서나 특수적으로 예술교양부문에서나 다같이 무산계급독재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즉 자산계급을 전복하며 계급을 청산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정신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2. 따라서 무산계급은 자기의 선봉대인 공산당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각종 무산계급조직을 통하여 모든 인민교양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주동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3. 현대력사의 모든 경험, 그리고 특히 《공산당선언》이

나타난 이후의 전 세계 무산계급의 반세기이상에 걸친 혁명투쟁은 오직 맑스주의의 세계관만이 혁명적무산계급의 리해관계, 관점 및 문화를 정확히 표현한다는것을 반박할 여지 없이 확증하였다.

4. 맑스주의는 그것이 결코 자산계급시대의 가장 귀중한 성과를 내던진것이 아니라 반대로 2,000년이상에 걸친 인류 사상과 문화 발전에서의 가치있는 모든것을 섭취하고 개작함으로써 혁명적무산계급의 사상체계로서의 자기의 전 세계사적 의의를 쟁취하였다. 오직 이러한 토대우에서와 이러한 방향에서의 금후사업만이, 온갖 착취를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최후투쟁으로서의 무산계급독재의 실제적경험에 의하여 고무되는 이러한 사업만이 진실로 무산계급적인 문화발전으로 인정될수 있다.

5. 이러한 원칙적견지에 확고히 서서 전로무산계급문화협회대회는 자기의 독특한 문화를 고안해내며 자기의 고립된 조직내에 은거하며 교육인민위원부와 무산계급문화협회의 사업을 갈라놓거나 또는 교육인민위원부의 기관내에서 무산계급문화협회의 《자치》를 설정하려는따위의 온갖 시도들은 리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실천적으로 해로운것으로서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반박한다. 반대로 대회는 무산계급문화협회의 모든 조직들이 자체를 전적으로 교육인민위원부 기관망의 보조기관으로 보며 쏘베트정권(특히 교육인민위원부)과 로씨야공산당의 총적인 지도밑에서 무산계급독재의 과업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 과업을 실현할것을 이 조직들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운다.

* * *

루나차르스끼동지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외곡하였다고 말

하고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결정서는 더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1920년 10월 8일에 집필 원고에 의하여 인쇄

1926년에 처음으로 발표 《레닌전집》, 한문판, 제 31권, 282~283페지

성 및 현 인민교육부 정치교양원 전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20년 11월 3일)

동지들, 몇마디 의견을 말하려 한다. 내가 말하려는 일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정치교양총국 조직문제를 검토할 때 언급된것이고 일부는 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 대한 나의 견해이다. 어제 그 초안은 기본적으로 채택되였다. 그리고 세부에 들어서는 아직 토의하게 될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기관명칭변경에 대하여 처음에는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것을 지적하려는데 그치련다. 내 생각 같아서는 교육인민위원부의 과업은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는것을 도와주는것이다. 나는 쏘베트에서 경험하는 기간에 각종의 명칭에 대하여 아이들 장난감이 대하는데 습관되였다. 하기는 이러저러한 명칭이란 장난감은 성격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지금은 벌써 새로운 명칭, 정치교양총국이란것이 확정되여있다.

이 문제는 확정되였으니 당신들은 나의 견해를 그저 개인의 견해로 간주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만일 명칭변경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환영할수 있을뿐이다.

만일 우리가 문화, 교양 사업에 더 많은 일군들을 인입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때에는 벌써 문제가 명칭변경에만 그치지는 않을것이다. 그때에는 새로운 사업마다 새로운 기관마다

딱지를 붙이려는 《쏘베트적》약점도 용허될수 있을것이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것이다.

동지들을 우리와 함께 공동의 문화교양사업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것은 우리의 정치와 관련한 교양문제이다. 명칭은 필요하다면 그 어떤 내용을 규정할수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양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와 동떨어진 교양이라는 낡은 관점에 설수 없으며 교양사업을 정치밖에 둘수 없기때문이다.

그러한 사상은 지금까지 자산계급사회에서 지배적인것으로 되여있다. 《정치를 떠난》 혹은 《정치를 불문하는》 교양, 그것은 자산계급의 기만이며 그것은 교회의 지배에 의하여, 사적소유 등에 의하여 천대받는 99%의 대중을 기만하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산계급은 지금도 전체 자산계급국가들을 지배하면서 대중에 대하여 이러한 기만을 일삼고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본과 자본의 정치에 더 종속되여있는것이다.

모든 자산계급국가들에서 정치기구와 교양과의 관계는 비록 자산계급사회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비상히 공고한것이다. 동시에 그 사회는 교회를 통하여, 사적소유의 모든 제도를 통하여 대중을 개조하고있다.

우리의 기본과업은 특히 자산계급의 《진리》에 대항하여 우리자신의 진리를 대치시키고 그것을 인정케 하는것이다.

자산계급사회로부터 무산계급정치에로의 이행은 대단히 곤난한것이다. 자산계급이 그의 온갖 선전선동도구들을 통하여 집요하게 우리를 중상하고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자산계급은 무산계급독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무산계급이 주민의 소수를 점하고있는 로씨야에서 특히 중요한 독재의 교양적

과업을 말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이 과업을 첫자리에 놓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대중을 훈련해야 하기때문이다. 만일 무산계급이 자산계급과의 투쟁에 있어서 높은 자각성, 엄격한 규률성, 커다란 헌신성으로 자신을 교양하지 않는다면 다시말하면 무산계급의 본래의 원쑤에 대한 그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체 과업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산계급독재란 운운할수도 없을것이다.

우리는 근로대중이 사회주의사회에 이미 준비되여있다는 따위의 공상적관점을 찬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동자사회주의의 전반 력사의 정확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것, 다만 대공업, 파업투쟁, 정치조직만이 사회주의를 준비한다는것을 알고있다. 때문에 승리를 확보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은 마땅히 공동행동을 취하여 착취자들을 전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산계급은 자기 정권을 장악한 때에 벌써 필요한 능력을 소유하고있었으며 그 능력을 사실로 전화시켰다는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있다.

교양일군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투쟁의 전위대로서의 공산당에게 있어서 기본과업은 낡은 제도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낡은 습관, 낡은 관습,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있는 사유자적 관습과 습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의 교양과 교육을 도와주는것이다. 전체 사회주의혁명의 이 기본과업은 당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그처럼 많은 주의를 돌리는 그 부분적인 문제들을 심의할 때에 결코 등한히 할수 없는 것이다. 정치교양총국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다른 기관들과 통합할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중앙기관뿐만아니라 지방기관들과도 련결할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이미 많은 경험을 소유하였고 그 사업을 특별히 연

구한 동지들이 우리에게 대답할것이다. 나는 다만 문제의 원칙적측면의 몇개 요점만을 강조하려 한다. 우리는 모든 낡은 허위와는 반대로 교양이란 정치와 무관계할수 없다는것을 공공연히 인정하면서 문제를 솔직하게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세계자산계급과 투쟁하는 력사적시기에 살고있다. 이러한 투쟁시기에 우리는 혁명적건설을 고수하여야 하며 자산계급에 대하여 무력적방법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사상적방법, 교양적방법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이 정치적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수십년동안에 걸쳐 습득한 습관, 관습, 신념이, 그러한 습관, 관습, 사상의 총체가 전체 근로자들의 교양의 도구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교양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과업이 무산계급에게 주어져있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전체 자본주의국가를 례외없이 점점 더 포괄하고있는 무산계급과의 투쟁의 밖에 서있을수는 결코 없다는 의식, 국제정치에서 유리되여있을수는 결코 없다는 의식을 배양하는것이 필요하다.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전체 강력한 세계자본주의국가들의 련합, 여기에 현하국제정치의 진짜기초가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국가들의 수억만 근로대중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으로 현시기에 있어서는 한줌도 안되는 자본주의국가들에 종속되지 않은 땅뙈어리라고는 지상에 없다. 이리하여 정세는 다음과 같이 조성되였다. 지금 겪고있는 투쟁으로부터 물러서며 그리하여 혁명과 전쟁에서 물러선, 대중에 대한 자산계급의 온갖 기만을 보지 못하는, 자산계급이 어떻게 그 대중을 의식적으로 몽매한 그대로 남겨두는가를 알지 못하는 몽매한 사람들과도 같이 완전한 무자각성을 증명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산계급독재를 위한 투쟁에 나서거나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이다.

무산계급의 이 투쟁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말한다. 그 어떤 사람이건 우리 편에 가담하거나 다른 편에 가담하거나 해야 한다. 이 편에도 저 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려는 온갖 시도는 기필코 실패를 면치못할것이며 궁경에 빠지고말것이다.

우리는 유제니치도당, 꼴챠크도당, 뻬뜰류라도당, 마흐노도당 등등의 형태로 출현한 무수한 께렌스끼주의의 잔재, 사회혁명당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잔재를 주시하면서 로씨야 각지방 반혁명의 극히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보아왔기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단련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라파를 관찰한다면 거기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것과 꼭같은것이 반복되고있다는것, 즉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나라 력사가 반복되고있다는것을 본다. 각국의 께렌스끼주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자산계급편에 서있다. 일련의 국가들 특히 독일에서 그들은 지배적지위에 있다. 그 어떤 중립도 불가능하다는것, 즉 백색독재거나(서구라파 모든 나라의 자산계급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여 무장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있다.) 무산계급독재거나 둘중의 하나라는 명백한 자각은 어디서나 꼭같이 볼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로씨야공산주의자들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만큼 통절히 심각하게 체험하였다. 여기로부터 오직 하나의 결론이 나올뿐이다. 그리고 이 결론은 정치교양총국에 관련된 모든 론의와 결정의 초석으로 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기관의 사업에서 공산당의 정치적지도가 웃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것이 공개적으로 인정되여야 한다. 다른 형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형태는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만들어내지 않았다. 당은 자기 계급의 리익에 비교적 합치되게 할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변경이나 수정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훌륭한 형태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계제국주의의 습격을 3년 동안 지탱해낸 쏘베트로씨야의 전반 투쟁은 당이 자기의 과업으로서, 무산계급을 도와 그의 교양적조직자적지도자적역할을—자본주의의 전복에 필요불가결한 그 역할을—수행하게 하는 과업을 의식적으로 제기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로동자, 농민, 근로대중은 지식인의 낡은 습관을 타파하고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자신을 재교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건설사업에 들어설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것이 극히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지도적역할을 인정할것을 념두에 두어야 하며 그리고 활동에 관한 문제, 조직적건설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등한히 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인민위원회에서도 말하게 될것이다. 어제 비준된 법령은 정치교양총국과의 관계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로 될것이다. 그러나 그 법령은 인민위원회에서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근일에 그 법령은 공포될것인데 당신들은 그것을 완성된 형태로서 볼것이나 거기에서 당과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을 발견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쏘베트공화국헌법의 토대를 이루고있는것은 다음과 같은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하며 또 기억해야 한다. 무산계급과 련결되여있는 공산주의분자들이 자기의 정신으로 그 무산계급을 교양할수 있도록 하며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킬수 있도록 하며 그들을 자산계급의 기만—우리가 그처럼 오래동안 제거하려고 노력하여온—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도록 한다는 한가지 원칙에 의하여 당이 모든 결함을 시정하고 모든 일군을 임명하며 모든 건설을 진행한다는 그것이다. 교육인민위원부는 오랜 투쟁을 진행하였다.

교원단체는 사회주의혁명에 오랜 기간 항거하여왔다. 그러한 교원들속에는 자산계급적편견이 특히 완고하게 남아있다. 거기서는 직접적인 태공의 형태로도, 완강하게 존속되는 자산계급적편견의 형태로도 투쟁은 오래동안 계속되여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히 한걸음한걸음 공산주의진지를 전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외교육사업에 종사하며 대중에 대한 교육교양의 과업을 수행하는 정치교양총국앞에는 이 거대한 기구—오늘에는 로동자들에게 복무하게 되여있는 교직원 50만 대군을 당적지도와 련결시키며 자신에게 복종시키며 자기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자기의 창발성의 불길로 불태우는 과업이 특히 명백하게 나서고있다. 교양일군들, 교원들은 이때까지 자산계급적편견과 습관으로, 무산계급에 대한 적대적정신으로 교양되였다. 그들은 전혀 무산계급과 련결되여있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원집단을 육성해내여야 한다. 이 집단은 당과 당의 사상과 긴밀히 련결되여야 하며 당의 정신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로동자대중을 자기의 두리에 뭉치게 하여야 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정신으로 교양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낡은 습관, 관습, 사상과 절연해야 하는만큼 바로 정치교양총국앞에는, 그리고 그 기관일군들앞에는 각별한 중시를 돌려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나선다. 그런데 사실 바로 여기서 다수가 낡은 관습에 물젖어있는 교원들을 어떻게 공산당원들과 련결시킬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앞에 나서는것이다. 이 문제는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처럼 각이한 류형의 인간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합시킬것인가를 고찰해보자. 우리는 공산당이 최고지도권을 가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문이 있을수 없다. 이

리하여 정치적문화, 정치적교육의 목적은 허위와 편견을 극복할수 있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를 육성하며 근로대중을 도와서 낡은 제도를 타승하고 자본가, 착취자, 지주들이 없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면 그런 일을 어떻게 수행할수 있는가? 그것은 교원들이 자산계급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의 총체를 습득하는데서만 가능한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모든 기술적성과는 불가능하며 기술적성과에 대한 온갖 리상은 수포로 돌아갈것이다. 그들을—정치, 특히 우리에게 유익한 정치, 다시말하면 공산주의에 필요한 정치와 련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습관되여있지 않는 그 일군들을 어떻게 련결시킬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내가 말한바와 같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업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중앙위원회에서도 토의하였으며 토의하는 과정에 경험이 알려주고있는바를 참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있는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대회, 당신들의 이런 대표자회의는 이 점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질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전에는 선전원 매 사람을 일정한 소조, 일정한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각급 당위원회는 달리 보아야 한다. 그들은 국가전체를 관리하고 지도하며 자산계급제도를 반대하는 쏘베트로씨야의 전 세계적 투쟁을 지도하는 당에 속한다. 그들은 투쟁하고있는 계급의 대표자들이며 거대한 국가기구를 지배하고있으며 지배할 책임을 가진 당의 대표자들인것이다. 그들은 선동원, 선전원으로부터 선동원의 지도자로, 거대한 정치적조직의 지도자로 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공작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투쟁으로 세련되고 단련된 아주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격변, 이러한 전환의 심대한 중요성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리해하지도 못한다. 이에 있어서 그들을 어떤 적당한

명칭으로 부르게 될것인가, 지어는 귀에 거슬리기 쉬운 명칭, 예컨대 인민교육과 주임이라고 부르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것은 그들이 교원대중을 지도할줄 알도록 하는것이다.

수십만의 교원—그들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상을 각성시키며 지금까지도 대중속에 남아있는 편견들과의 투쟁을 담당해야 할 하나의 기구라는것을 말해야 하겠다. 교원대중이 자본주의문화의 유산, 이 문화가 가지는 결함에 물젖어있다는 사실—그들은 이 결함을 가지고있는 한 공산주의적일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들을 정치교양사업일군의 대렬에 받아들이는데 장애로 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러한 교원들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지식을 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수십만의 필요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교양사업에 복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전선에서, 수만의 낡은 군대들을 채용한 우리 붉은군대내에서 이미 해결된 과업이다. 장구한 과정에서, 재교양과정에서 그들은 붉은군대와 융합하였다. 이것은 결국 붉은군대의 승리가 증명하는바이다. 그러니 문화교양사업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사업은 기세찬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것이다. 모든 선동원과 선전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엄격한 당적정신으로 사업할 때, 그러나 한갖 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의 과업은 수십만의 교원들을 지도하며 사업에 대한 그들의 흥취를 길러주어 낡은 자산계급적편견을 이겨내도록 하며 그들을 우리 사업에 인입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사업이 무한히 큰 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게 될 때—그들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서만, 자본주의의 억압을 받으며 자본주의에 의하여 우리로부터 분

리된 그러한 대중을 옳은 길로 인도할수 있을것이다.

학교외에서 사업하는 모든 선동원, 선전원이 힘써 수행해야 할 과업은 이런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과업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때에 흔히 많은 실제적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들은 공산주의를 도와야 하며 당소조에서 파견한 대표자, 지도자로 되여야 할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전체 국가권력에서 파견한 대표자,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

우리의 과업은 자본가들의 온갖 반항, 군사적 및 정치적 반항뿐만아니라 가장 심각하고 가장 강력한 사상적반항도 분쇄하는것이다. 우리 교양일군들의 과업은 대중의 이러한 개조를 실현하는것이다. 우리가 늘 보고있는바와 같은 공산주의적 교양과 지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 대중의 애착은 바로 우리가 승리자로 될 담보인것이다. 승리가 전선에서처럼 그렇게 급속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커다란 난관과 때로는 실패까지 동반할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자로 될것이다.

나는 끝으로 또 한가지 문제에 언급하려 한다. 정치교양총국이란 말이 아마 잘못 리해되고있는것 같다. 여기에 정치적개념이 포함되여있는만큼 여기서는 정치란것이 제일 중요한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만일 정치를 낡은 의미로 리해한다면 중대하고 엄중한 과오에 떨어질수 있다. 정치란것은 계급간의 투쟁이다. 정치란것은 전 세계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해방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무산계급의 제 관계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즉 한편으로는 자산계급제도의 유산을 분쇄하고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는 전체 자산계급의 거듭되는 시도를 분쇄하는 과업이다. 지금까지는 이 과업이 우리의 주되는 주력을 차지하여 다른 과

업—건설과업에로 넘어가는것을 방해하였던것이다. 자산계급 세계관의 관념에서 정치는 경제로부터 분리되여있는것 같이 되여있다. 자산계급은 농민들이여, 살아가려면 일을 하라, 로동자들이여, 시장에서 필수품을 얻으려거든, 살아가려거든 일을 하라, 경제면의 정치는 당신들의 주인이 수행할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는 인민의 사업, 무산계급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의 10분의 9는 자산계급과의 투쟁에 바쳐지고 있다는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어제 신문에서 읽은 우란겔에 대한 승리, 당신들이 오늘 읽게 될 이 소식이 래일은 우란겔에 대한 승리는 투쟁의 한 단계가 끝나가고있으며 우리는 수다한 서방국가들과의 평화를 전취하였다는것을 보여주게 될것이다. 그런데 군사전선에서의 매개 승리는 국내투쟁을 위하여, 국가건설의 정치를 위하여 우리들을 해방해주고있다. 백파에 대한 승리에로 우리를 접근시키는 매 걸음은 투쟁의 중점을 점차 경제면의 정치에로 옮겨가게 한다. 낡은 형의 선전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며 실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낡은 형의 선전은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때문이다. 온갖 선전은 경제건설의 정치적 경험에 립각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주요한 과업이다. 그리고 만일 그 누가 이 과업을 낡은 의미로 리해하려 한다면 그는 락후해질것이며 로동자, 농민 대중을 위한 선전사업을 수행할수 없을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요한 정치는 곡물을 한뿌드라도 더 수확하며 석탄을 한뿌드라도 더 공급하며 그 곡물과 석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리용할것인가를 결정하며 기근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건설을 수행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이다. 모든 선동과 선전이 여기에 립각

하지 않으면 안된다. 빈말은 될수록 적게 하여야 한다. 그것은 빈말로써는 근로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것이기때문이다. 전쟁이 우리에게 자산계급과의 투쟁으로부터, 우란겔과의 투쟁으로부터, 백파와의 투쟁으로부터 중점을 옮길 가능성을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경제면의 정치에로 전환할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선동과 선전이 거대한 역할을 할것이며 그 역할은 점점 증대될것이다.

매개 선동원은 국가적지도자로, 경제건설사업에서의 모든 농민, 로동자들의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 선동원은,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알아야 하며 이러저러한 소책자, 이러저러한 서적을 읽어야 한다는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경제를 개선할것이며 경제를 보다 공고한것으로, 보다 사회적인것으로 되게 할것이며 생산을 증가시킬것이며 량곡문제를 개선할것이며 생산품을 보다 합리하게 분배할것이며 석탄채굴량을 증가시킬것이며 자본주의가 없이, 자본주의적정신이 없이 공업을 복구할것이다.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에 대한 모든 선전은 실제적인 국가건설의 지도에로 돌려지도록 조직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주의는 로동자대중에게 그들자신의 일처럼 리해하기 쉬운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 사업은 숱한 오유를 범하면서도 잘 진척되지 않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로동자, 농민은 우리의 방조하에, 우리의 약간의 미약한 협조하에 그자체로 우리의 기구를 만들어내고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한갖 강령이나 리론이나 과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면한 현실적인 건설사업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서 극히 참혹한 패배를 당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패배에서

교훈을 얻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오늘도 우리는 매개 실패에서 지식을 섭취하여야 하며 수행된 사업의 실례로 로동자, 농민을 가르쳐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것을, 앞으로 그러한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적해야 한다.

그러한 건설의 실례로써, 그 실례를 수없이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공산당원책임자들을 참다운, 무엇보다 더 우리의 경제건설사업의 건설자들로 되게 할것이다. 우리는 필요한것을 모두 쟁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는 낡은 제도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나 결코 대번에 제거할수 없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것이다. 우리는 대중을 재교양해야 한다. 그런데 대중을 재교양할수 있는것은 오직 선동선전사업뿐이다. 우리는 우선 대중을 공동적경제생활의 건설과 련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매개 선전-선동원의 사업에서 주요하고 기본적인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각자가 이것을 파악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은 보장될것이다.(우렁찬 박수)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정치교양원 전로협의회 통보(1920년 11월 1~8일)》에 게재

《통보》의 원문에 따라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29~338페지

인민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

(1920년 12월 22일 제8차전로쏘베트대회109에서)

(좌석에서 웨치는 소리: 《레닌동지 만세!》,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 폭풍과 같은 환호소리) 동지들, 나는 지금으로부터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 나는 당신들에게 로농정권의 법안들과 시책들—비록 그것이 가장 커다란 또는 가장 중요한것들이라 할지라도—을 렬거하는것을 나의 보고의 과업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기간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당신들에게 흥미도 없고 또 본질적인 의의도 가지지 못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난 혁명의 해들에 못지않게 정책상 급전환이 많았던 이 한해동안에 우리가 얻은 주요교훈들을 총화하며 또 이 한해동안의 경험교훈들을 총화함으로써 우리앞에 제기된 가장 긴절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을 끌어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쏘베트정권은 당신들의 심의와 비준을 받기 위하여 회부된 자기의 법안들을 통해서나 또 자기의 전체 시책들을 통해서 이 과업들에 지금 가장 큰 희망을 걸고있으며 이 과업들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이 과업들이 수행됨으로써 우리 경제건설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루어지리라는것을 기대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공화국의 국제정세와 대외정책분야에서의 지난해의 주요총화들에 대해서 다만 간단한 소견만을 말하려 한다.

당신들은 물론 뽈스까의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서구라파—

비단 서구라파뿐만은 아니지만—의 자본주의국가들의 압력과 강압하에 어떻게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하였는가를 다 알고있다. 또한 당신들은 우리가 금년 4월에 지금조건들보다는 비할바없이 훨씬 더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들로써 뽈스까정부에 강화를 제의한 사실, 그리고 뽈스까와의 정전담판이 완전히 실패한후 오직 초미의 긴급성에 끌려서만 우리가 부득이 전쟁에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던 사실도 알고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군대들이 의심할바없는 전쟁의 피로로 말미암아 와르샤와근방에서 극히 엄중한 패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에 뽈스까에 제기한것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강화로써 끝났다. 뽈스까와의 예비강화는 조인되였다. 지금은 공식적강화의 조인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 위험성이란 이 회담이 강화로 끝나지 못하게 하려는 가장 완고한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의 압력과 로씨야백파의 일정한 층의 압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할것은 쏘베트정권에 대한 무력간섭과 군사적진압을 목적하는 련합국의 정책이 점점 더 파탄되여가고있으며 쏘베트정권에 대한 적대적립장을 무조건 견지하던 국가들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우리의 평화정책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있다는 사실이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수가 증가되고있다. 미구에 뽈스까와의 공식적강화조약이 조인될 가능성은 대단히 많다. 이리하여 군사적방법으로써 우리의 정권을 뒤집어엎으려고 기도하는 자본주의세력들의 동맹에 또 하나의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다.

동지들, 물론 당신들도 역시 뽈스까전쟁에서 우리가 일시적실패를 당한것과 전쟁의 이러저러한 시기에 우리 혁명이 곤난하였던것은 우리가 우란겔을—한 제국주의강국의 공식적승인을 받았고110 막대한 물질적, 군사적 및 기타의 원조물자를

받고있는 우란겔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던때문이라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될수록 빨리 끝내기 위하여 우란겔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도록 군대를 급속히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물론 당신들도 붉은군대가 얼마나 비상한 영웅성을 발휘하여 심지어 군사전문가들이나 권위자들조차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장애물들과 그러한 보루들을 극복하였는가를 알고있다. 붉은군대의 력사상 가장 혁혁한 페지중의 하나는 우란겔에 대한 완전하고 결정적이고 비상히 빠른 승리이다. 이리하여 백파들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전쟁은 청산되였다.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의 고용주들이 우리의 경제건설사업을 이전과 같이 그렇게 쉽사리 파탄시킬수 없으리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보다 큰 신심과 보다 큰 결의로 당면 우리에게 절박하고 필요한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끌고있는 경제건설사업에 착수할수 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전쟁으로부터 보장되여있다고는 결코 말할수 없다. 그런데 이 보장이 불충분하다는것은 우리에게 아직 공식적인 강화조약들이 없기때문인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우란겔의 패잔병들이 소멸되지 않은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숨어있으며 자본주의렬강의 후견과 보호하에 있으면서 그들의 원조하에 부활되고있다는것과 그리고 로씨야백파단체들이 또다시 이러저러한 군사부대들을 창설하여가지고 우란겔이 가지고있는 력량과 함께 적당한 시기에 로씨야를 또다시 공격할 시도밑에 열심히 활동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군사적준비를 계속 갖추고있어야 한다. 이미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었으니 일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붉은군대의 완전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전투

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일부 부대들의 해체와 급속한 동원해제가 이에 방해로 되지는 않는다. 전쟁시기에 붉은군대와 그 지도자들이 얻은 풍부한 경험은 지금 붉은군대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대를 축소함으로써 공화국에 과중한 중하를 부과하지 않을만한 정도의 군대의 기본핵심을 보존하며 또 그와 동시에 군대의 수는 축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또다시 징병하여 더 큰 군사력을 동원할수 있는 가능성을 전보다도 더 훌륭히 보장하도록 힘쓸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백파들의 음모를 지지함으로써 이미 많은 손실을 본 모든 린접국들이 론쟁할 여지 없는 경험의 교훈들에서 충분히 배웠을것이며 또 모두가 다 우리가 약한 까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화해적태도를 옳게 평가하였을것이라고 믿는다. 3년간의 경험을 쌓은 오늘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확고한 평화적념원을 표명할 때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군사적면에서도 준비되여있다는것을 확신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일체의 전쟁시도는 그러한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들이 전쟁없이 또는 전쟁전에 가질수 있는 조건들보다 전쟁의 결과 또는 전쟁후에 가지게 될 조건들이 더 나빠진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이것은 몇몇 국가들에서 이미 실증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취물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취물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또 우리를 포위하고있는 혹은 로씨야와의 정치적접촉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것을 망각하지는 않을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린접국들과의 관계는 부단히 개선되고있다. 로씨야의 서부국경에 있으며 전에는 전로씨야제국의 판도내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정책의 기본원칙들에 의하여 쏘베트정권으로부터 그들의 독립, 그들의 자주권에 대한

무조건적승인을 받은 여러 국가들과는 강화조약이 종국적으로 조인된것을 당신들은 알고있다. 이러한 기초우에서의 강화는 자본가들과 약간의 서구라파나라들이 소원하는것보다는 훨씬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라트위야정부와의 관계에서 말해야 할것은 한때 두 나라의 관계가 심지어 외교관계가 단절될 정도로까지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라트위야에 있는 우리 대표의 최근보고는 벌써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많은 오해와 그리고 응당 불만을 일으킬수 있는 원인들이 제거되였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라트위야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있다. 서구라파와 무역을 함에 있어서도 라트위야는 물론 에스또니야나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기타 린접국들보다 우리에게 일층더 유익할것이다.

동지들, 우리 정책이 이 1년동안에 동방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을 나는 또한 지적하여야 하겠다. 자기의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로동자, 농민이 정권을 장악한 부하라,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야 쏘베트공화국의 창건, 공고화를 우리는 경축하여야 하겠다. 이 공화국들은 쏘베트정권의 사상과 원칙이 공업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뿐만아니라, 또 무산계급과 같은 사회적기둥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뿐만아니라 또한 농민과 같은 사회적토대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도 달성될수 있으며 지체없이 실시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며 확증하는것이다. 농민쏘베트의 사상은 승리하였다. 정권은 농민의 수중에 확보되여있다. 그들의 수중에는 토지, 생산수단이 있다. 이 농민쏘베트공화국들과 로씨야사회주의공화국과의 친선관계는 이미 우리 정책의 실제적결과들에 의하여 공고하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조인하게 될 페르샤와의 조약체결을 경축할수 있다. 페르샤와의 친선관계는 제국주의의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모든 민족들의 근본적리해관계의 일치로 말미암아 보장되여있다.

우리는 또한 아프가니스탄과의, 더우기 토이기와의 친선관계가 더욱더 개선, 강화되고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토이기에 대하여 련합국측 나라들은 토이기와 서구라파국가들간의 다소라도 정상적인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하였다. 쏘베트정권이 강화됨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정은 자산계급의 모든 방해와 모든 음모에도 불구하고 또 로씨야의 주위에 자산계급국가들이 존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와 동방의 피압박민족들과의 동맹 및 친선관계가 공고화되는것을 더욱더 보장하여준다. 왜냐 하면 전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승국측에 들어갈 행운을 가지지 못한 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적폭압인데 제국주의의 이 세계정책은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접근과 동맹과 친선을 초래하기때문이다. 우리가 이 방면에서 그리고 서방의 보다 구라파화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달성한 성과는 지금 우리의 대외정책의 원칙이 옳다는것과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의 개선이 튼튼한 토대우에 서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가 평화애호정책을 계속하며 양보를 하는 조건하에서는(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온갖 음모와 간계—이것은 물론 언제나 이런 또는 저런 국가를 우리와 다투게 할수 있을것이다.—를 꾸미더라도 우리 정책의 기본로선과 제국주의정책의 본질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적리해관계는 우세를 차지하여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과 그 주위의 날로 증가되는 린접국들을 더욱더 밀접하게 련결시키리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제건설사업에 몰두할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확신성있게 신심가득히 사업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나는 또한 현재 무역협정조인에 관하여 영국과 회담이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말해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이 회담은 우리가 기대하던것보다 훨씬 오래 지연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이미 7월에, 즉 쏘베트군대가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있던 시기에 영국정부가 무역관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협정안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하였는데 그때 우리는 이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대답을 주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영국정부와 영국국가내의 파벌간의 투쟁이 이 사업을 방해하여왔다. 우리는 영국정부가 동요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즉시 함대를 뻬뜨로그라드에 파견하겠다고 위협하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함과 동시에 또한 이 위협에 대답하여 전 영국에 어떻게 《행동위원회》111들이 창립되게 되였는가 하는것도 보았다. 우리는 기회주의적경향의 극단적지지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로동자들의 압력하에 어제날 그들자신이 비난하던 이 전혀 《비립헌적인》 정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수 없었던가를 보았다. 그 결과 근로대중의 압력과 자각의 힘은 이제까지 영국의 로동조합운동내에 지배하고있던 모든 멘쉐위크적편견을 물리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마침내는 제국주의자들의 호전적정책의 예봉을 꺾을수 있게 되였다. 지금도 우리는 평화정책을 계속하면서 영국정부가 제기한 그 7월초안의 기초우에 서있다. 우리는 당장에라도 무역협정에 조인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조인되지 않고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영국지배층내의 일부 파벌들에 있다. 그것은 이 파벌들이 무역협정을 파탄시키려 하고있으며 대다수 로동자들뿐만아니라 심지어 대다수의 영국자산계급의 의사에까지 반하여 다시한번

제멋대로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기회를 얻어보려고 꿈꾸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이 그자들의 수작이다.

영국의 일부 유력한 계층들내에서, 금융자본과 제국주의자들의 계층들내에서 이러한 정책이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재정상태를 긴장시킬것이며 지금 자산계급적 영국과 쏘베트공화국간에 필요한 부분적협정을 그만큼 더 지연시킬것이며 그만큼 더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부분적협정이 아니라 전부의 협정을 접수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것이다.

동지들, 나는 영국과의 이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제정책중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제기된다는것을 말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즉 리권문제이다. 금년 11월 23일부 법령, 즉 리권에 관한 법령은 보고기간에 쏘베트정권이 채택한 가장 중요한 법령들중의 하나이다. 물론 당신들은 모두 이 법령전문을 알고있을것이다. 쏘베트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이 이 문제를 상세히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충자료를 우리가 지금 발표한것을 당신들은 다 알고있다. 우리는 이 법령의 전문을 담은 단행본뿐만아니라 또한 리권의 주요대상들, 즉 식량리권, 림업리권, 광산리권의 목록도 발표하였다. 우리는 발표된 이 법령전문이 될수록 빨리 서구라파나라들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리권정책이 실천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될것을 기대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에서, 그것도 약하고 락후한 나라에서 이 정책과 관련하여 생기는 위험성을 조금도 감추지 않는다. 우리 쏘베트공화국이 전체 자본주의세계의 고립된 변방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완전한 경제적독립이나 이러저러한 위험성의 해소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은 전혀 가소로운 환상이며 공상일것이다. 물론 그러한 근본적인 모순들이 남아있는 한

위험성도 의연히 남아있을것이며 또 결코 그것을 피할수도 없을것이다. 다만 우리는 튼튼히 서서 그것을 견디여내며 비교적 큰 위험과 비교적 작은 위험을 구별할줄 알며 또 큰 위험보다 작은 위험을 택할줄 알기만 하면 될것이다.

얼마전에 우리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니쥬니-노브고로드성 아르자마스현쏘베트대회에서 한 비당원농민은 리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다. 《동지들, 우리는 당신들을 전로대회에 파견하면서 언명한다. 우리 농민은 아직도 3년은 굶고 얼고 제반 의무를 질 각오를 가지고있다. 다만 어머니—로씨야를 리권에 팔지만 말라.》 아주 대단히 널리 파급되여있는 이러한 류의 경향을 나는 비상한 기쁨으로써 환영한다. 비당원근로자대중속에서, 로동자들뿐만아니라 농민들속에서도 3년동안에 정치경제적경험—이 정치경제적경험이 자본가들로부터의 해방을 무엇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게 하며 또 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것이며 자본주의의 복구라는 의미에서 있을수 있는 새로운 위험성들을 초래할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3배의 예리한 눈초리와 비상한 의욕을 가지고 대하도록 만드는것이다.—이 성숙되였다는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교훈적인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류의 언명에 대하여 우리가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로씨야를 자본가들에게 팔것을 론의하는것은 전혀 아니고 리권을 론의하고있다는것, 뿐만아니라 매개 리권계약에는 일정한 기한과 일정한 협약의 조건이 붙어있으며 또 신중히 고려되였고 앞으로도 여러번 숙고될것이며 본 대회와 앞으로 있을 모든 회의들에서 당신들과 함께 심의될 모든 보증이 붙어있다는것, 그렇기때문에 이 일시적계약들은 파는것과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말하여야 하겠다. 이것들은 로씨야를 파는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가들에 대한

일정한 경제적양보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복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기계와 기관차들을 될수록 빨리 획득할 가능성을 얻는것이다. 우리는 가령 조금이라도 로동자, 농민의 형편의 개선을 촉진시킬수 있는것이라면 어떠한것이든 경시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무역관계의 급속한 복구를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의것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들, 즉 이 회담들은 지금 반합법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아주 불충분한 수량의 기관차와 기계들을 주문하고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들을 주문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담들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가능성들을 거대한 규모로 확대할것이다. 공업의 도움으로써 우리는 많은것을, 그것도 훨씬 짧은 기간내에 얻게 될것이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에도 이 기간은 몇해, 여러해로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 군사적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획득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한편 우리가 기억해두어야 할것은 력사는 우리에게 어느 한 큰 문제도, 어느 한 혁명도 일련의 전쟁 없이 해결된것은 없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는 사실이다.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을것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강국들에게 우리와 싸우려는 버릇을 떼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갈는지는 담보할수 없다. 형세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제국주의강탈자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덤벼들것이라는것을 고려하여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준비를 갖추고있어야만 한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경제를 복구하여 그것이 튼튼히 자리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설비가 없이는,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기계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것을 속히 실현할수 없다. 경제복구를 위해서라면 자본가들에게 리윤을 좀더 주는것은 아까울것이 없다. 로동자와 농민은 희생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당원

농민과 같은 그러한 기분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간섭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은 리권을 감상적인 견지에서 보지 않고 그것을 단지 무자비한 투쟁이 다른 면에 옮겨진데 불과한 전쟁의 계속으로 보고있으며 또한 리권가운데의 낡은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자산계급의 새로운 기도들의 가능성을 보고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리익에 대한 감시와 보호가 비단 쏘베트정권기관들의 사업으로 될뿐만아니라 매개 로동자, 농민의 사업으로도 될것이라는 담보를 우리에게 주는것이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리권계약들을 리행하면서도 자본가들의 정권의 부활이란 문제로도 되지 않을 그러한 토대우에서 우리의 리익을 보호할수 있을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이 위험성을 최소한도로 축소할것이며 이 위험성이 전쟁의 위험성보다 적도록 할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이 전쟁의 재발발을 곤난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짧은 기간에 보다 적은 해수를 가지고(그러나 상당히 오랜 여러해를 두고 말한다.) 우리의 경제를 복구발전시키게 할수 있을것이다.

동지들, 지금 우리앞에는 경제적과업들, 경제전선이 또다시 가장 주요한것, 가장 기본적인것으로 제기되고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고하는 립법자료들을 고찰하면서 나는 인민위원회나 국방위원회[112]의 절대다수의 시책들과 결정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적이며 세부적이며 흔히는 아주 사소한 시책들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물론 당신들은 내가 이 시책들을 렬거할것을 기대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몹시 따분하고 또 전혀 흥미도 없을것이다. 나는 단지 우리가 로력전선을 첫자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을 한것이 벌써 결코 첫번이 아니라는것만을 회상시키려 한다. 1918

년 4월 29일에 전로중앙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결정①을 상기하자. 그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브레스트강화가 로씨야를 경제적으로 절단하였으며 또 우리가 터무니없이 략탈적인 조약에 의하여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게 되였던 때였다. 당시 평화적경제활동을 회복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는 휴식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즉시로—비록 지금 우리는 그것이 극히 단시일의 휴식에 불과하였다는것을 알고있지만—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4월 29일부 결정에서 일체의 주의를 이 경제건설에 돌렸다. 페지되지 않고 우리 법령으로 남아있는 이 결정은 우리가 이 과업을 어떻게 대하였으며 또 지금 우리 사업을 위하여, 우리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엇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옳은 전망을 우리에게 주고있다.

이 결정을 검토해보면 우리가 지금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중 많은것이 이미 1918년 4월에 아주 확정적으로 또 아주 결정적으로 제기되였었다는것이 명백하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반복은 배움의 어머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제건설의 이 기본진리들을 반복하는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몇번이고 그것들을 반복할것이다. 그러나 1918년에 선포된 추상적원칙들과 이미 실지로 시작된 경제사업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라. 우리 사업의 거대한 곤난들과 부단한 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과업들을 실천적으로 제기하는데 점점 더 가깝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번 거듭 반복할것이다. 여러차례의 반복이 없이는, 약간의 후퇴가 없이는, 검열이 없이는, 개별적인 시정들이 없이는, 새 방법들이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7권, 290~293폐지를 보라. —편집자

없이는, 락후한자들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설복시키는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건설을 할수 없다.

지금 정치정세의 전체 중심은 우리가 바로 전환기, 과도기, 약간의 곡절적인 전쟁으로부터 경제건설에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는데 있다. 그것은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한 규모에서는 없었다. 이것은 쏘베트정권의 일반 정치적과업들이 어떠한것들이며 이 이행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듭 회상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무산계급독재는 강제와 설복을 결합할줄 알았기때문에 성공하였다. 무산계급독재는 강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준엄하고 단호하고 무자비한 국가적강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의하여 가장 심한 억압을 받아온 선진계급은 이 강제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며 이 선진계급은 전체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이 강제를 실시하고있기때문이며 또 이 선진계급은 이전의 어느 한 계급들도,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비할바없이 큰 선전선동의 물질적예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가질수 없었던 그러한 강제와 설복의 수단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3년간의 경험의 총화문제가 제기된다면(약간의 근본적인 조목들에 관해서는 1년의 총화를 하기가 곤난하기때문이다.) 훨씬 더 강한 적에 대한 우리의 승리들을 결국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모든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로동자, 근로농민의 동맹내에서 무산계급의 지도의 일관성과 확고성이 붉은군대조직들내에서 훌륭히 실현되였기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수 있었는가? 어찌하여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처럼 즐겨 이 길을 걷게 되였는가? 그것은 그 절대다수가 비당원인 농민대중이 쏘베트정권을 지지하는외에는 자신을 구출할수 없다고

확신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은 물론 책이나 선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이를 확신하게 되였다. 국내전쟁의 경험, 특히 소농민경영의 일정한 기본특징들과 극히 류사한 우리 나라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3]의 동맹이 그들을 확신시켰다. 이 소소유자당들이 지주 및 자본가들과 동맹한 경험 그리고 또 꼴챠크 및 제니낀의 통치를 받은 경험은 농민대중에게 중간길이란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것과 쏘베트의 실사구시의 정책이 정당하다는것과 무산계급의 강철같은 지도가 농민을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구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을 확신시켰다. 오직 우리가 농민들을 그렇게 확신시킬수 있었던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이 튼튼하고 무조건적인 확신에 기초한 우리의 강제정책이 그러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우리는 로력전선에로 넘어감에 있어서 동일한 과업이 새 환경하에서 더 광범한 규모로, 그러나 우리가 백파들과 전쟁을 하고있었을 때, 즉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었던 로동자, 농민 대중의 비상한 열정과 비상한 노력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있었던 때 우리앞에 제기되였던 그같은 과업이 우리앞에 나서고있다는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비당원농민들은 좀전에 내가 그의 말을 인용한 아르자마스농민과 같이 실지로 생활에 대한 관찰과 인식에 의하여 착취자들이 무자비한 적이며 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서는 무자비한 정권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찌기 류례없이 많은 인민대중을 전쟁과 또 전쟁에 대한 적극적원조에 자각적으로 대하도록 이끌어들였다. 당원 및 비당원 로동자들과 비당원농민들이(농민은 그 대다수가 비당원이다.) 그처럼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쟁에 공명하며 그것을 리해하도록 하는 이것은 쏘베트정권이외의 그 어떤 정치제도하에서도 쏘베트정권의

10분의 1도 해내지 못하였다. 우리가 결국에 가서 강한 적을 타승할수 있었던 기초는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맑스주의의 가장 심오한, 동시에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의 하나가 실증되였다. 력사적사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이 사건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도 더 많아진다. 또 반면에 우리가 수행하려 하는 개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관심과 자각적태도를 더 높여야 하며 수백수천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조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확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우리 혁명이 다른 모든 혁명을 멀리 앞서 나아간것은 그것이 이전에는 국가건설에 무관심하던 수천만의 사람들을 이 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쏘베트정권을 통하여 궐기시킨 까닭이다. 이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앞에 나선 새 과업들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자. 이러한 과업은 그동안 쏘베트정권의 수십수백의 개별적 결정들에서 당신들이 보았으며 로동국방위원회의 사업의 10분의 9를 차지하였으며(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인민위원회의 사업의 반이상을 차지한 새 과업들이다. 나는 통일적경제계획의 수립, 로씨야경제의 기초자체, 소농민경영의 기초자체의 재조직 등 경제과업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려 한다. 이것은 전체 직맹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주 새로운 사업에, 자본주의하에서는 그들과 인연이 없던 이 사업에 끌어넣을것을 요구하는 과업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시기에 이루어졌던 급속하고 무조건적인 승리의 조건, 즉 대중들을 사업에 끌어넣을 조건이 여기에 마련되여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여보자. 그들, 직맹원들과 대다수의 비당원들은 우리의 새 조치들, 우리의 거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의 필요성을 확신하고있는가,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며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희생할 필요

성을 확신하던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것을 확신하고있는가? 만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신들은 의심할바없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들은 결코 그것이 요구되는만큼은 이를 확신하고있지 않다.

전쟁은 수백, 수천년동안 리해되여왔으며 또 습관되여온 일이다. 이전 지주의 폭압과 잔인한 행위들은 아주 뚜렷하였기때문에 농민을 설복하기는 용이하였다. 심지어 공업과 련계가 가장 적고 가장 풍요한 변강곡창지대에 사는 농민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있다는것을 확신시키고 그리하여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농민대중과 직맹원들에게 오늘의 이 과업들을 리해시키며 또 그들에게 이전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는것, 자본주의적착취가 아무리 수십년동안 뿌리박고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폐기하여야 한다는것을 리해시키는것은 더 어려울것이다. 모든 사람이 로씨야는 우리에게 속해있으며 우리 로동자, 농민 대중들—오직 우리만이 자기의 활동, 자기의 엄격한 로동규률로써 낡은 경제적생활조건들을 개조할수 있으며 위대한 경제계획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리해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이것을 떠나서는 구원될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나라 경제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자본주의렬강들에 뒤떨어질것이며 또 앞으로도 여전히 뒤떨어질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정복될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방금 상기시킨 옛 진리들, 조직적과업들의 중요성에 관한, 로동규률에 관한, 이 면에서 완전히 유일무이한 직맹의(이처럼 광범한 대중을 통합하는 다른 조직은 없기때문에) 헤아릴수없이 거대한 역할에 관한 옛 진리, 이 옛 진리들을 우리가 반드시 반복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또한 우리가 반드시 군사적과업들에서 경제적과업들에로의 이행이 개시되였다는것을 충

분히 자각하여야만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군사분야에서 완전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지금 우리는 압도적대다수의 로동자, 농민들에게서 열정과 헌신성을 요구하는 더 어려운 과업들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같은 성과들을 거두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세대를 거듭하여 노예와 압박속에서, 일체의 자립적활동이 억압당한 속에서 살아온 천백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과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직맹들에 참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정치적자각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수백만 로동자, 이러한 로동자들을 정권에 반항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로동자정권의 시책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이 이행에는 난관들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정식화라는 견지에서는 새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과업이 처음으로 대중적규모에서 제기되고있는만큼 그것은 새 과업이다. 우리는 또 경제전선의 전쟁은 더 어려우며 더 장기적이라는것을 자각하고 명심하여야 한다. 이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로동자, 농민들을 자립적이며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할수 있다. —우리가 얻은 경제건설의 경험은 이를 증명하여주고있다.—왜냐 하면 생산력의 부족과 련관되여있는 빈곤, 추위, 기아 및 온갖 곤난들에 대한 의식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기때문이다. 지금 곧 우리는 정치와 군사에 복무하던 모든 선전고동사업을 경제건설의 궤도우에 옮겨놓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여러번 이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불충분하다. 그런데 나는 이해에 쏘베트정권이 실시한 시책들중에서 특출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주의를 생산선전에로 옮겼을뿐만아니라 또한 그 조직을 전국가적 규모로 옮겨놓으면서 전

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직속중앙생산선전국을 창설한것, 이 선전국과 정치교양총국사업을 통합한것, 생산계획에 따라 설치된 보조신문들을 창간한것 등이다.

전 국가적 규모에서 생산선전을 조직할 필요성은 정치정세의 모든 특수성들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은 로동계급이나 직맹이나 농민들을 위하여 모두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국가기관의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결코 충분히 리용하지는 못하고있다. 우리는 어떻게 공업을 관리하여야 할것인가, 어떻게 대중으로 하여금 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한 지식을 가지고있다. 이에 관한 서적상의 지식은 이 지식들을 실천에 적용한것에 비하여 천배나 크다. 우리는 모든 직맹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또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만, 로동생산능률을 높임으로써만 쏘베트로씨야가 승리하게 되리라는것을 그들이 명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쏘베트로씨야는 10년안으로 지금의 처참한 처지, 기아와 추위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이다. 이 과업을 리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것을 파멸시킬수 있을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기관이 약할 때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왜냐 하면 자본가들은 얼마간 휴식을 한 다음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수 있으나 그때에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할수 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수백만 대중의 공격력을 발휘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그러하여 이 최후의 전쟁에서 우리는 격파될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서있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 모든 가장 위대한 혁명들의 운명을 결정한것은 일련의 수다한 전쟁이였다. 우리 혁명도 그러한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우리는 하나의 전쟁시기를 끝냈다. 우리는 반드시 둘째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데 우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것이 올 때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해낼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있는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때문에 우리는 강제수단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무산계급독재를 보존하고있기때문에만이 아니다. 농민대중도 비당원로동자들도 벌써 무산계급독재를 리해하게 되였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무산계급독재에 관한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무산계급독재는 그들에게 무서운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들을 놀래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견고한 방벽으로, 즉 그들이 지주와 자본가들을 반대하는데 리용할수 있으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것으로 보고있다.

군사정치적과업들의 면에서는 이미 농민들의 살과 피 속에 깊이 들어박힌 이 의식, 이 확신을 또 경제과업들에 옮겨놓아야 한다. 이렇게 옮겨놓는 일은 아마도 단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약간의 동요와 그리고 옛 무규률과 소자산계급적근성의 재발이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것이다. 보다 긴장하게 보다 높은 열의로 이 사업에 착수하면서 우리가 비당원농민들과 의식이 낮은 직맹원들을 꼭 설복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리는 우리 편에 있기때문이다. 경제생활을 복구함이 없이는 전쟁의 제2시기에 우리가 적들을 타승할수 없다는것, 도저히 없다는것은 론박할수 없기때문이다. 수백수천만의 사람들이 경제전선에서의 전쟁을 더 자각적으로 대하도록 하자. 여기에 중앙생산선전국의 과업이 있다. 여기에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의 과업이 있다. 여기에 모든 당일군들의 과업이 있다. 여기에 쏘베트정권의 각종 기관들의 과업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선전의 과업이 있다. 이 선전으로써 우리는 세계적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것은 우리 선전이 전 세계의 로동자, 농민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였으며

또 말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일체의 다른 선전은 그들에게 허위를 말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전을 훨씬 더 어려운 곳—작업장의 로동자들의 일상사업에 관련되는 곳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아무리 이 사업의 조건들이 곤난하다 할지라도 또 정권에 대한 로동자, 농민들의 불신을 배양한 어제날의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회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달성하여야 한다. 력량의 새로운 배합이 없이는, 국가적단결의 새 형태들이 없이는, 이 강제수단과 련결된 새 형태들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그 한쪽끝에 서있는 수렁으로부터, 경제적붕괴의 심연으로부터 빠져나올수 없다는것,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로동자, 농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동지들, 나는 우리 경제정책에 관한 약간의 자료들과 우리의 경제적과업들에 대하여 말하겠다. 그것들은 현 정치정세와 또 우리앞에 나선 전체 이행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나는 우리의 토지법안, 즉 농업생산의 강화 및 발전과 농민경제의 방조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법안을 들어야 하겠다. 이 법안은 금년 12월 14일에 인쇄되였는데 이 법안의 기초들에 관해서는 모든 지방일군들이 이 법안의 본질을 해명한 특별방송을 통하여 이미 그전에 알고있다.

이 법안이—지방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그런데 이 법안은 지방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고있다.) 지방들에서 이미 감촉하고있는바와 같이—본 대회에서나 또 마찬가지로 지방집행위원회들 및 집행위원회 각 부서 대표들속에서 가장 면밀히 토의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확실히 농업생산을 올리기 위하여 비단 장려의 의미에서뿐만아니라 또한 강제의 의미에서도 특별한, 특히 유력한 방조조치들을 취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의심할 동지는 이제는 아마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우리는 소농민국가였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소농민국가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것은 다른 어떤 조건들에 있어서보다 헤아릴수없이 더 어렵다. 이 이행이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전쟁에 참가하였던것보다 십배나 더 많은 농민들이 참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전쟁은 성년남성주민의 일부를 요구할수 있었으며 또 요구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폐한 농업국인 우리 나라는 지금이야말로 로동자, 농민의 모든 남녀주민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동원하여야 하는것이다. 우리들 공산당원이나 토지부일군들에게 국가적의무부담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신시키기는 어렵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들의 심의에 회부된 12월 14일부 법안토의시에 어떠한 원칙적인 의견상이도 없으리라고 믿는다. 비당원농민들을 설복해야 한다는 다른 곤난이 있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마치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인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계획들을 세우는것은 공중루각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하며 우리 과업들을 리해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또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빈궁한, 때로는 비참한 현실에 적응시켜 우리의 강령들을 알맞게 작성하며 또 우리가 착수한것을 실현하도록 하는것을 3년동안에 배우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앞에 나선 과업들을 명백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업, 그것은 토지부에서 사업하는 공산당원들을 단합시키며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며 지방에서 이미 실행한것들을 료해하여 그것을 앞으로 국가기관들의 이름으로, 전로쏘베트대회의 이름으로 중앙에서 발포하게 될 법안에 반영시키는것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것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첫 조치에 불과하다. 둘째 조치는 비당원농민들을 설복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대중인 까닭이며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수행하자면 오직 천성적으로 적극적이며 창발적인 이 대중속에 이 사업에 착수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만 가능하기때문이다. 농민경제는 그냥 예전식대로 해나갈수는 없다. 우리는 맨처음 닥쳐온 일련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두번째로 닥쳐올 일련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승리할수 없으므로 이 면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매개 비당원농민들이 이 의심할바없는 진리를 리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리해하리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곤난하던 이 6년간을 모두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전쟁전의 농부와는 다르다. 그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것을 생각하였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허다한 낡은것을 잊어버리지 않을수 없게 한 그러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곤난을 많이 겪었다. 나는 그들자신이 이미 옛 방식대로 살수는 없으며 새 방식에 의하여 살아야만 하겠다는것을 리해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전수단, 우리의 모든 국가적력량, 우리의 모든 교육, 우리의 모든 당적 수단과 력량, 이 모든것을 비당원농민을 설복하는데 집중적으로 돌려야 한다. 오직 그때에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토지법안—나는 당신들이 이것을 만장일치로, 물론 적당한 수정과 보충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리라 확신한다. —을 진정한 토대우에 올려놓게 될것이다. 우리가 대다수 농민을 설복하며 또 이 사업에 끌어들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법안은 우리의 정책이 튼튼한것과 같이 튼튼해질것이다. 왜냐하면—꾸라에브동지가 어떤 론문에서 따따르공화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정당히 말한바와 같이—근면한 중농과 빈농은 쏘베트정권의 친우이며 건달군은 그 적이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사회주의적인것도 없으

나 그러나 그것은 그처럼 론쟁의 여지가 없고 또 명백하기때문에 어떤 농촌집회나 어떤 비당원농민회의에서도 대다수의 근로농민들에게 리해될수 있으며 그들의 신념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동지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쟁의 시기를 지나 경제건설로 방향을 돌린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고싶어하는것이다. 소농민국가에서의 우리의 주요한 기본과업은 가장 필요하고 긴급하고 농민들이 완전히 받아들일수 있고 완전히 리해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여 농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강제를 실시할줄 아는것이다. 또 이것을 달성하는것은 오직 우리가 수백만의 새사람들, 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설복할줄 알 때에라야만 가능하다. 모든 힘을 여기에 돌리며 또 새로운 설복범위에 적응되도록 활기있고 강화된 강제기관을 방법을 대여 창설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때에는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지을것이다. 지금 농민대중속의 침체와 몽매와 불신의 잔재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시작되고있다. 여기서는 낡은 방법들을 가지고서는 승리할수 없다. 우리는 선전선동과 또 이미 우리가 배운 조직적작용의 방법들로써 승리를 거둘것이며 또 우리는 비단 법령들이 채택되고 기관들이 창설되도록 하며 문건이 작용하기 시작하도록 할뿐만아니라—명령서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는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또한 봄에 가서 모든것이 그전보다 더 잘 파종되도록 하며 소농민경영에서 일정한 개선이 있도록 할수 있을것이다. 가장 초보적인 개선이라도 좋다.—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대규모로 실시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과업을 옳게 리해하고 비당원농민에게 모든 주의를 돌리며 3년동안에 얻은 모든 솜씨와 모든 경험을 여기에 집중할 경우에는 우리는 승리할것이

다. 그러한 승리가 없이는, 소농민경영의 실제적인 대량적개선이 없이는 우리는 구출될수 없다. 이 토대가 없이는 어떠한 경제건설도 불가능하며 비록 아무리 위대한 계획들이라 하더라도 허사로 될것이다. 동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농민들에게 이것을 타이르기 바란다. 아르자마스의 비당원농민들과 같은 1,000만, 1,500만의 농민들에게 끝없이 굶주리며 떨고 살아서는 안된다는것,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올 일련의 전쟁에서 우리가 전복될것이기때문이라는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이것은 국가적리해관계, 우리 국가의 리해관계이다. 여기에서 극히 조그마한 약점, 극히 조그마한 무규률이라도 나타내는자는 로농정권을 반대하는 가장 큰 범죄자이며 그런자는 지주와 자본가를 도와주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지주와 자본가는 자기의 군대를 우리 가까이에 주둔시키고있다. 그들의 군대는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곧 우리에게로 덮쳐들도록 준비를 갖추고있다. 강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주요지주인 농업과 도시공업을 발전시키는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 이것들을 발전시키자면 모든 힘을 비당원농민에 대한 원조를 위하여 동원하면서 그들에게 이를 확신시키고 또 실지로 이 원조를 주는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우리는 농민에게 빚을 지고있는 채무자라는것을 자인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페를 주고 량곡을 가져왔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대부를 받았다. 우리는 반드시 이 채무를 갚아야한다. 우리는 우리 공업을 복구함으로써 그것을 갚을것이다. 그러나 공업을 복구하기 위하여서는 잉여농산물이 필요하다. 바로 이 까닭에 우리의 토지법안은 비단 우리가 실제적목적들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의를 가질뿐만아니라 또한 이 법안이 자체를 초점으로 하여 쏘베트정권의 수백개의 결정과 법안들을 그 주위에 집중시킨다는데서도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 나는 우리의 공업건설의 토대, 우리가 로씨야의 경제력을 재건하기 위한 토대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쌓아지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하겠다. 여기에서 우선 나는 당신들이 이미 받았거나 혹은 수일내로 각 인민위원부들에서 받게 될 수많은 보고서들중에서 우리 식량인민위원부의 보고서의 한곳에 당신들이 주의를 돌릴것을 바란다. 매개 인민위원부는 근일중으로 당신들에게 대량의 실제적보고자료들을 제공할것이다. 이 자료들은 그것들을 합하면 깜짝 놀랄만큼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 성과(그 성과가 아무리 보잘것없는것이라 할지라도)를 거두기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것, 전체 우리 경제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우리 인민경제와 우리 공업의 복구를 위하여 기본적인것을 가려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그러한 토대중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우리 식량수매의 현상태이다. 당신들에게 배포된 이 소책자—식량인민위원부의 3년간의 사업보고—에는 도표가 있다. 그중에서 나는 다만 총계수자만을, 그것도 단수는 떼버리고 읽겠다. 왜냐 하면 수자를 읽는것, 특히 그것을 듣는것은 힘드는 일이기때문이다. 이것은 매해의 수매총화수자들이다. 1916년 8월 1일부터 1917년 8월 1일까지 3억 2,000만뿌드가 수매되였다. 다음해는 5,000만뿌드, 또 그다음엔 1억과 2억뿌드이다. 이 수자들—3억 2,000만, 5,000만, 1억 및 2억—은 쏘베트정권의 경제사의 기초, 경제분야에서의 쏘베트정권의 사업의 기초를 제시하고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건설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토대의 준비과정을 제시한다. 혁명전의 3억 2,000만뿌드—바로 이것은 그것이 없이는 건설할수 없는 개략적인 최소한의 수자이다. 혁명의 첫해는 5,000만을 가지고 기아, 추위, 심한 빈궁을 겪었다. 두번째 해는 1억, 세번째 해는 2억이다.

해마다 배로 늘어났다. 어제 스위제르스끼가 나에게 알린 소식에 의하면 12월 15일까지에 1억 5,500만이다. 우리는 처음으로 일어서게 되였다. 우리는 근 3억, 아마도 그이상의 예비를 가지게 될것이다. 또 그만한 예비가 없이는 나라의 공업을 복구하는것이 불가능하며 운수의 재건을 생각할수 없으며 로씨야의 전기화의 위대한 과업들에 접근할수조차도 없다. 어떠한 사회주의나라라도 만일 그것이 로동자, 농민의 공동노력으로써 산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급양을 보장하며 또 수천수만의 로동자들을 쏘베트정권이 요구하는 곳에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량예비를 마련할수 없다면 로동자, 농민의 정권의 국가로서 존재할수 없다. 이것이 없이는 빈말뿐으로 될것이다. 경제의 진정한 기초는 식량예비이다. 이 면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 성과들로부터 출발하여 또 이 예비를 가지고서 우리는 인민경제의 복구에 착수할수 있다. 우리는 이 성과들이 농민속의 막대한 곤난과 기아와 사료부족 —이것들은 아직도 더 심해질수 있다.—의 대가로써 달성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가물이 들어 농민의 빈궁과 재난을 미증유로 격화시킨것을 알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적한 법안에서 서술된 원조대책들을 첫자리에 내세운다. 우리는 이 식량예비를 공업복구를 위한 예비로, 농민에 대한 원조예비로 보고있다. 이러한 예비가 없다면 국가정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예비가 없이는 사회주의정책은 한갖 념원으로서 남아있을뿐일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선전을 확고히 실시하는외에 또 다른 일종의 작용방법, 즉 현물장려를 결합하여야 한다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가장 큰 법령 및 결정중의 하나는 현물장려법이였다. 우리는 결코 즉시로 그것을 발포할수는 없었다. 당신들이 보면 알겠지만 4월이래

우리는 일련의 결정과 결의를 지었는데 우리 운수기관의 막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가 50만의 식량예비를 마련하는데 성공한 때에야 비로소 현물장려법이 발포되였다. 50만뿌드는 보잘것없는 수자이다. 당신들이 아마 어제 《소식》지107에서 읽었을 보고들은 이 50만뿌드중에서 벌써 17만뿌드가 지출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신들도 보다싶이 예비는 보잘것없고 대단히 불충분하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설복만을 가지고 새 사업방법에로 넘어가는것이 아니라는것의 증거이다. 농민들과 로동자들에게 로동규률을 엄수하라고 말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외에 그들을 원조하여야 하며 헤아릴수 없는 곤난을 겪은후 로력전선에서 계속 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는 사람들을 장려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예비가 생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극히 불만족스럽게 리용되고있다. 즉 우리 인민위원회의 많은 지령들이 현물장려가 실지에 있어서 흔히 로임에 대한 단순한 보충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여기에는 아직도 시정해야 할 점이 많다. 중앙에서는 회의들과 보충안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방들과 광범한 대중들속에서의 사업이다. 국가는 비단 설복할뿐만아니라 또한 훌륭한 일군들에게 비교적 좋은 생활조건으로써 장려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리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자로 되여야만 하는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미 비당원 로동자, 농민 대중들의 공감을 사전에 보장받고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상을 더 널리 보급시키며 지방들에서 이 사업을 더 실천적으로 조직하는것만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연료문제에 시선을 옮긴다면 리꼬브동지의 테제들중에서 당신들은 달성된 개선, 비단 신탄뿐아니라 또한

석유사정의 개선을 표현하고있는 수자들을 볼것이다. 지금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로동자들이 발휘하고있는 거대한 열성과 우리들사이에 수립되여있는 친선관계들과 인민경제위원회가 파견한 능숙한 지도자들에 의하여 원유채굴사업은 훌륭히 진행되고있으며 그리하여 연료문제에서도 우리는 자립하기 시작하고있다. 돈바쓰에 파견되여있는, 뜨로쯔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전권위원단의 사업의 덕택으로 우리는 돈바쓰에서 받는 석탄을 월 2,500만뿌드로부터 5,000만뿌드까지 높이고있다. 전권위원단에서는 책임적이며 경험있는 일군들을 그곳 사업에 파견하도록 하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지금 그곳에 사업지도를 위하여 빠따꼬브동지가 파견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료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약간의 대책들을 취하였다. 돈바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있는 가장 큰 기지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문건들중에서 돈바쓰에 관한 결정들을 찾아낼수 있다. 이 문건들에서는 중앙정권의 대표들과 지방일군들을 단합할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위원단을 지방에 파견하는 문제가 론의되고있다. 우리는 지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는 이 위원단들이 이 사업들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우리들이 앞으로도 역시 조직하게 될 이 위원단들의 사업결과를 보게 될것이다.

나는 연료분야에서 우리가 달성한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는 수압식니탄채굴법이라는것을 말해야 하겠다. 니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연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견디기 어려운 제 조건하에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에 그것을 리용할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방법은 우리가 우리 경제전선의 엄중한 위협중의 하나인 연료기근으로부터 빠져나올수 있게 할것이다. 만일 낡은 운영방법이 그대로 남

아있다면 우리는 오래동안 이 막다른골목으로부터 빠져나올수 없을것이다. 우리 니탄위원회일군들은 이 새 발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두 로씨야기사들에게 원조를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새 방법을 얼마 안 가서 완성할수 있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제면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자지를 주게 될 위대한 혁명의 전야에 있다. 우리가 무진장한 니탄부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역로동에 사람들을 파견할수 없는 까닭에 그것들을 리용할수 없다. 자본주의제도는 고역로동에 사람들을 파송할수 있을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기아로 인하여 일하러 그곳에 갔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로 된 오늘 우리는 이 고역로동에 사람을 파송할수 없다.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자본주의제도는 상류층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자본주의제도는 하층들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

도처에서 기계를 더 많이 도입하며 될수록 광범히 기계기술을 도입하는것이 필요하다. 최고인민경제위원회가 그처럼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온 수압식니탄채굴법은 거대한 량의 연료를 획득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있으며 숙련로동자를 인입할 필요성도 없게 한다. 왜냐 하면 그러한 방법하에서는 미숙련로동자들도 작업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계들을 생산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대표들이 니탄채취작업의 기록영화를 보도록 권고하고싶다. 이 기록영화는 모스크바에서 상영되였으며 또 대회대표들을 위하여 상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것은 연료기근에 대한 승리의 기초중의 하나가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줄것이다. 우리는 새 방법을 실시하면서 사용할 기계들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잘 만들지 못하였다. 외국과의 상품교류를 위하여 우리는

이미 외국에 사람을 파견하였다. 비록 반합법적이기는 하나 무역거래가 현존하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발명가들이 고안한 이 기계들을 훌륭히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이 기계들의 수에 의하여 또 니탄총위원회와 최고인민경제위원회의 이 분야의 사업성과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경제적성과들이 측정될것이다. 왜냐 하면 연료기근에 대한 승리가 없이는 경제전선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기때문이다. 운수복구분야의 극히 중대한 성과들도 또한 이와 련결되여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옘샤노브와 뜨로쯔끼 두 동지의 테제로부터 여기 이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해를 내다보고 작성한 본격적인 계획을 가지고있는것을 벌써 알고있다. 제1042호명령은 5년을 예산하였다. 또 5년동안이면 우리는 우리 운수를 복구할수 있으며 고장난 기관차의 수를 감소시킬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어려운것으로서 우리가 이미 이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테제 9의 지적을 강조하고저 한다.

그런데 여러해를 예산하는 큰 계획들이 나타나면 흔히 회의론자들이 나서서 언제 여러해를 예산하고있겠는가, 당장 필요한것을 하는것만도 괜찮은것인데 하고 말한다. 동지들, 전자와 후자를 결합시킬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성과를 예견하는 장기적계획이 없이는 사업을 해나갈수 없다. 그것이 실지에 있어서 그러하다는것은 운수사업의 명백한 개선이 이를 증시한다. 나는 테제 9가운데서, 운수복구를 위한 기간으로서 5년을 규정하고있었으나 우리는 기준이상으로 일하고있기때문에 그것이 이미 단축되여 3년 반으로 규정되였다는 개소에 당신들이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다른 경제분야들에서도 이와 같이 일하여야 한다. 로동국방위원회의 실천적현실적과업은 더욱더 이에 귀결된다. 과학과 실천의 경험들을 주시하면서 계획이 예정된것보다 더 빨리 수행되도록 견결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험은 우리가 공업의 완전한 복구까지에 이르는 오랜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다는것을 대중이 알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매개 제작소, 매개 기관고, 매개 부문에서 운영을 개선하게 되면 그때엔 우리는 기한을 단축시킬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단축시키고있다. 여러해를 예상하는 계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이 없이는 경제재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지에서는 이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계획들이 일정한 예정안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며 또 이 예정안이 앞당겨 수행되면 장려하며 격려하여야 한다. 즉 대중이 기아, 추위 및 빈궁의 시기를 단축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제계획을 그들이 빨리 리행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알뿐만아니라 느끼도록 되여야 한다. 모든 개별적생산부문들의 계획들이 엄격히 균형이 잡히고 련결되여 한데 합쳐져서 우리에게 절박히 요구되는 통일적인 경제계획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앞에는 경제관계인민위원부들을 하나의 경제적중심에 통합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취급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로동국방위원회기관의 개조에 관한 인민위원회와 로동국방위원회의 결정을 당신들의 심의에 회부하였다.

당신들은 이 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나는 그것이 필요한 수정을 거친후에 만장일치로 채택되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내용이 대단히 간단하기는 하나 그러나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형편을 더 정확히 알며 또 제1면에 나선 전체 경제사업을 통합하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쌔브동지는 대회전 문헌인 자기 소책자에서 바로 이 과

업에 언급하였다. 겸해서 말해둔다면 이 소책자는 그의 전번 소책자가 성공한만큼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소책자에는 로동국방위원회의 조직과 그곳에 많은 저명한 일군들을 이동시킬데 대한 엉뚱한 계획이 있다. 이 저명한 일군들중에는 뜨로쯔끼와 리꼬브의 이름도 들어있다. 나는 이러한 환상놀음이 적었으면 하고 말하고싶다. 우리는 3년동안에 창설된 기구를 일거에 버릴수는 없다. 우리는 그것의 커다란 결함들을 알고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그 결함들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할것이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로서 일정에 오르고있다. 나는 쏘베트기구의 개선문제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심성있게 일하면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실지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기구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쎄브동지는 우리가 제출한 안을 조소하면서 우리가 로동국방위원회에 농업인민위원부를 증설할것을 제의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옳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안도 제의하였었다. 이 안에서는 로동국방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다만 인민위원회의 직속 로동국방위원회 조직문제를 제기하고있을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로동국방위원회에서 아무런 법규정도 없이 일하였다. 인민위원회와 로동국방위원회의 관할범위는 잘 규정되여있지 못하다. 우리는 가끔 관할범위를 벗어나 립법기관과 같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이 토대우에서 한번도 분쟁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곧 인민위원회에 넘김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였다. 로동국방위원회로부터 경제정책을 더 통일시키는 기관을 창설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우리앞에는 어떻게 립법절차를 통하여 이 관계들을 규정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두 안이 우리앞에 나섰다. 첫째는 인민위원회와 로동국방위원회의 관할범위에 한계를 짓는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전편찬가들의 힘이 소요되며 대량의 종이를 소비하여야 한다. 그래도 역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오를 면할수 있게 보장해주지는 못할것이다.

다른 방법을 취하자. 로동국방위원회는 인민위원회와 거의 같은것으로 생각되여왔다. 이런 생각을 버리자. 로동국방위원회를 인민위원회직속의 위원회로 되게 하자. 우리는 대량의 마찰을 제거할것이며 또 실현을 다그칠것이다. 만일 어느 인민위원회의 위원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인민위원회에 제기하라. 인민위원회는 몇시간안으로 소집할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들간의 마찰을 제거할것이며 또 로동국방위원회를 사업능률이 높은 기관으로 만들것이다. 그것은 용이치 않은 과업이다. 이 과업은 통일적경제계획의 실지작성과 련결되여있다. 우리가 이렇든저렇든 약간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또 2년동안 준비한 과업은 요컨대 경제관계인민위원부들의 통합을 달성하는데 있다. 내가 로동국방위원회에 관한 이 법안에 당신들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나는 당신들이 필요한 보충을 가한 다음 그것을 비준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때엔 경제관계인민위원부들의 통합사업이 더 원활하게, 더 빠르게, 더 확고하게 진행될것이다.

나는 최종항목—전기화문제에 언급하겠다. 전기화문제는 특별한 문제로서 대회의정에 오르고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문제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될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쨌든 쏘베트정권이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증명하여주는 아주 중대한 전환의 시각에 여기서 회의를 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로대회들의 연단에는 앞으로 정치가와 정무원들뿐만아니라 또한 기사와 농학자들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이것은 정치가 점점 더 적어지며 정치에 관하여는 더 드물게 또 그렇게 길지 않게 말하게 되며 기사와 농학자들이 더 많이 말

하게 될 가장 행복한 시대의 시초이다. 경제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위하여는 이 관례를 전로쏘베트대회가 우선 보이고 다음 모든 쏘베트와 단체, 모든 신문, 모든 선전선동기관, 모든 관리기관에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 관례를 따르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심할바없이 정치를 배웠다. 정치에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 못한다. 이 면에서 우리에게는 토대가 있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사태가 좋지 못하다. 금후에는 가장 훌륭한 정치란 될수록 정치를 적게 론하는것이다. 기사와 농학자들을 더 많이 발동시키라.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사업을 검열하라. 대회들과 회의들을 말공부를 하는 기관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성과들의 검열기관으로, 우리가 진실로 경제건설을 배울수 있는 기관으로 전변시키라.

당신들은 전기화국가위원회113의 보고를 듣게 될것이다. 이 위원회는 1920년 2월 7일부 전로중앙집행위원회결정으로 창설되였다. 2월 21일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이 전기화국가위원회구성에 대한 최종결정에 서명하였다. 그리하여 제일먼저 최고인민경제위원회의 많은—100명이 넘는—가장 우수한 전문가들과 일군들을 완전히 이 사업에 돌렸으며 교통인민위원부와 농업인민위원부의 우수한 력량을 여기에 첨가하였다. 전로전기화위원회 사업성과는 이 소책자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 소책자는 오늘이나 래일은 당신들모두에게 배포될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이 소책자에 놀라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이 소책자의 특수한 의의를 당신들에게 확신시키는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우리 당의 제2강령이다. 우리들에게는 당의 강령이 있다. 그것은 쁘레오브라젠스끼와 부하린 두 동지가 이 두껍지는 않으나 극히 귀중한 소책자에서 훌륭히 해명해놓았다. 그것은 정

치적강령이다. 그것은 우리 과업들의 일람표이다. 그것은 계급들과 대중들간의 관계의 해명이다. 그러나 또한 실지로 이 길에 들어서며 그 실지결과들을 측정할 때가 왔다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강령은 단지 당의 강령으로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경제건설의 강령으로 전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당의 강령으로서는 소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제2의 당강령, 즉 전반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그것이 현대기술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계획에 의하여 보충되여야 한다. 전기화계획이 없이는 우리는 실지건설에로 넘어갈수 없다. 우리는 농업, 공업 및 운수의 복구와 이 부문들간의 협동에 대하여 말하면서 광범한 경제계획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일정한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그것은 단지 개략적인 첫 초안으로서 채택되는 계획으로 될것이다. 이 당강령은 당대회들에서나 개정할수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우리의 당강령과 같은 그러한 불변의것은 아닐것이다. 아니다, 이 강령은 매일 매 작업장에서, 매개 마을에서 개선되며 연구되며 완성되며 변경될것이다. 그것은 10년이상을 예견하며 또 어떻게 로씨야를 공산주의에 필요한 진정한 경제토대우에 옮겨놓을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경제계획으로 전체 로씨야앞에 나타날 첫 초안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전선에서 싸워 훌륭히 승리하였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정력을 10배로 되게 한 강력한 추동력의 하나는 어떤것이였던가? 위험에 대한 자각이였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로씨야에 지주와 자본가들이 돌아올수 있는가 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올수 있다고들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배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승리하였다.

경제전선을 들어 물어보라, 경제적으로 로씨야에 자본주

의가 돌아올수 있는가? 우리는 《쑤하렙까》114와 투쟁하였다. 며칠전에, 전로쏘베트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모스크바로동자붉은군대대의원쏘베트는 이 유쾌하지 않은 기관을 폐쇄하였다. (박수) 《쑤하렙까》는 폐쇄되였다. 그러나 폐쇄된 《쑤하렙까》가 무서운것은 아니다. 쑤하레브광장에 있는 이전 《쑤하렙까》는 폐쇄되였다. 그것을 폐쇄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무서운것은 매개 소경영자의 정신과 행동 속에 살아있는 《쑤하렙까》이다. 이 《쑤하렙까》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쑤하렙까》는 자본주의의 기초이다. 그것이 있는 동안은, 자본가들은 로씨야에 돌아올수 있으며 또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될수도 있다. 이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 인식은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우리들의 실제적성과를 측정하는 조건, 척도로 되여야 한다. 우리가 소농민국가에서 살고있는 한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존재한다.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촌생활을 도시생활과 비교하여 주의깊게 관찰한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했으며 국내의 적들의 토대를 허물어내지 못했다는것을 알것이다. 국내의 적들은 소경영에 의지하고있다. 이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가지 수단이 있을뿐이다. 즉 농업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를 새 기술토대우에,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는것이다. 그러한 토대로 되는것은 다만 전기화뿐이다.

공산주의—이것은 쏘베트정권 플라스 전국의 전기화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는 여전히 소농민국가로 머물러있을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단 세계적규모에서뿐만아니라 또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보다 약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토대를 소농민적인것으로부터 대공

업적인것으로 옮겨놓고야말것이다. 오직 나라가 전기화될 때, 공업, 농업 및 운수에 현대적대공업의 기술적토대가 놓여질 때, 오직 그때에라야 우리는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벌써 나라의 전기화의 예비안을 작성하였다. 200명의 우리 우수한 과학자 및 기술일군들이 이 계획작성에 동원되였다. 오랜 기간, 앞으로 10년이상에 걸쳐서 소요되는 물질적 및 재정적 계산을 알려주는 계획이 작성되였다. 이 안은 전기화의 실시를 위하여 몇백만통의 세멘트와 몇백만장의 벽돌이 필요한가를 지적하고있다. 재정면에서 전기화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10억 내지 12억 금루블을 예상하고있다. 당신들도 알다싶이 우리의 황금예비로써는 결코 이 모든 수자를 충당할수 없다. 우리에게는 식량예비도 또한 많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미 말한 계획에 따라 리권들로써 이 수자를 충당하여야 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기초우에서 우리 공업과 운수의 복구사업이 계획되고있는가를 계산에서 알게 될것이다.

나는 얼마전에 모스크바성의 벽지인 월로꼴람스크현에서 농민들의 어떤 명절115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곳 농민들의 집회에는 전등이 있었다. 거리에서 경축대회가 열렸었다. 그러자 한 농민이 나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농민생활에 일어난 이 새 사건을 축하하였다. 그는 우리 농민은 암흑속에 있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광명이, 《우리 농민의 암흑을 비쳐줄 비자연적광명》이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나자신은 이 말에 놀라지 않았다. 물론 비당원농민대중에게 있어서는 전기광선은 《비자연적》광선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농민과 로동자들이 수백, 수천년을 그러한 암흑과 빈궁과 그리고 지주 및 자본가들의 억압속에서 살수 있었다는것이 비자연적이다. 이 암흑으로부터 단번에 빠

져나올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건설한 매개 발전소가 진실로 계몽의 거점으로 변해지도록, 매개 발전소가 말하자면 대중에 대한 전기교육을 하도록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연구작성된 전기화계획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현되자면 여러해가 걸려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계획을 실현하며 또 그 수행기한을 단축시켜야 한다. 여기서도 반드시 우리의 초기경제계획들중의 하나인 운수복구계획—제1042호명령수행에서 일어난것과 꼭같은것이 일어나야 한다. 이 계획은 5년을 예산하였었다. 그러나 기준이상으로 수행되고있기때문에 이 기간은 지금 벌써 3년 반으로 단축되였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맹이 있는 한 전기화가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전에 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해야 할것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읽고 쓰는것외에 문화적이며 자각적이며 교양있는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즉 농민의 대다수가 우리앞에 나서는 과제들을 명확히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다. 이 당강령은 반드시 모든 학교들에서 배우는 기본책자로 되여야 한다. 당신들은 이 당강령에서 전기화실시에 대한 전반적계획과 함께 로씨야의 매개 지방을 위하여 작성된 특수계획들도 보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에 가는 매개 동지들은 그 지방의 전기화를 어떻게 실시할것인가, 어떻게 암흑으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에로 이행할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지들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규정들을 현지에서 비교하고 연구하고 검열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매개 학교, 매개 소조에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당강령에 씌여있는것만을

대답할뿐아니라 또한 어떻게 압흑상태로부터 빠져나갈것인가를 말하도록 교양해야 한다.

우수한 일군들, 경제전문가들은 로씨야의 전기화 및 로씨야의 경제복구계획작성이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리행하였다. 이제는 로동자, 농민들이 이 과업이 얼마나 크고 어려우며 어떻게 이 과업에 착수하여 그것을 담당해나설것인가를 알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매개 제조소, 매개 발전소가 계몽의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로씨야가 발전소들과 강력한 기술시설들의 빽빽한 그물로 덮이게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공산주의경제건설은 장래의 사회주의적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범으로 될것이다.(폭풍우와 같은, 오래 그칠줄 모르는 박수소리)

1921년에 출판된 《제8차전로쏘베트대회. 속기록》에 게재

이 책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441~470폐지

직업동맹에 관하여, 현시국과 뜨로쯔끼의 오유에 관하여[116]

(1920년 12월 30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당원들인 제8차쏘베트대회 대표들,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위원 및 직업동맹 모스크바성평의회 위원들의 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우선 내가 절차를 위반하는데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하겠다. 왜냐 하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서는 두말할것없이 보고와 보충보고와 토론을 들었어야 할것이기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렇게 할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함을 느끼고있다. 그렇지만 나는 어제 인쇄된 기본문건들을 읽고 나의 의견을 작성할수 있었다. 내가 말한 그 절차의 위반은 자연 당신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것이다. 즉 다른 동지들이 말한것을 모르고, 대답을 주어야 할 점에 대답을 주지 못하면서 같은것을 되풀이할수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달리 할수가 없었다.

나의 토론의 기본자료로 된것은 뜨로쯔끼동지의 소책자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에 관하여》이다. 이 소책자를 뜨로쯔끼동지가 중앙위원회에서 제기한 그 테제들과 대조하면서, 이 소책자를 정독하여볼 때 나는 리론적오유와 혹심한 착오들이 여기에 얼마나 집중되여있는가 하는데 놀라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당적토론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신중히 고려

된것을 내놓을 대신 어떻게 이토록 불만족스러운것을 만들수 있었는지? 나는 근본적인 리론적오유들이 내포되여있다고 생각되는 그 기본조항들을 간단히 제기하겠다.

직업동맹은 력사적으로 불가결할뿐만아니라 력사적으로 불가피한 산업무산계급의 조직체로서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는 산업무산계급을 거의 빠짐없이 포괄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인데 뜨로쯔끼동지는 이것을 항상 망각하며 이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사실 그가 설정한 론제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이란 굉장히 광범한 론제인것이다.

상술한바에서 벌써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하는 전반 과정에서 직업동맹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 역할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리론상 문제의 하나인 이 문제의 토의에 넘어가면서 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대단히 독특한 역할을 보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편 산업로동자들을 조직의 대렬속에 빠짐없이 인입함으로써 직업동맹은 통치하며 지배하며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계급, 독재를 실시하는 그 계급, 국가적강제를 실시하는 그 계급의 조직체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조직체가 아니며 강제의 조직체가 아니다. 이것은 교양적조직체이고 인입과 훈련의 조직체이며 학교, 관리의 학교, 운영의 학교, 공산주의의 학교이다. 이것은 보통 말하는 학교와는 전혀 다른 류형의 학교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교원 및 학생들을 상대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남은 그리고 남지 않을수 없은 그것과 혁명적선진대렬, 말하자면 무산계급의 혁명적전위대가 자기 대렬에서 내놓은 그것과의 어떤 대단히 독특한 결합체를 상대하게 되기때문이다. 바로 이 진리를 고려함이 없이 직업동맹의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은 불가피하게 일련의 착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동맹은 무산계급독재체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만일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면, 당과 국가주권사이에 서있다고 말할수가 있다. 사회주의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무산계급독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산업로동자를 모조리 망라한 조직체에 의해서 이 독재가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정당일반의 역할에 관한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테제가운데서 이에 대한것을 읽을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이 점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결론은 다음과 같게 된다. 당은 말하자면, 무산계급의 전위대를 자체내에 흡수하고 이 전위대가 무산계급독재를 실시한다. 그런데 직업동맹과 같은 그러한 토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독재를 실시할수 없으며 국가적기능을 수행할수 없다. 그리고 국가적기능의 수행도 역시 새로운 그 어떤 형태의 특수한 일련의 기관들을 거쳐서, 즉 쏘베트기구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실천적결론이라는 면에서 이 상태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직업동맹이 전위대와 대중과의 **련계**를 설정하며 대중을, 오직 그만이 우리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 인도해나갈수 있는 그 계급의 대중을 일상적인 사업을 통해서 설복한다는 그 점에 있다. 이것은 한 측면으로부터의 고찰이다. 다른 측면으로, 직업동맹은 국가주권의 《저수지》이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직업동맹이란 바로 이러하다. 자본주의에 의하여 대생산을 위한 교양을 받았고 소소유자의 리해관계에서 해방된 유일한 이 계급의 지배적지위가 없이는 이 이행은 결코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을 모조리 망라한 조직체를 통해서는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할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락후한 자본주의국가의 하나인 우리 나라에서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도 무산계급을 모조리 망라한 조직체

로서는 무산계급독재를 직접 실현할수 없을만큼 그렇게 무산계급은 아직도 분산되여있으며 천시당하고있으며 어떤데서는 매수당하고있기때문이다.(바로 개별적나라들에서 매수당하고있다.) 계급의 혁명적정력을 자체내에 흡수한 그 전위대만이 독재를 실시할수 있다. 이렇게 되여 일련의 치차와 마찬가지격이 된다. 무산계급독재의 기초자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본질자체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것이다. 벌써 이로부터, 뜨로쯔끼동지가 첫째 테제에서 《사상적혼란》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바로 직업동맹의 위기에 관해서 말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원칙상 옳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것이 명백해진다. 위기를 론하는것은 정치적국면을 분석한후에라야 할수 있는 일이다. 《사상적혼란》은 바로 뜨로쯔끼에게서 나타나고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본 직업동맹의 역할에 관한 바로 기본적인 문제에서 그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무산계급을 모조리 망라한 조직체를 통해서는 무산계급독재를 실시할수 없는만큼 단순한 체계가 있을수 없고 여기에는 약간의 치차의 복잡한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선진계급의 전위대와 그 계급의 대중을 련결하며 또 그와 근로대중을 련결하는 약간의 《인전대》가 없이는 무산계급독재를 실시할수 없다. 로씨야에서는 이 대중이란 농민대중이다. 다른 나라들에는 이러한 대중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에도 비무산계급대중 혹은 순전히 무산계급적이 아닌 대중이 있다. 벌써 이로부터 사상적혼란이 실지로 나타나게 된다. 다만 뜨로쯔끼는 이 사상적혼란을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씌우고있을따름이다.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에 관한 문제를 들어볼 때 나는 뜨로쯔끼가 항상 《원칙적으로》만 이를 론하며 《일반적원칙》에

대해서만 말하고있는 그 근본적인 오유를 보게 된다. 그의 모든 테제들에서는 문제가 《일반적원칙》의 관점에서 론의되고있다. 벌써 이 점에서 문제의 설정부터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제9차당대회는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에 관해서 충분히, 아주 충분히 론의하였다117는데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뜨로쯔끼자신이 로좁스끼와 똠스끼의 극히 명확한 성명들을 자기자신의 테제들에서 인용하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 로좁스끼와 똠스끼는 독일식으로 말해서 《때리기 위한 아이》, 즉 론쟁의 련습을 해볼 대상으로서 등장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의견상이가 없는만큼 뜨로쯔끼자신에 의하여 인용되는 저작의 필자 똠스끼와 로좁스끼는 론쟁의 대상으로서 적절하게 선택되지는 못하였다. 원칙적의견상이의 분야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아무런 중대한것도 발견하지 못할것이다. 일반적으로 크나큰 오유, 원칙적인 오유는 뜨로쯔끼동지가 지금 문제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면서 당과 쏘베트정권을 뒤로 끌어가고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다행히도 원칙에서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사업으로 넘어갔다. 스몰니39에서 우리는 원칙에 관하여 군소리를, 그것도 틀림없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하였다. 3년후인 지금에 와서는 생산문제의 전체 조항에 대한, 이 문제의 수많은 구성요소에 대한 법령들이 있다. 이 법령들이란 참 가련한 물건이다.—서명을 하고나서는 우리자신이 잊어버리고 우리자신이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원칙에 관한 론의들을 생각해내며 원칙적의견상이들을 생각해내는것이다. 나는 후에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문제에 관계되는 법령①,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잊어버린 법령을 지적하련다.

① 이 책, 563~564페지를 보라. —편집자

존재하는 실제적의견불일치는 내가 렬거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원칙에 관한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것이다. 내가 렬거한 뜨로쯔끼동지와 나와의 《의견상이》를 내가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이라는 광범한 론제를 택함으로써 뜨로쯔끼동지가, 나의 확신에 의하면,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문제의 본질자체와 관련된 일련의 오유를 범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을 젖혀놓는다면 참말로 무엇때문에 우리에게 그처럼 필요한 화목한 사업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가? 대중에게 접근하며 대중을 쟁취하며 대중과 련계를 맺는 방법문제에서의 의견불일치때문이다. 여기에 본질전체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하에서 창건되였고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며 먼 장래에는 그 존재가 문제시될 기관으로서의 직업동맹의 특성이 있는것이다. 직업동맹의 존재가 문제시될 때는 먼 장래이며 그것은 우리의 손자들에 의하여 론의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대중에게 접근하며 대중을 쟁취하며 대중과 련계를 맺으며, 어떻게 사업(무산계급독재를 실시하는 사업)의 복잡한 인전대들을 정비할것인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내가 말하는 사업의 복잡한 인전대란 쏘베트기구를 말하는것이 아니라는데 주의해주기 바란다. 인전대들의 복잡성이라는 면에서 거기에 또 어떤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아직은 나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에 대해서 다만 추상적, 원칙적으로 말하고있을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는 무산계급이 있고 비무산계급근로자대중이 있으며 소자산계급이 있고 자산계급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심지어 쏘베트정권기관내에 관료주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전대들이 자본주의에 의하여 창건되였다는 그것때문에 벌써 이것들의 대단한 복잡성이 생긴다. 직업동맹의 《과

업》의 곤난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야 하는것이다. 사실상의 의견불일치는 되풀이하거니와 뜨로쯔끼동지가 보고있는 거기에 있는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대중을 여하히 쟁취할것인가 하는 문제, 대중에의 접근, 대중과의 련계에 관한 문제에 있는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자신의 실천, 우리의 경험을 소규모에서나마 세부에 걸쳐 상세히 연구하였더라면 뜨로쯔끼동지의 이 소책자에 가득한 수많은 원칙적오유들과 쓸데없는 《의견상이》는 피할수 있었을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수 없다. 례를 들면 이 소책자에서 많은 테제가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와의 론쟁에 바쳐지고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공연히 새 허수아비를 발견해낸것이다! 그런데 허수아비로 된것은 누구인가? 랴자노브동지이다. 나는 랴자노브동지를 20여년전부터 알고있다. 당신들은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못하나 사업상으로는 나보다 못하지 않게 그를 알고있다. 당신들은 구호들에 대한 평가가 그의 장점이 아니라는 것(물론 그에게는 다른 장점이 있다.)을 잘 알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랴자노브동지가 때때로 부적당하게 말한것을 테제들에서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로 묘사해야 한단 말인가! 과연 이것이 진지한 태도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때에는 우리에게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며 《쏘베트적반강화조약체결주의》며 하는것들이 나타날것인데 그밖에 또 무엇이 나타날는지 나는 모르겠다. 쏘베트적《주의》를 꾸며내지 못할 그러한 조항이란 하나도 없는것이다.(랴자노브: 《쏘베트적반브레스트주의》) 그렇다, 아주 옳은 말이다, 《쏘베트적반브레스트주의》도 있을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중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 뜨로쯔끼동지는 바로 여기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있다. 그의 말대로 하면 로동계급의 물질적 및 정신적 리해관계의 수호는 로동자국가에

서의 직업동맹의 역할이 아닌것으로 된다. 이것은 오유이다. 뜨로쯔끼동지는 《로동자국가》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그러나 실례이지만 이것은 추상적표현이다. 우리가 1917년에 로동자국가에 관하여 썼을 때, 그것은 리해할수 있는 말이였다. 그러나 지금 《로동계급을 왜 수호하며 누구로부터 수호하여야 하겠는가, 자산계급은 없으며 국가는 로동자국가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말들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잘못이다. 전적인 로동자국가가 아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뜨로쯔끼동지의 기본오유의 하나가 있다. 지금 우리는 일반적원칙으로부터 실무적인 토의와 법령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 및 실무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뒤로 끌어당기고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가는 사실인즉 로동자국가인것이 아니라 로동자-농민국가이다.—이것이 첫째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대단히 많은것이 흘러나온다.(부하린: 《무슨 국가라구요? 로동자-농민국가라구요?》) 부하린동지가 《무슨 국가라구요? 로동자-농민국가라구요?》 하고 뒤에서 고함을 치지만 이 점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원하는 사람들은 방금 끝난 쏘베트대회를 상기하라, 그러면 거기서 벌써 대답을 얻을것이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다. 《공산주의입문》의 저자에게 대단히 잘 알려져있는 문헌인 우리 당강령을 본다면, 벌써 이 강령만 보더라도 우리의 국가는 **관료주의적폐단을 가지고있는** 로동자국가인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쾌한—무엇이라 말할가?—딱지를 로동자국가에 붙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이 당신들이 알아야 할 이행의 현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국가에서 직업동맹이 아무것도 수호할것이 없으며 빠짐없이 조직에 망라된 무산계급의 물질적 및 정신적 리해관계를 직업동맹 없이 수호해낼수 있단말인가? 이

것은 완전히 리론적으로 옳지 못한 론단이다. 이것은 우리를 추상과 리상의 령역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리상에 도달하자면 우리는 15년 내지 20년이 지나야 할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그 기간에 도달하게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나는 자신이 없다. 우리들앞에 있는것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현실인데 만일 우리가 지식인냄새가 나는 이야기나 또는 추상적인 론의에 도취되여 거기에 몰두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가끔 《리론》인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는 오유이며 이행의 특수성에 대한 그릇된 고려에 불과한 그런것에 몰두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잘 알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국가는 다음과 같은 형편에 있다. 즉 례외없이 조직에 망라된 무산계급은 자신을 수호하여야 하며 한편 우리는 로동자들을 자기의 국가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로동자들로써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로동자조직체들을 리용하여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다. 그리고 이 수호는 전자나 후자나 다 우리의 직업동맹과의 우리의 합의, 《결합》과 우리의 국가적시책과의 독특한 배합을 거쳐서 실현되는것이다.

나는 이 결합에 관하여 후에 다시 말해야 하겠다. 그러나 벌써 이 한마디의 말은,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라는 적을 여기서 생각해낸다는것이 오유를 범함을 의미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왜냐 하면 《결합》이라는 개념은 장차 결합시켜야 할 각이한 사물이 현존함을 의미하며, 《결합》이라는 개념속에는 빠짐없이 결속된 무산계급의 물질적 및 정신적 리익을 국가주권으로부터 옹호하기 위하여 이 국가주권의 시책들을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이 들어가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결합 대신 유착과 합류를 얻게 된다면 그때에 우리는 대회를 소집하고 원칙적《의견상이》나 추상적인 리론적론의가 아니라 실천적인 경험을 실무적으로 토의하게 될것이다. 자기가 직맹《관료주의

자》로 취급하고있는 똠스끼동지 및 로좊스끼동지와의 자기의 원칙적의견상이를 발견하려는 뜨로쯔끼동지의 시도도 역시 실패하였다. —이 론쟁에서 관료주의적경향이 누구 편에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만일에 랴자노브동지에게는 구호를, 그것도 거의 원칙적인 구호를 반드시 고안해내고야마는 자그마한 약점이 가끔 나타나군 한다면 똠스끼동지에게는 많은 결함이 있으나 이러한 결함만은 없다. 때문에 여기서 똠스끼동지와 원칙적인 싸움을 전개하는것은(뜨로쯔끼동지가 그렇게 하고있듯이)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분파적의견상이, 리론적의견상이 및 기타 온갖 의견상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들모두가 많은 잘못을 범한 시기가 있었다.—그러나 이것저것 물론 유익한 일도 하여놓았었다.—그런데 우리는 그때로부터 장성한듯싶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적의견상이의 고안과 과장으로부터 실무적사업으로 넘어갈 시기이다. 나는 똠스끼에게 리론가로서의 자질이 우세하다는 말을, 똠스끼가 리론가의 칭호를 탐냈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이것이 그의 결함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딴 문제이다. 그러나 직맹운동에 익숙한 똠스끼는 이 복잡한 이행을 자기 위치에서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나—이것은 딴 문제이지만 나는 그가 항상 의식적으로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반영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대중이 무엇인가를 아파하나 대중자신은 무엇이 아픈지를 모르고있으며 똠스끼도 무엇이 아픈지 모르고있더라도(박수, 웃음) 그가 이때에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공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똠스끼동지에게 부분적인 리론적오유가 많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모두 책상에 앉아서 결정서나 테제를 숙고하면서 쓴다면 우리는 모든것

을 바로잡게 될것이다. 그렇지만 바로잡는 일에 착수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적사업은 사소하기 짝없는 리론상 의견상이의 시정보다 더 흥미있기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생산적민주주의》로 넘어가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부하린을 위한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나 자그마한 약점들이 있으며 큰 인물에게도 그런 자그마한 약점들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데 부하린이 역시 그러하다. 까다로운 멋진 말마디라면 그는 찬성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생산적민주주의에 대하여 그는 12월 7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결정서를 썼다. 그런데 이 《생산적민주주의》를 깊이 생각해보면 볼수록 더 명백히 리론상의 허위가 내 눈에 뜨이며 소홀함이 내 눈에 뜨인다. 여기에는 혼돈이외의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례로 보아서 다시한번 적어도 당회의에서 《에. 이. 부하린동지, 까다로운 멋진 말마디는 좀더 적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리론을 위해서, 공화국을 위해서 유익할것이요.》라고 말해야 하겠다. (박수) 생산은 항상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정치분야에 국한된 범주의 하나이다. 이 단어를 연설, 론설에서 쓰는데 대해서는 반대할수 없다. 론설은 어떤 호상관계를 들어서 그것을 선명하게 표현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것을 테제로 전화시킬 때에는, 이것으로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결합시키는 구호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뜨로쯔끼가 말한바와 같이 당은 《두 경향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아주 이상하게 들린다. 나는, 당이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당으로 하여금 《선택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한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하여는 따로 이야기하련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된만큼 우리는 《하여튼간에 〈생산적민주주의〉와 같은 리론상으로 그릇된, 혼란외에 아무것도 내포하고

있지 않는 구호들은 더 적게 선택하시오.»라고 말해야겠다. 뜨로쯔끼도 부하린도 다 이 술어에 대하여 분명히 리론적으로 숙고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혼란에 빠졌다. «생산적민주주의»는 그들의 흥미를 끈 그 사상의 범위내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사상으로 이끌어간다. 그들은 생산을 강조하고싶었으며 더 많은 관심을 생산에 집중하고싶었다. 론설, 연설에서 강조하는것,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 그러나 테제로 전화시킬 때, 그리고 당이 선택하여야 할 때에는 나는, 이것은 혼란이기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 선택하라고 말하겠다. 생산은 항상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항상 필요한것은 아니다. 생산적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허위인 일련의 사상을 낳는다. 유일관리제를 선전한것도 오래전 일이 아니다. 언제는 민주주의, 언제는 유일관리제, 언제는 독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을 조성하고 혼돈을 초래케 하여서는 안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독재를 포기하여서는 안된다.—부하린이 뒤에서 «정말 그렇다.»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린다.(웃음, 박수)

다음. 9월부터 우리는 중점제로부터 평균제에로의 이행에 관해서 말하고있다.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전당대표자회의결정서118에 이것이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중점제와 평균제를 결합시켜야 하는데 이 개념들은 상호배제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맑스주의를 그래도 약간 배웠으며 어떻게 그리고 어느때에 대립물을 통일시킬수 있으며 통일시켜야 하는가를 배웠다. 그런데 주요한것은 혁명에서 3년 반동안 우리가 실지 여러번 대립물을 통일시켜왔다는 점이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신중히 문제에 대하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7인파와 8인파 및 부하린동지의 유명한 «완충집단»119이 나타났던 그 불쾌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들①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거기에서 중점제로부터 평균제에로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것을 벌써 규정하였다. 그런데 9월대표자회의의 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일을 좀 하여야 하겠다. 사실 이 대립되는 개념들을 불협화음이 되도록 통일시킬수도 있고 또는 협화음이 되도록 통일시킬수도 있는것이 아닌가. 중점제, 이것은 모든 불가결한 생산중에서도 가장 긴절한 하나의 생산에 치중하는것이다. 치중은 무엇에 나타나는가? 치중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이것은 힘든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웅적이고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일터에서만 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부족하며 여기에는 대단히 독특한 문제에 대할줄 아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말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중점제와 평균제에 관한 문제를 설정하려면 우선 그 문제에 신중히 대하여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뜨로쯔끼동지의 저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가 자기의 시초의 테제들을 개작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옳지 못한 명제들이 더 많이 생긴다. 그의 마지막테제들에서 이러한 글을 읽게 된다.

…《소비, 즉 근로자들의 개체생존의 제 조건의 분야에서는 평균제의 방침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의 분야에서는 중점제의 원칙이 아직 오래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원칙으로 될것이다.》…(뜨로쯔끼의 소책자 31페지, 테제 제41조)

이것은 리론상 완전한 혼란이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

① 여기에서는 1920년 11월 및 12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가리킨다. 이 두차례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는 1920년 11월 13일부 《쁘라우다》[1] 제255호 및 1920년 12월 14일부 《쁘라우다》 제281호에 실렸다. 결의에 대한 해설은 1920년 12월 20일부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통보》[40] 제26호에 실렸다.

중점제란 우대인데 소비를 말하지 않는 우대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8분의 1파운드의 빵을 받게끔 그렇게 만약 나를 우대한다면 나는 이러한 우대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동할수 없다. 중점제에서의 우대는 소비에서의 우대이다. 이것 없이는 중점제는 공상이며 망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유물론자이다. 그리고 로동자들도 유물론자들이다. 중점제를 하려면 빵과 옷과 육류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구체적인 동기에 따라서 국방위원회112에서 수백번 심의하였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리해하였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리해하고있는것이다. 그때 한사람이 장화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중점부문이니까.》라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장화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 중점로동자들이 지탱해내지 못할것이며 당신네 중점제가 실패할것이다.》라고 말하는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균제와 중점제에 대해서 테제들에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게 설정된것을 보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실천적으로 검열되고 쟁취된것으로부터의 후퇴를 보게 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여서는 아무러한 좋은 결과도 나올수 없다.

다음. 《결합》에 관한 문제. 가장 정당한 일은 현시에 있어서 《결합》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것일것이다. 언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왜? 그것은 실천적으로 벌써 우리들이 《결합》에 종사해왔기때문이다. **실천적으로** 결합이 없는 성인민경제위원회나 최고인민경제위원회 및 교통인민위원부 등의 큰 부서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할만큼 량호한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결합이 어떻게 실시되였는가, 그리고 이 결합에 의하여 무엇이 달성되였는가 하는 **실천적경험**을 연구하라. 이러저러한 기관에 결합을 도입한

법령들은 일일이 셀수 없을만큼 많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으며 어떤 공업분야의 어떤 결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성직업동맹의 어떤 성원이 성인민경제위원회의 어떤 직책을 맡고있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였으며 몇달동안 그가 이 결합을 실현하였는가 하는 등등을 실천적으로 연구하는—우리자신의 실천적경험을 실무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우리는 아직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결합에 관한 원칙적의견상이를 꾸며내였고 또 오유까지 범하였다. 이렇게 하는데는 우리는 능수이다. 그러나 우리자신의 경험을 연구하고 검열하는 일에 우리는 착수조차 않고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쏘베트대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농업의 개선에 관한 법령의 이러저러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농업구역들을 연구하는 분과위원회들 이외에 결합을 연구하는—싸라또브성의 제분업, 뻬뜨로그라드의 금속공업, 돈바쓰의 석탄공업 등등에서의 결합의 총화를 연구하는 분과위원회들이 사업하게 될 때, 이 분과위원회들이 자료를 산더미같이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런것저런것을 연구하였다.》고 선언할 때에 나는 《그렇다, 우리는 일에 종사하게 되였다, 우리는 소년기를 벗어났다!》고 말할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결합을 위해서 3년이란 세월을 소비한후에 결합에 관한 원칙적의견상이를 꾸며내여 서술하고있는 《테제》를 우리에게 갖다바치니 이보다 더 슬프고 그릇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결합의 길에 들어섰다. 나는 옳게 들어섰다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경험의 총화를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결합에 관한 문제에서 유일하고 현명한 전술, 그것은 침묵인것이다.

실천적경험을 연구해야 한다. 나는 실천적인 결합에 관한 지시들이 포함되여있는 법령과 결정들에 수표를 하였는데 실천이란 온갖 리론보다 백배나 더 중요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결합에 관하여 이야기해봅시다.》라고 말들 할 때에 나는 《우리가 해놓은것을 연구해봅시다.》라고 대답한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법령의 많은 부분도 변경되여야 할는지 모른다. 나는 이 점에 동의한다. 나에게는 법령에 대한 털끝만한 미련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런것저런것을 개정하자고 실천적제의를 하라. 바로 이것이 실무적인 문제설정일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여야 비효과적사업이 되지 않을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여야 관료주의적탁상공론을 초래하지 않을것이다. 뜨로쯔끼의 소책자에서 제6절, 즉 《실천적결론》을 들어볼 때 바로 이런 잘못을 실천적결론이 범하고있다. 왜냐 하면 전로직업동맹중앙평의회와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상무위원회에는 두 기관에 공통적인 성원이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 들어가야 한다느니, 참의회에는 2분의 1 내지 3분의 2까지 들어가야 한다느니 무어니 하는 말이 거기에 있기때문이다. 왜 그러한것이 필요한가? 그저 대체 《눈대중으로》 그러하다는것이다. 물론 우리의 법령들에서는 흔히 그와 같은 비률이 다름아닌 《눈대중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왜 이것이 법령들에서는 불가피한가? 나는 모든 법령의 옹호자가 아니며 법령들을 실지보다 훌륭하게 묘사하고싶지는 않다. 거기에는 전원의 2분의 1이니 3분의 1이니 하는 규정이 아주 빈번히 눈대중으로 정해지고있다. 법령에서 이렇게 되여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즉 당신들은 이렇게 해보시오, 우리는 후에 당신들의 《시험》의 총화를 저울질해볼것이오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후에 바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할것이다.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우리는 전진할것이다. 결합을 우리는 실천하고있으며 또 갈수록 더 훌륭히 실천할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갈수록 더 실천적으로 되며 실무적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생산적선전》에 대해서 말을 꺼냈던것 같다. 할수 없다!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생산적선전문제로 넘어가겠다. 이것 역시 실무적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제기한다. 생산적선전의 실시를 위하여 이미 창설된 국가기관이 있다[120]. 그 기관이 나쁜지 좋은지 나는 모른다. 그 기관을 시험해보아야 한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해서 《테제》를 쓸 필요는 전혀 없는것이다.

만일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서는 보통의 민주주의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생산적민주주의》와 같은 계교는 옳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는 생산적선전이다. 기관들이 이미 창설되였다. 그런데 뜨로쯔끼의 테제는 생산적선전에 관해서 론의하고있다.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테제》는 여기서는 이미 낡은 물건이기때문이다. 기관들이 훌륭한지 나쁜지는 아직 모른다. 사업에서 시험해보자. 그리고 이야기하자. 연구하고 조사해보자. 가령 대회에서 열명씩 망라하는 열개의 분과위원회가 조직된다고 하자. 《동무는 생산적선전에 종사했는가? 어떻게 되였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특히 성과를 올린 사람은 표창하고 실패한 경험은 내던지자. 우리에게는 이미 실천적경험이, 미숙하고 사소한것이지만 하여튼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 경험으로부터 뒤로, 《원칙적 테제》로 우리를 잡아당기고있다. 이것은 《로동조합주의》라기보다도 오히려 《반동적인》 운동이다.

다음 셋째로, 표창에 대해서. 현물표창을 실시하는것, 여기에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과 과업이 있다. 이것은 시작되였

다. 일은 추진되였다. 이것을 위해서 곡물 50만뿌드가 할당되였으며 17만뿌드가 이미 지출되였다. 훌륭히 옳게 지출되였는지 나는 모른다. 인민위원회에서는, 분배가 잘되지 못하고 상금인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가봉금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지적되였다. 직업동맹일군들도, 로동인민위원부일군들도 이것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사업을 연구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였으나 아직 연구하지 않고있다. 17만뿌드의 곡물은 지출되였다. 그러나 경제일군의 영웅성, 책임성, 재능, 헌신성, 한마디로 말해서 뜨로쯔끼가 찬양하고있는 그 자질을 발휘한 사람들을 표창하도록 그렇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테제에서 찬양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곡물과 육류를 주는것이 문제이다. 례컨대 육류를 어떤 부류의 로동자에게서 떼여내여 다른 《중점적》로동자에게 상금으로 주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중점제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점제는 필요하다. 우리의 중점제를 적용한 실천적경험을 면밀하게 연구하자.

다음 넷째로, 징계재판에 대해서.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 《생산적민주주의》란—부하린동지는 이 말에 노여워하지 말라.—만일 우리에게 징계재판이 없다면 한날 공담에 불과하다. 그런데 당신들의 테제에는 이 징계재판이 없다. 이리하여 뜨로쯔끼의 테제와 부하린의 립장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나,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오직 한가지 결론, 제발 맙시사라는 결론이 나올뿐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테제에 일련의 리론적오유가 있다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을 평가하는 태도가 맑스주의적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현시국의 제 특성을 그 정치적측면에서 숙고함이 없

이 이처럼 광범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사실 내가 부하린동지와 함께 로씨야공산당 제9차대회의 직업동맹에 관한 결정서에서 정치는 경제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현하의 정치적국면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과도기를 체험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전체 무산계급독재는 과도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앞에는 말하자면 수많은 새 과도기들이 놓여있는것이다. 군대의 동원해제, 전쟁의 종결, 종전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평화적소휴식과 군사적전선으로부터 로력전선으로의 보다 공고한 이행의 가능성. 이 한가지 점으로 인해서도, 오직 이것으로 인해서도 벌써 무산계급의 농민계급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주의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들의 테제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한 동안은 기다릴줄 알아야 한다. 인민은 몹시 피로했고 약간의 중점적생산에 사용했어야 할 수많은 예비가 이미 소비되였으며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관계는 달라지고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로는 극심하기 짝이 없고 수요는 증대되였는데 생산은 증대되지 않았거나 충분하게 증대되지 않았다. 타면으로 나는 이미 제8차쏘베트대회에서 보고하면서 우리가 이미 강제에다 설복의 기초를 부여할줄 알게 된 때에 이 강제를 옳게 성과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①. 나는 이 가장 중요한 점을 뜨로쯔끼와 부하린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야 하겠다.

우리는 모든 새로운 생산적과업에다 설복이라는 충분히 광범하고 견실한 토대를 부여하였는가? 아니다, 우리는 겨우 이것을 시작했을따름이다. 우리는 대중을 아직 끌어들이지 못

---

① 이 책, 507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하였다. 그런데 대중은 이 새로운 과제로 곧 넘어갈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 례컨대 지주 우란겔을 청산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벌써 특별한 선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원칙적》문제,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에 관한 론의 및 이와 류사한 쓸데없는 일을 념두에 두지 않는다면, 만일 문제의 실무적측면을 념두에 둔다면 우리는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에 관한 문제를 방금 연구하기 시작한데 불과하며 생산적선전을 위한 기관들을 방금 창설한데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경험이 없다. 현물표창을 우리는 도입하였으나 경험은 아직 우리에게 없다. 징계재판을 창설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르고있다. 그런데 정치적견지에서 보면 바로 대중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것이다. 이 측면에서 문제가 준비되고 연구되고 숙고되고 검토되였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이 점에 근본적이며 가장 심각하며 위험한 정치적오유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다른 어떤 문제에서보다도 더 《열번 재여 한번에 마르라.》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재보지 않고 마르려고 들었기 때문이다. 《당은 두 경향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들 하고있다. 그러나 한번도 재보지 않고서 《생산적민주주의》라는 허위적인 구호를 고안해낸것이다.

관료주의가 일목료연한 형태로 대중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리고 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의사일정에 올려놓은 그러한 정치적국면에서 특히 이 구호의 의의를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다. 뜨로쯔끼동지는 테제에서, 로동자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서는 대회가 《다만 만장일치로 확인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확인하는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확인한다는것은 충분히 검토되고 측정된것을 고착시키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생산적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는 결코 충분하게 검

토되지 못했으며 시험과 검열을 받지 못했다. 《생산적민주주의》의 구호를 제기할 때 대중속에서 어떠한 해석이 나올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라.

《우리들, 보통사람들, 대중선동일군들은 갱신과 시정, 그리고 관료주의자들의 축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생산에 종사하라, 생산성과로써 민주주의를 나타내라고 얼버무리고있다. 그러나 나는 관리국, 관리총국 등등의 그런 관료주의적성원들과가 아니라 다른 성원들과 함께 생산에 종사하고싶다.》 당신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말하고 체득하고 숙고하도록 해주지 않았으며 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얻도록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벌써 덤비고 지나치게 행동하며 리론상 허위적인 공식들을 만들어내고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열성적인 집행자들은 이 오유를 몇배나 더 심하게 할것인가? 정치적지도자는 그가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대해서뿐만아니라 그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다. 정치적지도자는 때로는 그것을 모르며 흔히는 그것을 원치않으나 책임은 그에게 있는것이다.

이제 나는 이 모든 오유를 론리적분석, 전제, 리론적론의로서가 아니라 행동속에서 표현한 중앙위원회 11월(11월 9일) 및 12월(12월 7일) 전원회의로 넘어가겠다. 중앙위원회에서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혁명기간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이였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하다. 문제의 중심은, 두 세력으로 분렬이 생기고 부하린, 쁘레오브라젠스끼 및 쎄레브랴꼬브의 《완충》집단이 나타나서 무엇보다도 더 해독을 끼치고 혼란을 일으켰다는데 있다.

교통정치총국121과 운수직맹 중앙위원회122의 력사를 상기하라. 1920년 4월에 있은 로씨야공산당 제9차대회 결정서에는 《림시적》기관으로서 교통정치총국이 창설된다는것과 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었다[123]. 9월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넘어가라》는 글을 당신들은 읽게 되였다①. 11월(11월 9일)에 전원회의가 소집되였을 때 뜨로쯔끼는 자신의 테제, 로동조합주의에 관한 자기 론의를 내놓았다. 생산적선전에 관한 그의 개별적문구들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이 모든것은 전혀 왕청같은 소리며 탈선이며 일보후퇴여서 지금 중앙위원회는 이것을 일삼을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부하린은 《이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했다. 대단히 훌륭할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맹렬한 토론이 있은 뒤에 4대10으로 결정서가 채택되였는데 거기에는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자신이 《동맹내에서 무산계급민주주의의 제 방법을 강화발전시킬것》을 《이미 일정에 올렸다.》고 정중하게 동지적으로 지적되여있다. 그리고 운수직맹 중앙위원회는 《다른 동맹단체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의 구성내에 들어가서 그의 전반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중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의 기본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명백하다. 즉 《운수직맹 중앙위원회 동지들! 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들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하여, 마치 자기는 남보다 우수하고 풍부하며 더 많은 원조를 받고있다는듯이 보이려는 자만심과 우대와 관료주의의 어떠한

---

①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통보》, 제26호, 2페지에 실린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 결정서 제3항을 보라.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는 사업의 지원과 개선을 위한 림시적공간인 교통정치총국과 수운총정치부[124]를 설치하게 한 운수직맹의 곤난한 형편이 현시에는 현저히 개선되였다고 인정한다. 그렇기때문에 이제는 직맹기구에 적응하며 직맹기구에 용해되는 직맹기관으로서 이 조직들을 직맹에 포함시키는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

흔적도 남지 않도록 자기 사업을 통하여 전체 동맹을 원조하라.》는것이 그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실무적인 사업으로 이행하였다. 위원회가 창설되고 그의 구성이 출판물에 발표되였다. 뜨로쯔끼는 위원회에서 나갔고 위원회를 파탄시켰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동기는 하나다. 루또위노브가 반대파놀음을 하군 한다는것이다. 하긴 오씬스끼도 그렇다. 바른대로 말해서 이것은 불쾌한 장난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리유로 될수 있는가? 오씬스끼는 파종운동을 훌륭히 실행하였다. 그의 《반대파적운동》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사업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를 파탄시키는것과 같은 그런 수법은 관료주의적이며 비쏘베트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이며 옳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유해한것이다. 《반대파》속에서 건전한것을 불건전한것으로부터 분리해내는것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러한 수법은 세갑절이나 더 옳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유해하다. 오씬스끼가 《반대파적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나는 《해로운 운동》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가 파종운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한없이 기쁘다. 루또위노브가 자기의 《반대파적운동》에서 이쉔꼬나 쉴랴쁘니꼬브처럼 오유를 범하고있다는 점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파탄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그것은 공허한 의견상이에 관한 지식인적공담으로부터 실무적사업으로의 이행을 의미하였다. 생산적선전, 표창, 징계재판—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해야 했으며 이러한 일을 위원회는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완충집단》의 대장인 부하린동지가 쁘레오브라젠스끼, 쎄레브랴꼬브와 함께 중앙위원회에서의 위험한 분렬을 보고 완충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묘사하기에 적

당한 의회식표현을 찾기 힘든 그러한 완충기이다. 부하린동지의 솜씨만큼 내가 풍자화를 그릴줄 알았다면 나는 부하린동지를, 석유통을 들고 불에 석유를 들붓고있는 사람으로 그렸을것이며 그밑에 《완충석유》라고 제목을 달았을것이다. 부하린동지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의 희망이 가장 진지하고 《완충적》이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완충기는 만들어내지 못하였으며 그 반면에 정치적국면을 고려하지 않고 게다가 리론적오유까지 범하게 되였다.

모든 이러한 론쟁들을 광범한 토론에 붙일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이런 한가한 일을 하고있어야 한단말인가? 당대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몇주일을 이런데 소비해야 한단말인가? 그 시간에 우리는 표창과 징계재판과 결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할수 있었을것이다. 바로 이 문제들을 우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한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해결하였을것이다. 만일 부하린동지가 완충기를 만들려고 하였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다른 방에 들어간》125 격이 되지 않기를 원하였다면 그는 뜨로쯔끼동지가 위원회에 남아있도록 주장하고 고집해야 했을것이다. 만일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였더라면 우리는 실무적인 길에 들어섰을것이며 이 위원회에서 실지로 유일관리제는 어떠하며 민주주의는 어떠하며 선거에 의하지 않고 임명된 일군들은 어떠한가 하는 등등을 분석하였을것이다.

다음. 12월에는(12월 7일 전원회의에서는) 수운로동자들과의 결렬이 벌써 명백히 드러났다. 이 결렬은 갈등을 격화시켰으며 그 결과에 중앙위원회내에서는 벌써 우리 7명을 반대하여 8명이 결속되였다. 부하린동지는 《타협》시키려고, 《완충기》를 발동시키려고 노력하면서 12월전원회의 결정서의 《리론적》부분을 바삐 썼다. 그러나 물론 위원회가 파탄된후에 있어

서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낼수 없었다.

정치적지도자는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뿐만아니라 그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교통 정치총국과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의 오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기관들이 강제수단을 적용한데 있는것은 전혀 아니다. 이 면에는 반대로 그의 공적이 있다. 이 기관들의 오유는 제때에 갈등이 없이 로씨야공산당 제9차대회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직맹사업으로 이행할줄 몰랐으며 충분히 직업동맹들에 적응할줄 몰랐으며 직업동맹들과 권리상 동등한 립장에 서서 그것들을 방조할줄 몰랐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영웅주의, 집행력 등등의 고귀한 군사적경험이 있다. 군인들중의 가장 나쁜 분자들의 경험가운데는 나쁜것—관료주의, 자만이 있다. 뜨로쯔끼의 테제는 그의 의식과 의지와는 반대로 군사적경험에서의 가장 좋은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고말았다. 정치적지도자는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뿐만아니라 그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저 하는것은 이것때문에 나는 어제 나자신을 바보라고 질책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내가 루주따크동지의 테제를 간과하였다는 사실이다. 루주따크는 큰소리로 흥미있고 생동하게 말할줄 모르는 결함을 가지고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의 말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넘겨버리게들 된다. 어제 회의에 참석할수 없었기때문에 나는 나에게 있는 자료들을 훑어보고 그속에서 1920년 11월 2일부터 6일에 걸쳐 열렸던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126직전에 출판된 인쇄물을 발견하였다. 이 인쇄물에는 《직업동맹의 생산적과업》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나는 당신들에게 전문을

읽어드리겠다. 그리 길지 않다.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에

직업동맹의 생산적과업

(루주따크동지의 보고테제)

1. 10월혁명직후에 있어서 직업동맹은 로동자측으로부터의 통제의 실시와 아울러 생산의 조직 및 관리 사업을 담당할수 있었고 또 담당하여야 하였던 거의 유일한 기관이였다. 쏘베트정권존립의 첫시기에는 인민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관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었고 기업소소유자들 및 고급기술일군들의 태공은 로동계급앞에 공업을 유지하며 국내의 전체 경제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복구할 과업을 첨예하게 제기하였다.

2. 그후의 최고인민경제위원회의 시기, 그 사업의 현저한 부분이 개인기업소들의 청산과 이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적관리의 조직에 귀착되였던 시기에 직업동맹은 경제관리의 국가기관들과 병행하여 또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국가기관의 취약성은 이와 같은 평행을 설명하여주었을뿐만아니라 정당화하였다. 이 평행은 직업동맹과 경제관리기관사이의 완전한 련계의 설정이라는 사실로써 력사적으로 정당화되였다.

3. 국가경제기관들의 관리, 이 기관들에 의한 생산 및 관리 기구의 점차적장악, 이 기구의 개별적부서들의 조정—이 모든것은 공업관리사업 및 생산계획작성의 중심을 이 기관들로 이행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조직분야에서의 직업동맹의 사업은 관리총국, 중앙관리국, 공장관리부 등의 참의회의 조직에 참가하는데 귀결되였다.

4. 현재 우리는 또다시 쏘베트공화국의 경제기관들과 직업동맹들간의 극히 밀접한 련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였다. 즉 현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개 로동단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전체 생산자대중을 생산과정에 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인입하는것이 필요하며

또 현재는 경제관리의 국가기관이 점차 장성하고 복잡화하면서 생산자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거대한 관료주의적기구로 화함으로써 직업동맹으로 하여금 경제기관들에 대표자를 파견하는외에 조직전체로서도 생산조직에 직접 참가하게끔 불가피하게 추동하고있는것이다.

5. 만약 최고인민경제위원회가 현존하는 생산의 물질적요소들(원료, 연료, 기계의 상태 등등)로부터 출발하여 전반적인 생산계획의 수립에 접근한다면 직업동맹은 생산적과업 및 로동의 합리적리용을 위한 로동의 조직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때문에 생산의 물질적예비와 로동의 리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인 생산계획은 부문별로나 전체로나 직업동맹이 반드시 참가하는 조건하에서 작성되여야 한다.

6. 실제적인 로동규률의 실시, 로동기피행위와의 성과적인 투쟁 등등은 이 과업들의 실현에 모든 생산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참가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관료주의적방법과 상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는 달성될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 매개 참가자가 자기들이 수행하는 생산적과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며 생산의 매개 참가자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과제의 수행에 참가할뿐만아니라 생산분야에서의 모든 기술적 및 조직적 결함의 시정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의 직업동맹의 과업은 거대하다. 직업동맹은 매개 직장과 매개 공장에서 자기 맹원이 기술수단들의 옳지 않은 리용이나 불만족스러운 행정사업에 기인하는 로동력리용에서의 전체 결함을 적발하고 고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개별적 기업소들과 생산부문의 경험의 총화는 사무정체, 무절도, 관료주의와의 결정적투쟁을 위하여 리용되여야 한다.

7. 이 생산적과업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그 과업들이 조직적으로 현하의 일정한 사업에서의 일정한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제3차전로대회의 결정에 따라 직업동맹에 조직되는 경제부서들은 자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동맹의 전반 사업의 성격을 점차 규정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즉 례를 들면 전반 생산이 근로자들자신의 수요의 충족에로 돌려지고있는 현 사회적조건에서는 로임과 표창은 생산계획수행정도와

밀접히 련결되여있어야 하며 또 그에 의존되여있어야 하는것이다. 현물표창과 로임의 부분적인 현물화는 로동생산능률의 높이에 의존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체계로 점차 전화하여야 한다.

8. 직업동맹사업의 이러한 설정은 응당 한편으로 평행적기관들(정치부 등등)을 없애버리게 할것이며 다른편으로 경제관리기관들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복구시킬것이다.

9. 제3차대회이후 동맹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적조건때문에, 다른편으로는 자체의 조직적취약성과 경제기관들의 지도적 및 실천적 사업으로부터의 유리때문에 인민경제건설에 참가하는 문제에서 자체의 강령을 상당한 정도로 실현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10. 이와 관련하여 직업동맹은 다음과 같은 당면한 실천적과업을 자기앞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생산과 관리에 관한 제 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할것, (2) 해당 경제기관들과 함께 권위있는 관리기관의 조직에 직접 참가할것, (3) 관리기관의 각이한 형태 및 생산에 대한 그 영향에 세밀한 주의를 돌릴것, (4) 경제계획과 생산계획의 작성 및 제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할것, (5) 경제과업의 중점성에 적응되게 로동을 조직할것, (6) 생산적선동선전의 광범한 조직을 발전시킬것.

11. 직맹 및 직맹조직체내의 경제부서들은 생산조직에의 직맹의 체계적참가를 위하여 신속히 작용하는 강력한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전변되여야 한다.

12. 로동자들에 대한 계획적인 물질적공급문제에서 직맹은 식량인민위원부의 지방 및 중앙급 분배기관들에 자기의 영향을 미쳐야 하며, 중앙 및 성 로동자공급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면서 전체 분배기관들에 실제적, 실무적으로 참가하여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이른바 《중점제》가 개별적관리총국, 중앙관리국 등등의 협애한 본위주의적경향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질서한 성격을 띠였기때문에 직맹은 항상 어디서나 경제에서의 중점제의 효과적실시를 옹호하며 생산의 중요성과 현존하는 국내예비에 부합되게 중점단위규정의 현존체계를 재검토하는것을 옹호해나서야 한다.

14. 이른바 모범기업소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켜 권위있는 관리의 수립, 로동규률 및 직맹조직체사업을 통하여 이 기업소들을 진실로 모

범적인 기업소로 전화시켜야 한다.

15. 로동조직사업에서 로입률에 관한 제반 조치를 정연한 체계로 만들며 생산기준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것 이외에 직맹은 **로동기피현상**의 개별적**형태**(무단결근, 지각 등등)를 반대하는 전체 투쟁사업을 자기 수중에 튼튼히 장악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옹당한 관심이 돌려지지 않은 징계재판이 무산계급적로동규률을 위반하는 현상과의 현실적인 투쟁수단으로 전화되여야 한다.

16. 상술한 과업의 수행은 생산적선전의 실제적계획의 작성 및 로동자들의 경제형편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작성과 마찬가지로 경제부서들에 책임지워야 한다. 때문에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과 관련한 경제건설의 실제적문제들을 심의할 특별한 **전로경제부서협의회**를 최단시일내에 소집하도록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경제부서에 위임하는것이 필요하다.

어째서 내가 자기자신을 질책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이제는 당신들이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범적인 강령이다. 이것은 뜨로쯔끼동지가 여러번 생각하고 쓴것보다도, 그리고 부하린동지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쓴것(12월 7일 전원회의 결정서)보다도 백배나 더 훌륭하다. 직맹운동에 여러해동안 종사하지 못한 중앙위원회 위원들인 우리들 모두는 루주따크동지에게서 배워야 할것이며 뜨로쯔끼동지도 부하린동지도 그에게서 배워야 할것이다. 직업동맹은 이 강령을 접수하였다.

우리는 모두 징계재판을 잊어버렸었는데 현물표창이 없는, 징계재판이 없는 《생산적민주주의》란 한날 말공부에 불과하다.

나는 루주따크의 테제와 뜨로쯔끼가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테제를 대비하겠다. 후자의 테제의 다섯번째 조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이제 곧 동맹들의 재조직에 착수하여야 한다. 즉 우선 바로 이

러한 관점에서 지도적인원의 선발에 착수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관료주의다! 뜨로쯔끼와 크레스찐스끼는 직업동맹의 《지도적인원》을 선발하려 하고있다!

다시한번 말한다면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의 오유의 근원은 이러하다.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의 오유는 그가 강제를 적용한데 있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공적이다. 오유는, 그가 전체 직업동맹의 일반적과업에 접근할줄 몰랐으며 동지적징계재판의 보다 정당하고 신속하며 성과적인 적용에로 자신이 이행할줄 몰랐고 전체 직맹이 그렇게 하도록 방조할줄 몰랐다는 이 점에 있다. 루주따크동지의 테제에서 징계재판에 관한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이에 관한 법령이 아마 벌써 나왔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알아본즉 법령은 과연 나와있었다. 《로동자의 동지적징계재판에 관한 규정》이 1919년 11월 14일에 발포되였었다.(《법령집》 제537호)

이 재판에서는 직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재판이 훌륭한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움직이며 또 항상 움직이고있는지 나는 모른다. 만일에 우리가 자기자신의 실천적경험을 연구하였더라면 그것은 뜨로쯔끼동지와 부하린동지가 쓴 모든것보다 수천수만배나 더 유익하였을것이다.

이만 말을 끝마치겠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일어나고있는 모든것을 총화하면서 나는 이 의견상이를 광범한 당적토론에 붙이고 당대회에 제기한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는것을 말해야하겠다. 이것은 정치적오유이다. 위원회에서 그리고 위원회에서만 우리는 실무적토의를 할수 있었을것이며 전진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후퇴하고있으며 몇주일째 과업에 대한 실무적태도 대신에 추상적인 리론적명제에로 뒤걸음치게 될것이다. 나로 말하면 이것에 싫증이 나서 죽을 지경

이다. 나는 앓전말전간에 이것을 피해 달아날수만 있다면 아무곳으로나 기쁘게 빠져나가려 한다.

결론. 뜨로쯔끼와 부하린의 테제들에는 수많은 리론적오유가 있다. 일련의 원칙적인 착오가 있다. 정치적으로 보아 사업에 대한 전체 태도가 완전한 우둔성의 표현이다. 뜨로쯔끼동지의 《테제》는 정치적으로 유해한것이다. 그의 정책은 통털어 직업동맹을 관료주의적으로 못살게 구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대회는 이 정책을 비난하고 거부할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계속되는 우렁찬 박수)

1921년에 단행본으로 발간

단행본원문에 의하여 발간, 레닌이 개정한 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1～25페지

다시한번 직업동맹에 관하여, 현시국과 뜨로쯔끼 및 부하린의 오유에 관하여[127]

당내의 론쟁과 종파투쟁은 대회를 앞두고, 즉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의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곧 시작될 선거로 하여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종파활동에 뒤이어, 즉《수많은 책임일군들》의 명의로《강령적소책자》를 들고나선 뜨로쯔끼동지의 활동(《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 서문의 날자는 1920년 12월 25일)에 뒤이어 로씨야공산당 뻬뜨로그라드조직의 날카로운(독자들은 뒤에서 그것이 날카로울만하였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선언(1921년 1월 6일에《뻬뜨로그라드쓰까야 쁘라우다》[128]에 발표되였고 그후 1921년 1월 13일에 당중앙기관지인 모스크바《쁘라우다》[1]에 발표된《당에 고함》)이 있었다. 그다음에는 모스크바위원회가 뻬뜨로그라드조직을 반대하여나섰다.(같은 날《쁘라우다》에 발표) 또 그다음에는 1920년 12월 30일의 극히 책임적인 커다란 당회의에서의, 즉 제8차쏘베트대회[109]의 로씨야공산당 당그루빠에서의 론쟁속기록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출판한것은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로씨야공산당 당그루빠였다. 이 속기록에는《생산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달려있다.(서문의 날자는 1921년 1월 6일로 되여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론쟁자료의 전부가 아니다. 론쟁문제를 토의하는 당회의는 이미 거의 도처에서 진

행되고있다. 나는 1920년 12월 30일에, 내가 말한바와 같이 《절차를 위반하는》 조건하에서, 즉 토론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전후 연설자들의 연설도 듣지 못한 조건하에서 연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제 위반된 절차를 회복하고 좀더 《질서있게》 말하여보기로 하자.

종파활동이 당에 주는 위해성

뜨로쯔끼동지의 소책자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은 과연 종파적언론인가? 이러한 언론은 그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당에 위험한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기를 특히 좋아하는것은 뻬뜨로그라드동지들의 활동을 종파활동으로 보고있는 모스크바위원회 위원들(물론 뜨로쯔끼를 제외한)과 부하린동지이다. 그런데 부하린동지는 1920년 12월 30일에 《완충파》119의 이름으로 연설할 때 다음과 같이 성명하지 않을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기차가 전복될수 있는 약간의 경향을 가지고있을 때에는 완충기는 벌써 그리 나쁜것은 아니다.》(1920년 12월 30일의 론쟁속기록, 45폐지)

이와 같이 전복되려는 약간의 경향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바로 어디서, 바로 어떠한 점에서, 바로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각적인 당원들을 과연 생각할수 있겠는가?

뜨로쯔끼의 소책자는 다음과 같은 성명으로써 시작되고있다. 즉 《이 소책자는 집체적인 사업의 열매로서》 《수많은 책임일군들, 특히 직맹일군들(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상무위원들, 금속로동자직맹 중앙위원회 위원들, 운수직맹 중앙위원

회122 위원들 등등)》이 그 저술에 참가한 《강령적소책자》이다. 그리고 테제 4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읽게 된다. 《박두한 당대회는 직업동맹운동분야에서의 두 경향중에서 하나를 **선택**(고시크체는 뜨로쯔끼의것.)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것이 중앙위원회의 한 위원에 의한 종파의 형성이 아니라면, 만일 이것이 《전복되려는 약간의 경향》이 아니라면 부하린동지든지 혹은 그의 일파의 누구든지 《종파성》이니 《전복되려는 경향》이니 하는 로써야말이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가를 당에 설명하여보라. 《완충》을 원하면서도 **이러한** 《전복되려는 경향》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는** 사람들의 맹목보다 더한 맹목을 과연 상상할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뜨로쯔끼동지의 테제의 첫 초고와 그가 옹호하고있는, 직업동맹에 대한 당정책전체를 전례없이 상세하게 오래동안 열렬히 토의한 2차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1월 9일과 12월 7일)가 있은후에 중앙위원회의 한 위원이 **19명중 혼자** 떨어져서 중앙위원회밖에서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그 패거리의 《집체적》《저작》을 《강령》이라고 들고나와 당대회에 《**두** 경향중에서 하나를 선택할것》을 제의하고있는것이다!! 1920년 12월 25일에 뜨로쯔끼가 바로 두 경향을, 다만 두 경향만을 이렇게 선포한것은(비록 부하린이 11월 9일에 벌써 《완충자》로 나서기는 하였지만) 가장 악렬하고 가장 유해한 종파행동의 협조자로서의 부하린집단의 진정한 역할을 여실히 폭로하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부대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당원에게나 묻는다. 직업동맹운동분야의 두 경향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습격과 공격에는 사람들을 놀래울만한 현기증이 있지 않는가고. 만일 무산계급독재가 수립된지 3년이나 지난후에도 직업동맹운동분야의 두 경향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공격》할수 있는 당원을 당내에서 한사람이라도 발견할수 있었다면 다만 놀라서 두팔을 벌릴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이 소책자에 가득찬 종파적독설을 보라. 테제 1에서 우리는 《오래전에 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청산된 로동조합주의적립장으로》 물러서고있는 《직업동맹운동의 일부 일군들》에 대한 무서운 《협박》을 읽게 된다.(아마 19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한사람만이 당을 대표하고있는 모양이다.) 테제 8에서는 《직업동맹일군들의 지도층에서의 직업동맹적보수주의》가 수다스럽게 비난되고있다.(《지도층》에 대한 이 진짜관료주의적인 주의력집중에 주목하라!) 테제 11의 첫머리에는 《대다수의 직업동맹일군들》이 로씨야공산당 제9차대회33의 결정서를 《형식적으로, 즉 **말로만** 승인하고있다.》는 놀랄만큼 기교적이며 론증적이며 실무적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점잖게 표현할수 있겠는지?… 《암시》가 있다.

여기 우리앞에는 **대다수의**(!!) 직업동맹일군들이 당결정을 **말로만** 승인하고있다고 하는 그 얼마나 권위있는 재판관들이 있는가!

테제 12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많은 직맹일군들이 결합의 가능성을 반대하여 더욱더 날카롭게, 더욱더 비타협적으로 나오고있다.… 그러한 직맹일군들중에는 똠스끼동지와 로좁스끼동지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직맹일군들은 새로운 과업과 방법을 회피하면서 자기들사이에 동업조합적폐문주의의 정신을 조장시키고있으며 소여의 경제분야에 안입되는 새로운 일군들에 대한 적의를 조장시키고있으며 그리하여 직맹적으로 조직된 로동자들속에서 직장본위주의의 잔재를 사실상 지지하고있는것이다.》

독자는 이 론의를 재삼 읽고 그것을 잘 생각해보라. 거기에는 《주옥》같은데가 놀랄만큼 많다. 첫째로, 이 연설을 그 종파성의 견지에서 평가해보라! 만일 똠스끼가 강령을 발표하여

뜨로쯔끼와 《많은》 군사일군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이 관료주의의 정신을 조장시킨다느니 야만성의 잔재를 지지한다느니 하고 말하였다면 뜨로쯔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를 상상해보라. 여기에서 첨예성과 종파성을 보지 못하며—아니 참말로 깨닫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며—이것이 뻬뜨로그라드동지들의 연설보다 몇배나 더 종파적인가를 보지 못하는 부하린, 쁘레오브라젠스끼, 쎄레브랴꼬브 등의 《역할》이란 어떠한것인가?

둘째로, 많은 직맹일군들이 《자기들사이에서…정신을 조장시키고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잘 생각해보라. 철두철미 관료주의적인 태도이다. 보는바와 같이 모든 문제는 대중, 수백만 사람들의 발전수준이다. 생활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똠스끼나 로좁스끼가 《자기들사이에서》 어떠한 《정신》을 조장시키고있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이다.

셋째로, 뜨로쯔끼동지는 여기에서 그자신이나 《완충적》부하린일파가 다 그렇듯 주도하게 회피하고있으며 눈에 뜨이지 않게 하고있는 전반 론쟁의 본질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놓았다.

과연 전반 론쟁의 본질과 투쟁의 근원은 많은 직맹일군들이 새로운 과업과 방법을 회피하고 자기들사이에서 새로운 일군들에 대한 적의를 조장시키고있다는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맹조직에 참가한 로동자대중이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관료주의행위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일군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며 그들을 포기할 용의를 불가피적으로 표명하고있다는데 있는가?

론쟁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과업과 방법》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

적관료주의행위에 대한 ｜호를 새로운 과업｜니 방법｜니 하는 말로써 서투르게 은폐하고있다는데 있는가?

독자는 전반 론쟁의 이 **본질**을 기억해두는것이 좋을것이다.

형식적민주주의와 혁명적합목적성

뜨로쯔끼동지는 《집체적인 사업의 열매》라는 자기의 테제에서 《로동자민주주의는 우상을 모른다.》, 《그것은 혁명적합목적성을 알따름이다.》(테제 23)라고 쓰고있다.

뜨로쯔끼동지의 이 테제는 불쾌한 일을 겪게 되였다. 거기에 있는 옳은것이 새롭지 않을뿐만아니라 뜨로쯔끼를 **반박하고**있다. 그리고 그안에 있는 새로운것은 전혀 옳지 않은것이다.

나는 뜨로쯔끼동지의 옳은 명제를 발취하였다. 그것은 테제 23에서 언급된 문제(교통정치총국에 관한 문제[121])에서뿐만아니라 기타 문제들에서도 그자신을 반박하고있다.

형식상의 민주주의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뜨로쯔끼는 중앙위원회전체를 반대해서라도 종파적강령을 들고나설 **권리를 가지고있었다**. 이것은 다툴수 없는 일이다. 또 이러한 형식상의 권리를 중앙위원회는 론쟁의 자유에 관한 1920년 12월 24일부의 자기의 결정으로써 확인하였다는것도 다툴수 없는 일이다. 완충파인 부하린은 이러한 형식상의 권리를 뜨로쯔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있으나 뻬뜨로그라드조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것은 아마 부하린이 1920년 12월 30일에 《로동자민주주의의 성스러운 구호》(속기록 45페지)라는 말을 하게까지 된때문일것이다.…

그러면 혁명적합목적성은 어떠한가?

《운수직맹 중앙위원회》파나 《완충》파의 종파적자존심에 눈이 어둡지 않은, 그리고 건전한 정신과 훌륭한 기억력을 가진 진지한 사람으로서 뜨로쯔끼와 같은 **그처럼** 권위있는 지도자가 직맹운동문제에 대하여 한 **그러한** 연설을 **혁명적-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겠는가??

뜨로쯔끼가 《새로운 과업과 방법》을 아주 옳게 지적하였다 하더라도—사실상 전혀 옳지 않게 지적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말하려 한다. —문제에 대한 그와 같은 태도 하나만으로써도 벌써 뜨로쯔끼는 자기에 대해서나 당에 대해서나 직맹운동에 대해서나 수백만 직업동맹원의 교양에 대해서나 공화국에 대해서나 다 해독을 가져오리라는것을 부정할수 있겠는가?

선량한 부하린과 그의 동료들이 자기들을 《완충자》라고 부르는것은 아마 이 칭호가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까닭일것이다.

직맹운동에서의 분렬의 정치적위험성

큰 의견상이가 왕왕 극히 작은, 처음에는 심지어 대수롭지 않은 의견불일치로부터 자라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사람마다 일생에 수십번 입게 되는 대수롭지 않은 상처가, 아니 약간 긁히운 자리조차 **만일** 그것이 곪기 시작한다면, **만일** 파상풍이 일어난다면 극히 위험한 또는 두말할것없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될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어떠한 충돌에서나(순 개인적인 충돌에서조차) 그러하다.

이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의견불일치도 지어는 대수롭지 않은 의견불일치조차 만일 분렬로, 그것도 전체 정치적건물을 동요시키며 파괴할수 있는 그리고 부하린동지의 비유를 빌어 말한다면 기차를 전복시킬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렬로 자라날 가능성이 나타난다면 정치적으로 위험한것으로 될수 있다.

무산계급독재의 나라에서 무산계급사이에 또는 무산계급당과 무산계급대중과의 사이에 분렬이 있다는것은 위험할뿐만아니라 극히 위험하다는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특히 그 나라에서 무산계급이 인구의 소수를 이루고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데 직맹운동(이것은 내가 1920년 12월 30일의 나의 연설에서 극력 강조한바와 같이 직업동맹에 거의 빠짐없이 망라된 무산계급의 운동이다.)에서의 분렬은 바로 무산계급대중속에서의 분렬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1920년 11월 2～6일의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126에서 《불길이 일어났을》 때(그런데 불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던것이다.), 이 대표자회의가 끝난 직후…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이 대표자회의가 진행중에 있을 때 전에없이 흥분한 똠스끼동지가 정치국에 나타나서 극히 랭정한 루주따크동지의 완전한 지지하에 이야기를 시작하였을 때, 즉 뜨로쯔끼동지가 어떻게 이 대표자회의에서 직업동맹의 《진숙》을 론하였으며 그가, 즉 똠스끼가 어떻게 이와 론쟁하였는가를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즉시로 또 결정적으로 론쟁의 본질은 바로 정책에(즉 직업동맹에 대한 당의 정책에) 있으며 이 론쟁에서 자기의 《진숙》정책을 가지고 똠스끼동지를 반대한 뜨로쯔끼동지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단정하였던것이다. 왜냐 하면 《진숙》정책은 설혹 그것이 《새로운 과업과 방법》(뜨로쯔끼의 테제 12)에 의하여 부분적

으로 합리화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현시기와 현정세하에서는 분렬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것으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정책이기때문이다.

뜨로쯔끼동지는 지금 《우로부터의 진숙》정책을 그에게 들씌우는것은 《순전한 풍자》라고 생각하고있다.(엘. 뜨로쯔끼 《뻬뜨로그라드동지들에게 주는 대답》, 1921년 1월 15일부 《쁘라우다》 제9호에 게재) 그러나 《진숙》이라는 말은 뜨로쯔끼동지가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에서 사용한후 벌써 말하자면 전당과 직업동맹들을 《한바퀴 돌았다.》는 의미에서만 진짜 《날개돋친 말》인것이 아니다.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확한것으로 남아있다. 즉 이 한마디 말은 강령적소책자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의 **모든 정신, 모든 경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있다. 뜨로쯔끼동지의 이 강령적소책자는 그 전체가 철두철미 다름아닌 《우로부터의 진숙》정책의 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자기들사이에 새로운 일군들에 대한 적의를 조장시키고있다.》고 해서 똠스끼동지나 《많은 직업동맹일군들》을 비난하고있는 사실만 상기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1920년 11월 2～6일)에서는 아직 겨우 분렬을 일으킬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데 불과하였지만 1920년 12월초에는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의 분렬은 사실로 되였다.

이 사건은 우리의 론쟁의 정치적본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주되는 사건이다. 뜨로쯔끼동지와 부하린동지는 여기에서 침묵을 지키는것이 무슨 도움이 될것이라고 공연한 생각을 하고있다. 침묵은 이 경우에는 《완충적》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불을 붙인다. 왜냐하면 문제는 실생활에 의하여 일정에 제기되였을뿐만아니라 뜨로쯔끼동지의 강령적소

책자에서 강조되였기때문이다. 바로 이 소책자는 내가 인용한 개소에서(특히 테제 12에서) 문제를 재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있는것이다. 즉 문제의 본질은《많은 적맹일군들이 자기들사이에 새로운 일군들에 대한 적의를 조장시키고있다.》는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관료주의행위가 있는(례를 들어 운수직맹 중앙위원회가운데)것만큼 대중의《적의》가 당연하다는데 있는가고.

지노비예브동지는 1920년 12월 30일의 자기의 첫 연설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근거있게 단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태를 분렬에까지 이끌어간것은《뜨로쯔끼동지의 과격한 지지자들》이라고 말하였다. 혹은 이때문에 부하린동지는 지노비예브동지의 연설을《요설》이라고 비난하였는지?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1920년 12월 30일의 론쟁에 관한 속기록을 읽어본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 비난의 부당성을 확신할것이며 또 정확한 사실을 인용하고 정확한 사실에 립각하고있는것은 바로 지노비예브동지이며 하등의 사실도 없는 지식인적《문구》가 지배하고있는것은 바로 뜨로쯔끼와 부하린이라는것을 알것이다.

지노비예브동지가《운수직맹 중앙위원회는 진흙으로 된 약한 다리로 서있으며 그것은 이미 세 부분으로 분렬되였다.》고 말하였을 때 쏘스놉스끼동지는

《당신이 그것을 고취하였다.》고 소리쳤다.(속기록 15페지)

이것은 엄중한 비난이다. 만일 이 비난이 확증된다면 비록 한개의 직업동맹의 분렬이라도 고취한자는 두말할것없이 중앙위원회에도 로씨야공산당에도 우리 공화국의 직업동맹에도 있을 자리가 없을것이다. 다행히도 엄중한 비난은 유감이지만 자기의 진지하지 못한 론쟁적《열중》의 실례를 이미 재삼 표시한 동지에 의하여 진지하지 못한 형태로 제기되였다. 쏘스놉스끼동지는 례컨대 생산적선전분야의 자기의 탁월한 론문

들에까지 때로 생산적선전자체의 모든 우점을 말살해버리고도 남는 《한술의 쓸데없는 양념》을 칠수 있었다. 가장 치렬한 투쟁에 있어서조차 자기의 화살에 누구보다도 적게 독을 바를수 있는 어진 성미를 가진 사람이 있다.(례컨대 부하린이 그러하다.) 또 너무나 자주 자기의 화살에 독을 바르는, 성미가 그다지 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 쏘스놉스끼동지는 이 면에서 자기를 감시하며 자기의 친우들에게도 자기를 감시하도록 부탁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러나 비난은 어쨌든 제기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비록 진지하지 못하고 졸렬하고 명백히 《종파적인》 형태로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문제가 엄중한 경우에는 진실을 졸렬하게 말하는것도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는것보다는 낫다.

문제는 의심할바없이 엄중하다. 왜냐 하면 되풀이해 말하거니와 여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체 론쟁의 관건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쏘스놉스끼동지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대답을 줄만한, 극히 명확하고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있다.

첫째로, 속기록의 같은 페지에서 우리는 쏘스놉스끼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을뿐만아니라 결정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인증한 지노비예브동지의 성명을 읽는다. 지노비예브동지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뜨로쯔끼동지는 쏘스놉스끼동지가 제기한것 같은 그러한 비난을 제기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그가, 즉 지노비예브가 **로씨야공산당 9월 전로대표자회의에서의 자기의 연설**에 의하여 분렬을 촉진시켰거나 또는 분렬을 일으켰다고 해서 지노비예브를 비난하려고 하였다고.(명백히 종파적열중때문에라고 나는 부언한다.)(부대적으로 지적하거니와 이 비난은 지노비예브의 9월연설이 중앙위원회에 의해서나 당에 의해서나 사실상에서 찬동되였고 공식적으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나 한번도 반박당하지 않았다는 리유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노비예브동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문제〔운수직맹 중앙위원회에서의 어떤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 관료주의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의 〔지노비예브의〕 어떤 연설이 있기 훨씬 전에, 전로대표자회의가 있기 훨씬 전에 씨비리에서도 토의되고 볼가강류역에서도 토의되고 북방에서도 토의되고 남방에서도 토의되였다.》는것을 루주따크동지는 중앙위원회회의에서 회의록을 손에 들고 증명하였다고.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 정확하고 사실과 부합되는 성명이다. 지노비예브동지가 이 성명을 한것은 로씨야공산당의 책임있는 수천명의 당원들앞에서의 자기의 첫 연설에서였는데 지노비예브의 이 연설이 있은후에 두번이나 발언한 뜨로쯔끼동지도 역시 지노비예브의 이 연설이 있은후에 발언한 부하린동지도 지노비예브의 사실과 부합되는 지적을 반박하지 못하였다.

둘째로, 쏘스놉스끼동지의 비난을 보다 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반박하고있는것은 같은 속기록에 실린, 1920년 12월 7일에 채택된, **공산당원-수운로동자들과 운수직맹 중앙위원회 협의회의 공산당당그루빠와의 사이의 충돌문제에 관한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이다. 이 결정서중 운수직맹 중앙위원회를 취급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와 수운로동자들과의 사이의 충돌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운수로동자련합직맹 중앙위원회내에 수운로동자부를 창설할것, (2) 2월에 철도종업원및수운로동자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새로운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의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할것, (3) 그전까지는 운수직맹 중앙위원회가 종전대로 사업하도록 할것, (4) 수운총정치부124와 교통정치총국을 즉시 해산하고 그

모든 인원과 재산을 정상적인 민주주의원칙우에서 직업동맹단체에 넘길것.》

이상에서 독자는 수운로동자들에 대한 비난이 여기에 한마디도 없을뿐만아니라 반대로 모든 본질문제에서 **그들의 정당성**이 인정되여있다는것을 알것이다. 그런데 이 1921년 1월 14일의 공동강령에 서명한 중앙위원들중(까메네브를 제외하고) 이 결정서에 찬성투표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여기에서는《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에 관하여》를 두고 말한다. 이것은 중앙위원회 위원 및 직맹위원회 위원들의 소조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 결정서초안이다.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직맹위원회 위원으로서 로좁스끼가 서명하였으며 그외에 서명한 사람들로는 똠스끼, 깔리닌, 루주따크, 지노비예브, 쓰딸린, 레닌, 까메네브, 뻬뜨롭스끼, 아르쫌 쎄르게예브였다.)

이 결정서는 상기 중앙위원들, 즉 우리 파의 사람들을 **반대**하여 채택되였다. 왜냐 하면 우리는 구운수직맹 중앙위원회를 일시 그대로 남겨두는데 반대하여 투표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파의 승리의 불가피성은 뜨로쯔끼로 하여금 부하린의 결정서에 찬성투표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결정서가 통과될것이였기때문이다. 11월에 뜨로쯔끼동지를 **지지**하였던 리꼬브동지는 12월에는 수운로동자들과 운수직맹 중앙위원회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직맹위원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수운로동자들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였다.

총적으로 중앙위원회 12월(12월 7일) 다수파는 뜨로쯔끼, 부하린, 쁘레오브라젠스끼, 쎄레브랴꼬브 등등으로써 구성되였는데 이들이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있다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다수파는 그 결

정의 본질로 보아 수운로동자들을 비난한것이 아니라 운수직맹 중앙위원회를 비난하였는데 다만 이 중앙위원회를 당장 변경시키는것만은 거부하였다. 따라서 쏘스놉스끼의 비난이 무근거하다는것이 확증된셈이다.

애매한 점을 남겨놓지 않기 위하여 한가지 점에 더 언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내가 재삼 언급한 《어떤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관료주의행위》란 무엇이였는가? 이 비난에는 말공부나 과장이 없었는가 또 없는가?

지노비예브동지는 1920년 12월 30일의 그의 첫 연설에서 또다시 대답하였다. 그것도 그이상 더 정확한것은 바랄수 없을만한 대답을 하였다. 지노비예브동지는 조프동지가 내린 수운에 관한 인쇄된 명령서(1920년 5월 3일부)에서 《위원선거제는 폐지되였다.》는 성명이 있는 한단락을 인용하였다. 지노비예브동지는 이것을 근본적인 오유라고 지당하게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관료주의행위와 《임명제》의 표본이다. 여기에서 곧 지노비예브동지는 조프동지보다 《훨씬 덜 시련을 겪고 경험이 적은 동지들》, 즉 임명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부언하였다. 나는 중앙위원회에서 조프가 극히 귀중한 일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112에서의 나의 관찰은 이 평가의 정당성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아무도 이러한 동지들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그들을 《속죄의 양》으로 만들려고는(뜨로쯔끼동지가 자기의 보고 25페지에서 하등의 근거도 없이 의심한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임명받은 사람들》의 위신을 손상시키는것은 그들의 오유를 시정하는 사람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유를 범하고있을 때에도 그들을 비호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직맹운동에서의 분렬의 위험성은 꾸며낸것이 아니라 실재적인것이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또

의견상이의 과장되지 않은 본질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즉 그 본질은 어떤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관료주의나 임명제가 비호되거나 변호되는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시정되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있다는것도 역시 뚜렷이 알게 된다. 문제는 그저 이러하다.

원칙적의견상이에 관하여

그러나 만일 근본적이고 심각한 의견상이가 있다면—하고 우리에게 말할수 있을것이다.—그것은 극히 날카롭고 종파적인 연설조차 정당화하여주지 않겠는가? 만일 새롭고 상대방이 리해못하는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이것은 때로는 분렬조차 정당화하여주지 않겠는가?

물론 정당화하여준다. 만일 의견상이가 참으로 심각하다면, 만일 당이나 로동계급의 정책의 옳지 않은 방향이 달리는 시정될수 없다면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의견상이가 없다는데 있다. 뜨로쯔끼동지는 의견상이를 지적하려고 애썼으나 지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만일 그의 소책자가 나오기(12월 25일)전에는 가정적으로 또는 타협적으로 말할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말하여야 하였다면(《의식되지 않은 새로운 과업이 있고 의견상이가 있는 조건하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대해서는 안된다.》) 이 소책자가 나온 이후에는 뜨로쯔끼동지가 가지고있는 새로운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뜨로쯔끼동지의 테제와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11월 2~6일)에서 채택된 루주따크의 테제를 대비해보면 이것을 무엇보다도 명백히 보여준다. 나는 12월 30일의 연설과 1월

21일부 《쁘라우다》에서 그것을 인용하였다. 이 테제는 뜨로쯔끼의 테제보다 더 옳으며 더 완전하다. 뜨로쯔끼의 테제가 루주따크의 테제와 구별되는 그 점이 뜨로쯔끼에게 있어서의 옳지 않은 점이다.

설명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하린동지가 12월 7일부 중앙위원회 결정서에다 집어넣으려고 서두른 악명높은 《생산적민주주의》를 들어보자. 만일 이 졸렬하고 지식인적-인위적인 용어(《멋진 말마디》)가 연설이나 론문에서 사용되였다면 그것을 시비하는것은 물론 가소로운 일일것이다. 그러나 다름아닌 뜨로쯔끼와 부하린은 그들의 《강령》과 직업동맹에 의하여 채택된 루주따크의 테제와의 차이점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용어를 테제에서 고수하는 가소로운 처지에 빠지고있는것이다!

이 용어는 리론적으로 옳지 않다. 어떠한 민주주의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온갖 정치적상부구조(계급의 폐절이 완수되지 않는 한, 무계급사회가 건설되지 않는 한 불가피한 정치적상부구조)가 그러한바와 같이 결국은 생산에 복무하며 결국은 소여의 사회의 생산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렇기때문에 《생산적민주주의》를 다른 온갖 민주주의로부터 분리시키는것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은 혼란이나 조성할뿐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 부하린이 쓴 12월 7일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그자신이 이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고있는가를 보라. 부하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자민주주의의 방법은 생산적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는 말에 주의하라! 부하린은 대중에게 호소하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까다로운 용어로부터 시작하고있는데 나의 의견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비

민주주의적이다. 대중을 위해서 글을 쓸 때에는 특별한 설명이 요구되는 새로운 용어는 피해야 한다. 또 《생산적》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해로운것이다. 왜냐 하면 불필요한 용어의 설명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선거와 립후보자의 추천, 립후보자에 대한 지지 등등이 비단 정치적견결성의 견지에서뿐만아니라 경제사업능력, 행정사업경력, 조직능력 및 근로대중의 물질적 및 정신적 리해관계에 대한 실지로 검열된 배려도 고려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론의는 확실히 억지이고 또 옳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립후보자의 추천, 립후보자에 대한 지지 등등》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모든 선거가 다 정치적견결성과 경제사업능력의 고려에서 진행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뜨로쯔끼의 견해와는 반대로 수백만명이 망라된 조직체에는 일정한 프로수의 알선자, 관리(좋은 관리들이 없이는 여러해동안 일을 해나갈수 없다.)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알선적》민주주의나 《관리적》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는것은 아니다.

셋째, 피선거자, 조직일군, 행정일군 등등만을 보는것은 옳지 않다. 이런 우수한 사람들은 어쨌든 소수에 불과하다. 보통 사람들, 대중들을 보아야 한다. 루주따크는 이것을 더 간결하게 더 알기 쉽게 표현하고있을뿐만아니라 리론적으로도 더 옳게 표현하고있다.(테제 6)

《…생산의 매개 참가자가 자기들이 수행하는 생산적과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며 생산의 매개 참가자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과제의 수행에 참가할뿐만아니라 생산분야에서의 모든 기술적 및 조직적 결함의 시정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이 필요하다.》

넷째, 《생산적민주주의》란 곡해하기 쉬운 용어다. 그것은

독재와 유일관리제를 부인하는 의미로 리해될수 있다. 그것은 보통의 민주주의의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유해하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긴 주석을 달지 않으면 안된다.

루주따크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간결하게 서술하고있는데 그것은 더 옳으며 또 이러한 모든 결함도 면하고있다. 그런데 뜨로쯔끼는 1월 11일부 《쁘라우다》에 게재된 자기 론문 《생산적민주주의》에서 이러한 부정확성과 결함들의 존재를 반박하지 않을뿐만아니라(그는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회피하고있으며 자기의 테제와 루주따크의 테제를 비교하지 않고있다.) 도리여 자기의 용어에 《군사적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평행시킴으로써 자기의 용어의 결함과 부정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있다. 회고하건대 다행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때문에 종파적론쟁을 일으킨적은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생산적분위기》라는 뜨로쯔끼의 용어는 더욱 졸렬하다. 지노비에브는 정당하게도 그것을 조소하였다. 뜨로쯔끼는 대단히 노하여 이렇게 반박하였다. 《우리에게는 군사적분위기가 있었다.… 이제는 로동자대중속에, 그 군중속에 표면상만이 아닌 생산적분위기, 즉 전선에서와 같은 그러한 긴장상태, 생산에 대한 실무적관심과 주의를 조성하여야 한다.…》 문제는 바로 《로동자대중, 그 군중》에 대해서는 루주따크의 테제처럼 말해야 하며 오해나 웃음을 자아낼 《생산적분위기》라는 식의 말을 써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사실상 뜨로쯔끼동지는 《생산적분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적선전이라는 개념이 표현하는것과 같은 사상을 표현하고있다. 그러나 다름아닌 로동자대중, 그 군중을 위해서야말로 그와 같은 표현을 피하면서 생산적선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표현은 대중속에서 생산적선전을 어떻게 실시해서는 안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된다.

정치와 경제. 변증법과 절충주의

또다시 이렇게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것은 이상한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뜨로쯔끼와 부하린이 이렇게 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그들은 다 내가 문제를 《바꾸어놓고있다》느니 그들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취급하고있는데 나는 《정치적으로》 취급하고있다느니 하면서 나를 비난한다. 부하린은 이것을 자기의 테제에까지 집어넣고 두 론쟁자의 《우에 올라서려》 하면서 자기는 량자를 결합시키고있다고 한다.

리론적오유는 대단히 엄중하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표현이다. 이렇게 나는 자기의 연설에서 반복하였다. 왜냐 하면 이전에도 벌써 내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취급한다고 하는, 전혀 터무니없는, 맑스주의자가 한 말로써는 전혀 용서할수 없는 이러한 비난을 들었기때문이다. 정치는 경제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수 없다. 달리 론의하는것은 맑스주의의 초보마저 잊어버리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혹은 나의 정치적평가가 틀리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말하여보고 증명하여보라. 그러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취급하는것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취급하는것과 같다느니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할수 있다느니 하고 말한다는것은(아니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허용하는것조차) 맑스주의의 초보마저 잊어버리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바꾸어말하면 정치적으로 취급한다는것은, 만일 직업동맹을 옳지 않게 대한다면 쏘베트정권을, 무산계급독재를 멸망시

키게 된다고 말하는것을 의미한다.(당의 오유로 인한 당과 직업동맹과의 분렬은 로씨야와 같이 농민이 우세한 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쏘베트정권을 붕괴시킬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본질적으로 검토할수 있다. 즉 그러한 취급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것을 분석, 연구, 결정할수 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정치적취급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정치적취급에 불과하며 우리에게는 《경제적취급**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것은 자기의 목을 매는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판단을 내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배부르고 잘 입는것이 굶주리고 헐벗는것보다 좋다는것도 역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것과 꼭 마찬가지인것이다.

부하린은 정치적취급과 경제적취급과의 결합을 설교함으로써 리론적으로 **절충주의**에 빠졌다.

뜨로쯔끼와 부하린은, 마치 자기들은 생산의 증대를 고려하고있는데 상대방은 형식적민주주의만을 고려하고있는듯이 사태를 꾸며대고있다. 이렇게 꾸며대는것은 옳지 않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따름**이다.(또 맑스주의적으로는 이렇게만 설**수 있다**.) 즉 한 계급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옳게 취급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생산적과업**도 해결할수 없을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지노비예브는 《당신들은 정치적 오유를 범하여 직업동맹에서 분렬을 일으키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생산의 제고에 관해서는 나는 1920년 1월에 벌써 목욕탕 건설을 실례로 들면서 말하였고 또 썼다.》고 말하였다. 뜨로쯔끼는 《참 대단한데, 좀 생각해보라〔29페지〕, 목욕탕에 관한 실례를 들면서 소책자를 쓰다니, 그런데 당신은 직업동맹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일언반구

도〉〔22페지〕 쓰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롱담을 해서 미안하지만 목욕탕의 실례는 열개의 《생산적분위기》에 약간의 《생산적민주주의》를 첨가한 것만한 가치가 있다. 목욕탕의 실례는 다름아닌 대중에게, 다름아닌 《군중》에게 직업동맹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를 명백하게 간단히 말하여주고있다. 그런데 《생산적분위기》나 《생산적민주주의》는 로동자대중의 눈을 가리우며 그들의 리해를 곤난하게 하는 먼지이다.

뜨로쯔끼동지는 《레닌은 직맹기관이라고 불리우는 공간들이 어떠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또 놀아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66페지)고 나를 비난하였다.

미안하지만 뜨로쯔끼동지, 루주따크의 테제를 전부 읽고 거기에 동의한 나는 직맹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당신의 모든 테제와 당신의 모든 보고 또는 보충보고와 결론보다 **더 많이, 더 충분히, 더 옳게, 더 간단히, 더 명백하게** 말하였다. 왜냐 하면 거듭 말하거니와 현물표창이나 동지적징계재판은 경제의 장악, 공업의 관리,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의 제고에 대하여 말한다면 《생산적민주주의》니 《결합》이니 하는따위의 전혀 추상적인(그렇기때문에 공허한) 말보다 백배나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생산적》견해의 제기니(뜨로쯔끼), 정치적취급의 일면성의 극복 및 정치적취급과 경제적취급과의 결합이니(부하린) 하는 구실하에 그들이 우리에게 준것은 다음과 같은것이다.

(1) 정치와 경제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적으로 옳지 않은 절충주의적규정에서 표현된 맑스주의의 망각.

(2) 진숙정책에 표현되여있고 뜨로쯔끼의 강령적소책자전반에 일관되여있는 정치적오유의 변호 또는 은폐. 그런데 이 오유는 만일 그것을 모르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무산계급독재

의 붕괴를 가져올것이다.

(3) 순 생산적, 경제적인 문제, 즉 어떻게 생산을 제고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의 분야에서의 일보후퇴, 말하자면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며 절박하며 절실한 과업(생산적선전을 전개하라, 현물표창을 잘 배정하며 동지적징계재판의 형태로 강제를 옳게 리용하는것을 배우라.)을 제기한 루주따크의 실무적인 테제로부터 추상적이고 공허하고 《실제에 맞지 않고》 리론적으로 옳지 않고 지식인식으로 정식화되여있고 가장 실무적인것과 실제적인것을 망각한 일반적인 테제에로의 일보후퇴.

사실상 정치와 경제에 관한 문제에서 지노비예브와 나를 일방으로 하고 뜨로쯔끼와 부하린을 타방으로 한 량자간의 호상관계는 바로 이러하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12월 30일에 뜨로쯔끼가 공포한 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론박을 읽었을 때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레닌동지는 제8차쏘베트대회에서 한 우리 나라 정세에 관한 자기 보고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정치는 적게 필요하고 경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직업동맹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문제의 정치적면을 전면에 내세웠다(65폐지)고 말하였다. 뜨로쯔끼동지에게는 자기의 이 말이 《매우 적중한것》같이 보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이 말은 가장 극단한 개념들의 혼란, 참으로 끝없는 《사상적혼란》을 표현하고있다. 물론 나는 언제나 우리가 정치보다 경제에 더 많이 종사하는것이 좋다는 소원을 표시하여왔으며 표시하고있으며 또 표시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위험이나 정치적오유가 없어야 한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뜨로쯔끼동지가 범하고 부하린동지가 심화한 정치적오유는 우리 당을 경제적과업으로부터, 《생산》사업으로부터 리탈시키고있으며—유감스럽게도—우리로 하여금 이 오유를 시정하며 급진

로동조합주의적경향(무산계급독재의 붕괴를 가져오는 경향)과 론쟁하며 직맹운동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쏘베트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태도)를 반대하여 론쟁하며 누가 더 훌륭히, 더 성과적으로 현물표창을 주고 더 훌륭히 더 성과적으로 징계재판을 조직하고있는가, 또 누가 11월 2～6일의 직업동맹 제5차 전로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루주따크의 테제에 기초한 결합을 더 훌륭히, 더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는가, 그것이 싸라또브의 제분공들인가, 돈바쓰의 탄부들인가, 뻬뜨로그라드의 금속로동자들인가 하는 등등의 실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론쟁 대신에 일반적인 《테제》에 관해서 론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광범한 론쟁》의 리득에 관한 문제를 들어보자.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오유가 사람들을 경제적과업으로부터 리탈시키고있는가를 볼것이다. 나는 소위 《광범한》 론쟁이라는것을 반대하였으며 응당 실무적인 론쟁이 진행되였어야 할 직맹위원회를 뜨로쯔끼가 파탄시킨것은 그의 오유라고, 정치적오유라고 인정하였으며 또 인정하고있다. 나는 부하린을 수반으로 한 완충집단이 완충기의 과업을 리행하지 못한것(그들은 여기에서도 변증법을 절충주의로 바꾸어놓았다.)을 정치적오유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바로 《완충기》의 견지에서 론쟁을 직맹위원회에로 옮기기 위하여 극히 정력적으로 광범한 론쟁을 반대해나서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를 보라.

12월 30일에 부하린은 다음과 같은 말까지 하게 되였다. 《우리는 로동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성스러운 구호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협소한 참의회나 소형회의나 자기의 어떤 조직체에서 토론하지 말고 광범한 집회에서 토론하자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직업동맹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의 회의와 같은 큰 회의에서 토론함으로써 우리는 후퇴하는것이 아니라 일보전진하는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45페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지노비에브에게 요설과 민주주의의 과대평가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이것이야말로 순전한 요설이며 《말썽》이며 형식적민주주의가 혁명적합목적성에 종속되여야 한다는데 대한 완전한 무지이다!

뜨로쯔끼도 이보다 조금도 나은것이 없다. 그는 《레닌은 한사코 문제의 본질에 관한 론쟁을 제지하며 파괴하려 하고있다.》(65페지)는 비난을 들고 나선다. 그는 이렇게 언명한다. 《왜 나는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중앙위원회에서 명백히 말하였다. 다른 모든 동지들과 동등하게 당출판물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것이 나에게 허락되기전에는 나는 이 문제의 비밀토의에서, 따라서 또 위원회의 사업에서 하등의 리득도 기대하지 않는다.》(69페지)

결과는 어떠한가? 12월 25일에 뜨로쯔끼가 《광범한 론쟁》을 개시한지 한달도 못되는데 이 토론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을 무익하다고(만일 더 나쁜것이 아니라면) 생각하지 않는 책임있는 당일군은 백명중에 거의 한명도 없게 되였다. 왜냐 하면 생기있는 사업으로부터 온갖 《생산적분위기》의 죽은 스콜라철학으로 후퇴할것이 아니라 실제적경험에서 배우며 참된 《생산》사업에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실제적경험을 연구, 검열하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게 될 그 위원회에서의 다름아닌 실무적인 경제적토의를 뜨로쯔끼는 《비밀》토의라고 욕설하고 말에 관한, 졸렬한 테제에 관한 론쟁으로써 당의 시간을 빼앗았기때문이다.

악명높은 《결합》을 들어보자. 나는 12월 30일에 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것을 충고하였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자신의 실제적경험을 연구하지 못하였는데 이 조건이 없이는 결

합에 관한 론쟁은 불가피적으로 요설로, 당의 력량을 경제적 사업으로부터 공연히 리탈시키는것으로 되고말기때문이다. 나는 인민경제위원회에 직업동맹대표자들을 3분의 1 내지 2분의 1, 혹은 2분의 1 내지 3분의 2까지 인입할것을 제의하고있는 이 조항을 들어서 뜨로쯔끼의 테제를 황당무계한 관료주의적 계획이라고 불렀다.

부하린은 이때문에 나에 대해서 노발대발하였다. 그는 속기록 49페지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론할 때 그들은 벙어리와 귀머거리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이 페지에는 문자그대로 이렇게 인쇄되여있다!)는것을 나에게 상세히 증명하였다. 뜨로쯔끼도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웨쳤다.

《나는, 레닌동지가 이것을 이러이러한 날에 관료주의라고 불렀다는 것을 동지들이 모두 자기의 수첩에 적어두기를 바란다. 나는 대담히 예언한다. 이것은 몇달후에는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및 최고인민경제위원회, 금속로동자직맹 중앙위원회 및 금속부 등등에 3분의 1 내지 2분의 1의 겸직일군들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로 되며 지침으로 될것이다.…》(68페지)

이것을 읽고 나는 밀류찐동지(최고인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가지고있는 결합문제에 관한 인쇄된 보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자료도 없이 사실도 없이 의견상이, 정의, 《생산적민주주의》 등을 공연히 생각해내는 《전당적론의》(부하린의 표현, 47페지, 이것도 아마 유명한 《진숙》에 못지않은 《류행어》로 될것이다.)에 종사하는것은 참을수없이 지루한노릇이니 우리의 실제적경험을 조금씩이라도 연구하자고 속으로 생각한것이다.

밀류찐동지는 《제8차전로쏘베트대회에서의 최고인민경제

위원회의 보고»(모스크바판, 1920년, 서문의 날자는 1920년 12월 19일)를 포함하여 몇권의 책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상기 책 14페지에는 로동자들이 관리기관에 참가한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표가 실려있다. 이 통계표(성인민경제위원회들과 기업소들의 일부만을 포괄하는)를 인용하자.

관 리 기 관	총 수	로동자		전문가		사무원및기타	
		인수	%	인수	%	인수	%
최고인민경제위원회 및 성인민경제위원회 상무위원회	187	107	57.2	22	11.8	58	31.0
총관리국, 부, 중앙관리국 및 관리총국 참의회	140	72	51.4	31	22.2	37	26.4
합의제 및 유일관리제를 실시하는 공장관리부	1,143	726	63.5	398	34.8	19	1.7
총 계	1,470	905	61.6	451	30.7	114	7.7

이와 같이 현재 벌써 관리에 참가하는 로동자들이 평균 61.6%를 이루고있다. 즉 반수를 넘으며 3분의 2에 가깝다! 뜨로쯔끼동지가 테제에서 이에 관해서 쓴것이 황당무계한 관료주의적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은 이미 증명되였다.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니 «2분의 1 내지 3분의 2»니 하고 말하며 론쟁하며 강령을 쓰는것—이 모든것은 가장 공허한 «전당적론의»며 생산사업으로부터 력량, 수단, 주의력, 시간을 떼여내는것이며 진지한 내용이 없는 정객들의 행실이다. 위원회에서야말로—거기에는 경험있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며 거기에서는 사실도 연구하지 않고 테제를 쓰는데 동의하지 않을것이다.—사업에 유익하게 경험을 검토하는데 종사할수 있을것이다. 말하자면 10명 내지 20명(천명의 «겸직일군들»중에서)의 의견을 물

을수 있을것이며 그들의 인상과 결론을 객관적으로 통계자료와 비교할수 있을것이며 앞날을 위한 실무적, 실제적인 지시, 즉 경험이 이러이러하게 총화되였는데 곧 전과 같은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향, 방법, 태도를 약간 변경할것인가, 변경한다면 또 어떻게 변경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고 경험을 재삼 검토하고 무엇인가를 개조해야 할것인가 하는 등등의 지시를 얻는 일에 종사할수 있을것이다.

동지들(나도 약간 《생산적선전》에 종사하는것을 용서하라!), 진짜《경제일군》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가장 선진적인 나라에서조차 자본가들과 트레스트조직자들은 다년간 때로는 10년이상이나 자기(및 타인)의 실제적경험을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시작한 일을 시정하고 뒤로 물러서군 하였으며 소여의 사업에 완전히 적합한 관리체계와 상하급행정일군의 선발체계 등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번 사업을 시정하군 하였던것이다. 문명세계의 어디에서나 자기의 경제사업을 **수세기에 걸친 경험과 관습**에 립각시킨 자본주의하에서 바로 이러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지반우에서 건설하고있다. 이 지반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관습에 대한 극히 장구하고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재교양사업을 요구하는데 이 관습의 개조는 극히 점차적으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뜨로쯔끼처럼 이 문제를 대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뜨로쯔끼는 12월 30일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웨쳤다. 《우리 로동자들, 당일군들과 직맹일군들에게는 생산적교양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없다고 대답한다.》(29페지) 이와 같은 문제에 이렇게 대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이것은 소여의 사단에 과연 충분한 수량의 방한장화가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고 묻는것과 같다.

우리는 아마 10년후에도 당 및 직맹 일군들이 모두 충분한 생산적교양을 가지고있지는 않다고 말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모든 당일군, 직맹일군 및 군사기관일군들이 10년후에도 충분한 군사적교양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근 1,000명의 로동자들과 직맹원들 및 직맹대표들이 관리에 참가하여 기업소, 관리총국 및 그이상의 기관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생산적교양의 기초가 닦아져있는것이다. 《생산적교양》의 기본원칙, 오랜 비밀공작자이며 직업적문필가인 우리자신에 대한 교양의 기본원칙은 《열번 재여 한번에 마르라》는 규칙대로 우리자신의 실제적경험을 면밀하게 연구하는데 우리자신이 착수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수하도록 가르쳐주는데 있다. 그것은 이 1,000명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꾸준히, 천천히, 신중히, 솜씨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하며 그들의 사업을 이보다도 더 신중하게 실무적으로 바로잡아주며 일정한 방법, 일정한 관리체계, 일정한 비례, 일정한 인재선발 등등이 유익하다는것이 충분히 증명된후에 비로소 전진하는데 있다. 바로 이러한것이 《생산적교양》의 주요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인데 바로 이 규칙을 뜨로쯔끼동지는 자기의 모든 테제, 문제에 대하는 자기의 모든 태도에 의하여 위반하고있다. 뜨로쯔끼동지의 다름아닌 테제전체, 강령적소책자전체가 이러하며 그것들은 그 오유로 인하여 당의 주의력과 력량을 실무적인 《생산》사업으로부터 공허하고 내용이 없는 언쟁에로 끌어갔다.

변증법과 절충주의. 《학교》와 《기관》

부하린동지에게는 많은 고귀한 품성이 있는데 리론적능력

과 모든 문제에서의 리론적근원에 대한 탐구심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매우 고귀한 품성이다. 왜냐 하면 의식적으로 채용하고있는 일정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오유를 범하는 사람에게서 그 오유의 리론적근원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정치적 오유를 망라한 어떠한 오유도 충분히 해명할수 없기때문이다.

문제를 리론적으로 심화하려는 자기의 이러한 지향에 따라서 부하린동지는 12월 30일의 토론부터는(더 일찍할는지는 몰라도) 론쟁을 바로 상술한 측면으로 옮겨놓고있다.

부하린동지는 12월 30일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 정치적 요소도 이 경제적요소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여기에서 〈완충파〉 또는 완충파사상으로 불리우는것의 리론적본질은 이 점에 있다.—이것은 나에게는 전혀 다툴수 없는것이라고 생각된다.…》(47폐지)

부하린동지가 여기에서 범하고있는 오유의 리론적본질은 그가 정치와 경제간의 변증법적관계(맑스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를 절충주의로 바꾸어놓고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도, 저것도》, 《한면으로는, 다른 면으로는》—바로 이것이 부하린의 리론적립장이다. 바로 이것이 절충주의이다. 변증법은 호상관계를 한쪼각한쪼각 떼여내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구체적발전에서 전면적으로 고려할것을 요구한다. 정치와 경제의 실례에서 나는 이미 이것을 지적하였다.

《완충기》의 실례에서도 이것은 역시 의심할바없다. 만일 당이라는 기차가 전복될수 있는 경사면을 달리고있는 경우에는 완충기는 유익하며 또 필요하다. 이것은 다툴수 없는 일이다. 부하린은 지노비예브에게서 한쪼각, 뜨로쯔끼에게서 한쪼각 떼여다가 절충주의적으로 《완충》적과업을 제기하였다. 부하린은 《완충자》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어느때에, 무슨 문제에서 오유를 범하였는가, 리론적오유인가

또는 정치적무분별의 오유인가, 또는 종파적언행의 오유인가 또는 과장한 오유인가 등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전력을 다하여 이러한 개개의 오유를 공격해야 할것이였다. 부하린은 자기의 이러한 《완충》적과업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의 하나를 들어보자.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철도종업원및수운로동자직맹 중앙위원회) 뻬뜨로그라드상무국의 공산당당그루빠는 뜨로쯔끼에게 공명하고있으며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에 관한 기본문제에 있어서는 뜨로쯔끼동지의 립장이나 부하린동지의 립장이나 다 같은 견지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자기 견해를 단적으로 설명하고있는데 이 단체는 1921년 1월 3일 뻬뜨로그라드에서의 부하린동지의 보충보고를 뻬뜨로그라드에서 소책자로 출판하였다.(엔. 부하린 《직업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뻬뜨로그라드판, 1921년) 이 보충보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읽게 된다.

《처음에 뜨로쯔끼동지는 직업동맹의 지도부를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동지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정식화하였는데 그보다전에는 심지어 〈진숙〉의 견지에까지 서있었다. 지금 이 견지를 포기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뜨로쯔끼를 반대하는 론거로서 〈진숙〉을 내세우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5페지)

나는 이 서술에 무수히 존재하는, 사실과 어긋나는 부정확한 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진숙》이라는 말을 뜨로쯔끼가 사용한것은 11월 2~6일의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에서였다. 《지도일군들을 선발한다.》는 말은 뜨로쯔끼가 11월 8일에 중앙에 제출한 자기의 테제 5에서 말한것이다. 겸해서 말하거니와 이 테제는 뜨로쯔끼의 한 지지자에 의하여 출판되였다. 뜨로쯔끼가 12월 25일에 내놓은 소책자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은 내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그와 같은 사상, 그와 같은 정신으로 철저히 일관되여있다. 《포기》가 어디

에서, 또 무슨 문제에서 표현되였는가 하는것은 전혀 알수 없는 일이다.) 나의 론제는 이제는 다르다. 《완충기》가 절충주의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한 오유를 간과하고 다른 오유를 운운하며 1920년 12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전 로씨야의 수천명의 당일군들앞에서 범한 오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1921년 1월 3일 뻬뜨로그라드에서 범한 오유를 운운한다. 《완충기》가 변증법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전력을 다하여 그가 쌍방에서 보는 또는 여러 면에서 보는 매개의 오유를 공격하게 된다. 바로 이것을 부하린은 하지 않고있다. 그는 뜨로쯔끼의 소책자를 진숙정책의 견지에서 분석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있다. 완충자가 완충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는것이 만인의 웃음을 자아내고있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같은 연설, 즉 뻬뜨로그라드에서의 부하린의 연설 7페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읽게 된다.

《뜨로쯔끼동지의 오유는 그가 공산주의의 학교라는 이 면을 불충분하게 변호하고있는데 있다.》

12월 30일의 론쟁에서 부하린은 이렇게 론하고있다.

《지노비예브동지는 직업동맹을 공산주의의 학교라고 불렀고 뜨로쯔끼동지는 그것을 생산관리의 행정—기술적기관이라고 불렀다. 나는 전자나 후자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것을 증명할만한 하등의 론리적근거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두 명제가 다 옳으며 이 두 명제의 결합도 옳다.》 (48페지)

같은 사상은 부하린과 그의 《집단》 또는 《파벌》의 테제 6에도 있다. 즉 《…한편으로는 그것〔직업동맹〕은 공산주의의 학교이며…다른 면으로는 그것은—점점 더—경제기관 및 전반국가정권기관의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쁘라우다》, 1월 16일)

바로 여기에 부하린동지의 기본적인 리론적오유, 절충주의(각종 반동적인 《류행적》철학체계의 저자들에게서 특히 보급된)에 의한 맑스주의의 변증법의 교체가 있다.

부하린동지는 《론리적》근거에 대해서 말하고있다. 그의 모든 론의는 그가—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겠지만—여기에서 변증법적 또는 맑스주의적 론리학의 견지에 서있는것이 아니라 형식적 또는 스콜라철학적 론리학의 견지에 서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부하린동지자신이 든 극히 단순한 실례로부터 시작하자. 12월 30일의 론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지들 여기에서 진행되고있는 론쟁에서 당신들중 많은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을것이다. 두사람이 와서 연단우에 있는 고뿌를 보고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고 서로 묻는다. 한사람은 〈그것은 유리통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을것이다.〉라고 말한다. 또 한사람은 〈고뿌란 마시는데 쓰는 그릇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것이다.〉라고 말한다.》(46페지)

독자가 보는바와 같이 부하린은 이 실례로써 나에게 일면성이 해롭다는것을 통속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 설명을 감사하게 접수한다. 그리고 나의 감사를 실지로 증명하기 위하여 변증법과는 다른 절충주의란 대체 어떠한것인가를 통속적으로 설명하는것으로써 대답하려 한다.

고뿌는 다툴 여지 없이 유리통이기도 하며 또한 마시는데 쓰는 그릇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뿌는 이 두가지 속성 또는 특질 또는 측면만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속성, 특질, 측면, 이여의 세계전체와의 호상관계와 《매개》를 가지고있다. 고뿌는 무거운 물건이여서 던지는 도구로 쓸수 있다. 고뿌는 서진으로도, 잡은 나비를 넣어두는 통으로도 쓸수 있다. 고뿌는 그것이 마시는데 유용하냐, 유리로 만든것이냐, 그 형태가

원통형이냐 또는 전혀 그렇지 않느냐 하는것과는 관계없이 예술적인 조각이나 그림이 있는 물건으로서의 가치도 가질수 있다.

다음, 만일 나에게 지금 마시는데 쓰는 기구로서의 고뿌가 필요하다면 나에게는 그 형태가 완전히 원통형이냐 또 그것이 실지로 유리로 되여있느냐 하는것을 아는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나 그대신 바닥에 틈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 고뿌를 사용할 때에 입술을 다치지 않겠는가 하는것 등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마시는데 쓰기 위해서 고뿌가 수요되는것이 아니라 아무런 유리통이나 다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데 다 사용하기 위해서 고뿌가 필요하다면 그때에는 나에게는 바닥에 틈이 생겼거나 또는 심지어 전혀 바닥이 없는 고뿌도 유용하다.

형식론리학—학교에서는 여기에 국한되고있다.(그리고 학교의 아래학급들에서는—시정을 가해서—여기에 국한하지 않으면 안된다.)—은 가장 일상적으로 또는 가장 빈번히 눈에 뜨이는 현상에 의거하여 형식적인 정의를 내리며 또 이에 국한한다. 만일 이 경우에 두개 혹은 그이상의 상이한 정의를 취하여 완전히 우연적으로 한데 결합시킨다면(유리통이기도 하며 마시는데 쓰는 그릇이기도 하다는 식으로) 우리는 대상의 각이한 측면을 가리키는 절충주의적정의를 얻게 될따름이다.

변증법적론리학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것을 요구한다. 대상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측면, 모든 련관 및 《매개》를 파악,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전면성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오유와 무감각을 면케 할것이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로, 변증법적론리학은 대상을 그 발전, 《자기운

동》(헤겔이 때로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변화과정에서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고뿌에 있어서는 이것은 곧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나 고뿌도 불변하지는 않으며 또 특히 고뿌의 사명, 그 용도, 주위세계와의 그 련관은 변화한다. 셋째로, 인간의 모든 실천은 진리의 규준으로서, 또 대상과 인간에게 필요한것과의 련관의 실재적규정자로서 대상의 완전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로, 변증법적론리학은 고 쁠레하노브가 헤겔을 따라 즐겨 말한바와 같이 《추상적진리는 없으며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라고 가르친다.(젊은 당원들을 위하여 겸해서 지적해두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것은 쁠레하노브가 철학에 관해서 쓴 모든것을 연구—바로 연구—함이 없이는 자각적인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맑스주의의 전체 국제적문헌가운데서 우수한것이기때문이다①.)

나는 물론 변증법적론리학의 개념을 남김없이 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만하여도 충분하다. 고뿌로부터 직업동맹과 뜨로쯔끼의 강령에로 넘어갈수 있다.

《한면으로는 학교이며 다른 면으로는 기관이다.》—이렇게 부하린은 말하고있으며 그의 테제에 쓰고있다. 뜨로쯔끼에게는 《…학교라는 이 면을 불충분하게 변호하는》 오유가 있으며 지노비에브에게는 기관이라는 이 《면》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

① 겸해서 말하거니와 내가 원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첫째로, 지금 세상에 나오고있는 쁠레하노브전집중에서 철학에 관한 모든 론문은 상세한 색인 등등이 붙은 특별한 권, 혹은 몇개의 권들에 따로 수록되였으면 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필독의 교과서들의 총서에 들어가야 할것이기때문이다. 둘째로, 로동자국가는, 나의 생각 같아서는 철학교수들에 대하여 그들이 맑스주의철학에 대한 쁠레하노브의 서술을 알고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줄 알것을 요구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은 벌써 《선전》으로부터 《행정적지시》에로의 후퇴이다.

못한 오유가 있다.

왜 부하린의 이 론의는 내용이 없는 죽은 절충주의인가? 왜냐 하면 부하린에게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견지에서 소여의 론쟁의 전 력사를 분석하며(맑스주의, 즉 변증법적론리학은 이것을 무조건하고 요구한다.) 문제에 대한 태도전체, 소여의 시기의 소여의 구체적정세하에서의 문제의 모든 제기법—또는 달리말하면 문제제기의 전체 방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조금도 없기때문이다. 부하린에게는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조금도 없다! 그는 구체적인 연구가 전혀 없이, 텅 빈 추상을 가지고 지노비예브에게서 한쪼각, 뜨로쯔끼에게서 한쪼각을 취하고있다. 이것이 절충주의다.

이 점을 더 뚜렷하게 해명하기 위하여 실례를 들자. 나는 남부중국의 봉기자들 및 혁명가들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내가 여러해전에 읽은 손중산의 2, 3편의 론문과 약간의 서적과 신문론설이외에는) 거기에서 봉기가 일어나고있다면 아마 봉기는 가장 첨예한, 전 민족을 휩쓴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제1의 중국인과 봉기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제2의 중국인사이의 론쟁도 있을것이다. 나는 이이상 아무것도 모르고서도 부하린의 테제와 류사한 테제를 쓸수가 있다. 즉 《한면으로는…다른 면으로는…》 하고. 한사람은 예술의 《면》을 불충분하게 고려하였고 다른 사람은 《첨예화의 면》을 불충분하게 고려하였다 하는 식으로 쓸수가 있다. 이것은 내용이 없는 죽은 절충주의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소여의** 론쟁, 소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소여의 태도 등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없기때문이다.

직업동맹은 한면에 있어서는 학교이며 다른 면에 있어서는 기관이며 셋째 면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며 넷째 면에 있어서는 거의 순 산업로동자들의 조직체이며 다섯째 면

에 있어서는 생산을 위한 조직체이다①. 등등. 왜 문제 또는 대상의 처음 두 《면》을 취하고 제3, 제4, 제5의 《면》을 취해서는 안되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하등의 론거도 하등의 독자적인 분석도 부하린에게는 전혀 없다. 그렇기때문에 부하린집단의 테제도 전혀 절충주의적인 공담이다. 부하린은 《학교》와 《기관》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전체를 근본적으로 옳지 않게, 절충주의적으로 제기하고있다.

이 문제를 옳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허한 추상으로부터 구체적인것에로, 즉 당면의 론쟁에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론쟁이 직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에서 발생한 그대로이건, 또는 뜨로쯔끼자신이 12월 25일의 자기의 강령적소책자에서 제기하고 천명한 그대로이건 어쨌든 이 론쟁을 고찰해보라.—그러면 당신들은 뜨로쯔끼의 **전체** 견해, 그의 전체 방향이 옳지 않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는 우리가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에 관한 론제를 제기할 때에도, 생산적선전일반을 론할 때에도, 《결합》이니 생산관리에의 직업동맹의 참가니 하는 문제를 뜨로쯔끼**처럼** 제기할 때에도 직업동맹을 학교로 취급하여야 하며 또 취급할수 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뜨로쯔끼의 전체 강령적소책자에서 제기된바와 같이 이 마지막문제에서도 옳지 않은 점은 직업동맹이 **생산의 행정—기술적관리의 학교**라는것을 모르고있는 점이다. 《한면으로는 학교이며 다른 면으로는 어떤 다른것》인게 아니라 이 론쟁에 비추어 말하면 뜨로쯔끼의 이러한 문제제기법에 비추어 말하면 **모**

---

① 겸하여 말한다면 뜨로쯔끼는 여기에서도 오유를 범하고있다. 그는 산업별직맹은 생산을 장악하게 될 동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산업별직맹은 생산별로 로동자들을 조직하는 동맹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술 및 문화의 현수준하에서는(로씨야에서나 전 세계에서나) 불가피한것이다.

든 면으로 보아 직업동맹은 학교이다. 즉 련합의 학교이며 단결의 학교이며 자기 리익 옹호의 학교이며 운영의 학교이며 관리의 학교이다. 뜨로쯔끼동지의 이러한 근본오유를 리해하고 시정할 대신에 부하린동지는 《한면으로는, 다른 면으로는》 하는 가소로운 수정을 가하였다.

문제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보자. 생산관리의 《기관》으로서의 오늘의 직업동맹이란 무엇인가를 보자. 우리는 자료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약 900명의 로동자와 직맹원 및 직맹대표들이 생산을 관리하고있는것을 보았다. 원한다면 이 수를 10배로, 아니 100배로라도 증대시키라. 당신에게 양보하며 당신의 근본오유를 해명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기에 있어서의, 있을수 없는 이러한 《전진》속도까지도 가정하기로 하자.—그래도 역시 우리는 직업동맹의 600만이란 총맹원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의 직접적**관리자**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더욱 명백하게 알수 있는바와 같이, 뜨로쯔끼처럼 전체 주의력을 《지도층》에다 집중시키고 직업동맹의 생산적역할이나 생산의 관리니 하고 말하면서, 98.5%(6,000,000－90,000＝5,910,000＝총수의 98.5%)가 **배우고있고 또 오래동안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것은 근본적으로 오유를 범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학교 **및** 관리가 아니라 **관리의 학교**이다.

12월 30일에 지노비예브와 론쟁하고 《임명제》, 즉 임명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부정한다고 지노비예브를 전혀 무근거하게 또 옳지 않게 비난하면서 뜨로쯔끼동지는 무의식중에 극히 특징적인 대비를 말하여버렸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노비예브는 실제적이며 실무적인 매개문제에 너무나 선전적으로 대하여 거기에는 선동을 위한 자료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27페지)

나는 이제 소여의 문제에 대한 행정적태도란 어떠한것일 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뜨로쯔끼동지는 그의 강령적소책자에서 그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행정자의 신분으로서 처리하였는데(더 정확히 말하면 엉터리없이 처리하였는데) 실은 이 문제를 오직 선전자의 신분으로서만 처리할수 있었으며 또 처리하여야 하였다. 뜨로쯔끼동지의 근본적인 오유는 바로 이 점에 있는것이다.

사실 뜨로쯔끼에게 있는 좋은 점이란 어떤것인가? 그의 테제가 아니라 그의 연설—특히 그가 직맹일군들의 소위 《보수》파와의 자기의 졸렬한 론쟁에 관해서 망각하고있을 때의 그의 연설—에 있는 생산적선전은 의심할바없이 좋고 유익하다. 만일 뜨로쯔끼동지가 전로생산선전국의 참가자 및 일군의 신분으로서 직맹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경제》사업을 하고 구두상, 문자상으로 언론을 발표할수만 있었더라면 의심할바없이 사업에 적지 않은 리익을 가져다주었을것이다.(또 의심할바없이 가져다줄것이다.) 오유는 《테제—강령》에 있다. 그것을 붉은 실처럼 일관하고있는것은 직맹단체내의 《위기》, 직업동맹내의 《두 경향》, 로씨야공산당강령의 해석, 《쏘베트적로동조합주의》, 《생산적교양》, 《결합》 등등에 대한 행정자적태도이다. 나는 이제 뜨로쯔끼의 《강령》의 모든 주요론제들을 개관하였다. 그런데 지금 뜨로쯔끼에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바로 이러한 론제들에 대하여 취할수 있는 옳은 태도는 오직 선전자적태도뿐이다.

국가, 이것은 강제의 령역이다. 강제를, 특히 무산계급독재의 시기에 거부하는것은 정신착란일것이다. 《행정적수단》과 사업에 대한 행정자적태도는 여기에서는 필수적이다. 당, 이것은 무산계급의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전위대이며 지도자이다. 강제를 실시하지 않고 출당시키는것은 전위대의 특수한

영향수단이며 전위대를 순결히 하고 단련시키는 수단이다. 직업동맹, 이것은 국가권력의 후비이며 공산주의의 학교이며 운영의 학교이다. 이 령역에 있어서 특수하고 주되는것은 관리인것이 아니라 《중앙의》(그리고 물론 지방의) 《국가관리기관과 인민경제와 광범한 근로대중간의》 《련결》이다. (우리 당의 강령, 경제부문의 제5항—직업동맹을 취급한 항목—에 씌여있는바와 같이)[129]

뜨로쯔끼의 전체 강령적소책자를 붉은 실처럼 관통하고있는것은 이 문제의 그릇된 제기, 이 호상관계의 몰리해이다.

뜨로쯔끼가 문제전체를 다른 측면으로부터 취급하면서 이 가장 악명높은 《결합》을 자기의 강령의 이여의 론제들과 련관시켜서 연구하였다고 생각해보라. 그의 소책자가 례컨대 《결합》의 900의 경우중에서 90의 경우, 즉 최고인민경제위원회에서 공업을 관리하는 직무와 직업동맹으로부터 선거되는 직무와의 결합, 직맹원과 직맹운동상임일군과의 결합의 경우를 상세히 연구하는 과업에 전적으로 바쳐졌다고 생각해보라. 이 90의 경우가 중점적으로 진행한 통계조사의 자료와 함께, 로농감독국 및 해당 인민위원부의 검열원 및 지도원의 보고와 함께 분석되였다고, 즉 행정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분석되였다고, 사업의 총화 및 결과, 생산의 성과 등등의 견지에서 분석되였다고 생각해보라. 사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옳은 행정적태도일것이며 또 그것은 《진숙》로선, 즉 누구를 갈아버리며 누구를 조동하며 누구를 임명하며 어떠한 요구를 《지도층》에 곧 제출할것인가 하는데 주의력을 집중하는것을 완전히 정당화하였을것이다. 부하린이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일군들에 의하여 출판된, 1월 3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뜨로쯔끼는 이전에는 《진숙》의 견지에 서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포기하였다고 말하였을 때 부하린은 여기에서도 실천적

으로 가소로우며 리론적으로 맑스주의자로서는 전혀 허용될수 없는 절충주의에 빠지고있다. 부하린은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하지 못하고(또는 대하려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대하고있다. 우리가, 즉 당중앙위원회와 전당이 행정관리사업을 하는 한, 즉 국가를 관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숙》, 즉 철직, 조동, 임명, 면직 등등을 거절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뜨로쯔끼의 강령적소책자에는 이러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실제적실무적인 문제》는 전혀 제기되여있지 않다. 지노비에브와 뜨로쯔끼가 론쟁한것, 우리가 부하린과 론쟁하고있는것, 전당이 론쟁하고있는것은 《실제적실무적인 문제》인것이 아니라 《직맹운동의 령역에서의 **제 경향**》에 관한 문제이다.(뜨로쯔끼의 테제 4 마지막)

이 문제는 본질상 정치적문제이다. 가장 인도적인—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감정과 의도에 차있는 부하린이 원하듯이 뜨로쯔끼의 오유를 절충주의적인 수정이나 보충으로써 시정한다는것은 문제의—소여의 구체적《문제》의—본질자체로 보아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는 해결책이 하나, 오직 하나밖에 있을수 없다.

《직맹운동의 령역에서의 제 경향》에 관한 문제, 계급들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 정치와 경제와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 국가, 당, 직업동맹—《학교》와 기관—의 특수한 역할에 관한 문제 등등을 옳게 해결하는것이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로, 옳은 정치적결정에 기초하여 장구하고 계통적이고 꾸준하고 인내성있고 다면적이고 반복적인 생산적선전을 실시하며—더 정확히 말하면 계속 실시하며—그것을 국가적규모에서, 국가기관의 명의로 또 국가기관의 지도하에 실시하는것이다.

셋째로, 《실제적실무적인 문제》를 제 경향에 관한 론쟁—

이 론쟁은《전당적론의》및 광범한 토론에서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것이다.—과 혼동할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위원회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서, 보고와 통계를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제기하고 이 모든것에 기초하여—오직 이 모든것에 기초해서만, 이러한 조건하에서만—해당한 쏘베트기관이나 당기관 또는 이 두 기관의 결정에 의해서만《진숙》하는것이다.

그런데 뜨로쯔끼와 부하린에게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정치적오유, 련결장치와 피대의 중간에서의 절단,《행정수단》에 대한 무익하고 공허한 공격 등의 혼합물이 나왔다. 오유의《리론적》근원은—부하린이 리론적근원에 관한 문제를 자기의《고뿌》로써 제기한 이상—명백하다. 부하린의 리론적인—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식론적인—오유는 변증법을 절충주의와 바꾸어놓은데 있다. 부하린은 문제를 절충주의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완전히 혼란에 빠져 급진로동조합주의적언사까지 쓰게 되였다. 뜨로쯔끼의 오유는 일면성, 열중, 과장, 고집에 있다. 뜨로쯔끼의 강령은 고뿌에 바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뿌는 마시는데 쓰는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있다.

결 론

나는 이제 또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자아낼수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자기《강령》의 테제 6에서 뜨로쯔끼동지는 직업동맹을 취급한 로씨야공산당강령의 경제부분 제5항을 반복서술하였다. 두페지 지나 테제 8에서 뜨로쯔끼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자기 존재의 낡은 기초인 계급적경제투쟁을 잃은 동맹

은,》…—〔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경솔한 과장이다. 동맹은 **계급적**경제투쟁과 같은 그러한 기초는 상실하였으나 쏘베트기관의 관료주의적폐단과의 투쟁이란 의미에서의, 이러한 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방법과 수단에 의한 근로대중의 물질적 및 정신적 리익의 수호라는 의미에서의 **비계급적**《경제투쟁》같은 그러한 기초는 결코 상실하지 않았으며 또 유감이지만 아직 오래동안 상실할수 없을것이다.〕…—《동맹은 일련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무산계급혁명이 자기앞에 제기한, 그리고 우리의 강령이 정식화한 새로운 과업, 즉 **생산조직**의 과업을 능히 해결할수 있는 조직으로 되기 위하여 필요한 력량을 자기 대렬에 집결하지 못하였으며 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다.》(고시크체는 뜨로쯔끼의것, 9페지, 테제 8)

이것도 역시 큰 잘못의 싹을 내포하고있는 경솔한 과장이다. 당강령에는 《생산의 조직》이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그러한 과업을 동맹앞에 제기하고있지 않다. 우리 당강령의 매개 사상과 매개 명제를 강령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구명하여보자.

(1) 《사회화된 공업의 조직적기구는》〔일체 기구가 아니다.〕《선차적으로》〔전적으로가 아니다.〕《직업동맹에 의거하여야 한다.》 (2) 《직업동맹은 동업조합적협애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어떻게 벗어나는가? 당의 지도하에 무산계급이 비무산계급적근로대중에 대하여 교양적영향과 기타의 온갖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이다.〕《해당 생산분야의 근로자들의 대다수를,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빠짐없이 망라하는 대규모적인 생산련합체로 전변되여야 한다.》…

이것이 당강령에서 직업동맹을 취급하고있는 항목의 첫째부분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극히 장구한 활동을 요구하는, 앞날을 위한 극히 《**엄격한**》《조건》을 당장 제기하고있

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쏘베트공화국법령과 이미 확립된 관례에 의하여 벌써 지방과 중앙의 전체 공업관리기관의 참가자로 된》…〔보는바와 같이 대단히 신중한 용어이다. 다만 참가자이다.〕…《직업동맹은 통일적인 경제적전일체로서의 전체 인민경제의 일체 관리사업을 자기의 수중에 실제적으로 집중시키게 되여야 한다.》…〔주의하라: 관리사업을 실제적으로 집중시켜야 할것은 공업부문들이나 공업이 아니라 전체 인민경제, 그것도 통일적인 경제적전일체로서의 전체 인민경제이다. 경제적조건으로서의 이 조건은 공업에서나 농업에서나 소생산자가 인구 및 인민경제에 있어서 반수이하로 되기전에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이리하여》…〔바로 《이리하여》, 즉 접차적으로 상술한 모든 조건을 실현시키란말이다.〕…《중앙의 국가적관리와 인민경제와 광범한 근로대중간의 불가분리적련계를 보장하면서 직업동맹은 후자를》〔즉 대중을, 즉 인구의 대다수를〕…《직접적인 경제운영사업에 가장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직업동맹이 경제운영에 참가하며 광범한 대중을 경제운영에 인입하는것은 동시에 쏘베트정권의 경제기구의 관료화를 반대하는 주요한 투쟁수단이며 또 그것은 생산의 결과에 대한 진실로 인민적인 감독을 실시할 가능성을 준다.》

이와 같이 마지막구절에도 또다시 《경제운영에의 참가》라는 극히 신중한 말이 있으며 또다시 관료화를 반대하는 주요한(그러나 유일한것은 아니다.) 투쟁수단으로서의 광범한 대중의 인입에 관한 지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민적인**》 감독, 즉 결코 무산계급적감독만이 아니고 로동자-농민적《**감독**》을 실시할 《**가능성을 준다.**》는 특별히 신중한 지시도 있다.

따라서 이 모든것을 요약하여 우리 당강령이 직업동맹의 과업을 《생산의 조직》이라고 《정식화하였다》고 말하는것은 분

명히 옳지 않다. 그리하여 만일 이러한 잘못을 고집하여 그것을 강령적테제에 도입한다면 거기에서는 반공산주의적, 급진로동조합주의적 편향밖에 얻을것이 없을것이다.

말하던차에 말하거니와 뜨로쯔끼동지는 자기의 테제에서 《우리는 최근시기에 강령에서 제기된 목적에 접근한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졌다.》(7폐지, 테제 6)고 쓰고있다. 이것은 무근거한 말이며 또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은 말이다. 뜨로쯔끼가 론쟁에서 한바와 같이 직업동맹《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승인하였다는것을 인증하는것으로써는 이것을 증명할수 없다. 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후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것은 수많은 사실의 진지한 객관적연구에 의해서만 증명할수가 있다. 이것이 첫째이다. 그런데 둘째로, 설혹 이것이 증명되였다 하더라도 왜 멀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로 남을것이다. 그것은 뜨로쯔끼가 생각하고있는바와 같이 《많은 직맹일군들이》《새로운 과업과 방법을 회피하고있기》때문이거나 또는 《우리가》 불필요하고 유해한 어떤 극단적관료주의행위를 저지,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력량을 자기대렬에 집결하지 못하였고 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기》때문일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30일에 부하린동지가 우리에 대하여 한(그리고 뜨로쯔끼가 어제, 1월 24일에 광산로동자 제2차대회 공산당당그루빠에서의 우리들의 론쟁에서 되풀이한) 비난, 즉 《제9차당대회에서 수립된 로선의 포기》라는 비난(12월 30일의 토론속기록 46폐지)에 언급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레닌은 제9차대회에서는 로동의 군사화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구실삼는것을 조소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부인》하고있다고들 말한다. 12월 30일의 결론에서 뜨로쯔끼동지는 이 비난에다 말하자면 특별한 후추가루를 쳤다. 즉 《레닌은 직업동맹내에서

반대파적기분을 가진 동지들의 종파가 형성되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있다.》(65페지)느니 레닌은 《권모술책의 견지에서》(69페지) 문제를 처리하고있다느니 《당내종파들가운데서 수완을 부리고있다.》느니(70페지) 하고 말하였다. 뜨로쯔끼에 의한 사태의 이러한 서술은 물론 뜨로쯔끼동지에게는 매우 기분이 좋겠지만 나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을 보자.

12월 30일의 같은 론쟁에서 뜨로쯔끼와 크레스찐스끼가 확인한바와 같이 《쁘레오브라젠스끼동지는 7월(1920년)에 벌써 우리는 우리의 로동자단체의 내부생활면에서 새로운 궤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를 중앙위원회에 제기하였다》.(25페지) 8월에 지노비예브동지는 서한의 초안을 썼고 중앙위원회는 관료주의와의 투쟁 및 민주주의의 확대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서한을 비준하였다. 9월에는 문제가 당대표자회의에 제기되였고 그 결정은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비준되였다. 12월에는 관료주의와의 투쟁문제가 제8차쏘베트대회에 제기되였다. 즉 전체 중앙위원회, 전당, 전체 로농공화국은 관료주의 및 그것과의 투쟁문제를 일정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로씨야공산당 제9차대회로선의 《포기》가 나오는가? 아니다. 아무런 포기도 거기에는 없다. 로동의 군사화 등등에 관한 결정은 론쟁할 여지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그 결정을 시비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구실삼은데 대하여 내가 조소한것을 취소할 필요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이로부터 다만 로동자단체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결코 물신화함이 없이 그것을 확대하리라는것, 관료주의와의 투쟁사업에 우리는 갑절의 주의를 돌리리라는것, 우리는 온갖 불필요하고 유해한 극단적인 관료주의행위를, 누가 그것을 지적하든지간에 특히 신중하게 시정하리라는 결론이 나올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점제와 평균제에 관한 그리 크지 않은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하자. 12월 30일의 론쟁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점에 관한 뜨로쯔끼동지의 테제 41의 정식화는 리론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결국 소비에서는 평균제, 생산에서는 중점제라는 결론이 나오기때문이다. 중점제는 우대인데 소비없는 우대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뜨로쯔끼동지는 이에 대해서 또 《극심한 건망증》에 대해서, 《테로행위》(67페지와 68페지)에 대해서 나를 비난한다.—우회적책동이니 권모술책이니 하는 비난이 없는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는, 즉 뜨로쯔끼는 나의 평균제로선에 양보하였는데 나는 뜨로쯔끼를 공격하고있는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당사업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독자들앞에는 정확한 당문헌이 있다. 즉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1월결정서의 제4항과 뜨로쯔끼의 강령적테제 41이 있다. 내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고 뜨로쯔끼동지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11월 9일의 중앙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없는 리론적인 잘못이 테제 41에 내포되고있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경제계획실행에서의 중점제의 원칙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중앙위원회는 최근의(즉 9월의) 전로대표자회의결정에 완전히 일치하게 로동자들의 각이한 조직들 및 이에 해당하는 직업동맹들의 지위의 평균제에로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이행하며 부단히 전 동맹적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운수직맹 중앙위원회를 두고 말하는것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 결정서의 정확한 의미를 곡해할수는 도저히 없다. 중점제는 페지되지 않고있다. 중점적인(경제계획실행에 있어서) 기업소, 직업동맹, 트레스트, 기관에 대한 우대는 여전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평균제로선》(《레닌동지》가 고수한것이 아니

라 당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즉 전당이 비준한)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평균제에로 **이행하라**고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운수직맹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이 11월결정서를 리행하지 않았다는것은 《정상적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있는 중앙위원회의 12월결정(뜨로쯔끼와 부하린에 의하여 채택된)에서 볼수가 있다. 테제 41의 리론상의 오유는 소비의 령역에서는 평균제, 생산의 령역에서는 중점제라고 한데 있다. 이것은 경제적망설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소비와 생산을 분리시키는것이기때문이다. 그와 같은것은 나는 말한 일이 없으며 또 말할수도 없었다. 어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할것이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공장은 폐쇄할것이다. 절대로 필요한것중에서는 중점적인 공장을 우대한다. 례컨대 운수업을 우대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다툴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우대가 지나친것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친 까닭에 당은(레닌이 아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평균제에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만일 리론적으로 옳고 정확한 결정을 내린 11월전원회의가 있은후에도 뜨로쯔끼가 《두 경향》을 운운하는 종파적소책자를 들고나와 테제 41에서 경제적으로 옳지 않은 자기의 정식화를 제의한다면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는것이다.

오늘 1월 25일은 뜨로쯔끼동지가 종파적연설을 한 날부터 꼭 한달이 된다. 당이 형식에 있어서는 비합목적적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이 연설에 의하여 실무적, 실제적, 경제적, 생산적 사업으로부터 리탈하였다는것, 정치적 및 리론적 오유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리탈하였다는것은 지금은 벌써 그야말로 명백하게 볼수가 있다. 그러나 옛 속담에《어떠한 불행

에도 좋은 점 한가지는 있다.»고 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풍문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내부의 의견상이에 관해서 굉장한 말들이 돌았다. 반대파의 주위에는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3]들이 둥지를 틀고있었는데(의심할바없이 지금도 둥지를 틀고있다.) 그들은 풍문을 과장하고 전고미문의 악의에 찬 언론을 산포하고있으며 온갖 방법으로 분쟁을 훼방하고 그것에다 추악한 해석을 가하고 그것을 격화시키고 당사업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말을 날조하고있다. 이것은 볼쉐위크에 대한 발광적인 악의에 들끓고있는 또 너무나 당연한 원인에 의하여 들끓지 않을수 없는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 멘쉐위크들 및 사회혁명당원들도 포함한 자산계급의 정치적수법이다. 의식적인 당원은 누구나 다 자산계급의 이 정치적수법을 알고있으며 그 가치를 알고있다.

중앙위원회내부의 의견상이는 당에 그 해결을 구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토론은 이 의견상이의 본질과 정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풍문과 중상은 종식되였다. 당은 새로운(10월혁명이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있었다는 의미에서의) 병, 즉 종파와의 투쟁에서 배우고있으며 단련되고있다. 본질상 이것은 오랜 병인데 그 재발은 아마 몇해동안은 불가피할것이나 그 치료는 지금 급속히 또 용이하게 진행될수 있으며 또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당은 의견상이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배우고있다. 여기에서는 똠스끼동지에 대한 뜨로쯔끼동지의 다음과 같은 옳은 지적을 반복하는것이 적절하다. «똠스끼동지와의 가장 첨예한 론쟁에서 나는 항상, 똠스끼동지에게 있는바와 같은 그런 경험과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우리의 직맹지도자로 될수 있다는것은 나에게 아주 명백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을 나는 직업동맹 제5차대표자회의 당그루빠에서 말하였으며 또

며칠전에 지민극장에서도 말하였다. 당내에서의 사상투쟁은 호상배척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호상영향을 의미한다.»(12월 30일의 토론속기록 34페지) 당이 이 옳은 론의를 뜨로쯔끼동지에 대해서도 적용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급진로동조합주의적편향은 토론당시에 특히 쉴랴쁘니꼬브동지와 그의 소위 《로동자반대파》130에게서 나타났다. 이것은 당으로부터의, 공산주의로부터의 명백한 리탈이기때문에 이 편향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것에 대하여 특별히 상의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 견해의 그릇된 점과 이런 오유의 위험성의 해설 및 선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다. (직업동맹에 들어갈 관리기관의) 《필수적인 립후보자의 추천》이라는 급진로동조합주의적언사까지 쓰게 된 부하린동지는 오늘호의 《쁘라우다》에서 극히 졸렬하게 확실히 옳지 않게 자기 변명을 하고있다. 그는 다른 점들에서는 당의 역할을 운운하고있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당으로부터의 탈퇴일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쉽게 시정할수 있는 오유만이 아닐것이다. 만일 《필수적인 립후보자》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당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부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급진로동조합주의적 편향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상용될수 **없는것**이며 로씨야공산당의 강령과 상용될수 **없는것**이다. 또 만일 《당에 대해서는 필수적인것이 **아니다**.»라고 부언한다면 그것은 실지에 있어서 현상태의 사소한 변화도 없을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당원로동자들의 권리가 증대나 되는듯한 환상으로써 그들을 기만하는것이 될것이다. 부하린동지가 리론적으로 확실히 옳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기만적인, 공산주의를 벗어난 자기의 편향을 변호하면 할수록 고집의 결과는 더욱 비참할것이다. 그러나 변호할수 없는것을 변호해낼수는 없을것이다. 당은 비당원로동자

들의 권리의 온갖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떠한 길로 나갈수 있으며 어떠한 길로 나갈수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색만으로도 충분할것이다.

광산로동자 제2차전로대회 공산당당그루빠의 토론에서 쉴랴쁘니꼬브의 강령은 이 동맹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있는 끼쎌료브동지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하였다. 즉 우리의 강령에는 137표, 쉴랴쁘니꼬브의 강령에는 62표, 뜨로쯔끼에게는 8표가 찬성하였다. 급진로동조합주의적편향은 완치되여야 할것이며 또 완치될것이다.

한달동안에 이미 뻬뜨로그라드나 모스크바나 일련의 성소재지들이 다같이 보여준바와 같이 당은 론쟁에 응하여 압도적다수로써 뜨로쯔끼동지의 그릇된 로선을 거부하였다. 《상부》에서나 《지방》에서나 위원회들에서나 기관들에서는 의심할바없이 동요가 있었으나 일반 당원대중, 로동자당원대중의 바로 압도적다수는 이 그릇된 로선을 반대하여나섰다.

까메네브동지가 나에게 알려준바에 의하면 1월 23일 모스크바시의 모스크바강남안구역에서의 토론에서 뜨로쯔끼동지는 자기의 강령을 철회하고 새로운 강령에 기초하여 부하린집단과 련합한다는것을 성명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1월 23일에도, 1월 24일에도, 광산로동자대회 공산당당그루빠에서 나를 반대하여 연설한 뜨로쯔끼동지에게서 이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다. 뜨로쯔끼동지의 의도와 강령이 또다시 변하였는지 또는 사태가 어떻게 달리 설명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1월 23일의 뜨로쯔끼동지의 성명은 당이 자기의 전 력량을 동원하지도 못하였고 뻬뜨로그라드, 모스크바 및 소수의 성소재지의 견해밖에 표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확고히, 결정적으로, 급속히, 단호하게 뜨로쯔끼동지의 오유를 시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적들은 공연히 개가를 올리였다. 그들은 당내에 때로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의견상이를 당에 해롭게, 또 로씨야의 무산계급독재에 해롭게 리용할수 없었으며 또 리용할수도 없을것이다.

1921년 1월 25일

1921년 1월에 모스크바로동자농민붉은군대 대의원쏘베트출판부에 의하여 단행본으로 인쇄

단행본원문에 의하여 인쇄, 원고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56～98페지

통일경제계획에 관하여

이 문제에 관한 론문들과 론의들은 우울한 인상을 일으키고있다. 《경제생활》131지에 게재된 엘. 크리쯔만의 론문들(제1편은 1920년 12월 14일호, 제2편은 12월 23일호, 제3편은 2월 9일호, 제4편은 2월 16일호, 제5편은 2월 20일호)을 한번 훑어보라. 그야말로 내용없는 말공부이며 문장공부이다. 이 면에서 이루어진 실무적인것을 고려하지 않으려 하며 또 이것을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자료와 사실들을 연구할 대신에 어떠한 연구태도를 취할것인가에 대하여 론의하고있다. 길다란 5편의 론문들에서말이다!

밀류찐의 테제(《경제생활》 2월 19일호)와 라린의 테제(《경제생활》 2월 20일호)를 읽어보라. 그리고 《책임적인》 동지들의 말을 귀담아들어보라. 크리쯔만이 가지고있는것과 꼭같은 근본결함들을 가지고있다. 그야말로 련쇄법칙 등등에 관한 잡담에까지 이르고있는 가장 싫증이 나는 번쇄철학이며 문필가적인 혹은 관료적인 번쇄철학인데 실지사업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있다.

이보다 더 나쁜것은 이미 완수하였고 또 계속하여야 할 실지사업에 대한 거만한 관료적인 경시이다. 그리고 우리자신의 실지경험을 신중히 또 면밀히 고찰할 대신에 그야말로 쓸데없이 련속 《테제들을 생산》하거나 혹은 구호들과 계획안들을 꾸며내고있다.

통일경제계획문제에 관한 단 하나의 중요한 저서는 《로씨

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 전기화계획》, 즉 1920년 12월에 출판되였고 제8차쏘베트대회109에서 배포된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113의 서면보고이다. 이 책자에는 통일경제계획이 서술되여있는데 이 계획은 우리 공화국 최고기관의 위임을 받아 우리 공화국의 우수한 학자들이 작성한것이다.—물론 첫걸음에 불과한것이기는 하지만. 그리하여 고관들의 무식한 자만이라든가 공산주의문필가들의 지식인적자만 등과의 투쟁은 가장 평범한 일로부터, 즉 이 책자의 유래, 그 내용, 그 의의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겠다.

1920년 2월 2~7일에, 즉 1년 좀 전에 열린 전로중앙 집행위원회회의에서 전기화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이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운수를 정비하며 연료 및 식량 위기를 제거하는 면에서 또 전염병과의 투쟁과 규률있는 로동군대42의 조직에서 제기되는 가장 긴요하고 절박하고 제1차적인 당면과업들과 아울러 쏘베트로씨야는 보다 더 계획적인 경제건설과 전체 인민경제에 관한 국가계획의 과학적작성 및 그 철저한 실시에 착수할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였다. 전기화의 제1차적의의를 고려하면서…공업, 농업, 운수…등등에 대한 전기화의 의의를 중요시하면서…전로중앙 집행위원회는 최고인민경제위원회에 농업인민위원부와 공동으로 발전소망의 건설안을 작성할것을 위임하기로 결정한다.…》

이만하면 명백한듯하다. 《전체 인민경제에 관한 국가계획의 과학적작성》이라는 우리 최고정권기관의 이 말, 이 결정을 리해하지 못할수 있겠는가? 만일 《전문가들》앞에서 자기의 공산주의를 뽐내고있는 문필가들과 고관들이 이 결정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법령을 모른다는것이 구실로 될수 없다는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일만이 남아있을따름이다.

전로중앙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1920년 2

월 21일에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전기부 관할하에 조직된 전기화위원회를 승인하였고 그후에 국방위원회[112]는《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비준하였으며 그 성원을 농업인민위원부와의 협의하에 결정 및 비준할것이 최고인민경제위원회에 위임되였다.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는 이미 1920년 4월 24일에 자기의《통보》 제1호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장 상세한 사업계획이 발표되여있었으며 각종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역별로 사업을 지도하면서 명확히 규정된 각종 과제들을 담당하고있는 책임적인물, 학자, 기사, 농학자, 통계학자들의 명단이 게재되여있었다. 이 사업들의 일람표와 그것을 담당한 인물들의 명단만 하더라도《통보》 제1호에서 10페지나 차지하고있다. 최고인민경제위원회와 농업인민위원부와 또한 교통인민위원부에서 알고있는 모든 우수한 사람들은 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였다.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의 사업성과는 우에서 말한 그 방대한—그리고 훌륭한—과학적로작으로서 나타났다. 여기에는 180명이상의 공동저자—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이《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에 제출한 로작들의 목록에는 200종이상의 종목이 들어있다. 첫째로 이 로작들의 총괄적제목(200페지이상에 달하는 상기 책자의 제1부)은 다음과 같다. (ㄱ) 전기화와 국가경제계획, (ㄴ) 연료공급(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금후 10년간의 상세한《연료예산》이 들어있고 또 로동자들의 소요량이 계산되여있다.), (ㄷ) 수력, (ㄹ) 농업, (ㅁ) 운수, (ㅂ) 공업.

이 계획은 앞으로 약 10년간에 완수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로동자수와 동력수(1,000마력단위로)가 표시되여있다. 물론 이것은 비록 개략적이고 초보적이며 조잡하고 지어 오유들이 있는 계획이며《첫걸음에 불과한》계획이긴 하지만 이것은 진정

한 과학적계획인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기본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계산이 있다. 거기에 모든 공업부문에 대한 그들의 계산이 있다. 거기에는—하나의 자그마한 실례를 든다면—1인당 두컬레씩의 신발(3억컬레)을 생산하는데 드는 가죽의 생산량 및 기타에 대한 계산이 있다. 요컨대 우리는 전기화의 물자균형표도, 재정수지균형표(금루블로)도 다 있다.(즉 약 3억 7,000만 로동일, 이러저러한 수량의 세멘트, 벽돌, 철, 동 및 기타와 이러저러한 능력을 가진 타빈발전기 등등.) 이 균형표는(《아주 조잡한 계산에 의하면》) 10년간에 가공공업은 80%, 채굴공업은 80～100% 각각 증대할것을 타산하고있다. 황금균형표의 적자(플라스 110억, 마이나스 170억으로서 적자액은 약 60억이다.)는 《리권과 신용업무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다》.

계획에는 제1차로 착수할 20개의 지방화력발전소 및 10개의 지방수력발전소들의 건설지점이 지적되여있고 매개 발전소의 경제적의의가 상세히 기술되여있다.

이 책자에는 총괄적제목이 지적된 다음 각 지방별로 되는 공사요강들이 배렬되여있으며 페지수가 따로따로 매겨져있다. 북부지방, 중앙공업지방(이 두 지방의 공사요강은 특별히 명백하고 정확하고 상세하며 또한 극히 풍부한 과학적자료에 기초하고있다.), 남부지방, 볼가연안지방, 우랄지방, 깝까즈지방(깝까즈는 이 지방내 각 공화국간의 경제협정을 예상하고 그것을 한 단위로서 취급하고있다.), 서부씨비리 및 뚜르께스딴으로 나뉘여져있다. 각 지방에 대해서는 제1차적인 발전소건설계획만 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 계획 A》라고 불리우는것, 즉 현존발전소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계획도 우리는 가지고있다. 또 하나의 자그마한 실례로서 북부(뻬뜨로그라드)지방을

본다면, 뻬뜨로그라드에 있는 발전소들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예정되여있다. 즉 그 발전능력의 절반까지는(북부지방의 공사요강 69폐지) 북부의 떼목을 보내는 지방들, 즉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 등등에 돌릴수 있을것이다. 벌목의 증대와 해외로 보내는 떼목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가까운 시기에 1년간에 5억루블정도의 금루블》을 줄수 있을것이다.

두말할것도없이 만일 우리가 계획에 관한 잡담을 그만두고 학자들이 실지로 작성한 계획의 연구와 적용에로 넘어갈줄 안다면 《북부지방목재에 의한 매년수입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의 황금예비액과 동일한 금액에 달할수 있는것이다!》.(동요강 70폐지)

또 말하여야 할것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물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년도별계획을 가지고있다. 즉 계획일반뿐만아니라 1921년부터 1930년까지 매년 얼마만한 발전소들을 조업케 하며 또 현재의 발전소들을 얼마만큼 확장할수 있는가(역시 상술한바와 같은 조건하에서 이렇게 하여야 할것인데 우리의 지식인—문필가적 및 대관료적 습성들이 있는 한 이 조건은 그리 용이하게는 실현되지 않을것이다.) 하는 초보적인 년도별계산을 가지고있다.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가 수행한 거대하고 가치있는 전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독일을 잠시 고찰하기로 하자. 독일에서 그와 비슷한 사업을 수행한것은 발로드라는 한 학자였다. 그는 독일의 전체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재건의 과학적계획을 작성하였다. 자본주의독일에서는 이 계획은 허공에 떠있었고 지상공문으로, 한 개인의 사업으로 되고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과제를 주고 수백명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10개월간에(물론 최초에 예정한것처럼 2개월간에는 되지 않았

지만) 과학적으로 작성된 통일경제계획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이 사업을 자랑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다만 **어떻게** 그것을 리용할것인가를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며 지금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몰리해와 투쟁하여야 하는것이다.

제8차쏘베트대회의 결정서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있다. 《…대회는…**최고인민경제위원회** 및 기타와 특히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의 **로씨야전기화계획작성에 관한 사업을 찬동하며**…이 계획을 **위대한 경제적발기의 제1보라고** 평가하며 전로중앙집행위원회 및 기타에 이 **계획의 작성을 완성하며 그것을 비준할것을**, 그것도 반드시 최단시일내에 비준할것을 위임한다.…**이 계획을 가장 광범히 선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취할것을 위임한다.…**공화국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계획을 학습하여야 한다.》[132]

모스크바에서 보게 되는 이 결정서에 대한 그런 태도라든지 또 그것을 외곡《해석》하며 회피하려고까지 하는 시도처럼 우리 기관, 특히 상부기관내에 현존하는 결함들—관료적인 또는 지식인적인 결함들—을 뚜렷하게 특징지어주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필가들은 이미 작성된 이 계획을 선전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작성에 착수할것인가 하는데 대한 테제들과 공허한 론문들을 쓰고있다! 고관들은 계획을 《비준》할 필요성을 순 관료적으로 강조하고있는데 이 《비준》이라는것을 그들은 구체적과제(이러이러한것을 이러이러한 때에 건설하며 이러이러한것을 해외에서 구입할것이라는 등.)의 제시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의 작성과 같은 전혀 왕청같은것으로 리해하고있는것이다! 사업에 대한 몰리해는 놀랄만한것이여서, 새것을 건설하기전에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낡은것을 복구하자느니 전기화는 전기환상화와 류사하다느니 어째서 가스화는 하지 않는가라느니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내에는 자산

계급전문가들은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적다느니,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는 전문간부들을 길러내야 하며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위원회를 내놓을것은 아니라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오고있다.

의견들의 바로 이러한 혼란이야말로 위험한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할줄 모른다는것과 지식인적 및 관료적 자만이 참다운 사업을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기때문이다. 계획이 환상적이라고 하는 조소라든가 가스화문제라든가 하는것들은 무식한자의 자만을 폭로하고있다. 제멋대로 수백명의 우수한 전문가들의 사업을 수정하며 저속한 롱담으로써 일시 모면하려고 하며 《비준 안한다》는 자기의 권리를 뽐내는것—이것이야말로 과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과학을 존중할줄 알아야 하며 문외한들과 관료배들의 《공산주의자적》자만을 배격해야 하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천에 의거하면서 체계있게 일하는것을 배워야 할것이다!

물론 《계획》은 그 본질상 한없이 론의하고 론쟁할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러나 《원칙》(계획수립의)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담이라든가 론쟁같은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이 계획을 연구하며 그것을 실제경험에 비추어 또는 더 상세한 연구에 기초하여 시정하는데 착수하는것이 필요할따름이다. 《비준하는가》, 《비준 안하는가》 하는 권리는 물론 언제나 한사람 또는 몇사람의 고관에게 있다. 만일 이 권리를 옳게 리해한다면, 제8차대회에 의하여 찬동되고 가장 광범히 선전하기로 된 그 계획의 비준에 관한 제8차대회의 결정을 옳게 해석한다면 《비준》이란것은 이러이러한것을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이러한 곳에서 구입하며 이러이러한것을 건설하기 시작하며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수집 또는 수송할데 관한 일련의 상품예약서를 내고 명령을 내리는것으로 리해하여

야 할것이다. 만일 관료적으로 해석한다면 《비준한다》는것은 곧 고관들의 횡포한 행동, 문서상의 지체, 검열위원회니 뭐니 하는 장난, 한마디로 말하면 산 사업의 순관리식살해를 의미하는것이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잠시 고찰하여보자. 과학적인 전기화계획을 실천적현행계획 및 이 계획의 실천적실현과 특히 련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론쟁할 여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련결시킬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경제학자들, 문필가들, 통계학자들이 계획일반에 관해서 말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 계획들의 실행정형, 이 실제적인 사업에서의 우리들의 오유, 이 오유의 시정방법들을 상세히 연구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없이는 우리는 장님으로 되고만다. 이러한것을 연구하는 조건하에서는 또 이와 아울러 실제적경험을 연구하는 조건하에서는 다만 아주 사소한 행정기술상 문제만이 남게 된다. 우리에게는 계획위원회들이 극히 많다. 통합을 위하여 갑이라는 사람의 소관하로부터는 두사람을, 을이라는 사람의 소관하로부터는 한사람을 떼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며 그 사람들을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위원회내의 분과위원회와 합동시키는것, 이것은 곧 행정상 기술이며 그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아서 더 좋은것을 택하면 그만이다.—이것은 론의하는것조차 우스운 일이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들이 문제를 잘 처리할줄 모르는 또 실제사업을 지식인적 및 관료적 환상으로 바꾸어놓고있다는데 있다. 우리에게는 식량 및 연료에 관한 일상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며 또 지금도 있다. 우리들은 이 두 계획에서 명백한 오유를 범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을수 없다. 유능한 경제학자라면 쓸데없는 테제를 쓸 대신에 사실과 수자

와 자료들의 연구에 착수하여 우리자신의 실제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오유는 이러이러한데 있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할것이다. 유능한 행정일군이라면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일군들의 교체, 보고 제도의 변경, 기관의 개편 등등을 제의하거나 혹은 자신이 조치를 취하여 실시할것이다. 우리들사이에서는 통일경제계획에 대한 실무적이고 능숙한 태도라고는 어떤것도 찾아볼수 없다.

병집은 또한 전문가들에 대한 공산당원들의 태도, 학자 및 문필가들에 대한 행정일군들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옳지 않게 제기하고있는 거기에 있다. 다른 온갖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거니와 통일경제계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공산당원들만이 그것을 해결하며 오직 행정적수단만으로 그것을 취급할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그러한 측면들은 또 언제나 새로 발생할수 있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추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 문제를 옳지 않게 취급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공산주의문필가들과 공산주의적행정일군들로서, 이들은 이 문제에서 자산계급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며 행정적 수단을 더 적게 써야 한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이미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가 작성한것 이외의 어떤 다른 통일경제계획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신중히 연구한 실제 경험에 기초하여 계획을 보충하며 더 발전시키며 시정하며 실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당강령에 있는 말을 빌어 말한다면, 오직 《급진적인듯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무식한자의 자만》일따름이다.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에 마치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외에 다른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 위원회가 존재할수 있는듯이 생각하는것도 이만 못하지 않은 무식한자의 자만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로씨

야전기화국가위원회》의 성원을 실무적으로 일부 변경하는것이 더 좋을수 있다는것을 부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중대한 사업의 조직은 오직 이러한 기초우에서만 또 오직 이미 시작한것을 계속함으로써만 가능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적수단을 쓰는것이거나 혹은 더 간단히 말하면 자만일것이다.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내 공산당원들의 임무는 명령을 내리는 일을 좀 적게 하며,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명령은 전연 내리지 말며 과학자와 기술전문가들(《이들은 다수 경우에》 로씨야공산당강령이 말하는바와 같이 《불가피적으로 자산계급 세계관과 습성에 젖어있는것이다》.①)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능숙하게 대하는 동시에 또 그들에게서 배우며 해당한 과학의 성과와 자료들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이 자기의 시야를 넓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그리고 기사가 공산주의를 시인하게 되는것은 지하운동을 하는 선전원이나 문필가가 그것을 시인하게 되였던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과학의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시인하게 된다는것과 농학자는 농학자식으로 림산학자는 림산학자식으로 공산주의를 시인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하는것이다. 문제의 본질에 파고들어가 그것을 세밀히 연구하면서 전문가들을 단결시키며 그들의 사업을 겸손하게 지도할줄 안다는것을 중시하지 못한 그러한 공산당원은 빈번히 해를 끼친다. 이러한 공산당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몇타스 내주더라도 자기 사업을 성실하게 연구하는, 학식이 있는 자산계급전문가를 바꾸겠다.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이외의 기관에 있는 공산당원들은 통일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을 두 측면으로부터 방조할수

---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767~768페지를 보라. —편집자

있다. 만일 그들이 경제학자, 통계학자, 문필가들이라면 우선 우리자체의 실재경험을 연구하여야 하며 또 오직 해당한 사실들을 상세히 연구한 기초우에서만 오유의 시정과 사업의 개선을 건의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한다는것은 학자의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적원칙에 관한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경험에 관한것이 문제로 되여있는만큼 우리에게는 밤낮없이 어느때나 《테제》를 쓰며 《구호》를 내놓으며 순수한 추상적인것을 제의하려고 하는 교만한 공산당원보다는 자산계급이기는 하나 사업을 잘 알고있는 《과학과 기술의 전문가들》이 십배나 더 귀중하다.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공산주의적원칙성을 뽐내는 론의들은 더 적게 하라.

타방으로 만일 공산당원이 행정일군이라면 그의 첫째가는 임무는 명령을 하는데 열중하는것을 경계하며 우선 과학이 이미 이룩하여놓은것을 잘 참작할줄 알며 우선 사실들이 확실한가 하는것을 알아볼줄 알며 우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오유를 범하였는가를(보고에서, 출판물에서, 집회 등등에서) 연구할줄 알며 그리하여 이러한것에 기초하여서만 수행중에 있는 일을 시정할줄 아는데 있다. 《나는 비준할수도 있으며 비준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는따위의 찌트 찌뜨치133식수단은 덜 취하고 우리의 실제상의 오유를 더 많이 연구하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있는바이지만 사람들의 결함이란 대부분은 그들의 장점과 련결되여있는것이다. 지도적지위에 있는 많은 공산당원들이 가지고있는 결함들이 그러하다. 수십년동안 우리는 위대한 사업을 해왔고 자산계급의 타도를 선전하여왔고 자산계급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임을 가르쳤고 그들을 폭로하여왔으며 그들에게서 정권을 빼앗고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여왔다. 이것은 위대한 세계사적사업이였다. 그러나 이것

을 조금이라도 과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것으로부터 가소로운것까지의 거리는 단 한걸음뿐이라는 진리를 확증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우리는 로씨야를 설복시켰으며 우리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로씨야를 착취자들로부터 탈취하였으며 우리는 착취자들을 진압하였다. 그런즉 우리는 로씨야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과학과 기술의 전문가들》이 하는 실지사업에 대한 겸손성과 존경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수다한 실지오유들을 능숙하게 또 주의깊이 분석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시정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지식인적 및 관료적 자만은 좀 덜하고 중앙이나 지방에서 우리의 실지경험이 주고있는 그것과 과학이 우리에게 이미 준 그것을 더 많이 연구하라.

1921년 2월 21일

1921년 2월 22일《쁘라우다》
제39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쁘라우다》에 실린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이 개정한 교정지에 의해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127～136페지

당의 통일에 관한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134] 결정서초안초고

1. 대회는 여러가지 사정이 국내소자산계급주민층의 동요를 강화하고있는 현순간에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 당원들간의 충분한 신임의 보장, 무산계급의 전위대의 의지의 통일을 진실로 체현하는 참으로 단합된 사업의 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모든 당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2. 그러나 직업동맹에 관한 전당적토론이 있기전에 벌써 당내에는 종파적활동의 약간의 징조가 있었다는것, 즉 독자적인 정강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까지 숨어서 자기 집단의 규률을 설정하려는 경향을 가진 집단이 발생하였다는것이 발로되였다. 종파적활동의 이러한 징조는 례컨대 모스크바당대표자회의(1920년 11월)와 하리꼬브당대표자회의에서 소위 《로동자반대파》130라는 단체에서도 나타났고 부분적으로는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파》135라는 단체에서도 나타났다.

종파적활동은 비록 개별적단체의 대표자들이 당의 통일을 보존하기를 극력 희망하는 경우에도, 실제는 불가피적으로 단합된 사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 집권당에 잠입하여 그 분렬을 심각화하면서 이것을 반혁명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적의 집요한 시도를 반복하는것으로밖에 안되는것만큼 종파적활동은 어떠한것을 막론하고 해로운것이며 또 용납할수없는것임을 모든 각성된 로동자들은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것

이다.

공산당의 수미일관한 로선에서 리탈한 온갖 경향을 무산계급의 원쑤들이 리용한다는것은 크론슈따트반란[136]의 실례가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 반란에서 전 세계 자산계급반혁명과 백파도배는 오직 로씨야의 무산계급독재를 타도할수만 있다면 심지어 쏘베트제도라는 구호까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즉시로 표시하였으며 또 사회혁명당원들[3]과 일반적으로 자산계급반혁명은 크론슈따트에서 마치 쏘베트정권을 위하여 로씨야의 쏘베트정부를 반대하는듯한 구호를 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백파도배들이 오직 로씨야의 무산계급혁명의 요새를 약화하고 타도할수만 있다면 공산주의자로, 심지어는 가장 좌익적인 공산주의자로까지 가장하려고 하며 또 가장할줄 안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하는것이다. 크론슈따트반란전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살포된 멘쉐위크의 삐라가 역시 명시하여주는바와 같이 멘쉐위크들은 말로써는 반란에 적대하는자로서 또는 마치 약간의 수정만 가한다면 쏘베트정권까지도 지지할 용의가 있는자로서 등장하였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크론슈따트반란자들이나 사회혁명당원들이나 백파도배들을 추동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로씨야공산당내부의 의견상이와 종파적활동의 약간의 맹아를 리용하였다.

3. 이 문제에 관한 선전은 반드시 한편으로는 무산계급독재가 승리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의 당의 통일과 무산계급의 전위대의 의지의 통일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종파적활동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상세히 해설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쏘베트정권의 원쑤들이 최근에 쓰는 전술적방법의 특수성을 폭로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로골적으로 백파적인 기치하에서의 반혁명활동은 절망적이라는것을 확인한 이 원쑤들은 현재 로씨야공산당내부의 의견상이를 리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외견상 쏘베트정권을 시인하는 립장에 가장 가까운 정치적류파에다 쏘베트정권을 넘기는 방법으로써 반혁명을 추진시키려고 전력을 다하고있다.

선전에서는 과거의 혁명에서 얻은 경험, 즉 반혁명이 혁명적독재를 동요시키고 타도함으로써 반혁명과 자본가와 지주들의 장래의 완전승리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극히 혁명적인 당에 대한 반대파중 이 당에 가장 가까이 서있는 반대파를 지지하였다는것도 역시 해설해주어야 한다.

4. 종파적활동과의 실지투쟁에 있어서는 매개 당조직들이 어떠한 종파적언론도 허용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당의 결점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비판은 전개되여야 하되 모든 실천적인 제의가 될수록 명확한 형태로 조금도 지체됨이 없이 즉시로 지방 및 중앙의 당지도기관의 토의와 해결에 회부되게끔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비판자들은 비판의 형식에 있어서 적의 포위속에 있는 당의 처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비판의 내용에서는 쏘베트사업 및 당사업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실천을 통하여 당 또는 개별적당원들의 오유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총로선의 온갖 분석 혹은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 당결정의 집행에 대한 검열, 오유의 시정방법의 연구 등은 어떤 《정강》 등등에 기초하여 형성되고있는 집단의 예비적토의에 결코 붙여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접 모든 당원들의 토의에 붙여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대회는 《토론소식문》137과 특별론문집을 보다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비판이 결코 무산계급의 계급적원쑤들을 방조할수 있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진행되도록 부단히 노력할것을 결정한다.

5. 대회는 특별결정서에 분석서술되여있는 급진로동조합주의적 및 무정부주의적 편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또 온갖

종파적활동의 완전한 소탕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면서 그와 동시에 례컨대 소위 《로동자반대파》의 특별한 주의를 끈 문제, 즉 비무산계급분자 및 신임할수 없는 분자들을 당에서 청산할데 관한 문제,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관한 문제, 로동자들의 민주주의와 자주성의 발양에 관한 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실무적제의건 가장 큰 주의를 돌려 이를 심의하며 또 실지사업에서 검증하여야 할것이라고 언명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각종의 허다한 장애에 봉착하여 필요한 대책을 다 취하지는 못하고있다는것, 비실무적이며 종파적인 소위 비판을 무자비하게 거부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자주성의 발양을 위하여, 그리고 당에 잠입한자들을 적발폭로 및 구축하는 등등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들을 시험해보면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는것을 당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다.

6. 그러므로 대회는 이러저러한 정강에 기초하여 형성된 모든 류파들(즉 《로동자반대파》, 《민주주의중앙집권파》 같은 것들)은 례외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는것을 선포하면서 즉시로 집행할것을 지시한다. 대회의 이 결정을 실행하지 않는자는 무조건하고 즉시로 출당당할것이다.

7. 대회는 당내에서와 모든 쏘베트사업에서 엄격한 규률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온갖 종파적활동을 제거하고 최대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률을 위반하거나 종파적활동을 부활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당에 이르기까지의 당적책벌을 주되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서는 그를 후보위원으로 넘기거나 혹은 최후적인 대책으로 출당까지 시키는 각종 대책을 취할 전권을 중앙위원회에 부여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이나 후보위원이나 또는 검열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한 최후적인 대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들과 검열위원

회의 위원들도 모두 참가하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당의 최고책임지도간부들의 이러한 전원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써 중앙위원을 후보위원으로 넘기거나 혹은 출당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은 반드시 즉시로 실시되여야 한다.[138]

1921년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 속기록(1921년 3월 8~16일)》에 처음으로 게재

원고에 의해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29~232페지

우리 당내의 급진로동조합주의적 및 무정부주의적 편향에 관한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134] 결정서초안초고

1. 최근 수개월간에 당대렬내에 급진로동조합주의적 및 무정부주의적 편향이 확연히 나타났다. 이것은 사상투쟁과 당의 순결화 및 건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있다.

2. 우에서 말한 편향은 부분적으로는 종전의 멘쉐위크들과 그리고 아직 공산주의적세계관을 소유하지 못한 로동자 및 농민이 당대렬내에 들어와있기때문에 초래되였는데 주로는 이 편향은 무산계급과 로씨야공산당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류달리 심한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 영향을 주었기때문에 초래된것이다. 이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은 흉작과 전쟁의 혹심한 후과로 하여 대중의 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수백만 군대의 동원해제로 하여 수십만 로동자 및 농민이 당장에는 정상적인 생계의 길을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때에 특히 불가피적으로 무정부주의로의 동요를 산생하게 된다.

3. 이 편향의 리론적으로 가장 완성된 또 가장 잘 정식화된 표현(혹은 이 편향의 가장 완성된…표현중의 하나)은 소위 《로동자반대파》130라고 하는 집단의 테제와 기타 문헌들이다. 아주 대표적인것은 례컨대 다음과 같은 그들의 테제이다.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의 조직은 산업별직업동맹들에 망라되는 생

산자들의 전로대회에 속한다. 산업별직업동맹들은 공화국의 전체 인민경제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을 선거한다.》

이 성명과 또 이와 류사한 그외의 허다한 성명들의 기본리념은 맑스주의나 공산주의와의 완전한 절연인 동시에 모든 반무산계급적혁명 및 진정한 무산계급적혁명의 실천적경험의 총화와의 완전한 절연으로서 리론적으로 전혀 옳지 못한것이다.

첫째로, 《생산자》라는 개념은 무산자와 아울러 반무산자 및 소상품생산자도 포함하게 되는것만큼 계급투쟁의 기본개념과 계급의 정확한 구분의 기본요구로부터 리탈하는것이다.

둘째로, 인용한 테제에 표시되여있는, 비당원대중의 롱락 또는 그들과의 희롱도 역시 맑스주의로부터의 근본적리탈인것이다.

맑스주의—그런데 이 학설은 무산계급의 정당의 역할에 관한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1920년)의 결정에서 전체 국제공산당에 의하여 정식으로 확인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혁명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확인되였다.—가 가르치는바에 의하면, 근로대중의 불가피한 소자산계급적동요와 무산계급내의 직업적편협성 혹은 직업적편견의 불가피한 전통 및 그 부활에 대항할수 있으며 또 전체 무산계급의 일체의 단결된 활동에 대한 지도, 다시말하면 무산계급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할수 있으며 이 무산계급을 통하여 전체 근로대중을 지도할수 있는 유일한 전위대, 무산계급과 근로대중의 그러한 전위대는 오직 로동계급의 정당, 즉 공산당에 의해서만 결속되며 교양되며 조직될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무산계급독재는 실현될수 없다.

비당원무산계급에 대한 공산당의 관계 그리고 다음에는 전체 근로대중에 대한 공산당과 비당원무산계급의 관계에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옳지 못하게 인식하는것은 공산주의로부터의

기본적인 리론적리탈이며 《로동자반대파》의 전체 견해에 일관하고있는 급진로동조합주의 및 무정부주의로의 편향이다.

4.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는 직업동맹의 역할을 설명한 로씨야공산당강령중 경제부분의 제5항을 인증함으로써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옹호하는, 이상에 지적한 집단과 기타 인물들의 온갖 시도를 또한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것이라고 언명한다. 강령의 그 조항은 《직업동맹은 통일적인 경제적전일체로서의 전체 인민경제의 일체 관리사업을 자기의 수중에 실제적으로 집중하게 되여야 한다.》는것과 직업동맹은 《이리하여 경제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에》 대중을 《인입》하면서 《중앙의 국가적관리와 인민경제와 광범한 근로대중간의 불가분리적 련결을 보장할것》이라는것을 말하고있다.

로씨야공산당강령은 그 조항에서 《직업동맹이 동업조합적 협애성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 처음에는 근로자들의 대다수를 망라하며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빠짐없이》 망라하게까지 되는 과정을 직업동맹이 《도달하여야 할》 처지의 전제적조건이라고 언명하고있다.

끝으로 로씨야공산당강령은 또 그 조항에서 직업동맹은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 법령과 이미 확립된 관례에 의하여 벌써 지방과 중앙의 전체 공업관리기관의 참가자로 되고있다.》[129]고 강조하고있다.

관리에 참가하는 바로 이러한 실천적경험을 타산할 대신에, 달성된 성과 및 시정된 오유와 엄밀히 부합되도록 이 경험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대신에 급진로동조합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은 경제관리기관들을 《선거》하는 《생산자들의 여러 대회 혹은 한개 대회》라는 직접적구호를 제기한다. 그리하여 무산계급의 직업동맹에 대한 당의 지도적, 교양적, 조직적 역할과 반소시민적이며 그야말로 소자산계급적인 근로대중에

대한 이 무산계급의 지도적, 교양적, 조직적 역할은 전혀 회피되고있으며 제거되고있다. 그리하여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이미 개시된 새 형태의 경제건설의 실천적사업이 계속되거나 시정될 대신에 그 사업이 소자산계급-무정부주의적파괴를 당하고있는데 이러한 파괴는 자산계급적반혁명을 승리로 인도할수 있을따름이다.

5. 리론적오유와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개시된 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에 대한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외에 이상에 지적한 집단 및 그와 류사한 집단 혹은 개인들의 견해에서 로씨야공산당대회는 거대한 정치적오유와 무산계급독재의 실현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위험성을 본다.

로씨야와 같은 나라에서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의 팽창한 우세와 전쟁의 결과 불가피하게 초래된 령락, 빈궁, 전염병 및 흉작, 궁핍 및 대중적곤궁의 극단한 첨예화는 소자산계급 및 반무산계급 대중의 기분에 특히 격렬한 동요의 현상을 일으킨다. 이 동요는 이들 대중과 무산계급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수도 있고 혹은 자산계급적복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수도 있는데 18세기, 19세기 및 20세기의 모든 혁명의 경험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보여준바에 의하면 무산계급의 혁명적전위대의 통일과 위력과 영향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경우에는 이 동요는 자본가와 지주의 정권과 소유를 복구(회복)하는것외에는 어떠한 결과도 가져올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자반대파》나 그와 류사한 분자들의 견해는 리론적으로 옳지 않을뿐만아니라 실천적으로는 소자산계급적 및 무정부주의적 동요의 표현으로 되고있으며 공산당의 일관한 지도로선을 실지적으로 약화시키고있으며 무산계급혁명의 계급적원쑤들에게 실지적으로 원조를 주고있는것이다.

6. 이 모든것에 기초하여 로씨야공산당대회는 급진로동조

합주의적 및 무정부주의적 편향을 표현하고있는 상기한 사상을 단연코 거부하면서 아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첫째로, 그 사상과의 강경하고도 계통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둘째로, 대회는 이 사상을 선전하는자는 로씨야공산당내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인정한다.

대회는 자기의 이 결정을 가장 엄격히 실시할것을 당중앙위원회에 위임하는 동시에 특별 출판물, 론문집 및 기타에서 상기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당원들이 가장 상세히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지면을 제공할수 있으며 또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1921년에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 속기록(1921년 3월 8～16일)》에 처음으로 게재

원고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32～235페지

운수로동자전로대회에서 한 연설

(1921년 3월 27일)

동지들, 우선 당신들에게 나를 환영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당신들의 대회를 축하한다.(우렁찬 박수) 당신들의 대회의 과업과 사업에 직접 관련되며 전체 쏘베트정권이 당신들의 대회로부터 기대하는 문제로 넘어가기전에 우선 얼마쯤 먼데로부터 시작할것을 허락하라.

나는 방금 당신들의 회의실을 지나오면서 《로동자, 농민의 왕국은 영생하리라》고 쓴 프랑카드를 보았다. 그런데 그 기이한 프랑카드는 그것이 잘못되였다는것을 누가 깨달았던 모양인지 보통위치에는 걸려있지 않고 한편구석에 걸려있었는데 그 프랑카드를 읽었을 때에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초보적이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 오해와 그릇된 리해가 존재하고있다는데 대해서 생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로동자와 농민의 왕국이 영생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가 끝끝내 있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계급들의 소멸을 의미하는 까닭에 아직 로동자와 농민이 남아있는 한 계급들이 남아있을것이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주의는 있을수 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 10월혁명이 있은후 3년 반이나 지난 이때에 비록 한구석에 약간 밀어놓았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몹시 기이한 프랑카드가 우리에게 있다는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장 류행되고 우리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호들에도 아직 비상히 큰 오해가 있으리라는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였다.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의 최후의 결전은 진행된다고 노래부르고있다.—이것이야말로 례컨대 우리가 여러가지로 반복하고있는 가장 보급된 구호의 하나이다. 그런데 최후의 결전이 아니라—최후라는것은 물론 지나친 말이다.—최후의 결전중의 하나를 지금 누구를 반대하여 진행하고있는가고 다수의 공산당원들에게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대답을 할 사람이 많지 못할것이며 또 무엇을 혹은 누구를 반대하여 당신들이 지금 우리의 최후의 결전중의 하나를 진행하고있는가 하는 명료한 리해를 보여줄 사람이 적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두려워하는바이다. 그리하여 나는 금년봄에 로동자, 농민의 광범한 대중의 주목을 끈 정치적사변136들과 관련하여, 내 생각에는 바로 이 사변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금년봄에, 즉 바로 지금에 있어서 누구를 반대하여 우리의 최후의 결전중의 하나를 진행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또 한번 처음부터 고찰하거나 하다못해 그런 시도라도 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문제에 언급하려 한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세력들, 즉 서로 대립하고있으며 또 그들간의 투쟁이 쏘베트정권의 운명을 규정할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산계급혁명, 즉 로씨야 및 기타 국가에서의 자본의 전복을 위한 혁명의 과정과 발전까지도 규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또한번 될수록 정확하게, 될수록 신중히 개관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세력들이란 어떠한것인가? 또 그것은 어떻게 서로 대립하여 집결되고있는가? 현재 그 세력들의 배치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다소라도 중대한 온갖 정치적첨예화와 비록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정치적사건의 온갖 새로운 전변은 언제나 사고하는 모든 로동자와 농민을 이 문제로, 즉 어

며한 세력들이 현존하고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접결되고있는가 하는 문제로 끌고가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동정이나 희망에 관계없이 이러한 세력을 정당하게 극히 신중히 타산할줄 아는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정책일반과 우리의 당면과업에 관한 정당한 결론도 지을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세력들을 간단히 서술하겠다.

이러한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주요하게는, 기본적으로는 셋이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까운 세력, 즉 무산계급으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이것은 첫째가는 세력이다. 이것은 첫째가는 특수한 계급이다. 당신들은 모두 이것을 잘 알며 또 당신들자신이 이 계급속에서 살고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쏘베트공화국에서 무산계급은 3년 반전에 정권을 장악하고 그동안에 지배, 즉 독재를 실현하였으며 또 이 3년 반동안에 다른 어떠한 계급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맛보고 곤궁과 재난을 겪어온 그러한 계급이다. 그 대부분이 전체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는 쏘베트정권의 결사적인 국내전쟁에 소비된 이 3년 반은 로동계급, 즉 무산계급에게 있어서는 세계에 류례없는 고난과 궁핍과 희생을 의미하였으며 온갖 곤궁의 첨예화를 의미하였다. 그 결과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의 수중에 정치적지배권을 장악한 그 계급은 그것을 혼자서 장악한다는것을 의식하면서 장악하였다. 이것은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속에 들어있다. 이 개념은 한 계급이 자기가 단독적으로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다는것을 알며 또 《일반선거에 의하여 수립되고 전 인민에 의하여 신성화된 전 인민의》 정권이라는 언사로 자기도 남도 기만하지 않는 때라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것이다. 당신들이 잘 아는바와 같이 이러한 언사를 즐기는자는 매우, 아니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그러한자들은 무산계

급가운데는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은 여기에서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언급되고있다는것을 깨닫고있었으며 또 공화국의 기본법인 헌법에도 그렇게 썼기때문이다. 이 계급은 극히 곤난한 조건하에서 자기가 단독적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것을 리해하였던것이다. 그들은 그 정권을 모든 독재가 다 그와 같이 실현되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실현하였다. 즉 그는 최대의 견결성과 최대의 불굴성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치적지배의 3년 반동안에 유사이래 어떠한 계급도 당하여보지 못한 그러한 고난과 궁핍과 기아와 자기의 경제적처지의 악화를 맛보게 되였다. 이러한 초인간적긴장의 결과 오늘날 이 계급의 류례없는 피로와 쇠약과 손상을 보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산계급의 수가 주민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렇게 적은 나라에서, 또 보다 수가 많고 보다 의식적이고 보다 규률이 강하고 보다 조직적인 무산계급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군사력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차단되여있는 락후한 나라에서 전 세계 자산계급의 반항과 진공을 당하면서 한 계급이 자기의 정권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또 그것은 어떻게 3년 반동안이나 실현될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지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이 지지가 국내에서, 농민대중들로부터 왔다는것을 알고있는바이다. 나는 지금 이 제2의 세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제1의 세력의 분석을 끝내야 하겠다. 이 계급의 고난이 그 독재시기에 있어서와 같이 그렇게 크고 또 심한 때는 한번도 없었다는것은 나도 말하였거니와 당신들도 다 공장이나 기관고나 제작소에서 일하고있는 친근한 동무들의 생활을 보고 알고있는바이다. 우리 나라가 지금과 같은 피폐상태에 놓인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계급에게 그런 궁핍을 감당할만한 정신력을 주었는가? 이 계급이

그 물질적궁핍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드시 정신력을 얻어야 하였을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당신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정신력이나 정신적지지에 관한 문제는 막연한 문제여서 모든것을 다 정신력으로 리해할수도 있으며 모든것을 다 거기에다 집어넣을수도 있는것이다. 정신력이라는 이 개념에다 어떤 막연한것 혹은 어떤 환상적인것을 집어넣을 그러한 위험성을 피하게 위하여 나는 무산계급에게 그 정치적지배와 관련된 미증유의 물질적궁핍을 감당할만한 정신력을 준 그것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표징을 발견할수는 없겠는가고 자문한다. 만일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안이 발견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령 쏘베트공화국이 선진국가들과 나란히 서있지 않고 락후한 나라들과 나란히 서있었다면 그가 3년 반동안에 감당한 그것을 능히 감당할수 있었겠는가, 또 그가 전 세계 각국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던 백파도당들의 진공을 그렇듯 승리적으로 격퇴할수 있었겠는가 하고 자문하여보라. 우에서 말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러한 주저도 없이 대답할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3년 반동안이나 전 세계의 부강한 모든 국가들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여 싸웠다는것은 당신들이 알고있는바이다. 우리와 대립하여 콜차크나 유제니치나 제니낀이나 우란겔을 지지한 그 군사력은—당신들은 모두다 전쟁에 참가하였던만큼 이것을 잘 알고있지만—우리 나라의 군사력보다 물론 몇배나 더, 한량없이 우세한것이였다. 당신들은 이 모든 국가들의 힘이 현재에도 우리의 힘보다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더 크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 강국들이 쏘베트정권을 타도할 과업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도하지 못하게 된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였는가?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있

다. 그것은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무산계급이 우리를 지지한 까닭에 그렇게 될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되였다. 심지어 무산계급이 확실히 멘쉐위크나 사회혁명당원(구라파 각국에서는 그들을 다르게 부른다.)의 영향하에 있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령들이 대중에게 양보하지 않을수 없게 된 조건하에서 드디여 로동자들은 이 전쟁을 파탄시켰던것이다. 우리가 승리한것이 아니라—우리의 군사력은 보잘것없는것이였다.—렬강이 우리를 반대하여 자기들의 군사력을 전부 동원할수 없게 된 그것이 승리를 가져왔다. 선진국가의 로동자들의 소원을 거역하여서는 전쟁을 진행할수 없는것만큼 전쟁의 행정을 규정하는것은 이 로동자들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을 소극적 내지 반소극적 반항으로써 파탄시켰다. 이 론쟁할 여지 없는 사실은, 로씨야무산계급이 3년 반동안 지탱해내고 승리를 거둘만한 그 정신력을 어디서 얻을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정확한 대답을 준다. 그러므로 로씨야로동자의 정신력이란 이 투쟁에서 구라파의 선진국가들의 무산계급이 준 원조와 지지를 그가 알고 감각하고 감촉한 그것이였다. 최근의 구라파의 로동운동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및 기타의 전승국과 전패국, 즉 각이한 문화와 각이한 경제적발전단계에 처하여있는 나라들의 사회당의 분렬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은 거기에서 로동운동의 발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있는가를 우리에게 명시하고있는것이다. 각국에서 금년도에 일어난 주요사건은 분쇄된 또 완전한 파탄을 당한 사회주의자 및 사회민주주의자들(로씨야말로 하면 멘쉐위크 및 사회혁명당원)의 당들에서 로동계급의 선진분자전체의 지지에 의거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당이 생겨난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진국가 대신에 그렇게 강력한 무산계급대중이 없

는 락후한 국가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더라면 우리는 3년 반은 고사하고 3개월 반도 지탱할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물론 조금도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쏘베트정권에 관하여 수백만부의 출판물에서 전파하고있는 그 허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파탄시킬 사명을 가졌고 실지 파탄시키려고 한 《로동자들의 수령》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지한 선진국가로동자들의 공명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 무산계급에게 그러한 정신력이 있을수 있었겠는가? 이 지지에 의거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은 수적으로 미약하고 고난과 궁핍때문에 고통을 겪기는 하였지만 이 정신력이 강한 까닭에 승리하였던것이다.

당신들에게 해명하려고 한 제1의 세력은 이러하다.

제2의 세력—그것은 발달한 자본과 무산계급사이에 서있는 세력이다. 그것은 소자산계급, 소경영자들이다. 그것은 끝로씨야에서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있는 농민이다. 주로 그것은 소경영자이며 소규모농호이다. 그들은 10중 9가 이러한 소경영자이며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그들은 로동과 자본의 첨예한 투쟁에 매일 참가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련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또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조건은 그들을 접근시키는것이 아니라 분산시키고 서로 분렬시키면서 고립적인 수백만 소경영자들의 대군으로 전화시켜버린다. 이것은 당신들이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어떠한 집단이나 집단농장이나 콤뮨이라도 장구한 세월이 경과하기전에는 이것을 개조할수 없을것이다. 이 세력은 무산계급독재의 혁명적정력과 헌신성으로 인하여 미증유의 속도로 우측에 있는 자기의 적, 즉 지주계급과 끝장을 내고 이 계급을 근본적으로 소탕하고 그 지배를 미증유의 속도로 타도하였다. 그런데 그 세력자체는 지

주의 지배를 신속히 타도하면 타도할수록, 전 인민의 소유로 된 토지에서의 자기의 경영으로 신속히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또 많지 못한 부농들에게 결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신속히 소경영자로 전화하였던것이다. 로씨야농촌이 그 동안에 균일하여졌다는것은 당신들이 알고있는바이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있는 농민과 토지없는 농민의 비중은 감소되고 중농경영이 증대되였다. 그동안에 우리 나라의 농촌은 보다 더 소자산계급적으로 되였다. 이 계급은 독립적계급이며 지주와 자본가가 타도되고 구축된후에도 여전히 무산계급에게 대립할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자, 농민의 왕국은 영생하리라》고 프랑카드에 쓰는것은 망발인것이다.

당신들은 이 세력이 그 정치적동향의 견지에서 볼 때 어떠한 세력인가를 알고있다. 그것은 곧 동요하는 세력이다. 우리의 혁명을 통하여 국내 도처에서 그것을 보았다. 로씨야에서는 로씨야식으로, 씨비리에서는 씨비리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식으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어디서나 결론은 오직 하나, 그것이 동요하는 세력이라는 그것이였다. 께렌스끼의 원조하에 있을 때나 꼴챠크시기에 있어서나 싸마라에 헌법제정회의가 있을 때나 꼴챠크 혹은 그의 선행자들밑에서 멘쉐위크인 마이스끼가 대신으로 있었을 때나 사회혁명당원들3과 멘쉐위크들은 오래동안 농민들을 좌지우지하였다. 이 세력은 무산계급의 령도와 자산계급의 령도사이에서 동요하였다. 무슨 까닭에 압도적다수인 이 세력은 자기자체를 령도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이 대중의 경제적생활조건때문에 자기자체로는 통일될수 없으며 단결될수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각국에서 몇백년동안이나 인민들을 기만하여왔으며 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가 《매번 거기에서》 실패를 보면서도 수백주일동안이나 론의하여온 《전인

민적투표», 헌법제정회의 및 기타 이와 류사한 《민주제도》에 관한 공담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사실인것이다. (박수) 우리는 어디서나 또 언제나 결과는 꼭 아래와 같았다는것, 즉 자기의 력량을 인식하려 하며 경제와 정치를 자기의 의사대로 향도하려고 하는 소자산계급일반의, 특히 농민들의 온갖 시도는 결국 파탄되고말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며 또 전 세계적으로 신시대를, 말하자면 150년간을 돌이켜볼 때 모든 혁명의 발전에서 이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된다. 무산계급의 령도하에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들의 령도하에 들어가는 두길뿐이요 중간은 없다. 누구든지 중간을 동경하는자는 공허한 공상가이며 환상가이다. 정치와 경제와 력사가 그들을 반박하고있다. 맑스의 전 학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소경영자를 생산수단과 토지의 소유자로 볼 때 그들간의 교환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이 발생하며 그와 함께 자본과 로동간의 모순이 발생한다. 무산계급과 자본과의 투쟁—이것은 불가피적인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법칙이다. 따라서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을 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적사실에서는 또한 왜 그 세력은 자기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며 또 이에 대한 시도가 왜 모든 혁명사에서 파탄으로 끝나고말았는가 하는것이 설명되는것이다. 무산계급이 혁명을 령도하지 못하는 한 이 세력은 자산계급의 령도하에 들어가게 된다. 어떠한 혁명에서나 다 그렇게 되였었다. 그리고 로씨야사람들도 물론 특별한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은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신선이 되려고 한다면 웃음거리밖에는 더되지 않을것이다. 물론 력사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것이다. 우리는 모두 께렌스끼의 지배를 맛본 까닭에 이 모든것은 우리들전부

에게 특히 명료한것이다. 그때에는 정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정치와 국가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명하고도 유식한 지도자, 정치로선의 지도자가 볼쉐위크들에게 있는것보다 백배나 더 많이 있었던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대하여는 태공하였으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에 의거하는 께렌스끼정부에 대하여는 태공할 과업을 내세우지 않은 관리들을 전부 계산한다면 그것은 막대한 수효에 달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는 실패를 당하고말았다. 이것은 곧 국가관리에 익숙하고 국가정권을 장악하기 수십년전에 벌써 그 기술을 습득한 교양있는 지식인의 극히 우세한 력량을 압도해버린 원인들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돈과 꾸반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시험해보았으나 역시 모두다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였다. 여기에는 우연성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제2세력의 경제적 및 정치적 법칙은 이러하다. 즉 무산계급의 령도하에 들어가느냐—이 길은 어려운 길이기는 하나 지주와 자본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길이다.—그렇지 않으면 선진민주주의공화국 심지어 미국에서와 같이 자본가들의 령도하에 들어가느냐 둘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토지의 무상분배가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는데(이주민 각자에게는 60제싸찌나씩이나 무상분배되였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상상할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의 완전지배를 초래하였다.

제2세력은 이러하다.

우리 나라에서 이 제2세력은 동요하고있으며 또 특히 피곤상태에 있다. 이 세력은 혁명의 중하를 짊어지고있는데 근년에 와서는 그 중하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있다. 즉 흉년과 가축의 폐사, 사료부족 등등의 조건하에서 실시된 곡물징수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제2세력, 즉 농민대중이 절망상태에 빠진것은 리해할수 있는 일이다. 지주가 소멸된지 3년 반

이 지났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의 개선을 생각할수 없었다. 그런데 개선은 절실한것으로 되여가고있다. 해산되고있는 군대는 자기의 로동을 옳게 적용할 가능성을 얻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소자산계급적세력은 무정부주의분자로 전화되고있으며 이 분자는 자기의 요구를 격분한 언행으로써 표시하고있다.

제3세력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것은 곧 지주와 자본가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 세력을 볼수 없다. 그러나 특히 중대한 사건의 하나이며 최근 몇주일간에 있어서의 한개의 특히 중요한 교훈인 크론슈따트사건은 그 어떠한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현실을 밝혀준 번개와도 같이 나타났던것이다.

현재 구라파에는 백파분자가 없는 나라라고는 하나도 없다. 로씨야인망명자는 70만명에 달한다. 그것은 도망한 자본가들과 쏘베트정권에 순응할수 없는 사무원대중이다. 이 제3세력을 우리는 볼수가 없다. 그들은 국외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으며 전 세계 자본가들과 동맹하여가지고 활동하고있다. 전 세계 자본가들은 꼴차크, 유제니치, 우란겔을 지지하듯이 이 제3세력을 돈과 기타 방법으로 지지하고있다. 그것은 제3세력이 자기들의 국제적련계를 가지고있는 까닭이다. 이 인물들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있다. 당신들은 물론 요사이에 신문지상에서 크론슈따트사건을 론평한 백파출판물로부터의 허다한 인용문과 발취문에 주의를 돌렸을것이다. 빠리에서 신문을 발간하고있는 부르쩨브는 요사이에 그 사건을 서술하였고 밀류꼬브는 그것을 론평하였는데 당신들은 물론 모두 그것을 읽어보았을것이다. 무슨 까닭에 우리의 신문들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도 많은 주의를 돌리고있는가? 그것은 옳은 일인가? 물론 옳은 일이다. 왜냐 하면 자기의 적을 똑똑하게 알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외국으로

간 지금에 와서는 그들은 그다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 보라.—그들은 그리 멀리는 이동하지 않았다. 기껏해서 수천웨르스따밖으로 이동했을뿐이다. 그리고 그만큼 이동하여가서는 몸을 숨기였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으며 때를 기다리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전 세계 자본의 직접적인 조수로서 그에게 부양되면서 그와 함께 활동하고있다.

당신들은 모두 물론 국외에서 발간되는 백파신문에서 인용한 글들이 프랑스신문이나 영국신문에서 인용한 글들과 보조를 맞추어나가는것을 주의하여보았을것이다. 그것은 한 합창단이며 한 악대이다. 물론 그러한 악대에는 악보에 의하여 곡을 연주하는 한사람의 지휘자가 있는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는 국제자본이 지휘자의 지휘봉보다 덜 눈에 뜨이는 방법으로 지휘하고있지만 그것이 한 악대라는것을 당신들은 어느 인용문을 보든지 명백하게 알아야 할것이다. 만일 《볼쉐위크가 없는 쏘베트정권》이라는 구호가 제기된다면 거기에 동의하노라고 그들은 고백하였다. 밀류꼬브는 특히 이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있다. 그는 력사를 면밀하게 연구하였으며 자체의 경험에 기초하여 로씨야력사를 연구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갱신하였다. 그는 교수로서의 자기의 20년간의 연구결과를 개인으로서의 20개월간의 연구로써 보강하였었다. 그는 성명하기를 만일 볼쉐위크가 없는 쏘베트정권이라는 구호가 제기된다면 나는 그것을 지지하겠노라고 하였다. 그것이 우측으로의 약간의 이동으로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좌측으로, 무정부주의자측으로의 약간의 이동으로 될것인가 하는것은 외국인 빠리에서는 알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크론슈따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있는가를 알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있다. 《군주주의자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오, 그 사건에 대하여 떠들면서 일을 방해하지 마시오.》라고. 또 그는 선언하기를 만일 좌측으로의 이동이라면 나는 볼쉐위크를 반대하여 쏘베트정권을 찬동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바로 이렇게 밀류꼬브는 쓰고있으며 또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것이다. 어쨌든 크론슈따트사건은 얼마쯤 우측으로의 이동을 기하며 얼마쯤 자유상업을 허용하며 얼마쯤 헌법제정회의를 허용하는, 볼쉐위크가 없는 쏘베트정권을 창립하려는 지향이라고 단정한것을 보면 그는 로씨야력사와 지주 및 자본가에게서 그 무엇인가를 배운것이 분명하다. 어떤 멘쉐위크의 말이든지 들어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모두 그와 같은 말을 들을수 있을것이며 아마 이 회의실안에서도 들을수 있을것이다. 만일 크론슈따트사건의 구호가 얼마쯤 좌경적인것으로서 곤난과 전쟁과 군대의 동원해제에 의하여 산생된 무정부주의자들로써 구성되는 쏘베트정권을 요구하는것이라면 밀류꼬브는 왜 그것을 찬동하는가? 그것은 그 편향이 무산계급독재의 편으로 기울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의 편으로 기울어지리라는 것을 밀류꼬브는 알고있는 까닭이다.

다르게는 정권은 존립할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결전이 아니라 최후의 결전중의 하나를 진행하고있는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결전중의 하나를 누구와 진행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옳은 대답은 자국내에 있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과 진행하고있다고 하는 대답이다.(박수) 지주와 자본가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첫전투에서—오직 첫전투에서만—그들을 타승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전투는 벌써 국제적범위의 전투로 될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비록 백배나 더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여 싸울수는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곳, 선진국가들에서는 로동자들이 전일에도

전쟁을 파탄시켰으며 오늘에는 더욱 훌륭히, 더욱 정확히 파탄시킬것이기때문이며 또 거기에서는 전쟁의 후과가 점점 더 확대되고있기때문이다. 자국내에 있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을 우리는 극복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자기 존재를 나타낼것이다. 지주와 자본가들은 그것을 타산하고있으며 밀류꼬브와 같은 보다 령리한자들은 더우기 그러하다. 그는 군주주의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쏘베트정권을 공고하게 할뿐이요라고 말하였다. 림시적으로 농촌의 지지를 받아 근로자들의 단기간의 독재가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근로자들의 공고한 정권이 되지 못하고 미구에 뒤로 물러서게 된 여러차례의 혁명의 일반적행정은 이것을 명시하였다. 뒤로 물러서게 된 리유는 바로 농민과 근로자와 소경영주들이 자기들의 정책을 가질수 없어서 여러번 동요하다가 그만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는데 있는것이다. 프랑스혁명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였으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모든 혁명에서 다 그렇게 되였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교훈을 받은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백파도당들은 국경을 넘어 사흘동안 물러간 다음에는 서구라파자본의 옹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잠복하여 우리를 감시하고있다. 사태는 이러하다. 여기에서 무산계급의 과업과 의무가 명백하게 된다.

피로와 피폐에 기초하여 일정한 기분이 또는 간혹 절망이 나타난다. 언제나 그렇지마는 혁명적인 분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기분과 절망은 무정부주의에서 표현된다.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그렇게 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고있다.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은 위기를 겪고있다. 왜냐 하면 근년에 이르러 그들은 곤난을 당하였으며 1919년에 무산계급이 당한 그 곤난과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곤난을 당한것만은

사실인 까닭이다. 농민들은 국가를 구원하여야 하였고 잉여곡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였는데 그들은 벌써 그러한 긴장상태를 이겨낼수 없게 되였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정신적방황과 동요가 나타나게 되였다. 그런데 우리의 원쑤인 자본가들은 이것을 타산하고있으며 동요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다음에는 자기 편으로 굴러올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전 로씨야적 및 국제적 규모에서 계급적력량을 타산하는 견지에서 고찰한 크론슈따트사건은 곧 이러한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있는 최후의 결전중의 하나란 곧 이러한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이 소자산계급-무정부주의적자연발생성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였는데 혁명의 목전의 운명이 지금 그것의 극복에 달려있기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프랑스혁명과 같이 퇴각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한것이므로 자기 눈을 가리우거나 빈말로써 때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정시하여야 한다. 이 대중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 무산계급의 령도를 보존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그때에는 구라파에서 장성하고있는 공산주의적혁명운동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것이다. 거기에서 오늘 진행되지 못한 일이 래일 진행될수 있으며 또 래일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모레 진행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래일 또는 모레라는 기간은 세계사에서는 적어도 몇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가 현재 무엇때문에 투쟁하고있으며 또 무엇때문에 최후의 결전중의 하나를 진행하고있는가, 최근의 사건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또 로씨야에서의 계급투쟁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이제는 이 투쟁이 왜 그렇게 첨예하여졌으며 또 유제니치나 꼴챠크나 제니낀이 주되는 적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세,

즉 우리들자신의 환경이 주되는 적이라는것을 리해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것이 명백하다.

이제 나는 너무나 길어진 나의 연설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철도 및 수상 운수의 형편과 철도 및 수운 로동자들의 과업으로 넘어갈수 있다. 내가 여기에서 진술한것은 이 과업과 극히 밀접하게 불가분적으로 련관되여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바이다. 철도 및 수운 로동자들보다 더 확연히 일상적인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공업 및 농업과 관련을 맺고있는 부분은 무산계급내에 결코 없을것이다. 당신들은 도시에 식량을 가져다주어야 하며 또 공업제품을 운반함으로써 농촌을 활기띠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철도로동자와 수운로동자들에게는 더욱 명백한 일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로동의 대상으로 되여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현시기에 있어서 철도 및 수운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특히 중대한 과업과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가 하는 결론은 여기에서 자연히 오는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신들은 직업동맹의 상부와 하부간에 마찰이 일어난 그러한 조건하에서 당신들의 대회가 소집되였다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을것이다. 이 문제가 지난번 당대회에 제기되였을 때, 상부를 하부에 복종시키며 또 상부가 범한, 내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그러나 어쨌든 시정하여야 할 과오를 시정하는 방법으로써 상부와 하부를 조화시킬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당신들은 당대회에서 그 과오가 시정되였다는것과 또 이 당대회가 자기 사업을 끝마쳤을 때에는 종전보다 더 큰 공산당대렬의 단결과 통일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이것은 소자산계급-무정부주의적자연발생성의 운동에 대한 전위대의, 즉 무산계급의 지도부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유일하게 정당한 대답인것이다. 만일 우리들, 의식적인 로동자들이

이 운동의 위험성을 깨닫고 단결하여 십배나 더 의좋게, 백배나 더 굳게 뭉쳐서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력량을 십배나 증대시킬것이며 그때에는 군사적진공에 대하여 승리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는 또 그렇기때문에—거듭 말하거니와—위험하기도 한 저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의 동요에 대하여도 승리하게 될것이다. 종래부터 주의를 돌려오던 문제를 지정한 당대회의 결정은 무산계급군대를 단결하며 화목케 하는 일에 있어서 거족적인 전진을 의미하는것이다. 오늘 당신들도 당신들의 대회에서 그와 같이 하며 당대회의 결정을 실천하여야 할 임무가 나서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혁명의 운명은 무산계급의 다른 부분의 사업보다 이 부분의 사업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우리는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을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물질적지반이 요구된다. 그러면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키기 위한 물질적지반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철도운수와 수상운수인것이다. 이렇기때문에 당신들에게는 자기의 사업에 특히 신중하게 대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여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당신들중에서 공산당원이며 따라서 또 무산계급독재의 의식적인 선도자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당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100만 내지 150만의 운수부문로력자들을 단결시키고있는 직업동맹에서 사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부과되여있다. 당신들은 모두 우리 나라의 혁명과 과거의 모든 혁명에서 교훈을 찾아내여 당면하고있는 사태의 모든 곤난성을 리해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론의되건, 헌법제정회의가 론의되건, 《자유쏘베트》가 론의되건 그런 온갖 구호로 자기 눈을 가리우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함으로써—밀류꼬브가 크론슈따트공화국쏘베트의 지지자로 나타난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상표를 갈아붙이

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계급적력량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눈을 가리우지 않음으로써 당신들은 자기의 모든 정치적결론을 위한 랭정하고 견고한 기초와 토대를 가지게 될것이다. 무산계급혁명이 최근에 있어서와 같이 부단히 승리에로 나아갈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요로써 백파의 승리를 초래하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런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가 처해있다는것을 당신들은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백파의 승리는 곤난한 사태를 변경시키지 못하며 다만 로씨야를 혁명으로부터 수십년간 후퇴시킬따름일것이다. 철도로동자와 수운로동자들을 대표하는 당신들에게는 결론은 오직 하나밖에 있을수 없으며 또 하나뿐이여야 할것이다. 즉 무산계급적단결과 무산계급적규률을 백배로 높이는것이 그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현하여야 하며 승리를 획득하여야 한다.(우렁찬 박수)

1921년 3월 29일 및 30일부
《쁘라우다》 제67호 및 68호
에 게재

《쁘라우다》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
32권, 258～271페지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다게스딴, 고레쯔 공화국 공산주의자동지들에게

나는 깝까즈의 쏘베트공화국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이 공화국들의 긴밀한 동맹이 자산계급밑에서는 일찌기 보지 못하였으며 또 자산계급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민족적화목의 모범으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는바이다.

그러나 깝까즈 여러 민족의 로동자, 농민들의 민족적화목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으로서의 쏘베트정권을 유지발전시키는것은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더 중요하다. 과업은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깝까지예공산당원들이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형편이나 조건과는 다른 자기들의 형편, 그 공화국들의 형편의 **특수성**을 리해하며 또 우리의 전술을 그대로 모방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조건의 차이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을 리해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로씨야의 쏘베트공화국은 어느곳으로부터도 정치적원조나 군사적원조를 받지 못하였다. 반대로 쏘베트공화국은 다년간 련합국의 군사적침공과 그 봉쇄를 반대하여 싸웠던것이다.

깝까즈의 쏘베트공화국들은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정치적원조와 약간의 군사적원조를 받았다. 이것이 근

본적차이점이다.

둘째 차이점은 이제는 련합국의 침공과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야, 다게스딴, 고레쯔의 백위군에 대한 련합국의 군사적원조를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는 점이다. 련합국은 로씨야에서 《큰코를 다쳤는데》 이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얼마동안 조심하게 될것이다.

셋째 차이점은 깝까즈의 공화국들이 로씨야보다도 더 농민적인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넷째 차이점은 로씨야는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단절되여있었으며 또 현재도 상당히 단절된채로 남아있지마는 깝까즈는 자본주의적서방과의 《동거》 또는 상품교역 관계를 더 속히, 더 용이하게 수립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차이점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전술이 달라야 할 필요성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에 지적한 차이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소자산계급, 지식인, 특히 농민과의 관계에서 더 부드럽고 신중하여야 하며 더 양보하여야 한다. 리권 및 상품교역 정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서방을 경제적으로 백방으로, 극력, 시급히 리용하여야 한다. 석유, 망간, 석탄(트크와르첼리탄광), 동—이것은 결코 방대한 지하부원을 모두 렬거한것은 아니다. 리권정책 및 외국과의 상품교역을 광범히 실시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 면에서의 사업을 광범히, 확고히, 능숙히, 신중히 진행하면서 로동자와 농민의 형편을 개선하며 경제건설에 지식인들을 인입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백방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딸리아, 미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상품교역을 리용하여 풍부한 변강의 생산력과 수력의 개발과 관개를 극력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과 목축업을 기어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개가

특히 중요하다.

보다 서서히, 보다 신중히, 보다 계통적으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것—이것은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과는 달라서 깝까즈의 공화국들이 능히 할수 있는 일이며 또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것을 리해하여야 하며 또 우리의 전술과는 다르게 이것을 실현할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자본주의에다 첫 파렬구를 뚫어놓았다. 파렬구는 뚫어졌다. 우리는 련합국전체와 그 봉쇄와 그 군사적원조에 의하여 지지되는 백위군, 사회혁명당원[3], 멘쉐위크를 반대하는 맹렬하고 초인간적이고 아주 간거하고 가렬한 전쟁에서 자기자신을 고수하였다.

당신들, 깝까즈의 공산주의자동지들은 파렬구를 뚫을 필요가 없다. 당신들에게 유리한 1921년의 국제정세를 리용하면서 최대의 신중성과 계통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조할줄 알아야 한다. 1921년의 구라파와 전 세계는 벌써 1917년과 1918년의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 전술을 모방할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이 전술의 특수성의 원인과 조건과 그 총화를 심사숙고할것이며 자기의 공화국에다 1917～1921년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신과 의미와 교훈을 적용할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곧 자본주의적외국과의 상품교역에 의거하되 여기에서 린색하지 말아야 한다. 수천만의 귀중한 광산물이 그들의 손으로 들어가도 좋다.

곧 농민들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전기화와 관개를 위한 대공사를 시작할것이다. 관개는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변강을 개조하며 변강을 부흥시키면서 과거를 매장하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확고히 할것이다.

이 편지가 조잡하게 된것을 용서하라. 먀스니끄브동지의 편에 보내기 위하여 나는 이 편지를 바삐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깝까즈의 쏘베트공화국들의 로동자와 농민에게 최대의 축하와 희망을 또 한번 전한다.

엔. 레닌

1921년 4월 14일 모스크바에서

1921년 5월 8일 《프라우다 그루지》 제55호

《프라우다그루지》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 32권, 305~307페지

현물세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의 의의와 그 조건)

서언을 대신하여

현물세에 관한 문제는 현재 특히 많은 관심과 론의와 론쟁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현재의 제 조건하에서는 이 문제가 실지로 주요한 정책문제의 하나로 되여있기때문이다.

이 론의는 약간 혼잡성을 띠고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모두 이런 혼잡성에 빠지고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당면한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취급할것이 아니라 그 일반원칙적측면에서 취급하는것이 보다 더 유익할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지금 우리들이 당면한 정책의 일정한 실제적방책이라는 무늬를 그리고있는 그 도안의 일반적인 근본배경을 들여다보는것이 보다 더 유익할것이다.

이러한 시도로서 나는 나의 소책자 《오늘의 주요과업.—〈좌익적〉유치성과 소자산계급근성에 관하여》①로부터 장문의 발취를 하기로 한다. 이 소책자는 1918년에 뻬뜨로그라드로농병대의원 쏘베트판으로 나온것으로서 거기에는 첫째로, 1918년 3월 11일부의 브레스트강화에 관한 신문론설과 둘째로는 당시의 좌익공산주의자52집단과 론쟁한 글이 들어있는데 이 글을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530～559페지를 보라. —편집자

실은 날자는 1918년 5월 5일로 되여있다. 이 론쟁적인 부분은 지금 필요치 않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국가자본주의》에 관한 론의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우리의 현시경제의 기본요소에 관한 론의에 관계되는것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당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로씨야의 현시경제에 관하여

(1918년의 소책자에서 발취)

《…국가자본주의는 우리 쏘베트공화국의 현정세에 비하면 1보전진으로 될것이다. 대략 반년후에 국가자본주의가 우리 나라에 수립된다면 이것은 거대한 성공일것이다. 그것은 일년후이면 사회주의가 우리 나라에서 결정적으로 공고화되여 극복할수 없는것으로 되리라는데 대한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될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분개를 표시할 몇몇 사람들이 있을것을 나는 상상한다.…무엇이라고?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 국가자본주의로 이행하는것이 1보전진으로 될것이라고?…이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반이 아닌가?

바로 이 점을 좀더 상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부를 권리와 근거를 우리에게 주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것이 어떠한것인가를 해명하여야 한다.

둘째로, 소자산계급적인 경제적조건과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주요한 적이라는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유를 드러내야 한다.

셋째로, 자산계급국가와 경제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쏘

베트국가가 가지는 의의를 잘 리해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가지 점을 모두 검토하여보자.

로씨야의 경제문제를 고찰한 사람으로서 이 경제의 과도적성격을 부정한 사람은 아직 없는것 같다. 또 보건대,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이라는 칭호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코저 하는 쏘베트정권의 결의를 의미하는것이지 결코 현재의 경제제도를 사회주의제도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은 어느 공산주의자도 부정한 일이 없는것 같다.

그러면 이행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 말을 경제에 적용할 때에는 그것은 현체제중에 자본주의의 요소, 단편, 부분과 아울러 사회주의의 요소, 단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승인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하는 사람들이 다 로씨야에 현존하는 각종 사회경제구조의 요소들이 도대체 어떠한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 요소를 렬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부장제적인, 즉 현저히 자연경제적인 농민경제,

(2) 소상품생산(곡물을 파는 농민의 다수가 이에 속한다.),

(3) 사경영적자본주의,

(4) 국가자본주의,

(5) 사회주의.

로씨야는 광대하고 다양하며 모든 사회경제구조의 이러한 각종 형이 서로 얽히여있다. 정세의 독특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우세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소농민적인 나라에서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 우세하며 또 우

세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경작자의 다수, 지어는 그 절대다수가 소상품생산자이기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의 외피(곡물의 독점, 통제하에 있는 기업가와 상인, 자산계급적협동조합일군)는 **투기업자들**에 의하여 이곳저곳 구멍이 뚫어지고있으며 **곡물**은 투기의 주요대상으로 되고있다.

주요한 투쟁은 바로 이 령역에서 전개되고있다. 만일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경제적범주의 용어로써 표시한다면 이 투쟁은 누구와 누구사이에 진행되고있는가? 내가 방금 우에서 렬거한 4와 5사이에서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국가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싸우고있는것이 아니라 소자산계급과 사경영적자본주의가 한편이 되여 국가자본주의도 반대하며 사회주의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 소자산계급은 국가자본주의적이든 국가사회주의적이든간에 국가의 **일체의** 간섭, 계산, 통제에 대하여 반항한다. 이것은 전혀 론의할 여지 없는 사실로서 바로 이것을 리해못하는데 허다한 경제적과오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투기업자, 모리간상배, 독점제의 파괴자—이것들이 우리의 주요한 ‹내부의› 적이며 쏘베트정권의 경제적시책의 적이다. 125년전에 당시의 가장 열렬하고 가장 진실한 혁명가였던 프랑스의 소자산계급들은 개별적인 ‹엄중한 범죄자› 몇사람에 대한 사형과 어마어마한 포고로써 투기업자들을 극복하고저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그래도 용서할수 있는 일이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좌익사회혁명당원[3]의 어떤자가 이 문제를 순 프랑스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매개 의식적인 혁명가들에게 다만 혐오와 모멸의감을 일으키는데 지나지 않을것이다. 투기의 경제적기초는 로씨야에 비상히 광범하게 널려져있는 소소유자층과 또 매개의 소자산계급을 자기의 앞잡이로 삼고있는 사경영적자본주의인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 소자산계급칠두사(七头蛇)가 가지고있는 수백만

의 촉수는 여기저기에서 개별적로동자층을 사로잡고있으며 국가독점이 아니라 투기가 우리들의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틈으로 기여들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자는 그 맹목성에 의하여 자기가 소자산계급적편견에 빠져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자산계급은 약간한 저축, 즉 전쟁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특히 부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몇천루블의 저축을 가지고있다. 이러한것이 투기와 사경영적자본주의의 기초로서 특징지어지는 경제적류형이다. 화폐—이것은 사회적부를 받을수 있는 증서이다. 천백만의 소소유자층은 이 증서를 꽉 틀어쥐고 〈국가〉에는 이를 감추며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믿지 않고 어떻게나 무산계급의 폭풍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우리가 이들 소자산계급을 우리의 통제와 계산에 복종시키게 되든가 (만일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과 반무산계급을 의식적인 무산계급의 전위의 주위에 결속시킬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이러한 소소유자적토대우에서 생장한 나뽈레옹도배나 까베냐크[139]도배가 혁명을 전복시킨것과 같이 우리 로동자들의 정권을 불가피적으로 틀림없이 전복시키고야말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고있으며 또 오직 이렇게만 설수 있는것이다.…

몇천루블을 감추고있는 소자산계급은 국가자본주의의 적이다. 그들은 이 돈을 빈민을 반대하며 전 국가적으로 되는 온갖 통제를 반대하여 그들자신의 리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몇천루블이라는 돈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는 수십억루블의 투기의 기초로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일정한 수의 로동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1,000이라는 수로 표시되는 일정액의 가치를 생산하고 그중 200은 소규모의 투기, 각종 략취, 쏘베트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소소유자

들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상실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의식적인 로동자들은 누구나 다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만일 1,000중 300으로써 질서와 조직을 개선할수 있다면 나는 200이 아니라 300이라도 즐겨서 내놓을것이다. 왜냐 하면 일단 질서와 조직이 수립되고 온갖 국가독점에 대한 소소유자들의 파괴가 종국적으로 분쇄된다면 이 〈공납〉을 100이나 50으로 축감하는것은 쏘베트정권하에서는 아주 용이한 과업이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수자적실례—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극도로 단순하게 한—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로동자들은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있다. 로동자들은 1,000이라는 가치를 전부 〈자기의것으로 만들〉 완전한 법률적가능성, 즉 사회주의적목적이외에는 한푼일지라도 지출하지 않을 완전한 법률적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정권이 로동자들의 수중으로 실지로 이행한 사실에 립각하고있는 이 법률적가능성은 사회주의의 요소이다. 그러나 소소유자적 및 사경영적자본주의의 자연발생성은 갖은 방법으로써 이 법률적지위를 파괴하고 투기를 계속하며 쏘베트법령의 집행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국가자본주의는 **설혹** 그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대한 전진일것이다.(이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일부러 그러한 수자적인 실례를 들었다.) 왜냐 하면 〈수업료〉는 물어서 괜찮은것이기때문이며 그것이 로동자에 대하여 유익하기때문이며 무질서와 파괴, 해이성을 극복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며 소소유자적무정부상태의 계속은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위험성인 까닭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킬것이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에 많은 공물

을 바치는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사회주의로 인도할것이다. 소소유자적 무정부상태를 반대하여 국가의 질서를 옹호하는것을 배우고 전 국가적인 대규모의 생산조직을 국가자본주의의 원리우에서 건설하는것을 배운다면 그때에는 로동계급은 모든 주패—이런 속된 말을 용서하라.—를 수중에 장악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공고화는 보장될것이다.

국가자본주의는 현재의 우리 경제보다 경제적으로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이 첫째 점이다.

둘째로, 국가자본주의에는 쏘베트정권이 두려워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왜냐 하면 쏘베트국가는 로동자와 빈농민들의 정권이 확보되여있는 국가인 까닭이다.…

* * *

문제를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자본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자.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러한 실례는 독일이다. 거기에는 현대적인 대자본주의적기술의 〈최신성과〉와 융케르적-자산계급적제국주의에 종속되여있는 계획화된 조직이 존재한다. 여기서 고시크체로 된 문자를 지우고 군사적, 융케르적, 자산계급적, 제국주의적 국가의 자리에다 역시 국가이기는 하나 그와는 다른 사회적류형의 국가, 그와는 다른 계급적내용을 가진 국가, 쏘베트국가, 즉 무산계급국가를 대치한다면 사회주의의 실현에 필요한 일체의 조건이 구비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는 현대과학의 최신성과우에 건립된 대자본주의적기술이 없이는 그리고 수천만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에서 단일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케 하는 계획적인 국가적조직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들 맑스주의자는 언제나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까지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과 태반의 좌익사회혁명당원들)과는 단 2초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상론할바가 못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는 국가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지배없이는 생각할수 없다. 이것 역시 아주 초보적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력사(제1급의 바보인 멘쉐위크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력사가 평탄하게, 평온하게, 손쉽게, 간단하게, 《완전한》 사회주의로 간다고 기대하는자는 없을것이다.)는 독특한 발전을 하여 1918년경에는 국제제국주의라는 한개의 닭알껍질속에 두마리의 미래의 병아리와도 같은 사회주의의 서로 다른 두 쌍둥이를 나란히 출현시켰다. 독일과 로씨야는 1918년에 일방으로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생산적, 사회-경제적 제 조건과 타방으로는 정치적 제 조건을 가장 명백하게 물질적으로 체현하고있었다.

만일 독일에서 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한다면 제국주의의 어떠한 닭알껍질도 대번에 또 아주 손쉽게 깨뜨려질것이며(유감이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강철로 되여있어서 어떠한 병아리가 힘을 써도 깨뜨릴수 없는것이였다.) 또 전 세계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확실히 아무런 곤난없이 또는 극히 적은 곤난을 겪으면서(두말할것도 없이 그 《곤난》이라는것은 세계사적범위에서의 곤난이지 일상적인 작은 범위에서의 곤난은 아니다.) 실현될것이다.

만일에 독일에서 혁명의 〈발발〉이 지연된다면 우리의 과업은 독일인들한테서 국가자본주의를 배우며 전력을 다하여 국가자본주의를 섭취하며, 야만적로씨야에 의한 서구라파문화의 섭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독재적수단이라도 이를 채용하는데 주저하지 말며 야만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야만적인 수단도 사양하지 않는것이다. 만일 무정부주의자와 좌익사회혁명당원들중에서 까렌린식으로(나에게는 갑자기 중앙집

행위원회에서의 까렐린과 게의 연설이 생각난다.) 론의하는자가 있어서 독일제국주의로부터 〈배우는것〉은 우리 혁명가들에게는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할말은 한가지밖에 없다. 즉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곧이듣다가는 혁명은 여지없이(또 지극히 당연하게) 파탄되고말것이라고.

로씨야에는 현재 바로 소자산계급적자본주의가 우세하다. 소자산계급적자본주의로부터 대국가자본주의에로든 사회주의에로든 가는 **길은 하나**이며 〈생산품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전인민적 계산과 통제〉라고 불리우는 **동일한** 중간역을 **통과한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은 실정을 모르며 현존하고있는것을 보지 못하며 진실을 똑바로 볼줄 모르든가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 대립시키는데 그치고 현재 우리들앞에서 진행되고있는 이행의 구체적 형태와 단계를 깊이 연구하지 않든가 하는데서 용서할수 없는 경제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한마디 부언하거니와 〈신생활〉지와 〈전진〉140지 진영내의 가장 월등한 사람들을 혼란케 한것도 바로 이 리론적 오유였다. 즉 그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과 보통이나 되는 사람들은 우둔과 무정견때문에 자산계급의 위협을 받아 그 꽁무니를 따라다닌다.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회주의의 스승들이 쓸데없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긴 과도기에 관하여 말한것이 아니며 또 리유없이 새 사회의 〈오랜 진통〉141을 강조한것이 아니였다는것, 그리고 이 새 사회라는것도 또한 한개의 추상이며 이 추상은 이런 혹은 저런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려는 가지가지의 불완전한 구체적시도들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현실화한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로씨야는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공통한것**(전인민적 계산과 통제)을 거치지 않고서는 현 경제상태로부터 전진할수

없는만큼 〈국가자본주의로의 진화〉앞에 놀라며 또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것은 리론상 그야말로 어리석은짓이다. 이것은 바로 사고에 있어서 〈진화〉의 진정한 길로부터 〈딴 길로〉 떨어져 나가는것이며 또 이 길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상으로는 소소유자적자본주의로 역전시키는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국가자본주의를 〈높이〉 평가하는것은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볼쉐위크가 정권을 장악하기전에도 동일한 평가를 하였다는것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나는 1917년 9월에 쓴 〈닥쳐오는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것인가?〉에서 발취를 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융케르-자본가국가 대신에, 지주-자본가국가 대신에 혁명적-민주주의적국가를, 즉 일체의 특권을 혁명적으로 타파하고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의 혁명적실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를 바꿔놓아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진정으로 혁명적-민주주의적국가밑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사회주의로의 1보전진을 의미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적독점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간것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가장 완전한 물질적준비이며 그의 입구이며 이 단계와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는 단계사이에는 아무런 중간단계도 없는 그러한 력사의 사다리의 한 단계인것이다.〉(27페지 및 28페지)①

이것은 께렌스끼정권하에서 쓴것으로 나는 여기서 무산계급독재나 사회주의국가를 념두에 두고있은것이 아니라 〈혁명적-민주주의적〉국가를 념두에 두고있었다는 점에 류의하라.

---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162, 163, 164페지를 보라. —편집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치적단계를 **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또 우리가 사회주의국가와 무산계급독재를 **보다 더 완전하게** 쏘베트에 구체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국가자본주의>를 **더욱더 적게** 무서워하여도 좋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또 우리가 **물질적**, 경제적, 생산적 의미에서 아직 사회주의의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하였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들어서지 못한 이 <입구>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문안으로 들어서지 못할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 * *

다음과 같은 사정도 또 극히 교훈적이다.

우리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하린동지와 론쟁하였을 때에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문가들에게 높은 급료를 지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레닌보다 우익에 서있다.>, 왜냐 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속매하는것으로 이 도당으로부터 해방되는것>142(즉 자본가들의 도당으로부터 해방되는것, 다시말하면 자산계급으로부터 토지, 공장 및 기타 생산수단을 **속매하는것**)이 로동계급에 대하여 가장 적절할것이라고 한 맑스의 말을 상기할 때 전문가들에게 높은 급료를 지불하는것은 결코 근본원칙으로부터 떨어진것이 아니니까라고.

이것은 극히 흥미있는 지적이다.…

…맑스의 말을 잘 음미하여보자.

맑스는 지난 세기 70년대의 영국을 두고 말한것이며 독점자본주의이전의 자본주의의 최성기를 두고 말한것이며 당시 군국주의와 관료기구가 어느 나라보다도 적게 존재하며 로동자가 자본가로부터 <속매>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평화적>승리의 가능성이 가장 많던 나라인 영국을 두고 말한것이다. 그리하여 맑스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로동자는 자산계급으로부터 속매하는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

다. 맑스는 변혁시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것이며 전체 정세가 변혁의 행정에서 변화할것이며 빈번하게 또 강력하게 변화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그는 변혁의 형태, 방식, 방법에 관하여 자기의—동시에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의 활동가들의—견해를 융통성이 없도록 고정시켜놓지 않았던것이다.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착취자들의 군사적반항과 태공이 진압된 **이후** 쏘베트로씨야에 조성된 **약간**의 조건들은, 만일 50년전에 영국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을 경우에 그곳에 조성될수 있었을 그러한 조건들과 같은 형이라는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 당시의 영국에서 로동자가 자본가를 복종시키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보장될수 있었을것이다. (1) 농민들이 없었기때문에 로동자, 즉 무산계급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었던것(70년대의 영국에는 농업로동자들사이에서의 사회주의의 비상히 급속한 성공을 기대할수 있게 하는 많은 징조가 보이였다.), (2) 직업동맹내에서의 무산계급의 우수한 조직성(영국은 이 점에서 세계에서 첫째가는 나라였다.), (3) 몇세기에 걸친 정치적자유의 발전에 의하여 훈련된 무산계급이 비교적 높은 교양을 가지고있은것, (4) 정치적 및 경제적 제 문제를 타협에 의하여 해결하는, 훌륭히 조직된 영국자본가들의 오랜 관습—당시 그들은 전 세계의 다른 어떠한 나라의 자본가들보다도 가장 잘 조직된 자본가들이였다.(오늘에 와서는 독일이 이 점에서 첫자리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해서 당시 영국의 자본가들을 로동자들에게 **평화적으로** 복종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이 복종은 일정한 구체적전제조건(10월혁명의 승리와 10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친 자본가들

의 군사적반항 및 태공의 진압)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승리의 요인으로 된것은 로동자, 즉 무산계급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거나 높은 조직성을 가진데 있은것이 아니라 급속히 령락하는 극빈한 농민들이 무산계급을 지지한데 있었던것이다. 끝으로 우리 나라에는 높은 교양도 없었고 타협의 관습도 없었다. 이와 같은 구체적조건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지금 두가지 방법을 결합시킬수 있으며 또 반드시 결합시켜야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즉 교양이 없고 조금치도 <국가자본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어떠한 타협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투기를 하든가 빈민을 매수하는 등등의 수단으로써 쏘베트적시책의 파괴를 계속하고있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제재하는 방법과 교양이 있으며 <국가자본주의>에 동의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실시할 능력이 있으며 또 실지로 천백만의 사람들에게 생산물을 공급하는 대기업소들의 령리하고 경험있는 조직자로서 무산계급에게 유익한 그러한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실시하는 방법이나 속매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을 결합시킬수 있으며 또 반드시 결합시켜야 한다는것이 명백하게 될것이다.

부하린은 훌륭한 교양을 가진 맑스주의경제학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맑스가 바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생산의 조직을 보존하는것이 중요하며 조성된 정세로 말미암아(례외로서—그리고 영국은 그 당시 그러한 례외였다.) 자본가들이 평화적으로 복종하며 속매의 조건하에서 교양있는자답게 조직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경우에는 자본가에게 상당한 보상을 할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속매할수 있다고 로동자들에게 교시한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오유에 빠졌다. 그것은 그가 로씨야에서

의 현시기—바로 례외적인 시기—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이다. 현재 우리들 로씨야의 무산계급은 우리의 정치체제와 로동자들의 정치적권력의 힘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보다도 앞서 있으나 그와 동시에 훌륭하게 조직된 국가자본주의라는 점에서 교양의 수준에서 또 사회주의의 물질적-생산적준비정도에서는 서구라파의 가장 뒤떨어진 나라보다도 더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독특한 정세로 하여 오늘 가장 교양이 많고 가장 재능이 있고 또 가장 조직력이 있는 자본가로서 쏘베트정권에 봉사하며 대규모 및 최대규모의 〈국가〉생산의 조직을 성실히 방조할 용의를 가진자에게 로동자가 제의하여야 할 독특한 〈속매〉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는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독특한 정세하에서 우리들은 다같이 소자산계급적인 두가지 오유를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힘〉이 정치적인 힘과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이 인정되고있는〈만큼〉 정권을 장악할 필요는 없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만회할수 없는 오유로 될것이다. 〈부합〉이라는것은 결코 있을수 없다는것, 그것은 사회의 발전에서나 자연의 발전에서나 마찬가지로 있을수 없다는것, 사회주의의 승리는, 그 하나하나를 두고보면 일면적이고 어느 정도의 불일치를 면할수 없는 일련의 시도를 통하여 모든 나라의 무산계급의 혁명적협력으로써 이루어진다는것을 망각하는 〈갑속에 든 사람〉143만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할것이다.

다른 한편 〈눈부신〉 혁명적열정에 들뜨고있으나 그러나 인내성있고 조심성있고 계획성있고 가장 곤난한 이행단계들을 고려하는 혁명사업은 할줄 모르는 허풍선이들이 하고싶은대로 다하도록 방임하는것도 명백한 오유일것이다.

다행히도 혁명적정당들의 발전사와 또 그들에 대한 볼쉐

위크주의의 투쟁사는 우리들에게 극히 선명한 류형들을 유산으로서 남겨주었다. 이러한 류형들중에서도 좌익사회혁명당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은 렬등한 류형의 혁명가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지금 《우익볼쉐위크》들의 《타협》을 반대하여 히스테리가 될만큼 목이 쉬도록 절규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이 어찌하여 나빴으며 또 무엇때문에 력사와 혁명의 행정에 의하여 정당하게도 비난을 받게 되였는가를 생각하지 못한다.

께렌스끼시대의 타협은 정권을 제국주의적자산계급에게 내주는것이였다. 그런데 정권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문제인것이다. 1917년 10～11월에 있어서의 일부 볼쉐위크들의 타협은 무산계급의 정권장악을 두려워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좌익사회혁명당원들과 같은 《믿지 못할 동반자》들뿐만아니라 체르노브일파나 멘쉐위크와 같은 적들과도 정권을 똑같이 나누려는것이였다. 이러한 적들은 기본적인 문제들, 즉 헌법제정회의의 해산, 보가옙스끼144도당의 무자비한 격파, 쏘베트기관들의 제 방책의 완전한 관철, 매차폐의 몰수 등등에서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였을것이다.

지금 정권은 아무러한 《믿지 못할 동반자》도 없이 하나의 당, 즉 무산계급의 당에 의하여 장악되고있으며 견지되고있으며 공고화되고있다. 정권을 나눈다거나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독재를 포기한다거나 하는것이 벌써 문제로 되지 않으며 또 될수도 없는 오늘날 타협에 관하여 운운하는것은 앵무새와 같이 암송은 하나 리해는 못하는 말을 단지 되풀이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다. 나라를 관리할수 있고 또 관리하여야할 처지에 있는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자본주의에 의하여 훈련받은 가장 교양있는 분자들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며 그들을 소소유자적붕괴를 방지하는데 리용하려고 노

력하는것을 〈타협〉이라고 부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경제적 과업을 전혀 리해하지 못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①

현물세, 상업의 자유 및 리권에 관하여

이상에 인용한 1918년의 론의에는 기간문제에서 여러가지 오유가 있다. 기간은 그때 생각한것보다 더 길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본요소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빈농》(무산계급과 반무산계급)은 대다수의 경우에 중농으로 화하였다. 이때문에 소소유자적-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은 강화되였다. 1918～1920년의 국내전쟁은 나라를 극도로 피폐하게 하였으며 생산력의 복구를 저해하였으며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다른 어느 계급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20년의 흉작, 사료부족, 가축의 죽음은 운수와 공업의 복구를 가일층 지연시키였다. 례를 들면 그것은 주요연료인 신탄을 농민의 말로써 운반하는것을 저해하였다.

그 결과 1921년 봄에 이르러 조성된 정치정세는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결정적이고 시급한 비상대책을 취할것을 급선무로 제기하였다.

어째서 로동자들의 처지개선을 말하지 않고 농민들의 처지개선을 운운하는가?

그것은 로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곡물과 연료가 필요한 까닭이다. 지금 전체 국가경제의 견지로 보아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이러한 물자의 결핍이다. 그런데 곡물생산과 수확을 증가시키며 연료의 조달과 공급을 증가시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540～552페지를 보라. —편집자

키는데는 농민의 상태를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높이는외에 별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농민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자, 이와 같이 농민을 첫자리에 내세우는것을 무산계급독재의 《포기》라든가 또는 무산계급독재의 포기와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하는자들은 사물을 도대체 심사숙고하지 않고 공담을 일삼는자들이다. 무산계급독재라는것은 정책에 대한 무산계급의 지도이다. 지도계급이며 지배계급인 무산계급은 가장 긴급한 과업, 《어려운》 과업을 제일먼저 해결하도록 정책을 지도할줄 알아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절박한것은 농업생산력을 즉시 높일수 있는 대책이다. 오직 이러한 대책에 **의하여서**만 로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공고화하며 무산계급독재를 강화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대책에 의하지 않고** 로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저 하는 무산계급이나 무산계급의 대표자는 **사실에 있어서** 백위군과 자본가를 지지하는자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이 대책에 의거하지 않는다는것은 곧 로동자들의 동업조합적리해관계를 계급적리해관계보다 높이 내세우는것을 의미하며 또 로동자들의 목전의 일시적인 부분적리익때문에 전체 로동계급의 리익, 무산계급독재의 리익을 희생시키며 지주 및 자본가를 반대하는 로농동맹의 리익을 희생시키며 또 로동을 자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 투쟁에서의 로동자들의 지도적역할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농민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긴급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것은 식량정책에서의 중대한 변경이 없이는 실시할수 없다. 이러한 변경이 곧 잉여곡물징수제를 현물세제로 교체하여 적어도 지방의 경제적류통에서는 현물세를 납부한후에 여유곡물을 자유로 판매케 하는것이였다.

잉여곡물징수제를 현물세제로 바꾸는 대책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그릇된 생각들이 극히 널리 전파되여있다. 이 그릇된 생각들은 대부분이 이행의 본질에 깊이 파고들지 않는 까닭에 또 이 이행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것인가를 생각하여보지 않는 까닭에 생기는것이다. 마치 공산주의일반으로부터 자산계급체제일반으로 이행하는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오유에 대하여서는 1918년 5월에 론의된것을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현물세는 극도의 궁핍과 파괴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취하지 않을수 없었던 특수한 《전시공산주의》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주의적생산물교환으로 이행하는 형태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후자는 소농민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데서 오는 특수성들을 가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형태의 하나이다.

《전시공산주의》의 특수성은 우리가 실지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전체 잉여곡물뿐만아니라 때로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의 일부까지도 군대를 위한 지출과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을 위하여 거두어들인 점에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 곡물을 대부분 외상으로, 즉 지폐와 교환하여 거두어들이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황폐한 소농민적인 나라에서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할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착취자들이 세계의 최강국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다만 로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기적적영웅성을 발휘하였는가를 보여줄뿐만아니라 또한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 카우쯔키일파가 이러한 《전시공산주의》때문에 우리를 론죄할 때에 그들이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자산계급적종복의 역할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전시공산

주의》는 우리의 공적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공적의 진정한 한계를 아는것은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일이다. 《전시공산주의》는 전쟁과 파괴로 말미암아 부득이 취한것이였다. 그것은 무산계급의 경제적과업에 합당한 정책이 아니였으며 또 그럴수도 없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대책이였다. 소농민적인 나라에서 자기 계급의 독재를 실시하는 무산계급의 옳은 정책은 농민에게 필요한 공업생산물과 곡물과를 교환하는것이다. 이러한 식량정책만이 무산계급의 과업에 적합한 정책이며 또 이러한 정책만이 사회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현물세는 이러한 정책에로의 이행이다. 우리는 아직도 심한 파괴속에 있으며 아직도 전쟁(어제날의 전쟁 및 자본가의 탐욕과 악의로 말미암아 래일에라도 발발할는지 모르는 전쟁)의 중압에 눌려있기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곡물의 전부에 대해서 농민에게 공업생산물을 공급할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때문에 현물세제를 실시한다. 즉 최소한으로 필요한(군대와 로동자를 위하여) 곡물은 조세로서 징수하고 그 나머지는 공업생산물과 교환하려는것이다.

여기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빈궁과 파괴가 심한 까닭에 대규모의 국가적사회주의적공업생산을 일거에 복구할수는 없다. 우리의 공업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공업의 중심지에 곡물과 연료의 막대한 저장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마멸된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등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이것을 일거에 해낼수는 없다는것을 확신케 되였다. 우리는 파괴적인 제국주의전쟁이 있은후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선진적인 나라일지라도 어느 정도 극히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야 이러한 과업을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므로 소규모공업

의 복구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소규모공업에는 기계가 요구되지 않으며 또 국가적인 대량의 원료, 연료, 식량의 저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은 농민경제에 즉시로 도움을 주고 그 생산력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될것인가?

어느 정도의(비록 다만 지방적인것이기는 하지만) 자유상업의 토대우에서 소자산계급과 자본주의의 부활이 생길것이다. 이것은 극히 명백하다.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이것은 필요한 일인가? 이것은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가? 이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허다히 제기되고있는데 그것은 다수 경우에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소박성(완곡하게 말하자면)을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는다.

1918년 5월에 내가 우리 나라 경제에 존재하고있는 각종 사회경제구조의 제 요소(구성부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가를 한번 보기 바란다. 그 모든 다섯단계(또는 구성부분)가 현존하고있다는것, 가부장제적구조, 즉 반야만적구조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적구조에 이르는 이 모든 다섯개의 사회경제구조가 현존하고있다는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소농민적인 나라에 있어서는 소농민적인, 즉 부분적으로는 가부장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소자산계급적인 《구조》가 우세를 차지한다는것은 지극히 명백한 일이다. 교환이 존재하는 한 소경영의 발전은 소자산계급적발전이며 자본주의적발전이다. 이것은 다툴수 없는 진리로서 일상적경험과 심지어 일반속인들의 관찰에 의하여서도 확증되는 정치경제학의 초보적진리이다.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은 이러한 경제적현실에 직면하여 어

떠한 정책을 취할수 있는가? 곡물 및 원료와 교환으로 사회주의적대규모공장의 생산물중 소농민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그들에게 줄것인가? 이것은 가장 리상적인 정책이며 가장 《정당한》 정책일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농민에게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다 줄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멀었으며 급속히 그렇게 할수는 없을것이다. 적어도 전국의 전기화를 위한 제1기공사만이라도 완성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천백만의 소생산자들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피할수 없는 사적교환, 국가적이 아닌 교환, 즉 상업, 즉 자본주의의 일체 발전을 금지하고 완전히 봉쇄하도록 할것인가? 이러한 정책은 우둔한 정책이며 이 정책을 수행하려는 당의 자살로 될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실현될수 없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우둔하며 또 이러한 정책을 시험하는 당은 반드시 패망하고말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자살이다.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책에 기울어져 그《사상, 언어, 행동》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였다는것을 숨겨서 무엇하랴. 이러한 오유를 시정하기에 노력하자. 이것은 꼭 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주 틀어질것이다.

그러므로(이것은 가능하며 또 유일하게 합리한 최후의 정책인데) 자본주의의 발전을 금지하거나 봉쇄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올려세우도록 노력할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왜냐 하면 자유상업과 자본주의일반의 제 요소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이런 또는 저런 정도로—국가자본주의가 존재하기때문이다.

쏘베트국가, 무산계급독재가 국가자본주의와 결합, 련합, 병존하는것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나는 벌써 1918년 5월에 이것을 렵증하려고 하였다. 나는 1918년 5월에 이것이 렵증되였다고 보고싶다. 그뿐만아니라 나는 당시 소소유자적(소가부장제적이기도 하고 소자산계급적이기도 한)자연발생성에 비하여 국가자본주의가 1보전진이라는것을 렵증하였다. 현재의 정치경제적정세하에서는 국가자본주의를 반드시 소자산계급적생산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자본주의를 다만 사회주의와만 대비 또는 비교함으로써 무수한 오유들을 범하고들 있다.

요컨대 문제는—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어느 정도 또 일정한 기간) 불가피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을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옮기여놓으며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제 조건을 조성하며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옳은 방법을 찾아내는데 있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쏘베트체계내에서, 우리 쏘베트국가의 틀안에서 국가자본주의가 실지에 있어서 어떠한것으로 될것이며 또 어떠한것으로 될수 있는가를 되도록 명확하게 알아야 할것이다.

쏘베트정권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올려세우며 또 어떻게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실례는 리권이다. 리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바이지만 리권의 의의가 어떠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사회경제구조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쏘베트체계하에서의 리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소유자적(가부장제적 및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을 반대하여 쏘베트적, 즉 무산계급적 국가권력과 국가자본주의가 맺는 계약, 뿔럭, 동맹이다. 리권소유자는 자본가이다. 그는 리윤을 위하여 자본주의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그

는 특별리윤, 초과리윤을 위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써는 전연 얻을수 없거나 또는 극히 얻기 어려운 원료를 얻기 위해서 무산계급정권과 계약을 체결한다. 쏘베트정권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당장에 또는 최단기간내에 생산물의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리득을 얻게 된다. 례컨대 우리가 백개소의 기업, 광산, 삼림구를 가지고있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는 기계, 식량, 운수수단의 부족으로 이것을 전부는 리용할수 없다. 같은 원인으로 하여 우리는 다른 지구도 잘 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소들이 졸렬하게, 불충분하게 리용되는 결과에 모든 면에서 소소유자적자연발생성이 강화된다. 즉 주변의(후에는 전체적인) 농민경제의 약화, 그 생산력의 쇠퇴, 쏘베트정권에 대한 농민의 신뢰의 상실, 공동재산의 략취, 수다한 소규모의(가장 위험한) 투기 등등이 생긴다. 쏘베트정권은 리권의 형태로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소생산을 반대하여 대생산을, 락후한 생산을 반대하여 선진적인 생산을, 수공업적생산을 반대하여 기계에 의한 생산을 강화하며 자기 수중에 들어올 대규모공업의 생산물의 량(우리에게 배당되는 몫)을 증가시키며, 소자산계급적-무정부주의적경제관계를 반대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경제관계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신중히 실시되는 리권정책이 생산상태와 로동자, 농민의 형편을 급속히(크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희생이 필요하다. 즉 수천만뿌드의 극히 귀중한 생산물을 자본가들에게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어떤 조건에서 리권을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것은 힘의 상호관계여하에 달려있으며 투쟁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왜냐 하면 리권도 하나의 투쟁형태이고 다른 형태에서 수행되는 계급투쟁의 연장이며 결코 계급투쟁을 계급적평화로써 대

체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투쟁의 방법은 실천이 가르쳐줄 것이다.

리권형태의 국가자본주의는 쏘베트체계내에 있는 다른 형태의 국가자본주의에 비하여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륜곽이 뚜렷한 그런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가장 문화적이며 가장 선진적인 서구라파자본주의와 공식적인 문서상의 계약을 체결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리익과 손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며 리권을 허여하는 기한을 정확히 알며 또 만일 계약에서 기한전에 리권을 회수할 권리가 예견되여있을 경우에는 기한전회수의 조건들도 알고있다. 우리는 전 세계 자본주의에 일정한 《공물》을 바친다. 또 쏘베트정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경제상태를 개선하는 일정한 방책을 즉시로 얻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전 세계 자본주의로부터 《속매하는것으로 자기를 해방시키는》셈이 된다. 과업의 곤난성은 전적으로 리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를 숙고하고 경중을 달아보며 그다음에 계약리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에 귀착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곤난한 일이다. 그리고 최초에는 확실히 과오도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나 사회혁명의 다른 과업들에 비하면, 특히 국가자본주의의 발전, 허용, 도입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들에 비하면 이 곤난은 가장 적은것이다.

현물세의 실시에 따르는 전체 당일군 및 쏘베트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리권》정책(즉 《리권적》국가자본주의와 같은 정책)의 원칙, 원리, 기초를 자유상업, 지방적인 류통 등 자본주의의 기타 형태들에 적용할줄 아는것이다.

협동조합을 들어보자. 현물세에 관한 법령이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즉시 재검토하게 하고 또 협동조합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확장시킨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도 또한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덜 단순하며 륜곽이 덜 명확하며 좀더 착잡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정권앞에 더 큰 곤난을 가져온다. 소상품생산자들의 협동조합(소농민적인 나라에서 우세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으로서 론의되는것은 로동자들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소상품생산자들의 협동조합이다.)은 불가피적으로 소자산계급적자본주의적관계를 낳으며 그 발전을 촉진하며 소자본가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에게 최대의 리익을 준다. 소경영자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고 교환의 가능성이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교환의 필요성이 있는 이상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씨야의 현정세에서 협동조합의 자유와 권리는 자본주의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는것은 바보같은 행위가 아니면 범죄이다.

그러나 쏘베트정권하에서는 《협동조합적》자본주의는 사경영적자본주의와는 달라서 국가자본주의의 한 변종이며 또 그러한 변종으로서 그것은—물론 일정한 정도에서이긴 하지만—현재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것이다. 현물세제가 나머지(조세로서 징수되지 않는) 잉여곡물의 자유판매를 의미하는것만큼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발전—자유판매, 자유상업은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인 까닭에—을 협동조합적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올려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협동조합적자본주의는 계산, 통제, 감시 그리고 국가(이 경우에는 쏘베트국가)와 자본가간의 계약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자본주의와 류사하다. 상업의 형태로서의 협동조합은 사적상업보다도 유리하고 유익하다. 그것은 상술한 리유에서뿐만아니라 또한 협동조합이 천백만 주민들 나아가서는 전체 주민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통합조직하는것을 용이케 하며 또 이 사정

은 금후 국가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견지에서 볼 때 거대한 우점으로 되기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의 두 형태인 리권과 협동조합을 대비하여보자. 리권은 대기계제공업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협동조합은 소규모의 수공업적생산에, 일부분은 가부장제적생산에 기초하고 있다. 리권은 매개의 개별적리권계약에서는 한 자본가, 한 회사, 한 신지케이트, 카르텔, 트레스트를 상대로 한다. 협동조합은 수천명의, 심지어는 천백만명의 소경영자들을 포괄한다. 리권은 정확한 계약과 정확한 기한을 시인하며 이를 전제로 하기까지 한다. 협동조합은 정확한 계약도 기한도 전연 시인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을 페기하는것은 리권계약을 파기하는것보다 대단히 용이하다. 이러한 계약의 파기는 자본가와의 경제적동맹 또는 경제적《동거》라는 사실상의 관계를 일거에, 단순히, 지체없이 단절하는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의 어떠한 페기나 또는 어떠한 법령들도 쏘베트정권과 소자본가들의 사실상의《동거》를 일거에 페기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사실상의 경제적관계를 결코 페기할수가 없는것이다. 리권소유자들은 용이하게 《감시》할수 있으나 협동조합일군들은 《감시》하기가 곤난하다. 리권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대규모생산의 한 형태로부터 대규모생산의 다른 한 형태로의 이행이다. 소경영자들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소생산으로부터 대규모생산으로의 이행이다. 즉 이 이행은 일층 착잡하나 그대신 일단 성공하는 경우에는 일층 광범한 주민대중을 포괄할수 있으며 전사회주의적인 낡은 관계들의 일층 깊고 생활력이 왕성한 뿌리를, 아니 일체의 《혁신》을 반대하는 점에서의 가장 완고한 전자본주의적인 낡은 관계들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릴수 있는 이행이다. 리권정책은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현대의 선진자본주의의 수준에 서있는 약간의 모범적인—우리의것에 비하여—대기업들을 우리에게 제공할것이다. 그리고 수십년후에는 이것들은 전부 우리의것으로 되고말것이다. 협동조합정책은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소생산의 앙양을 가져올것이며 기간은 확정할수 없지만 하여튼 자원적결합의 원칙에서 소생산이 대규모생산으로 이행하는것을 용이하게 할것이다.

국가자본주의의 제3의 형태를 들어보자. 국가는 자본가를 상인으로서 끌어들이여 국가의 생산물의 판매와 소생산자들의 생산물의 구매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국가자본주의의 제4의 형태는 국가가 기업가—자본가에게 국가에 속하는 기업, 채취부문, 삼림구, 토지 등등을 임대하는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대계약은 리권계약과 흡사하다. 국가자본주의의 마지막 이 두 형태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전혀 론의하지 않고있으며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있으며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강하고 현명한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우둔한때문에 생기는것이다. 우리는 《범속한 진리》를 정시하기를 두려워하고 너무나 자주 《고상한 기만》145에 도취하고만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라는것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그리고 명확히 알아야 할것을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다고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 명백한 관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1918년 5월 5일의 론문에 열거한 우리 경제의 모든—반드시 예외없이 모든—구성부분들을, 즉 각종의 모든 사회경제적구조들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무산계급의 전위이며 선봉대인 《우리》는 직접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다. 그러나 선봉대는 전체 무산계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또 무산계급은 전체 주민대중의 소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주의로 직

접 이행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본주의적**관계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데 어떠한 **중개적인** 방도, 방법, 수단 및 보조적방책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 점에 문제의 중심이 있다.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지도를 보라. 월로그다이북, 돈강반의 로스또브, 싸라또브의 동남방, 오렌부르그와 옴스크의 남방, 똠스크이북에는 수십의 대문명국들이 들어설수 있을만한 광대한 지역이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지역에는 가부장제적상태, 반야만상태, 가장 전형적인 야만상태가 지배하고있다. 로씨야의 기타 모든 지역의 벽촌은 어떠한가? 수십리의 촌길, 더 정확히 말하면 수십리씩 길이 없이 철도선과 격리되여있는 곳들, 즉 문화, 자본주의, 대공업, 대도시와의 물질적련계가 없는 곳들이 도처에 있다. 과연 이러한 곳들에서는 가는 곳마다 가부장제적상태와 오블로모브적기풍146과 반야만상태가 지배하고있지 않단말인가?

로씨야에서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이러한 상태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직접적인 이행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한개의 조건하에서만 생각할수 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오늘은 이미 끝난 거대한 과학연구사업의 덕택으로 정확히 알게 된것인데 그것은 전기화이다. 만일 우리가 수십개의 지구발전소를 건설한다면(지금 우리는 이 발전소를 어디다 어떻게 건설할수 있으며 건설해야 하는가를 알고있다.), 만일 우리가 이 발전소들로부터 각 촌락에 전기를 공급한다면, 만일 우리가 충분한 량의 전기모터와 기타 기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가부장제적상태와 사회주의를 중개하는 고리인 이행단계들은 전연 필요치 않게 되거나 또는 거의 필요치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조건을 위한 제1기공사만 하여도 적어도 10년을 요할것

이며 이 기간의 단축은 또 영국,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나 생각할수 있게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이제부터 수년간은 가부장제적상태와 소생산으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중개의 고리에 관하여 생각할줄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아직도 왕왕 《자본주의는 악이고 사회주의는 선》이라는 식의 론의를 되풀이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론의는 옳지 않다. 왜냐 하면 이 론의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구조들의 총체는 간과하고 그중에서 두가지만을 끄집어내는것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대비할 때에는 악이다. 그러나 중세기와 대비할 때, 소생산과 대비할 때, 소생산자들의 분산성과 련결되여있는 관료주의와 대비할 때에는 자본주의는 선이다. 우리가 아직도 소생산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직접적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이상 자본주의는 소생산 및 교환의 필연적결과로서 어느 정도 불가피적인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소생산과 사회주의를 중개하는 고리로서 또 생산력을 높이는 수단, 길, 방법, 방도로서 자본주의를 리용(특히 그것을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올려세워)하여야 할것이다.

관료주의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경제적면을 고찰하자. 1918년 5월 5일에는 관료주의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있지 않았다. 10월혁명후 반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낡은 관료기구를 상부에서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분쇄한후 반년이 지났을 때 우리들은 아직 관료주의의 폐해를 느끼지 않았다.

1년이 또 지났다. 1919년 3월 18일부터 23일에 이르는 로씨야공산당 제8차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강령이 채택되였다. 이 강령에서 우리는 폐해가 있다는것을 승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폐해를 폭로규탄하려는 희망밑에, 또 이 폐해와

투쟁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상, 의지, 정력을 발동시키며 행동을 불러일으키려는 희망밑에 《**쏘베트체제내에서의 관료주의의 부분적부활**》147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다시 2년이 지났다. 관료주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1920년 12월) 제8차쏘베트대회109이후, 관료주의의 분석과 밀접히 관련되여있은 론쟁을 총화한 로씨야공산당 제10차대회134(1921년 3월)이후 1921년 봄에 와서 우리는 관료주의의 **이** 폐해가 일층 명확하게, 일층 현저하게, 일층 위협적으로 우리앞에 나타나는것을 보았다. 관료주의의 경제적근원은 무엇인가? 이 근원은 주로 두가지이다. 일방에 있어서는 바로 로동자들(부분적으로는 농민들)의 혁명운동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전한 자산계급에게는 관료기구가 필요하게 되며 우선 군사기구와 그 다음에는 재판기구 등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것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판소는 계급적인것이며 자산계급을 반대하는것이다. 우리의 군대는 계급적군대이며 자산계급을 반대하는것이다. 관료주의는 군대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에게 봉사하는 제 기관내에 있다. 우리에게는 관료주의의 다른 경제적근원이 있다. 소생산자들의 령세성, 분산성과 그들의 빈궁, 비문화, 교통의 불편성, 문맹,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의 결여, 량자간의 련결 및 상호작용의 결여가, 즉 그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국내전쟁의 결과이다. 우리는 봉쇄를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포위되여 전 세계로부터, 다음에는 곡창지대인 남부로부터, 씨비리로부터, 탄전지대로부터 차단되였던만큼 공업을 복구할수 없었다. 우리는 《전시공산주의》의 실시를 주저할수 없었다.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에 의거하기를 겁내지 않았다. 즉 우리는 반기아의 생활, 아니 반기아보다 더한 생활도 이겨내며 전대미문의 파괴와 류통의 두절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로동자와 농민의 정권을 사수하

여야만 하였다. 사회혁명당원들과 멘쉐위크를 놀라게 한 그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그들은 사실상 질겁하고 공포를 느낀 까닭에 자산계급을 따라갔다.) 그러나 봉쇄를 당한 나라, 포위를 당한 성새에서 승리의 조건으로 되였던 그것은 바로 1921년 봄에 최후의 백위군부대들이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령토에서 종국적으로 소탕된 때에 이르러서는 그의 부정적면을 나타내였다. 포위를 당한 성새에서는 일체의 류통을 《봉쇄》해버릴수 있었고 또 그것이 필요하였다. 즉 대중이 류례없는 영웅적정신을 발휘하고있는 조건하에서는 3년간 이것을 참아낼수 있었다. 그후 소생산자들의 령락은 더욱 심하여졌으며 대규모공업의 복구는 지연되고 연기되였다. 관료주의는 《포위》의 유산으로서, 소생산자들의 분산성과 마비상태우에 구축된 상부구조로서 그 전모를 나타내게 되였다.

페해와 견결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몇번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함이 없이 페해를 인정할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몇번이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다하지 못한 일을 바로잡으며 과업을 해결하는 각종 방도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대규모공업의 복구가 지연되고 공업과 농업간의 류통의 《두절》이 참을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것은 쉬운 방법, 즉 소생산의 복구에 달라붙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면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며 전쟁과 봉쇄로 말미암아 절반이나 무너진 건물의 이 측면에 버팀목을 대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하여(경제적으로는 지주와 자산계급의 수탈에 의하여, 정치적으로는 로동자와 농민의 정권에 의하여) 극히 협소하고 매우 《온당한》 한계를 설정하여놓았기때문에 자본주의를 두려워할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수단으로 류통을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이러한것이 현물세의 기본사상이

며 또 현물세가 가지는 경제적의의다.

당 및 쏘베트 기관의 모든 일군들은 비록《사소한》수단으로라도, 비록 작은 범위에서라도 농업을 즉시로 발전시키며 부근의 소규모공업의 발전에 의하여 농업을 돕는 견지에서, 경제건설에서의 각 지방들—성 그보다도 현, 또 그보다도 향과 촌—의 창발성을 대대적으로 발휘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전국적인 통일경제계획은 바로 이상과 같은 점이 주의와 배려의 초점, 《돌격적》인 사업의 초점으로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이 면에서, 즉 가장 광범하고 가장 깊은《토대》에 가장 가까이 서있는 이 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최단기간내에 대공업의 보다 정력적이며 보다 성과적인 복구에로 이행할수 있게 될것이다.

량정일군들은 지금까지 한개의 기본적인 지령, 즉 잉여량곡을 100%로 징수하라는 지령만을 알고있었다. 이제 와서는 지령이 달라졌다. 그것은 최단기간내에 현물세를 100%로 징수하고 그다음에 대규모공업 및 소규모공업의 생산물과 교환하여 잉여량곡의 100%를 징수하라는것이다. 현물세를 75% 징수하고 대소규모공업의 생산물과 교환하여 또 75%(제2의 100%중에서)를 징수한 사람은 현물세를 100% 징수하고 교환에 의하여 55%(제2의 100%중에서)를 징수한 사람보다 국가에 더 유익한 일을 한것으로 된다. 량정일군들의 과업은 일층 복잡하게 되였다. 일방으로 이것은 재정적과업이다. 즉 되도록 속히, 되도록 합리적으로 현물세를 징수해야 한다. 타방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경제적과업이다. 즉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이 증대되고 공고화되도록 지방에서 협동조합을 지도하고 소규모공업에 원조를 주며 창의창발성을 발휘시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이 과업을 극히 졸렬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증거가 곧 관료주의이다. 우리는 아직도 **자본가에게서 많은것을 배울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성, 현, 향, 촌별로 실천적경험의 총화를 비교할 때 한 지방에서 대소의 사경영적자본가들이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그들의 리윤이 대략 약차약차하다고 하자. 이것은 우리가 《수업료》로서 바친 공납이며 료금이다. 우리가 똑똑히 배우기만 한다면 수업료는 아까울것이 없다. 또 린접한 지방에서는 협동조합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었고 조합들의 리익은 약차약차하다고 하자. 그런데 제3의 지방에서는 순수한 국가적방법, 순수한 공산주의적방법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자.(제3의 경우는 현재에 있어서는 희귀한 례외일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매개 지방의 경제적중심기관이나 매개 성의 집행위원회소속의 경제회의가 지체없이 제1차적사업으로서, 현물세를 납부한후에 남은 잉여곡물의 각종 《류통》경험 또는 체계를 즉시 총화하도록 하는데 있다. 수개월후에는 이것들을 대비연구할수 있는 실재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지방산의 소금이나 수입한 소금, 중심지로부터 가져온 등유, 수공업적인 목재가공업, 비록 그리 중요한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지방원료를 사용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약간의 생산물을 공급하는 수공업, 《백탄》(전기화를 위한 소규모의 지방수력자원의 리용) 등등—이러한 모든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업과 농업간의 류통에 활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활용되여야 한다. 비록 사경영적자본주의에 의하여 달성한것이건, 또는 심지어 협동조합에 의거하지 않거나 또 이 자본주의를 직접 국가자본주의로 전화시키지 않고 달성한것이건 어쨌든 이 분야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사람은 공산주의의 순수성에 관하여 《숙고》하고 국가자본주의와 협동조합에 대한 규

정, 규칙, 지령이나 쓰면서 실제적으로는 류통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전 로씨야적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더 많은 리익을 줄것이다.

사경영적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방조자의 역할을 한다는것은 역설이 아닌가?

아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오늘의 우리 나라는 소농민적인 나라인데다가 운수기관은 극도로 파괴되였고 전쟁과 봉쇄로부터 지금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으며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대규모공업과 운수를 장악하고있는 무산계급이 지도하는 나라인만큼 그 필연적귀결로서 첫째로, 류통이 현시기에 있어서 제1차적의의를 가지게 되며 둘째로, 사경영적자본주의(국가자본주의에 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에 의한 사회주의의 촉진이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말마디를 가지고 론쟁하는 일을 적게 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과오를 너무도 많이 범하고있다. 될수 있는대로 더 많이 하여야 할것은 실제적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또 이것을 연구하는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적인 사업의 모범적조직이—비록 그 규모는 아주 작다 할지라도—수다한 부문의 중앙급의 국가사업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수가 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농민경제면에서, 특히는 농업의 잉여생산물을 공업생산물과 교환하는 면에서 그러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서의 모범적인 사업조직은 비록 그것이 한개 향내의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민위원부의 중앙기관의 《모범적》개선보다 훨씬 더 큰 전국적의의를 가진다.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중앙기관은 과거 3년 반동안에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여 벌써 어느 정도 유해한 경화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우리는 국가기관을

급속히 또 현저히 개선할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모르고있다. 이러한 상태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 새로운 신선한 력량의 류입, 관료주의와의 성과적인 투쟁, 유해한 경화상태의 극복을 위한 원조는 반드시 지방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와야 하며 비록 작기는 하나 어쨌든 바로 완전한 《전일체》의 모범적인 조직으로부터, 즉 한 경제, 한 경제부문, 한 기업소가 아니라 비록 크지 않은 지방의것일지라도 어쨌든 **모든** 경제관계의 **총체**, **모든** 경제적류통의 **총체**의 모범적조직으로부터 와야 하는것이다.

우리들중에서 중앙에 남아 사업하여야 할 사람들은 직접 가능한 범위에서 다소나마 기구를 개선하며 거기에서 관료주의를 소탕하는 사업을 계속할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원조는 지방에서 오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잘되여가고있다. 그렇다, 이것은 리해할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관료주의의 페해가 자연히 중앙에 집중되여있기때문이다. 모스크바는 이 점에서 나쁜 도시가 아닐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화국내에서 가장 나쁜 《곳》이 아닐수 없다. 지방에서는 평균으로부터의 편향에는 두가지 방향이 있는데 나쁜편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는 좋은편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보다 드물다. 나쁜편으로 기울어지는것, 이것은 공산당에 잠입한 과거의 관리, 지주, 자본가 및 기타의 악당들의 직권람용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때때로 농민에 대하여 구역질나는 비행과 추행과 폭언을 가하고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폭력적숙청이 필요하다. 즉 현장에서 재판을 하여 무조건하고 총살해야 한다. 마르또브, 체르노브 및 이와 류사한 비당원속물들은 가슴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것이다. 《주여, 내가 〈그자들〉과 같지 않으며 내가 테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지금도 인정

하지 않는것은 당신의 덕분이외다.》 이러한 바보들은 《테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은 로동자와 농민을 우롱하는데 있어서 백위군의 충복의 역할을 자담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이나 멘쉐위크는 《테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은 《사회주의》의 기발밑에 대중을 **백위군의 테로에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있기때문이다. 로씨야에서는 께렌스끼도배와 끄르닐로브도배, 씨비리에서는 꼴차크도배, 그루지야에서는 멘쉐위크도배들이 이것을 립증하였다. 핀란드, 웽그리아, 오지리, 독일, 이딸리아, 영국 등등에서는 제2국제당과 《제2반》국제당100의 영웅들이 이것을 립증하였다. 백위군의 테로를 돕는 사환군들은 자기들이 일체의 테로를 부정한다고 자찬할테면 하라. 우리는 괴롭지만 그러나 의심할수 없는 진리를 말하겠다. 1914~1918년의 제국주의전쟁후 전고미문의 위기와 낡은 관계의 해체를 겪고있으며 계급투쟁이 첨예화되고있는 나라들에서는—세계 각국이 모두다 그러한데—위선자들과 말공부쟁이들이야 무엇이라고 하든간에 테로없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아메리카식, 영국식(아일랜드), 이딸리아식(파시스트들), 독일식, 웽그리아식 및 기타 각종 방식의 백위군적자산계급적테로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산계급적적색테로이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중간은 없다. 《제3》의것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좋은편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란 관료주의와의 성과적인 투쟁, 로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대한 극히 주의깊은 태도, 경제발전에 대한 커다란 배려, 로동생산능률의 제고, 농업과 공업간의 지방적류통의 촉진이다. 이렇게 좋은편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는 비록 나쁜편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보다는 많으나 그래도 역시 보기 드물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한다. 국내전쟁과 곤궁 속에서 단련된 새롭고 젊고 생기있는 공산주의적력량이

지방의 도처에서 육성되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력량을 밑으로부터 우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등용하는 사업을 대단히 불충분하게 진행하고있다. 이 사업은 보다 더 광범하게 보다 더 근기있게 진행될수 있으며 또 진행되여야 한다. 중앙에서 일하는 약간의 일군들을 그 일에서 떼여내여 지방으로 돌릴수 있고 또 돌려야 한다. 그들은 현이나 **향**의 지도자로 되며 그곳에서 **일체** 경제사업**전반**을 **모범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큰 리익을 가져올것이며 중앙에서 어느 다른 기능을 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전 국가적 의의가 있는** 사업을 하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모범적인 사업조직은 일군들을 양성하는 모판으로 될것이며 또 본받아야 할 실례로 될것이기때문이다. 실례를 본받는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며 또 중앙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모범적인 실례를 각지에서 널리 《본받도록》 또 그것이 의무적인것으로 되도록 원조할수 있을것이다.

현물세를 납부한후의 잉여곡물과 소규모공업생산물, 주로 수공업생산물에 의한 공농업간의 《류통》의 발전은 그 본질자체로 하여 **지방의** 풍부한 지식에 기초한 자주적이며 현명한 **창발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현시기에 현과 향에서의 모범적인 사업조직은 전국적견지로 보아 지극히 중요한것이다. 례를 들면 군사방면에서는 최근의 뽈스까전쟁시기에 우리는 관료주의적위계제에서 물러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직위를 낮추며》 공화국의 군사혁명위원회의 위원들까지도(중앙의 높은 직무에 둔채로) 아래직위로 전임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어째서 전로중앙 집행위원회와 참의회들의 몇몇 위원들이나 기타 높은 직위에 있는 동지들을 현사업이나 향사업에 돌려서는 안된단말인가? 여기에 《낯을 찡그릴만큼》 우리가 실지로 《관료화》한것은 아니다. 우리들중에는 이 일에 자진하여나설 중앙일군들이 수십명이나 있을것이다. 이

령게 함으로써 전 공화국의 경제건설사업은 비상한 성과를 거둘것이며 모범적인 향이나 모범적인 현은 다만 커다란 역할을 할뿐만아니라 그야말로 결정적인 력사적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를 부언하기로 하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투기와 투쟁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개변할 필요성이다. 우리는 《정당한》 상업,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상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만일 투기를 정치경제학적의미에서 리해한다면 《정당한》 상업과 투기는 구별할수 **없다**. 상업의 자유는 곧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곧 투기이다. 이에 대해서 눈을 감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투기의 공인을 선포할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투기에 관한 모든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정하여 일체의 **공동재산에 대한 략취행위와 국가의 통제, 감독, 계산을 회피하는** 일체 **행위**를—그것이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회피이건 혹은 간접적이고 은연한 회피이건간에—범죄행위로서 선포하여야 한다.(또 실지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몇배나 더 엄중하게 추궁하여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여야만 (인민위원회는 이미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즉 인민위원회는 투기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착수할것을 명령하였다.) 어느 정도 피할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올려세울수 있을것이다.

정치적총화와 결론

이제는 상술한 경제형편과 관련하여 정치정세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간단하게나마 말하여야 하겠다.

1921년의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특징이 1918년의 그것과 같다는것은 이미 말한바이다. 전쟁과 봉쇄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아도 비상한 곤난에 빠져있던 농민들의 형편은 1921년 봄에 와서 주로 흉작과 가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첨예화의 결과는 정치적동요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생산자의 《본성》자체를 이루는것이다. 크론슈따트반란136은 이러한 동요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였다.

크론슈따트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의 동요였다. 거기에는 충분히 형성된것, 명확한것, 확실한것이 매우 적었다. 《자유》니, 《상업의 자유》니, 《해방》이니, 《볼쉐위크들이 없는 쏘베트》니, 쏘베트의 개선이니 혹은 《당의 독재》로부터의 구제이니 하는따위의 막연한 구호들이 제기되였다.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은 다같이 크론슈따트운동을 《자기들의 운동》이라고 언명하였다. 윅또르 체르노브는 크론슈따트에 급사를 보냈다. 이 급사의 제의에 의하여 크론슈따트사건의 주모자의 한사람인 멘쉐위크 왈리크는 크론슈따트에서 《**헌법제정회의**》에 대한 찬의를 표명하였다. 전체 백위군은 순식간에, 말하자면 번개같은 속도로 《**크론슈따트를 위하여**》 동원되였다. 크론슈따트의 백위군군사전문가들—끄즐롭스끼 하나뿐만아니라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이 오라니엔바움에 군대를 상륙시킬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이 계획은 동요하고있는 멘쉐위크—사회혁명당원—무소속대중을 겁먹게 하였다. 외국에서 발행되는 백파의 50여종의 로씨야어신문들은 미칠듯한 정열로써 《크론슈따트를 위한》 선동을 전개하였다. 대은행들과 금융자본의 모든 세력들은 크론슈따트를 원조하기 위한 기부금모집에 착수하였다. 자산계급과 지주들의 령리한 지도자인 립헌민주주의자2 밀류꼬브는 우둔한 윅또르 체르노

브에게 직접적으로(크론슈따트사건에 관계한 까닭에 당시 뻬뜨로그라드의 감옥에 있던 멘쉐위크 단과 로쥬꼬브에게는 간접적으로) 헌법제정회의의 개최를 서두를것이 아니라 **다만 볼쉐위크들이 없는 쏘베트정권을 찬성한다고 주장하는것이 가하며 또 응당 그래야 한다**는것을 근기있게 설명하였다.

물론 소자산계급적언사를 널어놓는 영웅 체르노브나 《맑스주의》의 탈을 쓴 속물적개량주의의 기사 마르또브와 같은 자기도취에 빠진 등신들보다 령리하게 행동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는 한 개인으로서의 밀류꼬브가 보다 더 현명하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대자산계급의 당지도자가 자기의 계급적처지로 말미암아 소자산계급의 지도자인 체르노브나 마르또브보다 사물의 계급적본질과 정치적상호관계를 더 똑똑히 인식하고 투철하게 리해하고 있다는데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자산계급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군주국에서나 또 가장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에서나 필연적으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며 또 필연적으로 전 세계의 자산계급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계급적세력인 까닭이다. 그러나 소자산계급, 즉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전체 영웅들은 그의 경제적본질로 보아 계급적무력의 표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이로부터 동요와 빈말과 속수무책이 나온다. 1789년에는 소자산계급은 아직 위대한 혁명가들일수 있었으나 1848년에는 그들은 가소롭고도 가련한 존재였다. 1917～1921년에는 그들이 체르노브, 마르또브라고 불리우건 혹은 카우쯔키, 맥도날드라고 불리우건간에 모두 마찬가지로 실제적역할에 있어서 반동의 가증한 보조자들이며 로골적인 종복들이다.

마르또브가 베를린에서 발행하는 그의 잡지에서 크론슈따트는 멘쉐위크의 구호를 실행하였을뿐만아니라 백위군도당과 자본가들과 지주들에게는 전혀 봉사하지 않는 반볼쉐위크운동

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고 언명하였을 때 그는 바로 자기 도취하는 속물 나르키쏘스[148]의 표본으로 되였다. 모든 진짜백위군이 크론슈따트의 반란자들을 환호하고 크론슈따트를 원조하기 위하여 은행을 통해서 기금을 모집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저 눈을 감기로 하자는것이다. 밀류꼬브는 체르노브도배와 마르또브도배에 비하여 옳은 말을 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진짜**백위군의 세력, 자본가와 지주들의 세력의 **진짜**전술을 말한 까닭이다. 그저 볼쉐위크를 타도**할수만 있다면, 정권의 이동을 실현할수만 있다면** 무정부주의자이든, 쏘베트정권이든 가릴것 없이 원조하자! 정권이야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멘쉐위크에게로 가든, 무정부주의자에게로 가든 상관이 없다. 다만 정권을 볼쉐위크로부터 이동시키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 다음일은 《우리들》 밀류꼬브파, 《우리들》 자본가와 지주들 《자신이 친히》 수행할것이다. 씨비리에서 체르노브와 마이스끼를, 웽그리아에서 웽그리아의 체르노브도배와 마르또브도배를, 독일에서 카우쯔키를, 윈에서 프리드리히 아들레르도배를 축출한것과 같이 우리는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체르노브도배나 마르또브도배의 뺨을 갈겨 대번에 그들을 내몰것이다. 진실로 실무가적인 자산계급은 이들 속물적나르키쏘스도배—멘쉐위크들, 사회혁명당원들, 무소속분자들—를 모든 혁명에서 또 모든 나라에서 몇십번이고 여러 백명씩 우롱하고 구축하였다. 이것은 력사가 증명한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나르키쏘스도배는 빈말을 떠벌일것이나 밀류꼬브와 백위군은 자기가 할일을 할것이다.

《다만 정권을 볼쉐위크로부터 이동시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조금 우로 가든, 조금 좌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일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밀류꼬브가 생각하였을 때 그는 완전히 정당하였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전 혁명사와 중세기이후

수백년에 걸치는 근대사의 전 시기가 확증하는 계급적진리이다. 분산적인 소생산자, 즉 농민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산계급과 결합하든가(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근대의 모든 혁명들에서 항상 그러하였으며 또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언제나 그러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산계급과 결합한다.(근대사에서 약간의 가장 위대한 혁명들이 최고도로 발전하였을 시기에 극히 짧은 기간 맹아적형태로서 이렇게 되군 하였다. 그리고 로씨야에서는 1917~1921년에 보다 더 발전된 형태에서 그렇게 되였다.) 《제3》의 길, 《제3의 세력》을 지껄이거나 몽상할수 있는것은 오직 자기 도취에 빠진 나르키쏘스들만이다.

볼쉐위크는 가렬한 투쟁에서 비상한 곤난을 무릅쓰고 나라를 관리할수 있는 무산계급의 전위를 육성하였으며 무산계급독재를 수립하고 고수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에서의 제 계급의 세력관계는 과거 4년간의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지극히 명료하게 되였다. 즉 유일한 혁명적계급의 강철같이 단련된 전위, 동요하고있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 외국에 숨어있으며 또 전 세계 자산계급의 지지를 받고있는 밀류꼬브파, 즉 자본가, 지주 등이 그것이다. 사태는 지극히 명백하다. 이러저러한 《정권의 이동》을 리용하는자, 또 리용할수 있는자는 오직 후자들뿐이다.

우에서 인용한 1918년의 소책자에는 이 점에 대하여 직접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주요한 적》은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다.》 《우리가 이들을 우리의 통제와 계산에 복종시키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이러한 소소유자적토대우에서 생장한 나뽈레옹도배나 까베냐크도배가 혁명을 전복시킨것과 같이 로동자들의 정권을 불가피적으로 틀림없이 전복시키고야말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고있으며 또 오직 이렇

게만 설수 있는것이다.》(1918년 5월 5일의 소책자로부터, 우에 든 인용문①을 보라.)

우리의 힘은 로씨야와 전 세계의 현존하는 모든 계급적력량에 대한 그야말로 명확한 인식과 랭정한 타산, 여기에서 나오는 불굴의 정력, 확고부동성, 투쟁에서의 과감성과 헌신성에 있다. 우리는 많은 적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분렬되여있다. 다시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모든 소자산계급, 모든 마르또브도배와 체르노브도배, 모든 무소속분자들, 모든 무정부주의자들이 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되여있다. 즉 우리자신이 직접 단결되여있으며 또 만국의 무산계급들과 간접적으로 단결되여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있다. 그러므로 어떤 시기에 있어서 개별적인 무산계급혁명이 패배할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는 불패의 힘이다.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을 자연발생성이라고 부르는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가장 무정형적이며 확연치않으며 무의식적인 그 어떤것이다. 소자산계급의 나르키쏘스도배는 《일반적선거》가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도 소생산자들의 본성을 소멸시킬수 있는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것은 교회, 출판물, 학교, 경찰, 군대, 수천가지 형태의 경제적압박과 결합하여 자산계급을 원조하며 분산된 소생산자들을 자산계급에게 복종시키는것을 도와준다. 령락과 궁핍, 비참한 상태는 소자산계급을 동요하게 한다. 즉 오늘은 자산계급측에, 래일은 무산계급측에 서게 한다. 오직 오랜 시련을 이겨낸 무산계급의 전위만이 이러한 동요를 이겨내고 거기에 대항할수 있다.

---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541～542페지를 보라. —편집자

1921년 봄의 사건은 또 한번 사회혁명당원들과 멘쉐위크의 역할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동요하고있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 볼쉐위크로부터 떨어져나와 자본가와 지주에게 유리한 《정권이동》을 수행하도록 도와주고있다. **지금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은 《무소속》으로 분장하는것을 배웠다.** 이것은 충분히 립증되였다. 오직 바보들만이 이것을 보지 못하며 이에 우롱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닫지 못한다. 무소속대표자회의들은 결코 우상이 아니다. 만일에 대표자회의가 아직 정치에 생소한 대중, 정치의 권외에 서있는 천백만의 근로자층과 접근할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소속》으로 분장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에게 연단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유해하다. 그것은 이러한자들이 반란을 원조하고 백위군을 원조하기때문이다. 로골적인 멘쉐위크나 사회혁명당원들이건 혹은 무소속으로 분장한 멘쉐위크나 사회혁명당원들이건간에 그들에게 마땅한 장소는 감옥이지(혹은 백파와 손을 잡고 외국에서 잡지를 내는것도 좋을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마르또브를 외국에 가게 하였다.) 무소속대표자회의는 아니다. 우리는 대중의 기분을 살피며 그들과 접근하는 다른 방법들을 발견할수 있고 또 발견하여야 한다. 의회제, 헌법제정회의, 무소속대표자회의 등으로 유희를 하고저 하는 자는 외국에 가게 하라, 제발 마르또브에게로 가라, 그리고 《민주주의》의 매력을 맛보고 우란겔의 병졸들에게 《민주주의》의 매력을 물어보라, 제발 그렇게 하라. 우리는 《대표자회의》에서 《반대파》의 역을 하고있을 겨를이 없다. 우리들은 전 세계의 자산계급에게 포위되여있다. 그들은 《자기 동료들》의 지위를 회복하며 지주와 자산계급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1분의 동요라도 노리고있다. 로골적인 멘쉐위크나 사회혁명당원이건, 혹은 《무소속》으로 분장하고있는 멘쉐위크나 사회혁명당

원이전간에 모두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다만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며 **밀류꼬브에게 유리한 동요의 여지를 주는** 방법만은 제외하고—아직 정치에 생소한 근로대중과 더욱 긴밀한 련계를 맺을것이다. 우리는 특히 열심히 수백수천의 무소속분자들, 즉 대중속에 있으며 일반 로동자와 농민속에 있는 진정한 무소속분자들을 쏘베트사업에, 우선 경제사업에 참가시킬것이다. 그러나 밀류꼬브에게 대단히 유리한 지령서, 즉 몰래 감추어가지고 온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의 지령서를 랑독하기 위하여 무소속으로 《분장》한자들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수백수천의 무소속분자들이 우리들과 함께 일하고있으며 그중 수십명은 가장 중요한 책임있는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사업을 일층더 검열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 시험해보기 위하여 수천수만의 일반근로자들을 더 많이 등용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부단히 수백명씩 그들을 시험하고 시험을 통한 검열에 기초하여 그들을 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 공산당원은 관리의 진정한 과업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우리들은 《모든것》을 《자신이》 도맡아하려고 하며 애는 무척 쓰지만 제기일에 하지 못하며 일시에 스무가지 일에 착수하지만 결국 하나도 끝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것이 아니라 수십수백명의 방조자들의 사업을 검열하며 그들의 사업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검열, 즉 진정한 대중에 의한 검열을 조직하며 지식을 가진자(전문가) 또는 대규모생산을 조직한 경험을 가진자(자본가)에게서 **배워야** 하며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군사전문가의 10분의 9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배반할수 있지만 현명한 공산당원은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본가도 군사전문가

보다 못지않으나 현명한 공산당원은 자본가(그것이 대자본가—리권소유자이건, 위탁매매자이건, 협동조합적소자본가이건간에)에게서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다. 붉은군대에서는 우리는 군사전문가중에서 반역자들을 잡아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가려내면서 전체적으로 수천수만의 군사전문가를 리용하는것을 배웠다. 비록 붉은군대에서 한것보다는 훨썬 못하지만(여기에서는 제니낀과 꼴챠크가 상당한 정도로 우리를 몰아대였으며 더욱 급속하게, 더욱 열심히, 더욱 똑똑히 배우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지금 우리는 같은것을(독특한 형태로써) 기사들과 교원들에게서 배우고있다. 우리는 같은것을(이 경우에도 또한 독특한 형태로써)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위탁매매상, 협동조합적자본가, 리권기업가 등등에게서 배울것이다.

로동자와 농민 대중의 상태는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소속분자까지도 포함한 새로운 힘을 유용한 사업에 인입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할것이다. 현물세 및 그와 관련한 일련의 대책들은 이것을 도와줄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소생산자들에게 불가피적인 동요의 경제적근원을 잘라버릴것이다. 그리고 밀류꼬브에게나 유익한 정치적동요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투쟁할것이다. 동요하고있는자는 많다. 우리는 소수이다. 동요하고있는자들은 분산되여있지만 우리는 단결되여있다. 동요하고있는자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있지 못하나 무산계급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있다. 동요하고있는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바라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는데 한편 밀류꼬브는 지시를 주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바가 무엇인가를 알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마 감 말

이상을 총결하자.

현물세는 전시공산주의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주의적생산물교환으로의 이행이다.

1920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첨예화된 극도의 령락은, 대규모공업을 급속히 복구할수 없는 관계로 해서 이 이행을 焦眉의 급선무로 만들었다.

때문에 우선 농민의 처지를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그 방법은 현물세를 실시하는것이며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을 발전시키며 소규모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다.

류통은 곧 상업의 자유이며 자본주의이다. 이것은 소생산자들의 분산성과 투쟁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 어느 정도 관료주의와 투쟁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한계는 실천과 경험이 정하여줄것이다. 무산계급이 정권과 운수 및 대규모공업을 튼튼히 장악하고있는 이상 거기에는 무산계급정권에 대하여 조금도 위험한것이 없다.

투기와의 투쟁은 국가의 감시, 계산, 통제의 회피, 공동재산의 략취와의 투쟁으로 전화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통제에 의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적이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를 국가자본주의의 궤도우에 올려놓을것이다.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을 장려하는 사업에서 각 지방의 창의창발성, 자주성은 전면적으로, 백방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발휘시켜야 한다. 이 방면에서의 실천적경험을 연구하며 될수 있는대로 이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농업에 이바지하며 또 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소

규모공업에 대한 원조—이 원조는 어느 정도 국가원료를 분여함으로써 수행된다. 최대의 범죄는 원료를 그대로 유휴상태에 두는것이다.

공산당원들은 상인, 협동조합적소자본가, 자본가들을 포함한 자산계급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서 배우는것은 우리가 이전에 군사전문가에게서 배운것과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학습》의 결과는 실제적경험에 의해서만 검증된다. 옆에서 자산계급전문가가 하는것보다 더 잘 사업하라, 전력을 다하여 농업과 공업의 발전,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의 발전을 도모하라. 결코 《수업료》를 아끼지 말라. 학습한 효과만 있다면 비싼 수업료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근로대중을 원조하고 그들과 접근하며 그들중에서 수백수천의 무소속분자들을 경제사업에 등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류행하고있는 크론슈따트식의 무소속의 옷차림으로 분장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인 《무소속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을 조용히 감옥에 가두어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베를린에 있는 마르또브에게로 보내서 순수민주주의의 모든 아름다운것을 자유롭게 맛보도록 하며 또 체르노브, 밀류꼬브, 그루지야의 멘쉐위크들과 자유로이 사상을 교환하도록 할것이다.

1921년 4월 21일

1921년 5월에 단행본으로 인쇄

단행본원문에 의하여 인쇄, 원고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19~357페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 전로대표자회의[149] 폐회사

(1921년 5월 28일)

동지들, 나는 아주 간단히 몇마디 말하려 한다. 당신들도 알다싶이 우리는 중앙과 지방, 당일군들과 전체 쏘베트일군들 가운데서 경제정책을 완전히 해명할것을 주요목적으로 내세우고 긴급하게 본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다. 나는 대표자회의가 이 과업을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생각한다. 오씬스끼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은 아주 많은 지방당일군, 아니 아마 대다수의 지방당일군들의 기분을 대단히 정확하게 표현한것이라는것이 이 자리에서 동지들에 의하여 루차 지적되였다. 오씬스끼동지는 모든 의혹을 일소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제10차당대회[134]가 제시하였고 그후에 법령과 결정들에 의하여 공고히 된 정책을 당은 본격적으로 장기간 실시하여야 할 정책으로서 무조건 채택한다고 말하였다. 대표자회의도 이 점을 아주 견결히 표명하였으며 거기에 여러 조항을 보충하였다. 동지들이 지방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부정확하게 해석할 여지는 조금도 없을것이다. 물론 우리가 여러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할 정책을 세울 때에 우리는 국제혁명과 그 발전의 속도 및 조건이 모든것을 변경시킬수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 현재 국제정세는 그것이 림시적이며 불안정한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균형은 이루어졌다. 그 균형은 자본주의세계의 분해가 가속도

적으로 진행되며 단결이 계속 약화되며 10억이상에 달하는 피압박식민지인민들측으로부터의 힘의 중압이 해마다, 달마다, 지어는 주간마다 더 강력해지기때문에 제국주의렬강이 비록 쏘베트로씨야에 대들 욕망과 증오감을 품고있으나 그런 생각을 포기하게 된 그러한 형의 균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억측할수도 없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경제정책으로써 국제혁명에 주되는 영향을 주고있다. 모든 사람이 로씨야쏘베트공화국을 보고있다. 례외없이, 아무런 과장도 없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이 로씨야쏘베트공화국을 보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이다.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묵살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감출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의 경제적과오와 우리의 약점을 뒤져내려고 애를 쓰고있다. 전 세계적 규모에서 투쟁은 이 분야로 옮겨졌다. 우리는 이 과업을 해결할것이다.—그때에는 우리는 국제적규모에서 확고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경제건설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 전선에서 우리는 완만한, 점차적인—급속히는 할수 없다.—그러나 끊임없는 향상과 전진운동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회의의 사업결과로 소기의 목적을 무조건하고 어쨌든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박수)

1921년 6월 2일부 《쁘라우다》 제119호에 게재

《쁘라우다》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427～428페지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150]에서의 로씨야공산당의 전술에 관한 보고테제

(최초의 초안)

1.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국제적지위

지금에 있어서의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약간의 균형으로써 특징지어지는바 이 균형은 극히 불안정한것이기는 하나 역시 세계정치의 독특한 정형을 조성하여놓았다.

그 독특성이란 다음과 같은것이다. 일방에 있어서 국제자산계급은 쏘베트로씨야에 대하여 맹렬한 증오와 적의를 가득 품고 쏘베트로씨야를 교살하기 위하여 어느때든지 달려들 용의를 갖고있다. 타방에 있어서 쏘베트정권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씨야의 지주와 자본가들이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령토내에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계급이 수억프랑의 자금을 소비한 무력간섭의 일체 기도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쏘베트로씨야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은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비상히 강화되여 무산계급의 혁명운동을 촉진시키고 매우 광

범한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대중을 포괄하였다. 제국주의국가들간의 리해관계의 대립은 첨예화되였으며 또 나날이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동방의 수억의 피압박인민들속에서 혁명운동이 놀랄만한 기세로 장성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로 말미암아 국제제국주의는 쏘베트로씨야보다 훨씬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쏘베트로씨야를 교살할수 없게 되였으며 당분간 그를 승인하거나 또는 반쯤 승인하고 그와 통상조약을 맺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극히 불확고하고 극히 불안정한 균형이기는 하나 사회주의공화국이—물론 장기간은 아닐지라도—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존재할수 있는 균형상태를 얻게 되였다.

2. 국제적범위에서의 계급적력량관계

이러한 상태를 기초로 하여 국제적범위에서 계급적력량관계는 다음과 같이 조성되였다.

국제자산계급은 쏘베트로씨야에 대하여 공공연한 전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러한 전쟁을 다시 할수 있는 정세가 조성될 시기를 노리며 기다리고있다.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들의 무산계급은 도처에서 이미 그의 선봉대인 공산당들을 결성하였는데 그 공산당원들은 각국에서 무산계급의 다수를 쟁취하는 길로 확고히 나아가면서 또 낡은 로동조합적관료배들의 영향과 제국주의적특권으로 인하여 부패한 아메리카 및 구라파의 로동계급상층부의 영향을 분쇄하면서 장성하고있다.

제2국제당과 제2반국제당100을 자기의 선진부분의 대표자로 하고있는 자본주의국가들의 소자산계급민주주의는, 공상업부문

의 로동자, 사무원의 다수 내지 그 상당한 부분이 그의 영향하에 남아있는만큼 현재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중요한 지주로 되여있다. 그러한 공상업부문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혁명이 발발하는 경우에 제국주의의 특권에 의하여 조성된 비교적 여유있는 소시민적생활을 상실할가봐 두려워하고있다. 그러나 더욱더 증대되고있는 경제공황은 도처에서 광범한 대중의 처지를 악화시키고있으며 또 이러한 사정은 자본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새로운 제국주의전쟁이 불가피하다는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있는 사실과 아울러 상술한 지주를 더욱 동요시키고있다.

지구상의 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근로대중은 이미 20세기초엽부터 정치생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였으며 특히 로씨야, 토이기, 페르샤 및 중국의 혁명에 의하여 그렇게 되였다.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지도자들도 포함한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교양있는 속물들은 완고하게도 아직 보려고 하지 않지만 1914~1918년의 제국주의전쟁과 로씨야의 쏘베트정권은 이들 대중을 결정적으로 세계정치의 적극적요인으로 전화시키고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적파괴의 적극적요인으로 전화시키고있다. 영령 인도는 이러한 나라들의 선두에 서있는데 이곳에서는 일방으로 공업 및 철도 무산계급이 유력하게 되면 될수록, 타방으로 대중적학살(암리차르)151과 공개적인 태형 등등의 수단을 점점 더 상투적으로 취하고있는 영국인의 테로가 야만적으로 되면 될수록 혁명은 더욱 급속하게 장성하고있다.

3. 로씨야에서의 계급적력량관계

쏘베트로씨야의 국내정치정세는 그곳에 세계력사상 처음

으로 오직 두 계급만이 몇해동안 존재하고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규정된다. 두 계급이란 매우 년소하기는 하나 역시 현대적인 대규모의 기계제공업에 의하여 수십년간 훈련되여 온 무산계급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소농민이다.

로씨야에서는 대토지소유자와 자본가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철저히 수탈당하여 계급으로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쇄되고 그 잔여분자들은 쏘베트정권의 사무원들속에 숨어버리고말았다. 그들은 망명자로서 외국에 가서 계급적조직을 유지하고있는데 그들의 수는 아마도 150만 내지 200만가량 될것이며 모든 자산계급적 및 《사회주의적》(즉 소자산계급적) 정당의 일간신문 50종이상과 군대의 잔당을 가지고있으며 국제자산계급과 무수한 련계를 맺고있다. 이러한 망명자들은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하여 쏘베트정권을 분쇄하고 로씨야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있다.

4. 로씨야의 무산계급과 농민

로씨야의 이와 같은 국내정세하에서 지배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의 당면한 주요과업은 농민을 령도하며 농민과 공고한 동맹을 맺으며 몇차례의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사회화되고 기계화된 대규모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옳게 규정하고 실행하는데 있다. 로씨야에서는 그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또 7년간의 제국주의전쟁과 국내전쟁에 의한 극심한 파괴로 말미암아 이 과업은 특히 곤난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을 제외하고도 이 과업은 모든 자본주의국가가 앞으로 당면할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곤난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아마 영국 한 나라만은 여기에서 례외로 될것이다. 그러나 영국을 놓고보더

라도, 비록 그 나라의 소차지농계급이 수적으로 특히 적다 하더라도 그대신 영국에《속하는》식민지에서 수억의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상태에 있는 결과 영국의 로동자와 사무원 가운데 소자산계급식으로 생활하는자들의 비률이 비상히 높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통일적과정으로서의 전 세계 무산계급혁명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로씨야가 지금 체험하고있는 시기의 의의는 국가권력을 수중에 장악하고있는 무산계급의 소자산계급대중에 대한 정책을 실천적으로 시험하며 검열하는데 있는것이다.

5.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에서의 무산계급과 농민의 군사적동맹

쏘베트로씨야에서의 무산계급과 농민의 옳바른 상호관계의 기초는 1917~1921년시기에 형성되였는데 이 시기에 있어서 전 세계 자산계급과 모든 소자산계급민주주의정당(사회혁명당[3]과 멘쉐위크)의 지원을 받고있던 자본가와 지주의 공격은 쏘베트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무산계급과 농민의 군사적동맹을 창설케 하고 공고화시키고 형성시켰다. 국내전쟁은 계급투쟁의 가장 첨예화한 형태로서 이 투쟁이 첨예화하면 할수록 그 불길속에서 모든 소자산계급적 환상과 편견이 더욱 신속히 타버리며 오직 무산계급의 독재만이 농민을 구출할수 있다는것과 사회혁명당이나 멘쉐위크는 사실상 지주와 자본가의 종복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천 그자체가 가장 뒤떨어진 농민층에까지 더욱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무산계급과 농민의 군사적동맹이 두 계급의 공고

한 동맹의 첫 형태였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었지만 이 두 계급간의 일정한 경제적동맹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몇주일도 유지될수 없었을것이다. 농민은 로동자국가로부터 모든 토지를 받고 지주와 부농들의 유린을 면하도록 보호를 받았으며 로동자는 농민으로부터 대규모공업이 복구될 때까지 식량을 외상으로 얻게 되였던것이다.

6. 무산계급과 농민의 옳바른 경제적호상관계로의 이행

사회주의의 견지에서 보면 소농민과 무산계급의 동맹은 운수와 대규모공업이 완전히 복구되여 무산계급이 식량 대신에 농민의 생활과 그들의 경영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그들에게 줄수 있게 되는 때에라야 비로소 완전히 정당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몹시 령락된 조건하에서 일거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수는 도저히 없었다. 잉여곡물징수제는 잘 조직되지 못한 국가에서 지주들을 반대하는 미증유의 곤난한 전쟁을 감당해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이였다. 1920년의 흉작과 사료부족은 그러지 않아도 곤난하던 농민의 궁핍을 극도로 악화시켜 즉시 현물세제로 이행하는것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였다.

적당한 현물세는 농민들로 하여금 파종면적의 확대와 농업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농민의 처지를 일거에 현저히 개선할수 있게 한다.

현물세제는 농민의 전체 잉여곡물을 징수하는 제도로부터 공업과 농업간의 정상적인 사회주의적생산물교환으로 이행하는것이다.

7. 쏘베트정권이 자본주의와 리권을 허용하는 의의와 그 조건

현물세제는 자연히 농민이 현물세를 납부하고 남는것을 자유로 처리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이러한 전체 잉여곡물 대신에 사회주의공장의 생산물을 농민에게 제공할수 없는 한 잉여곡물의 자유매매는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발전의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우에서 말한 한계내에서는 운수와 대규모공업이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한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도 무서울것이 없다. 도리여 무산계급국가의 통제와 규제하에서의 자본주의의(즉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자본주의의) 발전은 그것이 농업의 **즉시적인** 앙양을 촉진할수 있는 한 극도로 령락되고 뒤떨어진 소농민적인 국가에서는(물론 일정한 정도내에서이지만) 유익하고 필요한것이다. 리권에 관해서는 더우기 그러하다. 즉 로동자국가는 국유화를 조금도 철회하지 않고 일정한 광산, 삼림지대, 유전 등을 외국자본가에게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보충적설비와 기계를 받아 쏘베트의 대규모공업의 복구를 촉진시킬수 있는것이다.

귀중한 생산물의 일정한 몫을 리권소유자에게 주는것은 틀림없이 로동자국가가 세계자산계급에게 바치는 공물이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대규모공업의 복구를 촉진시키며 로동자와 농민의 처지를 크게 개선할수만 있다면 이 공물을 바치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8. 우리의 식량정책의 성공

1917~1921년에 있어서의 쏘베트로씨야의 식량정책은 분명히 극히 조잡하고 불완전한것이여서 허다한 폐단을 낳게 하였다. 이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허다한 오유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것은 그때의 조건하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정책이였다. 그리고 그 정책은 자기의 력사적과제를 완수하였다. 즉 령락되고 뒤떨어진 나라에서 무산계급독재를 구원하였다. 이 정책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있다는것은 다툴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완전히 정권을 확립한 첫해(즉 1918년 8월 1일—1919년 8월 1일)에 국가는 1억 1,000만뿌드의 곡물을 조달하였고 두번째 해에는 2억 2,000만뿌드, 세번째 해에는 2억 8,500만뿌드이상을 조달하였다.

이미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는 4억뿌드(그가운데 현물세량은 2억 4,000만뿌드이다.)를 조달할 과업을 내세우고있으며 또 조달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로동자국가는 충분한 식량예비를 실지로 가지고있어야만 비로소 경제적면에서 자기 발로 확고히 설수 있으며 서서하게나마 부단히 대규모공업의 복구를 보장하고 정상적인 재정체계를 수립할수 있다.

9.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와 로씨야의 전기화계획

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적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농업까지

도 개조할수 있는 대규모의 기계제공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명제에만 국한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구체화되여야 한다. 최신의 기술수준에 상응하며 농업을 개조할수 있는 대규모공업은 전국의 전기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전기화계획을 작성하는 과학사업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또 이것을 수행하였다. 로씨야의 200명이상의 일류 과학자, 기사, 농업전문가들의 참가하에 이 사업이 완성되여 상당한 분량의 책으로 인쇄되고 1920년 12월의 제8차전로쏘베트대회109에서 대체로 비준되였다. 현재는 벌써 1921년 8월에 전로전기공학자대회가 소집되게끔 조직되여있는데 그때에 이 사업은 자세히 검토될것이며 또 최종적인 국가의 비준을 얻게 될것이다. 전기화사업은 제1기를 10개년으로 예견하고있는데 거기에는 약 3억 7,000만 로동일이 요구될것이다.

1918년에 우리 나라에 새로 건설된 발전소가 8개소(4,757키로와트)였다면 1919년에는 벌써 이 수자는 36개소(1,648키로와트)로 올라가고 1920년에는 100개소(8,699키로와트)로 올라갔다.

우리 나라와 같은 큰 나라에서 이것은 보잘것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사업은 시작되였으며 또 점점 더 잘되여가고 있다. 제국주의전쟁이후의 로씨야농민, 백만명의 포로가 독일에서 선진적인 현대적기술을 알게 된 이후의 로씨야농민, 그리고 고통스럽기는 하나 사람을 단련시켜주는 3년간의 국내전쟁의 경험을 거친후의 로씨야농민은 벌써 옛날의 로씨야농민이 아니다. 그들은 소농민대중을 자본에 예속되여있는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주의로 끌고갈수 있는것은 오직 무산계급의 지도뿐이라는것을 날로 더 명백히, 날로 더 뚜렷하게 보고있는것이다.

10. 자본의 동맹자로서의 《순수민주주의》, 즉 제2국제당, 제2반국제당, 사회혁명당원 및 멘쉐위크들의 역할

무산계급독재는 계급투쟁의 중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이것을 계속하는것을 의미한다. 계급이 남아있는 한, 한 나라에서 전복된 자산계급이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을 국제적규모에서 십배나 강화하고있는 한 이 독재는 필수적인것이다. 과도기에 있어서 소농민계급은 동요를 면치못한다. 과도기의 곤난과 자산계급의 영향은 불가피적으로 이 대중의 기분에 때때로 동요를 일으킨다. 이러한 동요를 물리치고 드팀없이 서서 자본의 질곡으로부터 로동을 해방시키는 사업을 끝까지 완성할 극히 곤난하고도 가장 위대한 력사적과업은 자기의 생활토대인 대규모의 기계제공업의 파괴로 말미암아 힘이 약하여지고 어느 정도 계급적으로 와해된 무산계급에게 부과되여있다.

소자산계급의 동요의 정치적표현은 소자산계급민주주의정당, 즉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정책인데 이러한 정당들의 로씨야적형태가 곧 사회혁명당 및 멘쉐위크와 같은 정당들이다. 현재 그 총참모부와 기관지를 외국에 가지고있는 이러한 정당들은 사실상 모든 자산계급반혁명분자들과 동맹을 맺고있으며 그들에게 충실하게 봉사하고있다.

로씨야의 대자산계급의 현명한 지도자들과 그 선두에 서 있는 《립헌민주》당2의 수령 밀류꼬브는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

들, 즉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의 이러한 역할을 극히 명백하게, 정확하고도 솔직하게 평가하였다. 크론슈따트폭동[136]에서는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과 백파가 그들의 힘을 합쳐 단결하고있었는데 그 폭동과 관련하여 밀류꼬브는 《볼쉐위크가 없는 쏘베트》라는 구호를 지지하여나섰다. 이 견해를 발전시키면서 그는 쓰기를, 사회혁명당원들과 멘쉐위크들은 볼쉐위크로부터 제1차로 정권을 이동시킬 과업을 짊어지고있는만큼 《영예와 지위》는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빠라우다》1, 1921년, 제64호, 빠리의 《최근소식》[152]에서의 인용문)고 하였다. 대자산계급의 지도자인 밀류꼬브는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은 정권을 유지할수 없고 언제나 다만 자산계급독재의 엄페물, 자산계급의 독재로 넘어가는 한 단계로 될뿐이라는것을 보여준 모든 혁명의 교훈을 옳게 참작하고있다.

로씨야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은 1789～1794년과 1848～1849년의 이러한 경험을 다시한번 확증하고있으며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말을 확증하고있다. 엥겔스는 1884년 12월 11일 베벨에게 보낸 서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순수민주주의는…혁명시기에 단기간 자산계급경제전체를, 아니 봉건적경제까지도 구제하는 최후수단의 역할을…수행하면서 일시적의의를 가진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1884년에 일체의 봉건적관료집단은 혁명적대중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자유주의자들을 지지하였다.…어쨌든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리고 그 직후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적은 순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집결하는 전체 반동집단인데 이것을 간과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153](《공산주의로동》지[154], 1921년 6월 9일부, 제360호, 웨. 아도라쯔끼의 론문 《맑스와 엥겔스의 민주주의에 관한 견해》에 로어로 발표됨. 독일어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정치적유언》, 베를린, 1920

년, 《국제청년문고》, 제12호, 19페지)

엔. 레닌

모스크바 크레믈리, 1921년 6월 13일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에서의 로씨야공산당의 전술에 관한 보고테제》 전문은 1921년에 처음 단행본으로 출판

원고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441～449페지

새로운 시기와 새 형태의 낡은 과오들

력사에서의 매개의 독특한 전환은 언제나 무산계급과 병존하고있는, 언제나 무산계급의 대렬속에 어느 정도로 침투하고있는 소자산계급적동요의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킨다.

소자산계급적개량주의, 즉 그럴듯한 민주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언사와 실현될수 없는 념원으로써 은폐되여있는, 자산계급에 대한 추종 그리고 소자산계급적혁명주의, 즉 말에 있어서는 위혁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하나 행동에 있어서는 공허한 혼란과 분산과 무능에 지나지 않는것—이와 같은것이 소자산계급적동요의 두가지 《조류》이다. 이런것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불가피하다. 그 동요형태는 지금 쏘베트정권의 경제정책의 일정한 전환과 관련하여 변화되고있다.

멘쉐위크주의자들의 기본적론거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볼쉐위크들은 뒤로, 자본주의로 되돌아갔다. 이것으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을따름이다. 혁명은 10월혁명도 포함하여 결국 자산계급적혁명이다! 민주주의 만세! 개량주의 만세!》라고. 이것을 순전히 멘쉐위크식으로 말하건 또는 사회혁명당원[3]식으로 말하건간에 또 제2국제당의 정신으로 말하건 또는 제2반국제당[100]의 정신으로 말하건간에 그 본질은 동일한것이다.

독일의 《공산주의로동당》[54]따위의, 또는 이미 당에서 나

갔거나 지금 당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의 이전의 로동자반대파[130]따위의 반무정부주의자들의 기본적론거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이제는 볼쉐위크들이 로동계급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많든적든 1921년 봄의 《크론슈따트》구호[136]와 류사한 구호가 나오는것이다.

개량주의의 속물들과 혁명주의의 속물들의 비명과 랑패에 대하여 되도록 진지하게, 되도록 정확하게 실제적계급력량의 타산과 론쟁할바 없는 사실들을 대조시키는것, 이것이 맑스주의자들의 과업이다.

우리 혁명의 주요한 단계들을 상기하여보라. 제1단계는 말하자면 순 정치적인 단계로서 10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즉 헌법제정회의의 해산에 이르기까지이다. 10주일가량 되는 사이에 우리는 로씨야에서 봉건주의의 잔재를 실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함에 있어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이 그들의 집권 8개월간(1917년 2월부터 10월까지)에 한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일을 하였다. 그 당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 국외의 모든 제2반국제당의 영웅들은 반동세력의 가련한 방조자들이였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당황하여 방관하거나 또는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때 혁명은 자산계급혁명이였던가? 물론 그랬다. 우리가 완수한 사업이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완성이였던만큼, 《농민》내부에 아직도 계급투쟁이 없었던만큼 그것은 자산계급혁명이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산계급혁명을 넘어서 사회주의적무산계급혁명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다. 즉 (1) 우리는 로동계급자체의 국가권력행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으리만큼 그들의 력량을 발전시켰다. (2) 우리는 소시민적민주주의의 우상, 즉 헌법제정회의라든가 부자들을 위한 출판의 자유따위의 자산계급적《자유》에 대하여 전 세계가 느낄수 있는 타격을 주었다. (3) 우리는 1793년과 1871년이후에 있어서의

거대한 일보전진인 쏘베트형의 국가를 창건하였다.

제2단계. 브레스트강화. 강화를 반대하는 혁명적언사, 즉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의 반애국주의적언사와 일부 볼쉐위크들의 《좌익적》언사가 횡행하였다. 《제국주의와 강화를 한다면 멸망할것이다.》라고 이렇게 속물들은 혹은 당황망조하여 혹은 악의를 품고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이야말로 로동자들에 대한 자산계급적략탈의 조력군으로서 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였던것이다. 우리들은 로동자들의 정권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략탈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략탈자들에게 일부 재산을 내주면서 《강화》를 한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로동계급의 력량을 신뢰하지 않는다.》는듯이 말하는 그러한 언사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언사에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제3단계. 체스꼬슬로벤스꼬군단 및 《헌법제정회의지지자들》에 대한 반격으로부터 우란겔에 대한 반격에 이르기까지의, 즉 1918～1920년의 국내전쟁. 전쟁초기에는 우리의 붉은군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이 군대는 물질적력량을 대비해본다면 현재도 련합국의 어느 군대에 비해서나 보잘것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련합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농민과 로동자의 동맹은 무산계급국가정권의 지도하에 전 세계사적 전취물로써 미증유로 높이 제고되였다.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은 직접적인 방조자로서(대신, 조직자, 선전자로서) 또는 은연한 방조자로서(체르노브도배와 마르또브도배는 가장 《미묘》하며 가장 비굴한 립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마치 사건으로부터 손을 뗀것 같이 행동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들을 반대하여 붓을 들었다.) 군주파의 방조자의 역할을 하였다. 무정부주의자들도 무력하게 허둥지둥하였다. 즉 그 일부는 우리를 방조하였고 다른 일부

는 군사적규률을 반대하는 론쟁 또는 회의주의로써 우리 사업에 해를 끼쳤다.

제4단계. 련합국은 무력 간섭과 봉쇄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오래동안일가?) 미증유의 파괴를 당한 나라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파괴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내다보며 또한 최대의 빈궁, 산업의 정체, 흉작, 기근 및 전염병을 체험하면서 이제 겨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전 세계사적 투쟁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곤난한 단계에까지 올라섰다. 현 순간 및 현시기에 있어서의 원쑤는 어제날의 원쑤가 아니다. 원쑤는 모든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 및 전체 국제자산계급의 지지를 받는, 지주들의 지휘하에 있는 백위군들이 아니다. 원쑤는 파괴된 대공업을 가진 소농민국가에 있어서의 낡아빠진 경제이다. 원쑤는 공기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무산계급의 대렬속에 아주 강하게 침투하여드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다. 무산계급은 계급적으로 탈락되고있다. 즉 자기의 계급적궤도로부터 일탈하고있다. 공장들은 정지상태에 빠지고 무산계급은 약화되고 분산되여 무력하여졌다.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의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전체 국제자산계급이 지지하고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무서워하지 않겠는가?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 제2반국제당의 기사들, 구해낼수 없는 무정부주의자들, 《좌익적》인사의 애호자들과 같은 영웅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볼쉐위크들은 자본주의로 되돌아가고있다. 볼쉐위크들에게는 종말이 왔다. 그들의 혁명도 역시 자산계급혁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개탄을 우리는 충분히 듣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에 습관되였다.

우리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험을 직시하고있다. 우리는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험은 크다, 더욱더 단결하고 강의하며 랭정하라, 멘쉐위크주의자들과 사회혁명당원들과 당황망조한자들과 큰소리치는자들을 멸시로써 차버리라.

위험은 크다. 원쑤는 어제날 그가 군사적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였던것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있다. 그리고 아는데 우리의 힘이 있다. 우리는 이미, 로씨야로부터 봉건주의를 소탕하기 위해서나, 로동자와 농민의 모든 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 세계적 투쟁을 위해서나,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범속성 및 저급성으로부터 해방된 국제무산계급운동을 위해서나 굉장히 많은 일을 하여놓았으므로 그 당황한 아우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무산계급적 혁명성이 멘쉐위크-사회혁명당원적《민주주의》나 허식적문구로써 은폐되여있는 비겁한 개량주의와는 다르며 위대한 사업을 해낼수 있다는것을 우리들의 행동으로써 전 세계에 증시함으로써 완전히, 아니 그이상으로 우리의 혁명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였다.

위대한 투쟁의 개시를 앞두고 패배를 두려워하는자가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것은 로동자들을 우롱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위험을 직시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투쟁을 위하여 자기의 력량을 더 잘 리용하기때문에 우리는 보다 랭정하게, 신중하게, 세심하게 기회를 보며 우리의 힘을 강화하며 적의 힘을 분산시키는 모든 양보를 한다.(지금에 있어서는 최대의 머저리들조차도 《브레스트강화》가 우리의 힘을 강화하였으며 국제제국주의의 력량을 분산시킨 양보였다는것을 본것

과 같이)

멘쉐위크들은 현물세, 상업의 자유, 리권 및 국가자본주의의 허용이 공산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러한 멘쉐위크들에 국외에 있는 이전의 공산주의자인 레비가 가담하였다. 이 레비를 옹호하려면, 그가 범한 오유를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범한 일련의 오유, 특히 1921년 3월에 독일에서 범한 오유155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할수 있기전에 했어야 할것이였다. 자신이 옳지 않다는것을 시인할 대신에 전체 로선에 있어서 멘쉐위크주의로 전락되고있을 때 그를 지지할수는 없다.

떠들어대는 멘쉐위크들에 대하여 벌써 1918년 봄에 공산주의자들이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을 반대하는 국가자본주의와의 뽈럭, 즉 동맹의 사상을 선포하고 옹호하였다는것만이라도 간단히 우리는 지적하여두련다. 이것은 3년전이다! 볼쉐위크들이 승리한 첫 몇달동안에 있은 일이였다! 벌써 당시에 볼쉐위크들에게는 랭철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적력량에 대한 우리의 랭철한 타산의 정확성을 누구도 론박할수 없었다.

멘쉐위크주의에까지 전락한 레비는 볼쉐위크들에게(우리가 헌법제정회의를 해산시켰을 때 멸망하리라는것을 모든 속물들, 민주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 및 기타가 예언하였던것과 같이 그는 볼쉐위크들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예언》한다!) **전체** 로동계급에 향하여 원조를 청하라고 충고를 한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로동계급의 일부분**만이 볼쉐위크를 원조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레비가 여기서 말하는것은 볼쉐위크들이 이제는 《로동계급의 력량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즐겨하는 반무정부주의자와 호언장담쟁이 및 이전의

《로동자반대파》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것과 놀랄만큼 일치한다. 멘쉐위크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력량》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의 우상으로 전화시키면서 그의 실제적인 구체적내용을 사고할줄 모른다. 그들은 그 내용을 연구하며 분석하는 대신에 선언으로 대치하고있다.

제2반국제당의 제씨들은 혁명가로 불리우기를 바라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심중한 사태에 처하면 어느때나 반혁명분자로 된다. 그것은 그들이 낡은 국가기구의 폭력적파괴를 두려워하며 로동계급의 력량을 믿지 않기때문이다. 우리가 사회혁명당원 및 그 일파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우리의 그 말은 공담이 아니였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10월혁명은 사실상 새로운 세력, 새로운 계급을 진출케 하였다. 즉 무산계급의 우수한 대표자들이 지금 로씨야를 관리하고있으며 군대를 창건하였고 지도하였으며 지방행정 및 기타를 창설하였고 공업 등을 지도하고있다. 만일 이러한 관리에 관료주의적 외곡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악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폭로하며 그것과 싸울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외곡과 싸우는 까닭으로 해서 그 내용을 망각하거나 또한 로동계급이 쏘베트형의 국가를 창건하여 운영하고있다는것을 망각하는자가 있다면 그는 사고의 능력이 없는자이며 되는대로 허풍을 치는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력량》은 무한한것이 아니다. 만일 오늘날 로동계급으로부터의 새로운 력량의 산생이 미약하며 또 때로는 매우 미약하다고 해서 만일 모든 포고, 호소, 선동에도 불구하고 또 《비당원들의 등용》에 관한 모든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력량의 산생이 미약하다고 해서 《로동계급의 력량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다면 그것은 벌써 공허한 말공부질이 되고만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소휴식》이 없이는 이러한 새로운 힘도 없다. 이 새로운 힘은 서서히 성장할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복구된 대공업의 기반우에서만(즉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기화의 기반우에서만) 성장할수 있는것이고 **달리는 결코** 획득될수 **없는**것이다.

세계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최대의 긴장이 지나간후 령락된 소농민적인 국가의 로동계급, 계급적탈락으로 하여 크게 고통을 당한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력량이 성장될수 있고 강화될수 있게 하려면, 낡고 피폐한 력량이 《회복》될수 있게 하려면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것이다. 1917~1921년의 시련을 승리적으로 겪어낼수 있었던 군사기관 및 국가기관을 창설한것은 현실적인(호언장담쟁이의 선언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력량》을 점유장악하고 그것을 모조리 흡수한 대사업이였다. 이 점을 리해하여야 할것이며 로동계급의 **새로운** 력량이 **서서히** 성장하지 않을수 없는 필연성,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멘쉐위크들이 볼쉐위크들의 《보나빠르트주의》에 관해서 아우성칠 때(볼쉐위크들이 《민주주의》의 의사에 반대하여 군대와 기관에 의거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것은 자산계급의 전술을 훌륭하게 표현하는것이다. 그리고 밀류꼬브는 정당하게도 이 전술을 지지하며 《크론슈따트》(1921년 봄)의 구호를 지지하고있다. 자산계급은 **실지적인** 《로동계급의 력량》이 지금 이 계급의 강력한 전위대(단꺼번에가 아니라 2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유일하게 혁명적인 계급의 《전위대》라는 역할, 칭호 및 력량을 자기의 실지행동에 의하여 전취한 로씨야공산당)와 계급적탈락에 의하여 가장 약화되였고 또한 멘쉐위크적 및 무정부주의적 동요에 가장 굴복하기 쉬운 분자들이 그에 합쳐서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 옳바로 타산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력량을 더욱 많이 믿으라.》는 구호하에서 지금 사실에 있어서는 멘쉐위크적 및 무정부주의적 영향을 강화하고있다. 1921년 봄의 크론슈따트는 가장 력연하게 이것을 증명하였으며 제시하여주었다. 모든 자각적인 로동자는 우리가 《로동계급의 력량을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자들을 반드시 폭로하며 쫓아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떠벌이들은 실지에 있어서 자산계급과 지주의 방조자로서 멘쉐위크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영향을 확대시킴으로써 자산계급 및 지주들에게 유리하게끔 무산계급의 약화를 가져오게 하는자들이기때문이다.

만일 《로동계급의 력량》이라는 개념의 실지내용을 랭정하게 연구하여본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주요한 《전선》인 경제전선, 경제건설사업에 비당원들을 실제적으로 등용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어떤 공작을 하였으며 어떤 사업들을 하였는가? 바로 이것이 자각적인 로동자들이 떠벌이들에게 제기하여야 할 문제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실지에 있어서 그들 떠벌이들은 경제건설을 원조하는것이 아니라 방해하는것이며 그들이 무산계급혁명을 원조하는것이 아니라 방해하는것이며 그들이 무산계급적지향을 실행하는것이 아니라 소자산계급적지향을 실행하는것이며 다른 계급에게 복무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을 항상 폭로할수 있고 또 그렇게 폭로하여야 한다.

우리의 구호는 다음과 같다. 즉 떠벌이들을 타도하라! 1921년 봄의 불행한 크론슈따트반란자들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백파방조자들을 타도하라! 현시기 시국의 특점과 과업을 잘 리해할줄 알게 하는 실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라!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공담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러한 특수성과 환상적이 아닌 현실적계급력량의 랭철한 평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준다.

무산계급의 군사적, 행정적, 일반정치적 창조의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성과를 달성한 시기에 뒤이어 새로운 력량이 훨씬 더 완만하게 장성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바 이것은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불가피한것이며 어떤 개인이나 당의 실착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원인에 기인하여 그렇게 된것이다. 경제사업에 있어서 건설은 불피코 보다 곤난하며 보다 완만하며 보다 점진적인것이다. 이것은 군사적, 행정적, 일반정치적 사업에 비해서 경제사업이 가지는 본질로부터 나오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특수한 곤난성과 보다 깊은—만일 이렇게 표현할수 있다면—근원으로부터 나오는것이다.

그러므로 최대의 신중성을 가지고 이 새로운 최고의 투쟁단계에 있어서의 자기의 과업을 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과업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양보를 더 많이 하자. 물론 무산계급이 지배계급으로 남아있으면서 양보할수 있는 그 한계내에서 양보하자. 되도록 급속하게 적당한 현물세를 징수하고 농민경제를 발전공고화하며 부흥시키는데 될수록 많은 자유를 주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는 필요한것이 아닌 기업소를 사경영적자본가와 외국의 리권소유자들도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내주자. 우리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을 반대하는 무산계급국가와 국가자본주의와의 협력 또는 동맹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동맹을 《열번 재여 한번에 마르라》는 준칙에 따라 능숙하게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보다 적은 사업분야, 즉 절대로 필요한것만을 자기에게 직접 남겨두자. 우리는 로동계급의 약해진 힘을 보다 적은 일에 집중시키자. 그러나 그대신에 더욱더 견고케 하며 실

천적경험으로써 한두번만이 아니라 여러번 자신을 검열하자. 일보일보 한치한치씩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행로를 이와 같이 곤난한 환경하에서 이러한 위험속에서 우리 군대와 같은 그러한 《군대》는 지금 전진할수 없는것이다. 이 사업이 《지리하다》든가 《흥미가 없다》든가 《리해할수 없다》고 하는자들, 눈살을 찌프리거나 당황해하는 자 또는 《종전의 고조》, 《종전의 열정》 등이 없다고 선언하여 자기 도취한자들이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사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고문서고에나 넘겨주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현단계와 현 투쟁단계가 가지는 특수성을 숙고하려 하지 않거나 또는 숙고할줄 모르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국토가 극심하게 황폐해지고 무산계급이 거의 초인간적노력의 련속으로써 피폐해진 조건하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에, 즉 진실로 사회주의적인 경제의 기초를 세우며 공업과 농업과의 옳바른 상품교환(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생산물교환)을 위한 일에 착수하고있다. 적들은 우리보다 아직 훨씬 더 강하다. 무정부주의적, 모리간상적, 개인적 상품교환이 우리의 사업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있다. 우리는 난관을 똑똑히 보고 계통적으로 또 완강하게 그것을 극복할것이다. 지방들에 보다 더 많은 창발성과 독자성을 주고 거기에 보다 더 많은 력량을 돌리며 그들이 실제경험에 보다 더 주의를 돌리자. 오직 공업의 부흥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고 농민에게도 로동자에게도 유리한 옳바른 국가적생산물교환이 창설되여야만이 로동계급은 그의 상처를 치료할수 있고 그의 무산계급적《계급력량》을 회복할수 있으며 농민은 무산계급의 령도에 대한 자기의 신임을 공고히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력량의 산생을 얻게 될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희망하는것처럼 그렇게 급속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는 그것을 얻게 될것이다.

보다 완만하고 보다 신중한, 보다 참을성있는, 보다 견결한 사업에 착수하자!

1921년 8월 21일

1921년 8월 28일 《쁘라우다》 제190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쁘라우다》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이 개정한 교정자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1~10페지

청당에 대하여

청당156은 극히 엄숙하고도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한것 같다.

어떤 곳에서는 청당이 주로 경험과 비당원로동자들의 지적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적을 지침으로 삼아, 비당원무산계급대중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면서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안목관계를 돌보지 않고》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청당하는데 진실로 성공한다면 혁명의 성과는 사실상 거대한것으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혁명의 성과가 지금에 와서는 종전 그대로 있을수는 없는 까닭이다. 군사적전선으로부터 경제전선에로 이행하며 신경제정책으로 이행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와 로동규률강화를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혁명의 성과는 그 성격을 불가피적으로 변화시키는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혁명의 주요한 성과로 되는것은 명확치 않고 눈에 뜨이지 않으며 단번에는 보이지 않는 내부적개선, 즉 로동의 개선, 로동조직 및 로동결과의 개선이며 무산계급과 당을 부패하게 하는 소자산계급적 및 소자산계급-무정부주의적 자연발생성의 영향을 반대하는 투쟁의 의미에서의 개선이다. 이러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유리되는 분자들을 당으로부터 숙청하여야 한다.(물론 대중의 눈앞에서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고있는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물론 우리는 대중

의 지적이라 해서 모두 순종하는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대중들도 역시—특히 과도한 부담과 고통으로부터 오는 비상한 피로와 과로의 시기에는 때때로 조금도 진보적이 아닌 기분에 지배되는 일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또한 《당내에 잠입한자》, 《위원행세를 하는자》, 《관료화한자》들에 대한 부정적태도에 있어서 비당원무산계급대중의 지적과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당원농민대중의 지적도 극히 귀중한것으로 된다. 근로대중은, 정직하고 헌신적인 공산당원들과, 이마에 땀을 흘려 밥을 벌어먹으며 아무런 특권도 가지지 못하고 《상관에게 아첨》할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있는 당원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히 민감하게 포착하는것이다.

비당원근로자들의 지적을 고려하면서 청당을 하는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그것은 당을 종전보다 더 강력한 계급의 전위대로 만들며 당을 계급과 보다 더 굳게 련결되여있으며 많은 곤난과 위험 속에서 계급을 승리에로 인도하는데 보다 더 능력있는 전위대로 되게 할것이다.

청당의 부분적과업으로서 나는 또한 당으로부터 이전의 멘쉐위크들을 축출할것을 지적하려 한다. 나는 1918년초 이후에 당에 들어온 멘쉐위크들중에서 당에 남겨두어야 할자는 100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하며 남겨두는자에 대해서도 세번네번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류파로서의 멘쉐위크들은 1918~1921년기간에 그들의 두가지 속성을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즉 하나는 로동자들사이에서 지배적인 류파에 교묘하게 적응하며 《잠입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보다 더 교묘하게 갖은 충성을 다하여 백파들에게 봉사하며 말로써는 그들과 절연한다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봉사

하는것이다. 이 두가지 속성은 멘쉐위크주의의 모든 력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악셀로드의 《로동자대회》157를 상기해보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립헌민주당2(과 군주정체)에 대한 멘쉐위크의 태도 등등을 상기해보면 충분할것이다. 멘쉐위크가 로씨야공산당에 《잠입한》것은 다만 그들의 마끼아웰리주의158때문만은 아니며 심지어는 마끼아웰리주의때문이라기보다는 도리여(비록 자산계급외교수법에 있어서는 멘쉐위크가 제일류의 명수들이라는것을 1903년이래 이미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적응성》때문인것이다. 모든 기회주의자는 적응성이 특징적이다.(그렇다고 해서 적응성이 죄다 기회주의인것은 아니다.) 기회주의자로서의 멘쉐위크는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로동자사이의 지배적인 류파에 적응하며 토끼가 겨울에는 흰색으로 변하는것과 같이 보호색으로 변장하는것이다. 멘쉐위크의 이 속성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한다는것은 1918년이후에, 즉 볼쉐위크의 승리가 처음에는 있음직한것으로 되였고 그후에는 의심할바없는것으로 되였을 때에 로씨야공산당에 들어온 전체 멘쉐위크중에서 대략 100분의 99까지를 당으로부터 숙청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사기군들, 관료화한자들, 정직하지 못한자들, 확고치 못한 공산주의자들 또한 《겉》만은 변장하였으나 정신은 멘쉐위크대로 남아있는 멘쉐위크들을 당으로부터 축출해야 한다.

1921년 9월 20일

1921년 9월 21일 《쁘라우다》
제210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쁘라우다》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
33권, 20～22페지

10월혁명 4돐에 즈음하여

10월 25일(양력 11월 7일)의 4돐이 닥쳐오고있다.

이 위대한 날로부터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씨야 무산계급혁명의 의의는 더욱 명백해지며 우리는 우리 사업의 실천적경험총체를 더욱 심각하게 숙고하게 된다.

이 의의와 이 경험을 지극히 간략하게—물론 퍽그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하지만—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수 있을 것이다.

로씨야혁명의 직접적인 절박한 과업은 자산계급민주주의적과업이였다. 즉 중세기의 잔재를 일소하고 그것을 근절하고 로씨야로부터 이 야만, 이 굴욕, 우리 나라의 일체 문화와 일체 진보에 대한 이 최대의 방애물을 청소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우리는 광범한 인민군중에게 준 영향의 견지로부터 보아 이 청소를 125년이상이나 앞선 프랑스대혁명보다 훨씬 결정적으로, 훨씬 급속하게, 훨씬 대담하게, 훨씬 성공적으로, 훨씬 광범하고 심각하게 완수하였다는것을 자랑할수 있다.

무정부주의자들도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즉 이 국제적인 사회적형의 로씨야대표자로서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3]도 다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즉 무산계급혁명)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많은 혼란된 말을 해왔고 또 하고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리해의 정확성과 기왕의 제 혁명의 경험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의 정확성은 지난 4년간에 충분히 확증되였다. 우리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이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과 만리장성으로 격리되여있지 않다는것을 알고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결국에 있어서) 전진할수 있을것이며 무한히 고상한 과업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수행할수 있으며 승리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자기의것으로 확보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해결하는것은 **오직 투쟁만**이라는것을 앎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견결히 그리고 확고하게 **앞으로** 사회주의혁명에로 나아가고있다. 결과는 두고보기로 하자. 그러나 지금 벌써 우리들은 사회의 사회주의적개조사업에서—령락되고 피폐한 후진국을 위해서는—굉장히 많은 일들이 수행되였다는것을 보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혁명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내용에 관해서는 이만하기로 하자. 맑스주의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리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명백한 실례들을 들어보자.

혁명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내용—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적 제 관계(질서, 기구)로부터 중세기적인것을, 농노제를, 봉건주의를 청소하는것을 의미한다.

1917년까지의 로씨야에서 농노제의 가장 주요한 표현, 잔재, 유물은 어떤것이였는가? 군주제도, 신분제도, 토지소유와 토지리용, 녀성의 지위, 종교, 민족적압박이 그것이였다. 이러한 《아우기아스의 외양간》81중에서 어떤것이든지 들어보라, —부언하거니와 모든 선진적인 국가들이 125년, 250년 내지 그보다 이전(영국에서는 1649년)에 **그들의**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면서도 아주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채 상당한 정도로 남겨놓은—이러한 아우기아스의 외양간중에서 어떤것이

든지 들어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아주 깨끗이 청소하였음을 볼것이다. 1917년 10월 25일(양력 11월 7일)부터 헌법제정회의의 해산(1918년 1월 5일)에 이르기까지 불과 10주간동안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자와 자유주의자(립헌민주당2)와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이 집권하고있던 8개월간에 한것보다 천배나 더 많은것을 하여놓았다.

이들 비겁쟁이, 말공부쟁이, 자고자대한 나르키쏘스148와 햄리트159따위들은 마분지로 만든 검을 휘두르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군주제도조차도 폐지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군주제도의 오물을 전부 일소해버렸다. 우리는 몇세기를 내려오던 신분제라는 건물의 돌하나 벽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다.(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도 아직 신분제의 흔적과 결별하지는 못하였다!) 신분제의 가장 깊은 근저, 즉 토지소유에서의 봉건주의와 농노제의 유물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하여버렸다. 위대한 10월혁명에 의한 토지개혁이 《결국》 어떻게 될것인가에 관해서는 《론쟁할수도 있다》.(이와 같은 론쟁에 몰두하는 문필가, 립헌민주당원,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은 외국에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론쟁에 시간을 허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 론쟁과 이 론쟁에 좌우되는 허다한 론쟁을 투쟁으로써 해결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은 8개월동안이나 농노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지주들과 《타협》하고있었으나 우리들은 몇주일동안에 이들 지주 및 그들의 일체 전통을 로씨야의 지상으로부터 철저히 일소하고말았다는 사실을 반대하여 론쟁할수는 없을것이다.

종교, 녀성의 무권리, 비로씨야민족에 대한 압박과 불평

등을 들어보자. 이 모든것은 다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문제이다. 소자산계급민주주의파의 머저리들은 8개월동안이나 이러한 문제를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중의 어느 한 나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자산계급민주주의적방향에서 철저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10월혁명의 렵볍에 의하여 철저히 해결되였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종교와 투쟁하였으며 또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비로씨야민족에게 그들자신의 공화국 또는 자치주를 주었다. 우리 로씨야에는 녀성의 무권리 또는 불완전권리와 같은 야비, 추악, 굴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농노제와 중세기의 부패하기 짝이 없는 잔재로서 례외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탐욕적인 자산계급과 미련하고 비겁한 소자산계급들이 유지해가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이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내용이다. 150년 내지 250년전에 이 혁명의(공통적형의 각 민족적형태를 말한다면 이러한 여러 혁명들의) 선진적인 수령들은 중세기적특권, 녀성의 불평등, 이러저러한 종교(또는 《종교적관념》, 《신앙》일반)의 국가적특권, 제 민족의 불평등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것을 인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들은 약속은 하고도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수행할수도 없었던것이다. 왜냐 하면 《신성한 사적소유》에 대한 《존경》… 이 방해한 까닭이였다.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혁명에는 삼중으로 저주로운 이 중세기적암흑과 이 《신성한 사적소유》에 대한 저주로운 《존경》이 없었다.

그러나 로씨야 여러 민족 인민들이 전취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성과들을 공고히 하려면 우리는 더 앞으로 전진하여야 하였으며 또 우리는 더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제 문제를 우리들의 주되는 진정한 사업

인 **무산계급**혁명적, 사회주의적 사업의 《부산물》로서 부대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개량이란 혁명적계급투쟁의 부산물이라고 말하여왔다.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은 무산계급혁명, 즉 사회주의혁명의 부산물이라고 우리는 말하여왔으며 또한 그것을 실지로 증명하였다. 말하던김에 부언하거니와 카우쯔키, 힐페르딩, 마르또브, 체르노브, 힐퀴트, 롱게, 맥도날드, 뚜라띠 일파 및 기타의 모든 《제2반국제당》100의 맑스주의의 영웅들은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과 무산계급사회주의혁명과의 사이의 **이러한** 호상관계를 리해할줄 몰랐다. 전자는 후자로 장성발전한다. 후자는 전자의 제 문제를 지나가는길에 해결한다. 후자는 전자의 사업을 공고화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후자가 전자를 넘어 장성발전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투쟁이, 오직 투쟁만이 결정한다.

쏘베트제도는 바로 한 혁명의 다른 혁명에로의 이러한 장성발전의 명백한 확인 또는 발현의 하나이다. 쏘베트제도는 로동자와 농민을 위한 최대한의 민주주의인 동시에 또 그것은 **자산계급**민주주의와의 결별과 전 세계사적인 **새형**의 민주주의의 발생, 즉 무산계급민주주의 또는 무산계급독재의 발생을 의미하는것이다.

사멸하여가는 자산계급과 또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있는 소자산계급민주주의파의 번견과 주구들은 **우리들의** 쏘베트제도의 건설에서 범한 실패와 과오에 대하여 저주와 욕설과 조소를 마구 퍼부으라고 하여라. 우리들에게 실지로 많은 실패와 과오가 있었고 또 있다는것을 우리는 잠시도 망각하지 않고있다. 일찌기 보지 못하던 **새형**의 국가기구를 창건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전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과연 실패와 과오 없이 수행할수 있을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쏘베트적 제 원칙의 실생활에의 적

용—그의 완성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료원한—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할것이다. 그러나 쏘베트국가의 건설을 **개시하는** 행복이, 그럼으로써 전 세계사의 새시대, 즉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억압받고있었으며 도처에서 새로운 생활을 향하여, 자산계급에 대한 승리를 향하여, 무산계급독재를 향하여, 자본의 기반과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의 인류의 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있는 **새** 계급의 지배의 시대를 **열어놓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차례진것을 자랑할 권리가 있으며 또 우리는 자랑하고있는것이다.

제국주의전쟁에 관한 문제, 금융자본이 취하고있는, 현재 전 세계를 좌우지하는 국제정책—**불피코** 새로운 제국주의전쟁을 산생시키며 또 불피코 한줌밖에 안되는 《선진》렬강들의 락후한 약소민족들에 대한 민족적억압, 략탈, 강탈 및 교살의 미증유의 강화를 초래하는 국제정책—에 관한 문제는 1914년 이래로 지구상의 전체 국가들의 모든 정책을 좌우하는 중심문제로 되였다. 그것은 수천만인의 사활문제이다. 그것은 자산계급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준비하고있으며 우리들의 눈앞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자라나고있는 다음번 제국주의전쟁에서 2,000만명의 인간이(1914～1918년의 전쟁과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의 추가적인 《소》전쟁에서 살륙된 1,000만명 대신에) 살륙되는가 안되는가, 또 이 불가피적인(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장래의 전쟁에서 6,000만명의 인간이(1914～1918년에 불구자로 된 3,000만명 대신에) 불구자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우리 나라의 10월혁명은 전 세계 력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자산계급의 종복들과 그들의 공명자인 사회혁명당원 및 멘쉐위크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소자산계급적, 사이비《사회주의적》민주주의파는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하라》는 구호를 조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구호는 유일한 **진리**라는것이, 즉 불유쾌하고 조포하고 로골적이고 무자비한것이기는 하나 가장 세련된 배외주의적 및 평화주의적 기만의 암흑속에서 빛나는 **유일한 진리**라는것이 판명되였다. 이러한 기만은 파탄되고있다. 브레스트강화는 폭로되였다. 브레스트강화보다도 더 나쁜 베르싸이유강화의 역할과 후과는 나날이 더욱 무자비하게 폭로되고있다. 그리하여 어제날의 전쟁의 원인과 박두하고있는 래일의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 수백만사람들앞에는 다음과 같은 준엄한 진리가 더욱더 명백해지고있으며 더욱더 뚜렷해지고있으며 더욱더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즉 **볼쉐위크적투쟁과 볼쉐위크적혁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전쟁과 불가피적으로 그것을 산생하는 제국주의세계(우리 나라에 구철자법이 그대로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МИР》①라는 두 단어를 그의 2중적의의에서 썼을것이다.)로부터 탈출할수는 없으며,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할수는 없다는 진리가 곧 그것이다.

자산계급평화주의자나 장군이나 시정배나 자본가나 속물들이나 모든 기독교독신자들이나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기사들이 미친듯이 이 혁명을 매도할테면 하라. 그러나 그 어떠한 악의와 중상과 기만의 탁류로써도 수백수천년이래 처음으로 노예들이 다음과 같은 구호, 즉 노예소유자들간의 이 전쟁을 그들이 전리품을 분배하기 위한 전쟁으로부터 만국의 노예소유자들을 반대하는 만국의 노예들의 전쟁으로 전화시키자라는 구호를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노예소유자들간의 전쟁에 대답한 이 전 세계사적 사실을 흐리게 하지는 못할것이다.

수백수천년이래 처음으로 이 구호는 막연하고 무력한 기대로부터 명백하고 확연한 정치적강령으로 전화되였으며 무산

---

① 즉 《миръ》와 《міръ》, 전자는 《평화》, 《강화》이고 후자는 《세계》이다. —편집자

계급의 지도하에 있는 수백만 피압박대중의 실제적투쟁으로 전화되였으며 무산계급의 최초의 승리로 전화되였으며 전쟁을 페절하는 사업, 즉 자본의 노예, 고용로동자, 농민, 근로자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강화도 하고 전쟁도 하는 각국자산계급의 동맹에 대한 모든 나라 로동자들의 동맹사업의 최초의 승리로 전화되였다.

이 첫 승리는 아직 종국적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미증유의 중하와 난관,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측으로부터의 허다한 실패와 오유를 범해가면서 우리 10월혁명에 주어진것이다. 락후한 인민이 어떻게 그렇게 실패도 오유도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의 제국주의전쟁을 홀로 타승할수 있을것인가? 우리는 자기의 오유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오유를 시정하는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것을 랭정하게 고찰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연히 사실대로 남아있을것이다. 즉 수백수천년이래 처음으로 노예소유자들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모든 노예소유자를 반대하는 노예의 혁명으로써 《대답》하겠다는 약속은 철저히 수행되였으며 또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수행되고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바로 언제 어느 기간내에 또 어떠한 민족의 무산계급에 의하여 이 사업이 끝까지 완수될것인가 하는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것은 얼음이 깨여지고 길이 열렸으며 항로가 제시되였다는 그 점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 등등 《조국을 보위하는》 모든 나라 자본가 제씨들이여, 당신들의 위선적인 수작을 계속하라!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기사 제씨여, 전 세계의 모든 평화주의적 시정배 및 속물들과 함께 계속 새로운 《바젤선언》으로써(1912년의 바젤선언[103]을 본받아)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수단에 관

한 문제를 《회피》하라! 최초의 볼쉐위크적혁명은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 제국주의세계로부터 지구의 최초의 1억의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다음혁명은 이와 같은 전쟁과 이와 같은 세계로부터 전 인류를 구출할것이다.

끝으로 그리고 가장 중대하기도 하고 가장 곤난하기도 하고 가장 완수되지 못하기도 한 우리의 사업은 경제건설, 즉 파괴된 봉건적건조물과 절반 파괴된 자본주의적건조물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주의적건조물을 위한 경제적기초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 가장 중대하고 가장 곤난한 사업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많은 실패와 가장 많은 오유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와 같은 사업을 실패와 오유 없이 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진행하고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들이 범한 일련의 오유를 우리의 《신경제정책》에 의하여 시정하고있으며 소농민적인 국가에서 이러한 오유없이 사회주의적건조물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것인가를 배우고있다.

난관은 무한하다. 우리는 무한한 난관과 싸우는데 익숙해졌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암석같은자》이며 《확고부동한 정치》의 대표자라고 부르는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축성을, 즉 변화된 객관적조건을 타산하며 만일 종전의 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시기에 합목적적이 못되며 불가능하게 되였다면 우리들의 목적에 이르는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전술을 재빨리 그리고 급격히 변경할줄 아는 수단을 배웠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혁명에 필요한 또 하나의 예술을 배운것이다.

정열의 파도를 탄 우리들, 처음에 인민들의 일반 정치적 정열을 고무하고 다음에는 군사적정열을 고무한 우리들은 직접 이 정열에 의하여 그처럼 위대한(일반 정치적과업이나 군

사적과업처럼) 경제적과업을 수행하려고 타산하였다. 우리들은 무산계급국가의 직접적명령에 의하여 소농민적인 국가에서의 국가적생산과 생산물의 국가적분배를 공산주의적으로 조정하려고 타산하였다. ―또는 우리는 충분한 고려도 없이 그것을 타산하였다고 말하는편이 아마 보다 더 정확할것이다. 실생활은 우리의 오유를 말해주었다.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다년간의 사업에 의하여 준비하기 위해서는―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일련의 과도적단계가 필요하였다. 정열에 직접적으로 의거할것이 아니라 위대한 혁명이 산생한 정열의 힘을 빌어 개인적흥미와 개인적리해관계에 대한 관심과 독립채산제에 의거하여 소농민적인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에 이르게 하는 견고한 다리를 우선 건설하는데 노력하라. 다르게는 당신들이 공산주의에 도달할수 없을것이며 다르게는 당신들이 몇천만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끌고갈수 없을것이다. 실생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여주었다. 혁명발전의 객관적행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여주었다.

그리고 3～4년이라는 얼마 안되는 동안에 급격한 전환을 배운(급격한 전환이 요구되는 때에) 우리들은 열심히, 신중히 그리고 근기있게(아직 이러한 열심과 신중성과 근기가 부족하지만) 새로운 전환, 《신경제정책》을 배우고있다. 무산계급국가는 가장 신중하고 부지런하고 능숙한 《살림군》으로 되여야 하며 성실한 도매상인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산계급국가는 소농민적인 국가를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할수 없으며 자본주의적(아직도 당분간은 자본주의적인)서방국가들과 병존하고있는 오늘의 조건하에서는 지금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다른 길은 없다. 도매상인이라면 그것은 공산주의와는 천양지차가 있는 경제적형인것 같이 보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실생활에 있어서 소농경제로부터 국가자본주의를 거쳐 사

회주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제 모순중의 하나이다. 개인적 리해관계에 대한 관심은 생산을 제고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매상업은 수백만 소농민의 경영흥미를 돋구며 그들을 련결시키며 그들을 다음단계, 즉 생산자체에 있어서의 련계와 련합의 각이한 형태로 끌고가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단합시킨다. 우리는 벌써 우리 경제정책의 필요한 개변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 분야에서 약간의 성과를—하긴 적고 부분적인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성과임에는 의심할바없는—거두고있다. 우리는 벌써 이 새로운 《과학》의 분야에서 예비과를 졸업하고있다. 견결히 확고부동하게 공부하면서 한걸음한걸음을 실천적경험으로써 검열하며 이미 발단을 열어놓은 일을 몇번이고 다시 개작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오유의 의의를 주의깊이 검토하면서 그 오유를 시정하여나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학급으로 진급하게 될것이다. 비록 세계의 경제정세와 정치정세가 우리의 과정을 우리가 희망한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하고 훨씬 더 곤난하게 했지만 우리는 전 《과정》을 끝마칠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도기의 곤난과 빈궁과 기아와 파괴가 아무리 엄중한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기를 잃지 않고 우리의 사업을 종국적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추진시킬것이다.

1921년 10월 14일

1921년 10월 18일부 《쁘라우다》 제234호에 게재

원고에 의하여 인쇄

서명: 엔.레닌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32～40페지

현재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후의 금의 의의에 관하여

위대한 혁명의 기념일을 경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혁명의 과업들에 주의력을 집중시키는것이다. 혁명에 의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과업들이 있으며 이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새로운것을(지금까지 수행된 혁명의 견지로 보아) 습득하는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때에 있어서는 혁명을 이와 같이 경축하는것이 특히 적절하며 또 필요하다.

현시기에 우리의 혁명을 위하여 새로운것이라는것은 경제건설의 근본적문제에서 《개량주의적》인, 점차적인 신중한 우회적활동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이다. 이러한 《새 방법》은 리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허다한 문제, 의혹, 의문을 환기시키고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리론적문제가 나선다. 즉 일련의 가장 혁명적인 행동이 있은후 혁명전체가 전반적인 승리적행정을 걷고있는 조건하에서, 같은 무대우에서 극히 《개량주의적》인 행동에로 이행하려는것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이것은 《진지의 포기》, 《파탄의 승인》 또는 그에 류사한것이 아닐가? 우리의 적들, 즉 반봉건적형의 반동분자들로부터 멘쉐위크들 또는 기타 제2반국제당100의 기사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물론 이것을 그렇다고 말할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기때문에

근거가 있든 없든간에 이렇게 부르짖기마련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당파—봉건령주로부터 멘쉐위크들에 이르는—가 놀랄만큼 통일되여있는것은 일체의 당파가 무산계급혁명을 반대하여 실지로 《반동적무리》로 되고있다는것을 또 한번 립증하는것이다.(말하자면 이것은 엥겔스가 1875년과 1884년에 베벨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예언한바와 같다.)160

그런데 우리의 벗들가운데도 약간의… 《의혹》이 있다.

우리는 대공업을 부흥시키고 대공업과 소농농업과의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을 조직하여 농업의 사회화를 방조하였다. 대공업의 부흥을 위해서 농민으로부터 일정한 식량과 원료를 곡물징수제의 방법에 의하여 차대하였다. 우리는 1921년 봄에 이르기까지 3년이상이나 바로 이러한 계획(또는 방법, 체계)을 실시하여왔다. 이것은 낡은것을 새로운 사회경제적제도로써 교체해놓기 위하여 낡은것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과업에 대한 하나의 혁명적인 조치였다.

1921년 봄이후 우리는 이러한 행동의 조치, 계획, 방법 및 체계 대신에 전혀 다른 개량주의적형의것을 대치하고있다. (아직 《대치》하지는 않았다. 방금 《대치하기》 시작했을따름이며 이것을 완전히 자각하지는 못하였다.) 즉 우리는 낡은 사회경제적제도인 상업, 소경영, 소기업 및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고 이것들을 신중히 또 점차적으로 장악하면서 또는 **오직** 그 부활의 **정도에 따라서만** 이것을 국가의 조절하에 넣을 수 있도록 해가면서 상업, 소기업 및 자본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것은 과업에 대한 전혀 다른 취급방법이다.

종전의 혁명적인것에 비하면 이것은 개량주의적취급방법이다.(혁명은 낡은것을 가급적으로 최소한도로 파괴하려고 애쓰는것이 아니며 그것을 신중히, 점차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아

니라 낡은것을 가장 철저하게 또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변혁인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즉 만일 당신들이 혁명적방책을 체험해보고나서 그것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량주의적방책으로 이행한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혁명을 오유라고 성명하는것을 립증하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혁명으로부터 시작할것이 아니라 개량주의로부터 시작하여 개량에 국한하여야 할것이였음을 립증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멘쉐위크들과 그와 류사한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혹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온갖 곤난을 다 체험한》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에는 하나의 궤변 또는 어리석은 사기인것이며, 혹은 그것이 진실한 시련을 《체험하지 못한》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에는 유치한 행동에 불과한것이다. 진정한 혁명가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위험—아마도 유일한 위험이기도 하겠지만—은 혁명성을 과장하며 혁명적방책의 적절하고 성공적인 적용의 한계와 조건을 망각하는것이다. 진정한 혁명가들이 《혁명》이라고 해서 대서특기하기 시작하며 《혁명》을 거의 신적인 그 무엇으로 받들기 시작하며 리성을 잃어버리며 또한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하에서 어떤 활동분야에서 혁명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으며 또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하에서 어떤 활동분야에서 개량주의적행동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것을 가장 랭정하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량하며 검열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그들은 이로하여 실패하기 가장 쉬운것이다. 진정한 혁명가들이 파멸을 당하는것(대외적패배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의 내부적파탄이라는 의미에서)은 그들이 신중성을 잃고 《위대한 승리적인 세계적》혁명은 반드시 어떠한 환경하에서든지, 어떠한 활동분야에

서든지 온갖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히 파멸을 당하는것이다.—일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파멸한다. 왜냐 하면 그는 근본문제에서 우매한 생각을 한것이며, 그리고 가렬한 전쟁시에는(혁명은 가장 가렬한 전쟁이다.) 이러한 우둔한 행동에 대한 처벌로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것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승리적인 세계적》혁명은 오직 혁명적방법만을 적용할수 있고 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아무데서도 이러한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것은, 맑스주의의 토대로부터 리탈하지 않는 한 순전히 리론적인 명제의 기초우에서 자명한것이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경험에 의해서도 확증되고있다. 리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혁명시에도 다른 일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우둔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161] —이것은 엥겔스가 한 말인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우리는 우둔한것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떠한 과업을 어떠한 때에 혁명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또 어떠한 과업을 그렇게 해결할수 없는가를 될수 있는대로 랭정하게 고찰하면서 일단 범한것은 되도록 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들자신의 경험, 즉 브레스트강화는 전혀 혁명적이 아닌, 도리여 개량주의적인, 아니 심지어는 개량주의적인것보다 더 나쁜 행동의 모범이였다. 왜냐 하면 개량주의적인 행동은 일반적규칙에 의하면 서서히 신중하게 점차적으로 전진하는것이며 그래도 후퇴하지는 않는데 브레스트강화로 말하면 후퇴하는 행동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브레스트강화의 체결시에 우리가 취한 전술의 정당성은 오늘날 이미 증명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

하며 또한 모두가 인정하고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끝까지 수행된것은 오직 우리 혁명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사업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만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에서 무산계급적 또는 사회주의적 사업은 세가지의 주요한 문제에 귀결된다. (1) 전 세계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의 혁명적인 탈출. 자본주의적 강도들의 전 세계적인 두 집단간의 살륙을 폭로하며 저지시키는것. 이것은 우리들측으로부터는 이미 완전히 수행되였다. 그러나 오직 일련의 선진국가들에서의 혁명만이 이것을 모든 면에 걸쳐 수행할수 있게 할것이다. (2) 무산계급독재의 실현형태인 쏘베트제도의 창설. 세계적의의를 띤 전환이 수행되였다.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의회제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전 세계 력사의 새로운 일장, 즉 무산계급독재의 시대가 시작되였다. 그렇지만 쏘베트제도와 무산계급독재의 모든 형태는 많은 나라들에 의하여 계속 개선되고 완성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 분야에서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것이 아직도 대단히, 대단히 많다. 이 사실을 보지 않는것은 허용할수 없는 일일것이다. 끝까지 수행할 일, 이것을 개편하는 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할것이다. 생산력 및 문화의 발전에서 앞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매개 단계는 우리 쏘베트제도의 완성과 개조를 수반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및 문화 면에서는 극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조할것이 허다하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난처해》하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노릇이다. (우매한 행동보다 더 나쁜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3)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기초의 건설.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가장 주요한것, 가장 근본적인것이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것은 원칙적견지에서나 실천적견지에서나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견지에서나 국제적견지에서나 다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다.

가장 주요한것이 자체의 기초우에서 완성되지 못하였으니만큼 우리는 이 점에 모든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여기서 곤난은 과도형태에 있는것이다.

나는 1918년 4월에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에서 이렇게 썼다. 《일반적으로 혁명가나 사회주의의 신봉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련쇄전체를 틀어잡고 다음고리에로의 확고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전력을 다하여 잡아쥐여야 할 특별한 고리를 매 시기마다 발견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제 사건의 력사적련쇄에서의 고리의 순서, 그 형태, 그 련쇄 그리고 고리와 고리와의 차이는 야장이 만든 보통철쇄와 같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둔한것은 아니다.》①

현재 문제로 되고있는 활동분야에서의 그러한 고리는 국가의 옳바른 조절(지휘)하에서 국내상업을 활발화하는 그것이다. 상업—이것은 제 사건의 력사적련쇄에서, 즉 1921~1922년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과도적형태에서 우리들, 즉 무산계급국가정권이, 우리들, 즉 지도적지위에 있는 공산당이 《전력을 다하여 잡아쥐여야 할》 그런 《고리》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고리를 충분히 확고하게 《잡아쥔》다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련쇄전체를 틀어잡게 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련쇄전체를 틀어잡지 못할것이며 사회주의적인 사회경제관계의 기초를 수립하지 못할것이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것이다. 공산주의와 상업?! 이것은 전혀 호상련관이 없고 전후가 맞지 않는 펴그나 거리가 먼 그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526페지를 보라. —편집자

어떤것 같다. 그러나 만일 경제적면에서 깊이 생각해본다면 이 량자간의 거리는 공산주의와 소농적가부장제적농업이 서로 떨어져있는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계적규모에서 승리하는 때에는 우리는 아마도 세계의 몇몇 최대도시의 거리에다 황금으로 공동변소를 짓게 될것이다. 금때문에 1914～1918년의 《위대한 해방》전쟁에서, 즉 브레스트강화와 베르싸이유강화중에서 어느것이 더 나쁜것인가 하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에서 1,000만명이 살륙되였고 또 3,000만명이 불구자로 되였다는것을 잊지 않고있으며 또한 이 금때문에 1925년경이나 1928년경에 아마도 일본과 미국사이의 전쟁이나 영국과 미국사이의 전쟁 또는 이와 류사한 어떤 전쟁에서 적어도 2,000만명이 살륙되고 6,000만명이 불구자로 되리라는것을 잊지 않고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황금으로 공동변소를 세우는것은 금을 가장 《정당하게》 실물교훈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황금을 이렇게 사용하는것이 아무리 《정당》한것이고 유익한것이고 인도적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여기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917～1921년간에 사업한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과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사업하되 이번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금후 수십년동안 더 사업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에서 금을 절약하며 그것을 되도록 고가로 매각하며 이 금으로 상품을 렴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승냥이와 함께 살면 승냥이와 같이 짖어야 한다. 리성적인 인간사회에서는 승냥이따위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로씨야격언을 따를것이다. 《장담은 싸움전에 할것이 아니라 싸움후에 할것이다.》…

만일…만일 천백만의 소농민과 함께 전선망으로 련결된 훌륭한 대기계공업, 즉 그 기술력과 그 조직적《상부구조》와 수반현상들에 의하여 대량의 훌륭한 생산물을 과거보다 일층 신속하게 일층 값눅게 소농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는 공업이 없다면 상업은 수천만의 소농민과 대공업을 호상 련결시키는 유일하게 가능한 경제적련계이다. 그러나 세계적규모에서는 이 《만일》은 **이미 실현되였으며** 이 조건은 이미 현존하고있다. 그러나 어떤 개별적나라가, 특히 가장 락후한 자본주의국가에 속하는 한 나라가 공업과 농업과의 **새로운** 련계를 즉시로 직접적으로 현실화하며 실현하며 실제적으로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는 이 과업을 《돌격적공격》으로써 해결할수는 없는것이고 지금 반드시 완만한, 점차적인, 신중한 《포위》작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상업을 장악하며 그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을 일정한 한계내에 두는것은 무산계급국가주권이 능히 할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작은, 극히 작은 례를 들어보자. 돈바스에서, 부분적으로는 대규모국영탄갱들에서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로 말미암아, 또 부분적으로는 소탄갱들을 농민에게 임대한것으로 말미암아 크지는 않으나마, 아직도 대단히 작으나마, 그러나 의심할바 없는 경제적부흥이 시작되였다. 이리하여 무산계급국가정권은 소량의(선진적인 나라들의 견지에서 본다면 보잘것없이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의 궁핍한 조건하에서는 많은 분량이다.) 보충적석탄을 원가로, 말하자면 100%로 받아가지고 개별적국가기관들에는 120%로, 개인에게는 140%로 판매하고있다.(부언하거니와 이 수자들은 내가 전혀 자기 마음대로 취한것이다. 그 리유는, 첫째로 내가 정확한 수자를 알고있지 못하기때문이며 둘째로는 비록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금 발표하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에 의하

여 관찰한다면 우리는 비록 극히 작은 규모에서나마 공업과 농업과의 거래를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도매상업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현존하는 소규모적인 락후한 공업 또는 대규모적인, 그러나 약화되고 령락된 공업에 달려붙어서 현존하는 경제적기초우에서 상업을 부흥시키며 중농 및 보통농민들(이들은 농민의 다수이며 농민대중의 대표자이며 자연발생성의 소지자이다.)로 하여금 경제적부흥을 감촉하게 하며 이것을 대공업의 부흥을 위한 일층 계통적이며 견고하며 일층 광범하며 일층 성공적인 사업에 리용하는 과업을 파악한것 같이 보인다.

상업에 대한 본능적인 경멸을 특색으로 하는《감정의 사회주의》또는 구로씨야적, 반귀족적, 반농민적, 가부장제적 기분에 지배되여서는 안된다. 농민과 무산계급의 련계를 강화하는데나 령락되고 피폐한 나라에서 인민경제를 즉시로 활발케하며 공업을 부흥시키며 전기화와 같은 원대하고 광범하고 심각한 방책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것이라면 모든 경제적과도형태를 리용할수 있으며 또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혁명과 개량과의 관계는 오직 맑스주의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또 정당하게 규정되였다. 그러나 맑스는 이 관계를 다만 한 측면으로부터만, 즉 비록 단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무산계급이 최초의 어느 정도 견고한, 그리고 어느 정도 영속적인 승리를 달성하지 못한 환경하에서만 볼수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의 정당한 관계의 기본은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즉 개량은 무산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투쟁의 부산물이다. 모든 자본주의세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무산계급의 혁명적전술의 기초이며 입문인데 이 입문을 제2국제당의 매수된 지도자들과 제2반국제당의 반현학적, 반자만적 기사들은 외곡하고 있으며 모호하게 만들고있다. 비록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무산

계급이 승리한후에는 혁명과 개량과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것이 나타난다. 원칙적으로는 사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형식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그리고 이 변화는 맑스가 직접 예견할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맑스주의의 철학과 정치학의 기초우에서만 인식할수 있는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브레스트강화에 의한 퇴각을 정당하게 실시할수 있었던가? 그것은 우리가 퇴각할 여지가 있었을만큼 훨씬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우리는 1917년 10월 25일부터 브레스트강화에 이르는 수주일간에 놀라운 속도로 쏘베트국가를 건설하였고 혁명적방도로써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 탈출하였고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였다. 때문에 설사 대후퇴(브레스트강화)를 하였다 해도 《휴식》을 리용하여 꼴챠크, 제니낀, 유제니치, 삘쑤쯔끼, 우란겔을 반대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는 완전히 충분한 진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무산계급의 승리이전의 개량은 혁명적계급투쟁의 부산물이다. 승리후에는 개량은(국제적규모에서는 여전히 《부산물》이지만) 무산계급이 승리를 얻은 나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최고도의 긴장한 투쟁이 있은후 어떠한 이행을 혁명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확실히 힘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하며 정당한 휴식인것이다. 승리는 심지어 부득이한 후퇴를 단행하는 경우에서도 유지될수 있는—물질적의미에서도 정신적의미에서도 유지될수 있는—그러한 《힘의 저장》을 준다. 물질적의미에서 유지될수 있다는것은 적이 우리를 종국적으로 분쇄할수 없게 하는 그러한 력량의 충분한 우세를 보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신적의미에서 유지될수 있다는것은 결코 사기가 저락되거나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정세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보전하며 활기롭고 강의한 정신을 확보하며 비록 멀리 후퇴하더라도 필요한 정도까지만 후퇴하며 제때에 후

퇴를 중지하고 또다시 공세로 이행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는 국가자본주의에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정도로 후퇴하였다. 우리는 지금 상업의 국가적조절에로 후퇴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정도로 후퇴할것이다. 벌써 이 후퇴의 종말이 멀지 않다는것, 또 그다지 멀지 않은 장래에 이 후퇴를 중지할 가능성이 도래할것이라는 징조가 보인다. 우리가 이 필요한 후퇴를 일층 자각적으로 일층 일치협력하여 일층 적은 편견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후퇴를 그만큼 속히 중지할수 있는것이고 우리의 승리적인 전진운동을 일층 확고하게 일층 급속하게 일층 광범하게 할수 있게 될것이다.

1921년 11월 5일

1921년 11월 6～7일부 《쁘라우다》 제251호에 게재

서명: 엔.레닌

《쁘라우다》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86～93페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에 관하여

(1922년 1월 12일부 로씨야공산당
(볼쉐위크) 중앙위원회 결정)162

1. 신경제정책과 직업동맹

신경제정책은 무산계급의 처지, 따라서 또 직업동맹의 처지에도 일부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있다. 공업과 운수 부문의 생산수단의 압도적다수는 무산계급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토지의 국유화와 함께 이와 같은 사정은, 신경제정책이 로동자국가의 본질을 변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방법과 형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왜냐 하면 신경제정책은, 시장을 통하여 수백만 농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토대우에서 건설되고있는 사회주의와 재생을 지향하고있는 자본주의와의 경제적경쟁을 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형식의 변화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온갖 정책에 있어서 공산당과 쏘베트정권이 현재 이 이행의 특별한 방책을 취하고있으며 허다한 점에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고있다는것, 말하자면 《새로운 우회》에 의하여 일련의 진지를 전취하고있으며 더 잘 준비하여 가지고 재차 자본주의를 공격하기 위하여 퇴각하고있다는 그

사정에 기인되는것이다. 특히 국가의 조정하에 있는 자유상업과 자본주의가 현재 허용되여 발전하고있으며 그리고 또 타방으로는 사회화된 국영기업소들이 소위 독립채산제로, 다시말하면 상업적원칙으로 이행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문화정도가 일반적으로 뒤떨어져있고 나라가 피폐하고있는 조건하에서는 불피코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소의 관리측과 그 기업소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와의 대립을 어느 정도 의식하게 할것이다.

2. 무산계급국가에서의 국가 자본주의와 직업동맹

무산계급국가는 자기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상업의 자유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허용할수 있으나 이것은 다만 일정한 정도까지만 또 오직 개인상업과 사경영적자본주의에 대한 국가적조절(감시, 통제, 형식의 결정 및 절차의 결정 등등)의 제 조건하에서만 허용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조절의 성공여하는 비단 국가정권에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무산계급 및 근로대중일반의 성숙정도에 더 많이 달려있는것이며 다음에는 문화수준 등등에 달려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절이 완전히 성공하는 조건하에서도 로동과 자본간의 계급적리해관계의 대립은 무조건하고 여전히 남아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직업동맹의 가장 주요한 과업의 하나는 앞으로 자본과의 투쟁에서 무산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전면적으로 또 백방으로 수호하는것이다. 이 과업은 반드시 공공연하게 첫자리에 내세워야 하며 직업동맹의 기구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여 개편, 변형 혹은 보충되여야 한다.(분쟁조정위원회, 파업기금,

호조기금 등등이 조직되여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조직되여가고있어야 한다.)

3. 소위 독립채산제에로 이행하고 있는 국영기업소와 직업동맹

국영기업소들의 소위 독립채산제에로의 이행은 신경제정책과 불가피적인 또 불가분적인 련계를 가지고있는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는 유일한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주요한 형태로 될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이것은 상업의 자유가 허용되여 발전하고있는 환경속에서 국영기업소가 현저하게 영리원칙으로 이행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각 국영기업소들이 결손을 보지 않고 리윤을 얻어야 할 가장 절실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또 행정측의 불가피한 리해관계 및 본 부서의 리해관계에 지나치게 열중하는것과 관련하여, 로동자대중과 국영기업소를 관리하는 지배인들 또는 이들이 소속하고있는 부서들과의 사이에 기업소내의 로동조건에 관한 제 문제에 있어서 불피코 일정한 리해관계의 대립을 산생케 하는것이다. 때문에 직업동맹은 사회화된 기업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리익을 수호하며 가능한 한 그들의 물질적생활형편을 향상시켜주며 국가기관의 관료주의적페단에 의하여 빚어지는 경제기관의 과오와 지나치게 본 부서의 리해관계에 열중하는 현상을 시정하여주는 책임을 무조건하고 져야 한다.

4. 토지, 공장 등에 대한 사적소유가 인정되여있고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정권이 장악되여있는 국가에서의 무산계급의 계급투쟁과 토지 및 대다수의 대기업소들에 대한 사적소유가 인정되여있지 않고 무산계급의 수중에 정권이 장악되여있는 국가에서의 무산계급의 경제적투쟁지간의 본질적차이

계급이 존재하고있는 한 계급투쟁은 불가피한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계급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로씨야공산당의 강령에는 우리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함에 있어서 다만 처음 몇걸음을 내디던데 불과하다고 아주 명확히 기술되여있다. 때문에 공산당도, 쏘베트정권도 또한 직업동맹도 공업 및 농업의 전기화가 끝나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도 끝나지 않은 한, 이 전기화에 의하여 소규모적경제의 뿌리와 시장지배의 뿌리가 모두 끊어지지 않은 한 경제적투쟁의 존재와 그 불가피성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방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파업투쟁의 최후목적은 국가기관을 파괴하며 그 계급적국가권력을 전복하는데 있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 국가와 같은 과도적형태의 무산계급국가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온갖 진출의 최후목적은 무산계급국가를 관료주의적으로 외곡하려는것과의 투쟁, 그의 과오 및

약점과의 투쟁, 국가의 통제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자본가의 계급적욕망과의 투쟁 등등의 방법으로써 오로지 무산계급국가와 무산계급의 계급적국가권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공산당이나 쏘베트정권이나 직업동맹은 무산계급의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의 파업투쟁의 적용은 오로지 일방으로는 무산계급국가의 관료주의적폐단과 그 국가기관내에 있는 자본주의의 낡은 잔재, 타방으로는 근로대중의 정치적미숙과 문화적락후성에 의해서만 설명될수 있으며 또 정당화될수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여서는 안될것이며 또 로동자와 근로대중들에게 숨겨두어서도 안될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개별적집단들과 로동자국가의 개별적 시설 및 기관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있을 때 직업동맹들의 과업은 그들이 대표하고있는 로동자집단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게끔 이런 갈등을 가장 급속히 또 원만히 조정하되 이 리익이 다른 로동자집단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으며 또 로동자국가와 그의 전반 경제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실현될수 있도록 조력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오로지 이러한 발전만이 로동계급의 물질적 및 정신적 복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개별적부분과 로동자국가의 제 기관사이의 마찰과 갈등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하며 건전하며 합목적적인 방법은 직업동맹의 중재적인 참가인데 여기에 있어서 직업동맹들은 해당 기관을 통하여 명확히 정식화되여있는 쌍방의 요구조건과 제의를 토대로 하여 해당 경제기관측과 담판을 하거나 혹은 국가의 최고기관에 상소하는것이다.

경제기관측의 그릇된 행동, 일정한 로동자집단의 락후성, 반혁명분자들의 도발적행동 또는 끝으로 직업동맹조직자체의 예견성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국영기업소 및 기타에서 파업의 형식을 띤 갈등이 로골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과업

은 직업동맹사업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제 대책을 취함으로써, 즉 실제적으로 부정당한것과 혼란한것을 제거하며 정당하고도 실현할수 있는 대중의 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책을 취하며 대중에 대한 정치적영향 등등을 줌으로써 그 갈등을 가장 급속히 청산하도록 하는데 있다.

직업동맹의 활동의 정당성여부와 그 성과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척도중의 하나는 직업동맹이 로동자대중의 리익을 실제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갈등을 일으킬수 있는 제 동인을 제때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대책을 취함으로써 국영기업소내의 대중적 제 갈등을 어느 정도로 성과있게 예방하는가를 타산하는 것이다.

5. 직업동맹의 자원적가맹원칙의 복귀

고용로동자라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죄다 맹원으로 계산하려는 직업동맹의 형식적인 태도는 직업동맹에 어느 정도의 관료주의적인 외곡을 초래하였고 자기의 광범한 맹원대중으로부터의 직업동맹의 유리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개인적이든 또는 집단적이든 가맹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원적가맹원칙을 단호히 실현하여야 한다. 직업동맹원에게 결코 일정한 정치적견해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에 대한 태도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동맹은 무당파적이여야 한다. 무산계급국가에 있어서 직업동맹원에 요구하여야 할것은 다만 동지적인 규률을 리해하며 또한 근로자의 리익의 고수와 근로자의 정권, 즉 쏘베트정권에 대한 방조를 위하여 로동자들의 력량을 결속함이 필요하다는것을 리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무

산계급국가는 반드시 법적 및 물질적 면에서 로동자들의 직업동맹적결속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무가 없이는 직업동맹에 어떠한 권리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6. 직업동맹과 기업소의 관리

국가권력을 전취한후에 있어서 무산계급의 가장 주되는 근본적인 관심사는 생산물의 증가, 사회적생산력의 거대한 향상이다. 로씨야공산당의 강령에 명확히 제시되여있는 이 과업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후 황폐와 기아와 붕괴로 말미암아 특히 절박한것으로 되여있다. 때문에 대공업의 복구에 있어서의 가장 급속한 그리고 가급적으로 확고한 성공은 그것 없이는 자본의 기반으로부터 로동을 해방하는 일체 사업이 성취될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을수 없는 그러한 조건인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이 또 이번에는 로씨야의 현정세하에서는 무조건하고 공장관리측의 수중에 일체의 권력을 집중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통례로 유일관리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성된 이러한 공장관리측은 직업동맹과 체결한 단체계약에 준하여 또 그 범위내에서 임금액의 제정과 화폐임금, 배급식량, 작업복 및 기타 공급품의 배급을 독자적립장에 서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장관리측은 최대한의 기동의 자유를 가지고 또 생산의 제고, 생산의 무결손 및 수익에서의 실제적 성과를 가장 엄격히 검열하며 가장 우수하고 유능한 관리일군들을 가장 신중히 선발하는 등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는 기업소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일체의 직접적인 간섭은 무조건하고 유해하고 허용될수 없는것으로 인정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론쟁할 여지 없는 진리를 사회주의적공업조직과 국영산업관리에 직업동맹이 참가하는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전혀 옳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이 참가는 정확히 규정된, 즉 다음과 같은 형식에서 필요한것이다.

7. 무산계급국가의 경제기관 및 국가기관에의 직업동맹의 참가와 그 역할

무산계급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는 국가의 계급적토대이다. 무산계급은 소농민이 압도적우세를 차지하고있는 나라에서는 다만 농민의 압도적다수와의 동맹을 극히 능숙하게 용의주도하게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조건하에서만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직업동맹은 온갖 정치적 및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자각적전위대인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있는 그 국가정권의 가장 친근한 또 불가결한 협력자로 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의 학교로 되여있는 직업동맹은 특수적으로는 전체 로동자대중을 위한 그리고 다음에는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적공업관리(다음에는 점차로 농업도 역시 관리하는)의 학교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명제들로부터 출발하여 다음시기를 위하여 직업동맹이 무산계급국가의 경제기관 및 국가기관에 참가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형태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직업동맹은 일체 경제기관 및 경제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인원배치사업에 참가하여 자기의 립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립후보자의 근무년한, 경험 및 기타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결정권은 해당 기관들의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경제기관들에만 속한다. 여기에 있어서 그 경제기관들은 해당 직업동맹이 제시하는 모든 렵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참작한다.

2. 직업동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로동자와 근로대중일반가운데서 관리일군들을 등용하며 양성하는것이다. 만일 현재 우리에게, 완전히 만족할만한 그러한 산업관리일군이 수십명 또는 그리고 또 다소간 만족할만한 산업관리일군이 수백명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전자는 수백명 후자는 수천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능력있는 모든 로동자와 농민들을 계통적으로 등록하며 이들의 관리방법습득의 성과여하를 세밀히 각 방면으로 실무적으로 검열하는 사업을 직업동맹은 현재보다 몇배나 더 면밀히 또 꾸준히 실행하여야 한다.

3. 직업동맹은 무산계급국가의 모든 계획기관에 참가하며 경제계획 및 생산계획의 작성, 로동자에 대한 물자공급분배계획의 작성에 참가하며 또 국가공급에 의존하며 임대 또는 리권으로 대여될수 있는 기업소들을 선택하는 등등에 참가하는 것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동맹은 개인기업소와 임대기업소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아무런 기능도 직접 가지지 않으며 오로지 해당한 국가기관에 참가하는 방법으로써만 사경영자본주의적생산의 조절에 참가한다. 직업동맹은 온갖 문화계몽사업과 생산선전사업에 참가함과 아울러 직업동맹의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더욱 광범히 더욱 깊이 일체 국가경제건설사업에 인입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경제생활의 온갖 정황을, 즉 원료의 조달로부터 시작하여 생산물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산업활동을 잘 알게 하며 또한 사회주의경제의 단일한 국가계획과 이 계획의

실현이 로동자와 농민에게 주는 실제적인 리해관계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4. 로임 및 공급 규준 등의 작성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직업동맹이 산업관리에 참가하는 사업에 있어서 직업동맹활동의 불가결의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특히 징계재판은 반드시 로동규률을 꾸준히 제고시키며 로동규률과 생산능률의 제고를 위한 문화적투쟁형태를 꾸준히 개선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인민재판소일반의 기능이나 관리측의 기능에 간섭하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에 있어서 직업동맹이 가지는 가장 주요한 기능들에 관한 이러한 조목은 물론 직업동맹과 쏘베트정권의 해당 기관들에 의하여 상세히 구체화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향상과 쏘베트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것은, 경제와 그 관리 조직에 있어서 직업동맹들이 수행한 방대한 사업경험과 또한 관리측에 대한 준비없고 문외한적인 무책임한 직접적간섭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해를 끼치게 된 오유들도 참조하여 로동자와 전체 근로자들에게 전국적인민경제의 관리를 배워주는 꾸준하고 실무적이고 오랜 세월이 요구되는 실천적인 교육사업에로 의식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이행하는 그것이다.

8. 직업동맹의 온갖 사업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대중과의 련계

대중과의, 다시말하면 로동자(또 다음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방대한 다수와의 련계는 직업동맹의 온갖 활동이 성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직업동맹의

단체와 그 기관들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최고기관에 이르기까지 책임동지들—이는 반드시 공산당원이여야 하는것은 아니다.—의 한개의 완전한 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들은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검열되여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책임동지들은 반드시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죄다 잘 알아야 하며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서나 또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나 대중의 기분, 그들의 실제적지향, 요구조건, 생각하는바를 착오없이 판정할줄 알아야 하며 대중의 자각정도와 그들이 가지고있는 이러저러한 편견 및 구습의 잔재의 영향력을 조금도 허위적으로 리상화함이 없이 판정할줄 알아야 하며 또 대중을 동지적으로 대하여 대중의 요구를 친절히 돌보아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대중의 무한한 신임을 획득할줄 알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는(아직 당분간 보다 더 선진적인 나라들의 직접적인 원조가 없이) 광대한 나라를 지도하고있는 공산당, 그 인원수가 많지 않은 공산당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엄중한 위험성의 하나는 대중과 유리될 위험성이며 또한 전위대가 《전선을 정비》하지 않고 모든 근로대군과의, 즉 로동자 및 농민 대중의 방대한 다수와의 공고한 련계를 보유하지 못하면서 자기 혼자 너무나 멀리 앞서 달리게 될 위험성이다. 제아무리 우월한 발동기와 제1등급의 기계를 가지고있는 가장 훌륭한 공장일지라도 발동기와 기계사이에 있는 전동장치가 파손된다면 그 공장은 움직일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공산당과 대중사이에 있는 전동장치인 직업동맹이 옳게 조직되여있지 않거나 혹은 옳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은 불피코 파탄되고말것이다. 이 진리를 해설하며 상기시키며 확인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진리는 반드시 직업동맹들의 전 기구내에 또 그들의 경상적사업

에 조직적으로 확립되여있어야 한다.

9.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지위자체의 모순

상술한 모든것으로부터 직업동맹의 각종 과업들사이의 일련의 모순들이 생겨나온다. 일방으로는 직업동맹의 주요한 사업방법은 설복과 교양이며 타방으로는 직업동맹은 국가정권의 참가자로서 강제적수단을 취하는것을 거부할수 없다. 일방으로는 직업동맹의 주요과업은 근로대중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절실한 리익을 옹호하는것이며 타방으로는 직업동맹은 국가정권의 참가자로서 또 전반 인민경제의 건설자로서 강압적행동을 취하는것을 거부할수 없다. 일방으로는 직업동맹은 군사적방식으로 사업하여야 하는데—왜냐 하면 무산계급독재는 계급들의 가장 가혹하고 가장 완강하고 가장 결사적인 전쟁이기때문이다.—타방으로는 바로 직업동맹은 그런 특수한 군사적 사업방법을 가장 적게 취하여야 하는것이다. 일방으로는 직업동맹은 대중에게 그가 가지고있는 현재수준에 순응할줄 알아야 하며 타방으로는 결코 대중의 편견과 락후성에 대하여 묵과할것이 아니라 단연코 대중을 더욱더 높은 수준에 이끌어올려야 하는것 등등이다. 이러한 모순들은 우연한것이 아니며 또 수십년간에 없앨수 있는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와 소규모생산의 잔재가 존재하고있는 한 사회제도전체에 있어서 그러한 잔재와 사회주의맹아사이에는 모순이 불가피한것이기때문이다.

여기로부터 두가지의 실천적결론이 나온다. 첫째 결론은 이렇다: 직업동맹은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직업동맹의 임무를 옳게 리해하며 그 기구를 옳게 조직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있어서는 또한 개별적으로 되는 매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특수한 방법으로 대중에 접근하는 독특한 전술과 수완이 필요한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찰을 가장 적게 하여 이 대중을 문화, 경제, 정치 면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올릴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결론은 이렇다: 상술한바의 제 모순은 불피코 갈등, 불일치, 마찰 등등을 산생케 할것이다. 이러한것들을 지체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권위있는 최고기관이 필요하다. 그러한 최고기관은 공산당이며 모든 나라 공산당들의 국제적 련합체인 국제공산당이다.

10. 직업동맹과 전문가

이 문제에 관한 기본명제들은 로씨야공산당의 강령에 기술되여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의 실현정도를 표시하는 제 사실에 부단히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이 명제들은 지상공론으로 되고말것이다. 그러한 사실로써 최근에 나타난것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첫째로, 우랄뿐만아니라 돈바스에도 있는 사회화된 광산들에서 로동자들이 기사를 살해한 사건들이 그것이다. 둘째로, 모스크바의 수도기사장 웨. 웨. 올젠보르게르의 자살사건이 그것이다. —그는 당세포원들과 쏘베트정권기관들의 용납할수 없는 월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참을수 없는 사업조건들과 관련하여 자살한것이다.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부득이 이 사건을 전부 재판소의 심의에 넘기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책임은 비교적 그 대부분이 직업

동맹보다도 공산당과 쏘베트정권 전체에 훨씬 더 많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문제는 정치적책임의 정도여하를 결정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결론을 짓는데 있는것이다. 만일 공산당이나 쏘베트정권이나 직업동맹이나 할것없이 우리의 모든 지도기관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지식과 그 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량심적으로 사업하는 전문가로서 비록 그가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눈동자와도 같이 귀중히 여기게 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이렇다 할 아무런 중대한 성과에 관하여서도 운운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우리가 아직은 곧 실현할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것은, 고도로 발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전까지는 여전히 독특한 중간층으로서 남아있을 그러한 독특한 사회적중간층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물질적면에서나 법률상에서나 그리고 로동자 및 농민과 동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에서나 사상적면에서나 다시말하면 그가 자기 사업에 만족을 느끼는 면에서나 자본가계급의 탐욕적인 리해관계를 떠나 그 사업의 사회적유용성을 의식함에서나 자본주의하에서보다 사회주의하에서 더 잘 살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다. 전문가들에 대한 전면적확보와 그들중의 우수한자들에 대한 전면적고무와 그들의 리익의 전면적지지옹호 등등에 있어서 계획성이 있고 또 실천적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기관을 다소라도 쓸만한것으로 인정하는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직업동맹은 반드시 이러한 종류의 모든 사업(혹은 온갖 행정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계통적참가)을 해당 행정기관의 리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로동과 인민경제 전반의 리익의 관점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직업동맹은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과 전문가들과의 사이에 옳바른

상호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자를 일상적으로 교양주어야 할 가장 어렵고 가장 곤난한 사업을 걸머지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사업만이 진실로 중대한 실천적성과를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11. 로동계급에 대한 직업동맹과 소자산계급의 영향

직업동맹은 그가 가장 광범한 비당원로동자층을 단합시킬 때에라야만 비로소 현실적인것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불가피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렇다. 즉 특히 농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의 잔재와 소규모생산을 토대로 하는 상부구조인 정치적영향이 다름아닌 직업동맹내부에 비교적 완고하게 자리잡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소자산계급적영향이다. 다시말하면 이것은 일방으로는 사회혁명당3—멘쉐위크적(이것은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100 각 정당들의 로씨야적변종이다.)영향이며 타방으로는 무정부주의적영향이다. 오직 이러한 조류속에만 그들이 설교하는 《민주주의》, 《평등》 및 《자유》 일반의 비계급적의의를 여전히 확신하면서 자본주의를 탐욕적인 계급적동기에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옹호하는 상당한 수의 사람이 남아있는것이다.

우리 직업동맹내의 이러한 소자산계급적사상의 잔재는(때로는 그 부활도) 개별적집단들의 역할, 더구나 개별적인간들의 역할로써가 아니라 상술한바와 같은 바로 그러한 특수한 경제적원인으로써 설명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이나 문화-교양사업을 령도하는 쏘베트기관이나 또는 직업동맹내의 모든 당원이나 할것없이 이들은 반드시 직업동맹내의 소자산

계급적 영향, 조류 및 편향들과의 사상적투쟁에 극히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하는것이며 더우기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로 강화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로동계급에 대한 소자산계급적영향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으로써 그런 영향에 대처하는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1921년 12월 30일—1922년 1월 4일에 집필

1922년 1월 17일부 《쁘라우다》 제12호에 게재

신문에 실린 원문대로 인쇄, 원고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155～166페지

한 정론가의 수기

(높은 산에로의 등산, 락심의 해독, 상업의 유익성, 멘쉐위크들에 대한 태도 등등에 관하여)①

1. 실례를 들어

대단히 높고 험악하며 아직 답사되지 않은 산으로 올라가고있는 사람을 상상하여보자. 가령 그가 미증유의 난관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선행자들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으나 아직 절정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는 선택된 방향과 길을 따라 전진하는것이 벌써 곤난하고 위험할뿐만아니라 실로 불가능한 처지에 빠졌다. 그는 비록 보다 멀기는 하지만 하여튼 절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약속하여주는 다른 길들을 찾기 위하여 뒤로 돌아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의 가상적인 려행자가 처하게 된, 세계에서 아직 보지 못한 그러한 높이에서 내려온다는것은 위험하고 곤난하다. 아마 올라가는것보다도 더 곤난할것이다. 즉 발을 헛디디기가 쉬우며 발을 옮길 자리를 살피기가 아주 불편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곧바로 우로 올라갈 때에 이루어졌던 그 각별하게 흥분된 기분이 없는것 등등이다. 자기의 몸을 새끼로써 둘러동이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발더듬가 혹은 새끼를 든든히 잡아맬수 있는

① 이 론문은 다 쓰지 못하였다. —편집자

장소를 곡괭이로 파야 하며 거부기와 같이 완만하게 그리고 더구나 뒤걸음질을 하면서 목적지에서 멀리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극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하산이 끝나가고있는것인지, 절정을 향하여 다시 우로 보다 용감하고 민속하고 곧바르게 전진할수 있는 어느 정도나마 확실한 우회로가 있을것인지—아직도 전혀 알수가 없는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에게는 그가 미증유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락심하는 순간이 있을것이라고 예측하는것이 아마 타당한 일일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위험하지 않은 먼 아래에서 망원경을 통하여 이 가장 위험한 하산을 관찰하고있는 어떤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는 아마 이러한 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빈번하여질것이며 더욱 고통스러워질것이다. 그런데 이 하산은 지어 《제동기를 건 하산》(《목표전환파》163의 본을 따서)이라고 불러서도 안된다. 왜냐 하면 제동기의 사용은 잘 타산되고 이미 검열된 승용물(乘用物)과 미리 준비된 도로와 이미 이전에 시험된 기계장치를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승용물도, 도로도, 일반적으로 미리 시험해본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것이다!

아래로부터는 남의 재난을 오히려 심술궂게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있다. 어떤자들은 로골적으로 기뻐날뛰고 조롱을 하면서—이제 곧 실패할것인데 그것이 싸다느니, 미친짓을 하지 말라느니 하고 고함을 친다. 다른자들은 주로 이우두슈까 골로블료브의 본164을 따서 자기들이 남의 재난을 심술궂게 기뻐하는것을 엄폐하려고 애쓴다. 즉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슬퍼하는것이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근심하던대로 되고있군! 이 산에 등산할 합리적인 계획을 준비하는데 전 생애를 바쳐온 우리가 바로 우리의 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당분간 등산을 연기할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와서는 미친놈까지도 기권하고있는 그 길을 그렇게도 맹렬하게 반대하였다면(좀 보라, 그자는 뒤돌아 아래로 내려오고있으며 허다한 시간을 소비하여 겨우 한자밖에 안되는 길을 옮겨갈 가능성을 준비하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침착하고 신중할것을 련속 요구하였을 때에는 우리를 가장 비렬한 언사로써 비방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그렇게도 맹렬하게 그 미친놈을 비난하고 그를 본받지 말고 또 방조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 산에 오르는 위대한 등산계획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이 위대한 계획일반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다행히도 우리의 가상적인 려행자는 우리가 든 실례의 조건하에서 이러한 등산사상을 가진 《진정한 벗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는 구토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구토라는것은 머리를 맑게 하거나 걸음걸이를 확고하게 하지 못하며 특히 대단히 높은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비유함이 없이

실례를 드는것은 증명이 아니다. 비교라는것은 모두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는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이지만 온갖 비교일반이 가지는 의의의 한계를 보다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상기시키는것도 무방할것이다.

로씨야의 무산계급은 자기의 혁명을 통하여 1789년 및 1793년에 비해서뿐만아니라 1871년에 비해서도 비상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완수했고》 무엇을 아직 완수하지 못하였는가를 될수 있는 한 랭정하고 명백하고 똑

똑하게 리해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머리는 맑아지고 구토도, 환상도, 락심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아직 세계에서 있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였다》. 이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아갈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다.

우리는 혁명적방법에 의하여 가장 반동적인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 탈출하였다. 이것 역시 세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아갈수 없는 전취물이며 자본주의가 존속되는 한 멀지 않은 장래에 반동적인 제국주의적살륙이 불가피한만큼 더구나 귀중한 전취물이다. 그런데 20세기의 사람들은 1912년과 1914～1918년에 배신자들인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100]의 영웅들이 자기자신과 로동자들을 우롱하는데 사용한 그 《바젤선언》[103]의 재판으로써는 그리 쉽사리는 만족해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쏘베트형의 국가를 창건하였으며 이것으로써 새로운 세계사적시대, 즉 자산계급의 지배적시대를 교체한 무산계급의 정치적지배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비록 쏘베트형의 국가를 《완성하는것》이 오직 몇몇 나라 로동계급의 실천적경험에 의해서만 성공할수 있는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미 빼앗아갈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적경제의 기초조차도 채 축성하지 못하였다. 우리를 적대시하며 사멸하여가고있는 자본주의의 세력이 아직은 이것을 다시 빼앗아갈수 있다. 환상과 현훈증, 특히 대단히 높은 곳에서 보다 더 위험한것이 없는 까닭에 이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달갑지 않은 진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무서워할것》은 전혀 없으며 가장 사소한 락심이나마 그 어떤 정당한 리유라곤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몇몇 선진국가의 로동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맑

스주의의 그 초보적인 진리를 언제나 해설하여왔으며 되풀이 하여왔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당분간 혼자뿐이며 또한 락후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령락된 나라에서 비상히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우리는 혁명적무산계급력량의 《군대》를 보존하였으며 그의 《기동능력》을 보존하였으며 또한 어디서 어느때 어느 정도까지 퇴각해야 하며 (보다 힘차게 앞으로 약진하기 위하여) 어디서 어느때 그리고 어떻게 채 완수하지 못한 사업에 다시 착수해야 하는가를 랭정하게 타산할수 있는 명철한 두뇌를 보존하였다. 오유없이, 퇴각함이 없이, 채 완수하지 못한것과 옳지 못하게 수행된것을 여러번에 걸쳐서 고쳐함이 없이 사회주의적경제의 기초의 완성(특히 소농민적인 국가에서)과 같은 전 세계사적 《사업》을 완수할수 있다고 상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은 어김없이 실패할것이라고 인정해야 할것이다. 가장 힘든 과업을 대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신체의 힘과 신축성을 유지하면서 환상에도 락심에도 빠지지 않고 노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또한 꼭 실패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령락과 빈궁, 락후성과 기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에로의 예비경제의 분야에서 약간이나마 전진을 시작하였으나 전 세계에서 우리와 서로 나란히 하고있는 보다 선진적이며 우리에 비하여 천배나 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 그들이 찬미하고 그들이 정통해있으며 수백년동안 이미 경험한 자본주의적경제분야에서 퇴각을 계속하고있는것으로 보아 우리에게는 더우기 비록 가장 사소한 락심에나마 빠지는것이 용납될수 없으며 또 락심할 근거도 없는것이다.

3. 여우사냥에 관하여, 레비에 대하여, 세라띠에 대하여

여우를 잡는데 가장 믿음성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라고들 말한다. 즉 감시하여오던 여우들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우의 약간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붉은기발들을 꽂은 새끼줄로써 포위한다. 확연히 인공적인 《인간들의》 이 설치물을 겁내여 여우들은 기발들이 꽂혀있는 이 《울타리》가 벌쭉이 열리는 때에야 비로소 그곳을 통해서만 탈출한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냥군이 기다리고있는것이다. 모두가 붙잡자고 하는 이러한 짐승에게 있어서 조심성은 그의 가장 긍정적인 장점으로 생각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경우에는 《장점의 지속》이 단점으로 된다. 여우는 바로 그의 과도한 조심성때문에 붙잡히는것이다.

역시 이러한 과도한 조심성으로 말미암아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150에서 내가 범하게 되였던 하나의 오유를 후회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 나는 극우익의 립장을 취하였었다. 이것은 유일하게 정확한 립장이였다고 확신하는바 왜냐 하면 독일, 웽그리아 및 이딸리아 등의 많은 동지들을 선두로 하는 극히 다수의(그리고 《유력한》) 대표단들이 지나치게 《좌익적》인, 옳지 못한 좌익적립장을 취하면서 즉시적이며 직접적인 혁명적행동에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정세를 랭정하게 타산할 대신에 붉은기발을 너무나 자주 힘차게 흔들었기때문이다. 조심성에서, 즉 이 의심할바없이 옳지 못한 좌익적편향이 국제공산당의 전체 전술에 그릇된 방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는 레비가 혹시는 좌파들의 오유에 대한 과도한 놀라움에

서 어리둥절해졌을(나는 그가 어리둥절해졌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았다.)수 있으며 어리둥절해졌던 공산주의자들이 그후에 또 다시 정신을 《차린》 경우도 있다는 가정을 말하면서레위를 옹호하였던것이다. 《좌파들》의 공격을 받고 레위가 멘쉐위크라는것을 시인하면서도 나는 지어 그러한 시인으로써도 아직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례컨대 로씨야에 있어서 15년간에 걸친 멘쉐위크들의 볼쉐위크들과의 투쟁의 전력사(1903～1917년)는 세차례의 로씨야혁명도 증명하고있는바와 같이 멘쉐위크들이 대체로 보아 무조건적으로 옳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로동운동내에서의 소자산계급의 앞잡이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이것은 론의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론의할 여지 없는 사실은 멘쉐위크들이 볼쉐위크들을 반대한 **개별적**경우들, 례컨대 1907년의 스똘리삔 국회보이꼬트에 관한 문제에서 정당하였다는 사실을 말살하여 버리지는 못한다.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가 있은지 이미 8개월이 지났다. 보건대 《좌파들》과의 우리의 그 당시의 론쟁은 이미 낡았으며 이미 생활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나는 레위에 관해서는 옳지 않았었다. 왜냐 하면 그는 우연하게나 림시적으로나 《좌파들》의 가장 위험한 오유를 반대하는 나머지 《지나친》데서만 멘쉐위크적골목에 빠져들어간것이 아니라 장구하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전체 본성으로 인하여 빠져들어갔다는것을 그가 잘 보여주었기때문이다.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이후 레비는 좌파들의 일부 오유에 대하여 흥분한 나머지 일시 어리둥절했던 사람이 응당히 했어야 할 입당청원을 다시 할 필요성을 정직하게 인정할 대신에 비렬하게 당을 훼손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을 음해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내의 자산계급의 앞잡이들에게 봉사하는것이다. 독일공산당원들

이 이에 대답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 고상한 직책을 수행하는 파울 레비를 은밀히 지지해온 수명의 신사들을 자기 당에서 출당시킨것은 물론 완전히 옳았다.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이후의 독일 및 이딸리아 공산당들의 발전은 이 대회에서 범한 좌파들의 오유가 이 당들에 의하여 고려되였으며 약간씩, 완만하게나마 확고하게 시정되여가고있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으며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의 결정은 충실히 실현되고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개량주의적이며 다만 약간 혁명적색채로 채색된 낡은 형의 구라파의회주의적정당을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진정으로 공산주의적인 새형의 정당으로 개조하는 이것은 비상히 힘든 일이다. 아마 이 곤난성을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은 프랑스의 실례일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당의 사업방법을 개변하며 범속성을 개조하며 당이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점점 더 그들과 접근하며 그들의 혁명적의식을 제고시키고 그들을 혁명적투쟁에로 궐기시키는 혁명적무산계급의 전위대로 되도록 하는 이것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일 구라파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당의 전체 기구와 전체 사업의 이 근본적이며 내부적인 심각한 개조를 위하여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허다한 자본주의나라들이 1921년과 1922년초에 체험하였던 특별하게 격화된 혁명전투들의 시기와 시기사이의 공간(아마도 극히 짧은)을 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죄악으로 될것이다. 다행히도 이것을 우려할 근거는 없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에서 진정한 공산당을, 무산계급의 진정한 혁명적전위대들을 창건하려는 사업은 조용히, 슬그머니, 소리없이 또한 완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시작되여 진척되고있다.

심지어 여우잡이와 같은 평범한 사물의 관찰에서 얻는 정

치적교훈도 무익하지는 않다. 즉 한편으로 지나친 조심성은 오유를 초래한다. 다른 한편 만일 다만 《기분》이든가 혹은 붉은기발을 휘두르는것으로써 정세에 대한 랭정한 평가를 대신한다면 더는 시정할수 없는 오유를 범할수 있으며 비록 곤난은 크다고 할지언정 아직 파멸이 전혀 불가피한것으로 되여있지 않는 조건하에서 파멸될수 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파울 레비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저작중에서 바로 저자가 옳지 않은 립장을 취한 저작들을 재판함으로써 현재 자산계급과 따라서 그 앞잡이인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에 대하여 각별히 아첨하려 하고있다. 우리는 로씨야의 아주 좋은 한 우화가운데 있는 두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에 대답하고저 한다. 즉 수리개는 암탉보다 낮추 내려올수도 있으나 암탉은 결코 수리개처럼 높이 날수는 없다[165]. 로자 룩셈부르그는 뽈스까의 독립에 관한 문제에서 오유를 범하였으며 1903년에 멘쉐위크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오유를 범하였으며 또 자본축적리론에서 오유를 범하였다. 룩셈부르그는 또한 1914년 7월에 쁠레하노브, 반데르벨드, 카우쯔키 및 기타 사람들과 더불어 볼쉐위크와 멘쉐위크의 통합을 옹호하여나섬으로써 오유를 범하였으며 1918년에 옥중에서 쓴 저서에서 오유를 범하였다.(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 1918년말과 1919년초에 자기가 범한 오유의 대부분을 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유가 있기는 하지만 룩셈부르그는 여전히 수리개였으며 지금도 수리개이다. 그에 대한 추억만이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귀중한것으로 남게 될뿐만아니라 그의 전기와 그의 전집(이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참을수 없을 정도로 일을 지연시키고있는바 이것은 오직 그들이 간고한 투쟁에서 당하고있는 미증유의 희생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변명될수 있는 일이다.)은 전 세계의 여러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가장 유익한 교훈으로 될것이다. 《1914년 8월 4일후의 독일사회민주당은 악취를 풍기고있는 시체이다.》—바로 이러한 명언과 함께 로자 룩셈부르그의 이름은 전 세계 로동운동의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그리고 로동운동의 뒤마당에서는 퇴비장의 한복판에서 파울 레비, 샤이데만, 카우쯔키 및 그 전체 동료들과 같은 암탉들이 위대한 이 공산주의자가 범한 오유에 대하여 특히 기뻐날뛸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취미가 있는 법이다.

세라떼에 대하여 말한다면 특수하게…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면서 요란스럽게 터지고있는 썩은 닭알과 그를 비교하지 않을수 없다. 《자기들의》 대회에서 국제공산당대회결정에 복종할 용의가 있다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다음 이 대회에 라짜리로인을 파견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말장사군과 같은 막된 행동으로 로동자들을 기만하는것이 그의 본새이다. 이딸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딸리아에서 혁명적무산계급의 진정한 당을 육성하면서 이제 로동자대중앞에 정치적사기행위와 멘쉐위크주의의 뚜렷한 표본을 까밝히게 될것이다. 이 표본의 유익한, 사람을 **반발하게 하는** 작용은, 허다히 반복되는 명백한 교훈없이 즉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작용은 꼭 나타날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리탈되지 말며 세라떼의 모든 사기행위를 보통 로동자들의 앞에서 실천적으로 폭로하는 곤난한 사업에서 인내성을 상실하지 말며 너무나도 경솔하고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즉 세라떼가 《a》라고 말하는 일에서는 《마이나스 a》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들을 혁명적세계관과 혁명적행동에로 꾸준히 교양하며 파시즘의 훌륭한(비록 높은 대가로 이루어지는것이기는 하지만) 명백한 교훈들을 실천적으로 유용하게 리용한다면 승리는 이딸리아공산주의를 위하여 보장될것이다.

레비와 세라띠는 그자체들이 특색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소자산계급민주주의의 극좌익의 현대적표본으로서, 우리의 진영을 반대하고있는 《그들의》 진영, 즉 국제자본가진영의 현대적표본으로서 특징적인것이다. 《그들의》 진영은 곰퍼즈로부터 세라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의 퇴각, 우리의 《하산》, 우리의 신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악의에 차서 좋아하며 기뻐하든가 혹은 허위의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악의에 차서 기뻐하려면 하라. 자기들의 어리광대짓을 연습하게 하라. 각자에게는 자기의 취미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에도 락심에도 사로잡히지 않을것이다. 자기가 범한 오유를 인정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오유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몇번이고 노력을 되풀이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최고절정에 이르게 될것이다. 곰퍼즈로부터 세라띠에 이르는 국제적련맹사업은 파멸을 면치못할것이다.

1922년 2월말에 집필

1924년 4월 16일부 《쁘라우다》 제87호에 처음으로 게재

원고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174～182페지

전투적유물론의 의의에 대하여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166의 일반적과업에 관하여서는 뜨로쯔끼동지가 제1～2호에서 이미 본질적인 모든것을 말하였으며 그것도 훌륭하게 말하였다. 나는 잡지의 편집부가 제1～2호의 발간사에서 선언한 그 사업의 내용과 강령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그 성명에는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의 주위에 결속된 모든 사람이 다 공산주의자인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철저한 유물론자들이라고 서술되여있다. 나는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와의 이러한 동맹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이 동맹은 이 잡지의 임무를 정확히 규정하여준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자가(또 일반적으로 대혁명의 발단을 성공적으로 열어놓은 혁명가가) 범하는 가장 크고 위험한 오유의 하나는 단지 혁명가들의 손만으로도 능히 혁명을 수행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혁명가는 참으로 생활력이 있는 선진적인 계급의 전위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수 있을따름이라는것을 리해하며 또 그것을 실행할줄 아는것이 중대한 각종 혁명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하다. 전위는, 자기가 지도하는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참으로 전체 대중을 앞으로 인도할줄 알게 되는 때에라야만 전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극히 각이한 활동분야에서 비공산주의자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적인 공산주의건설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것은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가 착수한, 유물론과 맑스주의를 옹호하는 사업에도 해당된다. 다행히도 로씨야의 진보적사회사상의 주요류파들에는 믿음직한 유물론적전통이 있다. 게. 웨. 쁠레하노브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체르늬쉡스끼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충분한데, 현대의 인민파(인민사회당원22, 사회혁명당원3 등)는 류행하는 반동철학의 제 학설의 뒤를 따르면서 구라파과학의 소위 《최신성과》라고 하는 허식에 넘어가며 또 이 허식의 리면에는 자산계급, 자산계급적편견 및 자산계급적반동성에 대한 아유추종의 이러저러한 변종이 있다는것을 식별할 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흔히 체르늬쉡스끼보다도 후퇴하고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로씨야에는 아직도 비공산주의자진영에 속하는 유물론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할바없이 상당히 오래동안 있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적반동, 또 소위 《교양있는 사회》의 철학적편견과의 투쟁에서 철저하고 전투적인 유물론의 모든 지지자들을 공동사업에 끌어들이는것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의무이다. 부친인 디쯔겐—그를, 몹시 뽐내기는 하지만 졸렬하기 짝이 없는 문필가인 그의 아들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이 현대사회의 철학교수들을 가리켜 그들은 다수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다름아닌 《승려주의의 학위있는 종복》이라고 말한것은 자산계급국가들에서 지배적이며 그 학자들과 평론가들의 주목을 끌고있는 철학적 제 류파에 대한 맑스주의의 기본견해를 정당하고 적절하고 명백하게 표현한것이였다.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자기들의 동료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진보적인 인사로 인정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로씨야지식인들은 디쯔겐이 내린 평가의 견지에서 문제를 고찰하기를 몹시 싫어한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싫어하는것은 진리가 그들의

귀에 거슬리기때문이다. 디쯔겐의 신랄한 평가가 절대로 정확하다는것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교양있는 사람들이 국가적부면에 있어서, 다음에는 일반경제적부면에 있어서, 그다음에는 생활 및 기타 온갖 부면에 있어서 지배적자산계급에게 종속되여있다는것을 다소라도 생각해보기만 하면 충분할것이다. 자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와 그 계급적립장, 자산계급에 의한 각종 형태의 종교의 지지와 류행적인 철학적 제 류파의 사상적내용과의 사이의 련관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더는 말고라도 라디움의 발견과 관련되여있던 류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아인슈타인에게 달라붙으려고 애쓰고있는 류파에 이르기까지 구라파제국에서 그렇듯 자주 발생하고있는 수많은 류행적인 철학적류파를 상기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전투적유물론의 기관지로 되고저 하는 잡지는 첫째로, 현대의 모든 《승려주의의 학위있는 종복들》을—그들이 어용과학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든지 《민주주의적좌익 또는 관념적-사회주의적》평론가로 자칭하는 자유로운 사수로서 등장하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이다.—단호하게 폭로하며 추궁한다는 의미에서 전투적인 기관지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그러한 잡지는 전투적무신론의 기관지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는 그러한 사업을 취급하는 관리기관 또는 적어도 국가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극히 미미하게, 극히 불만족스럽게 진행되고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참으로 로씨야적인(비록 쏘베트적이기는 하지만) 관료주의의 일반적 제 조건의 중압을 받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전투적유물론의 기관지로 될 과업을 내세운 잡지가 해당 국가기관의 사업을 보충하며 그 사업을 시정하며 또 활발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무신론적선전을 진행하여 투쟁을 진행하는것은

비상히 중요하다. 각종 언어로 발간되는 해당한 문헌들을 전부 주의깊게 살피며 이 부면에서의 다소라도 가치있는 모든것을 번역하거나 혹은 적어도 소개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에 엥겔스는, 18세기말엽의 전투적인 무신론적문헌들을 인민속에 대량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번역할것을 현대무산계급의 지도자들에게 권고한 일이 있다.[167]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다.(이것은, 혁명기에 주권을 전취하는것보다 그 주권을 옳게 리용할줄 아는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데 대한 수다한 증거중의 하나이다.) 왕왕 우리의 이러한 무기력, 무위 및 무능력은 례컨대, 18세기의 오랜 무신론적문헌은 진부하며 비과학적이며 유치하다는 등등의 온갖 《과장된》 론의로써 변명되고있다. 현학을, 그렇지 않으면 맑스주의에 대한 완전한 몰리해를 은폐하는 학자연하는 이런 궤변보다 더 나쁜것은 없다. 물론 18세기의 혁명가들의 무신론적저작중에는 비과학적인것도, 유치한것도 적지 않게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저작의 출판자들이 그것을 요약하며 18세기말이래 인류가 종교에 대한 과학적비판의 부면에서 수행한 진보를 지적하며 해당한 최신저작 등등을 지적한 발문을 첨부하는것을 막지 않는다. 현대사회전체에 의하여 몽매, 무지, 편견의 운명을 지니게 된 수백만의 인민(특히 농민과 수공업자)대중이 순 맑스주의적인 계몽의 곧은길을 통하여서만 이 몽매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맑스주의자가 범할수 있는 오유중에서 가장 큰 오유이며 가장 나쁜 오유일것이다. 여러가지 측면으로부터 가장 다종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이들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며 그들을 종교적꿈에서 깨여나도록 하며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신론적선전에 관한 가장 다종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가장 다종다양한 생활령역에 속하는 사실

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각종 방법으로 그들과 접근하는것이 필요하다.

지배적승려주의를 기지있게 로골적으로 공격한 18세기의 구무신론자들의 신랄하고 생동하고 재능있는 평론은 사람들을 종교적꿈에서 깨여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능숙하게 선택된 사실들로써 례증함이 거의 없이 지리하고 무미건조하게 맑스주의를 되풀이하는것보다 흔히 천배나 더 적절하다. 우리의 서적들에는 맑스주의를 되풀이하는 이러한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은 종종 맑스주의를 외곡하고있다.(결함을 숨길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저작은 전부 번역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구무신론과 구유물론이 맑스와 엥겔스가 가한 수정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은채로 남아있지 않을가 하고 근심하는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것이다. 가장 중요한것—맑스주의적공산주의자노라 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맑스주의를 외곡하고있는 그러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자주 망각하고 있다.—그것은 아직도 전혀 발달하지 못한 대중이 종교문제에 대한 의식적태도 및 종교의 의식적비판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것이다.

타방으로 종교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비판의 대표자들을 보라. 이러한 교양있는 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은 거의 항상 종교적편견에 대한 그들자신의 반박을, 그들이 자산계급의 사상적노예이며 《승려주의의 학위있는 종복》이라는것을 즉시로 폭로하여주는 다른 론의로써 《보충》하고있다.

두가지 실례를 들기로 하자. 1918년에 에르. 유. 위뻬르 교수는 《기독교의 기원》(모스크바 《파로스》출판사)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저자는 현대과학의 주요한 성과를 말하면서 정치적조직으로서의 교회의 무기인 편견 및 기만과 투쟁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회피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자기는 관념론과 유물론의 량《극단》을 초월하고있다는 아주 가소롭고 가장 반동적인 주장을 하고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서 착취해낸 리윤중에서 종교를 지지하는데 수억루블을 지출하고있는 지배적자산계급에 대한 아유이다.

저명한 독일학자 아르투르 드레브스는 그의 저서 《크리스트에 관한 신화》에서 종교적편견과 종교적인 옛말들을 론박하고 어떠한 크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면서도 권말에 가서는 종교를 지지하고있는데 그것은 다만 《날로 더 강화되고있는 자연주의적조류》(1910년 독일문 제4판, 238폐지)에 대항할수 있는 갱신되고 정화된 교묘한 종교일따름이다. 그는 착취자들이 낡고 부패한 종교적편견을 보다 더 추악하고 야비한 새로운 편견으로써 대체하는것을 공공연히 방조하는 로골적이며 의식적인 반동분자이다.

이것은 드레브스의 저작을 번역하지 말아야 하였을것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모든 철저한 유물론자들이 어느 정도 자산계급의 진보적부분과의 동맹을 실현하는 한편 그들이 반동에로 전락하는 때에는 그들을 견결히 폭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산계급이 아직 혁명적이였던 시대, 즉 18세기의 자산계급대표자들과 동맹을 맺는것을 피하는것은 맑스주의와 유물론을 배반하는것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이런 또는 저런 정도로 드레브스와 같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것은 지배적인 종교적몽매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무적인것이기때문이다.

전투적유물론의 기관지로 되고저 하는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는 무신론을 선전하며 해당한 문헌의 서평을 내며 이 부면에서의 우리의 국가활동의 큰 결함을 시정하는데 많은

지면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중요한것은 현대자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 및 계급적조직과 종교기관 및 종교적선전단체와의 련계를 중시하는 수다한 구체적사실과 대비가 들어있는 서적과 소책자를 리용하는것이다.

종교와 자본과의 공식적, 관청적, 국가적 련계가 보다 적게 나타나고있는 북아메리카합중국에 관한 자료는 모두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대신 소위 《현대민주주의》(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 및 일부 무정부주의자 등등이 어리석게도 극구 찬양하고있는)란것은 자산계급에게 유리한것을 설교하는 자유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여지고있다. 그런데 자산계급에게 있어서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 종교, 몽매, 착취자를 위한 변호 등등을 설교하는것이 유리한것이다.

전투적유물론의 기관지로 되고저 하는 잡지는 우리 나라의 독자대중에게 무신론적문헌의 서평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런 또는 저런 저작이 어떠한 독자층에 대하여 어떠한 점에 있어서 적당한가를 설명하며,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저작이 간행되였으며(간행된것으로 간주해야 할것은 오직 괜찮게 번역된 저작뿐인데 그러한 번역은 그다지 많지 않다.) 앞으로 어떠한 저작이 더 간행되지 않으면 안될것인가를 지적할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공산당원이 아닌 철저한 유물론자와 동맹을 맺는것 이외에 전투적유물론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에 있어서 이 동맹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현대자연과학의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 즉 유물론측으로 기울어지고있으며 소위 《교양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념론 및 회의론으로의 류행적인 철학적동요를 반대하며 유물론을 고수하며

선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자들과 동맹을 맺는것이다.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 제1～2호에 게재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리론에 관한 아. 찌미랴제브의 론문은 이 잡지가 이 두번째 동맹의 실현에도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여준다. 이 동맹에 더 많은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현대자연과학이 겪고있는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반동적인 대소 철학 학파와 류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는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최근의 혁명에 의하여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에 주의를 돌리며 철학잡지에서 이 사업에 자연과학자들을 끌어들이는것—이것은 전투적유물론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투적인것으로도, 유물론으로도 될수 없게 되는 그러한 과업이다. 아인슈타인—찌미랴제브의 말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 유물론의 원리에 대하여 하등의 적극적인 공격도 하지 않고있다.—의 리론에 이미 모든 나라의 자산계급지식인들의 수많은 대표자들이 달라붙어있다는것을 잡지 창간호에서 찌미랴제브가 부언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아인슈타인 한사람에게만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19세기말이래의 자연과학의 대개혁자들의 대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중 수다한 사람들에게 관계되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무자각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연과학도 어떠한 유물론도 충분한 철학적론거를 가지지 않고서는 자산계급사상의 공격과 자산계급적세계관의 복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감당해낼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투쟁을 감당해내며 그것을 극히 성과적으로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자는 현대적유물론자로, 맑스를 대표자로 하는 그 유물론의 의식적인 지지자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해서 변증법적유물론자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잡지 《맑

스주의의 기치밑에서》의 기고자들은 유물론적견지로부터 헤겔 변증법의 계통적연구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맑스는 이 변증법을 그의 저작 《자본론》과 그의 력사적 및 정치적 제 로작에서 실지로 적용하였으며 또 아주 성과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동방(일본, 인도, 중국)에서 새로운 계급들이—지구상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으며 종래 그 력사적 무위와 력사적수면에 의하여 구라파의 수다한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침체와 부패를 조건지어온 그 수억만의 사람들이—생활과 투쟁에로 각성하고있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제 민족과 새로운 제 계급이 생활에로 각성하고있는 하루하루가 맑스주의의 정당성을 점점 더 확증하고있다.

물론 헤겔의 변증법의 그러한 연구, 해석 및 선전은 비상히 곤난한 일이며 이 방면에 있어서의 최초의 경험은 의심할것없이 오유를 동반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오유를 범하지 않는자는 오직 아무 일도 하지 않는자들뿐이다. 맑스가 유물론적으로 리해한 헤겔의 변증법을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하는데 근거하여 우리는 이 변증법을 각 방면으로 연구하며 헤겔의 주요저작의 발취를 잡지에 발표하며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며 맑스가 변증법을 적용한 모범적인 실례와 또 경제적, 정치적 제 관계의 분야에 있어서의 변증법의 실례들—그러한 실례는 최근세사, 특히 현대의 제국주의전쟁과 혁명이 비상히 많이 제공하고있다.—에 의하여 이에 주석을 가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의 편집자와 기고자들의 집단은 일종의 《헤겔변증법의 유물론적연구자협회》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의 자연과학자들은(만일 그들이 탐구할줄 알고 또 우리가 그들을 방조할줄 알게 된다면) 유물론적으로 해석된 헤겔의 변증법속에서 자연과학에서의 혁명에 의하여 제기되고있는 철학적 제

문제—자산계급적류행에 대한 지식인적숭배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서 반동에로 《전락하고있다》.—에 대한 일련의 해답을 찾아낼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자기앞에 제기하고 계통적으로 그것을 수행함이 없이는 유물론은 전투적유물론으로 될수 없다. 쒜드린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그러한 유물론은 싸움을 하는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당하는것으로 될것이다.[168] 우리가 이런 과업을 제기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대자연과학자들은 철학적으로 결론을 지으며 일반화함에 있어서 종래와 마찬가지로 자주 속수무책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자연과학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극히 심각한 혁명적변혁의 시기를 경과하고있으니만큼 자연과학은 철학적결론 없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것이기때문이다.

끝으로 실례를 하나 들려 하는데 그것은 철학부면에는 관계되지 않으나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가 역시 관심을 돌리고저 하는 사회문제의 분야에는 어쨌든 관계되는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소위 과학이 사실상 극히 조잡하고 극히 추악한 반동적 제 견해의 전도자로서 어떻게 봉사하고있는가를 말하여주는 실례의 하나이다.

최근 나는 《로씨야기술협회》 제11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경제학자》 제1호(1922년)를 받았다. 나에게 이 잡지를 보낸 사람은 젊은 공산주의자인데 그는(아마도 그 잡지의 내용을 료해할 시간이 없은것 같다.) 경솔하게도 이 잡지에 대해서 비상히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었다. 사실상 이 잡지는 어느 정도까지 의식적인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두말할것없이 과학성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등등의 외투를 뒤집어쓴 현대농노주의자들의 기관지이다.

이 잡지에 삐. 아. 쏘로낀이라는 사람이 소위 《사회학적》 연구라고 하는 대론문 《전쟁의 영향에 대하여》를 게재하였다. 이 심오한 론문에는 저자와 외국에 있는 그의 수다한 선생들과 동료들의 《사회학적》로작들에서 끄집어온 심오한 각양각색의 인용문이 가득차있다. 그가 얼마나 박학한가를 보여주는 실례는 다음과 같다.

83페지에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현재 뻬뜨로그라드에서는 혼인건수 1만가운데서 리혼건수가 92.2건이다. 이것은 굉장한 수자이다. 그런데 리혼 100건중에서 51.1건은 혼인기간이 1년미만의것이고 11%는 1개월미만, 22%는 2개월미만, 41%는 3～6개월미만의것이였으며 오직 26%만이 6개월이상의것이였다. 이 수자는 현대의 합법적결혼이란 본질에 있어서 혼인외의 성교를 은폐하며 호색가들에게 〈합법적으로〉 육욕을 만족시킬 가능성을 주는 하나의 형식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경제학자》, 제1호, 83페지)

이 신사도 그리고 이 잡지를 발행하며 거기에 이와 같은 론의를 게재하고있는 로씨야기술협회도 자기자신을 민주주의의 지지자로 인정하고있다는것,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사실 그대로 부른다면, 즉 농노주의자, 반동분자, 《승려주의의 학위있는 종복》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그것을 최대의 모욕으로 생각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혼인, 리혼 및 사생아에 대한 자산계급국가의 립법과 또 이 측면에 있어서의 현실적사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현대의 자산계급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어느 자산계급공화국에 있어서조차도 이 측면에 있어서 녀성이나 사생아에 대하여 바로 농노주의적태도를 취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것은 물론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 및 일부 무정부주의자들과 서방의 류사한 모든 정당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와 불

쉐위크들이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데 대해서 계속 떠드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다름아닌 볼쉐위크적혁명만이 결혼, 리혼 및 사생아의 지위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철저한 민주주의적혁명인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주민의 과반수의 리해관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볼쉐위크적혁명에 선행하였으며 또 민주주의적이라고 자칭한 자산계급혁명이 수다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볼쉐위크적혁명만이 처음으로 이 면에서 반동과 농노제에 대해서나 지배계급과 유산계급의 상투적인 위선에 대해서나 단호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만일에 쏘로낀씨에게 결혼 1만건에 대한 리혼 92건이 굉장한 수자로 보인다면 이 저자는 아무도 믿기 어려우리만큼 세상과 격리된 어떤 수도원에서 생활하였고 교육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동과 자산계급의 마음에 들도록 진실을 외곡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산계급제국의 사회적 제 조건을 다소라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실제상의 리혼수(물론 교회와 법률의 승인이 없는)는 어디서든지 이보다 비할바없이 더 많다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이 면에서 로씨야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다만 로씨야의 법률이 위선이나 녀성과 그 유아의 무권리한 처지를 신성화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로골적으로 그리고 국가권력의 명의로 온갖 위선과 온갖 무권리에 대하여 계통적인 투쟁을 포고하고있다는것뿐이다.

맑스주의적잡지는 이러한 현대의 《교양있는》 농노주의자들에 대해서도 투쟁을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이름난 타락분자들이 어린 아동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감으로서는 부적당한것과 마찬가지로 이 목적에 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 나라의 국고로부터 봉급까지 받으

면서 청년을 교육하는 국가적직무에 종사하고있을것이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정권을 쟁취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그것을 리용하는것은 아직 배워내지 못하였다. 만일 그것을 배워냈다면 그들은 이러한 교원들과 학회의 회원들을 오래전에 벌써 자산계급《민주주의》의 나라로 친절히 전송하였을것이다. 그곳은 그러한 농노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적당한 장소이다.

오직 배울 의욕만 있다면 배워낼것이다.

1922년 3월 12일

1922년 3월,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 제3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잡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198~207페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 위원회의 정치보고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169에서, 1922년 3월 27일)

(박수)동지들! 나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년초로부터가 아니라 년말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현재 가장 절박한 정치문제는 제노아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출판물에서 이 문제를 많이 언급하여왔고 또 이미 출판까지 된 3월 6일의 연설에서 나는 이 문제의 본질적인것①을 이미 말하였기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세목을 설명할것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문제의 세부에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제노아회의170의 대체적정황은 여러분이 다 알고있다. 그것은 출판물들이 이 문제에 많은 지면을 제공하여왔기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전반 건설, 특히는 경제건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긴절한 요구에 손해를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지면이 거기에 제공되였다. 구라파의 모든 자산계급나라들에서 제노아회의에 관해서 온갖 잡담을 일삼거나 거기에 몰두하기를 대단히 좋아하는것은 알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비록 이번뿐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을 모방하고있으며 그것도 지나치게 모방하고있다.

우리 중앙위원회는 가장 훌륭한 우리의 외교관들로(현재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183～190페지를 보라. —편집자

우리에게는 상당한 수의 쏘베트외교관들이 있는바 쏘베트공화국 창건초기와는 다르다.)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매우 면밀한 대책을 취하였다는것을 말해두어야 하겠다. 우리 중앙위원회는 제노아로 가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아주 상세한 지령을 작성하여주었다. 그 지령들은 극히 오랜 시일에 걸쳐서 작성되였고 루차 토의되였으며 재삼 검토되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군사문제라고 할수 없지만—이 술어는 곡해되기 쉽기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경쟁문제인것만은 자명한것이다. 자산계급진영에는 제노아회의를 파탄시키려는 매우 강력한 조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조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것이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의를 고수하려 하며 이 회의가 소집되게끔 힘쓰고있는 다른 조류가 있다. 지금 후자가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산계급국가들의 진영에는 평화주의적조류라고 할수 있는 조류들이 있는데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100도 전부 이 조류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다. 그것은 일련의 평화주의적제안을 주장하며 그 어떤 평화주의적정책과 같은것을 작성해보려고 시도하는 자산계급진영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로서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있으나 그것을 여기에서 진술할 필요는 전혀 없을것이다. 물론 우리가 제노아에 가는것은 공산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상인으로서 가는것이다. 우리는 장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도 역시 장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장사에서 우리에게 리득이 있기를 원하고있으며 그들은 그들에게 리득이 있기를 원하고있다. 이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하는 그것은 비록 많은 정도라고 할수는 없으나 우리 외교관들의 수완여하에 달려있다.

우리가 상인으로서 제노아에 가서 군사적해결의 경향을 가지고있는 자산계급진영의 대표자들과 거래를 하는가 아니면

평화주의(그것이 비록 가장 저렬한것으로서 공산주의의 견지에서 하는 어떠한 비판에도 견디여내지 못하는것이기는 하지만)경향을 가지고있는 그런 자산계급진영의 대표자들과 거래를 하는가 하는 이것은 물론 우리들에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구별을 파악할줄 모르며 자기의 전술을 이에 적응시켜 실제적인 목적을 달성할줄 모르는 그러한 상인은 어쨌든 신통치 못한 상인이다.

우리는 무역을 확대하고 그것을 가장 광범히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 제 조건을 지어놓으려는 실제적목적을 가지고 제노아로 가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제노아회의의 성공을 담보할수는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것을 담보한다는것은 가소롭고도 무의미한 일일것이다. 그러나 제노아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을 가장 랭정하고 신중하게 평가하건대, 나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에 상대자들이 상당히 분별있고 과히 완고하지 않다면 제노아회의를 통하여 이것을 달성할것이고 만일에 그들이 고집을 부리려고 한다면 제노아회의를 통하지 않고 이것을 달성할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것이다!

최근 수년동안 모든 자본주의렬강들에서 현저히 나타난 가장 시급하고 긴절한 실제적인 리해관계는 로씨야와의 무역의 발전, 그의 조정과 확장을 요구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리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론쟁할수도 있고 말다툼할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의견상이—이 의견상이는 지어 결렬마저 초래할수 있는것이다.—가 있을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경제적필요성이 그자신의 길을 개척할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기일을 담보하거나 그 성공을 담보할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 회의에

서 우리는 쏘베트공화국과 전반 자본주의세계와의 정상적인 통상관계가 불가피적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리라는것을 아주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중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 관해서는 나의 보고의 해당개소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제노아회의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그치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더 상세히 알려고 하며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표단원명단으로써 만족하지 않는 동지들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선출하여 중앙위원회의 모든 자료들과 왕복서한 및 지령서 등을 찾아볼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작성한 세목은 잠정적인것이다. 왜냐 하면 바로 이 제노아회의에 누가 참석하며 또 여기에서 어떤 조건들—예비조건 혹은 보류조건들이 제출될것인가 하는것이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것을 구명하는것은 극히 부적당하며 실제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거듭 말하는바이지만 이 대회는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관한 이미 발표된 모든 문건들과 중앙위원회가 가지고있는 모든 문건들을 완전히 수집할수 있다.

나는 이이상 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이 문제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확신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전당이 자기의 주되는 주의력을 돌려야 할 그러한것은 아니다. 구라파의 자산계급신문은 이 회의의 의의를 인위적으로, 고의로 불어대고 과장하면서 근로대중을 기만하고있다.(모든 이러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국가들과 공화국들에서는 모든 자산계급신문의 10분의 9가 항상 이렇게 하고있다.) 우리는 이 신문의 영향을 다소 받았다. 우리 신문들은 아직도 자산계급의 낡은 관습의 영향을 받고있으며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궤도로 옮겨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떠들었다.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특히 1917년이래 우리가 체험한것과 같은 그러한 준엄한 시기를 겪었으며 또 그때부터 우리가 보아온바와 같은 그러한 중대한 정치적정세들을 목도하여온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제노아회의는 아무런 커다란 난관도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우리 중앙위원회 위원들사이에 그리고 당원들사이에 어떠한 의견상이나 론쟁같은것이 일어났다는것을 나는 들은 일이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사이에 각종 차이가 있다는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론쟁할것이 없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는바이지만 우리는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유리한 형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인으로서 제노아에 가는것이다. 이 무역은 이미 시작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누가 이 무역을 얼마동안 강제로 중단시킬수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후에는 불가피적으로 발전될것이다.

때문에 제노아회의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간단한 몇마디로 그치고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건대 작년도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적문제였으며 다음해에 있어서도 주요한 정치적문제로 될 그러한 문제로 넘어가려 한다. 나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에서는 단순히 총화년도에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총화년도에 어떤 주요한 근본적인 정치적교훈들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론급함으로써 다음해의 우리의 정책을 옳게 규정하며 또 이 1년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혹은 적어도 그렇게 하는것이 나의 습관이다.)

물론 주되는 문제는 신경제정책이다. 전 총화년도는 신경제정책의 기치하에서 보냈다. 만일 우리가 이 1년동안 그 어떤 크고 중대하고 확고한 전과를 거두었다면(이것은 나로서는 의문이 없는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이 신경제정책의 원칙중에

서 그 어떠한것을 배웠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1년동안에 신경제정책면에서 극히 많은것을 배웠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배웠는가 또 얼마나 배웠는가에 관한 검열은 아마 금후의 사건들, 즉 례컨대 다가오는 재정적위기와 같은 우리의 의사에 의존되는바가 극히 적은 그런 사건들에 의하여 진행될것이다. 나는 신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론의의 근거로서, 또 지난해의 경험을 참작하며 다음해를 위한 실천적교훈을 획득하는 근거로서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신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농민경제와의 련결을 실지로 맺고있는가를 검열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선행시기에 있어서는 모든 주의력과 정력을 주로 또는 거의다 침공을 반격하는 과업에 경주하였는데 그 당시 우리는 이 련결에 관해서 잘 고려할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세계 제국주의의 거대한 세력에 의하여 미구에 교살당할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절대적으로 긴급하고 직접 박두한 과업이 제기되여있던 그 당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련결문제를 어느 정도 소홀히 할수도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신경제정책에로의 전환은 지난번 대회에서 완전히 일치하게 결정되였는데 지어는 우리 당이 다른 문제들을 결정할 때보다 더 일치하게 결정되였다.(우리 당은 일반적으로 비상한 일치성으로써 특이하다는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일치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하여 새로운 방도를 취하여야 할 시기가 절대적으로 성숙되였다는것을 표시하는것이였다. 많은 문제에서 서로 의견상이가 있었으며 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세를 평가하여오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그 기초축성에 대한 참된 방도가 없다는것과 이러

한 방도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신경제정책이라는 이 결론을 이구동성으로 또 매우 급속히, 추호의 주저도 없이 내렸던것이다. 군사적사건과 정치적사건의 발전, 낡은 문명한 서구라파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식민지에서의 사회적 및 정치적 제 조건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장 락후한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락후한 국가들중의 하나에 속하고있었던 그런 시기에 낡은 자산계급세계에 돌파구를 뚫는 첫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의 절대다수 농민들은 개인적소경리를 영위하고있다. 우리가 작성한 공산주의사회의 강령중에서 곧 실현할수 있는 그러한 것의 건설은 광범한 농민대중가운데서 일어난것과 어느 정도 관계없이 진행되였다. 우리는 극히 무거운 의무를 농민대중에게 부담시키면서 전쟁은 어떠한 주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그것을 정당화하였던것이다. 총적면에서 볼 때 우리가 피할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유를 접수하였던것이다. 대체로 농민대중은 그들에게 부과된 이런 무거운 짐이 로농정권을 지주들로부터 고수하는데 있어서 또 혁명의 모든 전취물을 박탈하려 하는 자본가들의 침략에 의하여 교살되지 않게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것을 깨닫고 리해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국유화되고 사회화된 공장, 국영농장에서 건설한 경제와 농민경제사이에는 련계가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 당대회에서 명백히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명백히 보았기때문에 신경제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에 있어서 당내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던것이다.

외국에 있는 각종 로씨야인정당들의 아주 많은 출판물들에서 볼수 있는 우리의 이 결정에 대한 가지각색의 론평들을 읽는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론평들간의 차이는 극히 미미한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지금도 좌익공산주의

자들[52]은 여전히 신경제정책을 반대하고있다고 중얼거리고있다. 그들은 1918년에 있은 일로서 우리 나라의 좌익공산주의자들자신이 벌써 망각하여버린 일을 1921년에 상기하고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이 볼쉐위크들은 다 알다싶이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들이며 자신들내부에 의견상이가 있다는 사실을 구라파에 대하여 은폐하고있다고 억설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을 읽을 때 당신들은 그들이 제멋대로 오해하게 내버려두자고 생각할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것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있다면 그들의 이러한 생각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외국에 가서 살고있는 이런 가장 교양있다고 하는 지난날의 인간들의 의식정도가 어떠한가를 가히 판단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들사이에는 아무런 의견상이도 없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기초축성에 대하여 종래와는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할 실천적필요성을 누구나 다 명백하게알고있기때문이다.

우리가 수립하려고 시도한 새로운 경제와 농민경제사이의 련계는 우리 나라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련계가 있는가? 아직은 없다. 우리는 현재 그것에 접근해가고있을뿐이다. 신경제정책이 가지고있는 모든 의의는—우리 나라의 신문은 아직도 이 의의를 응당 찾아야 할 곳에서는 찾지 않고 흔히 아무곳에서나 제멋대로 찾고있다.—우리가 막대한 노력으로 수립하고있는 그 새로운 경제와 농민경제와의 련계를 발견하는데 있으며 또 오직 거기에만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우리들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공산주의자—혁명가로 될수 없다.

우리는 모든 낡은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새

로운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처음 몇달동안에, 처음 몇해동안에 전멸당하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새로운 경제를 그와 같은 절대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건설하기 시작하였기때문에 장래에도 꼭 계속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가? 그것은 아무데서도 나올데가 없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또 만일 자본주의적면에서 보다 발전된 국가들의 로동자동지들이 우리를 시급히 원조하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업은 극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또 의심할바없이 거기에서 일련의 오유를 범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우리는 최초부터 말하여왔다. 주요한 것은 어디서 그와 같은 오유를 범하였는가를 랭정히 관찰할줄 알며 또한 그 모든것을 처음부터 고쳐할줄 아는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두번이 아니라 몇번이라도 처음부터 모든것을 고쳐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아무 편견도 없이, 랭정하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과업을 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신경제정책문제에 있어서 현재 주되는것은 지난해의 경험을 옳게 섭취하는것이다. 이렇게 해야 할것이며 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려고 한다면(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며 또 그렇게 하고야말것이다!) 신경제정책의 기본적이고 결정적이며 모든것을 종속시키는 임무는 바로 이미 건설하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그 건설은 극히 졸렬하고 극히 조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에 기초하여, 새로운 생산과 새로운 분배에 기초하여 건설하기 시작하였다.)와 몇백만명의 농민들이 자기의 생계를 얻고있는 농민경제사이에 련계를 맺는것이라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련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이러한 련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것을 이 목적에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신경제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이 련계를 수립할수 있었으며 또 우리가 조잡하게 건설하기 시작한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수 있었는가를 역시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농민과의 련계밑에서 건설하고있다. 우리는 그 경제를 몇번이고 다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대공업 및 농업에서의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업과 약은척하지 않고(왜냐 하면 기아에서 오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오며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약은척할수는 없기때문이다.)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하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종사하고있는 매개 농민의 사업과의 사이에 련계가 이루어지도록 그 경제를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련계를 명백히 목격할수 있도록, 전체 인민이 이것을 목격할수 있도록, 전체 농민대중이 자기들의 전례없이 령락되고 전례없이 궁핍하게 된 현재의 곤난하고 고통스러운 생활과 위대한 사회주의적리상을 목표삼고 수행하고있는 사업 사이에 련계가 있다는것을 볼수 있도록 이 련계를 명시하여주어야 한다.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자가 자기에게는 어떤 생활상 개선이 있었으며 또 그것은 지주의 정권 및 자본주의의 시대에 있어서 몇몇 농민이 개선된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였다는것을 잘 리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주의 정권 및 자본주의의 시대에 있어서는 개선은 그 하나하나가(두말할것없이 개선은 있었고 또 매우 컸던것이다.) 농부에 대한 모욕과 조롱과 우롱, 대중에 대한 폭력과 결부되여있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폭력을 잊지 못하고 또 로씨야에서는 수십년을

지나도 잊지 못할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이 련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는 농민의 견지로 보아 아득한 몽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농민이 알기 쉽고 익숙하고 그들이 온갖 빈궁속에 있으면서도 곧 손댈수 있는 그러한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사실로써 농민에게 증시해주는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줄 알며 또 공산주의자들은 소농이 령락되고 빈궁해지고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는 곤난한 시각에 그들을 실지로 원조하고있다는것을 증시해주는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증시하는가 아니면 농민들이 우리를 쫓아내는가 하는 둘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것이다.

바로 이 점에 신경제정책의 의의가 있으며 우리의 전반 정책의 근거가 있다. 여기에 신경제정책을 실시한 지난 1년간의 주되는 교훈이 있으며 또한 다음년도의 우리의 주요한, 말하자면 정치적규준이 있다. 농민은 우리에게 신용을 주고있다. 물론 그들이 실지로 체험한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농민은 대다수가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있다. 《자, 당신들이 아직 그것을 할줄 모른다면 우리는 기다릴터이다. 아마도 당신들은 배워내게 될것이니까.》 그러나 이 신용은 무진장한것일수는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신용을 받았으니만큼 어쨌든 바빠하기마련이다. 농민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는 신용을 주지 않게 되며 그가 현금을—상업용어를 써도 좋다면—요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닥쳐오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존경하는 통치자 제씨, 연기기간이 몇달, 몇해를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당신들은 우리를 결핍과 빈궁, 기아와 령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믿음직한 방법을 얻어내였다. 당신들은 그렇게 할수 있으며 당신들은 그것을 증실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적

으로 치게 될 시험이다. 그런데 이 시험은 결국 모든것을, 즉 신경제정책의 운명도 로씨야의 공산주의정권의 운명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해낼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대체 이 신경제정책은 그 무슨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퇴각이 옳은것이라면 우리는 퇴각하여 농민대중과 결합하여야 하며 그들과 함께 백배나 더 더디기는 하나 그대신에 확고하고 꾸준하게 전진하여야 하며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그 농민대중이 항상 보게끔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기필코 불패의것으로 될것이며 세계의 그 어떤 력량도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할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직까지는, 즉 지난 첫해동안에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솔직히 말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만일에 우리가 신경제정책에 내포되여있는 모든 거대한 위험을 바로 간파하고 우리의 모든 력량을 약한개소들에다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 과업을 해결하게 될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그런데 우리의 신경제정책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하고있다.)

농민대중과, 평범한 근로농민과 결합하자.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이것은 우리가 예기하였던것보다는 형편없이 더딘것이겠지만 그대신에 전체 대중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전진하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이 전진운동도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가속도로 진척되게 될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신경제정책의 으뜸가는 기본적인 정치적 교훈이다.

둘째 교훈은 부분적인 교훈으로서 국영기업소와 자본주의기업소간의 경쟁에 의한 검열이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합영회사들이 조직되고있다.(나는 이에 관해서는 후에 좀 언급할

것이다.) 이 회사들은 우리의 전체 국영상업이나 우리의 전반 신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현재 상업적방법과 자본주의적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합영회사는 거기서 자본주의적방법과 우리의 방법간에 실제적인 경쟁이 조직되고 있는만큼 또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실지로 비교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강령을 쓰고 약속을 하여왔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강령과 약속이 없이는 세계혁명을 시작할수 없는것이다. 멘쉐위크들도 포함한 백위군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를 중상한다면 그것은 멘쉐위크와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이 대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조금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줄따름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시작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참다운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게끔 되여있다. 그 검사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설된 검열기관들이 진행하는 그런것이 아니다. 그 검열기관이 비록 훌륭한것이며 쏘베트기관들의 체계내에 있어서나 당기관의 체계내에 있어서 거의 리상적인 검열기관으로 되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그러한 검사인것이 아니라 대중의 경제의 견지에서 하는 그런 검사인것이다.

자본가들은 물품공급사업에 능란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일을 조잡히 하여왔고 략탈적으로 하여왔다. 그들은 우리를 모욕하였고 략탈하였다. 공산주의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기때문에 공산주의를 론의하지도 않는 평범한 로동자나 농민도 이것을 알고있다.

《그래도 어쨌든 자본가들은 물품을 공급할줄 알고있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할줄 아는가? 당신들은 할줄 모른다.》 똑똑

하지는 않으나 작년봄에 바로 이러한 말들이 들리였는데 이런 말들은 작년봄의 전반 위기의 기본원인이였다. 《당신들은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기가 맡은 경제사업을 할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지난해에 농민들이 그리고 일련의 로동자계층이 농민들을 통하여 공산당에 가한 참으로 단순하고도 심각한 비판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신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의 이 점, 이 낡은 점이 그와 같은 의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참다운 검사가 필요하다. 우리옆에서 자본가들이 활동하고있다. 그들은 략탈적으로 활동하고있으며 리윤을 획취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리윤이 없다. 여러분의 그 공산주의적원칙, 그 리상은 훌륭하다. 여러분은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자들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업을 할줄 아는가? 검사, 참된 검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중앙검열위원회가 심사하고 질책하며 전로중앙 집행위원회가 형벌을 주는 그러한 검사가 필요한것이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견지에서 진행하는 참된 검사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수차 기한연기를 허용하면서 다른 어느 정부에도 주지 않았던 그런 정도의 신용을 공산당에 주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농민들을 자본가와 지주들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게끔 도와주었다. 농민들은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대부기한을 연기하여준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검사하게 된다. 즉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게 경제를 운영할줄 아는가? 지난날의 자본가들은 잘 아는데 당신들은 모른다고.

이것이 첫째 교훈이며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의 으뜸가는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경제를 운영할줄을 모르고있다. 이 사실은 지난 1년동안에 이미 증명된바이다. 나는 몇개의 국영트레스트(뚜르게네브가 그처럼 찬양한 이 훌륭한 로씨야어로 표현한다면)를 례로 들어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줄 아는가를 보여주고싶다.

유감스럽게도 여러가지 리유로, 주로는 병으로 인하여 나는 보고의 이 부분을 잘 준비할수가 없었는바 나는 현재 진행되고있는것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서 자신이 확신하는바를 말하는데 그칠수밖에 없다. 지난 1년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줄 모른다는것을 아주 명백히 증시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인 교훈이다. 다음년도에는 우리가 그와 반대의것을 증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쏘베트정권이 존재할수 없게 되든가 두가지중의 어느 하나이다. 그런데 가장 큰 위험성은 누구나 다 이것을 자각하고있는것은 아니라는 그것이다. 만일에 모든 공산당원들이, 모든 책임일군들이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줄 모르는것만큼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는것, 그러면 그 일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것을 명백히 자각한다면—이것이 나의 생각 같아서는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결론인듯하다. 그러나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들 있으며 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과거에 공산주의를 연구한 일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며 아마 배우게 되면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믿고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실례이지만 문제는 농민이나 비당원로동자가 공산주의를 연구하지 않았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강령을 전개하며 인민들에게 이 위대한 강령의 실천을 호소하여야 하였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데 있다. 그런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다. 지금 필요한것은 여러분은 현하의 곤난한 제 조건하에서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실지로 경제적원

조를 줄줄 안다는것을 증시하며 여러분이 경쟁에서 견디여냈다는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것이다.

우리가 창설하기 시작한 합영회사에는 로씨야 및 외국의 개인자본가들도 참가하고 공산당원들도 참가하고있는데 그러한 회사들은 거기에서 경쟁을 옳게 조직할수 있는 하나의 형태이며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우리가 자본가들보다 못하지 않게 농민경제와 련계를 맺을수 있으며 농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줄수 있으며 농민들이 단기간내에 개조될수 있으므로 그들을 현재 처하고있는 락후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또 그렇게 하는것을 배울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쟁이 절대로 긴급한 과업으로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다. 바로 이 점에 신경제정책의 요점이 있으며 또 이 점에 당정책의 모든 본질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우리에게는 순 정치적 문제와 난관들이 대단히 많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잘 알고있다. 즉 제노아회의도 무력간섭의 위험도 알고있다. 난관들은 크다. 그러나 그 난관들은 모두가 다 이 경제적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았으며 우리는 그 면에서 많은것을 배웠고 또 자산계급적외교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이미 15년동안 멘쉐위크들이 우리에게 배워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유익한것을 배우게끔 한 그런 종류의것이다. 이것은 새로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제면에서 타개하여야 할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점원이나 보통 자본가나 상인을 상대로 하는 경쟁에서 그들을 이겨내야 한다는것이다. 그들은 농민한테 가서 공산주의를 론하지는 않을것이고—사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론하려 하지 않는다.—다음과 같은것에 대하여 론하게 될것이다. 즉 당신들이 무엇을 입수하거나 정당하게 거

래를 하거나 능란하게 건설을 한다면 나는 비싼 값으로 맡게 될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보다 더 비싸게, 10배나 더 비싸게 건설하게 될것이다라고. 이러한 선동이야말로 오늘날의 문제의 본질을 표현하고있으며 바로 이 점에 경제의 근본이 있는것이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바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옳은 정책의 덕택으로 인민들로부터 신용과 그 대부기간의 연기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신경제정책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수형인데 이 수형에는 기한이 씌여있지 않다. 그리하여 그것이 언제 지불을 요구하게 될는지는 그 수형을 가지고서는 알수 없다. 바로 이 점에 위험성이 있으며 정치적수형과 보통의 상업상의 수형을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국영트레스트나 합영회사에는 어디에나 책임적인 훌륭한 공산당원들이 들어가있다고 해서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이 있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경제를 운영할줄 모르며 또 이 점에서는 큰 공장과 큰 회사에서 단련된 자본주의적인 보통점원보다도 서툴기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로씨야어로 표현한다면 《공산당원의 오만》이 남아있다. 문제는 책임적인 공산당원이 훌륭하기도 하고 대단히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또한 고역의 시달림을 받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장사를 할줄 모른다는데 있는바 이것은 그가 실무가가 아니여서 이것을 배우지 않았고 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때문이며 또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워야 한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는 공산당원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수행해놓은 혁명가이다. 그는 40개의 금자탑171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라파의 40개 나라가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려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있는 그런 사람

이다. 그러나 그는 곡물상점을 10년동안이나 드나든, 그 일을 할줄 아는 보통점원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런데 책임적인 공산당원이며 헌신적인 혁명가인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르고있을뿐만아니라 지어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르고있다는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있다.

동지들, 만일 우리가 이 최초의 몰리해를 시정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승리로 될것이다. 우리는 본 대회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할줄 모르는만큼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울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쨌든 여전히 혁명가이다.(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관료화하였다고 말하며 또 거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비상히 곤난한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몇번이라도 시초부터 다시 시작할줄을 알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도리를 리해할수 있다. 일단 개시하였다가 막다른골목에 다달았을 때에는 새로 시작하라. 열번이라도 이렇게 다시 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라. 자기가 공산당원이라고 해서 자고자대하지 말라. 그런데 저 비당원점원—혹시 백파일지도 모른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할줄 아는데 여러분은 할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책임적인 공산당원이며 많은 직위와 칭호의 소유자라면, 공산당과 쏘베트의 《수훈자》라면, 만일 당신이 이것을 자각한다면 당신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그 일은 배워낼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1년동안에 극히 적으나마 성과라고 할만한 그 어떤것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잘것없는것이다. 주요한것은 현재 우리 로씨야의 책임적이며 가장 헌신적인 공산당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수완에 있어서는 과거의 어느 점원보다도 뒤떨어져있다는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있으며 그런 확신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전체 공산당원들이 그렇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듭 말하는바이지만 시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합격할것이다. 그 시험은 박두해오는 재정적위기가 내놓게 되는 엄격한 시험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여있고 그와 련결되여 그로부터는 떨어져나갈수 없는 그런 로씨야시장 및 국제시장이 내놓게 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몹시 엄격하다. 왜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파멸당할는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만 이렇게 되여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경쟁은 몹시 엄격한것이며 결정적인것이기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치적 및 경제적 난관에서 벗어날수 있는 각종 진로와 출로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환경에 적응하여 이러한 진로와 출로를 여러가지로 결합시키면서 능숙하게 리용하여왔다는것을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이이상 더 아무런 출로도 없다. 조금도 과장함이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을 허용하기 바란다. 즉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진실로 《최후의 결전》이며 그것은 국제자본주의와의 결전이 아니라—여기에는 아직도 허다한 《최후의 결전》이 있게 될것이다.—그런것이 아니라 소농경제로부터 자라나고있으며 또 그것의 지지를 받고있는 다름아닌 로씨야자본주의와의 《최후의 결전》인것이다. 여기에서는 목전에 전투가 박두해오고있다. 그 날자는 정확히 확정할수 없다. 여기에서는 《최후의 결전》이 박두하고있다. 여기에는 벌써 에돌아갈수 있는 정치적도로 또는 기타의 어떤 길도 있을수 없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적자본과 경쟁하는 시험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사적자본과 경쟁하는 이 시험에 합격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패배당하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필요한것으로서 우리는 정치적권

력을 가지고있으며 경제상 및 기타의 온갖 자원을 가지고있다. 즉 우리는 실무적수완을 제외하고는 요구되는 모든것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실무적수완이 결여되여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지난해의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단순한 교훈을 섭취하여가지고 이것을 1922년 옹근 한해동안의 자기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그때에는 비록 그 난관이 우리자체내에 놓여있음으로 하여 종전의 난관보다 훨씬 더 큰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적은 아니다. 이 난관이라는것은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수 없는 그 불유쾌한 진리를 우리자신이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는것이며 우리가 하지 않을수 없는 불유쾌한 일, 즉 시초부터 다시 배우기를 싫어하는데 있는것이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가 신경제정책에서 얻게 되는 둘째 교훈이다.

셋째 교훈은 보충적인것인데 이것은 국가자본주의문제에 관한것이다. 부하린동지가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것은 유감이다. 나는 그와 좀 론쟁하고싶지만 다음번 대회까지 연기하는수밖에 없다. 국가자본주의문제에 대하여 우리 신문과 우리 당은 한가지 오유를 범하고있다고 생각된다. 즉 그것은 우리가 지식인의 근성과 자유주의에 사로잡혀있으며 국가자본주의를 어떻게 리해할것인가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며 낡은 서적들을 뒤적거리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낡은 서적들에는 방금 말한 그런 국가자본주의에 관하여서는 전혀 씌여있지 않다. 거기에는 자본주의하에서 존재하는 국가자본주의에 관한것은 씌여있으나 공산주의하에서 존재하는 국가자본주의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는 단 한책도 없다. 맑스조차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의 정확한 언명도, 론박할수 없는 교시도 남기지 않고 서거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부득이 자기자신의 노력으

로써 이 난관을 돌파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이 보고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려고 한것처럼 국가자본주의의 문제에 관해서 쓴 우리 신문을 머리속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견해로 개괄하여본다면 그것들은 전혀 문제를 빗보고있으며 전혀 딴 방향을 겨누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모든 경제학문헌들에 의하면 국가자본주의란것은 자본주의제도하에 존재하는것으로서 국가권력이 이런 또는 저런 자본주의적기업소들을 직접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는 무산계급의 국가이며 그것은 무산계급에 의거하고있다. 이 국가는 무산계급에게 모든 정치적 특권을 부여하고있으며 무산계급을 통하여 하층농민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이고있다.(여러분은 우리가 빈농위원회[172]로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것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국가자본주의라는것이 극히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것은 바로 이때문인것이다.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인것, 즉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것과 같은 국가자본주의는 그 어떤 리론이나 어떤 문헌에도 검토되여있지 않으며 그것은 이 용어와 관계되는 보통의 개념들이 자본주의사회의 자산계급정권에만 적용된다는 그 단순한 리유때문이라는것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아직 새 궤도에는 올라서지 못한 그러한 사회이다. 그러나 이 국가를 령도하는것은 자산계급이 아니라 무산계급이다. 우리는 우리가 《국가》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자신을 말하며 무산계급을 말하며 로동계급의 전위를 말한다는것을 리해하려하지 않고있다. 국가자본주의라는것은 우리가 제한할수 있고 그 한계를 우리가 정할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이다. 이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와 련결되고있는데 그 국가는 로동자들이며 로동자들의 선진적부분이며 전위이며 우리자신이다.

국가자본주의라는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제한하여야 할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할줄을 모르고있다. 여기에 문제의 전부가 있다. 그리하여 이런 국가자본주의가 장차 어떤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정치적권력을 충분히, 그야말로 충분히 가지고있으며 또 우리가 처리할수 있는 경제적수단들도 충분히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전선에 서있는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 직접 관리하며 한계를 정하며 계선을 그으며 또 복종자로 되는것이 아니라 타인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등의 수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있다.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수완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참으로 이것은 무산계급, 혁명적전위대가 정치적권력을 아주 충분히 장악하고있는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그와 함께 존재하고있다는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한 그런 정형이다. 문제의 고리는 그것이 우리가 허용할수 있으며 또 허용하여야 할 자본주의이며 또 우리가 제한할수 있으며 또 제한하여야 할 자본주의라는것을 우리가 리해하는데 있다. 그 리유는 이 자본주의가 광범한 농민대중에게 필요한것이며 또 그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적자본에 필요한것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경제와 자본주의적류통이 정상적으로 진척될수 있게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 리유는 이것이 인민에게 필요하기때문이며 이것 없이는 살아나갈수 없기때문이다. 그외의 모든것은 그들에게, 그 진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은 아니며 그들은 나머지 모든것과 타협할수 있는것이다. 공산당원이며 로동자이며 국가의 관리를 담당한 무산계급의 각성한 부분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자기가 장악한 그 국가를 자기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일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년동안을 지내왔고 국가는 우리의 수중에 있지만

신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는 그 1년동안에 우리의 의사대로 움직이였던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싶지 않다. 국가는 우리의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움직이였는가?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는것이다. 즉 말하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앉아있기는 하나 그 자동차는 운전하는 방향으로 달리는것이 아니라 어떤 비합법적인자인지, 어떤 불법적인자인지, 어디서 온자인지 알수 없는 그 누가, 어떤 투기업자나 어떤 개인자본가가, 혹은 그 량자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달리고있는 자동차와도 같다. 어쨌든 자동차는 꼭 이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있는 사람이 생각하고있는 방향으로 달리고있는것이 아니며 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자본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기본적인 점이다. 이 기본적인 령역에 있어서 시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체득하고 자각하는 때에라야만 우리가 이것을 배워낼수 있다는것을 보증할수 있는것이다.

이제 나는 퇴각을 정지할데 관한 문제로 넘어가려는데 이에 관하여 나는 금속로동자대회에서 한 나의 연설에서 말한적이 있다.① 그때로부터 나는 당기관지에서나 동지들의 개인편지들에서나 또는 중앙위원회에서나 아무런 반대의견도 접하지 못하였다. 중앙위원회는 나의 보고요강을 찬동하였는데 이 요강은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본 대회에서 하는 보고에서 퇴각을 정지할데 대한 문제를 극력 강조하며 전당의 명의로 해당한 지령을 의무적인것으로서 내릴것을 대회에 요청하는것이였다. 우리는 1년동안이나 퇴각하였다. 우리는 지금 당의 명의로 말하여야 한다.—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퇴각함으로써 추구하려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190～197페지를 보라. —편집자

던 그 목적이 이제는 달성되였다. 이 시기는 끝나고있거나 이미 끝났다. 지금에 와서는 다른 목표가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력량의 재편성이다. 우리는 새 지점에 도달하였으며 어쨌든 우리는 퇴각을 대체로 보아 비교적 질서있게 진행해왔다. 하긴 이 퇴각을 당황망조한 상태에 빠뜨리려고 한 목소리도 각 방면에서 상당히 많았다. 그중의 어떤자들, 례컨대 《로동자반대파》130(나는 그들이 이러한 명칭을 가진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명칭을 가진 집단의 몇몇 대표자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의 어떤 부문들에서는 틀리게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나치게 열중한데서 한 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다른 문으로 들어갔던것이다.125 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명확히 드러났다. 그 당시 그들은 자기들의 활동이 우리의 운동을 시정하는데 돌려진것이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활동이 하나의 의의, 즉 당황망조하게 하며 퇴각을 규률있게 진행하는것을 방해하는 그런 의의밖에 가지고있지 않았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퇴각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진격하는데 습관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수년간 거대한 성과를 거두면서 진격하는데 습관되여있을 때에, 더우기는 또 그들이 오로지 진격의 개시만을 꿈꾸고있는 다른 나라 혁명가들에게 둘러싸여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들중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퇴각하고있는것을 보게 되자 최근에 있은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와 같이 지어는 용납할수 없을 정도로 또 어린애처럼 울어댔다. 가장 훌륭한 공산주의적 감정과 열망이 가득찬 나머지 어떤 동지들은 우수한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이 퇴각하는것으로 하여 울어댔던것이다. 내가 비록 망명가로서 서구라파의 그 훌륭한 민주주의나라들에서 여러해동안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나로서도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서구라파사람들의 심

리를 리해하기 어렵게 된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견지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울게 될만큼 리해하기 곤난할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우리는 감상적정서에 머물러있을 사이가 없다. 여러해동안 그처럼 성과있게 진척해왔으며 그처럼 많은 비상한 승리를 거두어왔기때문에(그것도 모든것이 믿을수 없으리만큼 령락되였고 물질적전제가 결여된 나라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처럼 많은것을 전취한 이상 이제는 그 진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퇴각하는것이 절대로 필요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우리는 우리가 급습으로 전취한 그 모든 진지를 유지해낼수 없었고 또 다른 한편 바로 우리가 로동자와 농민의 드높은 열의에 기초하여 급습으로 비상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때문에—바로 그러하였기때문에 우리는 지금 충분한 여유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주요한것, 기본적인것을 조금도 상실함이 없이 아주 멀리까지 퇴각할수 있었고 아직도 멀리 퇴각할수 있는것이다. 《로동자반대파》의 목소리(여기에 그들의 최대의 해독이 있었다.)도 포함한 당황망조한 목소리가 우리들가운데서 부분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규률을 해이시키고 옳바른 퇴각을 못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퇴각은 대체로 보아 상당히 질서있게 진행되였다. 퇴각시에 제일 위험한것은 당황망조하는것이다. 만일 전체 군대가(나는 여기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말한다.) 퇴각중에 있을 때에 그의 사기는 전진할 때와 같을수는 없다. 이때에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어느 정도 사기가 저락된 기분을 보게 될것이다. 우리 이곳에는 지어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시인까지도 있었다. 즉 보라, 모스크바는 굶주리며 헐벗고있나니, 《지난날 깨끗하고 아름답던 곳, 지금 장사와 투기뿐이여라》고. 우리 나라에는 이런 시작품이 무수히 있다.

물론 이것은 퇴각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 여기에 커다란

위협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승리적진격이 있은후에 퇴각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나타나는것이다. 진격시에는 규률을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각적으로 앞으로 내달릴것이다. 그러나 퇴각시에는 규률이 자각적인것으로 되여야 하며 또 백배나 더 필요하다. 그 리유는 전 군대가 퇴각하고있을 때에는 어디서 멈추게 되는가 하는것이 그들에게 명확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오직 퇴각만이 눈에 뜨이기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당황한 목소리가 약간 들려오기만 하여도 때로는 전부가 패주하게 되는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아주 크다. 참다운 군대가 퇴각할 때에는 기관총을 걸어놓고 옳바른 퇴각이 무질서한 퇴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격!》 하고 명령을 내리는것이다. 이것은 옳은것이다.

전대미문의 어려운 퇴각을 하고있을 때, 그리고 모든 문제가 훌륭한 질서를 유지하는데에 달려있는 그런 때에 누가 당황망조한 기분—비록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나온것이라 할지라도—을 류포한다면 이런 시기에는 가장 사소한 규률의 파괴라도 엄격히 준엄히 또 무자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당내부의 몇몇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멘쉐위크나 제2반국제당의 모든 신사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려되여야 한다.

수일전에 나는 잡지 《국제공산당》61 제20호에서 라꼬시동지가 오토 바우에르의 새 저서에 대하여 쓴 론문을 읽었다. 우리는 모두 한때 바우에르에게서 배웠던것이다. 그러나 전쟁후에 그는 카우쯔키와 마찬가지로 가련한 속물로 되여버렸다. 바우에르는 지금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자, 보라. 그들은 지금 자본주의에로 퇴각하고있다. 우리는 이 혁명은 자산계급혁명이라고 언제나 말해왔던것이다.》

그리고 이러한것을 설교하고있는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3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것을 설교하는자들을 총살할것이라고 말하니 놀란다. 그들은 몹시 놀라고있으나 문제는 자명한것이다. 즉 군대가 퇴각하는 때에는 진격하는 때보다도 규률이 백배이상 더 필요한것이다. 왜냐 하면 진격할 때에는 누구나 다 앞으로 내닫기때문이다. 그러나 퇴각할 때에 만일 누구나 다 뒤로 내빼기 시작한다면 불가피적으로 즉시 파멸될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질서있게 퇴각하며 퇴각의 한도를 정확히 규정하며 당황해하지 않는것이 가장 주요한것이다. 그리고 멘쉐위크가 《당신들은 이제야 퇴각하는가, 나는 언제나 퇴각을 지지하여왔다. 나는 당신들의 일을 찬성한다. 나는 당신들의 편이다. 자, 함께 퇴각하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멘쉐위크주의를 공공연하게 옹호하는자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혁명재판소는 총살을 실시할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재판소가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는것으로 될것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이것을 결코 리해할수 없다. 《이 인간들은 그 얼마나 독재적인 행세를 하고있는가!》라고 그들은 말하고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멘쉐위크들을 징벌하고있는것은 자기들이 제네바에서 우리와 싸웠기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다면 우리는 아마 2개월도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사실 오토 바우에르,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의 지도자들이나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들이 말하고있는 그런 설교는 그들자신의 본성을 나타내는것이다. 즉 《혁명은 멀리 지나갔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고있는것은 우리가 항상 말해오던 그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한번 되풀이하도록 허락하라.》라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즉 《이렇게 함으로

하여 우리가 당신들을 총살하도록 허락하라. 당신들이 자기 견해의 표명을 좀 회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정세하에서, 즉 우리가 백파의 직접적인 공격시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더 곤난한 환경에 처하여있는 이때에 당신들이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토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가장 흉악하고 가장 유해한 백파분자로 대하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퇴각을 정지할데 대하여 말하는것은 결코 우리가 이미 장사하는것을 다 배웠다고 말하려는것은 아니다. 도리여 나는 반대의견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만일에 나의 연설에서 그러한 인상밖에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말이 잘못 리해된것이며 내가 자기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줄을 모른다는것을 증시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경제정책의 결과 우리 나라에 나타난 그 신경과민과 번쇄 그리고 모든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고 개조하려고 하는 경향을 제지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일련의 합영회사들이 있다. 사실 그것들은 극히 적다. 우리 나라에는 외국자본가들이 참가한 회사가 9개 창설되여있는데 이 회사들은 대외무역인민위원부에서 비준한것이다. 그리고 쏘꼴리니꼬브의 위원회는 6개의 회사를 비준하였고 북해백해지방림업트레스트는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지금 각종 행정기관에서 비준한 수백만의 자본을 가진 회사가 17개 있다.(물론 우리의 행정기관들에는 혼란상태가 엄중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실책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나라에는 지금 로씨야자본가와 외국자본가들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있다. 그것들의 수는 많지 않다. 이런 사소하기는 하나 실천적인 발단은 사람들이 공산당원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실천적견지에서 평가하였으며 또 평가한것은 중앙검열위

원회나 전로중앙 집행위원회와 같은 그런 상급기관들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중앙검열위원회는 극히 훌륭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기관들이 공산당원들을 검열한다고 할지라도…사실인즉 국제시장에서는 이 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것이다.(웃음소리) 그러나 로씨야와 외국의 평범한 자본가들이 공산당원들과 함께 합영회사를 운영하여나가는 이상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우리는 어쨌든 약간한 일들을 할수 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졸렬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발단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성과는 그리 크지는 않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모든 정력을(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력이 충분하다고 말들 하고있다.) 이 문제에 경주한다고 선언한 이래 이미 1년이 경과하였다. 그런데 지난 1년간에 다만 17개의 회사를 창설하였을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며 졸렬한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아직도 오블로모브146풍이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는 불피코 얻어맞게 될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는바이지만 어쨌든 발단은 있게 되였으며 정찰은 끝마쳤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필요한 초보적인 조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로 오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중의 극소부분이나마 왔다는 이것은 벌써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회사내부에서 아직도 우리를 칠것이며 수년후에야 그것을 분별해낼수 있게끔 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이 승리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정찰이다. 이 정찰은 우리에게는 활동무대가 있으며 한뙈기의 땅이 있다는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는 퇴각을 중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찰의 결과 자본가들과 체결한 계약은 그 수가 보잘것없다는것이 판명되였으나 어쨌든 계약들이 체결되기는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배워야 하며 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신경질을 부리며 고함을 치며 공연히 떠드는것을 그만둘 때가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신경제정책이 실시되고있는만큼 우리도 역시 재조직하여야 할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서한과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있다. 모두다 공연히들 떠들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있다. 한사람도 실제적사업은 하지 않고 모두 어떻게 신경제정책에 순응할것인가를 론의하고있는데 그 결과로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있다.

그런데 상인들은 우리 공산당원들을 조소하고있으며 또 아마 《이전에는 설교대장173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론대장이 나타났다.》고 말할것이다. 자본가들이 우리가 출발이 늦어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비웃고있는 이 점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대회의 명의로 이 지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바이다.

퇴각은 끝났다. 자본가들과 어떻게 사업할것인가 하는 주요한 활동방법은 세워져있다. 그리고 그 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전형도 있다.

신경제정책에 관하여 현명한체하거나 론의하는것을 그만두라. 시는 시인더러 쓰게 하라. 그들은 시를 쓰기때문에 시인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신경제정책에 관해서 토론하는것을 그만두고 이러한 회사들의 수를 늘구라. 자본가들과 경쟁할줄 아는 공산당원들의 수효를 알아보라.

퇴각은 끝났다. 지금은 력량을 재배치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본 대회에서 내놓아야 할 지령이며 이것으로써 착잡과 혼란에 결말을 지어주어야 할것이다. 진정하

라, 똑똑한체하지 말라, 그것은 해로울것이다. 당신들이 자본가들보다 못하지 않게 사업하고있다는것을 실지로 증시하는것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은 치부하기 위하여 농민들과 경제적련계를 맺고있다. 당신들은 우리 무산계급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민경제와 련계를 맺어야 하는것이다. 당신들은 국가권력이 당신들의 수중에 있고 수다한 경제적수단들이 당신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자본가들보다도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당신들은 다만 이것들을 리용할줄 모를따름이다. 사물을 보다 랭정히 관찰하라. 허식을 버리며 화려한 공산주의적의상을 벗어버리고 허심하게 평범한 사업을 배우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개인자본가들을 이겨내게 될것이다. 우리는 국가권력을 가지고있으며 많은 경제적수단들을 가지고있다. 만일 우리가 자본주의를 타승하고 농민경제와 련계를 맺게 되는 때에는 천하무적의 불패의 력량으로 될것이다. 그때에는 사회주의건설은 창해일속과 같은 공산당의 사업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대중의 사업으로 되는것이다. 그때에는 평범한 농민도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그는 우리의 뒤를 따라올것이다. 비록 그 보조는 백배나 늦다 할지라도 그대신 그것은 백만배나 더 견고하고 견실한것으로 될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퇴각의 중지를 론하여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구호는 일정한 형식을 취하여 대회의 결정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볼쉐위크들의 신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인가 아니면 전술인가 하는 문제에 언급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목표전환파163에 의하여 제기된것인데 당신들이 아는바와 같이 그들은 로씨야망명자들속에 뿌리를 박고있는 조류, 즉 립헌민주당2의 가장 유력한 활동가들과 이전

꼴챠크정부의 몇몇 대신들이 지도하는 사회-정치적조류를 대표하고있다. 그런데 이들은 쏘베트정권이 로씨야인의 국가를 건설하고있으므로 그뒤를 따라야 한다고 확신하는자들이다. 목표전환파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 쏘베트정권은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고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또 이것은 하나의 전술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즉 볼쉐위크들은 곤난한 시기에 있어서는 개인자본가들을 얼리지만 그후에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것이라는것이다. 볼쉐위크들은 자기들이 말하고싶은대로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전술이 아니라 진화, 즉 내적변질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범한 자본주의국가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여야 한다. 력사는 가지가지의 길을 거쳐 나아가는것이다.》

이들중의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인체하지만 그러나 보다 솔직한 사람도 있다. 우스뜨랼로브가 바로 그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꼴챠크수하에서 대신으로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자기 동료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당신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말하고싶은대로 말하라.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술이 아니라 진화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우스뜨랼로브가 이와 같은 솔직한 언명으로써 우리들에게 커다란 리익을 가져다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히 나는 직무상 관계로 달콤한 《공산주의적인 황설》을 매일같이 수다히 듣게 된다. 이때문에 가끔 메스꺼워서 죽을 지경이다. 최근에 잡지 《목표전환》이 한책 왔는데 거기서는 이런 《공산주의적인 황설》 대신에 다음과 같이 솔직히 말하고있다. 《사태는 결코 당신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그저 상상만 하고있을뿐이다. 사실에 있어서 당신들은 보통 있는 자산계급의 진흙탕에 전락하고있는

것이다. 이 진흙탕에 가지가지의 류행어를 기입한 자그마한 공산주의기발이 나붓기게 될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말이다. 왜냐 하면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볼수 있게 된것은 벌써 우리 주위에서 항상 듣고있던 그러한 황설을 단순히 반복한 말이 아니라 계급적원쑤의 솔직한 계급적진실이기때문이다. 그런것을 읽는것은 매우 유익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이렇게 쓰면 허용되고 그와 달리 쓰면 금지된다는 리유로 쓴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에 있어서 계급적원쑤가 로골적으로 솔직히 표명한 계급적진실이기때문이다. 우스뜨랼로브는 비록 립헌민주주의자이고 자산계급분자이며 또 무력간섭을 지지하였지만 그는 지금 «나는 로씨야의 쏘베트정권을 지지하는데 찬성한다. 왜냐 하면 정권이 통례의 자산계급정권에로 전락하는 길에 들어섰기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말이므로 내가 보건대는 반드시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표전환파가 그와 같이 쓰는것은 그들중의 어떤자들이 거의 공산주의자인체 분장하여 멀리서 보아서는 그가 신을 믿는지 공산주의혁명을 믿는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런 공공연한 원쑤는 우리에게 유용하다는것을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 우스뜨랼로브가 말하는 그와 같은것은 가능하다는것을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 력사에는 온갖 종류의 전환이 있었다. 신념, 충성 및 기타의 훌륭한 도덕적품성에 의뢰하는것—이것은 정치에 있어서는 전혀 진지하지 못한 것이다. 훌륭한 도덕적품성은 얼마 되지 않는 인간들에게만 있다. 그러나 력사적종말을 결정하는것은 광범한 대중이다. 만일 그 얼마 되지 않는 인간들이 대중에게 적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중은 가끔 이 소수 인간들을 그다지 공순하지 않게 대하

는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아주 많았다. 그렇기때문에 목표전환파의 그 공공연한 성명을 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쑤는 우리앞에 나타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계급적진실을 말하고있다. 원쑤는 이 위협이 불가피적인것으로 되게 하려고 애쓰고있다. 목표전환파는 수천수만의 모든 자산계급 또는 쏘베트공무원들, 즉 우리의 신경제정책의 참가자들의 기분을 표현하고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현실적위험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 즉 참으로 누가 우세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주되는 주의를 돌려야 하는것이다. 나는 경쟁에 대하여 말하였다. 지금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있는 사람도 없다. 래일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두고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와의 투쟁은 백배나 더 치렬하고 위험하여졌으니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원쑤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우리의 벗인가를 언제나 명백히 볼수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내가 공산주의적경쟁을 말하는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명에서가 아니라 경제형태와 사회구조형태의 발전의 견지에서였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사이의 결사적인 치렬한 투쟁으로서 최후적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가까운 생사존망의 투쟁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힘은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부족한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명백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권력은 그야말로 충분하다. 이러저러한 실천적문제에 있어서나 이러저러한 사무기관에 있어서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에게 권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여기에는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기본적인 경제력은 우리의 수중에 있다. 모든 결정적인

대기업체, 철도 등등은 모두 우리의 수중에 있다. 임대는 그것이 아무리 곳곳에 널리 퍼져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미미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극소부분을 이루고있다. 로씨야무산계급국가의 수중에 있는 경제력은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완전히 충분하게 확보할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관리사업을 하고있는 공산당원들의 문화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4,700명의 책임자로 있는 공산당원들과 이 방대한 관료기구, 이 대집단을 례로 들어본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령도하고있는가? 나는 공산당원들이 이 대집단을 령도한다고 말할수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들이 령도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령도를 받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들은 력사이야기와 류사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었던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수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에 정복한 민족은 정복자로 되며 정복당한 민족은 피정복자로 되는 법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민족들의 문화형편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그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만일 정복한 민족이 정복된 민족보다 더 문화적일 때에는 그는 자기의 문화를 피정복민족에게 강요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일 때에는 피정복민족이 자기의 문화를 정복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이와 류사한 어떤 일이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의 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4,700명의 공산당원들(거의 옹근 한개 사단을 이루며 또 모두 가장 우수한 분자들이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복종하게 되여있지 않는가? 확실히 여기서는 피정복자가 높은 문화를 소유하고있는듯한 인상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문화란 보잘것없고 미미한것이다. 그러나 좌우간 그 문

화는 우리의것보다는 높다. 그 문화가 아무리 가련하고 보잘것없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군들인 공산당원들의 문화보다는 높은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일군들에게는 충분한 관리능력이 없기때문이다. 기관의 지도적지위에 있는 공산당원들이—태공분자들은 때로는 고의로 공산당원들을 그밑에 은신하기 위한 간판으로 내세우고있다.—종종 우롱당하고있다. 이것을 승인한다는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또는 적어도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문제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에는 지난 1년동안의 정치적교훈은 여기에 귀결되며 또 1922년의 투쟁도 이것을 표징으로 하여 진행될것같다.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과 로씨야공산당의 책임사업을 하는 공산당원들이 자기들에게는 관리능력이 없다는것, 자기들은 령도하고있다고 생각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령도를 받고있다는것을 리해할수 있는가? 만일 그들이 이것을 리해할수 있다면 물론 그들은 배우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무엇이나 다 배워낼수가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는 배워야 하는데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있다. 그들은 명령과 지령들을 되는대로 내리지만 소기의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선포한후 일정에 제기한 경쟁과 시합은 중대한 경쟁이다. 이런 경쟁은 모든 국가기관에 다 있는것 같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것은 서로 상용할수 없는 적대적인 두 계급의 또 하나의 투쟁형태인것이다. 이것은 자산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또 하나의 투쟁형태인것이다. 이 투쟁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문화적인 면에서의 투쟁은 모스크바의 중앙기관에 있어서까지도 종결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모

든 권력과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자기의 권리와 정권을 조금도 효과적으로 활용할줄 모르는 우리의 우수한 공산당원들보다 자산계급활동가들이 흔히 사업에 더 능통하기때문이다.

나는 알렉싼드르 또도르스끼의 소책자에서 한구절을 인용하려고 한다. 이 소책자는 웨씨예곤스크시(트웨르성에 이와 같은 현소재도시가 있다.)에서 출판되였는데 로씨야의 쏘베트혁명 첫돐기념일인 1918년 11월 7일에, 즉 오랜 이전에 나온것이다. 이 웨씨예곤스크의 동지는 보건대 당원인듯하다. 나는 이 책자를 읽은지가 벌써 오래 되여 인용함에 있어서 틀림없다고는 담보하기 어렵다. 그는 그가 두개의 쏘베트공장을 설비하는데 어떻게 착수하였으며 어떻게 두 자산자를 그 일에 이끌어들였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의 방법으로, 즉 자유를 박탈하며 전 재산을 몰수한다는 협박밑에서 하였는가를 말하고있다. 그 두 자산자는 공장복구에 인입되였던것이다. 우리는 1918년에 자산계급을 어떻게 인입하였던가(웃음소리)를 알고있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현재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입하고있다. 그러나 그 필자의 결론은 이렇다. 즉《이것은 아직도 일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계급을 타승, 분쇄하는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말이다. 이것은 1918년에 벌써 웨씨예곤스크시같은데서도 승리한 무산계급과 정복된 자산계급간의 관계를 옳게 리해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주는 훌륭한 말이다.

만일 우리가 착취자들을 징계하며 그들을 무해한것으로 만들며 그들을 분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일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모스크바의 책임일군들 100명중에서 약 90명은 착취자들을 징계하며 무해한것으로 만들며 그들을 분쇄하는것이 문제의 전부라고 인정하고있다. 내가 멘쉐위크들이나 사회혁명당원들이나 백파군에 대하여 말한 그것도 아주 흔히 그들을 무해한것으로 만들며 징계하며(손을 칠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칠수 있을것이다.) 분쇄하는것으로밖에 리해하지 않는다. 이미 웨씨예곤스크의 동지가 이에 대하여 말한 1918년에도 이것은 일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에 와서는 일의 4분의 1도 못되는것이다. 우리는 자산계급이 자기의 두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책임적직무가 있는 공산당원들이 웃자리에 앉아 직위만을 차지하고 조류에 따라 자산계급과 함께 헤염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공산당원의 손으로만 건설한다는것은 유치한, 전혀 유치한 생각이다. 공산당원이라는것은 창해일속, 인민이라는 창해의 일속에 불과한것이다. 그들은 이 길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또 그것이 다만 세계사적방향이라는 의미에서의 길에 그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인민을 자기의 길로 이끌어나아갈수 있는것이다. 세계사적방향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절대로 정확하게 규정하였던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옳게 규정하였다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확증되고있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국, 즉 자기 나라에서도 이 길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길은 다만 세계사적방향에 의해서뿐만아니라 앞으로 무력간섭이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가 농민들에게 곡물의 대가로 상품을 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의해서 되는것이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할것이다.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우리 조국을 방위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따라왔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저리 물러가라.» 그렇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할것이다.

공산당원들이 남의 손으로 이 경제를 건설할줄 알며 자기 자신은 앞으로 그 자산계급에게서 이것을 배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공산당원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할줄 알 때에라야 우리는 경제를 관리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어떤 공산당원들이 나는 책임적직무를 맡은 공산당원이기때문에 모든것을 알고있다, 나는 점원과 같은 그런 인간들을 타승한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선에서 싸웠는데 그런 인간들을 분쇄하였겠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분이 지배적이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것이다.

우리가 착취자를 무해한것으로 만들며 그들을 징계하며 무장해제시키는 이것은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치 않은 부분이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국가정치보안국도 우리의 재판소도 지금까지 하고있는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것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의 적들에게 포위당하고있는 무산계급재판소라는것을 기억하고있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배워냈다. 이 면에서는 다소의 강압이 실시되여야 하겠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승리의 제2부분은 비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경제적으로 해야 할바를 실지로 할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것이다. 즉 농민경리와 련계를 가지며 농민들이 《기근이 제아무리 곤난스럽고 혹심하고 고통스러운것이라 할지라도 또 이 정권이 서먹서먹하며 보통의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부터는 현실적으로 감촉할수 있는 실제적리익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라고 말할수 있도록 만족시키는데 있다. 우리가 애써 달성하여야 할것은 수자적으로

우리보다 몇배나 더 우세하며 또 우리와 함께 사업하고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의 사업을 감독할수 있고 리해할수 있게끔, 그들의 손으로 공산주의에 유리한 그 무엇을 하게끔 사업하도록 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현정세의 초점이 있다. 왜냐 하면 개별적공산당원들은 이것을 리해도 하고 보기도 하였지만 광범한 우리 당원대중은 비당원들을 사업에 끌어넣을 필요성에 대하여 리해하지 못하기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시문을 썼고 얼마나 많이 론의하였던가! 그런데 1년동안에 대체 무엇이 수행되였는가? 수행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백개의 우리 당위원회중에서 다섯개의 위원회도 자기의 실제적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당면한 요구보다 뒤떨어졌으며 이처럼 우리는 1918년과 1919년의 전통속에서 살고있다. 물론 그때는 위대한 년대였는바 가장 위대한 세계사적사업들이 수행되였던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년대만을 돌이켜보면서 현재 당면한 과업이 어떠한것인가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멸망일것이고 의심할바 없이 절대적인 멸망일것이다. 모든 문제의 요점은 우리가 이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있다.

지금 나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두개의 실례를 들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는 국영트레스트를 례로 드는것이 더 정당하리라는것을 이미 말하였다. 그런데 이 정당한 방법을 쓸수 없게 되는데 대하여 량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단 하나의 국영트레스트에 대한 자료라도 가장 구체적으로 연구하는것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그것을 연구할 가능성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그마한 례를 두개 들려고 한다. 그 한 례는 모스크바소비조합이 대외무역인민위원부를 관료주의라고 비난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바쓰지방의

례이다.

첫째 례는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으나 그이상 좋은 례를 나는 들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례로써도 기본사상을 설명할수가 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고 다 아는바와 같이 나는 최근 수개월간 사업에 직접 참여할수가 없었다. 나는 인민위원회에서도 사업하지 못하였고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사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는 가끔 모스크바에 들렸을 때 대외무역인민위원부에 대하여 심하고도 무서운 불평이 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대외무역인민위원부가 나쁘다는것, 거기에서 사업을 지체시키고있다는것을 나는 언제나 잠시도 의심한적이 없었다. 그러나 불평이 대단히 심하여졌을 때에 나는 이것을 검토하여보려고 하였다. 즉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지고 끝까지 파고들며 어째서 거기서는 이와 같이 되였는가, 무슨 리유로 이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있는가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모스크바소비조합에서는 통졸임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문에 프랑스공민이 왔던것이다. 나는 그가 이것을 국제정책의 리익을 위하여 련합국지도자들의 량해밑에서 하는지 또는 뿌앵까레나 기타의 쏘베트정권의 원쑤들의 승인을 받고 하는지 알수 없다.(나는 우리 력사가들이 제노아대표자회의후에 이것을 밝혀놓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랑스자산계급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나타나 통졸임을 팔았기때문에 프랑스자산계급이 리론상으로뿐만아니라 실천적으로 이에 참가하고있었다는것은 사실이다. 모스크바는 굶주리고있으며 여름에는 더 심한 기근을 겪게 될것이다. 육류는 실어오지 않았으며 또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우리의 교통인민위원부의 사업능률에 비추어볼 때 아마 앞으로도 실어오지 못할것이다.

육류통졸임(물론 이것은 완전히 썩은것은 아니다. 이 점은 앞으로의 조사가 밝혀줄것이다.)을 쏘베트화폐를 받고 판

다고 한다. 이이상 더 간단한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쏘베트식으로 주밀하게 사고하여본다면 그것은 전혀 간단하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직접 조사할수는 없었으나 조사하도록 조직하였다. 지금 나는 이 유명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였는가를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있다. 그 사건은 2월 11일에 까메네브동지의 보고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식료품을 수입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된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물론 로씨야공민들이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결정할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어떻게 4,700명의 책임일군들(수자는 다만 명부에 의하였을뿐이다.)이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문제를 결정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물론 대단히 비정상적인 생각이다. 까메네브동지는 분명히 우리의 정책과 현실을 잘 알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 다수의 책임일군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지 않고 황소의 뿔을 잡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황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하튼 정치국을 붙잡았던것이다. 그리하여 즉시로(나는 이에 대하여 론의하였다는것을 듣지 못하였다.) 《외국으로부터 식료품을 수입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대외무역인민위원부는 주의를 돌려야 하며 또한 관세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등등의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던것이다. 대외무역인민위원부는 이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이리하여 일은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2월 11일의 일이였다. 내가 지금 생각나는것은 2월말 또는 그 전후에 내가 모스크바에 와있어야 하였는데 오자마자 불평불만, 그것도 모스크바동지들의 절망적인 불평불만을 듣게 된 일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식료품을 전혀 살수가 없다는것이다. 왜 그런가? 대외무역인민위원부가 사업을 지체시키고있기때문이다. 나는 오래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하여 정치국결정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무국에 그것을 조사하고 서류를 입수하여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하였을뿐이였다. 이 사건은 끄라씬이 도착하였을 때에 까메네브가 끄라씬과 면담함으로써 종말을 지었다. 그리하여 문제는 해결되였고 우리는 통졸임을 샀다. 결과가 좋은 일은 어쨌든 좋은 일이다.

까메네브와 끄라씬은 서로 상론하여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요구하는 정치로선을 옳게 확정할줄을 알고있다는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통상문제에서의 정치로선도 까메네브와 끄라씬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쏘베트공화국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매번 거래마다 정치국위원인 까메네브와 끄라씬을 끌어들인다는것은 안될 말이다. 이러한 동지들을—끄라씬은 제노아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외교사무에 분망하고있었는바 긴장하고 한량없는 일을 하여야 하였다.—프랑스공민에게서 통졸임을 구입하기 위하여 끌어들인다는것은 안될 말이다. 그렇게 사업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경제정책도 아니며 지어는 정책이 아니라 순전히 조롱일뿐이다. 지금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서를 가지고있다. 그것도 두통이나 가지고있는데 하나는 인민위원회 사무국장 고르부노브와 부국장 미로쉬니끄브가 조사한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정치보안국에서 조사한것이다. 도대체 국가정치보안국에서는 무엇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는가를 나는 알지 못하며 또 이것이 정당하다고 확신하고있는바도 아니지만 여기에 대하여 이 이상 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조사가 또 필요하게 되지나 않을가 하고 두려워하기때문이다. 다만 중요한것은 자료가 수집되였고 현재 나의 수중에 있다는것이다.

내가 2월말에 모스크바에 왔을 때 기선은 리바브에 서있

었고 통졸임은 잔뜩 실려있었으며 더구나 진짜통졸임을 쏘베트화페와 바꾸겠다고 하였는데 《통졸임을 살수 없다.》는 불평을 듣게 되였으니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웃음소리) 만일 이 통졸임이 완전히 썩은것이 아니라면(나는 지금 《만일》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것은 그때에 내가 제2차의 조사를 명령하게 될는지도 모르겠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대회에서 이야기할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들였다면, 까메네브나 끄라씬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진척될수 없다는것은 어째서인가 묻고싶다. 나의 수중에 있는 조사자료에서 나는 한 책임적인 공산당원이 다른 한 책임적인 공산당원을 못살게 굴고있는것을 본다. 또 나는 이 조사자료에서 한 책임적인 공산당원이 다른 한 책임적인 공산당원에게 《나는 공증인이 없이는 앞으로 당신과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있는것을 본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나는 25년전에 내가 씨비리에 류형살이를 할 때에 변호사노릇을 하게 되였던 일이 상기되였다. 나는 숨어서 하는 변호사였다. 왜냐 하면 나는 그 당시 행정적으로 류형당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여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어떤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군 하였다. 그러나 가장 곤난한것은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리해하는것이였다. 한 아낙네가 찾아와서는 보통 그러한것처럼 자기 친척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였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나는 《등본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녀자는 흰 암소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녀자에게 다시 《등본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한즉 그 녀자는 돌아가면서 《등본이 없이는 흰 암소에 관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만.》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류형객들사이에서 이 등본에 대하여 말하면서 웃음을 금

치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웬간한 개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제는 나한테 올 때에는 사람들은 등본을 가져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때문에 송사를 하며 무엇에 대하여 애타하는가를 조사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25년전 씨비리(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는 수백웨르스따나 된다.)에서 있은 일이였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혁명후 3년이 지난 오늘 쏘베트공화국수도에서 통졸임을 수입하기 위하여 두차례의 조사, 까메네브와 끄라씬의 참여와 정치국의 지령들이 요구되였는가? 대체 무엇이 부족하였는가? 정치적권력인가? 아니다. 돈도 있었다. 이러고본즉 경제적권력도 있고 정치적권력도 있었다. 모든 기관이 구비되여있었다. 무엇이 부족한가? 모스크바소비조합일군들과—나는 그들을 조금도 반대하지 않으며 또 그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고있는바이다.—대외무역인민위원부일군들의 99%에게 문화성이 부족한것이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사업을 처리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이것을 들었을 때에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즉 나의 의견같아서는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여러분이 다 아는바와 같이 그들은 건드릴수 없는것이다.—을 제외하고는 모스크바 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스크바의 최렬등감옥에 6시간 구금하며 대외무역인민위원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36시간 구금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죄인인지 찾아내지 못하게 되였다.(웃음소리) 사실 내가 말한것으로부터 죄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것은 아주 분명하다. 로씨야의 지식인들은 통례로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줄 몰라서 조리가 없고 무질서할뿐이다. 처음에는 분주히 돌아치며 일을 하다가 후에 생각해보고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 때에는 까메네브

에게 달려가서 불평을 늘어놓고 정치국에까지 문제를 들고온다. 물론 국가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정치국에 가져와야 하겠지만—이 점에 관하여서는 더 언급해야 하겠다.—그러나 처음에 잘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 만일 문제를 제출하려거든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제출하기 바란다. 우선 전보를 쳐주기 바란다. 모스크바에는 또 전화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전화를 치고 쮸루빠에게 사본을 보내면서 나는 이 거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지연시킬 경우에는 추궁하겠다고 말하기 바란다. 이러한 초보적인 문화성을 누구나 다 생각해야 할것이며 문제를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문제가 전화로써 1, 2분내에 곧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류를 갖추어놓고 《만일 당신이 사무를 지연시키면 나는 당신을 감옥에 넣을것입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신중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며 아무 준비도 없이 상투적으로 떠들어대고만 있다. 몇개의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피로해서 허덕이고있으며 병들어 있다. 일은 까메네브와 그라쎈이 상론할 때에야만 비로소 추진될수 있는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수도 모스크바에서뿐만아니라 다른 수도들, 즉 모든 독립공화국의 수도들과 개개의 주의 중심도시에서도 볼수 있으며 또한 지방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백배나 더 엄중하게 항상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기억하여야 할것은 공산주의자에게는 신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혁명투쟁에 관하여서나 전 세계 혁명투쟁의 상태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에게 훌륭히 말할것이다. 그러나 극심한 궁핍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신중해야 하고 문화적이여야 하며 질서정연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할줄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책임적인 공산당원들을 착실하게 사업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부당할것이다. 그들중의 절대다수, 99%는 성실할뿐만 아니라 짜리제도가 붕괴되기전 시기에 있어서도 혁명이후에 있어서도 가장 곤난한 조건하에서 혁명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을 증명한, 문자그대로 생명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인것이다. 만일 이런 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국가사업이라도 문화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며 상업이라는것을 리해하여야 하며 만일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할줄을 알아야 하며 사무를 지연시키는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스크바에 무산계급재판소가 있다. 이 재판소는 몇만뿌드의 통졸임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진자들을 심문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무산계급재판소가 능히 처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처벌을 하자면 범죄인을 찾아내여야 하는데 나는 범죄인을 잡아낼수가 없다는것을 여러분에게 단언하는바이다. 여러분중에서 누구나 그 사건을 추궁해보라. 범죄인은 없고 있는것이란 혼잡, 소란, 엉터리짓뿐이다. 아무도 문제를 처리할줄 모르며 국가사업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백위군과 태공분자들은 이것을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한때 태공분자들과 가렬한 투쟁을 진행하였었는데 그 투쟁은 지금도 역시 일정에 올라있다. 태공분자가 있으며 또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것은 물론 옳은것이다. 그러나 과연 내가 이상에 말한것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서 그들과 싸울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떠한 태공보다도 더 유해하다. 태공분자는, 두 공산당원이 어느 시기에 식료품구입을 위한 원칙적지령을 받으러 정치국에 달려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론쟁하는것을 엿보다가 이 틈에 기여드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만일 다소라도 령리한 태공분자가 둘중의 어느 한 공산당원켠에

서거나 또는 그 두 공산당원권에 번갈아서서 그들을 충동한다면 그때는 일은 끝장나게 되는것이다. 일은 영영 망치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는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다. 왜냐 하면 책임적직무를 맡고있는 충실한 혁명가인 두 공산당원은 전혀 쓸데없는것을 론쟁하고있으며 식료품구입을 위한 원칙적지령을 받기 위하여 언제 정치국에 문제를 제기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론쟁하고있을뿐이기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서있으며 여기에 난관이 있다. 자본주의적대기업이라는 학교를 졸업한 점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것은 잘 처리할줄 알고있는데 99%의 책임적인 공산당원들은 그렇게 할줄 모르며 자기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것과 또 초보적지식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예비과에 다시 들어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경제적과업을 결코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내가 들려고 하는 다른 한 례는 돈바쓰이다. 여러분은 그곳이 우리의 전반 경제의 중심이며 진정한 기초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만일 우리가 돈바쓰를 복구하지 않고 마땅히 도달하여야 할 수준에까지 올려세우지 못한다면 로씨야에서의 대공업의 복구나 진정한 사회주의건설은 전혀 운운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대공업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중앙위원회는 이 점에 류의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사소한 문제를 우습고 무리하고 망측하게 정치국에 제기한 일은 없었고 거기서는 진실로 긴급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우리 나라 전반 경제의 실제적 중심이며 기초이며 토대로 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진실로 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석탄공업관리

국》의 수뇌부에는 의심할바없이 헌신적인 사람들뿐만아니라 참으로 학식있고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지어는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불러도 틀림없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위원회의 주의력은 그곳에 쏠리게 되였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공화국이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당관계에 있어서는 종종—어떻게 말하면 더 례절있게 표현할수 있겠는지?—우회적길을 취하고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든지 그들을 파악하여야 하겠다. 왜냐 하면 그곳에는 교활한 사람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앙위원회가 우리를 기만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다소 멀리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문제전체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 중앙위원회에서 연구하였고 마찰과 의견상이가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곳에는 소탄갱운영위원회가 있다. 물론 이 소탄갱운영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관리국》간에는 심한 마찰이 있다. 그러나 우리 중앙위원회는 약간의 경험이 있는바 지도층을 갈지 않고 만일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것일지라도 모두 우리에게 알리도록 일치하게 결정하였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곳에 충실하고도 유능한 인재들을 가지고있으므로 만일 그들이 일을 다 배우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다 배우도록 지지해주어야 할것이기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당대회가 열렸다. 나는 그 대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나 여러가지 일이 있은것은 사실이다. 나는 우크라이나동지들에게 물어보았고 특히 오르죠니끼제동지에게도 물어보았으며 중앙위원회는 그곳에 가서 어면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볼것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확실히 그곳에는 간책과 같은 혼란이 있었고 당사편찬위원회에서 그것을 취급한다면 10년이 걸려도 해명하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실지로는 중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령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의하여 교체되였던것이다. 문제는 어디 있었는가? 이 집단의 일부분은 온갖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있었지만 기본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오유를 범하였던것이다. 그들은 행정적수단을 람용하는데 도취되여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동자들과 관계를 가지고있다. 《로동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은 공장무산계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전쟁이 폭발한 이래 우리의 공장들에는 무산계급이 들어온것이 아니라 전쟁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모두 진정한 무산계급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수 없다. 맑스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맑스는 로씨야에 대하여 쓴것이 아니라 15세기이래의 전반 자본주의에 대하여 쓴것이다. 지난 600년간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정당하였으나 현재의 로씨야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것이다. 공장에 들어가는자들은 흔히 무산계급이 아니라 온갖 우연적인 분자들이다.

사업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일어난 마찰을 제때에 해결하도록 사업을 옳게 조직할줄 아는것 그리고 행정적수단을 정책과 분리시키지 않도록 하는것—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정책과 행정적수단은 전 전위대가 전체 무산계급대중 및 전체 농민대중과 련결되여있는 기초우에서 유지되는것이기때문이다. 만일 누가 이런 작은 바퀴를 망각하고 행정적수단에만 도취한다면 그것은 큰 불행일것이다. 돈바쓰일군들이 범한 오유는 우리의 다른 오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실례이다. 중앙위원회는 《이 집단을 그대로 두어두라, 아무리 사소한 알륵이 있더라도 모두 우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라. 왜냐 하면 돈바쓰는 보통지구가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사회주의건설이 그저 선량한 희망

으로밖에 될수 없는 그러한 지구이기때문이다.》라고 일치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정치적권력과 중앙위원회의 모든 권위도 불충분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물론 이번에는 행정적수단을 람용하는 오유를 범하였다. 이밖에 또 다른 오유들도 많이 있었다.

이 례는 모든 난점이 정치적권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관리능력, 사람을 옳게 배치하는 능력, 국가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충돌이라도 피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데 있다는 실례로 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바로 여기에 오유가 있는것이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혁명을 말하며 혁명의 운명을 가늠할때에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고 또 자본주의로부터의 전 세계사적 전환의 력사에 절대 불가결한것으로서 가입된 혁명의 제과업을 뚜렷이 구별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나라 혁명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물론 멘쉐위크나 제2반국제당의 대표자 오토 바우에르가 《그들의 혁명은 자산계급혁명이다.》라고 고함칠테면 치라고 하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업은 자산계급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라고 말할것이다. 어떤 백파의 출판물이 보도한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기관에는 400년동안의 오물이 쌓여있었는데 우리는 이 오물을 불과 4년동안에 깨끗이 청소하였다.—이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공로이다. 그런데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나 또는 지어 선진적인 개화된 독일에서까지도 중세기적오물을 청소할수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여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공로를 비난하고있다. 혁명사업을 끝까지 수행하는것, 이것은 우리의 불후의 공훈인것이다.

지금 전쟁의 기분이 떠돌고있다. 로동조합들, 례컨대 개

량주의적로동조합들은 반전결의를 채택하고 전쟁을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있다. 만일 내가 잘못 본것이 아니라면 나는 최근에 프랑스의회에서 어떤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반전연설을 하면서 로동자들은 전쟁에 나가는것보다는 폭동을 일으키는편을 취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다. 우리 1912년에 바젤선언[103]이 출판되였을 때처럼 문제를 설정할수는 없다. 오직 로씨야혁명만이 어떻게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올수 있으며 이에는 어떠한 곤난이 있으며 그리고 혁명적방법에 의하여 반동적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를 보여주었다. 반동적인 제국주의전쟁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피할수 없다. 이와 같은 성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였으며 이번에도 또 이와 같이 학살당하리라는것을 인류는 잊을수 없으며 또 잊지 않을것이다. 과연 우리는 20세기에 살고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부에 유리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 정부를 전복하는것으로써, 혁명적방법에 의하여 반동적전쟁으로부터 뛰쳐나온 유일한 인민은 곧 로씨야인민이다. 그리고 로씨야혁명은 로씨야인민을 구출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혁명의 과실은 빼앗을래야 빼앗을수 없는것이다. 세계의 어떠한 힘도 쏘베트국가가 창조한것을 빼앗아갈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빼앗아갈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사적 승리이다. 수백년동안 국가는 자산계급형으로 건립되여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산계급적이 아닌 국가형태가 발견된것이다. 우리의 기관이 졸렬한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발명된 그 증기기관도 나빴다고 한다. 더구나 그것이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못하였는지도 확실하지 못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명되였다는데 있는것이다. 첫 증기기관이 그 형체에 있어서는 유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그러

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에게 증기기관차가 있지 않는가. 우리의 국가기관이 형편없이 나쁘다고 하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창건되였고 최대의 력사적발명이 수행되였으며 무산계급형의 국가가 창건된것이다. 그러므로 전 구라파, 수천가지 자산계급신문들이, 우리 나라는 란잡하고 빈궁하며 근로인민들은 오직 고통만 겪고있다고 선전할테면 선전하라고 하라.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 로동자들은 모두 쏘베트국가에 마음이 쏠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성하였으며 또한 우리에게서 빼앗아낼수 없는 위대한 전취물인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대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다만 문을 열어놓은것을 의미할 뿐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건설하는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이 수행되였는가? 물론 수행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회주의적토대가 없다. 이 토대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큰 오유를 범하고있다. 모든 문제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로씨야혁명의 전 세계사적 공적으로 되는가 하는것과 우리가 무엇을 아주 나쁘게 하고있으며 무엇을 아직 창건하지 못하였으며 또 무엇을 아직도 몇번이고 고쳐야 할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하고 명백하고 랭정하게 구별하는데 있다.

정치적사건이란 언제나 매우 복잡다단한것이다. 그것은 한 련쇄와도 같다. 전 련쇄를 틀어쥐기 위하여서는 기본고리를 틀어잡는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틀어잡고싶은 고리를 인위적으로 선택해서는 안된다. 1917년에는 모든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있었다. 전 인민은 이것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은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있었다. 혁명적로씨야는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올수가 있었다. 큰 노력이 들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인민의 기본적요구는 만족되였으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해동안 승리를 얻게 하였다. 쏘

베트정권이 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며 근로자에게 보다 더 친근한 정권이라는것을 인민들은 감촉하였으며 농민들은 눈으로 보았으며 전선으로부터 돌아온 모든 병사들은 아주 잘 리해하였던것이다. 우리가 다른 령역에서 얼마간 우둔하고 란잡하게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주요한 과업을 념두에 두고있은 이상 그것은 모든것이 정당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1919년과 1920년에 있어서는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군사적반격이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련합국은 우리를 향하여 진공하였으며 우리를 교살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선전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어떤 비당원농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있는가를 다 알고있었다. 지주들이 달려들고있었다. 공산당원들은 그들과 싸울줄을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광범한 농민들은 공산당을 지지하였으며 또 우리는 승리하였던것이다.

1921년에 문제의 중심은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엄격한 규률이 요구되였다. 《로동자반대파》는 《당신들은 로동자를 과소평가한다. 로동자는 보다 큰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창발성은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며 엄격하게 규률을 지키는데서 나타나야 할것이다. 조금이라도 랑패한 기색을 나타내거나 또는 규률을 위반하는자는 혁명을 파멸시키는자일것이다. 왜냐 하면 승리에만 습관되였고 혁명적견해와 리상으로 가득차있으며 퇴각은 어떠한것이든 다 비렬한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퇴각하는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기때문이다. 가장 큰 위험은 질서를 위반하는데 있으며 가장 큰 과업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현재에는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중심은—나는 이 점에 언급함으로써 나의 보고를 총결지으려고 하

는바이다.—방침전환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책에 있는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신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터무니없이 많이 지껄이고있다. 이 모든것을 쓸데없이 지껄이고있다. 이것은 가장 유해한 잡담이다. 신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은 떠들어대며 국가기관을 개조하며 새 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하고있다. 이것은 가장 유해한 잡담이다. 우리는 문제의 초점이 인재에, 인재의 선발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소한 일을 반대하며 문화에 구애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 습관되여있으며 기관을 개조할 대신에 개인의 역할을 내세우는 그러한 혁명가는 이것을 리해하기가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랭정하게 평가해야 할 정세에 처하여있다. 즉 우리는 모든 진지를 유지할수 없으며 또 유지하여서는 안되리만큼 멀리 진출한것이다.

국제적면에서는 이 몇해동안에 우리의 형편이 아주 크게 개선되였다. 우리가 전취한 쏘베트형의 국가는 전 인류를 위한 일보전진이며 국제공산당은 매일과 같이 각국에서 받는 정보에 의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준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하여는 누구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천적사업의 의미에서 볼 때는 만일 공산당원들이 농민대중에게 실제적 방조를 줄수 없다면 농민대중은 공산당원들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형편인것이다. 류의해야 할 중심점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훌륭한 법령을 발포하는 등등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법령이 선전의 형식으로 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볼쉐위크들은 그들의 법령이 집행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모든 백파신문들은 이 점에 대한 조소로 가득차있었다. 그러나 볼쉐위크들이 정권을 잡은후 보통농민과 보통로동자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를 관리하려고 하며 바로 이것이 법령이니 시험

해보라고 말해주던 이 시기는 정당하였다. 우리는 일반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직접 법령의 형태로 알려주었던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인민대중속에서 아주 큰 신임을 얻었으며 또 지금도 얻고있다. 이것은 혁명초기에 필요하던 시기이며 시대였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혁명적파도의 선두에 설수가 없었을것이며 꼬리를 좇아다니게 되였을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기초우에 생활을 건설하려고 하는 전체 로동자, 농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떠한 기관을 조직하라거나 개조하라고 명령한다면 농민과 로동자들은 웃을것이다. 이제는 보통 로동자와 농민도 여기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또 그들이 정당한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은 문제의 중점이 여기에 있지 않기때문이다. 당신들 공산당원은 지금 이러한것을 인민들에게 선전하여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에 앉아있는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사말적인 일에 사로잡혀있지만 틀어잡아야 할 련쇄의 고리는 이것이 아니며 또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재가 적당하게 배치되지 못한데 있으며 모든 혁명을 훌륭히 수행해온 책임적인 공산당원들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공상업부문에 배치되였으며 또 그의 배후에 간상배와 사기군들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까닭에 진상을 들여다보는데 지장을 주는데 있다. 문제는 우리가 집행정황을 실지로 검열하지 않은데 있다. 이것은 무미건조하고 사소한 과업이며 사말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정치적변혁이 있은후 얼마동안은 자본주의적경제요소속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있다. 모든 사태의 중심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책에 있는것이 아니며(신문지상에서 론의되는것은 정치적소음으로서 사회주의적인것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 결정이나 기관이나 재조직에 있는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민을 성가시게 굴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며 실지집행정황을 검열하라. 그러면 인민은 그것을 평가할것이다.

인민대중속에서 우리는 창해일속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인민이 자각하는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때에라야만 관리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공산당은 무산계급을 지도할수 없을것이며 무산계급은 대중을 이끌고 나아갈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모든 기관이 파괴될것이다. 현재 인민과 전체 근로대중은 절망적인 빈궁과 기근으로부터 실제로 구원하며 또 농민에게 필요하고 그의 습관에 알맞는 그와 같은 개선을 실지로 보여주는것만을 자기를 위한 기본적인것으로 보는것이다. 농민은 시장을 알고있으며 상업을 알고있다. 우리는 직접적인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는 공장과 그 설비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업을 통하여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도 자본가들보다 못지않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민은 이러한 관리에 견디여낼수 없는것이다. 여기에 현정세의 모든 중심이 있는것이다. 그리고 만일 돌발사건이 없다면 이것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하에서 1922년의 우리의 전반 사업의 중점으로 되여야 한다.

첫째 조건은 무력간섭이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는 외교활동을 통하여 이것을 피하도록 전력을 다하고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날에나 있을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실지로 경계하여야 하며 또 붉은군대를 위하여 일정하게 큰 희생을 내야 한다. 물론 그 희생의 한도를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앞에는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하여 그 방식만을 찾고있는 전

자산계급세계가 놓여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은 이 자산계급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치적지위이다.

둘째 조건은 재정적위기가 극도로 심각해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이 위기는 박두하고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것을 재정정책문제에 관한 보고에서 듣게 될것이다. 만일 이 위기가 너무나 심하고 엄중할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것을 다시금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며 전력을 이 하나에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만일 위기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 그것은 지어는 유익할수도 있다. 즉 그것은 모든 국영트레스트로부터 공산당원들을 청소할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재정위기는 여러 기관과 기업소들을 뒤흔들어놓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중에서 무용한것들은 제일먼저 파산될것이다. 그런데 책임적인 공산당원들은 아주 훌륭하고 전선에서도 싸웠으며 또한 언제나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것을 전부 전문가들의 죄로 돌려서는 안된다는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만일 재정위기가 극도로 엄중하지 않다면 거기에서 리익을 얻을수 있을것이며 또한 중앙검열위원회나 중앙통제위원회174에서 하는것처럼 그렇게 청소하는것이 아니라 경제기관의 모든 책임적인 공산당원들을 참답게 청소할것이다.

셋째 조건은 이 기간에 정치적과오를 범하지 않는것이다. 물론 만일 우리가 정치적과오를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경제건설이 좌절당하게 될것이며 오유의 시정과 방향결정에 관한 론쟁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불쾌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문제의 중점은 법령이나 좁은 의미에서의 정책이나 기관이나 그 조직에 있는것이 아니라 책임적인 공산당원들과 쏘베트기관들

은 필요한 정도에서만 이 문제에 관여할것이다.—모든 사업의 중점은 인재의 선발과 집행정황의 검열에 있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실지로 배우며 실제적효과를 얻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모든 곤난을 극복하게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의 쏘베트최고기관 및 그것과 당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 실천적측면에 언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쏘베트기관사이에 옳지 못한 관계가 조성되였으며 또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다. 한가지 실례로써 나는 구체적이며 사소한 일을 어떻게 정치국에 옮겨가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형식적으로 벗어져나온다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한 집권당이 국가를 관리하고있으며 따라서 당원이 신소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인민위원회에서 정치국으로 가지고 온다. 이 점에 대하여는 나에게도 역시 큰 책임이 있다. 왜냐 하면 인민위원회와 정치국간의 련계에 있어서 많은것은 직접 나를 통하여 유지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내가 일에서 떠나지 않을수 없게 되자 이 두바퀴가 즉시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였으며 이 련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까메네브가 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다.

기본적지령들에 대하여 몇마디 더 하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완전한 의견일치가 있은것이며 나는 대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큰 주의를 돌리기를 바라며 또한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사말적인 일로부터 해방시키고 책임일군들의 사업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령들을 확인하기를 바라는바이다. 인민위원들은 자기 사업의 책임을 져야 하며 처음에 인민위원회에 문제를 가져가고 그후에 정치국에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형식상으로 우리는

중앙위원회에 신소하는 권리를 철폐할수 없다. 그것은 우리 당이 유일한 집권당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에 대한 모든 요구는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민위원회의 위신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인민위원회사업에는 부인민위원들이 아니라 인민위원들이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민위원회의 사업성격을 작년에 내가 하려다가 하지 못한 그 방향으로, 즉 집행정황을 검열하는데 더욱 큰 주의를 돌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위원회와 로동국방위원회112의 여러 위원들이 축소되며 그것들이 무수한 위원회에 정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자기의 맡은 사업을 알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최근에 위원회들을 청소하였다. 12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다. 그런데 필요한것이 얼마나 되였던가? 16개밖에 안되였다. 그리고 이것은 첫 청소가 아닌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인민위원회에 결정서를 바치지 않으며 여기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 위원회뒤에 몸을 숨기고있다. 각 위원회에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수 없게 혼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아무도 전혀 모르고있으며 모든것이 혼돈되여있으며 결국 전부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결정을 채택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경제위원회의 자치권과 활동력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현재 로씨야를 과학적기초우에서 경제적 제 조건, 기후, 생활, 연료획득 및 지방공업 등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으로 분할하고 있다. 이 분할에 기초하여 구 및 주 경제위원회가 설립되였다. 물론 부분적인 수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경제위원회들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

그다음 우리는 전로중앙집행위원회가 더 정력적으로 사업

하며 더 규칙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기간이 더 길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이 회의는 법령초안을 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법령초안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인민위원회에 갑자기 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것은 미루어놓고 지방일군들에게 심중히 연구할 기회를 주며 법령기초자들에게 더 심중하게 취급할것을 요구하는편이 더 좋을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것을 실시하지 못하고있다.

만일 전로중앙집행위원회회의가 더 길게 된다면 그것은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뉘여져 사업을 더욱 엄격히 검토할수 있을것이며 그리하여 나의 견해에 의하면 현 정치정세하에서의 모든 중심과 본질로 되여있는 인재선발과 실지사업집행정황의 검열에 중점을 옮기도록 노력할수 있을것이다.

책임적인 공산당원들가운데서 99%가 현재 그들에게 적당한 자리에 배치되여있지 못하며 자기의 사업을 수행할줄 모르며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달성할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것만큼—일반적국제정세에 비추어보건대 우리에게는 잘 배울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1922년 모스크바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출판부에서 출판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 속기록》에 수록

소책자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30～273페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 대회[169] 폐회사

(1922년 4월 2일)

동지들! 우리는 우리 대회사업을 종결짓게 되였다.

이번 대회를 전번 대회와 비교하여볼 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보다 단결되고 보다 일치하며 보다 조직적으로 통일되였다는 점이다.

전번 대회의 반대파들가운데서 극소부분만이 지금도 당으로부터 리탈되여있다.

직업동맹과 신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 당내에 의견상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혹은 현저한 의견상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대회에서 《새로이》 획득한 근본적이며 주요한 것은 우리 당이 로쇠하여가고있으며 두뇌의 신축성과 전 유기체의 신축성을 상실하고있다는것을 부단히 되풀이하여왔으며 지금도 되풀이하고있는 우리 적들의 부당성을 생생하게 증명한데 있다.

아니다! 이러한 신축성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았다.

로씨야와 전 세계의 모든 객관정세로 보아 전진하여야 하며 헌신적용감성과 민첩성과 결단성을 가지고 적을 공격하여야 하였던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이 공격하였다. 필요한 때에는 우리는 몇번이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이로써 우리의 혁명을 세계에서 일찌기 보지 못한 높은 수준에까지 올려세웠다. 세계의 어떠한 힘이든 그것이 수백수천만사람들에게 아무리 재액과 불행과 고난을 줄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혁명의 기본적전취물들을 빼앗을수는 없을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벌써 《우리의》 전취물인것이 아니라 전 세계사적인 전취물이기때문이다.

그러나 1921년 봄에 이르러 우리의 혁명의 선진부대가 반드시 능숙하게 앞으로 이끌고나가야 할 그 인민대중 및 농민대중과 유리될 위험성이 보이자 우리는 한결같이 단호히 퇴각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1년동안에 대체로 혁명적질서를 가지고 퇴각하였다.

세계의 모든 선진적나라들에서 성숙되고있는 무산계급혁명은 헌신적으로 싸우며 공격할줄 아는 수완과 혁명적질서를 가지고 퇴각할줄 아는 수완과를 결합시킴이 없이는 자기의 과업을 해결할수 없을것이다. 우리 나라 혁명의 제1기의 경험, 즉 용감한 헌신적공격의 경험이 모든 나라 로동자들에게 의심할바없이 유익한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투쟁의 제2기의 경험, 즉 퇴각의 경험도 장차 적어도 몇개 나라의 로동자들에게도 또한 확실히 유익한것으로 될것이다.

이제 우리는 퇴각이 끝났다는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정책의 모든 과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선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문제의 요점은 전위대가 자체교양을 하며 자기자신을 개조하며 자기의 불충분한 준비정도와 불충분한 수완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있다. 문제의 요점은 지금 비할데없이 더 광범한 대중, 즉 다름아닌 농민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배우고있으며 또 배울것이라는것을 사실과 실천과 경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전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과업은 현 국제정세와 로씨야의 생산력의 현상태하에서는 다만 그것을 극히 서서히 신중하게 실무적으로 해결하며 자기의 매 걸음을 수천번씩 실지로 검열함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다.

만일 우리 당내에 이러한 극히 점진적이며 극히 신중한 운동을 반대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면 그 소리는 고독한 소리로 될것이다.

전당은, 현순간에 있어서 자기의 사업을 바로 이렇게, 오직 이렇게만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리해하였으며 또 이렇게 리해하였다는것을 이제는 실지사업을 통하여 증명할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것을 리해하였으니만큼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것이다!

로씨야공산당 제11차대회의 페회를 선언한다.

1922년 모스크바 로씨야공산당 중앙위원회 출판부에서 출판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 속기록》에 수록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88~290페지

로씨야혁명의 5년과 세계혁명의 전망

(국제공산당 제4차대회175에서 한 보고 1922년 11월 13일)

(레닌동지가 나타나자 온 장내는 오래동안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성으로 들끓는다. 모두 기립하여 《국제가》를 부른다.) 동지들! 나는 주요한 보고자로서 연설자명단에 들어있지만 오래동안 앓고난 뒤이므로 긴 보고를 할수 없다는것을 당신들은 리해하여줄것이다. 나는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 서론만을 내놓을수 있다. 나의 론제는 대단히 국한된것으로 될것이다. 《로씨야혁명의 5년과 세계혁명의 전망》이라는 제목은 한 연설자가 한번 연설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론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하고 큰 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 제목의 작은 한부분, 즉 《신경제정책》에 관한 문제만을 취급하려고 한다. 나는 현재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지금 연구하고있기때문에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것으로 되여있는 이 문제를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이 작은 부분만을 취급하는바이다.

이리하여 나는 우리가 어떻게 신경제정책을 시작하였으며 또 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를 말하려고 한다. 만일 내가 이 문제에만 국한하여 말한다면 나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개관을 할수 있을것이고

당신들에게 일반적개념을 줄수 있을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으로부터 론하기 시작한다면 1918년에 내가 집필한 론문①에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1918년초에 나는 바로 간단한 론쟁에서 우리가 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언급하였다. 나는 그때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자본주의는 우리 쏘베트공화국의 현상태에 비하여서는(즉 그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서는) **1보전진**일것이다. 가령 약 반년후에 국가자본주의가 우리 나라에 확립된다면 이것은 거대한 성공일것이며 1년후에 사회주의가 우리 나라에서 결정적으로 공고화되여 불패의것으로 될 가장 믿음직한 담보일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현재보다는 더 우둔하였을 때 말한것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구명할수 없으리만큼 우둔한것은 아니였다.

이와 같이 나는 1918년에 국가자본주의는 그 당시의 쏘베트공화국의 경제형편에 비하여 1보전진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하게 또 지어는 리치에 맞지 않는것으로 들릴수도 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공화국은 벌써 사회주의공화국이였기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매일과 같이 아주 급급히—아마도 너무 급급히—사회주의적방책이라고밖에 부를수 없는 각종의 새로운 경제적방책을 취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도 역시 국가자본주의가 그 당시의 쏘베트공화국의 경제형편에 비하여 1보전진으로 된다고 보았으며 또 로씨야경제제도의 제 요소들을 간단히 렬거함으로써 이 사상을

① 《〈좌익적〉유치성과 소자산계급성에 대하여》를 두고 말한다.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530～559페지를 보라. —편집자

더 명확히 하였다. 이 요소들은 나의 의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것들이였다. 《(1) 부가장제적인, 즉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 (2) 소상품생산(여기에는 곡물을 매매하는 대다수 농민도 포함된다.), (3) 사적자본주의, (4) 국가자본주의, (5) 사회주의.》 이 모든 경제적요소들이 그 당시의 로씨야에 존재하였다. 나는 그때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가, 그리고 비사회주의적요소중의 하나인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보다 높이 평가하여서는 안되는가 하는것을 해명할 과업을 내세웠다. 거듭 말하는바이지만 자기 나라를 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있는 나라에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사회주의보다 높이 평가하며 보다 우월한것으로 인정한다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대단히 이상하게 보일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우리는 결코 로씨야의 경제제도를 어떤 단일적인, 고도로 발전된것으로 본것이 아니라 로씨야에는 부가장제적농업, 즉 가장 원시적인 농업형태와 사회주의적형태가 병존한다는것을 완전히 의식하고있었다는것을 상기한다면 문제는 해명될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어떠한 역할을 놀수 있는가?

나는 더 나아가 이 요소들중 어떤것이 우세를 차지하는가 하고 자문하였다. 소자산계급적환경에서는 소자산계급적요소가 지배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나는 그때 소자산계급적요소가 우세하다는것을 깨달았으며 이와 다르게는 생각할수 없었다. 내가 그때 자기에게 제기한 문제—그것은 지금의 이 문제와는 관계없는 특별한 론쟁에서였다.—는 우리가 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국가자본주의가 비록 그것이 사회주의적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로씨야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형태보다 더 좋은 형태일것이라고 자답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비록 사회혁명을 이미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사회주의경제의 맹아나 기초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에 벌써 만일 우리가 먼저 국가자본주의에 도달하고 그후에 사회주의에 도달한다면 더 좋으리라는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있었던것이다.

내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게 되는것은 오직 이로부터 출발함으로써만 첫째로, 현 경제정책이 어떠한것인가를 설명할수 있으며 둘째로, 이로부터 국제공산당에 대하여서도 아주 중요한 실제적결론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미 이전부터 준비된 퇴각계획이 있었다고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것은 없었다. 이 짧은 론쟁적구절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 결코 퇴각의 계획은 아니였던것이다. 거기에는 한개의 대단히 중요한 점 례를 들면 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의를 가지고있는 상업의 자유에 관한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러나 퇴각에 대한 일반적인 막연한 관념은 이로써 이미 주어져있었던것이다. 나는 그 경제체계로 보아 과거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히 락후한 그러한 나라의 견지에서뿐만아니라 국제공산당과 서구라파선진국가들의 견지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례컨대 우리는 지금 강령을 작성하고있다. 나로서는 우리가 지금 강령전체를 다만 일반적으로만, 말하자면 처음으로 통독하는 정도에서만 토의하고 그것을 인쇄에 붙이도록 하겠지만 최종적결정은 지금, 즉 금년에는 하지 말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하건대는 우선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의 거의 전부가 그 강령을 충분히 숙고하였다고는 볼수 없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퇴각의 가능성과 이 퇴각을 보장할데 관한 제 문제를 거의 전혀 숙고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

의를 전복하고 막대한 곤난을 겪으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그러한 근본적변화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에로 넘어가며 이 공격에서 승리하는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것인가를 아는것만으로써는 안된다. 혁명시기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다지 곤난한것이 아니며 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며 적어도 가장 결정적인것은 아니다. 혁명시기에는 적이 정신을 잃는 때가 흔히 있는바 우리가 그때에 적을 공격한다면 쉽게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적이 만일 충분한 인내성을 가지고있다면 미리 력량을 집결하는 등등의 일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때에 적은 용이하게 우리를 공격에로 도발하고 그다음 다년간 우리를 후퇴시킬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나는 퇴각이 있을 경우에 대처하여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것도 다만 리론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실천적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까운 장래에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모든 당들은 어떻게 퇴각을 보장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나라 혁명의 경험중에서 다른 모든 교훈과 함께 이 교훈을 섭취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독도 가져오지 않을뿐만아니라 많은 경우에 리익을 가져올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상에서 나는 우리가 이미 1918년에 국가자본주의를 가능한 퇴각로선으로 보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제 나는 우리의 신경제정책의 결과에로 넘어가려고 한다. 나는 거듭 말하는바이지만 그때에 이것은 아직 대단히 모호한 사상이였다. 그러나 우리가 국내전쟁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지나온후 그리

고 승리적으로 지나온후 1921년에 와서 우리는 농민의 상당한 부분뿐만아니라 로동자들까지도 불만을 품게 한, 쏘베트로씨야의 거대한—내 생각에는 가장 거대한—내부적인 정치적위기에 부닥쳤던것이다. 이것은 쏘베트로씨야의 력사에서 광범한 농민대중이 의식적이 아니라 본능적이였지만 우리에게 반대기분을 가졌던 첫 기회였고 또 우리가 마지막이였으면 하던 기회였다. 독특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대단히 불쾌한 이런 상태는 무엇때문에 일어나게 되였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자기의 경제적진격에 있어서 너무 멀리 전진하였다는것, 우리가 자기에게 충분한 기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것, 그때에는 우리가 아직 의식적으로 정식화할수 없었지만 그러나 몇주일후에는 우리도 인차 인정하게 된것, 즉 순 사회주의적경제형태와 순 사회주의적분배에로의 직접적이행은 우리의 힘에 넘치는것이며 또 우리가 만일 보다 용이한 과업에 국한하기 위해서 퇴각을 할수 없다면 우리는 파멸될 위협이 있다는것을 대중이 느끼고있었다는데 있었던것이다. 나는 위기는 1921년 2월부터 시작되였다고 생각한다. 벌써 그해 봄에 우리는 신경제정책에로 넘어갈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들사이에 큰 의견상이가 없었다고 본다. 1년 반이 흘러간 지금, 1922년말에 와서 우리는 이미 약간의 비교를 할수 있게 되였다. 대체 무엇이 발생하였는가? 이 1년 반이상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 퇴각은 우리에게 리익을 가져왔는가,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직도 분명치 않은가? 이것은 내가 나자신에게 내세우는 주요한 문제이며 또 나는 이 주요한 문제가 모든 공산당들에 대하여서도 제일차적인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만일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죄다 파멸당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량심의 가책 없이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나간 1년 반은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것을 긍정적이며 절대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이제 이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모든 구성부분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여야 하겠다.

우선 우리의 금융체계와 유명한 로씨야루블에 언급하려고 한다. 나는 로씨야루블의 류통량이 현재 1,000조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이 루블이 유명하다고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다.(웃음소리) 이것은 이미 대단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천문학적수자이다.(웃음소리) 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이 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학적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수자를 그다지 중대한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 하면 령은 언제나 지워버릴수 있기때문이다.(웃음소리) 우리는 경제적관점에서 보아도 역시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이 기술에 있어서 이미 그 무엇을 달성하였는바 또 나는 금후에 사물의 행정에서도 이 기술에 있어서 더욱 많은것을 달성하리라고 믿는다. 참으로 중요한것은 루블을 안정시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있으며 우리의 우수한 간부들은 이 문제를 연구하고있다. 우리는 이 과업이 결정적의의가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장기간 그리고 다음에는 영구히 루블을 안정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때에는 이 모든 천문학적수자—이 모든 조, 천조—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견고한 지반우에 세울수 있으며 또한 견고한 지반우에서 더욱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당신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결정적인 사실들을 인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1921년

에 루블지폐시세의 안정기는 3개월도 되지 못하였다. 금년, 즉 1922년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안정기는 이미 5개월이상이나 계속되였다. 나는 이것으로써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장차 이 과업을 완전히 해결할수 있다는 과학적증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증명한다는것은 내 생각에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에서 인증한 자료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경제정책을 개시한 지난해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이미 전진하는것을 배웠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어떤 특히 어리석은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 면에서 이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것을 배우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은 상업, 즉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류통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전쟁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왜냐 하면 다 알다싶이 울라지워스또크는 몇주일전에 탈환되였기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들의 경제적활동을 지금에야 비로소 완전히 계통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할수 있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에 상업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만일 우리가 어쨌든 루블지폐의 안정기를 3개월로부터 5개월까지 연장시키는데 성공하였다면 우리가 이것으로써 만족할수 있다는것을 감히 말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립무원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어떠한 차관도 받은 일이 없으며 또 지금도 받지 않고있다. 어디로 가는지 현재까지도 모르고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자본주의경제를 조직하고있는 자본주의렬강들중 어느 한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베르싸이유강화조약에 의하여 그들자신도 알수 없는 그러한 금융체계를 만들어놓았다. 이 자본주의대국가들이 이렇게 하고있다면 나는 락후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 우리로서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

을 달성하였다는것, 즉 루블안정화의 조건을 포착하였다는것으로써 만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 어떠한 리론적분석으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써 증명되는것인바 나는 이 실천이 이 세상의 어떠한 리론적론쟁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적성과를 달성하였다는것, 즉 상업과 자유로운 상품류통에 대하여, 농민과 수많은 소생산자대중에게 대하여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 루블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추진시키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증시하고있다.

이제는 우리의 사회적목표에로 넘어가려 한다. 가장 주요한것은 물론 농민이다. 1921년에 우리는 두말할것없이 대부분 농민들의 불만에 직면하고있었다. 뒤이어 우리는 기근을 겪었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그때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자, 보라. 이것이 사회주의경제의 결과이다.》라고 웨친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사실에 있어서 이 기근이 국내전쟁의 무서운 결과라는데 대하여 그들은 침묵을 지켰는데 물론 이것도 아주 당연한 일이다. 1918년에 우리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한 모든 지주와 자본가들은 기근이 마치 사회주의적경제의 결과인듯이 사태를 묘사하였다. 기근은 실로 크나큰 엄중한 불행이였으며 우리의 모든 조직사업과 혁명사업을 파멸시킬 위험성이 있는 불행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예기하지 않았던 미증유의 재난이 있은후,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였고 농민에게 상업의 자유를 허용한후인 지금에 와서 사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며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즉 농민은 1년동안에 기근을 극복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가 지금 벌써 거의 아무런 강제수단을 쓰지 않고서도 수억뿌드의 곡물을 손에 넣을수 있도록 대량의 현물세를 바쳤다. 이전에,

1921년까지는 이를테면 로씨야의 일반적현상이던 농민폭동이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현상태에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단언할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어떠한 통계적증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민이 우리 나라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농민은 현재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반대운동이 있을가봐 우려할 필요가 없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아무 과장 없이 말하는바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달성하였다. 농민들은 우리 정권의 어떤 면의 사업에 대하여 미흡하게 생각할수도 있으며 원망할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국영경제는 이것을 예방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망태기여서 이것을 방지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 대한 전체 농민의 그 어떤 커다란 불만도 완전히 제거되였다. 이것은 1년동안에 달성되였다. 이것은 벌써 대단히 큰 성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 경공업으로 넘어가련다. 우리는 바로 공업에 있어서 중공업과 경공업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량자가 각각 상이한 처지에 놓여있기때문이다. 경공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전반적앙양을 볼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나는 상세히 언급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통계적자료들을 인용하는것은 나의 과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인상은 사실들에 기초하고있는것이며 그 기초에는 어떠한 믿을수 없거나 부정확한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담보할수 있다. 우리는 경공업에서 전반적앙양을 가져왔고 따라서 뻬뜨로그라드 및 모스크바 로동자들의 형편이 일정하게 개선되였음을 지적할수 있다. 다른 지방들에서는 좀 못하다. 그것은 이 지방들에서는 중공업이 우세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반화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경공업은 두말할것없이 앙양되고있으며 또 뻬뜨로그라드 및 모스크바 로동자들의 형편이 개선된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1921년 봄에는 이 두 도시의 로동자들이 불만이 있었다.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로동자들의 형편과 기분을 살피고있기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오유가 있을수 없다.

셋째 문제는 중공업에 대한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태가 아직도 의연히 곤난하다는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수 없다. 1921～1922년에 이 면에서 일정한 전변이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이 상태가 개선되리라는것을 기대할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모아놓았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중공업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수억의 차관이 요구되며 이것이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것이다.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사가 증시하는바와 같이 락후한 나라들에서는 수억의 딸라나 또는 금루블의 장기차관만이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자금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차관이 없었으며 우리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차관도 받지 않았다. 현재 말하고있는 리권 등등은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최근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으며 특히 어커트리권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리권정책은 나에게는 대단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리익이 있는 리권을 못가지고있다. 나는 이것을 잊지 말것을 부탁하는바이다. 이리하여 중공업의 상태는 우리 락후한 나라에 있어서는 실로 대단히 곤난한 문제로 되여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부유한 나라들의 차관을 기대할수 없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현저한 개선을 보았으며 또 우리의 상업활동이 이미 우리에게 약간의 자본을 마련해주었다는것을 보고있다. 사실상 그것은 아직까지

는 대단히 적은것으로서 2,000만금루블을 약간 초과할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기초는 닦아진것이다. 즉 우리의 상업은 우리가 중공업을 증대시키는데 쓸수 있는 자금을 우리에게 주고있는것이다. 현재 우리의 중공업은 어쨌든 아직도 대단히 곤난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미 얼마간 저축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금후에도 저축을 계속할것이다. 비록 이것이 종종 주민들의 부담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지금 어쨌든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국가예산을 축감하며 우리의 국가기관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있는것이다. 나는 아래에 우리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몇마디 더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국가기관을 축소해야 하며 가급적으로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심지어 학교에서까지도 절약하고있다.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는 중공업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부흥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공업도 건설할수 없으며 또 공업이 없이는 우리는 대체로 망해버리게 될것이며 독립국가로 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로씨야를 구원함에 있어서 단지 농업에서의 풍작만으로써는 부족하며 또한 농민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경공업의 형편이 좋은것만으로써도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중공업도 필요하다. 그런데 중공업의 상태를 좋게 하는데는 다년간의 사업이 필요한것이다.

중공업은 국가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국가는커녕 문명국가로도 되지 못하고 망해버릴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면에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는 중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였다. 하긴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액수는 2,000

만금루블을 겨우 초과하는 정도이지만 어쨌든 이 금액은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은 오직 우리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만 충당될것이다.

나는 약속한대로 당신들에게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가장 주요한 요소들을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생각하며 또 이 모든것으로부터 신경제정책이 지금 벌써 성과를 달성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벌써 우리는 우리의 국가가 상업을 운영할수 있으며 농업과 공업에서 견고한 지위를 확보할수 있으며 앞으로 전진할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실천활동이 증명하여주었다.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배울것이 많으며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우리는 5년동안 정권을 유지하여왔으며 그것도 또 이 5년이란 기간에 줄곧 전쟁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였기때문이다. 농민들보다 우리를 더 지지한다는것은 힘든것이다. 농민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지주들이 백파들의 후원으로 되여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농민들은 모든 열성을 다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우리를 지지하였다. 농민들로 하여금 백파를 반대하고 우리를 옹호하게 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이전에는 전쟁을 증오하였던 농민들이 백파를 반대하는 전쟁을 위하여, 지주를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것을 다 바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였다. 왜냐 하면 본질상 여기서 문제로 된것은 다만 정권이 지주의 수중에 보존되느냐 아니면 농민의 수중에 보존되느냐 하는것뿐이였기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농민들은 우리

가 로동자들을 위하여 정권을 전취하였으며 이 정권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 목적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경제적준비를 잘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준비할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회적으로 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가 우리 나라에 수립한 국가자본주의는 독특한 국가자본주의이다. 그것은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보통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으며 토지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국유로 되여있다. 우리의 적들이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것 같이 여기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은 옳지 않다. 토지가 국유로 되여있다는것은 대단히 중요한것이며 또 경제적면에 있어서도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달성하였다. 나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활동도 오직 이 범위내에서만 진행되여야 한다고 말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벌써 우리 나라 농민들을 만족시키고 공업과 상업을 활기를 띠게 하였다. 우리 무산계급국가의 수중에 토지뿐만아니라 공업의 모든 중요부분도 장악되여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가자본주의는 문자그대로 해석한 국가자본주의와 다르다는것을 나는 이미 말하였다. 우선 우리는 일부 중소공업을 임대하였지만 나머지 전부는 우리 수중에 있다. 상업에 관해서는 나는 우리가 합영회사, 즉 자본의 일부분은 개인자본가에게 그것도 외국자본가에게 속하며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 속하는 그러한 회사를 창설하려고 노력하고있으며 또 이미 창설하고있다는것을 다시 강조하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도로써 장사하는것을 배우고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러한 회사를 언제든지 해산해버릴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말하자면 아무런 모

험도 하지 않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개인자본가에게서 배우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에 도달할수 있으며 어떠한 오유를 범하는가를 잘 주시하고있다. 나는 이 점에 대하여 이 만큼 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몇개의 사소한 점에 대하여 더 언급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둔한 일을 많이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 점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판단하며 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이다.(웃음소리) 어째서 우리는 우둔한 일을 하는가? 이것은 명백하다. 즉 첫째로, 우리 나라는 락후한 나라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교육은 최저수준에 있으며 셋째로, 우리는 원조를 받지 못하기때문이다. 그 어떤 문명국가도 우리를 원조하여주지 않고있다. 오히려 그들은 죄다 우리를 반대하고있다. 넷째로는 우리 국가기관의 실착이다. 우리는 낡은 국가기관을 탈취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였다. 국가기관은 아주 빈번히 우리를 반대하여 활동하고있다. 례컨대 1917년에, 즉 우리가 주권을 잡은 후에 국가기관은 우리에 대하여 태업하는 형편이였다. 우리는 그때 대단히 당황하였으며 《제발 우리에게로 돌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다 돌아왔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불행이였다. 이제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무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을 실지로 관리할수 있도록 충분히 양성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국가주권을 잡고있는 이곳 상부에서는 국가기관이 이럭저럭 기능을 발휘하고있으나 하부에서는 그들이 제멋대로 관리하고있으며 그것도 늘쌍 우리의 시책을 반대하게끔 관리하고있다.—이런 일이 실지로 아주 흔히 일어나고있다. 상부에는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천명, 많아서 수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하부에는 짜리와 자산계급사회로부터 넘겨받

은 낡은 관리들이 수십만명이 있다. 그들은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반대하고있다. 이 면에 있어서는 단기간에는 어찌할수가 없는것이다. 이것은 아무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구를 개선하고 그것을 재편성하며 새로운 력량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사업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상당히 빠르게 하고있으며 아마 지나치다고 할수 있으리만큼 빠른 속도로 하고있는것이다. 쏘베트학교와 로농학부들이 창설되였고 수십만 청년들이 배우고있는데 아마 너무 빠르게 배우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여하간 사업은 개시된것이며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을 너무 성급히 하지만 않는다면 수년후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관을 근본적으로 개변할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게 될것이다.

나는 우리가 우둔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적들에 대하여서도 약간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보고 레닌자신도 볼쉐위크들이 우둔한 일을 많이 하였다는것을 인정하고있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들의 우둔한짓은 당신들의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것이라는것을 아는가라고. 우리는 방금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배우고있으므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확신하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적들인 자본가와 제2국제당의 영웅들이 우리가 범한 우둔한짓을 강조한다면 나는 피차간 비교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로씨야의 유명한 한 작가의 말을 들려고 한다. 이 말은 내가 약간 고쳐서 다음과 같이 되였다. 즉 만일 볼쉐위크들이 우둔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볼쉐위크가 《둘에 둘을 승하면 다섯이 된다.》고 말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볼쉐위크의 적들, 즉

자본가와 제2국제당의 영웅들이 우둔한 일을 할 때에는 그들이 《둘에 둘을 승하면 스테아린 양초로 된다.》176라고 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례컨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과 꼴챠크간에 체결된 조약을 들어보자. 나는 당신들께 묻노니, 세계에서 이들보다 더 개화되고 더 강대한 국가들이 있는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그들은 타산도 고려도 고찰도 없이 꼴챠크를 원조할것을 약속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 같아서는,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리해하기조차 어려운 참패인것이다.

또 더 가깝고 더 중대한 다른 례로써 베르싸이유강화를 들어보자. 나는 당신들에게 묻노니, 여기에서 《위대하고》《영광에 찬》 렬강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이 엉망진창이 된 혼란상태에서 출로를 찾을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우둔한짓을 자본주의국가들, 자본주의세계 및 제2국제당이 함께 하고있는 그런 우둔한짓과 비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내가 거듭 말한다 하여도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혁명의 전망—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간단히 언급하여야 할것이다.—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그 전망이 더욱 좋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조건들에 대하여 나는 몇마디 말하려고 한다.

1921년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150에서 우리는 공산당들의 조직적구성과 그 사업방법 및 내용에 관한 하나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결의문은 훌륭한것이지만 그러나 거의 전부가 로씨야적인것이다. 즉 모든것이 로씨야의 제 조건에 의하여 씌여진것이다. 여기에 그의 좋은 면도 있으나 또한 나쁜 면도 있다. 나쁘다는것은 어느 한사람의 외국사람 치고는 그것을 다 읽어낼 사람이 거의 한사람도 없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기때문

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기전에 이 결의문을 다시한번 읽어보았다. 첫째로, 그것은 너무 길다. 그안에는 50여개의 조항이 들어있다. 이와 같은것을 외국사람들은 보통 다 읽어낼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설사 그것을 다 읽어낸다 하더라도 외국사람들로서는 아무도 그것을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그 리유는 그것이 너무도 로씨야적이기때문이다. 그것이 로씨야어로 씌여져있기때문인것이 아니라—그것은 모든 외국어로 훌륭히 번역되였다.—그것이 로씨야적정신으로 관통되여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 설사 례외로서 어떤 외국사람이 그것을 리해한다 하여도 그는 그것을 실천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이 그 셋째 결점이다. 나는 여기 대회에 참석한 몇몇 대표들과 담화를 하였다. 앞으로의 대회행정에서도 나자신은 비록 대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지만—유감스럽게 나는 참석할수가 없다.—각국의 다수 대표들과 상세히 담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우리가 이 결의문에서 큰 오유를 범하였다는 인상, 즉 우리가 자기자신의 앞으로의 성공의 길을 가로막아놓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결의문은 훌륭하게 작성되였으며 나는 이 50여개 조항에 죄다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로씨야의 경험을 어떻게 외국사람들에게 소개하여야 하는가를 리해하지 못하였다. 결의문에 서술된 모든것은 지상공론으로 되여버렸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전진할수 없을것이다. 로씨야동지들이거나 외국동지들이거나를 막론하고 우리전체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로씨야혁명이 있은후 5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겠다는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에야 비로소 배울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이 기회가 얼마나 오래동안 계속되겠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자본주의렬강이 우리에게 편안히 학습할 기회를 얼마나 오래동안 주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군사적활동과 전쟁의 여가의 매 시각을 우리는 배우기 위하여 더우기 처음부터 배우기 위하여 리용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전당과 로씨야의 모든 계층은 지식에 대한 그의 갈망으로써 이것을 증시하고있다. 배우겠다는 이 지향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과업이 곧 배우고 또 배우는것임을 증시하여준다. 그런데 외국동지들도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것처럼, 즉 읽고 쓰며 또 읽은것을 리해하는것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하다.—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역시 배워야 할것이다. 그런데 배운다는것은 무산계급문화에 대한것인가 또는 자산계급문화에 대한것인가 하는 론쟁들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두겠다. 여하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읽고 쓰며 또 읽은것을 리해할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불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이미 보다 높은것이 요구되는것이다. 즉 그들은 우선 우리가 공산당들의 조직적구성에 관하여 쓴것, 그리고 외국동지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리해하지도 못하면서 서명한 그것을 역시 리해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첫째 과업으로 되여야 한다. 이 결의문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밤사이에는 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결의문이 너무나 로씨야적이다. 그것은 로씨야의 경험을 반영하고있기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리해되지 못하는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결의문을 성상과 같이 한구석에 걸어두고 그것에 기도하는것으로써는 만족할수 없는것이다. 그런 방법으로써는 아무것도 성취할수 없다. 그들은 로씨야의 경험을 일부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겠는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례컨대 이딸리아의 파쑈분자들은 이딸리아사람들이 아직도 충

분히 개화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나라에 아직도 흑백단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되여있지 않다는것을 이딸리아사람들에게 증시하여줌으로써 아마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것이다. 이것은 아마 대단히 유익할수 있을것이다. 우리 로씨야사람들도 또한 외국인들에게 이 결의문의 원리를 해설하여주는 방법을 탐구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결의문을 절대로 실천할수 없을것이다. 나는 확신하건대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로씨야동지들에게뿐만아니라 외국동지들에게도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것은 배우는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의미에서 배우고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혁명사업의 조직, 구성, 방법 및 내용을 실지로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한 의미에서 배워야 할것이다. 만일 이것이 수행된다면 그때에는 세계혁명의 전망은 좋을뿐만아니라 아주 훌륭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오래동안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 《우리의 레닌동지 만세!》 하는 환호소리가 울리자 다시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일어난다.)

1922년 11월 15일 《프라우다》 제258호에 게재

1922년 11월 16일부 《국제공산당 제4차대회 통보》 제8호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이 수정한 독일문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377～390페지

헤그에서의 우리 대표단의 파업에 관한 문제에 대한 수기

헤그회의177가 곧 열리게 된다. 전쟁의 위험성과 투쟁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이 문제가 간단명료하고 비교적 용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극복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파업이나 혹은 혁명으로써 전쟁에 대답할것이다.》—이렇게 개량주의자들의 모든 저명한 수령들은 늘 로동계급에게 말하고있다. 이 대답의 외견상의 급진성은 흔히 로동자, 협동조합원 및 농민을 만족시키며 안심시키고있다.

아마 가장 정당한 수법은 이런 견해를 가장 예리하게 론박하는데로부터 시작하는데 있을것이다. 특히 전쟁을 겪은지 얼마 안되는 지금에 있어서는 다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혹은 만회할수 없는 거짓말쟁이들만이 전쟁반대투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대답이 어딘가 소용되는데가 있다고 단언할수 있다는것을 언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현의 가장 단순한 그리고 문자그대로의 의미에서 전쟁에 대하여 혁명으로써 《대답》한다는것이 불가능한것과 꼭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해서 파업으로써 《대답》한다는것도 불가능하다는것을 언명하여야 할것이다.

전쟁이 얼마나 극비밀리에 발생하는가 그리고 또 보통로동자단체가 비록 혁명적이라고 자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박두

해오는 전쟁에 직면하여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실정을 일반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전쟁시에 사태가 어떻게 되여있었던가 또 어째서 사태가 그렇게밖에는 될수 없었던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재삼 일반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는 《조국방위》라는것이 근로자들의 압도적다수가 자국의 자산계급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적인 문제로 된다는 그 사정의 의의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첫째로는 《조국방위》에 관한 문제를 해설해주는것, 둘째로는 이와 관련하여 《패배주의》에 관한 문제를 해설해주는것, 셋째로는 전쟁반대투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 즉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혁명가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장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비합법조직체를 보존하며 조직하는것—이 모든것이 첫머리에 내세워져야 할것이다.

전쟁을 보이꼬트한다는것은 어리석은 언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반동적전쟁에라도 참여하여야 한다.

전쟁전의 독일문헌을 실례로 들어, 특히 1912년 바젤대회를 실례로 들어 전쟁은 범죄적이며 전쟁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허용될수 없다는 등등을 리론적으로 인정하는것은 이와 같은 문제설정에 아무런 구체성도 없기때문에 공허한 언사에 불과하다는것을 특히 구체적으로 증시하여주는것이 좋을것이다. 전쟁이 닥쳐올수 있으며 또 기필코 닥쳐올것이라는데 관한 진실로 생생한 아무런 관념도 우리는 대중들에게 주지 못하고있다. 반대로 매일 수많은 부수로 발간되는 유력한 신문은 이 문제를 은폐하고있으며 또 이에 관하여 허위를 전파시키고있는바 미약한 사회주의적신문은 그것을 반박하기에는 전혀 무력하다. 더우기 사회주의신문은 평화시에 있어서조차

이 점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견해들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대다수 국가들의 공산주의적신문도 역시 모름지기 수치를 당할것이다.

협동조합원 및 로동조합원들의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들은 상호간에 과업을 분공하여 현시기에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온갖 궤변을 가장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 대중을 전쟁에로 끌어들이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자산계급신문이 의거하는 바로 그 궤변일것이다. 또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무력함을 설명하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미리 이 궤변을 검토하지 않은데 있으며 더우기는 1912년 바젤선언[103]의 정신대로 우리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우리는 전쟁의 죄악성을 완전히 리해하고있다는 등등의 값눅고 교만하고 완전히 공허한 언사로써 이 궤변을 처리해버리고마는데 있는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헤그회의에서 이런 또는 저런 나라의 말로써 전쟁을 반대하여 연설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게 된다면 그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회의참석자들을 전쟁반대자들인듯이 생각하며 전쟁이 불시에 그들에게 닥쳐올수 있으며 또 반드시 닥쳐오게 된다는것을 그들이 리해하고있는듯이 생각하며 그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방법을 얼마쯤 의식하고 있는듯이 생각하며 그들이 얼마쯤 합리적이고 또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전쟁반대투쟁의 방도를 강구할수 있을듯이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를 론박하는데 있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전쟁이 선포된 그 다음날에 얼마나 많은 리론적문제들과 생활상의 문제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군대에 징모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얼마쯤이라도 맑은 정신으로써 또 얼마쯤이라도 편견이 없는 량심적태도로써 대할수 있는 온갖 가

능성을 박탈한다는것을 우리는 최근의 전쟁경험과 관련시켜서 해설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두가지로 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첫째로, 지나간 전쟁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분석해주며 전체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있다는것, 또는 이것을 아는체하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문제의 진짜 요점—그것을 모르고서는 어떠한 전쟁반대투쟁도 운운할수 없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다는것을 밝혀주는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해서 그 당시 로씨야사회주의자들간에 발생하였던 모든 조류와 모든 견해를 검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조류들은 우연히 생긴것이 아니라 현대전쟁일반의 성격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것이라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들을 분석함이 없이는, 또 그것이 어떻게 불가피적으로 발생하며 그것이 전쟁과의 투쟁문제에서 어떤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가를 해설해줌이 없이는, 이와 같은 분석이 없이는 전쟁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또한 전쟁에 대한 의식적태도를 취하는것조차도 문제로 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록 가장 작은 분쟁일지라도 현하의 여러 분쟁의 실례를 들며 이 실례로써, 토이기와의 조약의 어떤 세목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의 태평양문제에 관한 미국과 일본간의 대수롭지 않은 의견상이로 말미암아 또는 렬강들간의 식민지적분쟁이나 관세정책이나 일반적인 통상정책에 관한 분쟁 등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헤그에서 자기의 모든 전쟁반대연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하다못해 주요한것만이라도 발언하

고 다 설명하지 못한것은 다음에 소책자로써 출판하기 위한 일련의 계교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예견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표단에는 전면적으로 전쟁반대연설을 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무를 가진, 즉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주요론거와 모든 조건을 전개하는 연사들외에 또한 3개 주요한 외국어를 전부 소유하여가지고 외국대표들과 담화를 하며 그들이 기본적론거를 얼마나 리해하고있는가 또 이런저런 론증을 하는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는 어느 례를 드는것이 필요한가 하는것을 해명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부 문제에 대하여서는 지난 전쟁의 실례를 드는것만 가지고도 아마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것이다. 다른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국가들간의 현하의 분쟁과 그 분쟁이 무장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다는것을 설명하는것만 가지고도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것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 공산당대의원들이 의회내에서나 의회밖에서 극히 부당하고 극히 경솔한 성명을 많이 하였다는것을 나는 기억하고있다. 나는 이와 같은 성명에 대하여서는 특히 전쟁후에 발표된 그러한 성명에 대하여 그 매개 연사들의 이름을 지적하면서 결정적으로 무자비하게 반박해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사에 대한 비평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적당히 온화하게 말할수도 있으나 결코 묵과할수는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경솔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해독적인것이며 절대로 관대하게 취급할수 없는것이기때문이다.

로동자대회들에서 채택된 용서할수 없을만큼 어리석고 경솔한 일련의 결정들이 있다.

온갖 자료를 즉시로 수집하고 문제의 모든 개별적부분과 세부분 그리고 대회에서의 모든 《전략》을 세밀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오유뿐만아니라 주요한 부족점도 우리로서는 허용할수 없는것이다.

1922년 12월 4일

1924년 4월 26일 《쁘라우다》 제96호에 처음으로 게재

서명: 레닌

레닌이 수정하고 서명한 원고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05~408페지

일기의 몇페지

1920년도인구등록자료에 의한 로씨야주민의 문자해득률에 관한 저서(《로씨야에 있어서의 문자해득률》, 중앙통계국 인민교육통계부, 모스크바, 1922년)가 최근에 발행되였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저서에서 빌어온, 1897년과 1920년도에 있어서의 로씨야주민의 문자해득률에 관한 일람표를 다음에 인용한다.

	남자 1,000명에 대한 문자해득자수		녀자 1,000명에 대한 문자해득자수		전체 주민 1,000명에 대한 문자해득자수	
	1897년	1920년	1897년	1920년	1897년	1920년
1. 구라파로씨야	326	422	136	255	229	330
2. 북깝까즈	241	357	56	215	150	281
3. 씨비리(서부)	170	307	46	134	108	218
계	318	409	131	244	223	319

우리가 무산계급문화이니 또는 무산계급문화와 자산계급문화와의 호상관계이니 하며 떠들고있는데 제반 사실은 자산계급문화조차도 우리 나라에서는 형편없다는것을 보여주는 수자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있다. 응당 예기하였어야만 되였던 바와 같이 우리가 전반적문맹퇴치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멉

시 뒤떨어져있으며 짜리시대(1897년)에 비해본 우리의 진보라는 그것조차도 너무 완만하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것은《무산계급문화》라는 신선이 사는 곳에서 헤매였으며 현재도 헤매고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이며 책망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서구라파의 보통문명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긴절하고도 기초적인 사업을 하여야 할것인가를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쟁취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에라도 실제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론쟁할 여지 없는 그러나 너무도 리론적인 명제를 운운하는것만으로써 그치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시일내에 수행될 우리의 분기예산의 재검토시에 우리는 실천적으로도 이 일에 착수하는것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인민위원부이외의 정부기관들의 지출을 축감하고 거기에서 념출된 금액을 교육인민위원부의 소용에 돌려야 할것은 물론이다. 또한 금년과 같이 곡물사정이 비교적 괜찮은 해에 있어서는 교원들에게 공급하는 식량을 증가하는데 린색하여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재 인민교육부문에서 진행되고있는 사업이 과히 협소한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낡은 교원집단을 추동하여 그들을 새 과업에 끌어들이며 그들로 하여금 교육학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데 흥미를 갖게 하며 종교문제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많은 일을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요한 일을 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인민교원의 지위를 높이는데 배려를 돌리지 않고있거나 매우 적게 돌리고있다. 그런데 인민교원의 지위를 높이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문화도 운운할수 없으며 무산계급문화도 자산계급문화

도 운운할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반아세아적비문화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있다. 우리가 비록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기는 할지라도 진지한 노력이 없이는 벗어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고 하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그처럼 인민대중이 진정한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있지 않기때문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그처럼 이러한 문화의 제 문제를 심각하고 철저하게 내세우고있지 않기때문이며 그 어디서도, 그 어느 한 나라에서도 국가주권이 우리 나라에서처럼 로동계급—그의 대다수가 자기의 문화정도(문화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문자해득정도라고 말하고 싶다.)에 있어서의 부족점을 훌륭히 리해하고있는—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지 못하기때문이며 그 어디서도 로동계급이 우리 나라에서처럼 이 점에 있어서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처럼 많은 희생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지 못하며 또 그러한 희생을 바치고있지 않기때문이다.

초등인민교육의 요구를 맨먼저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국가총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란 아직도 너무나 적으며 가량없이 미미하다. 심지어 우리 교육인민위원부에서까지도 어떤 국립출판사의 엄청나게 팽창된 정권을 흔히 보게 되는데 국가의 배려가 맨먼저 돌려져야 할것은 출판사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책을 읽도록 하며 글을 읽을수 있는 사람의 수를 더 증가시키며 미래의 로씨야에서 출판사의 정치적규모가 더 커지도록 하는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낡은(혐오할) 습성으로 말미암아 인민의 문자해득에 관한 일반정치적문제에 대해서보다도 출판사문제와 같은 기술적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력

량을 돌리고있는것이다.

만일 직업교육총국을 례로 들어본다면 그곳에서도 광범한 인민교육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고있는, 기관본위관념때문에 팽창된 허다한 쓸데없는것들을 발견할수 있을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직업교육총국의 모든것이 우리 나라의 청년로동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우선 제고하며 그 교육사업에 실제적지도를 주려는 정당한 욕망에 기초한것이라고는 결코 말할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견지에서 직업교육총국의 정원을 주의깊게 조사해본다면 거기에는 허다한것이 팽창되고 인공적인것이며 마땅히 폐절되여야 할것들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무산계급과 농민의 국가에서는 절반 귀족형의 장난감 같은 기구라든가 또는 통계자료가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은 그러한 인민의 문자해득상태하에서는 우리가 아직 그러한것이 없이도 지낼수 있으며 또 앞으로도 오래동안 지낼수 있을것이며 또 지내야할 그러한 기관이라든가 하는 모든것을 폐절함으로써 인민의 문자해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직 더 많은것을 절약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절약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민교원들을, 자산계급사회에서 결코 도달해본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도달하지 못하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도달할수 없을 그러한 높은 지위에 반드시 올려세워야 한다. 이것은 론증이 필요치 않은 진리이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적앙양을 위하여서와 참으로 고상한 그들의 사명에 상응하게 그들을 각 방면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은 주요하고 주요하고 또 주요한바이지만 그들의 물질적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통적이며 꾸준하고 완강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교원들로 하여금 자산계급제도의 지주—예외없이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러한 지주

로 되고있다.—로부터 쏘베트제도의 지주로 되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 농민을 자산계급과의 동맹으로부터 떼여내서 무산계급과의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인민교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계통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 사업을 위하여 계통적인 농촌순시—우리 나라에서 이미 실시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획적으로 꼭 발전시켜야 할—가 특별한 역할을 반드시 놀아야 한다는것을 나는 간단히 지적해두는바이다. 농촌순시와 같은 그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돈—이 돈을 우리는 거의 력사적인 구시대에 속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에다 흔히 무익하게 랑비하고있다.—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는 농촌주민에 대한 도시로동자들의 지원에 관하여 1922년 12월에 쏘베트대회에서 하기로 예정하였었으나 하지 못하고만 나의 연설의 자료를 수집한 일이 있다. 이에 관한 약간의 자료를 호도롭스끼동지가 나에게 보내주었었는데 내자신이 이 문제를 연구하여 쏘베트대회를 통해서 공개하지 못했던만큼 지금 나는 동지들앞에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제기하는바이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치적문제는 농촌에 대한 도시의 관계에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혁명전체에 대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자산계급국가는 도시로동자들을 우매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계통적으로 경주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짜리정당 및 자산계급정당들의 자금으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휘몰아 동원하고있지만 우리는 도시로동자들을 실지로 농촌무산계급속에서 공산주의적사상을 전파하는 선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권을 리용할수 있으며 또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공산주의적》이라고 말하였는데 오해를 사거나 또는

글자그대로 너무 고지식하게 리해될것을 념려하여 미리 언명하려 한다. 이 말을 마치 우리가 즉시로 순수한, 좁은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사상을 농촌에 가져가야 한다는것처럼 리해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의 농촌에 공산주의를 위한 물질적기초가 축성되기전에는 그렇게 하는것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유해한것이며 파멸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하여서는 안된다. 공산주의를 농촌에 실시하려는 선입관에 사로잡힌 목표를 내세우지 말고 우선 도시와 농촌간에 련계를 맺는데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표는 현재에 있어서는 달성될수 없는것이며 시기상조한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내세운다면 사업에 리익을 줄 대신에 해독을 주게 될것이다.

그러나 도시로동자와 농촌근로자간에 련계를 맺게 하며 그들사이에 용이하게 조성될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우호적 및 호상방조의 관계를 설정하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기본임무의 하나인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의 문화발전을 방조하는것을 취지로 삼는 공장기업소로동자들로 구성되는 일련의 련합체(당적, 직업동맹적 또는 개인적 련합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세포에다 모든 농촌세포를 《지정》해주고 해당 농촌세포를 《지정》받은 매개의 로동자세포로 하여금 온갖 기회, 온갖 경우를 통하여 자기의 상대방세포의 이러저러한 문화적수요를 충족시켜주도록 계통적으로 배려하게 할수 있겠는가? 또는 이와 다른 련계형태를 찾아낼수 있겠는가? 나는 동지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서부씨비리의 실제적경험을 소개하기 위하여(호도롭스끼동지가 이 경험을 나에게 소개하여주었다.), 또한 세계사적인 이 웅대한 문화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다만 문제

를 제기하는데 그치는바이다.

우리는 공식적인 예산, 공식적인 접촉 이외에는 농촌을 위하여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련계가 저절로 또 불가피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되는것만은 사실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가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또는 기타 방면에서 농촌을 타락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가 자연 이와 정반대의것을 농촌에 주기 시작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그러므로 이 모든것은 이 사업에 의식성과 계획성과 체계성을 부여함으로써 강화될수 있을것이다.(그리고 그후에는 백배로 강화될수 있을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하며 이 문제를 실제사업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로동자련합체를 관료주의화하는것을 백방으로 피하면서 결성하게 될 그때에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전진하기 시작할것이다.(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는 확실히 백배나 더 빠르게 전진하기 시작할것이다.)

1923년 1월 2일

1923년 1월 4일 《쁘라우다》
제2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쁘라우다》원문에 의하여 인쇄, 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17~421페지

협동조합에 관하여[178]

1

나는 우리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즉 10월혁명이후부터 그리고 신경제정책과는 관계없이(아니 반대로 이 면에 있어서는 바로 신경제정책때문에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 아주 비상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누구나 다 리해하고있다고는 도저히 말할수 없다. 낡은 협동조합운동가들의 생각에는 환상이 많았다. 그들은 흔히 가소로울만큼 환상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환상을 가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착취자들의 지배를 전복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정치적투쟁이 가지는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의의를 그들이 리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전복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낡은 협동조합운동가들이 꿈꾸고있던 환상적인것, 지어는 랑만적이며 비속한것까지도 그중의 많은것이 현재 전혀 가장함이 없는 현실로 되고있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정권이 로동계급의 수중에 있고 일체 생산수단이 이러한 국가정권에 속해있는만큼 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업은 오직 주민을 협동조합에 조직하는 것뿐이다. 주민을 최대한도로 협동조합에 조직하는 경우에는, 계급투쟁의 필요성, 정권을 위한 투쟁 등등의 필요성을 정당

하게 확신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이전에는 당연한 조롱, 랭소, 멸시를 받던 그러한 사회주의는 저절로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다. 그런데 로씨야주민을 협동조합화하는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거대하고도 무한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모든 동지가 다 똑똑히 리해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신경제정책에서 우리는 상인으로서의 농민에게 개인상업의 원칙을 양보하였는데 바로 이 점으로부터(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바와는 정반대로) 협동조합의 거대한 의의가 생겨나오는것이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경제정책의 지배하에서 로씨야주민을 충분히 넓고 깊게 협동조합화하는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왜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사적리익, 개인상업적리익과 국가에 의한 그 검열 및 통제와를 결부시킬 척도, 이 리익을 공동리익에 복종시킬 척도—이것은 지난날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풀수 없는 난제로 되여있었다.—를 이미 발견하였기때문이다. 사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권력,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령세농과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보장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협동조합으로부터, 오직 협동조합으로부터 출발하여(우리는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멸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멸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인것이다.

이러한 사정이야말로 우리의 다수 실천일군들에 의하여 과소평가를 받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협동조합이 첫째로는 원칙적인 면으로 보아(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국가

의 수중에 있다는것), 둘째로는 농민에게 될수록 더 간단하고 용이하고 접수하기 쉬운 방법에 의하여 새 질서에로 이행한다는 면으로 보아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협동조합을 경시하고있다.

그런데 이 점에 역시 주되는것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온갖 로동자련합체에 대하여 환상을 그리는것과 온갖 소농이 그러한 건설에 참가할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을 배우려는것과는 전혀 별개의것이다. 바로 이 후자의 단계에 우리는 현재 도달한것이다. 그런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이 단계에 도달하고서도 이것을 너무나 불충분하게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신경제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자유산업 및 자유상업의 원칙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도를 지나친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경제정책으로 넘어가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을 망각하였고 현재도 협동조합을 과소평가하고있으며 협동조합이 가지는 상기 두가지 면에서의 거대한 의의를 벌써 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에 있어서 도를 지나친것이였다.

이러한 《협동조합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적으로 할수 있을것이며 또 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지금 독자들과 말하여보려 한다. 모든 사람이 《협동조합적》원칙이 가지는 사회주의적의의를 분명히 알게끔 이 원칙을 지금 당장 어떠한 수단들로써 전개시키기 시작할수 있으며 또 전개시키기 시작하여야 할것인가?

다만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항상 일정한 특권을 가질뿐만아니라 이 특권이 순 재산상의 특권(은행리자의 높이 등등.)으로 되게끔 그렇게 정치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우리가 사적기업에 대부하는 자금액보다(비록 소액일

망정) 더 많이, 지어는 중공업에 주는 융자액과 상등한 국가 자금을 협동조합에 대부하여주어야 할것이다.

어떤 사회제도나 그것은 오로지 일정한 계급의 재정적지원밑에서만 발생하는것이다.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탄생에 소용되였던 수억만루블에 대하여는 더 말할것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보통정도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회제도는 협동조합제도라는 점을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그것을 실지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지원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제도를 지원하여야 할것이니, 즉 이 지원을 임의의 협동조합거래에 대한 지원이라고 리해하는것은 불충분하며 이 지원은 **현실적인 주민대중이 실지로 참가하는** 그러한 협동조합거래의 지원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리해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거래에 참가하는 농민에게 상을 준다는것—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옳은 지원형식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참가를 검열하며 그들의 자각성과 그들의 성심을 검열하는것—여기에 문제의 요점이 있는것이다. 협동조합일군이 농촌에 가서 거기에 협동조합매점을 차려놓을 때 주민들은 엄격히 말하면 결코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자신의 리익에 끌리여 시험적으로 그에 참가해보려고 바삐 서두를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다른 측면도 가지고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 하나 빠짐없이 협동조합사업에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명한》(우선 글자를 읽고 쓸줄 아는) 구라파사람들의 견지로 본다면 매우 적은것이지만 그것을 아직도 할 필요가 있다. 실상인즉 우리들에게는 《**다만**》 한가지만이 남아있는것이니, 즉 우리 주민들을, 그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협동조합에 참가하는데서 얻는 온갖 리득을 리해하고 이러한 참

가를 조직할수 있으리만큼 《문명한 사람》으로 만드는것이 곧 그것이다. 《다만》 이것뿐이다. 오늘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이외의 어떤 가장 현명한것도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 《다만》을 완수하자고 해도 전면적인 변혁이, 전체 인민대중의 문화적발전의 옹근 한 시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은 꾀를 될수록 적게 쓰며 재주부림을 될수록 적게 할것을 준칙으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경제정책은 그것이 가장 보통적인 농민의 수준에 적합하며 그것이 농민에게서 보다 높은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진보적이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을 통하여 전체 주민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협동조합에 참가하도록 하려면 옹근 한 력사적시기가 필요한것이다. 잘하면 우리들은 10년 또는 20년 동안에 이 시기를 통과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특수한 력사적시기일것이다. 이러한 력사적시기가 없이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글을 읽고 쓸줄 알게 되지 않고는, 충분한 정도의 리해력이 없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책자들을 리용하는것이 충분히 습성화되도록 함이 없이는, 또 이것을 위한 물질적기초가 없이는, 이를테면 흉작, 기근 등등에 대한 일정한 보장이 없이는—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우리들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것이다. 지금 문제의 전 요점은 우리가 이미 발휘하였을뿐만아니라 충분히 발휘하였으며 완전한 승리를 거둔 그 혁명적전개력, 그 혁명적 정열, 이것을 총명하고 유식한 장사군이 될줄 아는 수완, 즉 우수한 협동조합일군으로서는 충분한 그 수완과(나는 감히 말하련다.) 결합시킬줄 아는데 있다. 장사군이 되는 수완이라는 이 말을 나는 문화적인 장사군이 되는 수완이라는 의미로 리해한다. 로씨야사람들, 또는 소박한 농민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들은 장사만 하면 곧 장사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장사는 하고있다, 그러나 장사를 한다는것과 문화적인 장사군의 수완을 가지고있다는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것이다. 그들은 지금 아세아식으로 장사하고있다. 솜씨있는 장사군이 되기 위해서는 구라파식으로 장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자면 옹근 한 시대가 걸려야 하는것이다.

끝으로 말할것은 협동조합에 일련의 경제적, 재정적 및 은행상의 우선권을 주는것—이 점에 주민을 조직하는 새로운 원칙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다만 과업을 일반적륜곽에 있어 제기한데 지나지 못한다. 왜냐 하면 과업의 전체 내용이 실천적으로는 아직도 모호한채로, 세세히 서술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기때문이다. 즉 우리가 협동조합화하는데 대하여 줄 《상》형태(및 이상을 주는 조건), 우리가 협동조합을 충분히 원조할수 있는 상형태, 우리가 문명한 협동조합일군을 얻을수 있게 하는 상형태를 찾아낼줄 알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에 대하여 계급적으로 승리한 조건하에서의 문명한 협동조합일군의 제도란 곧 사회주의의 제도인것이다.

1923년 1월 4일

2

나는 신경제정책에 관하여 쓸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자본주의에 관한 1918년의 나의 론문을 인용하여왔다①. 이것은

① 《〈좌익적〉유치성과 소자산계급성에 대하여》를 두고 말한다. 본선집, 한문판, 제3권, 530～559페지를 보라. —편집자

약간의 젊은 동지들의 의혹을 재삼 일으키게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혹은 주로 추상적인 정치적문제에 대한것이였다.

생산수단이 로동계급에게 속해있고 이러한 로동계급에게 국가정권이 속해있는 그러한 제도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그들에게는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은《국가자본주의》라는 나의 명명이 다음과 같은 목적밑에서 사용되였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즉 **첫째로**는 우리들의 현재 립장과 소위 좌익공산주의자52를 반대한 나의 론쟁에서 취하였던 립장과를 력사적으로 련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였던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미 그 당시에 국가자본주의는 우리들의 현재의 경제보다는 더 고급한것일것이라는것을 루차 증시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보통의 국가자본주의와 보통이 아닌 국가자본주의와의, 지어 전혀 보통이 아닌 국가자본주의—이에 관해서는 내가 독자들에게 신경제정책을 설명할 때 이미 말하였다.—와의 계기적관련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둘째로**, 실천적목표가 나에게는 항상 중요하였다. 그런데 우리 신경제정책의 실천적목표는 리권을 허용하는데 있었던것이다. 리권은 의심할것도 없이 이미 우리 나라의 조건에 있어서는 순수한 형태의 국가자본주의일것이다. 이것이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나의 견해였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국가자본주의거나 적어도 국가자본주의와 비교될만한것을 필요로 할수 있는, 문제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그것은, 즉 협동조합에 관한 문제이다.

자본주의국가의 환경하에서의 협동조합이 집단적인 자본주의적조직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우리 나라의 현재의 경제적실정에서 우리가 사자본주의적기업체(그러나 반드시 사회화된 토지우에 건립되여야 하며 또 로동계급에 속해있는 국가

정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를 철저한 사회주의적형태의 기업체(생산수단도, 기업체가 서있는 토지도, 전체 기업체 그자체도 국가에 속한다.)와 결합시킬 때 제3형태의 기업체—이전에는 원칙적의의의 견지로 보아 독자성이 없었던—에 관한, 즉 협동조합기업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역시 의심할바가 없는것이다. 사자본주의하에 있어서는 협동조합기업체는 사적기업체와는 달라서 집단적기업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된다. 국가자본주의하에서는 협동조합기업체는 첫째로, 사적기업체인 점에서, 둘째로, 집단적기업체인 점에서 국가자본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의 현존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기업체는 집단적인 점에서 사자본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되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토지와 생산수단이 국가, 즉 로동계급에 속하는 조건에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관하여 론의할 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있다. 우리 국가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협동조합이 아주 특수한 의의를 갖게 되였다는 점을 망각하고있는것이다. 만일 리권(첨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그다지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을 제외한다면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 협동조합은 거의 언제나 완전히 사회주의와 일치하는것이다.

나는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겠다. 로버트 오엔을 비롯하여 낡은 협동조합운동가들의 계획의 환상성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계급투쟁, 로동계급에 의한 정권의 쟁취, 착취계급의 지배의 전복 등에 관한 문제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현대사회를 사회주의로써 평화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몽상하였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또한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협동조합적》사회주의를 에누리없는 환상으로

보는것은 정당하며 단순히 주민을 협동조합에 조직함으로써 계급적원쑤를 계급적협력자로 전화할수 있고 계급적전쟁을 계급적평화(소위 국내평화)로 전화할수 있다는 따위의 몽상을 그 어떤 랑만적인것, 지어는 비속한것으로 보는것까지도 정당한 것이다.

오늘의 기본과업의 견지로 보아 우리가 정당하였다는것은 의심할바가 없다. 왜냐 하면 국가의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없이 사회주의는 실현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국가정권이 이미 로동계급의 수중에 있는 이상, 일단 착취자들의 정권이 전복된 이상, 일단 일체의 생산수단(로동자국가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간 조건부로 착취자들에게 리권으로 대여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이 로동계급의 수중에 있는 이상 지금 사태가 어떻게 변경되였는가를 보라.

오늘날 우리들은 협동조합의 단순한 장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장성과 동일하다고(상술한 《대수롭지 않은》 례외는 있지만) 말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근본적변화는, 이전에는 우리가 중심을 정치적투쟁에, 혁명에, 정권쟁취 등등에 두었었고 또 두지 않을수 없었는데 지금은 중심이 바뀌여 평화적으로 《문화》사업을 조직하는데로 넘어가게 되였다는데 있는것이다. 만일 국제적관계를 도외시한다면 국제적규모에서 우리들의 진지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임무를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중심을 문화사업에로 옮겨야 한다고 나는 감히 말할것이다. 만일 이것을 젖혀놓고 국내경제관계에만 국한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사업중심은 사실 문화사업에 귀착되는것이다.

우리앞에는 획기적인 주요한 두개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것은 전혀 아무데도 소용이 없으며 우리가 이전시기의것을 그

대로 모방해온 우리의 국가기구를 개조하는 과업이다. 우리들은 5년에 걸친 투쟁기간에 이 부문에 있어서 아무런 중요한 개조도 하지 못하였으며 또 할수도 없었다. 우리들의 둘째 과업은 농민을 위한 문화사업이다. 그런데 경제적목적에서 전개하는 농민속에서의 문화사업은 바로 협동화를 실시하는데 있다. 만일 완전한 협동화가 실시된다면 우리는 벌써 사회주의적지반우에 두다리를 디디고 서있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협동화를 위해서는 농민(바로 거대한 대중인 농민)의 높은 문화수준이 필요한것이다. 즉 완전한 협동화는 전면적문화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들이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 사회주의를 부식하려는 철없는 일을 꾀하고있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이 리론(온갖 현학자들의)에 의하여 가정된 그러한 종점으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였다는 점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사회적변혁이 문화적변혁, 문화혁명—우리는 지금도 의연히 이에 직면하고있는것이다.—에 선행하였다는 점을 그들은 잘못 보았던것이다.

우리 나라가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혁명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순 문화적 면에서도(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는 문맹이 많기때문에) 또 물질적 면에서도(왜냐 하면 문명한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생산수단의 일정한 발전이 필요하며 일정한 물질적토대가 필요하기때문에) 막대한 곤난이 제기되는것이다.

1923년 1월 6일

1923년 5월 26일 및 27일
《쁘라우다》 제115호 및 제116호에 처음으로 게재

서명: 엔. 레닌

신문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22～430페지

우리 혁명에 관하여

(엔. 쑤하노브의 수기에 대하여)

1

요즘 나는 혁명에 관한 쑤하노브179의 수기를 보았다. 제2국제당의 모든 영웅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모든 소자산계급적민주주의자들에게서도 볼수 있는 현학성이 특히 눈에 뜨인다. 그들이 더 말할나위 없는 겁쟁이라는 점, 그들중 좀 괜찮다는 분자들조차 독일의 범례로부터의 아주 사소한 리탈이라도 문제로 될 때에는 곧 보류조건을 늘어놓는다는 점은 고사하고라도, 모든 소자산계급적민주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속성(그들이 혁명전체를 통하여 충분히 나타낸)은 고사하고라도 과거에 대한 그들의 노예적모방성이 눈에 뜨인다.

그들은 모두 맑스주의자이노라고 자칭하고있으나 그러나 극히 현학적으로 맑스주의를 리해하고있다. 맑스주의에 있어서 결정적인것, 즉 그 혁명적변증법을 그들은 전혀 리해하지 못하였다. 혁명의 시기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신축성이 요구된다는 맑스의 직접적인 교시180조차 그들은 전혀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심지어 맑스가 그의 왕복서한—그것은 1856년의것이였다고 기억된다.—에서 혁명적정세를 조성할수 있는 독일의 농민전쟁과 로동운동과의 결합181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던것조차 모르고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직접적교시까지 회피하고

마치 고양이가 뜨거운 죽그릇의 주위를 돌듯이 이 교시의 주변을 감돌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전체 행동에서 자산계급으로부터 떨어져나오는것을 두려워하는, 그들과 인연을 끊는것은 더구나 두려워하는 비겁한 개량주의자들임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동시에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미사려구와 호언장담으로써 자기들의 비겁성을 은폐하고있다. 그러나 순전히 리론적으로 보아서도 맑스주의의 다음과 같은 사상을 리해함에 있어서의 완전한 무능력이 그들모두에게서 눈에 뜨인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서구라파에서의 자본주의 및 자산계급민주주의의 일정한 발전로정을 보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로정이 해당한 수정을 가함으로써(mutatis mutandis), 즉 약간의 수정(세계사의 총행정의 견지에서는 아주 사소한)을 가함으로써만 범례로 간주될수 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고있다.

첫째, 제1차세계제국주의전쟁과 관련된 혁명. 이러한 혁명에 있어서는 새로운 특징 또는 바로 전쟁여하에 따라서 변형된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정세하에서 그와 같은 전쟁은 일찌기 세계에서 일어나본적이 없었기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의 자산계급조차 이 전쟁후에 《정상적인》 자산계급적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있는것을 보는데 혁명가인척하는 우리의 개량주의자들, 즉 소자산계급들은 정상적인 자산계급적관계를 극한(그것을 넘지 못할)이라고 간주해왔으며 또 간주하고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정상적》이란것을 또 지극히 기계적으로 협애하게 리해하고있다.

둘째, 전 세계력사에 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 발전의 형식이나 순서의 특이성을 표시하는 개별적인 발전시기를 결코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

을 전제로 한다는 온갖 사상이 그들에게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되여있다. 례컨대 로씨야는 문명제국과 이번 전쟁에 의하여 처음으로 결정적으로 문명에 끌려들어간 국가들, 즉 전체 동방국가들, 구라파이외의 국가들과의 경계선에 서있다는 것, 그렇기때문에 로씨야는 약간의 특이성—물론 세계발전의 일반적로선우에 놓여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 혁명으로 하여금 서구라파나라들의 모든 선행혁명과 구별되게 하며 동방국가들에로의 이행에 있어서 부분적인 약간의 새로운것을 가져오게 하는—을 나타낼수 있었고 또 나타내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그들의 머리에는 떠오르지조차 않는다.

례컨대 그들이 서구라파사회민주당의 발전시기에 외워둔 론거란 한없이 판에 박은듯 평범한것인데 그 론거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리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중의 여러 《학자》 제씨들이 표현하고있는바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위한 객관적인 경제적전제조건이 없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아무도 다음과 같이 자문해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 즉 제1차제국주의전쟁중에 조성된것 같은 그러한 혁명적정세에 봉착한 인민이 자기들의 막다른 처지의 영향하에 설사 전혀 정상적인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쟁취할수 있는 기회를 다소라도 그들에게 열어주는 그러한 투쟁에 돌진할수 없었겠는가고.

《로씨야는 사회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생산력발전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실 제2국제당의 영웅들—물론 쑤하노브도 포함하여—은 모두 이 명제를 념불하듯 말끝마다 외우고있다. 이 론쟁할 여지 없는 명제를 그들은 가지각색으로 되씹고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혁명의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인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정세는 첫째로, 로씨야로 하여금 다소라도

유력한 모든 서구라파국가들이 휩쓸려들어간 세계제국주의전쟁에 들어서게 하였으며 또 현재 개시되고있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개시된 동방의 혁명과 경계를 접하여 일어나고있는 로씨야의 발전으로 하여금 우리가 《농민전쟁》과 로동운동과의 동맹—맑스와 같은 《맑스주의자》가 1856년에 프로씨아에 대해서 가능한 전망의 하나로서 서술한 바로 그 동맹을 실현할수 있는 그러한 조건하에 들어서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막다른 처지는 로동자, 농민의 력량을 열곱으로 강화하여 우리에게 이여의 모든 서구라파국가들에서와는 다르게 문명의 기본적전제의 창조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하여 세계력사발전의 총로선이 변경되였는가? 그것으로 하여 세계력사의 일반적행정에 끌려들어가려 하고있고 또 이미 끌려들어간 매개 국가에서의 기본계급들의 근본적호상관계가 변경되였는가?

만일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정한 문화수준(그러나 이 일정한 《문화수준》이 바로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은 아무도 말할수 없다. 왜냐 하면 서구라파국가들에서 나라마다 그것이 다르기때문이다.)이 요구된다면 어째서 우리는 먼저 혁명적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일정한 수준을 위한 전제조건을 쟁취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연후에 로농정권과 쏘베트제도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을 따라가도록 전진할수 없겠는가.

1923년 1월 16일

2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서는 문명이 요구된다고 당신들은 말한다. 대단히 좋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먼저 지주의 축

출 및 로씨야자본가의 축출과 같은 자기 문명의 전제를 조성하고 연후에 사회주의로 나아갈수 없겠는가? 보통의 력사적순서의 이와 같은 변형이 허용될수 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쓴것을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책에서 읽었는가?

나뽈레옹이 《On s'engage et puis… on voit》라고 썼다고 기억된다. 의역하면 이것은 《먼저 실제적전투에 달려들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태는 명백하여질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도 바로 우선 1917년 10월에 실제적전투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브레스트강화, 신경제정책 등등과 같은 발전의 세목(세계사적견지로 보아 이것은 확실히 세목이다.)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승리하였다는것은 벌써 의심할바가 없는것이다.

우리 쑤하노브일파—이들보다도 더 우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말할것도 없고—는 도대체 혁명이 달리는 될수 없다는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 구라파속물들은 인구가 헤아릴수 없이 더 많고 사회적조건들이 헤아릴수 없이 더 다양한 동방국가들에서의 장래의 혁명이 확실히 로씨야혁명보다도 더 특이한 성격을 나타내리라는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카우쯔키식으로 쓴 교과서가 한때는 매우 유용한것이였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교과서가 앞으로의 세계력사발전의 일체 형태를 예견하고있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이미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보들이라고 선언하는것이 적절할것이다.

1923년 1월 17일

1923년 5월 30일 《쁘라우다》 제117호에 처음으로 게재

신문원문에 의하여 인쇄, 속기록에 대한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보충수정

서명: 레닌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31～435페지

우리는 로농감독국을 어떻게 재조직할것인가?

(제12차당대회에 한 제의)182

의심할것없이 로농감독국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난문제로 되고있으며 또한 이 난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로농감독국의 유익성 또는 필요성을 부정하는것으로써 이 난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지들은 옳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우리의 국가기관 및 그의 개선에 관한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결코 해결되였다고는 할수 없는 문제인 동시에 또 비상히 긴절한 문제라는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외무인민위원부를 제외한 우리의 국가기관은 중대한 전변이 거의 없이 상당한 정도에서 낡은 기관의 잔재를 물려받았다. 그것은 다만 겉꾸림을 슬쩍 하였을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낡은 국가기관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낡아빠진것들이다. 그리하여 진실로 이것을 일신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전쟁의 경험에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들은 국내전쟁의 가장 위험한 시각에 어떻게 행동하였던가?

우리들은 당의 우수한 력량을 붉은군대내에 집중시켰다. 우리들은 우리 로동자들중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동원에 의거

하였다. 우리들은 우리 독재의 가장 깊은 근저로 가서 새 력량을 찾았다.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들은 로농감독국을 재조직하는 원천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우리 제12차 당대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재조직계획—우리 중앙검열위원회의 특수한 확대에 기초한—을 채택할것을 제의하는바이다.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일종의 최고당대표자회의로 발전하려는 지향을 이미 밝혔다. 이 전원회의는 기껏해야 평균 두달에 한번 소집되며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국, 조직국, 비서국 등등이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일상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있다. 우리들은 우리가 이처럼 이미 취한 방법을 끝까지 실시해야 할것이며 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 최고당대표자회의—중앙검열위원회의 참가하에 두달에 한번 소집하는—로 철저하게 전화시켜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중앙검열위원회는 재조직된 로농감독국의 기본적부분과 다음에 서술하는 조건밑에 결합되여야 할것이다.

나는 로동자, 농민들중에서 75명 내지 100명의 중앙검열위원회 신위원을 선출할것을 대회에 제의한다. 선출되는 사람들은 중앙위원회의 보통성원과 같이 당적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 하면 선출되는 사람들은 중앙위원회 위원의 일체 권리를 향유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타방으로 로농감독국은 그 사무원을 300명 내지 400명으로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인바 이들은 성실성에 관해서와 우리 국가기관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특별히 검열된 사람들이여야 하며 또한 로력일반을 특히 행정적, 사무적 로력 등등을 과학적으로 조직하는 제 기본에 대하여 그들이 정통하고있는가 하는데 관한 특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여야 한다.

나는 로농감독국과 중앙검열위원회와의 이와 같은 결합은 이들 두 기관에 모두 유익할것이라고 본다. 한편으로 로농감독국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적어도 우리 외무인민위원부에 못지않을만큼 위신이 높아질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중앙위원회는 중앙검열위원회와 함께 최고당대표자회의로 전화하는 방법을 철저히 취하게 될것이니 이것은 본질상 중앙위원회가 이미 취한 방법이며 또한 그가 자기의 과업을 두가지 점에서, 즉 그의 조직 및 사업상의 계획성, 합목적성, 체계성의 점에 있어서와 우리 로동자, 농민중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광범한 대중과 련계를 맺는 점에 있어서 옳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취하여야 할 방법이다.

나는 하나의 반대론을 예견하는바 이 반대론은 우리의 기관을 낡아빠진것으로 만들고있는 층으로부터, 즉 우리의 기관을 그가 현재까지 처해있는것과 똑같은 견디여낼수 없고 꼴사나운 혁명전 형태대로 보존해둘것을 지지하는자들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나오는것이다.(말하는김에 부언하거니와 우리들은 지금 근본적인 사회적전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확정하는, 력사상 상당히 드문 기회를 얻었으며 또 우리들은 5년간에 해낼수 있는것은 무엇이고 훨씬 더 많은 기간이 걸려야 하는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명백히 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반대론의 요점은 내가 제안하는 개혁으로부터는 한갖 혼란만이 일어날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중앙검열위원회 위원들은 어디다 무엇때문에 또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할것인지 알지 못하며 도처에 조직적해이를 가져오며 사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적인 사업과 유리시키는 등등의 일을 하면서 모든 기관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게 할것이라는것이다.

이 반대론의 간교한 본의는 너무나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서 답변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앙검열위원

회 상무위원회측으로서도 또는 로농감독인민위원 및 그의 참의회측으로서도(또한 해당한 경우에는 우리 중앙위원회 비서국측으로서도) 중앙검열위원회와 공동으로 자기의 인민위원부 및 그의 사업을 옳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업을 1년만 요하지 않으리라는것은 자명한바이다. 나의 의견 같아서는 모든 참의회가 그러한것 같이 로농감독인민위원은 중앙검열위원회 전 성원들—이들은 로농감독인민위원의 지시를 받도록 《파견된자》로 간주되게 될것이다.—도 포함한 전체 로농감독국의 사업에 대한 지도를 보유하면서 의연히 인민위원대로 남아있을수 있다.(또한 남아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남아있게 될 300명 내지 400명의 로농감독국직원은, 나의 계획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로농감독국의 기타 성원들 및 중앙검열위원회의 보조성원들의 지도밑에 순전히 서기적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이며 다른편으로는 고도로 숙련되였고 특별히 검열되였고 특별히 믿음직한자들—그들로 하여금 로농감독국관리의 현재의 참말로 불행한(좋게 표현해서)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많은 봉급을 받는—로 되여야 할것이다.

직원의 수를 내가 이미 지적한 수에까지 축소하는것은 로농감독국일군의 질도, 전체 사업의 질도 여러 곱절이나 개선하게 할것이며 동시에 인민위원과 참의회성원들로 하여금 사업의 조직과 그리고 그 질의 계통적이며 확고한 향상—로농정권에 대해서나 우리 쏘베트제도에 대해서 참으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향상—에 전적으로 힘을 집중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될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는바이다.

다른편으로 나는 역시, 로농감독인민위원은 우리 공화국에 지금 12개이상이나 존재하는 고급로동조직연구소들(중앙로동연구소, 과학적로동조직연구소 등등.)을 일부는 통합하며 일부는 서로 협력하여 사업하도록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

고 생각한다. 과도한 균일화와 이로부터 통합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은 다 유해할것이다. 오히려 여기서는 이 모든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것과 이들 매개 기관이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는 조건하에서 이들을 옳바르게 분계짓는것과의 사이에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인 절충적방법을 발견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의심할바없이 이와 같은 개혁으로부터는 우리 중앙위원회 자체도 로농감독국보다 못지않게 리득을 볼것인바, 즉 대중들과의 련계의 의미에 있어서도 또한 그의 사업의 정규성과 견실성의 의미에 있어서도 리득을 보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국회의—이 회의에는 일정한 기간으로 혹은 일정한 조직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수의 중앙검열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의 보다 더 엄격하고 책임적인 준비절차를 가져오게 될수 있을것이다.(또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로농감독인민위원은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와 공동으로 로농감독국위원들의 사업분공을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즉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러저러하게 정치국의 심의에 회부될 일체 문서를 심사하여야 할 그들의 의무의 견지에서, 또는 자기의 사업시간을 리론적준비와 과학적로동조직의 연구에 돌려야 할 그들의 의무의 견지에서, 혹은 최고국가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최하말단지방기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국가기관의 사업을 통제하며 개선하는데 실천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그들의 의무 등등의 견지에서 정하여야 할것이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중앙검열위원회 위원들이 이와 같은 개혁이 있은 조건하에서는 몇배나 더 실정에 정통하게 될것이며 정치국회의가 몇곱절이나 더 잘 준비될것이라는(정치국회의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는 늦어도 정치국회의가 있기전 1주야전에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에게 송달되여야 할것이다. 다만 절대로 조금도 유예할수 없는 경우

로서 그것이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특수한 절차와 특수한 결의절차를 요하는 경우는 례외이다.) 정치적리익이외에 또한 리득으로 보아야 할것은 우리 중앙위원회에 있어서 순전히 개인적이며 우연적인 사정들의 영향이 감소됨으로써 분렬의 위험성이 적어질것이라는 점을 나는 역시 생각한다.

우리 중앙위원회는 엄격히 중앙집권화된 그리고 위신높은 그루빠로 되였다. 그러나 이 그루빠의 사업은 그의 위신에 상응하는 조건에까지 올라서지 못하였다. 내가 제의하는 개혁안은 이 점에 대해서 방조를 줌에 틀림없을것이며 그리고 일정한 수로써 정치국의 매개 회의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중앙검열위원회 위원들은 한데 뭉친 집단을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 집단은 그 어느 누구의 권위도 그들이 질문을 하며 문건을 심사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정통하려고 하며 사업의 가장 엄정한 정확성을 얻으려고 하는것을 방해하지 못하게끔 《안면에 구애됨이 없이》 감시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쏘베트공화국에 있어서는 사회제도가 두 계급, 즉 로동자, 농민의 협력에 기초하여있는데 오늘날에는 일정한 조건밑에서 《네쁘만》, 즉 자산계급도 이러한 협력에 참가하는 것이 용허되여있다. 만일 이 계급들간에 중대한 계급적의견상이가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분렬이 불가피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제도에는 그와 같은 분렬의 기초가 필연적으로 가로놓여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의 주요과업은 우리 전당의 과업과 마찬가지로 분렬이 발생할수 있는 사정들을 세심히 감시하며 그것을 예방하는데 있다. 왜냐 하면 결국 우리 공화국의 운명은 농민대중이 로동계급과의 동맹에 대한 충실성을 보존하면서 그들 로동계급과 더불어 나아가느냐 또는 그들이 《네쁘만》, 즉 새로운 자산계급으

로 하여금 농민대중과 로동자들과를 리간하게 하며 농민대중과 로동자들과를 분렬하게 하는것을 허락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을것이기때문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두가지 결말을 더 명료하게 직시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로동자, 농민들이 이것을 더 명료하게 리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분렬—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파멸적인것일—을 피하는데 성공할 가망은 더욱더 클것이다.

1923년 1월 23일

1923년 1월 25일 《쁘라우다》 제16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쁘라우다》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36~440페지

적게 해도 좋으니 잘하라

우리의 국가기관을 개선할 문제에 있어서 로농감독국은 량을 추구하거나 덤벼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국가기관의 질에 대하여 너무나 적은 주의와 배려밖에 돌려오지 못하였기때문에 국가기관을 특히 진지하게 정돈하며 참으로 현대적수준을 가진 인재, 즉 서구라파의 우수한 모범에 뒤떨어지지 않는 인재를 로농감독국에 집중시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는것은 지당한 일일것이다. 물론 이 조건은 사회주의공화국 치고는 너무나 평범한것이다. 그러나 첫 5개년은 우리의 머리에 상당한 의혹과 회의를 주입하였다. 례컨대 소위 《무산계급문화》를 너무나 많이, 너무나 경솔하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 이러한 의혹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참다운 자산계급문화이면 충분할것이다. 처음에는 자본주의제도이전의 아주 형편없는 문화, 즉 관료적 또는 농노제적 등등의 문화가 아니면 될것이다. 문화문제에 있어서는 조급한 경향과 과도한 기세가 무엇보다도 유해하다. 우리들의 젊은 작가들과 공산당원들중의 많은 사람은 이것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국가기관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보다 더 천천히 전진하는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것이다.

우리의 국가기관의 형편은 싫증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

도 상당히 한심하기때문에 우리는 이 결점들이, 비록 전복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근절되지는 않았으며 이미 먼 과거의 문화단계로 물러가버리지 않은 그러한 낡은 사물에 뿌리박고있다는것을 알고 우선 이 결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것인가를 주의깊이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바로 문화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이러한 사업에서는 문화와 생활과 습관으로 화한것만을 우리는 성과라고 보아야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있는 사회제도상의 우점은 조금도 연구되여있거나 리해되여있거나 절실히 느껴지고있지는 않으며 그것은 급히 쟁취되였을뿐이며 검열되고 시험되고 경험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고화된것은 아니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혁명기에 있어서는, 그리고 5년동안에 우리들을 짜리제도로부터 쏘베트제도로 인도한 그러한 놀라운 정도의 발전속도하에서는 그럴수밖에 없었다.

제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모험적전진이나 온갖 자만 등등에 대하여는 깊은 의심을 품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가 시간마다 선포하며 분마다 실시하면서 다음에는 매초마다 그 약한 점과 견실치 못한 점과 알지 못할 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진을 검열하는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해로운것은 덤비는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로운것은 우리가 하여튼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진정한 새 기관, 명실이 부합되는 사회주의적기관, 쏘베트기관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는것이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관, 아니 그 인재조차 우스울 정도로 조금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관을 건설하는데는 시간을 아낄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해수를 소비하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인재들을 가지고있는가? 오직 두가지의 인재를 가지고있을따름이다. 첫째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열중하는 로동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교양이 부족하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기관을 건설해주려고는 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방법을 모르고있다. 그들은 그것을 할수가 없다: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관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습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에 필요한것은 바로 지식과 문화이다. 이 경우에는 억지로 강요되여 한다든가 민첩하게 또는 정력적으로 한다든가 혹은 그 어떠한 훌륭한 인간의 품성으로써 하고저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둘째로는 지식이 있고 교양과 훈련을 받은 인재가 그것인데 이 인재들은 우리 나라에는 다른 어떠한 나라에 비해서도 우스울 정도로 조금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또 잊지 말아야 할것은 우리는 왕왕 이러한 지식을 열성, 조급성 등등으로 대치하려는(또는 대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가기관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첫째로, 배워야 하며 둘째로, 배워야 하며 셋째로, 배워야 하며 다음으로는 우리의 학문이 죽은 문자로나 또는 류행적인 문구로(우리들에게 특히 이러한 일이 종종 있다는것을 엄폐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남아있지 않도록 또 학문이 실지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며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생활의 구성요소로 되도록 검열하여야 한다. 한마디로말하면 서구라파 자산계급이 제기하는 그러한 요구를 제기할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할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고있는 나라답고 또 그에게 알맞는 그러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술한바로부터 우리의 국가기관을 개선하는 도구로서의 로농감독국을 참으로 모범적인 기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로농감독국이 필요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번 재여 한번에 마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우수한것을 가장 큰 조심성과 사려와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민위원부 창설에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하에 있는 가장 우수한 분자들, 즉 첫째로, 선진로동자들, 둘째로는 빈말을 믿지 않으며 자기의 량심에 거슬리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들이 보장할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교양있는 분자들이 자기가 신중하게 내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곤난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투쟁도 두려워하지 않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벌써 5년동안 우리의 국가기관을 개선하기에 분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분망이였다. 그것이 무익하였다는것, 심지어 유해하였다는것이 5년간에 걸쳐 증명되였다. 이 분망은 일을 하고있다는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기관과 우리들의 두뇌를 어지럽히였다.

드디여 사태를 변경시켜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는 량은 적어도 좋으니 질적으로 높게 하라는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견실한 인재를 얻는데 하등의 가망도 없이 덤비는것보다는 2년 내지 3년이 걸리더라도 좋다는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겠다.

이 준칙을 준수하며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응시키는것은 매우 어렵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그와 상반되는 준칙이 수많은 간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잠입하여들어오리라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나는 이에 대한 대항이 굉장히 커야 할것이며 비상한 강의성이 발휘되여야 할것이며 또 적어도 첫 몇해동안은 이 분야에서의 사업이 지극히 곤난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며 또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쏘베트적, 사회주의적 공화국 및 기타 등등을 창전할수 있으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많은 독자들은 내가 이에 앞서 쓴 론문①에서 례증으로 인용한 수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수자가 매우 적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도 많이 인용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이러저러한 온갖 계산보다도 오직 하나, 즉 진정으로 모범적인 질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는것이 가장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야말로 드디여 우리의 국가기관을 최대한도로 신중히 연구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덤빈다는것보다 더 이 연구사업에 유해한것은 아마 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이러한 수자의 증가를 몹시 경계하려는것이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수자를 특히 깎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된다. 솔직히 말한다면 로농감독인민위원부는 현재 위신이 조금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로농감독국보다 더 잘못 조직된 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오늘날의 조건하에서는 이 인민위원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이 몇해동안에 첫째로, 모범적기관이며 둘째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을 얻으며 그리고 셋째로, 우리들이 중앙검열위원회와 같은 높은 기관의 사업을 실지로 감당해냈다는것을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 증시할수 있

① 이 책, 911~917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 그런 기관을 목적지향성있게 창설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직원수에 대한 모든 일반적규준을 즉시로 또 결정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특수한 방법을 적용하여 엄격한 고시를 거쳐 로농감독국직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실에 있어서 사업이 되는대로 진행되며 신망이 조금도 없으며 그 발언이 거의 아무런 위신도 없는 그러한 인민위원부를 설립해서 무엇을 한단말인가? 나는 우리가 지금 념두에 두고있는 그러한 개편사업에 있어서 주요하게 나서는 우리들의 과업은 이런 결점들을 퇴치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앙검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인입하려는 로동자들은 공산당원으로서 허물할 점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업방법과 과업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직 상당한 기간 그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의 보조원으로서 일정한 수의 서기를 두어야 할것인데 이 서기들은 임명되기전에 반드시 삼중의 검열을 받아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례외로서 곧 로농감독국사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할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있어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약간명의 공산당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우리 국가기관에 관한 지식을 검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셋째로, 그들은 우리 국가기관문제에 관한 리론적기초지식과 행정관리 및 사무기술의 기초지식을 검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넷째로, 그들은 우리가 이 기관전체의 사업을 보장할수 있도록 중앙검열위원회 위원 및 자기의 서기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하여야 한다.

이 요구는 비상하게 큰 조건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나는 로농감독국 《실천가》들의 대다수가 이 요구를 실천불가능한것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조소하여버리지나 않을가 하여 매우 우려한다. 그러나 나는 로농감독국의 어떤 현지도일군들에게나 또는 로농감독국과 관계하고있는 어떤 사람에게 묻는다. 로농감독국같은 인민위원부가 실지로 왜 필요한가를 과연 당신은 나에게 량심적으로 말할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들이 비교의 척도를 찾도록 도와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과거에 우리 나라에 흔히 있었던 재조직사업과 마찬가지로 로농감독국을 개편하는 이런 희망없는 사업을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만하고 곤난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여러차례의 검토를 가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그 존경이 다만 지위와 신분이 그것을 요구하기때문에가 아닌 참으로 모범적인 어떤 기관을 창립할 과업을 진정으로 자기앞에 내세우든가 둘중의 어느 하나일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것을 이겨낼 각오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이 사업을 몇해라도 계속할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그 일에 전혀 착수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나의 의견 같아서는 우리가 조직하여낸 고급로동연구소와 기타 기관들 가운데서 한두개 기관을 선택하여 이 기관들이 착실하게 사업하고있는가를 검토하고 이 기관들이 확실히 현대과학의 요구에 합치되는 동시에 또 그렇게 하는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해줄수 있다면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수개년이내로 우리는 자기의 사업을 감당할수 있는 기관, 즉 로동계급, 로씨야공산당 및 우리나라 주민전체의 신망을 받아가면서 체계적으로 부단히 우리의 국가기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수 있는 기관을 얻을수 있

으리라고 생각하는것도 공상으로 되지 않을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활동은 지금부터 착수할수 있을것이다. 만일 로농감독인민위원부가 이 재조직안에 동의한다면 이 인민위원부는 지금부터 준비사업을 개시하여 덤비지 않고 또 이미 수행한 일이라도 그것을 변경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이 과업을 철저히 완수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일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온갖 불철저한 결정은 극도로 유해하다. 기타의 어떤 리유에 근거하여 규정한 로농감독국 정원기준은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질상 낡은 관리식리유, 낡은 편견, 이미 비난받은것, 만인의 조소를 받는것 등등에 의하여 규정한것일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본질상 다음과 같이 나선다.

즉 우리는 오늘날 국가건설사업에서 진정하게 그 무엇인가를 배웠다는것을 증명하거나(5년동안에 무엇인가를 배웠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이 사업에 숙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나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인재로 말하면 그들이 적어도 인민위원부 하나쯤은 계통적으로 또한 새로이 건설할수 있으리만큼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여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인민위원부는 우리의 전체 국가기관의 표본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로동조직일반과 행정사무조직의 특별로동에 관한 교과서를 두권 혹은 그이상 곧 현상모집하여야 되겠다. 확실히 멘쉐위크주의를 동정하고있고 따라서 쏘베트정권에 적합한 교과서를 편찬하는데는 불적합하다는것을 부언해야 하지만 하여간 이미 우리가 가지고있는 예르만스끼의 책을 그 기본으로 사용할수 있을것이다. 다음에는 께르첸제브의 최근의 책을 기

본으로 삼을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분적인 참고서중에서 이러저러한것이 아직 사용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문헌을 수집하며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소양있는 성실한 사람을 독일이나 영국에 파견하여야 되겠다. 내가 영국이라고 하는것은 미국이나 카나다에 사람을 보낼수 없게 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로농감독국에서 직원후보자를 등용하며 중앙검열위원회에서 위원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요강을 작성하는 위원회를 내와야 하겠다.

이러한 일은 물론 로농감독인민위원이나 로농감독국 참의회 위원들이나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하등의 곤난도 가져오지 않을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검열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내와야 하겠다. 나는 모든 행정기관들에 있는 경험있는 일군들가운데서나 우리 쏘베트의 대학생들가운데서나 할것없이 이에 대한 후보자를 지금 얼마든지 발견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전후 량자중의 어느 하나를 미리 제외하는것은 전혀 옳지 못할것이다. 많은 질과 여러가지의 특징을 결합시켜야 할 이 기관은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는것이 가장 좋을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명단을 작성할 때 힘을 넣어야 한다. 례를 들면 새로운 인민위원부가 가령 선동적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교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일을 하는 일군들로서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사회층에도 들어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등등은 제외되고 다만 관리형의 사람들로만 일률적으로 구성된다면 그 이상 더 나쁜것은 없을것이다.

* * *

나는 나의 안이 학술적인 형의 기관들과 비교된다면 나의

사상이 보다 더 명백히 표현되리라고 생각한다. 중앙검열위원회의 성원들은 그의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정치국의 모든 문건을 체계있게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가장 소규모적이고 개별적인 기관으로부터 최고국가기관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각 기관에서의 공문서처리를 검열하기 위한 개개의 사업에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배정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업부류에는 반드시 리론의 연구, 즉 그들이 헌신하려는 사업의 조직리론의 연구가 포함되여있어야 하며 고급로동조직연구소 교원들이나 또는 선배동지들의 지도밑에서의 실습이 포함되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러한 학구적인 사업에만 국한되여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사업과 함께 무뢰한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놈들을 잡기 위한 준비 및 자기의 행동, 접근 등등을 엄폐하기 위한 특별한 계책의 안출이라고 감히 단언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하여 자기들을 훈련시켜두어야 할것이다.

서구라파의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제의가 무서운 분노와 도덕적분개심 등등을 일으킬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그러한 태도를 취할수 있으리만큼 관료주의화되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화를 낼만큼 우리 나라의 신경제정책은 아직 존경을 받게 되지는 못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쏘베트공화국이 창건된지 얼마 안되며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까닭에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약간의 계책을 써서, 때로는 상당히 먼 과거에 소급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상당히 우회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고 하여 화를 낼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새 로농감독국은 프랑스사람들이 pruderie라고 부르며 우리가 가소로운 체면 또는 가소로운 위엄이라고 부를수 있는 성질, 우리의 쏘베트와 당내의 관료주의에 극도로 유리한 그러한 성질을 제거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쏘베트기관에뿐만아니라 당기관에도 관료주의가 있다는것을 부언하여둔다.

나는 우에서 우리가 고급로동조직연구소 등등에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썼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그 《학습》을 조금이라도 학교식공부로 리해하고있다든가 혹은 나의 생각이 오직 학교식공부에 국한되여있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혁명가라면 누구나 다 이 경우에 내가 《학습》을 결코 어떤 롱담삼아 하는 장난이나 어떤 계책이나 어떤 간책이나 혹은 그와 류사한 그 무엇으로 리해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상하고 근엄한 서구라파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실로 공포를 불러일으킬것이며 체면이 있는 어느 한 관리도 이것을 문제로 삼는것조차 동의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은 아직 이렇게까지는 관료주의화되여있지 않으며 또 우리들간에 이러한 의견을 토론하여도 즐거움이외의 아무것도 환기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사실에 있어서 무엇때문에 유쾌한 일을 유익한 일과 결합시켜서 안되겠는가? 어떤 가소로운것이나 유해한것, 어떤 반쯤 가소로운것이나 반쯤 유해한것 등등을 폭로하기 위하여 어떤 롱담적 혹은 반롱담적인 계책을 써서 안될 리유가 어디 있는가?

나는 로농감독국이 이러한 리유를 따져본다면 적지 않은 리익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중앙검열위원회 혹은 중앙검열위원회의 로농감독국동료들이 그 혁혁한 승리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된 특수사건일람표가 고상하고 현학적인 교과서들에는 절대로 실리지 않는개소들에서 일어날 미래의 우리 《로농감독원》과 《중앙검열위원회성원》의 적지 않은 렵기적사건에 의하여 풍부하여질것이라고 생각한다.

*　*　*

당기관을 쏘베트기관과 어떻게 결합시킬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허용할수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

나는 이 문제를 나의 이름으로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들에게는 쏘베트기관에뿐만아니라 당기관에도 관료주의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에서 암시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기한다.

참으로 사업의 리익이 그것을 요구할진대 이 량자를 결합시켜서 안될 리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결합을 실천하고있는 외무인민위원부의 실례에서 이러한 결합이 비상한 리익을 가져오고있다는것을 누구나 다 보지 않았던가? 우리는 정치국에서 외국의 《계책》에 대치하여 례컨대 그들의 간책—실례의 말을 쓰지 않고 말한다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계책》에 관한 수많은 대소문제를 당적견지에서 토의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쏘베트기관과 당기관의 신축성있는 결합이 우리 정책에서의 비상한 힘의 원천이 아닌가? 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대외정책에서 실증되고 공고화되였고 이미 일상화되여 이 분야에서는 하등의 의문도 일으키지 않고있는만큼 우리들의 전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적어도 같은 정도로는 합당하리라고 생각한다.(아니 일층 더 합당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로농감독국은 또 우리들의 전 국가기관을 위해서 사업하여야 하며 그 활동도 지방, 중앙, 상업, 순전한 사무, 교육, 문서보관, 극장 등등의 기관, 한마디로말하면 조그마한 례외도 없이 모든 국가기관에 미쳐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이렇게 광범하고 그외에도 활동형태의 비상한 신축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을 위해서 당검열기관과 쏘베트검열기관과의 독특한 합병이 허용되지 못할 리유가 어디 있는가?

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하등의 장해도 볼수가 없다. 그뿐만아니라 나는 이러한 합병이 성과적사업에 대한 유일한 담보로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점에 관한 모든 의문은 우리 국가기관의 가장 어지러운 구석에서 나올수 있는것이며 그런 의문에 대하여는 오직 하나, 즉 조소로써 대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또 한가지의 의문이 있다. 즉 교육사업과 공무사업을 결합시키는것이 적당한가 하는 그것이다. 나는 그것이 비단 적당할뿐만아니라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은 서구라파의 국가제도에 대하여 혁명적인 태도를 취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의 가장 유해하고 가소로운 여러가지 편견에 감염되였는데 이 감염은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친애하는 관료주의자들이 이러한 편견의 흐린 물에서 재삼 고기를 잡을수 있으리라는 투기적기대를 품고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감염시킨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흐린 물에서의 고기잡이를 어찌나 발광적으로 하였던지 우리들가운데서 소경만이 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의 각 부면에 있어서 우리들은《굉장히》혁명적이다. 그러나 위계복종 또는 사무집행상의 형식과 수속의 준수와 같은 부면에 있어서는 우리의《혁명성》은 언제나 가장 진부한 인습과 교체된다. 이 부면에도 우리는 사회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대 전진을 가져오는 한편

조그마한 변화에 대한 놀랄만한 소심성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있는 현상을 늘 볼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리해할수 있는 일이다. 왜냐 하면 가장 대담한 전진은 오래전부터 리론의 연구대상을 이루고있던 분야에서 또 주로 아니 완전히 리론적으로 론증된 분야에서 이루어졌기때문이다. 로씨야사람들은 가증스러운 관료생활을 염오하면서 자기 집에서 비상히 대담한 리론건설에 종사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이와 같이 비상히 대담한 리론건설사업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극히 일면적인 성격을 띠여왔다. 우리 나라에는 일반적리론건설에 있어서의 대담성이 사무상의 극히 사소한 개혁들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소심성과 병존하여왔다. 극히 위대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토지혁명을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찌기 보지 못한 대담성으로써 수행하였으나 극히 차요한 사무개혁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부족하였으며 일반적인 문제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둔 이 일반적인 명제를 이러한 개혁에 적용하려는 상상력 혹은 인내심이 부족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오늘날의 생활은 극도로 대담한것을 가장 사소한 변화에 대한 사색의 소심성과 놀랄만큼 결합시키고있다.

나는 참으로 어느 한 위대한 혁명에 있어서도 다르게는 될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참으로 위대한 혁명은 낡은것들사이의 모순에서, 낡은것을 부식하려는 경향과 낡은것의 단편이 이미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것에 대한 극히 추상적인 지향과의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혁명이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그러한 허다한 모순은 더우더 오래 지속될것이다.

* * *

오늘날 우리 생활의 일반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는 자본주의적산업을 파괴하고 중세기적제도, 지주적토지소유제도를 근본적으로 소탕하기에 노력하였으며 그 토대우에 무산계급의 혁명적활동의 결과를 신임하고 무산계급의 뒤를 따르는 소농과 령세농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임만 가지고는 보다 더 발전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존립을 유지한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것이다. 왜냐 하면 소농과 령세농은 특히 신경제정책하에서는 경제적 필연성에 의하여 극히 낮은 수준의 로동생산능률에 머물러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국제정세도 역시 오늘날 로씨야가 락후하게 되였다는 사실과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의 인민로동의 생산능률이 전쟁전 수준보다 훨씬 저하되였다는 사실을 초래하였다. 서구라파자본주의렬강은 부분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을 락후하게 만들며 우리 나라를 될수 있는대로 더 많이 령락시키기 위하여 로씨야에서의 국내전쟁의 요소를 리용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제국주의전쟁을 결속시키는것이 극히 유리하다고 인정하였다. 즉 자기들이 설혹 로씨야의 혁명제도를 전복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 혁명제도가 사회주의에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강국들은 대체로 이렇게 타산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견지에서는 다르게 타산할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과업을 절반 완수하였다. 그들은 혁명에 의하여 창설된 새 제도를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새 제도가 곧 사회주의자들의 예언을 실증하는 일대 전진을 이룩할 가능성도 주지 않았다. 이 전진은 생산력을 비상한 속도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시키며 사회주의는 자체내에 거대한 힘을 가지고있고 인류가 이제는 비상히 찬란한 전망을 가지고있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만인에게 명백

하게 보여줄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주의자들에게 주는것이다.

현재 조성되여있는 국제관계를 보면 구라파에서 한 나라가 전승국가들에게 예속되여있는데 그것은 곧 독일이다. 그리고 서구라파의 일련의 국가들, 특히 가장 낡은 국가들은 승리로 인하여 자국의 피압박계급들에 대하여 일련의 대수롭지 않은 양보—비록 대수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을 지연시키며 그 어떤 《사회적평화》와 류사한 정세를 창조하게 하는 양보—를 위해서 이 승리를 리용할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동방의 일련의 나라들, 즉 인도, 중국 등등은 바로 지난 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궤도에서 탈선하게 되였다. 이 나라들의 발전은 전적으로 전 구라파적인 자본주의적길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전 구라파적 파동이 이 나라들에서 시작되였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세계자본주의전반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는 발전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은 오늘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닥치고있다. 즉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의 그들의 발전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소농적 및 령세농적 생산의 조건하에서 또한 우리들의 오늘의 령락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존립을 유지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사회주의에로의 발전과정이 우리가 이전에 기대한것과 같이 완성되지는 않을것이다. 그들은 그들 내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균등적《성숙》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전쟁시기에 패전한 나라들중에서 첫번째 나라를 착취하며 게다가 동방전체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의 발전을 완성하고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동방은 바로 이 제1차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혁명운동에

들어섰으며 또 결정적으로 전 세계 혁명운동의 전반적소용돌이에 인입되였다.

이러한 정세에 비추어 우리 나라는 어떠한 전술을 써야 하는가? 두말할것도 없이 다음과 같은 전술을 써야 한다. 즉 우리는 극히 신중하게 우리의 로동자정권을 유지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소농과 령세농들 속에서의 로동자정권의 권위와 그 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측에는 전 세계가 현재 전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발생시키고야말 그러한 운동에 들어서고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또 우리측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전체를 두 진영으로 분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뿐만아니라 이 분렬은 참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선진적문명국가인 독일이 오늘날 일어서기가 극히 곤난하다는 사실에 의하여 더욱 복잡하여지고있다는 불리한 점도 있다. 소위 서방의 전체 자본주의렬강은 독일을 쪼아먹고있으며 독일의 재생을 방해하고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생활난에 처하여있는 수억의 피착취근로대중을 가지고있는 전체 동방은 그 물리적 및 물질적 힘이 서구라파에 있는 어떤 훨씬 더 작은 나라의 물리적, 물질적 및 군사적 력량과 도저히 비교할수 없을만한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제국주의국가들과의 충돌을 피할수 있겠는가? 서방과 동방의 반혁명진영의 내부적모순, 동방과 서방의 착취자진영의 내부적모순, 일본과 미국간의 모순은 로씨야의 반혁명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서구라파반혁명의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다. 오늘 서방과 동방의 날로 강대하여지고있는 제국주의국가들의 내부적 모순과 충돌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제국주의국가들과의 충돌을 지연시키는 기회를 다시한번 우리에게 줄수는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는 나는 이 문제해결이 너무나 많은 사

정에 달려있으며 또 자본주의자체가 결국은 지구의 대다수의 주민을 투쟁에로 훈련육성시키고있다는 사실에 립각함으로써만 전반적으로 투쟁의 결말이 예측될수 있다고 대답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투쟁의 결말은 어디까지나 로씨야, 인도, 중국 등등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최근년간에 바로 이 대다수의 주민이 비상한 속도로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인입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투쟁의 종국적해결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하여는 털끝만한 의심도 있을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완전히 또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여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는것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이 불가피성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는것은 서구라파의 반혁명국가들이 우리를 분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로씨야공산당과 우리 로씨야의 쏘베트정권이 견지하여야 할 그 전술인것이다. 반혁명적제국주의적서방과 혁명적민족주의적동방간에, 즉 세계의 가장 문명한 나라들과 동양적으로 락후한 그러나 다수를 이루고있는 나라들간에 다음번 군사적충돌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존립을 보장하려면 이 다수가 문명화하는데 성공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도 비록 사회주의에로 직접 이행할수 있는 정치적전제조건들은 있지만 그것을 위한 문명은 역시 부족하다. 우리들은 자기 구원을 위하여 그와 같은 전술을 견지하든가 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로동자들이 농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령도, 자기들에 대한 농민들의 신망을 보존하며 또 최대한의 절약으로써 자기의 사회관계에서 온갖 랑비현상을 흔적도 없이 청산할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기관이 최대한의 절약을 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짜리로씨야 및 그 자본주의적관료기관으로부터 그렇게도 많이 물려받은 모든 랑비의 흔적들을 전부 퇴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적협애성이 아니겠는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를 보존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 어떤 미소한 축적이라도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대규모적기계공업의 발전과 전기화 및 수압식니탄채굴작업의 발전과 월호브강수력발전소의 완공 등등을 가능케 할것이다.

여기에 또 오직 여기에만 우리의 기대가 있는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을 저 말로, 즉 농민적이고 농부적이며 빈궁해진 말, 령락된 농민국가에 기대를 건 절약의 말로부터 무산계급이 탐구하고있으며 또한 탐구하지 않을수 없는 말, 즉 대규모적기계공업, 전기화, 월호브강발전소건설 등등의 말로 바꾸어탈수 있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내 머리속에서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정책, 전술, 전략 등등의 전반적계획을 개편된 로농감독국의 과업과 련결시키고있다. 우리가 로농감독국에 비상한 배려와 비상한 주의를 돌리며 그의 지위를 비상히 높이며 그의 지도일군이 중앙위원회의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리유는 오직 우리 기관을 철저히 정화함으로써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것을 가급적으로 축소함으로써만 우리가 존립을 유지하게 될것이라는데 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존립을 소농국가의 수준에서나 또는 이러한 전반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가 아니라 부단히 전진하며 대규모적기계공업에로 부단히 장성하는 수준에서 유지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동경하고있는 로농감독국의 숭고한 임무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로농감독국을 위하여 가장 위신있는 당상층부와 《보통》인민위원부와의 합병을 계획하고있는 원인으로 된다.

1923년 3월 2일

1923년 3월 4일 《프라우다》
제49호에 게재

서명: 엔.레닌

《프라우다》원문에 의하여 인쇄, 속기록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41～455폐지

주 해

1 《쁘라우다》(《*Правда*》)는 레닌의 지시에 좇아 쓰딸린의 발기로 창간된 볼쉐위크의 합법적일간신문으로서 1912년 5월 5일 뻬제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쁘라우다》는 대중적인 로동자신문으로서 로동자들의 의연금에 의하여 발행되였다. 《쁘라우다》는 많은 로동자통신원과 로동자작가를 가지고있었다. 《쁘라우다》는 한해동안에만 해도 1만 1,000여편의 로동자통신을 실었다. 《쁘라우다》의 발행부수는 매일 평균 4만부인데 어떤 달에는 매일 평균 6만부에 달하였다.

당시 볼쉐위크는 쁘라우다파로 불리웠다. 쓰딸린은 《1912년의 〈쁘라우다〉는 1917년의 볼쉐위크주의의 승리에 기초를 닦아주었다.》고 말하였다.

레닌은 국외에서 《쁘라우다》의 사업을 지도하면서 거의 매일 신문에 글을 쓰고 편집부에 지시를 주었다. 쓰딸린은 1912년 9월 나림류형지에서 탈주한후 《쁘라우다》의 지도사업에 참가하였다. 1913년 1～2월에는 야. 엠. 스웨르들로브가 이 신문의 편집을 담임하였다. 1913년 2월에 쓰딸린은 스웨르들로브와 함께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쁘라우다》편집부를 재조직하였다.

《쁘라우다》는 창간된후의 2년 남짓한 동안에 8차나 짜리정부에 의하여 폐간되였다. 그러나 폐간되였을 때마다 이 신문은 《로동자쁘라우다》, 《북방쁘라우다》, 《로동쁘라우다》, 《진리옹호》, 《무산계급쁘라우다》, 《진리의 길》, 《로동자신문》, 《로동의 진리》 등 다른 명칭으로 계속 발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야인 1914년 7월 21일에 《쁘라우다》는 폐간되였다. 2월혁명후 1917년 3월 18일부터 《쁘라우다》는

복간되여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의 중앙기관지로 되였다. 3월 28일, 중앙위원회 상무국확대회의에서는 쓰딸린을 《쁘라우다》 편집부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레닌은 1917년 4월에 로씨야로 돌아온후 《쁘라우다》를 직접 지도하였다. 7월사변후 레닌이 지하로 들어감에 따라 쓰딸린이 신문의 책임편집을 담당하였다. 1917년 7~10월기간에 림시정부의 박해로 하여 《쁘라우다》는 《〈쁘라우다〉 소형신문》, 《무산자》, 《로동자신문》, 《로동자의 길》 등으로 4차나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발행되였다. 11월 9일부터 신문은 다시 《쁘라우다》라는 옛이름으로 발간되였다. —2, 546, 565, 720페지

2 **립헌민주당**은 로씨야의 주요한 자산계급정당인 자유주의군주파자산계급의 정당으로서 1905년 10월에 창립되였다. 지도자는 빠. 엔. 밀류꼬브였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가장하고 《인민의 자유》당으로 자처하면서 농민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립헌군주제의 형식으로 짜리제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후 립헌민주당은 제국주의-자산계급정당으로 전락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 반혁명적 음모활동과 폭동을 조직하였으므로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분쇄되였다. 쏘베트정부는 1917년 12월에 립헌민주주의자들을 인민의 공동의 원쑤라고 선포하였다. —11, 30, 157, 259, 698, 719, 736, 739, 829페지

3 **사회혁명당**은 로씨야의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1902년초에 몇개의 각이한 인민과 단체와 소조들이 통합되여 이루어진것이다. 사회혁명당은 부농계급의 리익을 대표하였다. 사회혁명당원들의 견해는 인민주의와 수정주의가 절충된 혼합물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인민주의의 결함들을 맑스주의에 대한 류행식기회주의적〈비판〉의 쪼각지들로 미봉하려고 애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295페지를 보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17년, 2월자산계급민주혁명후 사회혁명당원들은 멘쉐위크, 립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반혁명림시정부의 주요골간으로 전락되

였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지주토지소유를 폐절하려는 농민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보존할것을 주장하였다.

1917년 12월, 사회혁명당원좌익들은 자립적좌익사회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은 겉으로는 쏘베트정권을 승인하고 볼쉐위크와 협의를 달성하였으나 인차 또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무력간섭 및 내전 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수차 부농반란을 획책하고 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지도자들을 암해하기 위한 반혁명적음모를 책동하였다. 내전이 끝난후 사회혁명당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감행하여오다가 나중에는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분쇄되고말았다. —11, 30, 58, 90, 104, 129, 156, 189, 210, 248, 432, 486, 508, 612, 629, 645, 658, 663, 714, 722, 737, 773, 787, 825페지

4 반혁명간첩파괴조직인 《민족중심》이 뻬뜨로그라드를 팔아먹으려 획책한 음모활동을 가리킨다. 이 간첩조직에는 립헌민주주의자,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이 참가하였다. 《민족중심》은 외국간첩기관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였다. 1919년 6월 13일 음모자들은 크라스나야고르까포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당중앙의 위임에 의하여 당시 뻬뜨로그라드전선에 있던 쓰딸린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쏘베트군대는 재빨리 반란을 평정하였다. —11, 30페지

5 **베른국제당**은 원래 제2국제당에 참가하였던 일부 사회배외주의정당과 중앙파정당들이 이미 파산된 제2국제당을 회복하기 위하여 1919년 2월 베른회의에서 건립한 련맹이다. 레닌은 베른국제당을 《**국제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의 조직**》(《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459페지를 보라.)이라고 하였다. —13페지

6 **싸도와전투**는 1866년 7월 3일 오지리군 및 작센군을 일방으로 하고 프로씨아군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스꼬에서 진행된 전투이다. 이것은 1866년의 프로씨아-오지리전쟁에서 결정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는 프로씨아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는 력사상 쾨니히그레쯔(현재의 흐라데쯔-크랄로웨)전투로도 알려져있다. —17페지

7 맑스의 《자본론》, 한문판, 제1권, 제8장, 제7절을 참조하라. —22 폐지

8 1919년 3월 16일에 인민위원회는 법령을 반포하여 소비협동조합을 재조직한 동시에 소비협동조합의 명칭을 《소비꼼뮨》으로 고쳤다. 그러나 이 명칭은 법령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약간한 오해를 일으켰다. 이것을 고려하여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1919년 6월 30일의 결의에서 상술한 법령에 동의한외 《소비꼼뮨》이란 명칭을 인민들에게 습관된 《소비협동조합》으로 고치기로 결정하였다. —26폐지

9 **로씨야재생동맹**은 1918년에 립헌민주주의자, 인민사회당원, 우익사회혁명당원, 멘쉐위크로 이루어진 반혁명조직이다. 이 조직은 외국 대사관 및 간첩기관과 직접 련계가 있었다. 재생동맹은 무력으로써 쏘베트정권을 뒤엎고 자본주의제도를 재생시키려고 망녕되게 시도하였다. —45폐지

10 **열성자**들은 멘쉐위크의 극우익집단이다. 그들의 강령은 사회주의혁명이 로씨야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로동계급은 사회주의혁명으로써가 아니라 사회개량의 방도로써 자신의 지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집단은 볼쉐위크당을 극히 적대시하였는바 10월사회주의혁명의 첫시작부터 쏘베트정권과 볼쉐위크당을 소멸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방법을 쓰지 말고 무력투쟁의 수단을 쓸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종 반혁명음모조직에 가입하였고 끄르닐로브, 깔레진, 자산계급민족주의적우크라이나라다를 지지하였으며 체스꼬백위군의 반란에 적극 참가하였고 외국간섭자의 군대와 결탁하였다. 열성자들의 대표적인물은 리베르, 뽀뜨레쏘브 등이였다. —50폐지

11 레닌은 스웨르들로브공산주의대학에서 국가에 관하여 두번 강의하였다. 1919년 8월 29일의 제2차강의기록은 보존되여있지 않다.

야. 엠. 스웨르들로브공산주의대학의 전신은 1918년에 성립된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선동원및지도원훈련반이다. 이 훈련반은 후에 쏘베트사업학교로 고쳐졌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에서 당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중앙고등학교를 성립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후 이 학교는 중앙쏘베트사업및당사업학교로 고

처졌다. 1919년 하반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조직국의 결정에 의하여 중앙쏘베트사업및당사업학교는 야. 엠. 스웨르들로브공산주의대학으로 개칭되였다. —55폐지

1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1～175폐지를 보라. —59폐지

13 스파르타쿠스파(국제당그루빠)는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성립된 독일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혁명조직이다. 스파르타쿠스파의 창시자 및 지도자들은 카. 립크네히트, 에르. 룩셈부르그, 에프. 메링, 께. 쩨트킨 등이였다. 1915년 4월에 룩셈부르그와 메링은 잡지 《국제당》을 창간하여 대부분의 독일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을 그의 주위에 단결시킴으로써 국제당그루빠를 형성하였다. 국제당그루빠는 1916년부터 스파르타쿠스라는 서명으로 《정치통신》을 출판하였는데 이로 하여 스파르타쿠스파라고도 불리우게 되였다. 1917년 4월에 이 그루빠는 독일중앙파독립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나 조직상에서는 독립되여있었다. 1918년 11월, 독일혁명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파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을 결성하였다. 11월혁명후 스파르타쿠스파는 《독립파》들과 결렬하고 그해 12월에 독일공산당을 건립하였다.

스파르타쿠스파는 대중속에서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선전을 진행하여 독일제국주의의 략탈정책 및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적지도자들의 반역행위를 폭로하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파—독일좌파는 일부 중대한 리론문제와 정책문제에서 절반 멘쉐위크주의적오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절반 멘쉐위크주의적인 제국주의리론을 발휘하였으며 민족자결에 관한 맑스주의원칙(즉 분리 및 독립국가형성에 이르기까지의)을 부인하였으며 제국주의시대에서의 민족해방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며 혁명적당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운동의 자연생장성을 숭배하였다. 독일좌익의 오유에 대한 비판은 레닌의 저서 《유니우스의 소책자에 관하여》, 《맑스주의에 대한 풍자와 〈제국주의적경제주의〉에 관하여》(본 선집, 제2권, 1067～1085폐지,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18～72폐지를 보라.) 등과 쓰딸린의 서한 《볼쉐위크주의력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76～

91페지를 보라.)에 제시되여있다. —68, 253페지

14 **당주간**은 당조직을 확대하며 로동자 및 로농청년을 당에 받아들일데 관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거행되였다. 1919년 8월 10~17일에 뻬뜨로그라드당조직에서 맨먼저 당주간을 거행하였고 그후 모스크바성당조직에서 9월 20~28일, 모스크바시당조직에서 10월 8~15일에 륙속 당주간을 거행하였다. 1919년 9월 26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전원회의는 기타 각 도시, 농촌, 군대에서 당주간을 거행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당시 당에 받아들인 사람은 20여만명이였다. —104, 108페지

15 **당원재등록**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1919년 5월—9월말기간에 실시되였다. 10월혁명후에 입당한 당원들에 대하여 특수한 검사방법을 취하기 위하여 결의는 전체 당원들에 대하여 한차례 보편적등록을 진행할것을 규정하였다. 재등록을 진행하기 위하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지시를 작성하였다. 그 지시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재등록을 진행하는 목적은 비공산주의자, 주요하게는 집권당의 처지를 보아 당에 잠입한자와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당원의 칭호를 리용하는자를 당에서 축출하려는데 있다.》 —104페지

1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46~147페지를 참조하라. —126페지

17 **동방 각 민족 공산주의조직 제2차전로대회**는 1919년 11월 22일—12월 3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전날(11월 21일)에 레닌은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예비회의를 가지였다. 대회에는 약 80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뚜르께스딴, 아제르바이쟌, 히와, 부하라, 끼르기즈, 따따르, 츄와쉬야, 바슈끼르, 깝까즈 등의 이슬람민족공산주의조직의 대표들이였다. 쓰딸린이 개회사(《쓰딸린전집》, 한문판, 제4권, 248~249페지를 보라.)를 하였고 레닌이 대회 첫날에 현정세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동방 각 민족 공산주의조직 중앙상무국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하였으며 새로운 상무국을 선거함과 아울러 동방의 당조직과 쏘베트의 과업을 확정하였다. —127페지

18 **헌법제정회의위원회**는 백파와 사회혁명당원들의 반혁명정부로서 1918년 6월 외국무력간섭자들의 지지밑에 싸마라에서 창립되였다. 1918년 9월, 반혁명적《우파정부》가 성립된후 헌법제정회의위원회는 《헌법제정회의위원대회》로 개칭되였다. 련합국제국주의자들의 괴뢰인 꼴차크가 최고집권자로 된후 1918년 12월초에 헌법제정회의위원대회를 해산하였다. —129페지

19 **제1차농업꼼뮨및농업로동조합대회**는 농업인민위원부가 소집하였으며 1919년 12월 3～10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140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는데 그중 93명은 공산당원이였다. 레닌은 대회 이튿날에 연설하였다. 대회는 근로생산농업조직(꼼뮨과 로동조합)전로동맹규약을 채택하였다. 그 규약은 후에 농업인민위원부에 의하여 비준되였다. —143페지

20 **10억루블의 기금**은 《농업을 개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원칙우에서 신속히 개조할 목적으로》란 1918년 11월 2일부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되였다. 이 기금에 의한 보조금과 대부는 농업꼼뮨, 조합 및 집단적인 토지경작에로 이행하는 농촌 협회와 소조에 제공하였다. —143페지

21 **《사회주의적경지정리 및 사회주의적농업에로의 이행방도에 관한 규정》**은 1919년 2월에 전로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였다. 레닌은 이 규정의 작성 및 편집에 직접 참가하였다. 규정에는 사회주의적원칙에 립각한 농업의 개조, 농업생산능률의 제고 및 경지면적의 확장에 관한 일련의 실천적인 방책들이 지적되였다. —143페지

22 **인민사회당**은 1906년에 성립된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사회혁명당우익으로부터 갈라져나온 사회혁명당원들로 구성되였다. 이 당은 립헌군주제범위내에서의 온화한 민주주의적요구를 제기하였다. 인민사회당원들은 토지사회화에 대한 사회혁명당원들의 강령적원칙을 거부하고 속매하는 방법으로 지주의 토지를 징수할것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인민사회당원들을 《소시민적기회주의자》, 《사회립헌

민주당원》, 《사회혁명당멘쉐위크》라고 불렀다. 인민사회당의 지도자들로는 아. 웨. 뻬쉐호노브, 웨. 야. 먀꼬찐, 엔. 에프. 안넨스끼 등이였다.

2월자산계급민주혁명후 인민사회당은 자산계급림시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반혁명진영으로 넘어갔다. —157, 787페지

23 **통일파**는 멘쉐위크조국방위주의파의 극우익집단으로서 1917년 3월에 성립되였다. 그 지도자들로는 게. 웨. 쁠레하노브, 게. 아. 알렉센스끼, 이전의 취소파인 아. 페. 부리야노브 및 엔. 이. 요르단스끼였다. 통일파는 자산계급림시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서 제국주의전쟁을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진행할것을 주장하고 흑백단분자들과 결탁하여 볼쉐위크당을 발광적으로 공격하였으며 10월혁명과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였다. 1918년 여름에 통일파는 조직적으로 해체되였다.

통일파는 1917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통일》지를 발간하였으며 1917년 12월부터 1918년 1월까지의 기간에는 또 다른 명칭으로 발간되였다. —157페지

24 **독일독립사회민주당**은 중앙파의 당으로서 1917년 4월에 창건되였으며 그 지도자는 카우쯔키였다. 이 당의 주요부분은 카우쯔키주의의 조직인 《근로친선그루빠》였다. 《독립파》는 공공연한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단결》을 선전하며 그들을 옹호, 비호하고 계급투쟁의 포기를 주장하였다.

1920년 10월 할레에서 열린 독립사회민주당대회에서 분렬이 생기였다. 그 많은 부분은 1920년 12월에 독일공산당과 합병하였다. 우익분자들은 따로 당을 조직하여 독립사회민주당이라는 낡은 명칭을 그냥 보전하였다. 이 당은 1922년까지 존속하였다. —162, 221, 248, 283, 401, 432페지

25 **프랑스의 사회당**은 1902년에 쬬레스파에 의하여 창건된 개량주의적당이다. 1905년에 프랑스의 사회당은 게드파에 의하여 1901년에 창건된 프랑스사회당과 합병하여 통일적사회당을 구성하였다. 이 당에는 사회주의 당파들과 단체들의 성원들(게드분자, 블랑끼분자, 쬬레스분자 등)이 가입하였다. 통일된 프랑스의 사회당의 지

도권은 당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은 죠레스를 위수로 한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당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는바 그의 국회대표단은 군사비용지출에 찬성투표하였으며 그의 대표는 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하였다. 1920년 12월 25～30일에 열린 뚜르대회에서 프랑스의 사회당은 분렬되여 다수파는 프랑스공산당을 구성하였고 리앙 블룸을 위수로 한 우경기회주의소수파는 대회에서 퇴출하여 독립적인 정당을 구성하였는데 그 이름은 여전히 프랑스의 사회당이라고 불렀다. —162, 401, 432페지

26 1870년 12월 13일부 엘. 쿠겔만에게 보내는 맑스의 서한을 참조하라.(《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92페지). —165페지

27 맑스의《루이 보나빠르트의 안개달 18일》과 맑스의《프랑스국내전쟁》, 독일문판, 제3판을 위해 쓴 엥겔스의 서론을 참조하라(《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876～880페지, 한문판, 제2권, 334～336페지)—170페지

28 1918년 1월에 핀란드의 남방공업지대에서 무산계급혁명이 폭발하였다. 1918년 1월 28일에 핀란드적위대가 핀란드의 수도 헬싱포르스를 점령하였다. 1월 29일에 헬싱포르스에서 혁명적정부인 핀란드인민대표위원회(또는 핀란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부농과 부유농민들의 북부핀란드를 반혁명의 기지로 만들고 백위군을 조직하는데 성공한 자산계급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적위대들을 공격함으로써 국내전쟁을 도발하였다. 핀란드로동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창건된 적위대는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나 그들의 항쟁력은 핀란드사회민주당의 반역적전술로 하여 약화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핀란드에는 아직 혁명적무산계급당이 없었다. 1918년 5월에 무산계급혁명은 핀란드백위군 및 독일군대의 련합진공에 의하여 가혹하게 탄압되였다. 핀란드에는 백색테로가 횡행하였으며 수만명의 혁명적로동자들이 참혹히 학살당하였다.

로씨야10월혁명의 승리와 제1차세계대전가운데서의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의 전멸은 웽그리아의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앙양을 촉진시켰다. 1918년 10월 30～31일에 웽그리아에서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났고 1918년 11월에는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1919년 3월 21일에는 웽그리아쏘베트공화국의 창건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였다. 웽그리아쏘베트정권은 국내반혁명세력과 결탁한 제국주의의 무장간섭에 의하여 1919년 8월 1일에 전복되였다. —182, 215, 339페지

29 **롱게파**는 1915년에 형성된 프랑스의 사회당내의 소수파이며 사회개량주의자 롱게의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중앙파의 견해를 고집하고 사회배외주의자들과 타협적정책을 실시하였다. 프랑스의 사회당내의 롱게를 대표자로 하는 이런 기회주의사조는 롱게주의로 불리웠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롱게파는 사회평화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로씨야10월혁명이 승리한후에 롱게파는 말로는 무산계급독재를 옹호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의 원쑤였다. 그들은 사회배외주의자들에 대한 타협정책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략탈적인 베르싸이유강화조약을 지지하였다. 1920년 12월에 뚜르에서 열린 프랑스의 사회당대회에서 좌익이 승리하자 롱게파는 공개적인 개량주의자들과 함께 그 당에서 탈퇴하고 소위 제2절반국제당에 가담하였다가 제2절반국제당이 붕괴된후에는 다시 제2국제당에 돌아왔다. —184, 221, 247, 378페지

30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시대표자회의**는 1919년 12월 20~21일에 진행되였다. 회의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1) 전로당대표자회의에 관하여, (2) 연료문제에 관하여, (3) 토요로동에 관하여, (4) 발진티브스 및 그 예방조치에 관하여, (5) 모스크바의 량식사정에 관하여, (6) 보편적군사훈련과 특별과업부대에 관하여. 회의는 토요로동에 관한 레닌의 보고에 의하여 결의를 채택하고 토요로동의 거대한 의의를 힘주어 지적하였으며 토요로동을 공산주의를 실천적으로 실시하는 첫걸음이라고 인정하였다. —186페지

31 **투쟁파**는 우크라이나좌익사회혁명당원들이 1918년 5월에 창립한 소자산계급적민족주의정당의 성원으로서 그 당의 중앙기관지인 《투쟁》지에 의하여 명명되였다. 1919년 3월에 우크라이나사회혁명공

산당(투쟁파)이라는 이름을 취하였고 8월에 우크라이나공산당(투쟁파)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1920년 3월에 우크라이나농민대중들속에서 볼쉐위크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투쟁파는 그들의 당을 해산하고 우크라이나공산당(볼쉐위크)과 합병하였다. 우크라이나공산당(볼쉐위크) 제4차대표자회의는 투쟁파의 입당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입당시킨 투쟁파성원전체를 재등록하였다. 적지 않은 투쟁파성원은 숨어있는 원쑤라는것이 그후에 밝혀졌다.—198페지

32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자유자산계급신문인 《뉴욕석간》 베를린주재대표가 무선전신으로 레닌에게 전해보낸것이다. 레닌의 답전은 무선전신으로 베를린에 전달되고 1920년 2월 21일 베를린에서 뉴욕에 전달되였다. 《뉴욕석간》은 그날 밤으로 레닌의 답전을 게재하였다. 독일 공산당과 사회당의 간행물들도 레닌의 답전을 전재하였다. —203페지

33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9차대회**는 1920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61만 1,978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554명의 결의권을 가진 대표와 162명의 발언권을 가진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주로 경제건설에 관한 문제가 취급되였다. 의정은 다음과 같았다. 1.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2. 경제건설의 당면과업, 3. 직업동맹운동, 4. 조직문제, 5. 국제공산당의 과업, 6. 협동조합에 대한 태도, 7. 민병제도에로의 이행, 8. 중앙위원회의 선거.

레닌이 개회사를 하였다. 레닌이 당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총결보고와 보고에 대한 결론을 진술하였으며 경제건설문제와 협동조합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대회폐막식에서 레닌이 폐회사를 드리고 중앙위원후보자명단을 제의하였다. 제9차대회는 수송, 식량, 연료 및 산업 등 분야에서의 당면한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대회는 직업동맹이 경제건설에 참가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대회는 통일적인 경제계획에 관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거기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한것은 전반 인민경제의 전기화에 관한 문제였다. 대회는 반당집단인 민주주의중앙집권파(싸쁘로노브, 오

쎈스끼)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대회는 사업을 끝낸후에, 박두한 레닌의 탄생 50돐기념일과 관련하여 축하회를 베풀었다. 그때 《레닌전집》출판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207, 267, 568페지

34 **국제련맹**(략칭은 국련)은 제1차세계대전후, 1919～1920년의 빠리 강화회의에서 창립된 국제조직으로서 총부를 제네바에 두었다. 국련은 창립최초부터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에 의하여 조종되였다. 국련은 겉으로는 《국제적협조의 촉진,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의 도구로 되였다. 국제련맹은 《종이우에서만의 동맹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서로 싸우기만 하며 호상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맹수들의 집단》(《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150페지를 보라.)이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일본, 독일, 이딸리아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 대한 국련의 방임, 비호는 결국 제2차세계대전의 폭발을 초래하였고 국련도 뒤이어 붕괴되였다. 1946년 4월에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포하였다. —212, 297, 360, 410, 428페지

35 독일11월혁명의 실패를 가리킨다. 11월혁명은 독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1918～1919년에 진행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다. 제1차세계대전말기에 독일은 군사적, 경제적 총붕괴에 직면하였다. 로씨야10월혁명의 영향밑에 독일국내혁명운동은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1918년 11월 3일에 군사항구 킬의 해병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번 봉기는 11월혁명의 폭발신호였다. 봉기의 물결은 재빨리 전국을 휩쓸었다. 11월 9일에 베를린 로동자와 병사들이 스파르타쿠스동맹의 호소밑에 봉기를 일으키고 호엔촐레르왕조를 뒤집어엎고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를 세웠다. 그러나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의 지도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적수령 샤이데만 등에 의하여 찬탈되였다. 그들은 지주, 자산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혁명적로동운동을 반대하였다. 스파르타쿠스파는 에베르트-샤이데만정부의 반동정책을 폭로하였다. 독일무산계급의 혁명투쟁을 더 훌륭히 령도하기 위하여 스파르타쿠스동맹은 1918년 12월에 독일공산당을 창건할것을 결정하였다. 독일공산당

은 창건된후 준엄한 시련을 겪었다. 독일자산계급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령도를 상실케 하고 로동계급의 선봉대를 파괴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을 사촉하여 시기가 지나치게 이르게 봉기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1919년 1월, 베를린로동자들의 정치파업과 무장봉기는 사회민주당 에베르트-샤이데만반동정부에 의하여 피비린 탄압을 당하였으며 독일로동계급의 수령들인 립크네히트와 룩셈부르그, 수많은 독일 로동자와 공산주의자가 참혹하게 학살당하였다. 1919년 4월에 창립된 바바리아쏘베트공화국도 반동정부에 의하여 가혹하게 탄압되였다. 그리하여 11월혁명은 실패되고말았다. —339, 215페지

36 뿌쉬낀의 동화시 《어부와 금붕어의 이야기》를 보라. 그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한 늙은 어부가 금붕어 한마리를 잡았다. 금붕어는 자기를 놓아달라고 애걸하면서 무엇이나 요구하는대로 주겠다는것이였다. 어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금붕어를 바다에 도로 놓았다. 어부의 마누라가 이 일을 알게 되자 어부를 멍청이라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집에서 쓰는 함지가 마사졌으므로 어부더러 금붕어한테서 새 함지를 얻어오라는것이였다. 어부는 하는수없이 금붕어한테 가 요구하였다. 집에는 과연 새 함지가 있게 되였다. 욕심쟁이인 로친은 함지가 있게 되자 나무집을 요구하였다. 나무집이 생기자 귀부인이 되려고 하였다. 귀부인이 되자 녀황제가 되려고 하였고 끝으로 지어는 바다의 녀패왕이 되겠노라고 제기하였다. 하여 바다는 노한 물결을 이루고 금붕어는 어부의 요구에 더는 응대하지 않았다. 결국 로친은 이미 얻은 모든것을 다 잃고 여전히 그 헌 함지를 가지고있었다. —217페지

37 카프와 뤼트위쯔를 우두머리로 한 독일반동장교들이 1920년 3월에 발동한 군사정변, 즉 이른바 《카프반란》을 가리킨다. 이 정변은 사회민주당정부의 공공연한 방임밑에 준비되였다. 1920년 3월 13일에 반란분자들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카프를 우두머리로 한 새 정부를 조직하였다. 베를린의 로동자들은 총파업으로써 이 정변에 대답하였다. 로동자들의 맹렬한 타격에 의하여 카프정부는 3월 17일에 무너졌다. 사회민주당원들이 또다시 정권을 틀어쥐게 되였고

그후 또 로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카프반란》을 독일의 꼬르닐로브적반란이라고 불렀다.

꼬르닐로브는 짜리로씨야의 장군으로서 군주파, 반혁명두령의 한사람이다. 1917년의 7월사변후 자산계급림시정부에 의하여 총사령으로 임명되였다. 그해 8,9월사이에 꼬르닐로브는 반혁명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대를 뻬뜨로그라드에 파견하여 쏘베트를 소멸하고 군사독재정부를 세우려고 꾀하였다. 볼쉐위크당은 대중을 동원하여 꼬르닐로브반란을 짓부셨다. —218, 346페지

38 에프. 아들레르와 오. 바우에르를 대표자로 한 오지리사회민주당내의 다수파를 가리킨다. 이 파는 독일독립사회민주당우익의 립장과 접근되는 중앙파적립장을 취하였다. —221페지

39 **스몰리니**는 쏘련 레닌그라드시의 중요한 고적의 하나로서 1806~1808년에 건립되였다. 원래는 귀족녀자학원이였다. 스몰리니학원은 1917년 10월에 볼쉐위크당 중앙위원회와 뻬뜨로그라드쏘베트군사혁명위원회의 소재지였다. 레닌이 여기에서 위대한 10월사회주의혁명을 령도하였다. 1917년 10월 25~27일(신력 11월 7~9일)에 스몰리니학원에서 제2차전로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대회가 진행되였다. 1918년 3월에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기기전까지 이곳은 쏘베트정부의 소재지였다. —228, 538페지

40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통보》**(*《Извест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большевиков)》*)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중앙위원회에서 제8차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간한, 당내생활문제를 취급하는 간행물로서 중앙의 결의, 지시, 사업보고, 당의 건설문제와 관련되는 보도와 론문을 실었다. 1919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1929년 10월에 《중앙위원회통보》는 잡지 《당건설》로 개편되였으며 1946년 6월까지 출판되였고 그후 《당생활》잡지로 바뀌였다. —231, 546페지

41 1920년 4월 11일에 출판된 **《공산주의토요로동》**지 특간호를 가리킨다. 이 특간호는 모스크바 각 신문사들과 로스따통신사의 편집부와 일군들이 1920년 4월 10일에 공산주의토요로동을 위하여 꾸린

것이다. —233페지

42 1920년初에 경제건설의 수요에 적응되기 위하여 붉은군대의 어떤 부대들은 로동군대로 개편되였다. 그러나 미구에 뽈스까와 우란겔과 진행한 전쟁은 이 로동군대들로 하여금 전투상태에 처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235, 617페지

43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은 로씨야에서의 세차례의 혁명 및 쏘베트국가창건初기의 경험을 총화하여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독재의 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맑스주의의 전략 및 전술을 천명하고 볼쉐위크당의 혁명경험의 국제적의의를 지적하였으며 수령, 당, 계급, 대중간의 상호관계를 천명하였다. 레닌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교훈에 근거하여 로동운동내부의 주되는 원쑤는 국제기회주의라고 지적함과 아울러 제2국제당기회주의수령들의 변절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공산당내의 《좌》경사조에 대하여 상세한 비판을 가하였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은 1920년 4월에 썼고 그 추가는 5월 12일에 썼다. 이 저서는 그해 6월 8~10일에 로씨야어로 출판되였다. 그리고 7월에 련이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출판되였다. 레닌은 이 저서를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개회전에 출판하기 위하여 완고와 인쇄교정을 직접 보았다. 이 저서는 출판되여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전체 대표들에게 배부되였다. 1920년 7월부터 11월에 이르는 기간에 이 저서는 라이프찌히에서 독일어로, 빠리에서 프랑스어로, 런던에서 영어로 재판되였다.

이 저서의 원고에는 《(맑스주의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통속적 담화의 시험)》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레닌의 생존시에 출판된 이 저서의 모든 판에는 이 부제가 삭제되여있다. —237페지

44 **《이스크라》**(《*Искра*》)는 1900년에 레닌에 의하여 창간된 최초의 전 로씨야적 맑스주의의 비합법적신문이였다. 《이스크라》는 로씨야 로동계급의 혁명적맑스주의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경찰의 박해로 하여 로씨야에서 혁명적신문을 발행할수 없음을 고려하여 레닌은 씨비리류형당시에 벌써 국외에서 그것을 발간

할 상세한 계획을 생각하였다. 1900년 1월에 레닌은 류형이 끝나자 곧 이 계획의 실현에 착수하였다.

《이스크라》 창간호는 1900년 12월 24일에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였으며 그후의 호는 뮨헨에서, 그리고 1902년 4월부터는 런던에서, 1903년 봄부터는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다.

《이스크라》편집부에는 레닌, 게. 웨. 쁠레하노브, 유. 오. 마르또브, 뻬. 베. 악쎌로드, 아. 엔. 뽀뜨레쏘브, 웨. 이. 자쑬리치 등이 들어있었다. 1901년 봄부터 엔. 까. 크룹스까야가 편집부의 비서로 있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레닌이 《이스크라》의 주필이였으며 지도자였다. 그는 《이스크라》에 당의 건설 및 로씨야무산계급계급투쟁의 근본문제들에 관한 여러가지 론문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생활에서의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론평을 썼다.

로씨야의 많은 도시(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등.)들에서 레닌적이스크라파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소조 및 위원회가 건립되였다.

이스크라파조직들은 레닌에 의하여 배양된 직업적혁명가들(엔. 에. 바우만, 이. 웨. 바부쉬낀, 에스. 이. 구쎄브, 엠. 이. 깔리닌 등.)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산생되고 사업하였다.

《이스크라》편집부는 레닌의 창의와 그의 직접적인 참여하에 당의 강령초안을 작성하고 1903년 7～8월에 진행될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를 준비하였다.

대회가 소집되기전에 로씨야의 사회민주당 지방조직들의 대다수가 《이스크라》를 옹호하였으며 그의 전술, 강령 및 조직계획을 찬성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지도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대회는 특별결의에서 당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이스크라》의 특수한 역할을 지적하고 그것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중앙기관지로 선포하였다.

제2차대회에서 레닌, 쁠레하노브, 마르또브를 성원으로 하는 《이스크라》의 편집부가 확정되였다. 마르또브는 당대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편집부에 드는것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이스크라》 제46～51호는 레닌과 쁠레하노브의 편집하에 출판되였다. 후

에 쁠레하노브는 멘쉐위크주의의 립장으로 넘어가 대회에서 이미 부결된 원 멘쉐위크편집원들을 《이스크라》편집부에 죄다 참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레닌은 이에 동의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를 강화하며 거기에서 멘쉐위크적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레닌은 1903년 11월 1일에 《이스크라》 편집부를 탈퇴하였다. 제52호는 쁠레하노브 한사람의 편집하에 출판되였다. 1903년 11월 26일에 쁠레하노브는 대회의 의사를 어기고 제 마음대로 이전의 멘쉐위크편집원들을 《이스크라》편집부에 보충하여넣었다. 이리하여 멘쉐위크들은 《이스크라》를 제52호부터 자기들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이때로부터 당내에서는 레닌의 볼쉐위크적〈이스크라〉를 구〈이스크라〉라고 부르고 멘쉐위크의 기회주의적〈이스크라〉를 신〈이스크라〉라고 부르게 되였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한문판, 1954년 인민출판사판, 57페지를 보라.) —239페지

45 1912년 4월 4일에 씨비리 레나금광의 로동자들이 광주의 착취에 반항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짜리군대는 이 파업에 대하여 피비린 탄압을 가하였는바 수백명의 파업로동자가 학살당하고 레나학살사건이 빚어졌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레나학살사건은 대중의 혁명적기분이 대중의 혁명적앙양으로 전화하는 동기로 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8권, 89페지를 보라.) 레나학살사건은 로씨야 각지에서 기세찬 대중적파업물결을 일으켰다. 이로부터 로씨야의 혁명적로동운동의 발랄한 앙양기가 시작되였다. —246페지

46 제4차국회의 볼쉐위크대의원들은 1914년 7월 26일(신력 8월 8일) 국회회의에서 짜리정부가 제국주의전쟁에 참가하는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군사지불금에 대한 찬성투표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대중들속에서 혁명적선전을 진행하였다. 1914년 11월에 볼쉐위크대의원들은 체포되였고 1915년 2월에 재판에 넘어 《조국배반》죄명으로 판결을 받고 종신토록 씨비리에 추방되게 되였다. —247페지

47 영국독립로동당은 1893년에 창건되였다. 이 당의 지도자는 케이르. 하디, 아. 맥도날드 등이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립로동당은 《시종 자산계급에 달라붙은 기회주의적당으로서》《사회주의에 대해서만 〈독립〉적이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뢰성을 가지고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450페지, 제18권, 354페지를 보라.) 제1차세계대전기간인 1914년 8월 13일에 독립로동당은 전쟁을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후 1915년 2월에 열린 련합국사회주의자련면대표자회의에서 독립당원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배외주의적결의에 동의하였다. 그때로부터 독립당의 지도자들은 평화주의란 허울밑에 사회배외주의를 실시하였다. 1919년에 국제공산당이 창건된후 좌익당원대중의 압력밑에서 독립로동당의 지도자들은 제2국제당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21년에 독립당원들은 소위 제2반국제당에 참가하였으며 제2반국제당이 해산된후에는 다시 제2국제당에 가입하였다. —247, 401, 431페지

48 **페이비안협회원**이란 1884년에 영국자산계급지식인들에 의하여 전립된 개량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페이비안협회의 참가자들이다. 그의 주요지도자로는 에스. 웹브와 삐. 웹브이다. 페이비안협회란 고대로마의 통수 페이비안 막씸의 이름으로 명명한것이다. 페이비안은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결전을 회피하고 기회를 엿보는 전술을 썼기때문에 《쿵크타토르》(《우물쭈물하는 사람》)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였다.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무산계급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반대하고 소소한 개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사회를 개조할것을 고취하면서 이른바 《지방공동소유의 사회주의》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것을 설교하였다. 페이비안협회는 영국로동운동에서의 기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상의 발원지의 하나로서 로동계급내부에 자산계급사상을 전파하였다. 레닌은 페이비안협회는 《기회주의와 자유주의적 로동자정치를 가장 완성된 형태로 표현하고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237페지를 보라.)고 하였다. 1900년에 페이비안협회는 로동당에 병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사회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247페지

49 **입각주의자들**은 일종 기회주의류파로서 프랑스사회주의자 밀레랑

이 반동적내각에 입각함으로써 얻어진 이름이다. 밀레랑은 1899년에 프랑스반동적자산계급정부에 가담하였으며 빠리콤뮨을 탄압한 교형리인 갈리페장군과 결탁하였다. —248페지

50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제7차전국대표자회의(4월대표자회의)**는 1917년 4월 24～29일(신력 5월 7～12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열리였다. 이번 대표자회의에는 8만명의 당원을 대표하여 결의권을 가진 대표 133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18명이 참석하였다. 이것은 볼쉐위크들의 처음으로 되는 합법적인 대표자회의였으며 이 회의는 당대회의 역할을 놀았다.

레닌은 대표자회의의 일정에 있는 여러가지 주요문제들에 대하여 보고와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대표자회의는 전쟁에 관한 결정서초안, 림시정부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결정서초안, 당면정세에 관한 결정서초안, 당강령수정에 관한 결정서초안, 토지문제에 관한 결정서초안, 소자산계급적조국방위주의동맹을 반대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주의자들을 단합할데 관한 결정서초안, 쏘베트에 관한 결정서초안, 민족문제에 관한 결정서초안 및 보르그비에르그의 제의에 관한 결정서초안 등 레닌이 제의한 결정서초안들을 채택하였다.

쓰딸린은 대표자회의에서 당면정세에 관한 레닌의 결정서를 옹호하여 연설하였으며 민족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하는 까메네브와 리꼬브의 투항주의적, 멘쉐위크주의적 립장을 폭로하였으며 민족문제에 관한 볼쉐위크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자결권을 반대하였으며 전쟁시기에 부하린과 함께 민족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한 빠따꼬브를 무자비하게 비판하였다. 볼쉐위크와 찜메르왈드파와의 합작을 주장하고 새로운 국제당, 즉 국제공산당의 창건을 반대한 지노비예브의 발언을 레닌은 단호히 규탄하였다.

4월대표자회의는 레닌의 《4월테제》에 기초하여 혁명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볼쉐위크당의 로선을 확정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로 볼쉐위크당을 인도하였다. 4월대표자회의의 의의에 관해서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력사간략독본》, 1978년

민족출판사 조선문판, 283~288페지를 참조하라. —249페지

51 1905년 10월의 전 로씨야 정치파업을 두고 말한다. 이 파업은 1905~1907년의 제1차로씨야혁명에서 가장 중대한 사변의 하나로서 무산계급운동의 강대한 힘을 과시하였다. 파업은 모스크바-까잔철도로부터 시작되여 급속히 전 로씨야적 대파업으로 발전되였다. 파업에 참가한 인수는 200만이상에 달한다. 전제제도를 뒤엎자, 불리긴국회를 적극적으로 보이꼬트하자,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며 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자는것이 10월파업에서 내세운 구호였다. 10월정치파업의 폭풍은 불리긴국회를 쓸어버리고 무산계급을 12월무장봉기에로 이끌어갔다. 10월파업에 관해서는 레닌의 《전 로씨야 정치파업》(《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377~380페지)을 참조하라. —254페지

52 《좌익공산주의자》는 1918년초에 브레스트강화조약체결문제와 관련하여 생겨난 반당집단이다. 《좌익공산주의자》집단은 《좌익》적언사의 엄폐하에 아직 군대도 없는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대독전쟁에로 끌어넣으려는 범죄적정책을 고집하였다. 이 집단의 두목들로는 부하린, 라데크, 빠따꼬브였다. 이 《좌익공산주의자》들의 두목들은 전쟁도 하지 말고 강화조약도 체결하지 말자는 구호밑에 보다 은페된 형태로 전쟁계속의 반역적정책을 수행한 뜨로쯔끼의 졸도들이였다. 레닌은 시간을 쟁취하여 국민경제를 정돈하고 붉은군대를 창건하며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강화조약체결을 견결히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뜨로쯔끼와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명백히 무산계급독재의 파멸을 가져올 정책을 볼쉐위크당에 강요하였다. 레닌은 《좌익공산주의자》들을 《제국주의적도발의 도구》라고 불렀다. 뜨로쯔끼의 지지밑에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당을 반대하여 공공연한 투쟁을 수행하였으며 제멋대로 횡포한 분파적활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당을 마구 비방하고 요언을 날조하여 중상하였으며 극력 당을 분렬시키고 당대렬을 와해시키며 쏘베트 및 당적 직무를 사임하겠다는것 등등으로써 당을 파괴하고 당을 공갈하려 하였다. 레닌, 쓰딸린, 스웨르들로브는 강화조약체결에 대

한 결정을 쟁취함으로써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구출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내부에서 뜨로쯔끼와 《좌익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볼쉐위크당은 레닌의 지도하에 뜨로쯔끼와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죄악적인 활동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으며 그들의 반역적이며 투항적인 립장을 호되게 규탄하였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마침내 고립되고 격파되였다. —256, 660, 806, 902폐지

53 **《레이버당원》**은 영국로동당원에 대한 레닌의 칭호이다. 로동당은 영국의 기회주의당으로서 1900년에 로동조합, 페이비안협회 등의 련합으로 조직되였다. 최초에는 《로동자대표위원회》라고 불렀고 1906년에 로동당으로 개칭하였다. 로동당은 자산계급과의 계급합작정책을 공공연하게 실시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로동당의 지도자들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257, 403폐지

54 독일의 소자산계급적무정부주의-급진로동조합주의적 《좌익》공산주의자집단을 두고 말한다. 이 집단은 1919년 10월에 독일공산당으로부터 리탈되여 1920년 4월에 독자적인 조직, 즉 이른바 《독일공산주의로동당》을 내왔다.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에서는 독일《좌익》공산주의자들에게 종파주의적전술을 버리고 독일공산당에 가입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국제공산당에서 축출되였다. 후에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상층분자들은 반혁명으로 전락되였다. —259, 404, 722폐지

55 **볼라퓌크**(*Volapük*)란 독일인 요드. 엠. 쉴라이에르가 1879년에 내놓은 세계어안으로서 후에 세상에 류행되지 않았다. —262폐지

56 **연단파**는 신문 《연단》을 둘러싸고 형성된 화란사회민주로동당 좌익집단이다. 1909년에 이 집단은 화란사회민주로동당에서 제명되여 독립적인 당(화란사회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연단파는 화란로동운동의 좌익집단이기는 하였으나 철저한 혁명적당은 아니였다. 1918년에 연단파는 화란공산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연단》(《*De Tribune*》)은 화란좌익사회민주로동당의 신문으로서 190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발행되였다. 이 신문은 1909년부터는 화란사회민주당의 기관지로 되였고 1918년부터는 화란공산당의 기관지로 되였다. —263페지

57 **《공산주의로동자신문》**(《*Kommunistische Arbeiterzeitung*》)은 독일의 소자산계급적, 무정부주의-급진로동조합주의적 《좌익》공산주의자집단의 기관지로서 1919년부터 1927년까지 함부르그에서 발행되였다. —264페지

58 1895년 가을에 레닌에 의하여 조직된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을 두고 말한다. 이 동맹은 뻬쩨르부르그의 모든 맑스주의로동자소조들을 통일하였다. 투쟁동맹은 레닌을 위수로 한 중심소조가 령도하였다.

투쟁동맹은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와 로동운동을 결합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소수의 선진적로동자들속에서의 맑스주의의 선전을 광범한 로동계급대중속에서의 정치적선동으로 전화시켰다. 투쟁동맹은 로동운동을 령도하였으며 경제적요구의 실현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정치적투쟁과 련결시켰다. 투쟁동맹은 로동자들을 위하여 삐라와 소책자를 발행하였으며 파업운동을 령도하였다. 투쟁동맹의 영향력은 뻬쩨르부르그로부터 전국에 널리 퍼졌다. 그것은 로씨야 기타 도시들과 지구들에 있는 로동자소조들도 그러한 동맹에 통합하도록 추동하였다.

1895년 12월 20일 밤에 레닌을 위수로 한 투쟁동맹의 핵심적지도자들이 체포되였다. 레닌은 감옥에서도 혁명투쟁을 계속하였다. 레닌은 조언과 지시로써 투쟁동맹을 도와주었으며 자기가 친히 쓴 삐라와 소책자를 내보냈다. 당강령초안도 레닌이 옥중에서 쓴것이다.

《뻬쩨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의의는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그것이 로동운동에 의거하는 혁명적당의 최초의 귀중한 맹아라는데 있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 력사간략독본》, 한문판, 1954년 인민출판사판, 23페지를 보라.) —266페지

59 **근로파**는 소자산계급민주파집단으로서 1906년 4월에 제1차국회내

의 농민의원들로 조직되였다. 근로파의원단은 4차의 국회에 다 존재하였다.

근로파는 일체 신분적제한 및 민족적제한의 철폐, 지방 및 도시 자치기관의 민주주의화, 일반적선거에 의한 국회선거를 요구하였다. 근로파의 토지강령은 인민파의 토지평균사용제원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였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관유지, 황족령지, 황실령지, 사원소유지 및 사적소유토지(만일 사적소유면적이 규정된 로동토지량을 초과하였다면)로써 전인민적토지를 구성하고 토지경작자 본인만이 토지사용권을 가지는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내놓은 사적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기로 규정한다. 토지개혁은 지방농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근로파는 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2월자산계급민주혁명후에 근로파는 인민사회당원들과 함께 반혁명진영으로 넘어갔다. 근로파는 10월혁명을 적대시하였다. —268페지

60 1917년 2월혁명후부터 1919년까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당원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17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제7차(4월)전국대표자회의때는 당원이 도합 8만명이였으며 1917년 7~8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제6차대회때에 이르러서는 약 24만명이였으며 1918년 3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7차대회때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27만명이였으며 1919년 3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때에 이르러서는 31만 3,766명이였다. —269페지

61 《국제공산당》은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기관간행물로서 로씨야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빠냐어 등으로 발간되였다. 1919년 5월 1일에 창간되여 1943년 6월에 정간되였다. —775, 824페지

62 1858년 10월 7일에 맑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을 참조하라.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38페지) —276페지

63 《민정일보》(《*Folkets Dagblad Politiken*》)는 스웨리예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신문으로서 1916년 4월부터 스톡홀름에서 발행

되였으며 1921년부터는 스웨리예공산당의 기관지로 되였다. 1929년 10월 스웨리예공산당이 분렬된후 이 신문은 우익의 손으로 들어갔다. —277페지

64 **세계산업로동자동맹**은 1905년에 결성된 미국의 로동조합조직이다.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영국, 라틴아메리카에도 세계산업로동자동맹의 조직이 있었다. 세계산업로동자동맹은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여러차례 지도하였으며 미국이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였으며 이 동맹의 일부 지도자들은 로씨야의 10월혁명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동맹의 활동에는 무산계급의 정치투쟁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의 지도적역할과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한 무장봉기의 필요성,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부정하며 미국로동련맹에 소속된 로동조합들속에서 사업할것을 거부하는 무정부주의-급진로동조합주의의 특징들이 현저하게 존재하였다. 후에 세계산업로동자동맹은 로동자들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종파주의적인 무정부주의-급진로동조합주의적집단으로 되고말았다. —288, 399페지

65 **중앙당**은 독일천주교신자들의 정당으로서 1870～1871년에 프로씨아의회의 천주교파의원단과 독일제국국회의 천주교파의원단(이 두개 의원단의 의원의 의석은 회의대청의 중앙에 있었다.)의 련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중앙당은 일반적으로 중간적인 립장을 취하였으며 정부를 지지하는 당파와 좌익반대파국회의원단사이에서 득세하는쪽에 편승하였다. 중앙당은 주로 독일의 서부와 서남부의 여러 중소국가들의 천주교승려들가운데서 사회적지위가 같지 않은 각 계층, 즉 지주, 자산계급, 일부분의 농민들을 천주교의 기치밑에 련합시켜 그들의 분렬주의와 반프로씨아적경향을 지지하였다. 중앙당은 비스마르크정부를 반대하는 립장에 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반대하는 비스마르크정부의 조치를 찬성하여 투표하였다. —283페지

66 끄릴로브의 우화 《은사와 곰》을 보라. 이 우화는 다음과 같은것을 이야기하고있다. 어떤 은사가 곰을 벗으로 사귀였는데 어느날 그들은 함께 놀러 나갔다. 도중에 은사는 곤하여 단잠에 들었는데 곰

은 은사의 코등에 앉은 파리 한마리를 쫓기 위하여 큰 돌을 들어 벗의 머리를 내리쳐 두쪼각으로 갈라놓았다는것이다. —289페지

67 《쏘베트》(*Il Soviet*)는 이딸리아사회당의 신문으로서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나폴리에서 발행되였다. 1920년부터는 이딸리아사회공산주의자보이꼬트파(의회불참가주의자)의 기관지로 되였다. —293페지

68 《공산주의》(《*Comunismo*》)는 이딸리아사회당의 잡지(격주간)로서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밀라노에서 발간되였다. —293페지

69 **이딸리아사회당**은 1892년 창건당시에 이딸리아로동자당이라고 불렀는데 1893년에 이딸리아사회당으로 고쳤다. 제1차세계대전 전반기에 이딸리아사회당은 불철저한 국제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이딸리아사회당은 1915년 9월에 찜메르왈드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대표회의와 1916년 4월에 킨탈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대표회의에 참가하였는데 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한 중간파에 기울어졌다. 1916년말에 이딸리아사회당은 개량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사회평화주의의 길에 들어섰다.

로씨야 10월혁명이 승리한후 이딸리아사회당내에서는 좌익이 강화되였다. 1919년 10월에 볼로냐에서 열린 제16차당대회에서 무산계급독재를 위하여 투쟁하자는 조문을 당의 강령에 포함시킬것을 찬성하였으며 국제공산당에 가입할것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기회주의분자들을 의연히 당내에 남겨두었다. 1921년 1월 리보르노에서 열린 제17차당대회에서 사회당은 분렬이 생겨 좌익대표자들은 대회에서 탈퇴하여 이딸리아공산당을 창건하였다. —293, 404, 454페지

70 《인민국가》(《*Der Volksstaat*》)는 독일사회민주로동당 아이제나호파의 중앙기관지로서 1869년 10월 2일부터 1876년 9월 29일까지 매주 2회씩(1873년 7월부터는 3회씩)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였다. 이 신문은 독일로동운동에서 혁명파대표인물들의 견해를 반영했으며 따라서 늘 정부와 경찰의 탄압을 받았다. 그 편집부성원들은 편집자들이 늘 체포되기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여졌으나 신문의 총지도권은 그냥 윌헬름 립크네히트가 쥐고있었다. 《인민국가》출판

사를 주관하던 아우구스트 베벨이 이 신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간당초부터 이 신문의 기고자였던 맑스와 엥겔스는 편집부에 늘 조언을 주었고 신문의 로선을 시정해주군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신문은 19세기 70년대의 우수한 로동자신문의 하나로 되였다. —295페지

71 엥겔스의 《망명자문헌》(《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93~594페지)을 보라. —295페지

72 1886년 11월 29일에 프리드리히 아돌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56페지)을 참조하라. —300페지

73 헨리. 찰즈. 케어리의 《정치경제문제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대통령에게 드린 서한》에 대한 체르늬쉡스끼의 론평(《체르늬쉡스끼전집》, 1950년, 로문판, 제7권, 923페지)을 보라. —300페지

74 《**혁명적공산주의자**》는 혁명적공산당의 성원들이다. 혁명적공산당은 1918년 7월 6~7일에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이 도발적으로 독일대사 미르바흐를 암살함과 아울러 반란을 일으킨후에 이 당으로부터 분렬되여나온 새로운 당이다. 혁명적공산당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과 협력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쏘베트정권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혁명적공산당은 성원이 많지 않은 정당으로서 1920년까지 존재하였다. 1920년 9월에 이 당에서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할것을 결정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는 각 당조직들에서 전혁명적공산당의 성원들을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받아들일것을 허락하였다. —301페지

75 **영국사회당**은 영국사회민주당이 1911년에 독립로동당가운데의 좌익과 합병하여 성립된 당이다. 영국사회당은 일찍 맑스주의정신에 립각하여 선전과 선동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당은 그 수효가 적고 대중을 리탈하였으며 따라서 종파주의적성격을 띠고있었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당내에는 두가지 조류가 나타났다. 그 하나는 하인드만을 위수로 한 공공연한 사회배외주의적조류였고 다른 하나는 에이. 인크핀과 에프. 로터스티인 등을 위수로 한 국

제주의적조류였다. 1916년 4월에 이 당은 분렬되였다. 하인드만과 그의 지지자들은 소수파로 되여 이 당에서 탈퇴하였다. 이때로부터 영국사회당의 선두에는 국제주의분자들이 서서 제국주의대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308, 446페지

76 **사회주의로동당**은 사회민주주의련맹에서 탈퇴한 영국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집단으로서 1903년에 조직되였다. **남부웨일즈사회주의협회**는 주로 영국의 웨일즈탄광로동자들로 구성된 작은 단체이다. **로동자사회주의련맹**은 영국녀성선거권보장협회를 모체로 하여 발생한 작은 단체로서 주로 녀성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영국공산당이 창건될 때(1920년 7월 31일—8월 1일에 창립대회가 열렸음.) 당이 국회선거에 참가하며 로동당에 가입할데 대한 조항을 강령에 포함시키게 되자 상술한 조직들은 모두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1921년 1월의 공산당대회에서 남부웨일즈사회주의협회와 로동자사회주의련맹(당시 전자는 공산주의로동당, 후자는 공산당이라고 불렀다.)은 영국공산당과 합병하고 그 명칭을 영국통일공산당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로동당의 지도자들은 합병할것을 거절하였다. —308, 404페지

77 **《만체스터의 초병》**(《*The Manchester Guardian*》)은 영국자산계급의 신문으로서 1821년부터 만체스터에서 발행되였다. —312페지

78 **드레퓌스사건**은 프랑스의 반동적군주주의적군벌집단이 1894년에 총참모부의 유태인군관 드레퓌스가 간첩활동과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거짓죄명으로 벌린 도발적심판을 말한다. 군사법정은 드레퓌스를 무기도형으로 언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드레퓌스사건재심을 위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공화주의자들이 군주주의자들과 치렬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1906년에 드레퓌스는 끝내 무죄선고를 받았다.—334페지

79 1917년 7월 3일(신력 16일)에 뻬뜨로그라드 븨보르그구역에서 림시정부를 반대하는 자연발생적인 시위행진이 시작되였다. 맨먼저 제1기관총련대가 나섰다. 뒤이어 다른 부대들과 로동자들이 그들에 합류하였다. 시위행진은 림시정부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로 진전

될 가능성이 많았다.

볼쉐위크당은 이 시기에 무장진출을 반대하였다. 그것은 혁명적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군대와 지방의 대중이 수도에서의 봉기를 지지할만큼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기때문이였다. 7월 3일 오후 4시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와 뻬뜨로그라드위원회,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군사국의 련석회의에서는 진출을 억제할것이 결정되였다. 이때에 진행중이던 뻬뜨로그라드시 제2차볼쉐위크대표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채택되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은 공장들과 구역들로 나가 로동자들을 타일렀다. 그러나 진출은 의연히 개시되였으며 그것을 억제한다는것은 벌써 불가능한것으로 되였다.

중앙위원회, 뻬뜨로그라드위원회와 군사국에서는 대중의 기분을 고려하여 시위행진에 참가하여 그것이 평화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으로 되게 하자는 결정을 7월 3일 재밤에 채택하였다. 당시 레닌은 뻬뜨로그라드에 없었다. 레닌은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7월 4일(신력 17일) 아침에 뻬뜨로그라드에 도착하였다. 7월 4일의 시위행진에는 5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시위행진은《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볼쉐위크들의 이 주요한 구호하에 진행되였다. 로동자와 병사들의 평화적시위를 탄압하기 위하여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과 동의 밑에 사관학교 학생과 군관들이 파견되였다. 사관학교 학생과 군관들은 시위자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전선으로부터 반혁명적부대들이 소환되였다.

7월 4일 밤에 볼쉐위크당 중앙위원회는 시위행진을 중지할데 관한 결정을 지었다. 레닌은 그날의 신문을 심열하기 위하여 밤중에《쁘라우다》편집부에 들렸었다. 레닌이 편집부를 떠난지 반시간이 지나서 편집부는 사관학교학생과 까자크부대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은 사실상 이번 반혁명적만행의 참가자로, 조력자로 되였다. 시위행진을 탄압한후 그들은 또 자산계급과 더불어 볼쉐위크를 공격하였다.《쁘라우다》,《병사쁘라우다》등 볼쉐위크의 신문은 다 림시정부에 의하여 폐간되였다.

대대적인 체포, 수색 및 폭행이 시작되였다. 뻬뜨로그라드수비대의 혁명적부대들은 수도에서 이동되여 전선으로 파송되였다.

7월사건이 있은후 정권은 완전히 반혁명적림시정부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쏘베트는 림시정부의 무력한 부속물로 되였다. 2개 정권이 병존하던 국면은 끝을 맺었다. 혁명의 평화적시기는 끝났다. 볼쉐위크들앞에는 림시정부를 뒤엎기 위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339페지

80 《붉은기》(《*Die Rote Fahne*》)는 카. 립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브르그가 1918년 11월 9일에 베를린에서 창간한 일간신문으로서 최초에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의 기관지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독일공산당이 창건되자 이 신문은 독일공산당의 중앙기관지로 되였다. —345페지

81 희랍신화에 의하면 아우기아스왕에게는 3,000마리의 소를 키우는 큰 외양간이 있었는데 30년동안이나 외양간을 쳐내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제일 더러운 곳을 《아우기아스의 외양간》이라고 비유하였다. —347, 738페지

82 《붉은기》(《*Die Rote Fahne*》)는 오지리공산당의 중앙기관지로서 1918년 11월에 윈에서 창간되였다. 최초에는 《호소》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다가 1919년 1월부터는 《사회혁명》이라고 하였으며 1919년 7월부터는 《붉은기》라고 하였다. —348페지

83 《자유》(《*Die Freiheit*》)는 독일의 중앙파독립사회민주당의 기관지로서 1918년 11월부터 1922년 10월까지 베를린에서 날마다 발행되였다.—348페지

84 **최고강령주의자**는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이딸리아사회당내에 형성된 중간파로서 라자리와 쎄라떠 등이 그 지도자였다. 최고강령주의자는 개량주의자들이 자산계급과 야합하여 무산계급혁명운동을 압제하는 배신적행위를 반대하였지만 개량주의자와의 통일을 확보할것을 주장하였다. 1921년 1월 리보르노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최고강령주의자는 개량주의자들과의 결렬을 거절하였으며 국제공산당가입조건을 반대하였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대회에서 탈퇴하여

따로 이딸리아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이딸리아사회당이 분렬되고 공산당이 창건된후 최고강령주의자는 개량주의자와 련합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으므로 로동계급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없어지고말았다. —349페지

85 《쏘베트》《법률고문》, 즉 법률고문위원회는 1918년 2월에 창설한것으로 로동자-병사-농민-까자크대의원쏘베트에 직속되여있었다. 이 위원회의 많은 법률고문들이 자산계급변호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 쏘베트의 소송절차의 원칙을 외곡하며 직권을 람용하였으므로 1920년 봄에 이 법률고문위원회를 철폐할것이 제기되였다. 1920년 10월에 이 법률고문위원회는 철폐되였다. —354페지

86 《민족문제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의 최초의 초안》은 레닌이 당시 서남전선에 있던 쓰딸린에게 보낸것이다. 쓰딸린은 테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1920년 6월 12일부로 레닌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제기하였다. 테제는 1920년 6월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가 열리기전에 발표되였다. —358페지

87 주해 24와 47을 보라. —378페지

88 맑스의 《〈헤겔법철학비판〉 서론》(《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12페지)을 참조하라. —393페지

89 미국사회당은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 당으로서 1901년에 창립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당의 우익인 다수파는 제국주의전쟁을 변호하였으며 미국제국주의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좌익인 소수파는 국제주의적립장에 서서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였다. 1919년에 사회당이 분렬되자 그 좌익은 사회당에서 탈퇴하여 미국공산당의 창립을 발기하였다. —401페지

90 스위스사회당(스위스사회민주당)은 1888년에 창건되였다. 당내에는 기회주의자들의 세력이 매우 강하였으며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그들은 사회배외주의자로 되였다. 1916년 가을에 우익들은 당에서 떨어져나가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었다. 로버트. 그림을 위수로 하는 대다수의 당원들은 중립적사회평화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당내의 좌익은 국제주의적립장에 서있었다.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레닌은 스위스에 체류하고있을 때에 스위스사회당의 좌익과 련

계를 가지고있었다. 레닌은 그들에게 오유를 지적하여주었으며 그들이 옳바른 립장을 취하도록 도와주었다. 10월혁명의 영향밑에 사회당좌익의 력량은 강화되였다. 1920년 12월에 좌익은 사회당에서 탈퇴하고 1921년에는 스위스공산당과 합병하였다. —402페지

91 **뚜린지부**는 이딸리아사회당내의 한개 좌익지부이다. 뚜린지부는 타협주의자들을 위수로 한 이딸리아사회당지도자들의 그릇된 로선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였는바 이딸리아사회당이 이딸리아에서의 혁명적앙양(1919～1920년)과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쟁취의 가능성이 있는 조건하에서 사건들에 대한 옳은 분석을 주지 못하였으며 혁명적대중에게 접수될만한 어떠한 구호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내부에서 개량주의자들을 축출하지 않은것을 지적하였다. 뚜린지부는 기회주의자들을 당내에서 축출하며 각 공장, 직업동맹, 협동조합, 병영에서 공산주의소조를 조직하며 공장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농업생산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할것 등의 일련의 실천적제의를 내놓았다. 뚜린지부는 쏘베트를 창건하기 위하여 즉시로 인민대중을 발동할것을 요구하였다. —404페지

92 **《새 질서》**(*《L'Ordine Nuovo》*)는 1919년부터 뚜린에서 발행된 주간신문인데 1921년부터는 일간신문으로 되였다. 최초에는 이딸리아사회당좌익의 기관지였으며 1921년부터는 이딸리아공산당의 기관지로 되였다. 1922년 10월에 파시스트정부에 의해 폐간되였다. —404, 454페지

93 **공장직공대표위원회**는 로동자들에 의하여 선거된 조직으로서 제1차세계대전때부터 영국의 많은 생산부문들에 있었다. 로씨야10월혁명이 승리한후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여 외국에서 무력간섭을 감행한 시기에 공장직공대표위원회는 쏘베트로씨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나섰다. —404페지

94 **국제공산당 제1차대회**는 1919년 3월 2～6일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이 대회에는 30개 나라의 52명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그중 결의권을 가진 대표는 34명이고 발언권을 가진 대표는 18명이였다. 대회는 레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진행되였다.

1919년 3월4일회의에서 레닌이 대회의정의 주요한 문제인 자

산계급민주주의와 무산계급독재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본 선집, 한문판, 제3권, 717～732페지를 보라.) 대회는 레닌의 테제를 토의를 거치지 않고 채택하였으며 그것을 국제공산당 집행국에 넘겨 백방으로 광범히 침투시킬것을 위임하였다. 또한 대회는 레닌이 제출한 테제에 대한 보충결정서(본 선집, 한문판, 제3권, 733페지를 보라.)도 비준하였다.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찜메르왈드련맹을 해산할데 대한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제1차대회는 국제공산당강령과 전 세계 무산자들에게 호소하는 선언서를 비준하였으며 로동계급에게 정권을 전취하며 무산계급독재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두개의 지도기관, 즉 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선거한 5명으로 구성된 집행국을 창설할것을 결정하였다. —407, 438페지

95 **암스테르담황색《국제》직업동맹**(직업동맹국제련합회)은 1919년 7월 암스테르담(화란)국제대회에서 창립된 개량주의적인 직업동맹의 국제적련합조직이다. 암스테르담국제당은 개량주의적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연하게 자산계급과 협력하여 혁명적인 로동운동을 반대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암스테르담국제당은 실제상 이미 활동을 중지하였다. 1945년 12월 14일에 세계직업동맹련합회가 창립됨으로 말미암아 암스테르담국제당은 정식으로 해산되였다. —411페지

96 **적색국제직업동맹**(국제직업동맹)은 혁명적인 직업동맹의 국제적련합조직으로서 1921년에 창립되였으며 1937년말에 해산되였다. 국제직업동맹은 혁명적인 직업동맹을 단합시켰으며 국제공산당의 립장을 견지하였다. —411페지

97 **《국제공산당가입조건 제20조》**는 레닌이 1920년 7월 25일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 위원회회의에서 《국제공산당가입조건》에 관한 그의 테제를 토의할 때 제기한것이다. 《국제공산당가입조건》에 관한 레닌의 테제는 대회가 열리기전에 발표되였으며 19개 조항으로 되여 있었다. 대회에서는 21개 조항을 채택하였다. 제21조는 다음과 같다. 《국제공산당이 제시한 의무와 테제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당

원들은 당에서 제명되여야 한다.

이것은 비상당대회의 대표들에게도 역시 해당된다.》—415페지

98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는 1920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는 뻬뜨로그라드에서 개회되였고 그후의 회의들은 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제2차대회에는 37개 나라의 로동자조직을 대표하는 20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각국의 공산당과 공산주의조직(31개 나라)의 대표들외에 독일독립사회민주당, 이딸리아와 프랑스의 사회당, 세계산업로동자동맹(오스트랄리아, 영국, 아일랜드), 에스빠냐전국로동평의회 등 조직들의 대표들도 대회에 참석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당의 력량이 급속히 증대되고 혁명로선이 가일층 강화된 정세하에서 국제로동운동가운데서의 우경 및 《좌》경 기회주의위험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하는것을 연구하며 세계공산주의운동의 조직원칙, 행동강령 및 전략전술을 확정하는것이 대회의 과업이였다.

대회를 위한 전체 준비사업은 레닌이 지도하였다. 대회가 열리기전에 레닌은《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등 중요저작을 발표함으로써 대회를 위한 사상적 및 리론적 준비를 하였다. 대회의 첫 회의에서 레닌은 국제정세와 국제공산당의 기본과업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 레닌은 제3국제당에 기여들어오려고 시도한 기회주의적정당과 중간파적정당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일부 공산주의조직내에 있는 무정부주의-급진로동조합주의적경향과 《좌》경종파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레닌은 국제정세및국제공산당기본과업위원회, 민족문제및식민지문제위원회, 토지문제위원회, 국제공산당가입조건위원회의 사업들에 참가하였다. 레닌이 내놓은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기본과업에 관한 테제, 민족문제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토지문제에 관한 테제, 국제공산당가입조건에 관한 테제들은 대회의 결정으로 비준되였다.

레닌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에 의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제2차대회는 국제공산당의 강령, 조직원칙,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초를 닦아놓았다. —416페지

99 **《타임스》**(《*The Times*》)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영국의 가장 큰 일간신문이다. 1785년부터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423페지

100 **제2반국제당**은 1921년 2월 윈에서 진행된 각 중간파 정당과 집단의 대표자회의에서 창립된 사회당국제로동자련합회(윈국제당이라고도 함.)이다. 이 정당들과 집단들은 혁명적로동자대중의 압력에 못이겨 일시적으로 제2국제당에서 탈퇴하였지만 실제상에서는 무산계급운동의 가장 주요한 모든 문제에서 모두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적로선을 집행하였기때문에 제2반국제당이라고 불렸다. 제2반국제당을 창립한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제공산당측에 서지 못하도록 하며 세계각국에서 날로 장대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약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레닌은 《제2반국제당의 제씨들은 혁명가로 불리우기를 바라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심중한 사태에 처하면 어느때나 반혁명분자로 된다.》(이 책, 727페지를 보라.)라고 말하였다. 1923년에 제2반국제당은 다시 제2국제당과 합당하였다. —426, 695, 711, 722, 741, 748, 773, 778, 800페지

101 **길드사회주의자**는 영국로동조합중의 한 개량주의파벌로서 20세기초에 발생한것이다. 길드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면서 계급투쟁을 거치지 않고 착취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환상을 로동자들속에 퍼뜨렸으며 《평화적으로》 자본주의제도를 길드사회로 교체할것을 주장하였으며 현유의 로동조합의 기초우에서 로동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생산자련합회, 즉 이른바 《길드》, 이런 《길드》에 의하여 공업생산을 관리할것을 설교하였다. 길드사회주의는 자산계급국가의 범위안에서 《산업민주주의》와 《산업자치》를 실시할것을 고취하면서 로동계급을 유인하여 혁명투쟁에서 리탈시키려 하였다. —439페지

102 **민족문제및식민지문제위원회**는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에서 창설한것으로서 영국, 오지리, 벌가리아, 웽그리아, 독일, 화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중국, 조선, 메히꼬, 로씨야, 미국,

토이기,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등 나라의 대표들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레닌의 지도하에 1920년 7월 25일부터 사업하기 시작하여 민족문제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레닌의 테제를 토의하였다. 이 테제는 7월 26일에 대회의 심의에 붙여 대회의 제4차 및 제5차 회의에서 토의를 거친 다음 7월 28일에 채택되였다. —440페지

103 **바젤선언**은 제2국제당 바젤비상대회(1912년 11월 24~25일)에서 채택한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할데 대한 선언이다. 선언은 제국주의의 전쟁준비활동을 준렬히 규탄하였고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준비의 략탈적목적을 폭로하였으며 각국사회주의자들에게 전쟁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바젤선언은, 제국주의전쟁이 일단 발발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된 경제공황과 정치적위기를 자본주의붕괴의 가속화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 리용하여야 한다는(레닌과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기된) 1907년의 제2국제당 슈투트가르트대회결정의 정신을 재언명하였다. 바젤선언은 제국주의국가의 팽창정책을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민족압박과 배외주의의 일체 표현을 반대할것을 사회주의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제2국제당의 지도자들은 대회에서는 바젤선언에 찬성투표하였으나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된후에는 이 선언을 배반하고 본국의 제국주의정부측으로 넘어갔다. 바젤선언에 관하여서는 본 선집, 제2권, 780~791, 856페지를 보라. —446, 744, 778, 850, 885페지

104 국제공산당가입조건은 대회가 선거한 국제공산당가입조건위원회에서 사전에 토의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로씨야, 독일, 벌가리아, 미국, 웽그리아, 오지리, 화란 등 나라의 공산당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밖에 또 아일랜드세계산업로동자동맹, 스위스사회당좌익, 프랑스공산주의소조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위원회는 레닌의 테제 《국제공산당가입조건》을 기초로 하여 사업하였다. 레닌은 위원회의 사업에 직접 참가하였다. 1920년 7월 29일 위원회는 테제를 대회의 토의에 붙이였다. 7월 29일과 30일에 있은 세차례의 대회회의에서 국제공산당가입조건이 토의되였고 8월6일회의에서 이

조건들이 채택되였다. —447페지

105 독일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강령**은 1875년의 고타강령을 대신하는것으로서 1891년 10월에 에르푸르트대회에서 채택되였다. 에르푸르트강령은 라쌀주의의 교조적인것을 없애버렸기때문에 고타강령보다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에르푸르트강령에는 주로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원리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군주제를 뒤엎고 민주공화국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지 못한 등의 엄중한 오유도 있다. 1891년 6월에 엥겔스는 이 강령의 초안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263~280페지를 보라.) —447페지

106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1분책, 37페지를 보라. —448페지

107 **《전로 로동자, 농민, 까자크, 붉은군대 대의원 쏘베트 중앙집행위원회 및 모스크바 로동자, 붉은군대 대의원 쏘베트 통보》**(《*Известия ВЦИК Советов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Казачь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 и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Депутатов*》)를 두고 말한다. 이 신문은 1917년 10월부터 선후하여 뻬뜨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발행되였으며 같은 해 11월 9일부터 쏘베트정권의 공식적인 기관지로 되였다. —479, 521페지

108 1920년 10월 상반월에 모스크바에서 전로무산계급문화협회 제1차대회가 열리였는데 레닌은 루나챠르스끼에게 회의에서 연설할것을 위임하면서 무산계급문화협회는 반드시 교육인민위원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무산계급문화협회는 교육인민위원부의 한개 소속기구여야 한다는것 등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루나챠르스끼는 교육인민위원부기구내에서의 무산계급문화협회의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여나섰다. 레닌은 루나챠르스끼를 준렬히 비판하였다. 대회는 레닌의 지시에 따라 레닌의 초안을 토대로 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결정서는 대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479페지

109 **제8차전로쏘베트대회**는 1920년 12월 22～29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2,537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중 1,728명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들이고 809명이 발언권을 가진 대표들이다.

대회의 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들어있었다. 전로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 로씨야의 전기화에 관한 문제, 공업과 운수업을 복구할데 관한 문제,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며 농민경제를 방조할데 관한 문제, 쏘베트기관의 사업을 개선하며 관료주의와 투쟁할데 관한 문제 등이다.

인민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레닌의 보고에 근거하여 대회는 쏘베트정부의 사업을 시인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8차쏘베트대회는 레닌이 제기한 나라의 전기화계획(전로전기화국가위원회의 계획)과 레닌이 작성한 전기화의 보고에 관한 결정서(《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482페지를 보라.)를 채택하였다. 대회기간에 레닌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의원단회의에서 여러차례 연설하였다. 12월 21일 의원단의 제1차회의에서 레닌은 리권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12월 22일의 의원단회의에서 레닌은 대내외정책문제에 관하여 연설하였다.

대회는 1920년 12월 14일에 인민위원회가 채택한 농업을 강화발전시킬 대책들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였다. 1920년 12월 22일의 농민대표회의와 12월 24일 및 27일의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의원단회의에서 이 법안의 기본원칙들이 토의되였다. 레닌도 이 토의에 참가하였다. 1920년 12월 28일에 대회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채택하였다.

제8차쏘베트대회는 또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과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간의 련맹조약을 비준하였다. —495, 565, 617, 689, 718페지

110 1920년 8월 10일 프랑스정부는 우란겔을 남부로씨야의 통치자로 승인한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성명하였다. —496페지

111 **행동위원회**는 영국의 로동자들이 영국이 쏘베트로씨야전쟁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여 1920년 8월초에 런던에서 창립한 조직이다. 8

월말에 이르러 이러한 조직은 150여개에 달하였으며 한달후에는 2배로 늘어났다. 혁명적대중운동의 압력에 못이겨 로동조합과 로동당의 기회주의적지도자들의 지도밑에 있는 중앙행동위원회는 할수없이 영국정부의 반쏘베트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투쟁을 포기하였으며 지방조직들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1921년초에 행동위원회는 와해되였다. —501페지

112 **국방위원회**(로농국방위원회)는 전로중앙집행위원회에 의하여 1918년 11월 30일에 전선과 후방에서의 전체 방위사업, 즉 군대의 조직과 보충, 전선에 대한 식량, 피복 및 무장의 공급, 이 목적을 위한 국내의 일체 예비의 동원을 지도하기 위하여 창설되였다. 레닌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주요한 전선들에서 전쟁이 끝난후 국방위원회는 1920년 4월에 로동국방위원회로 개편되였다. 국내전쟁이 종결된후 제8차전로쏘베트대회의 1920년 12월29일결정에 의하여 로동국방위원회는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한개 위원회로 되였으며 1936년말까지 존재하였다. —505, 547, 578, 618, 858페지

113 **전기화국가위원회**는 레닌의 발기와 지시에 의하여 창설된것이다. 1920년 2월 7일 제7차전로중앙집행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최고인민경제위원회에 농업인민위원부와 공동으로 발전소망건설계획초안을 작성할것을 위임하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1920년 2월 21일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농업인민위원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전로전기화국가위원회를 창설할것을 비준하였다. 이 위원회는 1920년 3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제8차쏘베트대회가 열리기전에 로씨야사회주의련방쏘베트공화국전기화총계획을 작성하였다. —528, 617페지

114 **쑤하레프까**는 모스크바의 쑤하레브광장(지금의 꼴호즈광장)에 있던 시장이다. 외국무력간섭과 국내전쟁 시기에 쑤하레프까는 투기상들과 량식장사군들이 암거래를 하던 중심지였다. 그때로부터 쑤하레프까는 투기모리의 동의어로 되였다. 제8차전로쏘베트대회직전에 쑤하레프까시장은 1920년 12월 13일 모스크바쏘베트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페쇄되였다. —530페지

115 1920년 11월 14일에 레닌은 농민들의 초청을 받고 월로꼴람스크현 야로뽈스까야향 까쉬노촌의 발전소조업식에 참석하였다. 조업식에서 레닌은 먼저 농민들과 담화하였으며 그다음 인민경제에서의 전기화의 의의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531페지

116 《직업동맹에 관하여, 현시국과 뜨로쯔끼의 오유에 관하여》는 직업동맹의 역할 및 과업 문제와 관련하여 론쟁이 발생된 뒤 레닌이 당열성자들앞에서 한 첫연설이였다. 레닌과 당을 반대하는 투쟁과 론쟁을 야기시킨것은 뜨로쯔끼였다. 다른 반당집단들도 뜨로쯔끼를 뒤따라나섰다.

레닌과 레닌의 지지자들은 반대파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는바 반당집단의 기본력량인 뜨로쯔끼주의자들에게 주되는 타격을 가하였다. 반대파와의 투쟁에서 쓰딸린은 레닌의 충실한 지지자였다.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에서 뜨로쯔끼주의자들과 기타 모든 반대파들은 패배를 당하였다. 각 당조직들은 레닌의 주위에 결속되였고 레닌의 강령을 지지하였다.

직업동맹에 관한 당내론쟁에 관하여서는 이 책, 565~615페지, 쓰딸린의 《우리의 의견상이》(《쓰딸린전집》, 한문판, 제5권, 5~13페지) 및 《쏘련공산당(볼쉐위크) 력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332~342페지를 보라. —534페지

117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9차대회의 결정서 《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관하여》와 《직업동맹과 그 조직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2분책, 2~17, 18~23페지를 보라.)를 념두에 두고있다. —538페지

118 1920년 9월의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9차전로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 《당건설의 당면과업에 관하여》(《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2분책, 37~45페지를 보라.)를 념두에 두고있다. —545페지

119 **완충집단**은 1920~1921년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시기에 발생한 반당집단의 하나로서 부하린, 쁘레오브라젠스끼, 세레브랴꼬브 등

으로 무어졌다. 완충집단은 가장 악질적인 종파분자 뜨로쯔끼일파를 엄호하였으며 당을 반대하는데서 이들을 방조하였다. 얼마후에 부하린주의자들은 뜨로쯔끼주의자들과 공공연히 야합하여 레닌을 반대하였다.

레닌은 《당내위기》란 론문과 《다시한번 직업동맹에 관하여, 현시국과 뜨로쯔끼 및 부하린의 오유에 관하여》란 소책자에서 완충집단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집단의 반당적견해와 반당적 활동에 대하여 비판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6～27폐지 및 이 책, 565～615폐지를 보라.) —545, 565폐지

120 레닌의 발기에 의하여 전로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산하에 창설된 전로생산선전국을 두고 말한다. —550폐지

121 **교통정치총국**(교통인민위원부 정치총국)은 1919년 2월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는 림시적인 정치사업기관으로 창설되였다. 1920년 1월에 교통인민위원부 총정치부로 개편되였다. 교통정치총국의 창설은 비상대책을 취하여 제국주의전쟁과 국내전쟁으로 인하여 교통운수업이 철저히 파괴되는것을 방지하며 운수로동자들속에서 당의 사업과 정치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철도종업원직업동맹을 강화하여 그것을 교통운수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도구로 전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교통정치총국은 철도에서 군사규률을 실시함으로써 철도가 전적으로 전시과업수행에 복종하도록 하였다. 교통정치총국의 특수적인 사업방법은 교통운수업의 철저한 붕괴를 피면하게 하였으나 이와 아울러 관료주의를 조장시켰으며 군중을 리탈하고 직업동맹의 민주주의적인 사업방법을 포기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1920년에 국내전쟁을 결속짓고 평화적건설에로 이행함에 따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12월 7일의 결정에 의하여 교통정치총국은 취소되였다. —554, 570폐지

122 **운수직맹 중앙위원회**, 즉 철도및수상운수종업원합동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1920년 9월에 창설되였다. 1920년말부터 1921년초에 운수직맹 중앙위원회의 령도권을 가로챈 뜨로쯔끼주의자들은 직업동맹의 사업에서 로골적인 강박명령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비당원로

동자들을 사촉하여 당을 반대하도록 하였으며 로동계급을 분렬하는 활동을 감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뜨로쯔끼분자들의 활동을 폭로하고 질책하였다. 1921년 3월에 진행된 운수로동자 제1차전로대회는 뜨로쯔끼주의자들을 운수직맹 중앙위원회 지도부에서 축출하였다. —554, 567페지

123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2분책, 13~14페지를 보라. —555페지

124 **수운총정치부**(교통인민위원부 수운총정치부)는 1920년 4월에 교통인민위원부 정치총국의 한 부서로서 창설되였으며 1920년 12월에 취소되였다. —555, 576페지

125 알렉싼드르 쎄르게예위치 그리보예도브의 희극 《지혜의 슬픔》, 제1막, 제4장을 보라. —557, 822페지

126 **작업동맹 제5차전로대표자회의**는 1920년 11월 2~6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뜨로쯔끼는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공산당원들의 회의에서 《나사못을 조이라》, 《직업동맹의 진축》이라는 기괴한 구호를 들고나섰다. 그는 지체없이 《직업동맹을 국가화》하며 직업동맹에 군사적사업방법을 도입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비당원로동자들을 사촉하여 당을 반대하고 로동계급을 분렬시키려고 꾀하였다.

뜨로쯔끼의 토론은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공산당원들의 반격을 받았다. 레닌이 쓴 《결정서초안 〈직업동맹의 과업과 그의 실행방법〉》(《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39~340페지를 보라.)은 공산당의 원단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의 기초로 되였다.

후에 직업동맹에 관하여 당내에서 전개된 론쟁에서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에서 당과 로동계급을 적대시하는 뜨로쯔끼적정책이 폭로되였으며 반당집단의 기본력량인 뜨로쯔끼주의자들이 격파되였다. —558, 572페지

127 **《다시한번 직업동맹에 관하여, 현시국과 뜨로쯔끼 및 부하린의 오유에 관하여》**란 이 소책자는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 문제에 관한 당내론쟁과 관련하여 레닌에 의해서 집필되였다. 소책자집필은 1921년 1월 25일에 끝나고 그날로 인쇄에 회부되였다. 1월 26일

밤에 인쇄된 소책자의 일부는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지로 떠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되였다. —565페지

128 《뻬뜨로그라드쁘라우다》(《*Петроградская Правда*》)는 1918년 4월 2일에 창간되였다. 처음에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뻬뜨로그라드위원회의 기관지였다. 같은 해 6월부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북부지역당위원회 및 시당위원회의 기관지로 되였으며 후에 와서는 성 및 시 당위원회기관지로 되였다. 1924년 1월에 《레닌그라드쁘라우다》로 이름을 바꾸었다. —565페지

129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1분책, 541～542페지를 보라. —603, 635페지

130 로동자반대파는 1920년 하반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내에 형성된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적반당집단인데 그 두목은 쉴랴쁘니꼬브, 메드웨제브 등이다. 로동자반대파는 전반 인민경제의 관리권을 《전로생산자대회》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그들은 당의 지도적역할과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무산계급독재의 의의를 부인하였으며 직업동맹을 당 및 쏘베트국가와 대립시키면서 로동계급의 최고조직형태는 당이 아니라 직업동맹이라고 인정하였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는 로동자반대파를 규탄하였으며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적경향을 설교하는 사상은 공산당원의 칭호와 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격파된 로동자반대파의 잔여들은 후에 반혁명적뜨로쯔끼일파와 결탁하였다. —613, 628, 633, 723, 822페지

131 《경제생활》(《*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은 최고인민경제위원회와 각 경제인민위원부의 기관지로서 1918년 11월에 창간되여 1937년 11월에 정간되였다. 최후 한시기동안 이 신문은 쏘련재정인민위원부, 쏘련국가은행 및 기타 재정기관, 은행직업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였다. —616페지

132 1920년 12월 29일 제8차전로쏘베트대회에서 채택된 전기화에 관한 결정서에서 인용한것이다. 이 결정서의 초안은 레닌이 집필한것이

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482페지를 보라.) —621페지

133 찌트 찌뜨치는 아. 엔. 오쓰뜨롭스끼의 각본 《남의 일로 손해를 보다》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며 리기적이고 무능하며 고집스럽기로 유명한 자산계급의 대표인물이다. —626페지

134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는 1921년 3월 8~16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73만 2,521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결의권을 가진 694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밖에 296명의 발언권을 가진 대표들도 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에 관한 총화보고, 검열위원회의 총화보고, 민족문제에서의 당의 당면과업에 관한 보고, 곡물징수제를 현물세제로 교체할데 대한 보고, 당의 통일과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적편향에 관한 보고 등등이 청취토의되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개회사를 진술하였으며 대회의 전체 사업을 지도하였다. 레닌은 일정의 모든 기본문제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즉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에 관한 보고, 곡물징수제를 현물세제로 교체할데 대한 보고, 당의 통일과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적편향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였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각각 결론을 내리였다. 또한 레닌은 대회에서 직업동맹문제와 연료문제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레닌은 협동조합에 관한 결정서, 로동자들과 빈궁한 농민들의 처지개선에 관한 결정서, 당의 통일에 관한 결정서, 당내의 급진로동조합주의적-무정부주의적편향에 관한 결정서의 초안초고를 작성하였다.

대회는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을 총화하고 뜨로쯔끼주의자, 로동자반대파, 민주주의중앙집권파 등 기회주의적류파들의 관점을 준엄히 규탄하였으며 레닌적정강을 압도적다수로 채택하였다. 대회는 레닌이 작성한 결정서 《당의 통일에 관하여》와 《우리 당내의 급진로동조합주의적-무정부주의적편향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적편향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은 공산당원의 칭호에 배치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대회는 곡물징수제를 현물세제로 교체하며 신경제정책으로 이

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민족문제위원회를 대표하여 쓰딸린이 제의한 민족문제에서의 당의 당면과업에 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10차대회는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였는데 그중의 대부분은 레닌주의자들이였다. —628, 633, 689, 708폐지

135 **민주주의중앙집권파**는 싸쁘로노브, 오씬스끼 등이 지도하는 반당집단이다. 이 집단은 전시공산주의시기에 발생하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파는 쏘베트와 직업동맹내에서의 당의 지도적역할을 부인하였고 조직문제에서의 레닌의 로선을 반대하였으며 당내에 종파와 집단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9차대회와 제10차대회는 민주주의중앙집권파를 반당집단으로서 규탄하였다. 1923년에 민주주의중앙집권파는 반혁명적뜨로쯔끼파와 결탁하였다. 1927년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회는 민주주의중앙집권파를 당에서 축출하였다. —628폐지

136 1921년 2월 28일에 크론슈따트에서 반혁명적반란이 일어났다.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결탁한 사회혁명당원, 멘쉐위크 및 백파도배들이 이 반란을 지도하였다. 반란자들은 지주, 자본가정권과 사적소유를 회복하려 망상한 저들의 의도를 《쏘베트》란 간판으로 극력 덮어감추려 하였다. 그들은 《볼쉐위크들이 없는 쏘베트》란 구호를 내들었으며 이로써 쏘베트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배격하고 자본주의복구의 음모를 실현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반란은 붉은군대에 의하여 인차 진압되였다. —629, 639, 698, 720, 723폐지

137 **《토론소신문》**(《*Дискуссионный Листок*》)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비정기간행물로서 1920년 9월에 열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9차전로대표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를 앞두고 두호가 나왔다. 즉 제1호는 1921년 1월에, 제2호는 1921년 2월에 발행되였다. —630폐지

138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의 통일에 관한 결정서 제7항은 당시 공포되지 않았다. 1924년 1월 17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3차대표자회의에서 쓰딸린은 《당건설의

당면과업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면서 이 조항을 랑독하였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6권, 22페지를 보라.) 쓰딸린의 제의에 의하여 대표자회의는 이 조항을 공포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2분책, 371페지를 보라.) —632페지

139 **루이 애제느 까베냐크**는 프랑스의 장군이며 반동정객이다. 그는 1848년 프랑스 2월혁명후에 알제리의 총독으로 있었고 1848년 5월부터는 프랑스의 륙군대신으로 있으면서 빠리로동자들의 6월봉기를 포악하게 탄압하였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까베냐크는 자산계급사회에 대하여 군도독재를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군도를 리용하여 자산계급독재를 실시하였다.》(《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541페지) —664페지

140 **《신생활》**(《*Новая Жизнь*》)지는 멘쉐위크 《국제주의자》집단의 신문으로서 1917년 4월에 뻬뜨로그라드에서 발간되였는데 1917년 7월에 께렌스끼정부에 의하여 페간되였다가 그해 9월부터 《자유생활》이란 이름으로 다시 발간되였다. 이 신문은 10월혁명과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였으며 1918년 7월에 페간되였다.

《전진》(《*Bnepёd*》)지는 멘쉐위크의 일간신문으로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멘쉐위크) 모스크바조직위원회와 중부구역위원회의 기관지였다. 이 신문은 1917년부터 1918년까지 발행되였으며 1918년 4월 2일부터는 멘쉐위크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되였다. 이 신문은 반혁명활동에 종사한것으로 하여 1918년 4월말에 페간되였다. —668페지

141 맑스의 《고타강령비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2페지)을 참조하라. —668페지

142 맑스의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문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315페지)를 참조하라. —670페지

143 **갑속에 든 사람**은 체호브의 동명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낡은것을 고집하는 전형적인물이다. —673페지

144 **엠.삐.보가옙스끼**는 1917년 6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짜리로씨야의 장군인 깔레진의 반혁명적 돈 까자크군의 부통수로 있었으며 1918

년 1월초부터는 반혁명적《돈정부》에 참가하였다. 얼마 안가서 체포되였고 4월에 총살당하였다. —674페지

145 뿌쉬낀의 시 《영웅》(《뿌쉬낀선집》, 1949년 로문판, 제1권, 431페지를 보라.)에서 인용한것이다. —686페지

146 **오불로모브**는 곤챠로브의 장편소설 《오불로모브》에 나오는 주인공으로서 그는 라태하기 그지없고 변천을 겁나하며 진종일 환상속에 파묻혀 생활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인간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인습의 잔재와 가부장제적락후성을 비유하는데 사용되고있다. —687, 827페지

147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1분책, 535페지를 보라. —689페지

148 **나르키쏘스**란 고대희랍의 신의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나르키쏘스는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몹시 뽐내면서 자기와 사랑을 맺자고 하는 모든 녀신들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애신 아프로디테가 그를 징벌하기 위하여 그더러 물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사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눈이 빠지도록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초췌해져서 죽었다 한다. 후에 와서 나르키쏘스란 이름은 오만하게 뽐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였다.

마르또브에게는 나르키쏘스 뚜불렴로브라는 필명이 하나 있었다. —700, 739페지

149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전로대표자회의**는 1921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이 대표자회의는 비상회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신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레닌은 대표자회의를 위하여 현물세문제에 관한 보고의 서면테제와 이 보고의 결론에 관한 테제를 준비하였으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레닌은 대표자회의에서 개회사를 진술하였으며 현물세에 관한 보고와 이 보고에 대한 결론을 하였으며 현물세문제에 관한 결정서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직업동맹 제4차대회 공산당의원단의 사업에 관

한 보고를 하였으며 대표자회의에서 폐회사를 진술하였다. 3일간의 대표자회의기간에 레닌은 12번 발언하였다.

레닌이 작성한 신경제정책에 관한 결정서초안이 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채택되였다. —908페지

150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는 1921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48개 국의 공산당 및 좌익사회당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리고 국제녀성동맹과 국제청년동맹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국제공산당에 가까이 서있는 단체의 대표들도 초빙되였다.

대회의 기본과업은 최초 몇차례의 무산계급혁명투쟁의 경험을 총화하고 그 기초우에서 새로운 투쟁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정하는것이였다. 대회는 로동계급의 대다수를 쟁취할 과업을 각국공산당들에 제기하였으며 제2국제당 및 제2반국제당과의 단호한 투쟁을 벌려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적영향을 숙청하여야만이 이 과업을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은 대회의 명예의장으로 선출되였다. 그는 대회의 전체사업을 지도하였다. 레닌은《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에서의 로씨야공산당의 전술에 관한 보고테제》를 작성하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국제공산당의 전술을 수호할 문제와 이딸리아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으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전술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국제공산당의 전술을 천명하면서 대중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자산계급정권을 뒤엎고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전술에 관한 레닌의 보고를 청취하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확인하였으며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경제정책을 확인하였다. 대회는 전 세계 무산계급에게 쏘베트공화국의 로동자, 농민을 지지하며 로씨야의 로동자, 농민의 길을 따라 나아갈것을 호소하였다. —710, 780, 879페지

151 1919년 4월 13일 암리차르시에서 영국군대가 적수공권의 인도인대중들에게 학살을 감행한 사건을 두고 말한다. 이번 살륙의 결과

400명이 살해당하고 1,200명이 부상당하였다. 인도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와 꼭같은 학살사건들이 일어났다. —712폐지

152 **《최근소식》**(《*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은 백파망명자들의 일간신문이며 반혁명적자산계급정당인 립헌민주당의 기관지로서 1920년 4월부터 1940년 7월까지 빠리에서 발행되였다. 신문의 주필은 립헌민주당의 지도자인 뻬. 엔. 밀류꼬브였다. —720폐지

15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참조하라. —720폐지

154 **《공산주의로동》**(《*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Труд*》)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및 모스크바로동자농민대의원쏘베트의 기관지로서 1920년 3월 18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22년 2월 7일부터는 《로동자들의 모스크바》라는 이름으로, 1939년 3월 1일부터는 《모스크바의 볼쉐위크》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였으며 1950년 2월 19일부터는 《모스크바쁘라우다》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였다. —720폐지

155 **독일공산당내 《좌익》의 오유**는 《좌익》이 시기상조한 행동의 길로 로동계급을 추동한데 있다. 독일의 자산계급은 이 점을 리용하여 로동자들에게 불리한 시기에 무장진출을 하도록 로동자들을 사촉하였다. 1921년 3월에 독일중부지방에서 로동자들이 폭동을 단행하였다. 폭동은 다른 공업지대들의 로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결과 로동자들의 영웅적투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탄압되였다. 레닌은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에서 한 《국제공산당의 전술을 수호하는 연설》에서와 《독일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폭동을 평가하였으며 《좌익의 오유》를 비판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455~465, 500~511폐지를 보라.) —727폐지

156 **1921년의 청당**을 두고 말한다. 이번 청당은 1921년 하반년의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되였다. 청당의 결과 전체 당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17만명 정도가 출당되였다. —734폐지

157 악쎌로드가 제기한 이른바 《로동자대회》를 소집하자는 주장은 멘쉐위크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목적은 이러한 대회를 리용하여 사회민주당원, 사회혁명당원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참가한 《광범한 로

동자당》을 창건하여 이로써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을 대체하자는것이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런던)대회에서는 멘쉐위크의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선전하는것은 무산계급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해로운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36폐지

158 **마끼아웰리주의**는 권모술수를 숭상하는 일종 정치주장으로서 15세기말부터 16세기초에 걸친 이딸리아의 정치가이며 군주전제의 옹호자인 마끼아웰리로부터 이름이 온것이다. 마끼아웰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이딸리아의 통치자들이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가릴것이 없으며 지어 모든 도덕적원칙을 위반하고 배신, 기만, 반역, 암살 등의 수단을 취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36폐지

159 **햄리트**는 쉐익스피어의 동명의 비극에 나오는 주요인물로서 내심적으로 모순되여있고 유예미결하고 환상에 잠겨있으면서 결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의 전형이다. —739폐지

160 1875년 3월 18~28일과 1884년 12월 11일부로 아. 베벨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27폐지,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참조하라. —749폐지

161 엥겔스의 《망명자문헌》(《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94폐지)을 참조하라. —751폐지

162 1921년 12월 28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전원회의가 있은후 레닌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과 과업에 관하여》란 테제를 집필하였다. 1922년 1월 12일에 당중앙정치국은 이 테제를 토의하고 비준하였다. 테제는 개정을 거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2분책, 154~164폐지를 보라.) —759폐지

163 **목표전환파**는 반쏘베트적백파지식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1921년에 이 집단은 쁘라하에서 《목표전환》이란 론문집을 발간하였으며

그후 1921～1922년에는 또 빠리에서 《목표전환》이란 잡지를 발행하였다. 목표전환파란 이름은 바로 이렇게 되여 얻어진것이다. 목표전환파는 외국무력간섭의 방도에 의한 쏘베트정권의 전복이 완전히 절망적임을 확신한 다음 신경제정책의 실시와 함께 쏘베트정권의 자산계급정권으로의 변질에 기대를 걸었다. —776, 829페지

164 **이우두슈까 골로블료브**는 쌀띄꼬브-쉐드린의 소설 《골로블료브나으리들》에 나오는 극히 리기적이고 허위적이며 잔혹하고 탐욕적이며 미련한 지주이다. —776페지

165 크릴로브의 우화 《수리개와 암탉》을 보라. —783페지

166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Под Знаменем Марксизма》*)는 쏘련의 철학 및 사회경제의 월간잡지로서 192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모스크바에서 발간되였다. —786페지

167 엥겔스의 《망명자문헌》(《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91페지)을 참조하라. —789페지

168 쌀띄꼬브-쉐드린의 소설 《한 도시의 력사》(《쌀띄꼬브-쉐드린전집》, 1934년 로문판, 제9권, 363페지)를 보라. —795페지

169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는 1922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이 대회는 레닌이 참가한 마지막 당대회였다. 대회에는 결의권을 가진 대표 522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165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의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 (2) 중앙위원회의 조직사업보고, (3) 검사위원회의 사업보고, (4) 중앙검열위원회의 사업보고, (5) 국제공산당에 대한 사업보고, (6) 직업동맹, (7) 붉은군대에 대하여, (8) 재정정책, (9) 청당의 총화와 당대렬의 공고화, 첨부보고—청년사업에 대하여, 출판물과 선전에 대하여, (10)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선거.

레닌이 개회사를 하였고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와 그 보고에 대한 결론을 하였으며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는 신경제정책을 집행한 첫해의 사업에 대하여 총화하였다.

1922년 4월 3일에 열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전

원회의에서는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쓰딸린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선거하였다. —799, 860페지

170 **제노아회의**(국제경제회의)는 1922년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딸리아의 제노아에서 열리였다. 그번 회의에는 쏘베트로씨야,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벨지끄, 일본, 독일 및 기타 21개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미국대표는 방청자로서 참석하였다.

1922년 1월 27일에 전로중앙집행위원회 비상회의에서 레닌을 쏘베트대표단 단장으로 임명하였다. 레닌은 제노아로 갈수는 없었으나 쏘베트대표단의 전체 사업을 실제적으로 지도하였고 대표단 단원들에게 여러가지 지시를 주었으며 문제의 설정, 대회기간에 쏘베트정부를 대표하여 제출할 각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을 지었다.

회의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은 쏘베트로씨야의 경제적곤난을 리용하여 야박한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협박하려 시도하였다. 그들은 짜리정부와 자산계급림시정부가 차입한 외채를 상환할것과 국유로 만든 기업 등등을 외국의 기업주들에게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다.

쏘베트대표단은 제국주의나라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쏘베트로씨야에 대하여 프랑스, 영국이 적대적립장을 취하였기때문에 회의는 중단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1922년 6~7월에 헤그에서 열리게 되는 감정인회의에 넘기였다. 헤그회의도 제노아회의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였다. —799페지

171 이 고사는 나뽈레옹이 애급원정때 한 말에서 유래한것이다. 1798년 7월 20일에 나뽈레옹이 부대를 거느리고 금자탑부근에 도착하자 당지의 근위기병주력부대와 조우하였다. 전투를 앞두고 전체 병사들앞에서 나뽈레옹은 《병사들이여! 40개 세기는 이 높이 솟은 금자탑들의 우에서 당신들을 굽어보고있다!》고 말하였다. —815페지

172 **빈농위원회**는 전로중앙집행위원회의 1918년 6월 11일부 법령(《빈농들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식량, 생활필수품과 농기구를 공급할데 대하여》)에 의하여 건립된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빈농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식량, 생활필수품, 농기구를 분배하며 당지의 량정부서를 협조하여 부농과 부유한 사람들의 여유량곡을

몰수한다. 법령에는 또 식량과 농기구를 분배할 때 빈고한 농민들을 여러 면으로 우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빈농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무산계급독재의 지주였다. 부농들과의 투쟁에서와 몰수한 토지를 재분배하며 공업지구와 붉은군대에 식량을 공급하는 면에서 빈농위원회는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빈농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은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가일층 발전한 하나의 단계로 된다. 빈농위원회는 농촌에서 쏘베트주권을 공고화하고 쏘베트주권의 편으로 중농들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놀았다.

전로쏘베트 제6차비상대회(1918년 11월)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빈농위원회는 농촌쏘베트와 합하였다. —819페지

173 **《설교대장》**이란 1917년 병사들이 자산계급림시정부 총사령관 께렌스끼에게 지어준 별호이다. 왜냐 하면 그가 1917년 여름에 전선을 시찰할 때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와 로씨야자산계급의 의사에 좇아 병사들에게 진공하라고 설교하였기때문이다. —828페지

174 **중앙통제위원회**, 즉 중앙당원통제위원회는 1921년 6월 25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 제10차대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청당사업을 령도하기 위하여 세운것이다. —856페지

175 **국제공산당 제4차대회**는 1922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는 뻬뜨로그라드에서 개막되였으며 1922년 11월 9일부터는 모스크바에서 계속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국의 58개 공산당조직을 대표하는 408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그가운데서 결의권을 가진 대표는 343명에 달하였다. 그밖에도 이딸리아사회당, 이슬란드로동당, 몽골인민혁명당 및 국제공산주의청년동맹, 국제직업동맹, 국제녀성동맹 서기국, 국제로동자구제위원회 그리고 미국흑인단체 등도 대회에 출석할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레닌이 최후로 참가한 국제공산당대회였다. 레닌은 대회에 《로씨야혁명의 5년과 세계혁명의 전망》이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로동자통일전선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전술, 로동운동에서의 공산당원의 임무, 동방문제에 관한 테제들을 비준하였으

며 로씨야사회주의혁명, 국제공산주의청년동맹 및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공산당은 반드시 통일전선적전술에 근거하여 대중속에서 장기간 완강하게 사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63페지

176 이것은 뚜르게네브의 소설 《로찡》에 나오는 인물 비까쏘브의 말을 빌어쓴것이다. 비까쏘브는 녀성들은 우매무지하며 말을 하는데 론리적련계가 전혀 없다고 인정하면서 녀성들을 몹시 멸시하였다. 그는 《례컨대 한 남자는 2×2는 4인것이 아니라 5나 3개 반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한 녀자는 2×2는 초라고 말할것이다.》라고 하였다. —879페지

177 **헤그회의**, 즉 헤그세계평화대회는 로동자대중의 압력밑에 암스테르담국제직업동맹에 의하여 소집되였다. 1922년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새로운 세계대전을 어떻게 방지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직업동맹과 협동조합의 혁명적로동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쏘련대표단이 초청을 받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쏘련대표단은 기회주의적다수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지시정신에 좇아 전쟁문제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과업을 천명하였다. 대회는 쏘련대표단이 내놓은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았다. —883페지

178 **《협동조합에 관하여》**는 1923년 1월에 레닌의 구술에 의하여 쓴것이다. 이 글에서 레닌은, 협동조합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로 농민들을 인입시키며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할데 대한 계획을 내놓았으며 무산계급독재와 로농련맹의 조건하에서, 농민에 대한 무산계급의 령도를 보장하고 전부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장악하는 조건하에서 천백만 농민대중을 협동조합에 참가하게 하는것은 완전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896페지

179 **엔. 쑤하노브**는 로씨야의 정론가이며 농업경제학자였다. 초기에는 인민파였고 후기에는 멘쉐위크로 되였다. 10월혁명후에 그는 쏘베트경제기관에서 일하였다. 1931년에 멘쉐위크의 지하조직을 령도하였기때문에 처형되였다. —906페지

180 맑스의 《프랑스국내전쟁》과 1871년 4월 12일부로 엘. 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78페지, 제4권, 392페지)을 참조하라. —906페지

181 1856년 4월 16일부로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34페지)을 참조하라. —906페지

182 《우리는 로농감독국을 어떻게 재조직할것인가》란 글과 그 속편인 《적게 해도 좋으니 잘하라》는 레닌이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2차대회를 위하여 쓴것이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2차대회는(1923년 4월 17～25일에 진행되였다.) 레닌의 최후 론문들과 서한들에 있는 지시전체를 자기의 결정에 넣었다. 제12차대회는 《로농감독국과 중앙검열위원회의 임무에 관하여》란 특별결정과 중앙검열위원회에 관한 결정(《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한문판, 제2분책, 292～297, 299～300페지를 보라.)을 채택하였다. —911페지

인 명 색 인

ㄱ

고르부노브, 니꼴라이 뻬뜨로위치(哥尔布诺夫, 尼古拉·彼得罗维奇 Горбунов,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1892～1938년)—184페지

고리끼, 막심(高尔基, 马克西姆 Горький, Максим 1868～1936년) 본명은 뻬쉬꼬브, 알렉쎄이 막씨모위치(彼什科夫, 阿列克塞·马克西莫维奇 Пешков, Алексей Максимович)—78～83페지

곰퍼즈, 새뮤엘(龚帕斯,赛米尔 Gompers, Samuel 1850～1924년)—275, 278, 785페지

구쎄브, 쎄르게이 이와노위치(古谢夫, 谢尔盖·伊万诺维奇 Гусев,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1874～1933년)(본명은 드라브낀, 야꼬브 다위도위치 德拉勃金, 雅柯夫·达威多维奇 Драбкин, Яков Давидович)—231, 525～526페지

갤라처, 윌럄(加拉赫, 威廉 Gallacher, William 1881～1965년)—309～312, 321페지

게.(格·Г.)—9～10페지

게, 알렉싼드르(格耶, 亚历山大 Ге, Александр 1879～1919년)—669페지

게. 엘.(格.鲁.)—무까쉬를 보라.

게드, 쥘(盖得, 茹尔 Guesde, Jules 1845～1922년) 본명은 바질, 마떠외(巴集尔, 马蒂约 Basile, Mathieu)—295, 339페지

ㄴ

나딴쏜, 마르크 안드레예위치(纳坦松, 马尔克·安得列也维奇 Натансон, Марк Андреевич 1850～1919년)—301페지

나뽈레옹1세(나뽈레옹 보나빠르트)(拿破仑第一, 拿破仑·波拿巴 Napoléon I, Napoléon Bonaparte 1769～1821년)—910페지

나뽈레옹3세(루이-나뽈레옹 보나빠르트)(拿破仑第三, 路易-拿破仑·波拿巴 Napoléon III, Louis Bonaparte 1808～1873년)—664, 701페지

노스케, 구스타브(诺斯克, 古斯达夫 Noske, Gustav 1868～1946년)—248, 309, 312, 339페지

ㄷ

단(唐恩 Дан 1871～1947년) 본명은

구르위치, 표도르 일리이치(古尔维奇, 费多尔・伊里奇 Гурвич, Федор Ильич)—699페지

두고니, 엔리꼬(杜果尼, 恩利科 Dugoni, Enrico 1874～1945년)—349페지

드레브스, 아르투르(德列福斯, 阿尔都尔 Drews, Arthur 1865～1935년)—791페지

드레퓌스, 알프레드(德雷福斯, 阿尔弗勒德 Dreyfus, Alfred 1859～1935년)—334페지

디트만, 윌헬름(迪特曼, 威廉 Dittmann, Wilhelm 1874～1954년)—447, 453페지

디쯔겐, 오이겐(狄慈根, 欧根 Dietzgen, Eugen 1862～1930년)—787페지

디쯔겐, 요제프(狄慈根, 约瑟夫 Dietzgen, Josef 1828～1888년)—289, 787페지

데레온, 대니엘(德莱昂, 丹尼尔 De-Leon, Daniel 1852～1914년)—276페지

ㄹ

라린, 유리(拉林, 尤里 Ларин, Юрий 1882～1932년) 본명은 루리에, 미하일 알렉싼드로위치(卢利叶, 米哈伊尔・亚历山大罗维奇 Лурье,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616페지

라제크, 까를 베른가르도위치(拉狄克, 卡尔・别隆加尔道维奇 Радек, Карл Бернгардович 1885～1939년)—256페지

라꼬시, 마티아스(拉科西, 马提阿斯 Rákosi, Mátyás 1892～1971년)—824페지

라삔스끼, 뻬.엘.(拉品斯基, 巴・路・Lapinski, P.L. 1879～1937년) 본명은 레윈존, 이.(列文桑, 雅・Lewinson, J.)—424페지

라짜리, 꼰스딴띠노(拉查理, 康斯坦丁诺 Lazzari, Constantino 1857～1927년)—784페지

라우펜베르그, 하인리히 (에를레르, 칼)(劳芬堡, 亨利希 Laufenberg, Heinrich 1872～1932년 艾列尔, 卡尔 Erler, Karl)—264, 305페지

랴자노브, 다위드 보리쏘위치(梁赞诺夫, 达维德・波利索维奇 Рязанов, Давид Борисович 1870～1938년)—540, 543페지

로잔꼬, 미하일 울라지미로위치(罗将柯, 米哈伊尔・弗拉基米罗维奇 Родзянко, Михаил Владимирович 1859～1924년)—268페지

로좁스끼 (洛佐夫斯基 Лозовский 1878～1952년) 본명은 드리조, 쏠로몬 아브라모위치(德里德佐, 索洛蒙・阿布拉莫维奇 Дридзо, Соломон Абрамович)—538, 543～페지

로쥬꼬브, 니꼴라이 알렉싼드로위치 (罗日柯夫, 尼古拉・亚历山大罗维

奇 Рожк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68～1927년)—699페지
로이, 마나벤드라 나트(罗易, 马纳卞德腊·纳特 Roy, Manabendra Nath 1892～1948년)—440～441, 444페지
로이드 죠지, 데이비드(劳合-乔治, 戴维 Lloyd George, David 1863～1945년)—312～322, 330, 421, 426, 429페지
롱게, 장-로랑-프레데리크(龙格, 让·罗朗·弗雷德里克 Longuet, Jean-Laurent-Frederick 1876～1938년)—115, 161, 173, 248, 257, 741페지
루나차르스끼, 아나똘리 와실리예위치(卢那察尔斯基, 安那托里·瓦西里也维奇 Луначарский, Анатолий Васильевич 1875～1933년)—479～480페지
루주따크, 얀 에르네스또위치(鲁祖塔克, 扬·艾尔涅斯托维奇 Рудзутак, Ян Эрнестович 1887～1938년)—558～562, 572, 576～577, 579～582, 585～587페지
루까취, 죄르지(게. 엘.)(鲁卡奇, 格奥尔基 Lukács, György 1885년에 출생, 格·鲁·G.L.)—582～583페지
루또위노브, 유리 흐리싼포위치(卢托维诺夫,尤里·赫里桑佛维奇 Лутовинов, Юрий Хрисанфович 1887～1924년)—556페지
룩셈부르그, 로자(卢森堡, 罗莎 Luxemburg, Rosa 1871～1919년)—282, 450, 783～784페지
리지스(里季斯 Lysis) 본명은 러따이외르, 외젠느(累太叶尔, 欧仁 Letailleur, Eugène)—417페지
리워브, 게오르기 예브게니예위치(李沃夫, 格奥尔基·叶甫盖尼也维奇 Львов, Георгий Евгеньевич 1861～1925년)—383페지
립크네히트, 칼 (李卜克内西, 卡尔 Liebknecht, Karl 1871～1919년)—282, 292, 450페지
레긴, 칼(列金, 卡尔 Legien, Carl 1861～1920년)—253, 275, 278페지
레노델, 삐에르(列诺得尔, 比埃尔 Renaudel, Pierre 1871～1935년)—164, 257페지
레데부르, 게오르그(累德堡, 格奥尔格 Ledebour, Georg 1850～1947년)—253, 303, 451페지
레비, 파울(列维, 保尔 Levi, Paul 1883～1930년)—421, 425, 727, 780, 784페지
랜즈버리, 죠지(兰斯柏利, 乔治 Lansbury, George 1859～1940년)—256, 295페지
렌네르, 칼(伦纳, 卡尔 Renner, Karl 1870～1950년)—248, 257페지
뤼트위쯔, 왈테르(吕特维茨, 瓦尔特 Lüttwitz, Walter 1859～1942년)—346, 348페지
릐꼬브, 알렉세이 이와노위치(李可

夫，阿列克塞·伊万诺维奇 Рыков,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1881～1938년)—521, 526, 577페지

ㅁ

마르흘레브스끼, 율리안(马尔赫列夫斯基，尤利安 Marchlewski, Julian 1866～1925년)—367페지

마르또브, 엘.(马尔托夫，尔·Мартов, Л. 1873～1923년) 본명은 쩨제르바움, 율리 오씨뽀위치(策杰尔包姆，尤利·奥西波维奇 Цедербаум, Юлий Осипович)—15, 49～51, 121～123, 167, 170, 300～301, 694, 699, 702～703, 707, 724, 741페지

마링, 헨리크(马林，亨利克 Maring, Henryk 1883～1942년)—440페지

마흐노, 네스또르 이와노위치(马赫诺，涅斯托尔·伊万诺维奇 Махно, Нестор Иванович 1884～1934년)—486페지

마이스끼, 이완 미하일로위치(马依斯基，伊万·米哈伊洛维奇 Майский, 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1884년에 출생)—43, 645, 700페지

말리놉스끼, 로만 와쯜라워위치(马林诺夫斯基，罗曼，瓦茨拉沃维奇 Малиновский, Роман Вацлавович 1876～1918년)—267～268페지

맑스, 칼(马克思，卡尔 Marx, Karl 1818～1883년)—22, 56, 165, 168～169, 263, 276, 294, 299, 460～461, 670, 672, 756, 790, 793～794, 818, 848, 906, 909페지

먀스니꼬브(米雅斯尼柯夫 Мясников 1886～1925년), 본명은 먀스니깐, 알렉싼드르 페도로위치(米雅斯尼柯杨，亚历山大·费多罗维奇 Мясникян, Александр Федорович)—659페지

모딜리아니, 쥬제뻬 에마누엘레(莫迪利扬尼，朱泽培·艾曼努埃勒 Modigliani, Giuseppe Emanuele 1872～1947년)—349, 410페지

무라비예브, 미하일 아르쩨미예위치(穆拉维约夫，米哈伊尔·阿尔帖米耶维奇 Муравьев, Михаил Артемьевич 1880～1918년)—50페지

미로쉬니꼬브, 이완 이와노위치(米罗什尼科夫，伊万·伊万诺维奇 Мирошников, Иван Иванович 1894～1938년)—841페지

밀류꼬브, 빠웰 니꼴라예위치(米留可夫，巴维尔·尼古拉也维奇 Милюков,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859～1943년)—383, 648～651, 654, 698～701, 704～705, 707, 720, 729페지

밀류찐, 울라지미르 빠블로위치(米柳亭，弗拉基米尔·巴甫洛维奇 Милютин, Владимир Павлович 1884～1938년)—589, 616페지

맥도날드, 제임즈 램지(麦克唐纳，詹姆斯·拉姆赛 MacDonald, James Ramsay 1866～1937년)—115,

161, 173, 309, 312, 431, 434, 448, 699, 741페지
메렝, 알퐁스(梅尔黑姆, 阿尔方斯 Merrheim, Alphonse 1881～1925년)—275, 352페지
뮌젠베르그, 윌헬름(明岑堡, 威廉 Münzenberg, Wilhelm 1889～1940년)—453페지

ㅂ

바부쉬낀, 이완 와씰리예위치(巴布什金, 伊万·瓦西里也维奇 Бабушкин, Иван Васильевич 1873～1906년)—279페지
바우에르, 오토(鲍威尔, 奥托 Bauer, Otto 1882～1938년)—238, 248, 257, 300, 306, 339, 433～434, 824～825, 849페지
바이양, 에두아르(瓦扬, 爱德华 Vaillant, Edouard 1840～1915년)—295페지
반데르벨드, 에밀(王德威尔得, 艾米尔 Vandervelde, Emile 1866～1938년)—783페지
발로드, 칼(巴洛德, 卡尔 Ballod, Karl 1864～1931년)—620페지
보가옙스끼, 미뜨로판 뻬뜨로위치(鲍加也夫斯基, 米特罗范·彼得罗维奇 Богаевский, Митрофан Петрович 1881～1918년)—674페지
보르디가, 아마데오(波尔迪加, 亚马多 Bordiga, Amadeo 1889년에 출생)—293, 350페지
부르제브, 울라지미르 리워위치(布尔采夫, 弗拉基米尔·李沃维奇 Бурцев, Владимир Львович 1862～1936년)—648페지
부하린, 니꼴라이 이와노위치(布哈林, 尼古拉·伊万诺维奇 Бухарин,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888～1938년)—256, 528, 541, 544～545, 551～552, 554, 555～557, 562～564, 565～615, 670, 672, 818페지
브라운(勃拉温)—브론스끼를 보라.
브론스끼, 메치슬라브(勃朗斯基, 美契斯拉夫 Broński, Mieczyslaw 1882～1941년) (브라운 勃拉温 Braun)—422～423페지
베.까.(贝·库·)—꾼 벨라를 보라.
베른슈타인, 에두아르드 (伯恩施坦, 爱德华 Bernstein, Eduard 1850～1932년)—253, 448페지
베벨, 아우구스트(倍倍尔, 奥古斯特 Bebel, August 1840～1913년)—253, 720, 749페지

ㅅ

샤이데만, 필리프(谢德曼, 菲力浦 Scheidemann, Philipp 1865～1939년)—164～165, 204, 248, 302～303, 305, 309, 312, 316, 330, 339, 346, 433, 449, 784페지
손중산(孙中山 1866～1925년)—599페지
슈틴네스, 후고(斯汀尼斯, 胡果 Stinnes, Hugo 1870～1924년)—450페

지
스노든, 필리프(斯诺顿, 菲力浦 Snowden, Philip 1864～1937년)—309, 312, 316～322, 346페지
스뱌찌쯔끼, 니꼴라이 와실리예위치(斯维亚齐茨基, 尼古拉·瓦西里也维奇 Святицкий,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887년에 출생)—156, 158～159, 166, 177페지
스뜨루웨, 뾰뜨르 베른가르도위치(司徒卢威, 彼得·别隆加尔道维奇 Струве, Петр Бернгардович 1870～1944년)—300페지
스위제르스끼, 알렉세이 이와노위치(斯维捷尔斯基, 阿列克塞·伊万诺维奇 Свидерский,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1878～1933년)—95, 520페지
스웨르들로브, 야꼬브 미하일로위치(斯维尔德洛夫, 雅柯夫·米哈伊洛维奇 Свердлов, Яков Михайлович 1885～1919년)—207페지
쉬뢰데르, 칼(施勒德尔, 卡尔 Schröder, Karl 1884～1950년)—264페지
쉴랴쁘니꼬브, 알렉싼드르 가브릴로위치(施略普尼柯夫, 亚历山大·加甫利洛维奇 Шляпников, Александр Гаврилович 1885～1937년)—556, 613～614페지
쉐르, 와실리 울라지미로위치(舍尔, 瓦西里·弗拉基米罗维奇 Шер, Васил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1884～1940년)—29페지

ㅈ

자쑬리치, 웨라 이와노브나(查苏利奇, 维拉·伊万诺夫娜 Засулич, Вера Ивановна 1849～1919년)—300페지
조프, 바제슬라브 이와노위치(佐夫, 维亚切斯拉夫·伊万诺维奇 Зоф, Вячеслав Иванович 1889～1940년)—578페지
주바또브, 쎄르게이 와실리예위치(祖巴托夫, 谢尔盖·瓦西里也维奇 Зубатов,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1864～1917년)—279페지
쥬오, 레옹(茹奥, 莱昂 Jouhaux, Léon 1879～1954년)—275, 278, 352페지
지노비예브, 그리고리 예브쎄예위치(季诺维也夫, 格里哥里·叶夫谢也维奇 Зиновьев, Григорий Евсеевич 1883～1936년)—574～577, 582, 584, 586, 588, 593, 595, 598～599, 601, 604, 609페지
지야첸꼬, 아.뻬.(嘉靖科, 阿·普·Дьяченко, А.П. 1875～1952년)—7～10페지
제니낀, 안똔 이와노위치(邓尼金, 安东·伊万诺维奇 Деникин, Антон Иванович 1872～1947년)—30～41, 44, 48～51, 53, 86～93, 97, 104, 108, 128, 131, 137, 175, 179, 194, 198, 200～201, 211,

219, 230, 259, 268～269, 288, 473, 508, 642, 652, 705, 757페지

大

처칠, 윈스톤(邱吉尔, 温斯顿 Churchill, Winston 1874～1965년)—135, 316, 318, 322, 330페자

체르노브, 윅또르 미하일로위치(切尔诺夫, 维克多·米哈伊洛维奇 Чернов, Ви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1876～1952년)—43, 49, 121, 123, 161, 170, 301, 454, 694, 698～700, 702, 707, 724, 741페지

체르넨꼬브, 보리스 니꼴라예위치(切尔年柯夫, 波利斯·尼古拉也维奇 Черненков,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1883년에 출생)—29페지

체르늬쉡스끼, 니꼴라이 가브릴로위치(车尔尼雪夫斯基, 尼古拉·加甫利洛维奇 Чернышевский, Николай Гаврилович 1828～1889년)—300, 787페지

ㅋ

카프, 월프강(卡普, 沃尔弗干格 Kapp, Wolfgang 1858～1922년)—328, 346, 348페지

카우쯔키, 칼(考茨基, 卡尔 Kautsky, Karl 1854～1938년)—15, 22, 115, 120～123, 161, 165, 170, 173, 238～240, 248, 253, 300, 303, 306, 339, 346～348, 379, 398, 447～452, 677, 700, 741, 783～784, 824, 910페지

크루프 폰 볼렌 운드 할바흐, 구스타브 (克虏伯·冯·博伦·翁特·哈耳巴赫, 古斯达夫 Krupp von Bohlen und Halbach Gustav 1870～1950년)—450페지

크리스핀, 아르투르(克里斯平, 阿尔都尔 Crispien, Artur 1875～1946년)—253, 303, 346～348, 448～453페지

크리쯔만, 레브 나따노위치 (克里茨曼, 列甫·纳塔诺维奇 Крицман, Лев Натанович 1890～1938년)—616페지

크레스찐스끼, 니꼴라이 니꼴라예위치(克列斯廷斯基, 尼古拉·尼古拉也维奇 Крестинский,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883～1938년)—563, 609페지

클라인즈, 죤 로버트(克莱尼斯, 约翰·罗伯特 Clynes, John Robert 1869～1949년)—309, 312페지

케인즈, 죤 메이너드(凯因斯, 约翰·梅纳德 Keynes, John Maynard 1883～1946년)—421～422, 426～427페지

퀠취, 톰(奎尔奇, 汤姆 Quelch, Tom 1886～1954년)—446페지

ㅍ

판네쿠크, 안토이니 (潘涅库克, 安东尼 Panneckoek, Antoinie 1873～1960년) 필명은 호르네르, 카. (霍

纳，克・Horner, K.)—264, 268, 305, 453페지
포쉬, 페르디낭(福煦，斐迪南 Foch, Ferdinand 1851～1929년)—17페지
팽크허스트, 실비아 에스텔(潘克赫斯特，西尔维娅・埃斯特尔 Pankhurst, Sylvia Estelle 1882～1960년)—308～309, 312, 314～316, 321페지

ㅎ

하인드만, 헨리 메이어즈(海德门，亨利・迈尔斯 Hyndman, Henry Mayers 1842～1921년)—339페지
호도롭스끼, 이오씨프 이싸예위치(霍多罗夫斯基，约瑟夫・伊萨也维奇 Ходоровский, Иосиф Исаевич 1885～1940년)—893～894페지
호르네르, 카. (霍纳，克.)—판네꾸크를 보라.
힌덴부르그, 파울(兴登堡，保尔 Hindenburg, Paul 1847～1934년)—17페지
힐퀴트, 모리스 (希尔奎特，莫利斯 Hillquit, Morris 1869～1933년)—741페지
힐페르딩, 루돌프 (希法亭，鲁道夫 Hilferding, Rudolf 1877～1941년)—248, 253, 303, 306, 741페지
헤겔, 게오르그 윌헬름 프리드리히 (黑格尔，乔治・威廉・弗里德里希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0～1831년)—598, 794페지
헤르만, 라디슬라우스(赫尔曼，拉迪斯劳斯 Hermann, Ladis laus 1962년에 사망) 필명은 엘.엘. (尔・尔・L.L.)—348페지
헨더슨, 아서(韩德逊，阿瑟 Henderson, Arthur 1863～1935년)—275, 278, 309, 312, 316～322, 330, 346페지
회글런드, 제트(霍格伦，泽特 Höglund, Zeth 1884～1956년)—292페지

ㄲ

까렐린, 울라지미르 알렉싼드로위치(卡列林，弗拉基米尔・亚历山大罗维奇 Карелин,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91～1938년)—668페지
까메네브, 레브 보리쏘위치(加米涅夫，列甫・波利索维奇 Каменев, Лев Борисович 1883～1936년)—231, 577, 614, 840～843, 857페지
까베냐크, 루이 외제느(卡芬雅克，路易・欧仁 Cavaignac, Louis-Eugène 1802—1857년)—664, 701페지
깔리닌, 미하일 이와노위치(加里宁，米哈伊尔・伊万诺维奇 Калинин,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1875～1946년)—79, 577페지
끄르닐로브, 라브르 게오르기예위치

(科尔尼洛夫，拉甫尔·格奥尔基也维奇 Корнилов, Лавр Георгиевич 1870～1918년)—328페지

꼬즐롭스끼, 아.(柯兹洛夫斯基，阿·Козловский, А.)—698페지

꼴차크, 알렉싼드르 와씰리예위치(高尔察克， 亚力山大·瓦西里也维奇 Колчак,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1873～1920년)—2, 5, 30～31, 33～39, 41～43, 49～53, 84～94, 97, 128～129, 131, 135, 175, 194, 200, 211, 219, 259, 288, 473, 486, 508, 642, 645, 649, 652, 705, 757, 830, 879페지

꾸라예브, 와씰리 울라지미로위치(库拉也夫,瓦西里·弗拉基米罗维奇Кураев, Васил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1892～1938년)—516페지

꾼, 벨라(베.꾸.)(库恩，贝拉 Kun, Béla 1886～1939년 贝.库. B.K.)—382～385페지

끄라씬, 레오니드 보리쏘위치(克拉辛，列奥尼德·波利索维奇 Красин, Леонид Борисович 1870～1926년)—421, 841～844페지

끌레망소, 죠르지 벵쟈멩(克列孟梭，若尔日·本扎曼 Clemenceau, Georges-Benjamin 1841～1929년)—426, 429페지

끼쎌료브, 알렉쎄이 쎄묘노위치(基谢廖夫，阿列克塞·谢明诺维奇 Киселев, Алексей Семенович 1879～1938년)—614페지

께르젠쩨브(凯尔任策夫 Керженцев 1881～1940년) 본명은 레베제브, 쁠라똔 미하일로위치(列别捷夫，普拉东·米哈伊洛维奇 Лебедев, Платон Михайлович)—925페지

께렌스끼, 알렉싼드르 페도로위치(克伦斯基，亚力山大·费多罗维奇 Кере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Федорович 1881～1970년)—219, 259, 268, 302, 316, 337, 383, 432～433, 436, 645～647, 669, 674페지

ㄸ

또도르스끼, 알렉싼드르 이와노위치(托多尔斯基，亚历山大·伊万诺维奇 Тодорский,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894～1965년)—835페지

또마, 알베르(托马，阿尔伯 Thomas, Albert 1878～1932년)—436페지

똠스끼, 미하일 빠블로위치(托姆斯基，米哈伊尔·巴甫洛维奇 Томский, Михаил Павлович 1880～1936년)—538, 543, 568, 572～573, 577, 612페지

뚜라띠, 필리뽀(屠拉梯，菲力浦 Turati, Filippo 1857～1932년)—248, 293, 348～350, 398, 410, 454, 741페지

뚜르게네브, 이완 쎄르게예위치(屠格涅夫，伊万·谢尔盖也维奇 Тургенев, Иван Сергеевич 1818～1883년)—813페지

뜨로쯔끼, 레브 다위도위치(托洛茨

基，列甫・达威多维奇 Троцкий, Лев Давидович 1879～1940년)—95, 522, 524, 526, 534～564, 565～615, 786페지
뜨레베스, 끌라우디오(特雷维斯, 克罗狄奥 Treves, Claudio 1868～1933년)—349페지

ㅃ

빠따꼬브, 게오르기 레오니도위치(皮达可夫, 格奥尔基・列奥尼多维奇 Пятаков, Георгий Леонидович 1890～1937년)—522페지
뽀뜨레쏘브, 알렉싼드르 니꼴라예위치(波特列索夫, 亚历山大・尼古拉也维奇 Потрес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869～1934년)—300페지
뿌앵까레, 레몽(彭加勒, 雷蒙 Poincaré, Raymond 1860～1934년)—839페지
쁘레오브라젠스끼, 예브게니 알렉쎄예위치(普列奥布拉任斯基, 叶甫盖尼・阿列克谢也维奇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 1886～1937년)—528, 554, 556, 569, 577, 609페지
쁠레하노브, 게오르기 왈렌찌노위치(普列汉诺夫, 格奥尔基・瓦连廷诺维奇 Плеханов, Георг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1856～1918년)—253, 300, 333, 339, 448, 598, 783, 787페지
삘쑤쯔끼, 유제프(皮尔苏茨基, 约瑟夫 Pilsudski, Józef 1867～1935년)—757페지
뻬뜨롭스끼, 그리고리 이와노위치(彼得罗夫斯基, 格里哥里・伊万诺维奇 Петровский, 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1878～1958년)—577페지
뻬뜰류라, 씨몬 와씰리예위치(佩特留拉, 西蒙・瓦西里也维奇 Петлюра, Симон Васильевич 1877～1926년)—486페지

ㅆ

쏘로낀, 삐찌림 알렉싼드로위치(索罗金, 皮梯利姆・亚历山大罗维奇 Сорокин, Питирим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89～1968년)—796～797페지
쏘스놉스끼, 레브 쎄묘노위치(索斯诺夫斯基, 列甫・谢明诺维奇 Сосновский Лев Семенович 1886～1937년)—574, 576, 578페지
쏘꼴리니꼬브(索柯里尼柯夫 Сокольников 1888～1939년) 본명은 브릴리안트, 그리고리 야꼬블레위치(勃里利安特, 格里哥里・雅柯夫列维奇 Бриллиант, Григорий Яковлевич)—826페지
쑤하노브, 엔.(苏汉诺夫, 尼・Суханов, Н. 1882～1940년) 본명은 김메르, 니꼴라이 니꼴라예위치(吉姆美尔,尼古拉・尼古拉也维奇 Гиммер,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906～910페지
쓰딸린, 이오씨프 위싸리오노위치(斯大林，约瑟夫·维萨里昂诺维奇 Сталин, 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1879～1953년)—577페지
쎄라띠, 쟈친또 메노띠(塞拉蒂，札钦托·梅诺蒂 Serrati, Giacinto Menòtti 1872～1926년)—293, 447, 449, 453～454, 780, 784～785페지
쎄르게예브 (谢尔盖也夫) —아르쫌을 보라.
쎄레다, 쎄묜 빠프누찌예위치(谢烈达，谢明·帕弗努齐也维奇 Середа, Семен Пафнутьевич 1871～1933년)—149페지
쎄레브랴꼬브, 레오니드 뻬뜨로위치 (谢烈布利雅柯夫, 列奥尼德·彼得罗维奇 Серебряков, Леонид Петрович 1888～1937년)—554, 556, 569, 577페지

ㅉ

쮸루빠, 알렉싼드르 드미뜨리예위치 (瞿鲁巴, 亚历山大·德米特利也维奇 Цюрупа,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 1870～1928년)—844페지
찌미랴제브, 아르까지 클리멘찌예위치(季米里亚捷夫, 阿尔卡季·克里门齐也维奇 Тимирязев, Аркадий Климентьевич 1880～1955년)—793페지

ㅏ～ㅖ

아.쥐.(阿·日· А.Ж.)—2～5페지
아도라쯔끼, 울라지미르 윅또로위치 (阿多拉茨基, 弗拉基米尔·维克多罗维奇 Адоратский, Владимир Викторович 1878～1945년)—720페지
아들레르, 프리드리히(阿德勒, 弗里德里希 Adler, Friedrich 1879～1960년)—115, 238, 248, 257, 700페지
아르쫌(阿尔乔姆 Артем 1883～1921년) 본명은 쎄르게예브, 표도르 안드레예위치(谢尔盖也夫, 费多尔·安得列也维奇 Сергеев, Федор Андреевич)—577페지
아우스테를리쯔, 프리드리히(奥斯特尔利茨, 弗里德里希 Austerlitz, Friedrich 1862～1931년)—248페지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爱因斯坦, 阿尔伯特 Einstein, Albert 1879～1955년)—788, 793페지
악쎌로드, 빠웰 보리쏘위치(阿克雪里罗得, 巴维尔·波利索维奇 Аксельрод, Павел Борисович 1850～1928년)—300페지
압크쎈찌예브, 니꼴라이 드미뜨리예위치(阿夫克森齐也夫, 尼古拉·德米特利也维奇 Авксентьев, Николай Дмитриевич 1878～1943년)—50페지

야꼬비, 요한(雅可比，约翰 Jacoby, Johann 1805～1877년)—17페지

야꼬블레와, 와르와라 니꼴라예브나(雅柯夫列娃，瓦尔瓦拉·尼古拉也夫娜 Яковлева, Варвара Николаевна 1885～1944년)—95페지

어커트, 죤 레즐리(乌尔卡尔特，约翰·莱斯利 Urquhart, John Leslie 1874～1933년)—873페지

오르죠니끼제, 그리고리 꼰스딴찌노위치(奥尔忠尼启泽，格里哥里·康斯坦丁诺维奇 Орджоникидзе, Григор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886～1937년)—847페지

오를란도, 비또리오 에마누엘레(奥兰多，维多里奥·艾曼努埃勒 Orlando, Vittorio Emanuele 1860～1952년)—429페지

오씬스끼, 엔.(奥新斯基，恩·Осинский, Н. 1887～1938년) 본명은

오볼렌스끼, 왈레리안 왈레리아노위치(奥波连斯基，瓦列利昂·瓦列利昂诺维奇 Оболенский, Валериан Валерианович)—556, 708페지

올젠보르게르, 울라지미르 와씰리예위치(奥尔甸博尔格尔，弗拉基米尔·瓦西里也维奇 Ольденборгер,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1863～1921년)—771페지

오엔, 로버트(欧文，罗伯特 Owen, Robert 1771～1858년)—903페지

우(乌·Y.)—8페지

우란겔, 뾰뜨르 니꼴라예위치(弗兰格尔，彼得·尼古拉也维奇 Врангель, Петр Николаевич 1878～1928년)—492～493, 496～497, 553, 642, 724, 757페지

우스뜨랼로브, 니꼴라이 와씰리예위치(乌斯特里雅洛夫，尼古拉·瓦西里也维奇 Устрялов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890년에 출생)—830～831페지

유제니치, 니꼴라이 니꼴라예위치(尤登尼奇，尼古拉·尼古拉也维奇 Юденич,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862～1933년)—86, 91, 109, 128, 131, 135～136, 211, 269, 486, 642, 648, 652, 757페지

이쉔꼬, 아.게.(伊慎科，阿·格·Ищенко, А.Г. 1895년에 출생)—556페지

잉크핀, 앨버트(英克平，阿尔伯特 Inkpin, Albert 1884～1944년)—315페지

애스퀴스, 허버트 헨리(阿斯奎斯，赫伯特·亨利 Asquith, Herbert Henry 1852～1928년)—312, 318페지

에를레르, 칼(艾列尔，卡尔)—라우펜베르그를 보라.

엔.에르.(恩·尔·H.P.)—5～6페지

엘.엘.(尔·尔·)—헤르만을 보라.

엥겔스, 프리드리히(恩格斯，弗里德里希 Engels, Friedrich 1820～1895년)—56, 73, 126, 253, 263, 276, 294～295, 300, 720, 749,

751, 789～790페지

예르만스끼, 아. (叶尔曼斯基, 阿・Ерманский, А. 1866～1941년)본명은 꼬간, 오씨프 아르까지예위치(科甘, 奥西普・阿尔卡季也维奇 Коган, Осип Аркадьевич)—925페지

옘샤노브, 아.이. (叶姆沙诺夫, 阿・伊・Емшанов, А.И. 1891～1941년)—524페지

위뻬르, 로베르트 유리예위치 (维彼尔, 罗伯特・尤里也维奇 Виппер, Роберт Юрьевич 1859～1954년)—790페지

윌슨, 토마스 우드로(威尔逊, 托马斯・伍德罗 Wilson, Thomas Woodrow 1856～1924년)—426, 429페지

와르가, 예브게니 싸모일로위치(瓦尔加, 叶甫盖尼・萨莫伊洛维奇 Варга, Евгений Самойлович 1879～1964년)—451페지

왈리크(瓦尔克 Вальк)—698페지

월리스끼, 울라지미르 까지미로위치(沃尔斯基, 弗拉基米尔・卡季米罗维奇 Вольский, Владимир Казимирович 1877년에 출생)—150페지

월레스, 존(华莱斯, 约翰 Wallace, John 1868년에 출생)—314페지

와인코프, 다비드 (怀恩科普, 戴维 Wijnkoop, David 1877～1941년)—356, 357, 453페지

월프하임, 프리쯔(沃尔弗海姆, 弗里茨 Wolffheim Fritz)—264페지

웬델, 프리드리히(文德尔, 弗里德里希 Wendel, Friedrich 1886～1960년)—264페지

本书根据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编译的，人民出版社1976年5月出版的汉文版翻译出版。

이 책은 중공중앙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저작편역국에서 편집 번역한, 인민출판사 1976년 5월에 출판한 한문판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列 宁 选 集

（第四卷）

（朝鲜文）

中央马列著作毛泽东著作
民族语文翻译局翻译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31 3/4

1984年4月第1版

1984年4月北京第1次印刷

印数：0001—1,000册 定价：（上下册） 1.85元

书号：M 1049（6）304